

호남선현문집 국역총서 6

錦城三稿

금성삼고

나덕명 羅德明 지음

나덕준 羅德峻

나덕운 羅德潤

나사침 羅士忱

일러두기

1. 이 책의 번역 대본은 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 《금성삼고(錦城三稿)》로 하였다.
2. 내용이 간단한 역주는 간주(間註)로, 긴 역주는 각주(脚註)로 처리하였다.
3. 한자는 필요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넣었으며, 운문(韻文)은 원문을 병기하였다.
4.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랐다.
5. 이 책에 사용한 부호는 다음과 같다.
 - (): 번역문과 음이 같은 한자를 묶는다.
 - [] : 번역문과 뜻이 같으나 음이 다른 한자를 묶는다.
 - “ ” : 대화 등의 인용문을 묶는다.
 - ‘ ’, “ ” : ”안의 재인용 또는 강조 문구를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 책명 및 각주의 전거(典據)를 묶는다.
 - 〈 〉 : 책의 편명 및 운문 산문의 제목을 묶는다.
 - ■ : 원문의 결자 빈자리를 비워 둠을 나타낸다.

번역문 | 원문

- 11 《금성삼고》 체제와 내용
- 30 316 소포금암금봉삼고합부 서문(1)
嘯浦錦巖錦峰三稿合部序【一】
- 34 317 소포금암금봉삼고합부 서문(2)
嘯浦錦巖錦峰三稿合部序【二】

《소포유고》

오언절구 五言絕句

- 40 320 창랑 자정 임탁의 새집에서 쓰다 題林滄浪子定恹新齋
- 40 320 박진사에게 주다 贈朴進士
- 41 320 박진사의 시에 차운하다 次朴進士韻
- 41 320 취하여 읊다 醉吟
- 41 321 장난삼아 짓다 戲題
- 42 321 배를 타고 우연히 읊다 乘舟偶吟
- 42 321 거문고를 읊다 詠琴
- 43 321 어떤 사람에게 주다 贈人
- 43 321 강가의 정자에서 즉흥적으로 읊다 江亭卽事
- 43 322 우연히 읊다 偶吟
- 44 322 김생을 방문했는데 만나지 못해 시를 남기다 訪金生不遇留詩
- 44 322 감회가 있어 有感
- 45 322 가을 생각 秋思
- 45 322 소나무와 대나무를 읊다 詠松竹

칠언절구 七言絶句

- 46 323 아우에게 부치다 寄畬弟
- 47 323 제독 중신 정상의 시에 차운하다 2수 次鄭提督仲愼詳韻 二首
- 48 323 삼가 아버지의 시에 차운하여 니산 충의 한응몽에게 주다
謹次嚴君韻贈尼山韓忠義應夢
- 48 323 대안서재에서 아버지를 모시는데 거문고 소리를 듣고 시를 읊어 올리다
大安書齋奉侍嚴君聽琴詠詩以獻
- 49 324 아버지의 차운시 嚴君次韻
- 49 324 새벽에 일어나 曉起
- 49 324 산속 집에서 즉흥적으로 읊다 山家卽事
- 50 324 한한정 임탄에게 부치다 寄林閑閑亭坦
- 50 324 산가에서 밤에 묵으며 山家夜宿
- 51 325 취하여 읊다 醉吟
- 51 325 객지에서 우연히 읊다 客中偶吟
- 52 325 한가한 중에 회포를 읊다 閑中詠懷
- 52 325 영장사 시축에 읊다 題靈藏師詩軸
- 53 325 법천사에 도착해서 태수에 부치다 到法泉寺寄太守
- 53 326 스님과 술을 마셨는데 모정에 이르니 취하다 飲僧酒到茅亭醉

오언율시 五言律詩

- 54 327 새상계축도 塞上契軸圖
- 55 327 좌의정 두암 김응남을 애도하다 挽左相金斗巖應南
- 56 327 술에 취하여 강여관과 덕휘 두 현인에게 주다
醉贈姜汝寬德輝二賢
- 57 328 능허정 시에 차운하다 次凌虛亭韻

- 58 328 유선당에 쓰다 題留仙堂
- 59 328 아버지의 명으로 목백 임윤신의 시에 대신 차운하다
以嚴君命代次牧伯任公允臣韻
- 60 328 우연히 읊다 偶吟
- 61 329 유 정자와 이별하며 別兪正字

칠언율시 七言律詩

- 62 330 영암태수가 월출산 소나무를 읊은 시에 차운하다
次靈岩太守詠月出山松韻
- 63 330 시축의 시에 차운하다 次詩軸韻

오언고시 五言古詩

- 64 331 백수가 白叟歌
- 64 331 선영에 오르니 감회가 있어 上丘墓有懷
- 66 332 북지당 北池塘
- 67 332 술에 취하여 강여관과 덕휘 두 현인에게 주다
醉贈姜汝寬德輝二賢

오언배율 五言排律

- 68 333 친구에게 주다 贈友人

칠언고시 七言古詩

- 71 334 감회를 우연히 읊다 感懷偶吟
- 73 334 감회사 感懷詞
- 74 334 도성으로 돌아가는 형 군문 개를 전송하며 送邢軍門玠還京師

칠언장편 七言長篇

- 80 337 한 장수가 공을 이루면 일만 해골이 썩나니 一將功成萬骨枯
83 338 삼 년의 피리 소리 속에 관산의 달 三年笛裡關山月
85 339 망제가 춘심을 두견새에 의탁하다 望帝春心托杜鵑
88 340 좋은 새는 멋대로 날지 않는다 好鳥不妄飛

부 賦

- 91 341 임하탄 臨河歎
94 341 증삼이 왔으나 문하에 들이지 않다 參來不納門

서 書

- 95 342 병조판서 홍여순에게 보내는 편지 與洪兵判書
100 343 좌의정 오리 이원익에게 올리는 편지 上左相李梧里元翼書
103 344 정 참봉에게 보내는 편지 與鄭參奉書

소 疏

- 107 346 병신봉사 丙申封事

《금암습유》

- 128 352 기해봉사 己亥封事
137 354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 與人書
138 355 세 아들 찬소, 계소, 위소에게 경계하다 戒三子纘素繼素緯素
141 356 또 又

《금봉습고》

144	358	을미봉사 乙未封事
158	362	서애 유성룡의 회계 柳西厓成龍回啓
161	363	곤재 정개청 선생에게 올린 편지 上困齋鄭先生書
164	364	답서를 붙이다 附答書
168	365	어떤 사람에게 보낸 편지 與人書
169	365	부제학 학봉 김성일에게 올린 편지 上鶴峰金副提學誠一書
170	366	별지 別紙
173	367	참의 구암 명길 한백겸에게 보낸 편지 與久庵韓參議鳴吉百謙書
176	368	영의정 한음 이덕형에게 올린 편지 上領相李漢陰德馨書
178	368	좌랑 목대흠에게 보낸 편지 與睦左郎大欽書
179	369	순상 우복 정경세에게 올린 편지 上巡相鄭愚伏經世書
180	369	별지 別紙
184	370	오현서원 봉안 제문 五賢書院奉安祭文
187	371	동강 김우옹 문장의 <우분시>에 삼가 차운하다 敬次金東岡文丈憂憤詩韻
190	372	동강의 원운시 原韻

《소포유고》

부록 附錄

194	374	조선 승훈랑 행 의금부도사 소포 나공 사실기 有明朝鮮國承訓郎行義禁府都事嘯浦羅公事實記
201	376	조선 증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 행 선교랑 보은현감 금암 나공 사실기 有明朝鮮國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 行宣教郎報恩縣監錦巖羅公事實記

목차

212	380	조선 통훈대부 행 사헌부 감찰 금봉 나공 사실기 有明朝鮮國通訓大行司憲府監錦峰羅事實記

222	383	《금봉유사》의 뒤에 쓰다 題錦峰遺事後

부록보유 附錄補遺

226	386	임진년에 의병을 일으킨 일을 기록하다 記壬辰舉義事

230	387	장계 초 狀啓抄

232	388	의려록 초 義旅錄抄

233	389	영흥에서 나극지의 시에 차운하여 증별하다 永興次羅克之韻因贈別

부사문간찰초 附師門簡札抄

236	392	나대지에게 보낸 편지 與羅大之書

237	392	또 又

238	393	나유지에게 낸 편지 與羅有之書

240	393	금성삼고 발문 錦湖遺事跋

《금호유사》

244	396	금호유사 서문(1) 錦湖遺事序

245	396	금호유사 서문(2) 錦湖遺事序

247	397	세계 世系

저술 著述

253	400	대안서재에 머물며 한충의에게 보냄 在大安書齋贈韓忠義

253	400	차운하다 次韻

253	400	다시 한충의에게 보냄 又贈韓忠義
254	400	대안서재에 머물며 큰아들 나덕명이 거문고소리를 듣고 지어 올린 시에 차운하여 在大安書齋次伯子德明聽琴吟呈韻
254	400	원운 原韻
255	401	목백 영공 임윤신의 시에 차운하여 次牧伯任令公允臣韻
255	401	차운시 次韻
257	401	금성관 방회연 자리에서 재독 정인귀의 시에 차운하여 장원을 했던 방백 윤두수에게 바치다 錦城館榜會宴席次鄭提督仁貴韻呈壯元尹方伯斗壽
265	402	정해일기 초 丁亥日記抄
270	409	만력 연간에 올린 글 萬曆中呈文
272	409	유묵 遺墨
273	410	포장 褒獎
275	411	만력 경인년(1590)에 심문할 때의 전교 萬曆庚寅就理時傳教
276	411	사실기 事實記
285	414	묘갈명 墓碣銘
290	416	묘갈명 墓碣銘
294	417	행적집록 行蹟輯錄

여러 공들의 시편 諸公詩章

301	420	나중부의 시에 차운하여 선릉재소에 올리다 次羅仲孚韻仍呈宣陵齋所
302	421	또 又
302	421	또 又
302	421	또 又
303	421	또 又

목차

303	421	또 又
304	422	다시 칠언사운에 차운하여 又次七言四韻
304	422	다시 오언사운에 차운하여 又次五言四韻
305	422	또 又
306	423	나중부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며 送羅仲孚解官歸鄉
306	423	삼가 옛 성주의 시에 차운하여 산재의 고요한 책상에 올리다 謹次舊城主韻仍呈山齋靜案
307	423	나니산의 산재 고요한 책상에 바치다 吟呈羅尼山山齋靜案
307	423	금성 객관의 방회연에서 제독 정인귀의 시에 차운하여 동년들에게 보이며 화답을 구하다 錦城館榜會宴席 次鄭提督仁貴韻 示諸同年索和
308	424	또 근체시를 지어 동년배들에게 주다 又近體贈諸同年
309	424	차운 次韻
310	424	만사를 붙이다 附挽詞
310	424	나니산 어른의 만사 挽羅尼山丈
311	425	사우록 師友錄

《錦城三稿》체제와 내용

나상필(羅相弼)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일반연구위원

1.개요

『금성삼고(錦城三稿)』는 소포(嘯浦) 나덕명(羅德明, 1551~1610)의 『소포유고(嘯浦遺稿)』, 금암(錦巖) 나덕준(羅德峻, 1553~1604)의 『금암습유(錦巖拾遺)』, 금봉(錦峯) 나덕윤(羅德潤, 1557~1621)의 『금봉습고(錦峯拾稿)』를 한데 모아 세고(世稿)의 형태로 편찬한 책인데,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2020 호남한국학진흥지원사업 중 호남문헌 국역 및 편찬의 일환으로 『금성삼고』를 국역하면서 나덕명, 나덕준, 나덕윤의 부친 금호(錦湖) 나사침(羅士忱, 1525~1596)의 『금호유사(錦湖遺事)』를 합본하여 발행하였다.

나사침을 비롯하여 세 아들은 후세에 목릉성세(穆陵盛世)라고 불릴 만큼 문화가 크게 발달했던 시대의 문인이지만 정여립과 관련된 기축옥사와 왜구의 침략인 임진왜란 등 역사의 변환점에서 활동하였던 인물이다.

일찍이 동계(桐溪) 정온(鄭蘊, 1569~1641)의 증손인 정중원(鄭重元, 1659~1726)이 지은 「소포금암금봉삼고합부서(嘯浦錦巖錦峰三稿合部序)」에 3형제의 문장과 덕망에 대하여

소포의 말은 기개가 있어 남에게 구속을 받지 않으며, 금암의 말은 간절하고 진실하면서 차례가 있고, 금봉의 말은 곧고 정확하면서 구차하지 않은데, 효제(孝弟)를 근본으로 삼음은 똑같았으니 어찌 한 기운으로 태어나 한 가정에서 얻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또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 곤재(困齋) 정개청(鄭介淸),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顙), 구암(久庵) 김취문(金就文),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다산(茶山) 목대흠(睦大欽) 등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

여러 현인들이 그 사람됨을 덕망있다 여기고, 논변한 것은 의리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으니 어찌 등한시 할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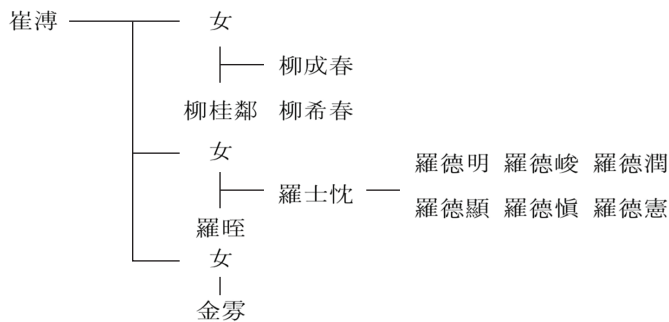
라고 하였다. 이로써 보면, 3형제는 구속받지 않는 진실한 문장으로 누구보다도 문장에 대한 재능이 남달랐고, 아버지 나사침의 영향으로 효제(孝弟)를 근본으로 삼았다. 그리고 스승인 곤재(困齋) 정계청(鄭介淸, 1529~1590)의 신원(伸冤)을 위해 당대의 저명한 인사들과 교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나사침은 16세에 어머니 병환으로 단지(斷指)를 한 효행이 세상에 알려져 유일(遺逸)로 천거되었으니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효행편에 「사침단지(士忱斷指)」에 기록되어 있다.

1584년(선조 17)에 당시 나주 목사였던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1538~1593)과 나덕명, 나덕준, 나덕운은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인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을 배향하기 위해 나주 서문 5리 밖 금성산 아래 대곡동(大谷洞)에 경현서원(景賢書院)을 건립하였으니 당시에는 금양서원(錦陽書院)이라고 이름하였다. 이때 나주훈도(羅州訓導), 곡성현감(谷城縣監)을 역임한 정개청을 초대 원장으로 초빙하였다. 그는 정치적으로 높은 직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호남 내에서는 나사침의 아들을 비롯하여 인재(忍齋) 최홍우(崔弘宇, 1562~1636), 수정(守貞) 윤제(尹濟, 1562~1645), 동애(桐崖) 안중묵(安重默, 1556~1607) 등 동인계 사족들이 추종하였다.

2. 나주나씨 일가의 생애

나주나씨는 북송 말기에 봉명사신(奉命使臣)으로 동도(東渡)하여 고려 시대에 감문위(監門衛) 상장군(上將軍)을 지낸 나부(羅富)를 시조로 하며, 7세 저헌(樗軒) 나공언(羅公彦)은 나성군(羅城君)에 봉작되었고, 11세 나일손(羅逸孫)은 전연사 직장(典涓司直長)을 지냈는데, 기묘사화 때 조광조의 규명을 위해 나주 출신 태학관 유생 11명이 결성한 금강계(錦江契)의 일원이었다. 나일손에게 나창(羅昶), 나고(羅高), 나요(羅曜), 나질

(羅睪), 나서(羅曙) 다섯 아들이 있었다. 나창과 나요는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아갔고, 나고와 나서도 소과에 급제하였으니 당대에 가문의 명성이 빛났다. 나질(羅晳, 1488~1566)은 무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역임하였으며 또한 금남(錦南) 최부(崔溥, 1454~1504)의 둘째 사위가 되니 나질의 자손들은 최부의 큰사위 외손자인 미암(眉庵) 유희춘(柳希春, 1513~1577)과 이종(姨從) 간으로 교류가 두터웠다. 다음은 최부의 가계도이다.



나사침의 자(字)는 중부(仲孚), 호는 금호이다. 아버지는 호조 참판(戶曹參判)에 추증된 나질이고, 어머니는 금남 최부의 딸 탐진최씨였다. 나사침은 파평윤씨 부사(府使) 윤언상(尹彦商)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 넷을 두었으나, 셋째 아들 나덕진(羅德進)이 요절하였으며, 광주정씨 첨사(僉使) 정호(鄭虎)의 딸과 재취(再娶)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았다. 두 부인 사이에서 나덕명, 나덕준, 나덕윤, 나덕현(羅德顯, 1565~1625), 나덕신(羅德愼, 1568~1610), 나덕헌(羅德憲, 1573~1640) 6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씨의 ‘육룡(六龍)’, ‘육덕(六德)’이라 칭송하였다.

나사침은 이소재(履素齋) 이중호(李仲虎, 1512~1554)의 문하를 출입하면서 1555년(명종 10)에 시행된 을묘방(乙卯榜) 생원시에 3위로 합격하였고, 1568년(선조 1)에 서교(西郊) 송찬(宋贊, 1510~1601)이 호남을 순찰하다가 전라도의 훌륭한 선비로 김응기(金應箕), 김천일(金千鎰), 유희인(俞好仁), 김운(金胤), 나사침 다섯 사람을 천거했는데, 나사침을 그 중 으뜸으로 여기고 학문과

행실이 갖추어졌다고 칭송하였다. 1571년(선조 4)에 선릉참봉(宣陵參奉)에 제수되었으며, 5년 뒤 1576년(선조 9)에 경기전참봉, 의금부도사, 종묘직장, 사헌부감찰 등을 역임하였다. 1584년(선조 17)에 외지로 나가 니산현감(尼山縣監)이 되어 청덕거사비(淸德去思碑)를 세울 정도로 정치가 청렴하고 간결하였다. 1589년(선조 22)에 기축옥사가 일어나자 동복(同福) 사람인 정암수(丁巖壽, 1534~1594), 양천경(梁千頃), 홍천경(洪千璟, 1553~1632) 등 30여 명이 상소를 올려 정여립(鄭汝立, 1546~1589)과 관련된 자들에게 벌할 것을 요청한다. 이 상소에 나사침과 나덕명, 나덕준, 나덕윤의 이름이 거론되어 3형제는 경성(鏡城), 부령(富寧), 회령(會寧)으로 유배되었지만, 『후한서(後漢書)』 「위표열전(韋彪列傳)」에 나온 ‘효자의 가문에서 반드시 충신을 구한다[求忠臣必於孝子之門]’라는 내용을 인용한 선조의 전교(傳敎)로 나사침만 석방된다. 이후 나사침은 1596년(선조 29) 12월 23일 향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다음은 나사침의 아들 6명을 간단히 표로 소개한다.

이름	생몰	호/자	과거이력	벼슬/활동	문헌
나덕명 (羅德明)	1551~1610	嘯浦/克之	1579(선조 12) 기묘 식년시 2등 9위(14/100)	·의금부도사 ·임진왜란 의병 ·선무원종공신	嘯浦遺稿
나덕준 (羅德峻)	1553~1604	錦巖/大之	1587(선조 20) 생원시 6등	·사포서 별좌 ·보은현감	錦巖拾遺
나덕윤 (羅德潤)	1557~1621	錦峰/誠之, 有之	1588(선조 21) 무자 식년시 2등 13위(18/100)	·현능참봉 ·청암도 찰방 ·오위도총부 ·의금부도사	錦峯拾稿
나덕현 (羅德顯)	1565~1625	潘溪/得之, 晦之			潘溪遺蹟
나덕신 (羅德愼)	1568~1610	靈巖/擇之	1591년(선조 24) 신묘 별시 병과 84위 (119/300)	·무장현감 ·노량전투 참가 ·선무원종공신 1등 ·영암군수	靈巖遺蹟
나덕헌 (羅德憲)	1573~1640	壯巖/憲之	1603년(선조 36) 무과 급제	·선전관 ·봉산군수, 창성부사 등 ·삼도통어사 ·시호 충열(忠烈)	壯巖遺蹟

나덕명의 자는 극지, 호는 소포 또는 귀암(龜巖)이다. 울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의 문하에서 공부하다가 곧재 정개청을 스승으로 삼았고, 1579년(선조 12) 진사시에 합격하여 전조(銓曹)의 천거로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에 제수되었다. 1589년(선조 22)에 기축옥사에 연루되어 함경북도 경성으로 귀양을 가게 된다. 이때 아우들도 각각 귀양을 떠나며 나덕명은 유배지에서 『시경(詩經)』의 「척호(陟岵)」의 내용을 담아 부모와 형제들을 그리는 마음의 시를 남기니 다음과 같다.

변방의 구름은 아득하고 기러기도 무정하니	關雲迢遞雁無情
외로운 성 어느 곳인들 부모 형제 생각나네	何處孤城憶父兄
꺼져가는 촛불 밤 깊은데 서리 맞은 잎 소리에	殘燭夜深霜葉響
꿈속에서도 연못의 풀은 자랄 수가 없구나	夢中池草不能生

나덕명은 유배 도중 1592년(선조 25)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당시 임해군(臨海君) 이진(李璡, 1574~1609)은 함경도로 피난 중이었고, 순화군(順和君) 이보(李垸, 1580~1607)는 근왕군 및 의병을 모집하기 위해 강원도로 가고 있었는데, 적장 가등청정(加藤清正)이 쳐들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회령으로 피난하던 도중 국경인(鞠景仁), 국세필(鞠世弼), 정말수(鄭末守) 등이 반란을 일으켜 두 왕자를 비롯하여 김귀영(金貴榮, 1520~1593), 황정옥(黃廷彥, 1532~1607) 등을 잡아두고 왜적과 대응하였다. 이때 북평사(北評事) 정문부(鄭文孚, 1565~1624), 이성임(李聖任, 1555~?), 오응태(吳應台) 등이 의병을 일으키고, 나덕명은 구암(久菴) 한백겸(韓百謙, 1552~1615)과 함께 참여하였다. 이후 쌍포(雙浦)·백담교(白塔橋) 싸움에 참전하였으며, 1594년(선조 27) 해배(解配)된 뒤에는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 1537~1599)과 함께 일본에 대적하였다. 정유재란 때에는 전남 무안군 주룡(住龍)에서 아버지의 시묘살이 중이었음에 습정(習靜) 임환(林權, 1561~1608)과 의병을 일으켜 전라남도 화순(和順) 등지에서 전공을 세웠다. 만년에 무안에서 은거하며 주룡 적벽(住龍赤壁) 위에 적벽정(赤壁亭)과 와룡정(臥龍亭)을

짓고 1610(광해군 2) 5월 28일 향년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공적으로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녹훈(錄勳)되었고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추증되었다. 1803년(순조 3)에는 충신으로 정려(旌閭)되어 무안군(務安郡) 일로읍(一老邑) 청호리(淸湖里) 주룡(住龍) 마을에 충신각(忠臣閣)이 건립되었으며, 도내 사림이 소포사(嘯浦祠)를 지어 그를 배향하였으나,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손되었다. 그 외 나주 금호사(錦湖祠), 고양(高陽) 충장사(忠莊祠) 등에 배향되었다.

나덕준의 자는 대지(大之), 호는 금암(錦巖)이다. 어려서 미암 유희춘에게 수학하였고, 범애(汎愛) 유조인(柳祖認), 정산(鼎山) 박동(朴洞), 서파(西坡) 신의경(申義慶)과 교유하였으며 『예경(禮經)』을 강론하였다. 아버지 나사침과 도성에 있다가 나주로 가려는데, 율곡 이이와 사암(思庵) 박순(朴淳, 1523~1589)의 추천으로 곧재 정개청을 스승으로 삼았다. 1587년(선조 20)에 전라도 영광(靈光)에서 실시된 생원시에 합격하고, 동생 나덕윤은 생원·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589년(선조 22)에 기축옥사가 일어나고 1590년(선조 23) 여름에 정개청이 체포를 당하였다. 이때 나덕준을 비롯한 형제들은 정암수의 상소를 저지했다는 사유로 심문을 받고 나덕준은 부령으로 유배되었다가 1593년(선조 26)에 해배된 뒤에 정개청을 위해 신원(伸冤) 운동을 펼쳤다. 1594년(선조 27)에 두암(斗巖) 김응남(金應南, 1546~1598)의 천거로 망운(望雲) 감목관(監牧官) 겸(兼) 장모속사(掌募粟事)에 제수되었고, 이듬해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이 논계(論啓)를 올리라며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의 종사관으로 나덕준을 추천한 일이 『서애유고(西厓遺稿)』에 실려 있다. 그해 사포서(司圃署) 별좌(別坐)에 임명되었지만 아버지의 병환으로 벼슬에 나가지 않았고, 1599년(선조 32)에 보은 현감(報恩縣監)에 제수되었다. 나덕준은 1604(선조 37) 2월 3일 향년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나덕윤의 자는 유지(有之)·성지(誠之), 호는 금봉(錦峰)이다. 15세에 학문을 시작하여 16세에 문장을 통달하니 경례(景禮) 이언양(李彦讓, 1531~?), 하서

(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 등 문인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하였다. 둘째 형 나덕준과 마찬가지로 미암 유희춘에게 수학하였고, 율곡과 사암의 추천으로 정개청을 스승으로 삼았다. 1588년(선조 21)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이듬해 기축옥사에 연루되어 귀양을 갔다가 나덕준, 나덕명과 마찬가지로 정개청의 신원 운동을 펼치면서 3형제 중 가장 먼저 「을미봉사(乙未封事)」 상소를 올렸다. 광해군 초 무신년(1608)에 왕자의 사부에 의망(擬望)되었다가 3월에 금부도사(禁府都事), 12월에 청암도찰방(靑巖道察訪)에 제수되었다. 1613년(광해군 5)에 또 금부도사가 되었다가 다시 경력(經歷)이 되었으며, 1614년(광해군 6)에 사재감주부(司宰監注簿)로 승진했다가 7월에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이 되었다. 그해 8월 정부인(鄭夫人)이 세상을 떠나자 삼년상을 마치고 세상에 뜻을 두지 않았다. 나덕운은 1621(광해군 13) 윤2월 28일 향년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3. 금성삼고의 편찬과 체제

『금성삼고』는 나주나씨의 가숙(家塾)에서 가문의 충의(忠義)를 현창(顯彰)하기 위해 나덕명의 『소포유고』를 간행하면서 나덕준과 나덕운 약간의 유고(遺稿)를 덧붙여 합편한 것으로 나덕준의 증손 약헌(藥軒) 나두동(羅斗冬, 1658~1728)이 나덕명의 현손 나만운(羅晩運)과 나덕운의 증손 나두흥(羅斗興)과 함께 오래도록 계승되기를 도모하며, 1721년(경종 1)에 나두동이 3형제 각각의 사실기(事實記)를 쓰고, 동계 정온의 증손 정중원과 차호(叉湖) 민암(閔黯, 1636~1693)의 손자 민창도(閔昌道, 1654~1725)의 서문을 받아 1723년(경종 3)에 『소포금암금봉삼고합부(嘯浦錦巖錦峯三稿合部)』라는 이름으로 복판본을 간행하였다.

『금성삼고』의 목차를 살펴보면 나덕명의 『소포유고』는 시(詩), 부(賦), 서(書), 소(疏) 등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집으로서 틀을 갖추고 있지만, 나덕준의 『금암습유』와 나덕운의 『금봉습고』는 습유(拾遺), 습고(拾稿)라고 이름 하에 문집처럼 만들어졌다. 이것은 당시에 문집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글을 주워 모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정개청의 『우득록(愚得錄)』을 살펴보면 나덕준에게 보낸 편지가 40여 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글이 적지만은 않았을텐데 기축옥사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일실(逸失)된 것으로 보인다. 나두동이 소량의 글임에도 불구하고 『금성삼고』를 간행한 이유에 대해 정중원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체로 고금 사람들의 문집이 세상에 간행되어 많은 것은 수십 권, 작은 것은 한두 권이나 더러는 흩어지고 남은 몇 편의 글귀에 불과하여 유사(遺事) 사이에 덧붙여 전해질 뿐이다. 그 시를 외우고 그 문을 읽어 그 사람을 살피고 그 시대를 논하고자 한다면 수십 권도 넉넉한 것이 아니지만, 또한 두어 편도 부족한 것은 아니다. 만일 세상에서 세 현인의 주옥같은 책 한 권을 보배로 여긴다면 그 사람의 평생을 상상해 보는 데 또한 충분하니, 어찌 반드시 많은 것만 귀하다고 하겠는가? 한 점의 고기로 큰 솥의 고기 맛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진실로 여기에 있다.

나두동은 『금성삼고』를 간행한 뒤 자손들에게 충(忠)·효(孝)·열(烈)의 근간을 남긴 금호 나사침의 유고가 세월이 흐를수록 일실(逸失)되는 것을 염려하여 「세계(世界)」, 「저술(著述)」, 「유묵(遺墨)」 등의 순으로 유고를 엮고, 1725년(영조 1)에 나두동의 서문, 1726년(영조 2) 정중원의 서문과 함께 『금호유사』를 간행하였다.

(재)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한 『금성삼고』는 『소포유고』, 『금암습유』, 『금봉습고』를 비롯하여 『금호유사』까지 포함하고 있다. 각 문집의 구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포유고』는 5언절구(五言絕句) 14수, 7언절구(七言絕句) 16수, 5언율시(五言律詩) 8수, 7언율시(七言律詩) 2수, 5언고시(五言古詩) 4수, 5언배율(五言排律) 1수, 7언고시(七言古詩) 3수, 7언장편(七言長篇) 4수, 부(賦) 2편, 서(書) 3편, 소(疏) 1편이 수록되었다. 『소포유고』 부록(附錄)에는 소포·금암·금봉 각각의 사실기(事實記)를 포함한 4편이 실렸고, 부록 보유(補遺)에는

이식(李植), 정문부(鄭文孚), 박흥종(朴興宗) 등의 시문이 4편이 실렸으며, 부록 사문(斯文) 간찰초(簡札抄)에는 곤재 정계정이 보낸 편지 3편이 실렸다.

『금암습유』는 소(疏) 1편, 서(書) 1편과 나덕준이 나찬소(羅纘素)·나계소(羅繼素)·나위소(羅緯素) 세 아들에게 남긴 계문(戒文) 2편이 수록되었고, 『금봉습고』는 소(疏) 1편, 회계(回啓) 1편, 제문(祭文) 1편, 시 2수와 정개청·김성일·한백겸·이덕형 등에게 보낸 편지 8편이 수록되었다.

『금호유사』는 세계(世系), 시 8수, 일기 1편, 정문(呈文) 1편, 전교(傳敎) 1편, 사실기·묘갈명(墓碣銘)·묘지명(墓誌銘)·유묵(遺墨)·포장(褒獎) 각각 1편, 행적집록(行蹟輯錄) 1 편, 제공시장(諸公詩章)에 시 22수, 만사(挽詞) 1수, 사우록(師友錄) 1편으로 구성되었다.

4. 『금성삼고』의 내용

『금성삼고』의 가장 큰 특징은 기축옥사와 스승 정개청의 신원 운동을 일삼은 3형제의 삶인데, 후술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각 문집별 주요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포유고』는 대부분 시로 구성되었다. 나덕명의 시를 짓는 방법은 용사론(用事論)으로 고어(古語), 경서(經書) 구절, 고사(古事) 등을 인용하여 신의(新意)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중 당나라 시인이 지은 작품 속의 한 구절을 제목으로 삼아 자신의 감회를 표출하였는데 대표적인 작품 중에 첫째, 1579년(선조 12) 진사시에 합격하였을 때 지은 작품 「한 장수가 공을 이루면 일만 해골이 썩나니[一將功成萬骨枯]」이다. 이 시는 당나라 조송(曹松, 828~903)의 「기해세(己亥歲)」의 「憑君莫話封侯事, 一將功成萬骨枯」구절을 제목으로 삼아 전쟁에서 장수는 큰 공훈을 세우지만 그에 따른 많은 희생이 수반된다는 의미로 희생의 가치가 있는 전쟁은 없다는 뜻으로 읊었고, 이 시의 후반부에 자신의 바람을 담고 있다.

... 중 략 ...

세상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장수 없으니	不戰而勝世無將
가련하구나! 어리석은 우리 백성 어육이 되었네	可憐魚肉吾民愚
지금도 전장에 비바람 부는 저녁이면	至今沙場風雨夕
흐느끼는 귀신 통곡 소리 하늘까지 닿네	啾啾鬼哭于雲衢
다소간의 공을 이룬 장수들에게 말하노니	爲語多少成功將
이 말을 들으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聽此寧不悲來乎
원컨대 우리 임금께서 간우를 쥐고 춤추시면	願言吾王舞干羽
유묘가 귀순하듯 대궐로 달려오기를	一格有苗彤墀趨
장군과 사졸에게 기이한 공을 요구하지 말고	休令將士責奇功
동포들의 몸을 온전하게 하기를	要使同胞全其軀

둘째, 1589년(선조 22)에 기축옥사로 함경북도 경성으로 유배를 떠나 유배지에서 읊은 작품 「삼 년의 피리 소리 속에 관산의 달[三年笛裡關山月]」이다. 이 시는 당나라 두보(杜甫, 712~770)의 「세병마행(洗兵馬行)」의 ‘三年笛裡關山月, 萬國兵前草木風’구절을 제목으로 삼아 유배지에서 당시 임진왜란으로 황폐한 변방의 모습과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여 가족과 떨어져 있는 이별의 아픔을 잘 나타내었다.

나덕명은 자신의 말만 되풀이하여 그저 평범한 의미에 그칠 수 있는 시를 용사의 작법으로 고사를 잘 인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외에도 「박진사에게 주다[贈朴進士]」는 항왕(項王)의 고사, 「김생을 방문했는데 만나지 못해 시를 남기다[訪金生不遇留詩]」는 두보의 「봉증사홍이사장(奉贈射洪李四丈)」, 「새벽에 일어나[曉起]」는 『장자(莊子)』 「재물론(財物論)」 등 다수의 시에서 용사의 작법이 돋보인다.

부(賦)에서 「임하탄(臨河歎)」은 『사기(史記)』의 「공자세가(孔子世家)」에서 「공자가 위(衛)나라에서 등용되지 못하자 진(晉)나라로 가서 조간자(趙簡子)를 만나러 하였는데, 하수(河水)에 이르렀을 때 조간자가 정권을 잡고 어진 대부인 두명독(竇鳴犢)과 순화(舜華)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강물에 서서 탄식하기를, ‘아름답다, 물이여. 넓고도 넓구나! 내가 이 물을 건너지 못함은 운명이로다.’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공자가 조간자를 만나지 않으려는 상황을 서술하였다. 「증삼이 왔으나 문하에 들이지 않다[參來不來門]」은 『공자가어(孔子家語)』에서 증점(曾點)이 아들 증삼(曾參)을 몽둥이로 때려서 하마터면 죽일 뻔한 일을 소재로 죽은 척한 증자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서술하였다.

서(書)에서 1599년 「병조판서 홍여순에게 보내는 편지[與洪兵判書]」는 둔전(屯田)에 대해 유사(有司)의 권한이 지방 수령의 권한보다 커서 남용되고 있을 뿐 식량 증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며 둔전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1600년 「좌의정 오리 이원익에게 올리는 편지」는 친구 이유경(李有慶, ?~1609)과 동생 나덕현을 좌의정 이원익에게 추천하는 내용이다.

소(疏)는 1596년에 올린 「병신봉사(丙申封事)」이다. 이 글은 ‘하늘의 뜻을 돌리고 인심을 결속시킨다.[回天意結人心]’는 말을 중심으로 정여립의 옥사에 대한 건의로 당화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 없이 억울하게 연루되어 희생당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왜적과 싸우고 있는 이때에 백성들의 결속을 이룰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다.

『금암습유(錦巖拾遺)』는 총 4편의 산문으로 구성되었다. 후술하겠지만 1599년 「기해봉사(己亥封事)」는 3형제 중 마지막으로 올린 상소로 나덕명처럼 억울하게 처벌된 스승 정개청을 신원(伸冤)하는 상소이다. 세 아들에게 경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글 「세 아들 찬소, 계소, 위소에게 경계하다[戒三子續素繼素緯素]」 2편이다. 이 글은 세 아들이 『소학(小學)』과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익혀 예의로 자신을 단속하고, 사서(四書)와 육경(六經)을 통달하여 이치에 정밀한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금봉습고(錦峰拾稿)』는 대부분 편지로 구성되었다. 1577년 「곤재 정개청 선생에게 올린 편지[上困齋鄭先生書]」는 주자의 제자인 황면재(黃勉齋, 1152~1221), 왕백(王栢, 1197~1274), 김인산(金仁山, 1232~1303)이 모두 주자 문하의 적통이었으나, 스승을 위해 조복을 입는 결정에서 조금씩 상이한 모습을 보였으니, 그에 따른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부제학 학봉 김성일에게 올린 편지[上鶴峯金副提學誠一書]」는 남인계 대표 인물로

당시 나주 목사로 부임할 당시 경현서원을 함께 건립하였던 김성일에게 기축옥사가 발생했을 때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였다. 이외에 「참의 구암 명길 한백겸에게 보낸 편지[與久庵韓參議鳴吉百謙書]」와 「영의정 한음 이덕형에게 올린 편지[上領相李漢陰德馨書]」 역시 기축옥사 때 억울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정유재란 때 나주에 있는 경현서원이 소실되었는데 1609년(광해군 1)에 나주 목사로 부임한 목장흠(睦長欽, 1572~1641)이 재건하였고, 나덕명은 경현서원의 원장으로 임명되어 경현서원 대소사를 함께 경영하였다. 이때 나덕운은 목장흠의 아우인 목대흠(睦大欽)에게 「좌랑 목대흠에게 보낸 편지[與睦左郎大欽書]」를 보내 서로 교류를 하였고, 1610년(광해군 2)에 전라도 감찰사로 부임한 정경세(鄭經世, 1563~1633)에게 경박한 풍습으로 유학의 근원이 황폐되고 인심이 분열된 상황을 잘 살펴주기를 당부한 「순상 우복 정경세에게 올린 편지[上巡相鄭愚伏經世書]」를 보내기도 하였다.

편지 이외에 제문과 한시 2수가 있다. 제문은 「오현서원봉안제문(五賢書院奉安祭文)」으로 여기서 오현서원은 경현서원 이전의 명칭이다. 참고로 경현서원에 대해 살펴보면, 1583년(선조 16)에 유림들이 상소를 올려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 김굉필(金宏弼)을 모실 서원 창건을 허락받고, 당시 나주 목사로 있던 김성일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듬해인 1584년(선조 17)에 금양서원(錦陽書院)이라는 이름으로 완공한다. 김성일은 나주 사직단(社稷壇) 화재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사임을 하고, 이어 나주 목사로 임윤신(任允臣, 1529~1588)이 부임해오자 나덕준 등이 발의하여 1589년(선조 22)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 이항(李滉) 등 4위를 추가로 배향하고 명칭을 오현사(五賢祠)로 바꾸었다가 정유재란 때 소실된 뒤, 1608년(광해군 1)에 중건하고 시서(市西) 김선(金璇, 1568~1642)의 상소로 1609년 사액서원이 되면서 ‘경현(景賢)’이라는 액호를 받았다.

이글은 1587년(선조 20) 11월 22일에 5위를 봉안할 때 나덕운이 우리나라에 도(道)를 창도한 5분을 추모하기 위해 지었다.

한시 2수는 동강 김우옹의 「임진오월문왜적대거입구경성불수(壬辰五月聞倭賊大舉入寇京城不守)」와 이를 차운(次韻)한 「동강 김우옹 문장의

「우분시」에 삼가 차운하다(敬次金東岡文丈憂憤詩韻)」이다. 동강의 시는 1592년(선조 25) 5월에 유배지에서 사면되어 풀려나 행재소(行在所)로 나아갈 때 왜적의 침입으로 도성이 함락된 모습을 읊었다. 나덕운의 차운시는 용사의 작법으로 악비(岳飛, 1103~1142)와 문천상(文天祥, 1236~1282)의 고사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임진왜란으로 혼란한 조정의 모습을 묘사하며 행재소로 나아가는 동강에게 『주역(周易)』의 「이괘(履卦) 초구(初九)」 「소리(素履)」의 의미로 본분에 맞는 행동을 기대한 내용이다.

『금호유사』에서 나사침의 유고(遺稿)는 소량이고, 대부분은 나사침과 관련된 글을 초록하여 편역하였다. 그중 나사침의 글은 1587년(선조 20) 1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일기를 간추려놓은 「정해일기초(丁亥日記抄)」이다. 일기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월 14일은 벗인 순천 군수 유조인(柳祖詔)을 탄핵한 대간에 대한 항의의 내용이고 15, 17일은 일가 형제들이 영락(零落)하여 흩어지게 된 데에 대한 애통의 마음을 서술하였다. 2월 7일은 청암찰방(靑巖察訪) 경시정(慶時貞)의 형에 대한 우애를 기린 것이고, 7월 18일은 오래도록 만나지 못했던 벗인 정인귀(鄭仁貴)가 제독관으로 부임해 오자 감사(監司) 윤두수(尹斗壽)가 방회(榜會)를 열어 서로 회포를 풀었음을 기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나사침은 정인귀의 시를 차운하여 윤두수에게 방회의 감회를 담아 다음과 같이 읊었다.

상공의 온화한 기운이 사람들 감화시키니	相公和氣便薰人
향에 머금고 기쁨 받들자 정신 맑아지도다	飲馥承歡足暢神
삼십여 년 만에 이런 모임 이루니	三十年餘成此會
백발이 꽃자리 비추는 모습 애뜻하구나	各憐華髮照花茵

8월 16, 20, 21일은 아들의 과거 합격에 관한 내용이고, 9월 9일은 자손들과 낙시를 하여 회를 떠서 먹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11월 22일에는 경현서원에서 한훤당 김굉필·일두 정여창·정암 조광조·회재 이언적·퇴계 이황을 봉안하는 제사에 참석한 일 등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정해일기초」 이후 글은 대부분 교유 인물이나 후손들이 남긴 글이다. 「포장[褒獎]」은 16세에 어머니가 병으로 위중하자 단지(斷指)로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여 중종에게 정려(旌閭)를 표창받은 내용이다. 「사실기(事實記)」, 「묘갈명(墓碣銘)」은 나사침의 행적과 가족관계 등을 정중원, 민창도, 이서우(李瑞雨)가 기술하였다. 「행적집록(行蹟輯錄)」은 『미암일기(眉巖日記)』에 있는 나사침의 행적을 날짜별로 발췌한 것이다. 행적 중 니산현감(尼山縣監) 시절에 도적질하는 사람을 붙잡아 의리를 가르쳤고, 객점을 설치하여 오가는 손님을 접대하며 백성들을 덕화(德化)로 인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거사비(去思碑)를 세웠으나 임진왜란 때 손상되어 유민(遺民)들이 다시 비석을 세워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를 새겼다.

시든 꽃 한 송이 외로운 학 한 마리	倭花一朵鶴一隻
쓸쓸히 행리에 옛사람의 풍모 있네	行李蕭然古人風
백성은 훌륭하신 당신 떠남을 안타까워 하니	齊民痛惜仁賢去
소백에 대한 포장도 썩 넉넉한 건 아니리	召伯修褒亦不公

「제공시장(諸公詩章)」은 당시 나사침과 교류했던 인물들이 나사침에게 올리거나 나사침의 시를 차운한 시인데, 교류 인물로는 이언양(李彦讓), 백광훈(白光勳), 항응몽(韓應夢), 김부륜(金富倫), 김익성(金益成) 등이 있다. 「사우록(師友錄)」은 나두동이 지봉(芝峰) 이수광(李睟光, 1568~1628)의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이소재(履素齋) 이중호(李仲虎)가 기묘사화 이후에도 스승의 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삼으니 옷자락을 공손이 치켜들고 수업을 받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되었다”라는 내용을 인용하며 당시 나사침이 인정한 남봉(南峰) 정지연(鄭芝衍), 범애(汎愛) 유조인(柳祖認), 홍용(洪溶), 정유신(鄭惟愼) 네 사람만 선별하여 서술하였다.

앞서 논구한 『금성삼고』의 큰 특징인 기축옥사와 스승 정개청의 신원운동에 대하여 알아본다. 나주 대안동(大安洞)에 나사침은 대안서재를 만들어 3형제를 비롯한 향촌 자제의 학업 공간으로 활용한다. 여기에 나주

대곡동(大谷洞)에서 성장하고, 무안의 엄담(淹潭)에 이주하여 윤암(輪巖)에 정사를 짓고 학문에 힘쓰며 후진을 양성 중인 정개청을 훈장으로 초빙한다. 대안서재에서 정개청은 윤암에서 여러 학자들과 맺었던 강의계(講義契)를 계속하는 한편 학령(學令)까지 세워 대안서재가 치열한 강학 공간으로 변모한다. 정개청은 강학과 논설을 통하여 사습(士習)의 쇄신을 주장하면서 무안 승달산 승려의 암자를 점유하려던 유생들의 처사를 비판하면서 나주나 무안 지역에 사습 쇄신론을 국한하지 않고 「동한진송소상부동설(東漢晉宋所尙不同說)」을 지어 ‘동한의 절의(節義)와 진송의 청담(淸談)이 공명(功名)이나 모리(謀利)와 비교하면 고상하지만 성학(聖學)에 종사할 줄을 모르고 의리(義理)의 편안함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니 세교(世敎)에 도움 되는 것이 없다.’고 하며 비판적인 시선이 선비를 넘어 조정에게까지 미쳤다.

정개청은 본래 서인(西人) 박순(朴淳, 1523~1589)의 문인이었으나, 박순이 영의정에서 파직되자 동인(東人) 이발(李潑, 1544~1589)·정여립과 교분을 맺음으로써 스승을 배반하였다는 비난을 받으니 정개청은 「절의청담변(節義淸談辨)」을 지어 자신의 저지를 변명한다. 그런데 당시에 정철(鄭澈, 1536~1593)이 여기에 ‘배(排)’자를 붙여 배절의(排節義)라고 하여 당시 역모를 했던 정여립의 당인으로 몰아서 정개청을 경원부(慶源府) 아산보(阿山堡)에 귀양 보냈고, 정개청은 배소(配所)에서 죽게 된다.

정개청의 신원을 위하여 셋째 아들 나덕윤이 1595년(선조 28) 「을미봉사(乙未封事)」를 시작으로 이듬해 첫째 아들 나덕명이 「병신봉사(丙申封事)」, 이어서 둘째 아들 나덕준이 1599년(선조 32)에 「기해봉사(己亥封事)」를 선조에게 올린다. 3형제의 상소는 기축옥사를 사림에게까지 화를 미치고 나라의 맥을 끊어냄이 유사(有史) 이래로 가장 혹독한 사변으로 규정하고, 이어서 스승 정개청이 사습의 일신(一新)을 위하여 지은 글이 정철의 비판과 사적인 복수에 의해 피해가 컸음을 해명한다. 그리고 유몽정(柳夢井), 이황중(李黃鍾), 최영경(崔永慶), 조대중(曹大中), 이발(李潑) 등 역시 정여립의 간계와 정철의 사심에 의한 처벌이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선조의 비답(批答)은 정개청 역시 죄가 있으니 이 일을 거론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광해군이 즉위하며 신원 운동은 한층 고양되었다. 1608년(선조 41) 현릉참봉(顯陵參奉)으로 제수된 나덕운은 광해군 즉위 때 의금부경력(義禁府經歷)이 되어 다시 상소를 올리자, 나주의 김우성(金佑成), 강봉람(姜鳳覽) 등이 뒤따라 상소를 올리고, 1611년(광해군 3)에 나덕현(羅德顯), 나덕원(羅德元)이 각각 상소를 올린다. 이때 조정도 호응하여 삼사가 합계(合啓)하고 대신이 수의(收議)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1625년(인조 3) 2월이 되어서야 정개청 등의 관작이 회복된다.

이렇게 사승(師承) 관계를 지킨 소포 나덕명, 금암 나덕준, 금봉 나덕운이 기축옥사 때에 스승 정개청과 더불어 함경도 지역으로 유배되고 유배 중에 스승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 유배에서 풀린 세 형제들이 스승을 신원하는 상소문을 올려 신원과 복작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맺으며

본서는 정여립과 관련된 옥사를 시작으로 임진왜란 등 굵직한 역사적 쟁점의 시기에 활동하였던 나사침과 그의 아들 나덕명, 나덕준, 나덕운의 문헌인 『금성삼고』를 살펴보았다.

『금성삼고』를 통해 단지(斷指)의 효로 생전에 정려(旌閭)를 받은 나사침과 기축옥사 때 당쟁으로 고초를 겪었으나 효성과 충절로 구국을 위한 나사침의 아들들의 정신을 재조명하여 역사를 통한 전통적 문화 가치를 정립하고 선현들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에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주관으로 『금성삼고』를 공역한 것은 후손 및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역사적 변곡점인 조선 중기의 사상, 역사 등의 새로운 지평을 열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나주나씨 일가의 역사적 운명이 시작된 대안서재에서 큰 아들 나덕명이 아버지를 모시는데 거문고 소리를 듣고 시를 지어 올린 시와 아버지 나사침이 아들의 시를 차운한 시로 이글을 마친다.

장마 비가 개이자 황혼이 열리고	積雨晴來暮色開
남산의 신록은 뜨락의 괴목까지 이어졌네	南山新翠接庭槐
촉 땅 거문고로 또 요지곡을 연주하고	蜀琴又奏瑤池曲
삼천갑자 동방삭 되시길 바라며 술 한잔 올리네	方朔三千屬一杯

나덕명(羅德明)

재루에서 비 개인 뒤 술 단지를 여니	齋樓雨後一樽開
든 산 기운이 푸른 괴목을 에워싸네	正是浮嵐捲翠槐
비간 풍경 눈에 들어오니 끊임없이 읊조리고	霽景入眸吟不盡
거문고 타며 천 잔 술 기울기에 딱 알맞네	鳴琴端合倒千杯

나사침(羅士忱)



호남선현문집 국역총서 6

錦城三稿

금성삼고

소포금암금봉삼고합부 서문(1)

嘯浦錦巖錦峰三稿合部序【一】

금성 나씨(錦城羅氏)의 가숙(家塾)¹⁾에서 새로 간행한 《소포유고(嘯浦遺稿)》에 금암(錦巖)²⁾과 금봉(錦峰)³⁾의 약간의 유고를 덧붙여 한 부로 합편하였으니, 금암의 증손 상사(上舍) 나두동(羅斗冬)⁴⁾ 씨가 실로 수집한 것이다. 소포(嘯浦)⁵⁾의 현손 나만운(羅晩運)과 금봉의 증손 나두흥(羅斗興)이 그와 함께 오래도록 전해지기를 도모하고는 소백산(小白山) 아래로 편지를 보내어 나⁶⁾에게 서문을 부탁하였다. 나주(羅州)는 내가 태어난 곳이고, 금암은 내 선비(先妣)의 할아버지이니 내가 이에 어찌 감격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장차 행여 글재주가 없다고 바로 사양하여 그만둘 수 있겠는가?

생각건대 외고조 금호공(錦湖公)⁷⁾은 행실로 이름이 났고, 그의 장자 휘 덕명(德明)은 자가 극지(克之)로 금오랑(金吾郎) 벼슬에 나아갔다가 곧바로 그만두고 호수나 바다를 방랑하였으니 뛰어나고 걸출한 사람이었다. 이분이 소포이다. 차남의 휘는 덕준(德俊)이고 자는 대지(大之)이며 벼슬은 지현(知縣)이었다. 셋째의 휘는 덕윤(德潤)이고 자는 유지(有之) 또는 성지(誠之)

1) 가숙(家塾) : 글방을 의미한다. 《예기(禮記)》〈학기(學記)〉에 “옛날에 교육기관으로 가(家)에는 숙(塾)을 두고, 당(黨)에는 상(庠)을 두고, 술(術)에는 서(序)를 두고, 국(國)에는 학(學)을 두었다.[古之敎者, 家有塾, 黨有庠, 術有序, 國有學.]”라고 하였다.

2) 금암(錦巖) : 나덕준(羅德峻, 1553~1604)의 호를 말한다. 자는 대지(大之), 호는 금암이다.

3) 금봉(錦峰) : 나덕윤(羅德潤, 1557~1621)의 호를 말한다. 자는 유지(有之) 성지(誠之), 호는 금봉이다.

4) 나두동(羅斗冬) : 1658~1728. 자는 간이(幹而), 호는 약헌(藥軒)이다. 부친은 중직대부(中直大夫) 행의금부도사(行義禁府都事) 나진(羅)이다. 저서로 《약헌유고(藥軒遺稿)》, 《의예집록(疑禮輯錄)》, 《사예요람(四禮要覽)》, 《동사(東史)》 등이 있다.

5) 소포(嘯浦) : 나덕명(羅德明, 1551~1610)의 호를 말한다. 자는 극지(克之), 호는 소포 귀암(龜菴)이다.

6) 나 : 정중원(鄭重元, 1659~1726)을 말한다.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선장(善長), 호는 천천옹(喘喘翁)으로, 1678년 진사에 합격하였다. 정희량(鄭希亮)의 아버지이다.

7) 금호공(錦湖公) : 나사침(羅士忱, 1525~1596)을 말한다. 자는 중부(仲孚), 호는 금호이다. 1555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음직으로 경기전 참봉(慶基殿參奉)과 이성 현감(尼城縣監)을 지냈다.

이며 벼슬은 전중(殿中)이었다. 모두 곤재(困齋) 정개청(鄭介淸)⁸⁾의 제자가 되어 독실히 배우고 힘써 행하였다. 금암과 금봉은 그들의 호이다.

소포는 시격이 매우 빼어나서 당세에 명성이 있었으나 지금 남아 있는 시는 단지 고율(古律) 절구(絶句) 근체(近體) 장편 총 50여 수와 부(賦) 2편, 서(書) 3편, 소(疏) 1편뿐이다. 금암과 금봉은 사문(斯文)을 강론하고 연마하여 저술한 글이 마땅히 또한 적지 않을 텐데, 금암은 소(疏) 1편, 서(書) 1편, 자식을 경계하는 글 2편뿐이고, 금봉은 소(疏) 1편, 서(書) 7편, <五賢祠揭虔文(오현사계건문)> 1편,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顙)⁹⁾의 시에 차운한 시 1수뿐이다.

대개 기축옥사(己丑獄事) 때 형제가 멀리 떨어진 북쪽 지역으로 함께 유배되었고, 이윽고 또 임진왜란이 일어나 위급한 상황에서 삼천리를 떠돌아다녔으니, 6, 7년 동안 병란으로 어수선했던 가운데 평소에 지은 글이 망실되어 이미 모두 사라졌을 터이다. 소포는 만력(萬曆) 경술(庚戌 1610)년에 죽었고, 금암이 죽은 것은 소포보다 6년 전이었으며, 금봉이 가장 뒤에 죽었으니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이다. 그의 시문은 겨우 백 분의 일만 남았으나 백여 년 뒤에도 수습하였으니, 장차 후세에 완전히 민멸되는 데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아! 이는 참으로 감격스러우면서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체로 고급 사람들의 문집이 세상에 간행되어 많은 것은 수십 권, 작은 것은 한두 권이나 더러는 흩어지고 남은 몇 편의 글귀에 불과하여 유사(遺事) 사이에 덧붙여 전해질 뿐이다. 그 시를 외우고 그 문을 읽어 그 사람을 살피고 그 시대를 논하고자 한다면 수십 권도 넉넉한 것이 아니지만, 또한 두어 편도 부족한 것은 아니다. 만일 세상에서 세 현인의 주옥 같은 책 한 권을 보배로 여긴다면 그 사람의 평생을 상상해 보는 데 또한 충분하니, 어찌 반드시 많은 것만 귀하다고 하겠는가? 한 점의 고기로 큰 술의 고기 맛을 알

8) 정개청(鄭介淸) : 1529~1590.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의백(義伯), 호는 곤재이며, 나주 출신이다. 예학과 성리학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당시 호남지방의 명유로 알려졌다. 저서로 《우득록(愚得錄)》이 있다.

9) 김우옹(金宇顙) : 1540~1603.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숙부(肅夫)이고, 호는 동강(東岡), 직봉포의(直峰布衣)이다. 조식(曹植)의 문인이다.

수 있다는 것¹⁰⁾이 진실로 여기에 있다.

이 유고를 살펴보니 대체로 소포의 말은 기개가 있어 남에게 구속을 받지 않으며, 금암의 말은 간절하고 진실하면서 차례가 있고, 금봉의 말은 곧고 정확하면서 구차하지 않은데, 효제(孝弟)를 근본으로 삼음은 똑같았으니 어찌 한 기운으로 태어나 한 가정에서 얻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또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 곤재 정개청,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동강 김우옹, 구암(久庵) 김취문(金就文)¹¹⁾,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¹²⁾, 다산(茶山) 목대흥(睦大欽)¹³⁾, 목승선(穆承宣) 등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 여러 현인들이 그 사람됨을 덕망있다 여기고, 논변한 것은 의리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으니 어찌 등한시 할 수 있겠는가?

아! 기축옥사 때 조정 대신은 논할 것도 없고, 초야에서 학문에 전념하던¹⁴⁾ 선비조차 꾸며낸 죄¹⁵⁾로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재앙의 그물에 걸린 나머지 금봉이 먼저 을미년(1595)에 선혈을 뿌려¹⁶⁾ 수천 언(數千言)의 상소를 올려

10) 한 점의 …… 것 : 《회남자(淮南子)》〈설림훈(說林訓)〉에 “한 점의 고기를 맛보고서 온 술의 고기 맛을 안다.[嘗一臠肉,而知一鑊之味.]”라고 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11) 김취문(金就文) : 1509~1570. 본관은 선산(善山), 자는 문지(文之), 호는 구암(久菴),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벼슬은 대사간에 이르렀으며 청백리에 녹선(錄選)되었다. 저서에 《구암집》이 있다.

12) 정경세(鄭經世) : 1563~1633.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경임(景任), 호는 우복(愚伏), 시호는 문장(文莊)이다. 예학에 조예가 깊었다. 저서로 《우복집》, 《상례참고(喪禮參考)》, 《주문작해(朱文酌海)》가 있다.

13) 목대흥(睦大欽) : 1575~1638. 본관은 사천(泗川), 자는 탕경(湯卿), 호는 다산(茶山)·죽오(竹塢)이다. 1605년 별시 문과에 급제한 뒤, 예조 참의·강릉 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남인 세력의 주류 가운데 목대흥의 형 목장흥(睦長欽, 1572~1641)은 정유재란으로 소실된 경현서원을 재건하였다. 저술로 《다산집》이 있다.

14) 학문에 전념하던 : 원문의 ‘장수(藏修)’는 장수유식(藏修遊息)의 준말로 늘 학문에 전념함을 뜻한다. 《예기(禮記)》〈학기(學記)〉에 “군자는 학문에 대해서 학교에 들어가서는 학업을 닦고, 학교에서 물러나 쉴 때에는 기예를 즐긴다.[君子之於學也, 藏焉修焉息焉游焉.]”라고 하였다. 장(藏)은 늘 학문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요, 수(修)는 방치하지 않고 늘 익히는 것이다. 식(息)은 피곤하여 쉬며 함양하는 것이고, 유(遊)는 한가하게 노닐며 함양하는 것이다.

15) 꾸며낸 죄 : 원문의 ‘나직(羅織)’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 만드는 일을 말한다. 송나라 소식(蘇軾)의 〈재결군찰자(再乞郡札子)〉에 “그 말을 살펴보건대 모두 나직(羅織)한 것들이니, 없는 것을 있다고 합니다.[考其所言 皆是羅織 以無爲有]”라고 하였다.

16) 선혈을 뿌려 : 원문의 ‘역혈(瀝血)’은 상소를 올려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유(韓愈)의

죽은 스승¹⁷⁾을 위하여 원통함을 변론하고 아울러 그 당시 억울한 자들을
 언급하여 간사한 자들이 기회를 틈타 모함한 상황을 모두 서술하였다.
 계속해서 소포의 병신년(1596) 상소는 하늘의 뜻을 돌리고 인심을
 결속시키는 도리를 말하여 구천의 원통함을 풀어주도록 거듭 반복하였고,
 이어 분발하여 오랑캐를 막자는 계책을 올렸다. 또 이어서 금암의 기해년
 (1599) 상소가 있었으니 말이 더욱 격렬하고 간절하였다. 이는 사제 간의
 의리로 마땅히 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시비(是非)의 소재가 세도(世道)
 와 관계되는 일이니, 귀신에게 질정해보아도 의심이 없을 것이다. 훗날
 기축년의 사건에 대해 알고자 하는 자는 이 세 상소를 읽고 반드시 감개(感
 慨)하여 탄식할 것이다. 아울러 글을 써서 《소포금암금봉삼고합부(嘯浦錦
 巖錦峰三稿合部)》의 서문으로 삼는다.

송정(崇禎) 정축 후 85년 임인년(1722) 4월 초하루 외후손 3세손 팔계(八
 溪) 정중원(鄭重元)이 삼가 쓰다.

시 <귀팽성(歸彭城)>에 “간을 파내어 종이를 만들고, 선혈을 뿌려서 글을 쓰네.[剝肝以爲紙 瀝血以書
 辭]”라고 하였다. 《五百家注昌黎文集 卷2》

17) 죽은 스승 :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유배 중에 죽은 정개청을 말한다.

소포금암금봉삼고합부 서문(2)

嘯浦錦巖錦峰三稿合部序【二】

말이라는 것은 몸의 문채(文彩)이다.¹⁸⁾ 행동은 몸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말이 문채로써 빛난다. 중앙과 지방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로 곡식을 주면서 올바르게 기른다면 글에서도 도(道)를 볼 수 있다. 지금 금성 나씨의 소포 금암 금봉 삼형제의 유묵을 합편한 책을 삼가 세 번 반복해서 읽으니 감탄하고 흠모할 만한 점이 있었다. 세 분은 대개 선조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고 태어나 성장하는 동안 금호공(錦湖公)께서 독실히 지키는 떳떳한 도리의 전형(典刑)에 몸담고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도 잘할 수가 있었다.¹⁹⁾ 광망우(郭忘憂)²⁰⁾의 훌륭한 절조를 마음으로 헤아리니 선조(宣祖)께서 군사에 대해 질문하던 날 추천을 받았고, 곧재 정개청의 정학(正學)을 가슴에 새기니 후자는 ‘고명(高明)하여 경외롭다.’라고 칭송하며, 후자는 ‘세간의 인물이다.’라고 칭송하였다. 이 때문에 인간의 도리를 행하고 남은 힘으로 한 학문²¹⁾은 뜻을 펼침에 뿌리가 무성해지고, 글을 지움에 기름을 부어 광채가 나는 것 같았다.²²⁾ 어둠 속에서 헤아려보아도 덕스럽고 의로운 마음에서 흘러나와

18) 말은이라는 …… 문채(文彩)이다. : 《사기(史記)》 권39 진세가(晉世家)에 “말은 몸을 꾸미는 것입니다. 장차 몸을 숨기려 하면서 무엇 때문에 꾸미겠습니까. 만약 꾸민다면 이것은 현달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言, 身之文也. 身將隱, 焉用文之? 是求顯也.]”라는 개지추(介之推)의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19) 선조의 …… 있었다. : 한유(韓愈)의 〈청하군공방공묘갈명(淸河君公房公墓碣銘)〉에 “공은 선조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고 태어나 성장하는 동안 언제나 고전의 세계에 몸담고서 항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왔기 때문에 굳이 배우지 않고도 잘할 수가 있었다.[公胚胎前光, 生長食息, 不離典訓之內, 目濡耳染, 不學以能.]”라고 한 표현을 인용하였다.

20) 광망우(郭忘憂) : 광재우(郭再祐, 1552~1617)를 말한다. 본관은 현풍(玄風), 자는 계수(季綏), 망우당(忘憂堂)은 그의 호이다. 조식의 문인으로,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공을 세웠다.

21) 인간의 …… 학문 : 원문은 ‘행유지학(行餘之學)’으로, 《논어》〈학이〉에 “공자가 말하기를 ‘자제가 집에 들어가면 효도하고 밖으로 나오면 공경하며, 행동은 삼가며 말은 믿을 있게 하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인자한 사람을 친하게 지내야 하니, 이것을 행하고도 여력이 있으면 글을 배워야 한다.’하였다.[子曰: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라고 하였다.

22) 뜻을 …… 같았다. : 한유(韓愈)의 답이익서(答李翊書)에 “그대가 장차 옛 작가의 경지에 이르러

시인과 문사의 구기(口氣)가 아님을 알 수 있으니 참으로 진실하다.

여 시강(呂侍講)²³⁾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안으로는 현명한 아버지나 형이 없고, 밖으로는 엄한 스승이나 벗이 없는데도 이룰 수 있는 자는 드물 것이다.”라고 한 말과 《맹자(孟子)》에서 “그 시를 외고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면 되겠는가?”라고 한 말이 더욱 의미가 있다. 《예기(禮記)》²⁴⁾에서 “선조에게 착한 일이 있는데도 모르면 현명하지 못하고, 알고도 후세에 전하지 않으면 어질지 못하다.”라고 하였으니, 주옥같은 문장을 가리고 인도한 두 후손이 전전긍긍함이 있다.

금암의 증손 상사(上舍) 나두동(羅斗冬)이 과거를 그만두고 서책을 읽으며 오직 선조의 일에 책임을 지고 크고 작은 것 가릴 것 없이 반드시 드러낸 뒤에 이욕고 끝마쳤다. 이에 종이²⁵⁾로만 남아 있는 말과 이야기가 날마다 사라질까 두려워 어느새 남은 시문과 침식된 간찰을 대추나무에 판각하여 영원토록 하고, 닥나무 종이로 간행하여 귀하게 한 뒤 내종(內從)인 침랑(寢郎) 정중원에게 서문을 지어주기를 요청하였다.

정중원 군은 본래 가학(家學)이 풍부하고 외손자의 서열로 시종일관 뜻이 크고 기개가 있으며 간절하고 진실하며 곧고 굳어 삼가 그 말이 행동과 일치하였다. 당화(黨禍, 기축옥사)와 도적들의 난[임진왜란]으로 그 글이 거의 다 망실됨을 개탄하였다. 죽은 스승의 원통함을 변론하고 아울러 못사람들의 억울함도 신원하며 기축년의 간사한 자들이 기회를 틈타 모함한 상황을 진술하였다. 더욱 격앙된 세 분 상소의 말은 엄정하고 뜻은

고 한다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서도 안 될 것이요, 권세와 이익의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이다. 우선 그 뿌리를 길러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기름을 부어서 광채가 나기를 기대해야 할 것이니, 뿌리가 무성하게 퍼져야 열매가 여물고 기름을 부어 닦아야 광채가 나는 것이다.[將蘄至於古之立言者 則無望其速成 無誘於勢利 養其根而俟其實 加其膏而希其光 根之茂者其實遂 膏之沃者其光晔]”라는 말을 인용하였다.

23) 여 시강(呂侍講) : 송나라 때 시강을 지낸 여희철(呂希哲)을 가리킨다.

24) 《예기(禮記)》 : 원문의 ‘대기(戴記)’는 《예기(禮記)》의 다른 이름이다. 중국 한나라 때 대성(戴聖)이 편찬한 《예(禮)》 49편의 《소대례(小戴禮)》가 바로 《예기》다. 《소대기(小戴記)》라고도 한다.

25) 종이 : 원문의 ‘혁제(赫蹄)’는 혁제(赫蹏)와 같은 말로, 고대에는 글씨를 쓰는 데 썼던 폭이 좁은 비단을 지칭하였는데 후대에 와서는 작고 얇은 종이를 가리킨다.

정당하여 세도(世道)와 관계되어 귀신도 질정할 수 있으니, 아! 어찌 다만 이것뿐이겠는가?

소포옹께서 선산을 참배한 시와 분발하여 오랑캐를 막자는 계책은 효와 충의 모범이 되어 의리가 신명(神明)을 관통하였고, 금암옹께서 자식을 경계한 글과 금봉옹께서 형님에게 바친 제문은 의방(義方)²⁶⁾과 형제간의 우애에 대한 도(道)가 인륜의 차례를 다하였으니, 큰 술에 있는 한 점의 고기나 길광(吉光)의 조각 털²⁷⁾임은 말할 것도 없다. 곧 <촉도난(蜀道難)> 시처럼 귀신을 올렸고²⁸⁾ 강을 건너며 쓴 글처럼 공경대부와 필적할 만하였으니²⁹⁾ 삼가 재주가 있을 따름이었다.

우리들의 사업은 문장이나 공명(功名)에 있지 않으니 구구하게 그 사이에서 우열³⁰⁾을 가릴 필요는 없다. 오직 때가 불행하여 일찍 재앙의 그물에 떨어졌고, 결국 낮은 벼슬에 머물러 매우 드러났던 재주와 학문을 한두 가지도 다 펼치지 못하였으니, 이 글을 보는 자 또한 남은 감회가 있을 것이다. 나는 두 사람[나두동·정중원]에 대하여 벗인데도 경외하는 것은 이런 행동이 좋아서이다. 감히 좋지 못한³¹⁾ 한마디 말이라도 빌리려고

26) 의방(義方) : 원문의 ‘의방(義方)’을 정도(正道)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올바른 도리를 의미한다. 《춘추좌씨전》 은공(隱公) 3년 조에, 위(衛)나라 장공(莊公)의 아들 주우(州吁)가 오만 방자하게 굴자, 현대부(賢大夫) 석작(石碣)이 장공에게 “아들을 사랑한다면 그에게 올바른 도리로 가도록 가르쳐서 잘못된 곳으로 빠져들지 않게 해야 한다.[愛子, 教之以義方, 弗納於邪.]”라고 나온다.

27) 큰 술에 …… 조각 털 : 원문의 ‘대정일련(大鼎一鬣)’은 적은 양의 시문이 남았지만 소량의 시문으로 전체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이고, ‘길광편우(吉光片羽)’은 전설상의 신마(神馬)인 길광의 털 조각처럼 남겨진 시문이 우수하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28) <촉도난(蜀道難)>의 …… 올렸고 : 시가 매우 뛰어나 귀신이 보고 탄복하여 올 것이라는 뜻이다. 두보(杜甫)의 <기이백(寄李白)>이란 시에서 이백(李白)의 뛰어난 시재(詩才)를 찬탄하여 “붓이 떨어지면 풍우가 놀라고, 시가 이루어지면 귀신이 울었지.[落筆驚風雨 詩成泣鬼神]” 하였다.

29) 강을 …… 만하였으니 : 백거이의 <국황보칠낭중식(哭皇甫七郎中湜)> “강을 건너며 쓴 글일 한수는 곧 공경대부의 글에 필적할만하네.[涉江文一首, 便可敵公卿.]”라는 말을 인용하였다.

30) 우열 : 원문의 ‘헌지(軒輊)’는 고저(高低)·경중(輕重)·우열(優劣)을 의미한다. 수레가 앞이 높고 뒤가 낮은 것을 헌(軒)이라 하고, 수레가 앞이 낮고 뒤가 높은 것을 지(輊)라고 한다.

31) 좋지 못한 : 원문의 ‘부전(不腆)’은 좋지 않다는 뜻으로, 자기의 글재주에 대한 겸사이다.

하니 대락이나마 만생(晩生)³²⁾이 산야에서 생활하고 도를 음미하는 경회(景懷)를 드러낸다.

승정 후 두 번째 계묘년(1723) 10월 상순 여흥(驪興) 민창도(閔昌道)³³⁾

32) 만생(晩生) : 후배가 선배에 대한 자신의 겸사(謙辭)로 쓰는 말이다.

33) 민창도(閔昌道) : 1654~1725. 자는 사회(士會), 호는 화은(化隱)이다. 1678년 증광 문과(增廣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고 이듬해 문과 중시(重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1693년(숙종 19)에 대사성(大司成)에까지 올랐다가 1722년(경종 2) 신임사화(辛壬士禍)로 장수(長壽)에 유배되었다. 문장과 글씨에 능하였다.



《소포유고》

嘯浦遺稿

《錦城三稿》

오언절구

五言絕句

창랑 자정 임탁³⁴⁾의 새집에서 쓰다

題林滄浪子定忞新齋

강산이 자정을 낳고	江山生子定
자정은 매화를 낳았네	子定生梅花
상생 ³⁵⁾ 하되 상극 ³⁶⁾ 하지 않으니	相生不相克
화한 기운이 절로 한 집을 이루었네	和氣自成家

박진사에게 주다

贈朴進士

주량은 큰 바다를 기울일 정도이고	飲量傾滄海
문필은 항왕 ³⁷⁾ 과 대적할 만하구나	詞鋒敵項王
어찌하여 늙을수록 씩씩한지	如何老益壯
거울 속 백발 이길 수 없네	不勝鏡中霜

34) 창랑 자정 임탁 : 1565~1610. 자정은 임탁의 자이며 호는 해옹(海翁) 죽오당(竹梧堂) 창랑이다. 임제(林悌)의 막내 동생으로, 나주 회진에 죽오당과 창랑정을 짓고 은거하였다. 권필(權韓) 허균(許筠) 조찬한(趙繼韓) 조위한(趙緯韓) 양경우(梁慶遇) 등과 교유했으나 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다.

35) 상생 : 오행(五行)의 운행에 있어서 목(木)이 화(火)를 낳고, 화가 토(土)를, 토가 금(金)을, 금이 수(水)를, 수가 다시 목을 낳는다는 설로 각각 서로 다른 것을 낳는 일을 말한다.

36) 상극 : 오행의 운행에 있어서 토(土)가 수(水)를 이기고, 수가 화(火)를, 화가 금(金)을, 금이 목(木)을, 목이 토를 이긴다는 설로 각각 서로 다른 것을 이기는 일을 말한다.

37) 항왕 : 한 고조(漢高祖)와 천하를 다툰 영웅으로 우(羽)는 자(字)이고, 이름은 적(籍)이다. 초 패왕(楚霸王)이 되었다가 5년 만에 한 고조에게 패망하여 자살하였다. 《사기(史記)》 7권 <항우본기(項羽本紀)>

박진사의 시에 차운하다

次朴進士韻

땅거미 지는 푸른 산 속에
채찍 멈춰 찾아오는 이 없네
그대의 마음 한적하기만 하니
이곳에 흥취가 유연하구나

日暮碧山裡
無人來住鞭
夫君意閑適
於此興悠然

취하여 읊다

醉吟

흰 갈매기가 백발을 보고
스스로 환영 속 저라고 말하네
날아왔다가 날아가지 않으니
나 또한 세상과 멀어졌네

白鷗見白髮
自謂影中渠
飛來不飛去
我亦世情疎

장난삼아 짓다

戲題

희황씨가 죽지 않아
태고적 바람이 길게 불어오네³⁸⁾
우습구나 어찌하여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羲皇氏不死
太古風長吹
可笑何爲者
謂余生此時

38) 희황씨가…… 불어오네 : 희황씨는 복희씨(伏羲氏)의 별칭이다. 도연명(陶淵明)이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여름철 한가로이 북창가에 잠들어 누웠다가 샅샅한 바람이 불어와 잠을 깨고 나면 문득 태고적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곤 한다.[夏月虛閑, 高臥北窓之下, 清風颯至, 自謂羲皇上人.]”고 한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원에서 한가로이 즐기는 은일(隱逸)의 경취를 말한다 《晉書 隱逸傳 陶潛》

배를 타고 우연히 읊다

乘舟偶吟

달은 천황씨³⁹⁾의 눈 같고
산은 공자의 인자함 같네
조각배 타고 강물을 건너니
나 또한 무릉도원⁴⁰⁾ 사람일세

月似天皇目
山如孔子仁
片舟過江水
吾亦武陵人

거문고를 읊다

詠琴

가냘픈 손으로 한 곡조를 타는데
돌아가는 구름이 석양을 가리네
가야산으로 떨어진 태양은
응당 늙은 신선 곁에 있겠네

一曲生纖指
歸雲遏夕陽
伽倻山下日
應在老仙傍

39) 천황씨 : 중국의 태고 시대를 살았던 전설상의 임금이다. 삼황(三皇), 즉 천황씨(天皇氏)와 지황씨(地皇氏)와 인황씨(人皇氏) 가운데 으뜸으로, 12명의 형제가 각각 일만 팔천 년씩 살았다고 한다.

40) 무릉도원 : 속세를 벗어난 이상향을 가리킨다.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의하면, 동진(東晉) 태원(太元) 연간에 무릉의 한 어부가 일찍이 시내를 따라 한없이 올라가다가 문득 도화림(桃花林)이 찬란한 선경을 만났는데, 그곳에는 진(秦)나라 때 피란 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陶淵明集 卷6 桃花源記》

어떤 사람에게 주다

贈人

그대 일찍이 자하동 객 되었는데
나는 또한 무엇이 될지
해 저물자 매화가 지고
초당에 구름이 드리우려 하네

君曾紫霞客
我亦何爲者
日暮落梅花
草堂雲欲下

강가의 정자에서 즉흥적으로 읊다

江亭卽事

바람은 강가의 풀에 고요하고
물고기는 달 아래 물결에서 발을 가네
추운 밤 시름겨워 잠 못 이루는데
안개 너머로 어부의 노래 소리 들려오네

風靜江湄草
魚耕月下波
夜寒愁不寐
煙外起漁歌

우연히 읊다

偶吟

어떤 사람인지 묻지 마오
나는 천상계 신선 아니라네
그림 같은 호수와 산에서
길이 백구를 마주하여 잠을 잔다니

莫問何爲者
吾非天上仙
湖山盡圖裡
長對白鷗眠

김생을 방문했는데 만나지 못해 시를 남기다

訪金生不遇留詩

지붕 위 까마귀도 좋거늘 ⁴¹⁾	屋上烏猶好
하물며 소나무 아래에서 만나 동자임에라	況逢松下童
동자야 나의 뜻을 전해다오	童乎傳我意
밝은 달이 낚시터에 떴다고	明月釣臺中

감회가 있어

有感

농 땅 위의 늙은 제갈량 ⁴²⁾	隴上老諸葛
위수 가의 젊은 강태공 ⁴³⁾	渭濱少太公
호랑이처럼 한번 휘파람을 부니	如令虎能嘯
차가운 긴 바람이 일어났네 ⁴⁴⁾	冽冽起長風

41) 지붕 위 까마귀도 좋거늘 : 나덕명과 김생은 일찍이 매우 친한 사이였다는 말이다. 원문의 ‘옥상오(屋上烏)’는 지붕 위의 까마귀라는 말로, 강태공(姜太公)이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 그 사람이 지붕 위의 까마귀에까지 미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 그 미움이 마을 모퉁이의 바람벽에까지 미친다.[愛人者, 兼其屋上之烏, 不愛人者, 及其胥餘.]”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尚書大傳 大戰》 두보(杜甫)의 〈봉증사홍이사장(奉贈射洪李四丈)〉에도 “장인의 지붕 위에 까마귀가 있는데, 사람이 좋으니 까마귀도 좋네요.[丈人屋上烏, 人好烏亦好.]”라는 말이 있다.

42) 농 땅 …… 제갈량 : 〈출사표(出師表)〉에 “5월에 노수(瀘水)를 건너 깊이 불모의 땅으로 들어갔다.[五月渡瀘, 深入不毛.]”라고 하였는데, 이곳이 바로 농(隴) 땅으로 제갈량이 위나라를 북벌하면서 농에서 출병하였다. 《三國志 卷35 蜀書 諸葛亮》

43) 위수 …… 강태공 : 위수는 섬서성(陝西省) 대려현(大荔縣)에 있는 강으로 태공(姜太公)이 낚시질하던 곳이다. 강 태공의 이름은 상(尚)인데, 위수 가에서 낚시질하다가 주(周)나라 문왕(文王)을 만나 사부(師傅)로 기용되고, 문왕이 별세한 뒤에는 무왕(武王)을 도와 은(殷)나라 주왕(紂王)을 토벌하고 주나라를 천자국으로 만들었다.

44) 호랑이처럼 …… 일어났네 : 호랑이가 한 번 으르렁거리면 바람이 일고 한기(寒氣)가 생긴다는 뜻으로, 전하여 영웅이 때를 만나서 분기(奮起)하는 것을 비유한다. 왕포(王褒)의 〈성주득현신송(聖主得賢臣頌)〉에 “호랑이가 울부짖자 골짜기에 찬 바람이 일어난다.[虎嘯而谷風冽]”는 표현이 나오고, 이백(李白)의 시에 “호랑이가 골짜기에서 포효하자 바람이 일어난다.[虎嘯谷而生風]”는 표현이 나온

가을 생각

秋思

가을 나뭇잎에 한밤의 원한 깃드는데
쓸쓸하게 달이 높이 솟으려 하네
서로 그리워하며 만나지 못하니
거울 속 터럭이 온통 하얗게 세었네

夜怨生秋葉
蕭蕭月欲高
相思不相見
白盡鏡中毛

소나무와 대나무를 읊다

詠松竹

왕대⁴⁵⁾는 오늘의 소무⁴⁶⁾이고
장송은 옛날의 백이네
그윽한 집에 나보다 뛰어난 것이 많으니
어찌 선현들 뒤쫓아 따르는데 마음을 쓰랴

苦竹今蘇武
長松古伯夷
幽軒多勝己
何用費追隨

다. 《李太白詩集 卷6 鳴皋歌送岑徵君》

45) 왕대 : 원문의 ‘고죽(苦竹)’은 참대 혹은 왕대라고도 하는데, 중국이 원산지이다. 죽순의 맛이 쓰다고 해서 고죽이라 한다.

46) 소무 : 한 무제 때 흉노(匈奴)에 사신으로 갔다가 흉노의 임금 선우(單于)에게 억류되었으나, 북해(北海) 가에서 양을 치며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절개를 지키다가 19년 만에 한나라로 돌아와서 전속국(典屬國)이란 벼슬에 임명되었다. 《漢書 卷54 蘇武傳》《史略 卷2 西漢》

칠언절구

七言絕句

아우에게 부치다

寄舍弟

변방의 구름은 아득하고 기러기도 무정하니
외로운 성 어느 곳인들 부모 형제 생각나네
꺼져가는 촛불 밤 깊은데 서리 맞은 잎 소리에
꿈속에서도 연못의 풀은 자랄 수가 없구나

關雲迢遞雁無情
何處孤城憶父兄
殘燭夜深霜葉響
夢中池草不能生

제독 중신 정상⁴⁷⁾의 시에 차운하다 2수

次鄭提督仲愼詳韻 二首

인간세계 고뇌에서 달아난 것이 기뻐라	自喜人間苦惱逃
가을바람에 붉게 물든 단풍이 봄날 복사꽃보다 낫네	秋風紅染勝春桃
대나무 평상에서 다행히 아름다운 시구 ⁴⁸⁾ 를 얻으니	竹床幸得瓊瑤句
저물도록 읊조려도 피곤한 줄 모르겠네	底暮吟來不覺勞
주룡해 ⁴⁹⁾ 굽이에서 십 년 은일하며	住龍海曲十年逃
머리에 윤건 ⁵⁰⁾ 쓰고 손수 복숭아를 심었네	頭戴綸巾手種桃
아득히 바라보니 흰 구름으로 갈 길 잃었지만	遙望白雲迷去路
선경을 찾고자 수고로움 꺼리지 않네	欲尋仙境不憚勞

47) 정상 : 1533~1609.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중신(仲愼), 호는 창조(滄洲)이다. 설재(雪齋) 정가신(鄭可臣)의 후손이다. 1574년 갑술(甲戌) 별시(別試)에 갑과(甲科)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임진왜란 때 정운(鄭運) 송희립(宋希立) 등과 함께 이순신의 휘하에서 싸웠으나 한산도대첩 때 병으로 인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이순신의 군진에 아들 정여린(鄭如麟)과 종손 정란(鄭瀾)을 시켜 쌀을 보냈다. 문집은 《창주선생일고(滄洲先生逸稿)》가 있다.

48) 아름다운 시구 : 원문의 ‘경요(瓊瑤)’는 아름다운 시를 가리킨다. 《시경》〈목과(木瓜)〉에 “내게 복숭아 던져 주길래 아름다운 구슬로 보답했네. 갚으려는 게 아니라 길이 좋게 지내고 싶어서지.[投我以木桃, 報之以瓊瑤. 匪報也, 永以爲好也.]”라고 하였다.

49) 주룡해 :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주룡(住龍)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흐르는 물가로 영산강의 줄기이다. 나덕명은 노년에 주룡 마을에 입향하고 주룡적벽(住龍赤壁) 위에 적벽정(赤壁亭)을 지었다.

50) 윤건 : 푸른 실로 엮은 두건을 말하는데, 제갈량이 평소 애용하던 두건이라 하여 제갈건(諸葛巾)이라고도 한다.

삼가 아버지의 시에 차운하여 니산 충의 한응몽에게 주다

謹次嚴君韻贈尼山韓忠義應夢

산루에서 노성면⁵¹⁾을 놀라 바라보고
그리운 마음 전달하고파 밤에 잠 못 이루네
어느새 하늘은 절반도 열리지 않았는데
붉은 태양이 이미 새벽노을 주변을 비추네

山樓驚見魯城面
欲道相思無夜眠
忽忽不曾開一半
紅輪已輾曙霞邊

대안서재에서 아버지를 모시는데 거문고 소리를 듣고 시를 읊어 올리다

大安書齋奉侍嚴君聽琴詠詩以獻

장마 비가 개이자 황혼이 열리고
남산의 신록은 트랙의 괴목까지 이어졌네
촉 땅 거문고⁵²⁾로 또 요지⁵³⁾곡을 연주하고
삼천갑자 동방삭⁵⁴⁾ 되시길 바라며 술 한잔 올리네

積雨晴來暮色開
南山新翠接庭槐
蜀琴又奏瑤池曲
方朔三千屬一杯

51) 노성면 : 충청남도 논산시 북부에 있는 면이다.

52) 촉 땅 거문고 : 원문의 ‘촉금(蜀琴)’은 한(漢)나라 때 촉 땅에서 살았던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사용하던 거문고를 말한다. 그가 거문고를 잘 연주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유우석(劉禹錫)의 <상진주행(傷秦姝行)>에 “촉현이 울리고 손가락은 옥 같나니, 황제의 악공이 연주하는 상가곡일세.[蜀弦錚攄指如玉, 皇帝弟子常家曲.]”라고 하였다. 《劉賓客文集 卷30》

53) 요지 : 전설에 나오는 곤륜산의 연못으로 선녀 서왕모(西王母)가 사는 곳이다. 주 목왕(周穆王)이 서쪽으로 요지 가에 이르러 서왕모를 만났다고 한다.

54) 삼천갑자 동방삭 : 한 무제(漢武帝) 때의 사람으로, 골계(滑稽)와 해학(諧謔)의 솜씨를 능숙하게 발휘하면서 직언(直言)을 곧잘 하여 국정을 바로잡았다. 서왕모(西王母)의 복숭아를 훔쳐 먹은 덕분에 죽지 않고 장수했다고 하여 ‘삼천갑자(三千甲子) 동방삭’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史記 卷126 滑稽列傳》

아버지의 차운시

嚴君次韻

재루에서 비 개인 뒤 술 단지를 여니
든 산 기운이 푸른 괴목을 에워싸네
비갠 풍경 눈에 들어오니 끊임없이 읊조리고
거문고 타며 천 잔 술 기울기에 딱 알맞네

齋樓雨後一樽開
正是浮嵐捲翠槐
霽景入眸吟不盡
鳴琴端合倒千杯

새벽에 일어나

曉起

나비가 된 장주는 훨훨 날아⁵⁵⁾
황제와 복희의 앞을 오가네
닭이 울어 인간사 들을까 두렵거늘
산속 아내를 불러 깨워 돈 있나 묻네

蝴蝶爲周翩翩然
去來黃帝伏羲前
鷄鳴怕聽人間事
喚起山妻問有錢

산속 집에서 즉흥적으로 읊다

山家卽事

산속 사람이 일이 없어 산가에 누웠는데
가을 산으로 해 저무니 산 정경이 다양하네
흥이 올라 홀연히 물가에 앉으니
밝은 달 비친 푸른 물결에 흰 갈매기 가득하네

山人無事臥山家
日暮秋山山意多
乘興忽然磯上坐
白鷗明月滿滄波

55) 나비가 …… 날아: 《장자》 제물론(齊物論)에 “일찍이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어, 기뻐하며 훨훨 나는 것이 분명 나비였는데, …… 이윽고 깨어보니 깜짝 놀란 모습의 장주가 분명하였다. 그래서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된 것인지를 알 수 없었다.[昔者莊周夢爲胡蝶 栩栩然胡蝶也 …… 俄然覺 則蘧蘧然周也 不知周之夢爲胡蝶與 胡蝶之夢爲周與]”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원문의 ‘翩翩(편편)’에 ‘아마도 허(栩) 자의 오류인 듯하다.[恐栩字之誤]’라는 소주가 붙어 있다.

한한정 임탄⁵⁶⁾에게 부치다

寄林閑閑亭坦

학 울음⁵⁷⁾ 들리지 않고 숲속이 비었으니
문을 나가 까마귀 암수 분변할 것⁵⁸⁾ 없네⁵⁹⁾
돌아오며 흰 갈매기와 이야기 나누는데
밝은 달과 옅은 안개가 물에 비치네

鶴唳未聞林下空
出門莫辨烏雌雄
歸來相與白鷗語
明月疎煙水鏡中

산가에서 밤에 묵으며

山家夜宿

산새는 하늘에 뜬 달에 놀라 켜는데
강남의 외로운 객은 좋은 경치⁶⁰⁾에도 잠자네
앞산은 고요하여 뼈 속까지 한기가 사무치거늘
솔잎에 맺힌 이슬 소리 없이 가만히 샘에 떨어지네

山鳥驚栖月上天
江南孤客宿風烟
前峰寂寂寒生骨
松露無聲暗滴泉

56) 임탄 : 임제(林梯, 1549~1587)의 셋째 아들로 한한정은 그 호이다.

57) 학 울음 : 원문의 ‘학려(鶴唳)’는 은거하는 군자의 덕이 멀리까지 알려지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시경》〈학명(鶴鳴)〉에 “학이 구고의 늪에서 우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린다.[鶴鳴于九臯 聲聞于天]”라고 하였다.

58) 분변할 것 : 원문에는 ‘변(辨)’ 아래에 “다른 본에는 문(問)으로 되어 있다.[一本作問]”라는 소주가 붙어 있다.

59) 까마귀 …… 없네 : 하늘과 땅이 만물을 포용하듯이 모두가 조화를 이룬다면 굳이 시비와 선악을 가릴 것도 없다는 말이다. 《시경》〈정월(正月)〉에 “모두 말하기를 ‘내가 성인이다.’ 하는데, 누가 까마귀의 암수를 알까.[具曰予聖, 誰知烏雌雄.]”라고 하였는데, 이는 까마귀의 암수를 가려내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시비를 분간하기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60) 좋은 경치 : 원문의 ‘풍연(風煙)’은 바람과 안개로, 좋은 경치를 말한다. 백거이(白居易)의 〈화죽가(畫竹歌)〉에 “아리따워라 균분의 자태를 잃지 않고, 삼상해라 풍연의 정취를 얻었고녀.[嬋娟不失粉態, 蕭颯盡得風煙情.]”라는 구절이 나온다. 《白樂天詩集 卷12》

취하여 읊다

醉吟

복희씨가 태어나 깊은 술통에 있으니
사람 머리 뱀 몸으로 나와 만나 이야기했네
가소롭도다 굴원⁶¹⁾은 어떤 사람인가
홀로 강가에서 술이 깨어 황혼⁶²⁾을 읊조리네

伏羲生在深樽裡
人首蛇身見我言
可笑屈原何許者
獨醒江畔賦黃昏

객지에서 우연히 읊다

客中偶吟

서적이 다 타고 보검도 끊어졌는데
만 리 먼 길 행장 얼마나 남았는가
다만 봄바람만 천릿길을 떠날테니
결국 꽃과 버들만 옛 동산에 그대로네

詩書灰燼寶刀絕
萬里行裝有幾餘
只將春風千里去
到頭花柳故園如

61) 굴원 : 기원전 340~기원전 278. 본명은 굴평(屈平), 자는 원(原)이다. 초 회왕(楚懷王)의 신임을 얻어 삼려대부(三閭大夫)가 되었으나, 참소와 비방으로 양왕(襄王)때에 강남(江南)으로 추방되었고 결국 먹라수(汨羅水)에 스스로 빠져 죽었다. 그가 지은 <이소경(離騷經)>은 초사(楚辭)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62) 황혼 : <이소경(離騷經)> “‘황혼으로 약속으로 정한다.’하더니[日黃昏以爲期兮]”라는 구절이 있다.

한가한 중에 회포를 읊다

閑中詠懷

인간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
신야⁶³⁾와 고산⁶⁴⁾을 겸할 수 없네
홀로 서리 내린 밤에 매화를 찾으니
온 하늘 밝은 달이 초가집을 비추네

生於人世爲男子
莘野孤山不可兼
獨訪梅花霜夜裡
一天明月照茅簷

영장사 시축에 읊다

題靈藏師詩軸

사람들은 영장이라고 나는 대사라고 하는데
십년 전부터 해마다⁶⁵⁾ 글을 지어 주고받았네
속세와 떨어진 산사의 창가에 달이 비추니
흰 얼굴과 푸른 눈썹을 꿈에서 보네

人曰靈藏我曰師
十年前歲以書隨
風埃一隔山寮月
雪面青眉夢見之

63) 신야 : 유신국(有莘國)의 들로, 이윤(伊尹)을 가리킨다. 옛날 이윤이 이곳에서 농사짓다가 탕왕(湯王)의 정중한 초빙을 받고 세상에 나가 상(商)나라를 일으켰다.

64) 고산 : 서호(西湖)의 고산(孤山)에 숨어 살았던 송(宋) 나라 임포(林逋)를 말한다. 장가도 들지 않고 자식도 없이 오직 매화와 학(鶴)을 기르며 살았으므로 당시에 매처학자(梅妻鶴子)라고 불렀던 고사가 전한다.《宋史 卷457 林逋列傳》

65) 해마다 : 원문에는 ‘세(歲)’ 아래에 “아마도 일(日) 자의 오류인 듯하다.[恐日字之誤]”라는 소주가 붙어 있다.

법천사⁶⁶⁾에 도착해서 태수에 부치다 到法泉寺寄太守

바다의 객 자연스레 놀다가⁶⁷⁾ 사찰에 오니
만 겹의 붉은 비단이 앞산을 에워쌌네
풍류스러운 태수는 아름다운 계절 만나
계수나무 우거진 속에서 생각이 무궁하리

海客天遊到梵宮
萬重紅錦擁前峰
風流太守佳期在
桂樹叢中思不窮

스님과 술을 마셨는데 모정에 이르니 취하다 飲僧酒到茅亭醉

사찰에서 죽엽주 술통을 다 비우고
깊은 밤 달빛 따라 강촌에 이르렀네
흰 갈매기와 좋은 경치에서 함께 자는데
하늘가⁶⁸⁾ 요란한 파도 소리 베개를 에워싸네

傾盡梵宮竹葉樽
夜深隨月到江村
白鷗同宿風煙裡
天上潮聲繞枕喧

66) 법천사 : 전남 무안군 몽탄면 승달산에 있는 사찰이다. 725년 서아시아 금지국(金地國)에서 온 정명(淨明)이 창건하였다. 1030년에 불에 탄 뒤 약 100년 동안 폐사로 남아 있던 것을 1031년에 원나라 임천사(臨川寺)에서 온원명(圓明)이 중창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 때 불에 타자 불상 등을 산내 암자인 목우암(牧牛庵)으로 옮겼다. 1662년 영욱(靈旭)이 중창하였으나, 1896년 다시 폐허가 되었으며 1913년 나주에서 온 정병우(丁丙愚)가 암자를 짓고, 1964년 활연(活然)이 법당을 짓는 등 불사를 진행하여 오늘에 이른다.

67) 자연스레 놀다가 : 원문의 ‘천유(天遊)’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연스러운 상태로 노니는 것을 뜻하는 말로, 《장자》〈외물(外物)〉에 “사람의 몸 안에는 텅 빈 공간이 있어 마음이 그 속에서 천리(天理)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닌다.[胸有重閭, 心有天遊.]”라고 하였다.

68) 시냇가 : 원문의 ‘천(天)’ 아래에 “아마도 천(川) 자의 오류인 듯하다.[恐川字之誤]”라는 소주가 붙어 있다.

오언율시

五言四韻

새상계축도

塞上契軸圖

장사들이 죽음에서 살아나	壯士生於死
누선 ⁶⁹⁾ 에서 날카로운 무기 안고 있네	樓舡擁兌戈
앞다투어 진나라 조적 ⁷⁰⁾ 이 되어	爭爲晉祖逖
함께 위나라 산하 ⁷¹⁾ 에 웅거하네	共據魏山河
칼을 차니 고래 ⁷²⁾ 가 울고	倚劍鯨鯢泣
잔을 돌리니 초목도 평화롭네	飛觴草木和
용면 ⁷³⁾ 처럼 훌륭한 일을 전하니	龍眠傳勝事
호방한 기상이 푸른 물결에 가득하네	豪氣滿滄波

69) 누선 : 누각이 있어 사람이 들어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배로, 흔히 전선(戰船)을 말한다.

70) 조적 : 266~321. 자는 사치(士稚)이다. 여러 관직을 역임한 뒤 혼란한 사회를 피해 남쪽으로 피난 갔다. 예주 자사(豫州刺史)가 되어 북벌을 주장하였으며 몇 년 만에 황하 이남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당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중원을 회복하겠다고 맹세한 일화가 전해진다.

71) 위나라의 산하 : 위나라는 산천이 험하고 견고하여 적의 침략을 받기 어려웠다. 전국 시대 때 위나라 무후가 배를 타고 서하(西河)로 내려가다가 말하기를 “강하다, 산천(山川)이 험하고 견고구나. 적국이 침범하기 어려우니 이것은 위국(魏國)의 보배로다.”라고 하였다. 《史記 卷65 吳起列傳》

72) 고래 : 원문의 ‘경예(鯨鯢)’는 각각 거대한 고래의 수컷과 암컷을 가리키는데,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악인(惡人)의 괴수를 비유한다. 《춘추좌씨전》 선공 12년조에 “옛날에 명왕(明王)이 불경한 자들을 정벌하여 그 경예를 잡아다가 죽여서 무덤처럼 쌓아 두어 크게 치욕을 주었다.” 하였다.

73) 용면 : 송(宋)나라 때의 유명한 화가 이공린(李公麟)의 호이다. 이공린이 벼슬을 그만두고 용면산(龍眠山)에 들어가 지내며 자호를 용면거사(龍眠居士)라 하였다. 여기서는 훌륭한 화가를 뜻한다.

좌의정 두암 김응남⁷⁴⁾을 애도하다
挽左相金斗巖應南

종묘사직이 존망하는 날이	宗社存亡日
신민에게는 생사의 때네	臣民生死時
나라의栋梁이 갑자기 꺾였으니 ⁷⁵⁾	棟樑忽自折
조정을 마침내 누가 지탱할까	大廈竟誰支
해역은 비가 막 개었으나	海域雨初霽
강성에는 바람이 다시 불네	江城風更吹
산인들이 끝없이 통곡하는 것은	山人無限哭
비단 사사로운 정 때문만은 아닐세	不獨爲吾私

74) 두암 김응남 : 1546~1598.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중숙(重叔), 호는 두암,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1568년 증광 문과에 을과로 급제했다. 1583년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좌천되었지만, 선정을 베풀어 기민(飢民)을 구휼하고 2년 뒤 우승지(右承旨)를 제수받았다.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했으며, 1594년 우의정, 1595년에 좌의정이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안무사(按撫使)로 영남에 내려갔다가 풍기(豐基)에서 병을 얻어 서울에 돌아온 뒤 관직을 사퇴하고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75) 나라의 …… 꺾였으니 : 좌의정 김응남이 죽은 것을 표현 것이다. 위개가 죽고 나서 사곤(謝鯤)이 그를 위해 통곡했는데, 어떤 사람이 통곡하는 이유를 묻자 사곤이 “기둥과 대들보가 꺾였으니, 나도 모르게 애통할 뿐이네.[棟樑折矣, 不覺哀耳.]”라고 대답한 고사가 있다. 《晉書 卷36 衛玠列傳》

술에 취하여 강여관과 덕휘 두 현인에게 주다

【덕휘는 강 침정이고 봉람은 자⁷⁶⁾이다.】

醉贈姜汝寬德輝二賢【德輝 姜僉正 鳳覽 表德也】

적막한 초가집 저녁에

寥落草堂暮

운한장⁷⁷⁾을 슬피 읊조리네

悲吟雲漢章

흰 부채⁷⁸⁾ 지닌 아름다운 객이 있어

白扇有佳客

푸른 눈⁷⁹⁾이 차가운 연못 비추네

青眼照寒塘

동이를 여니 봄기운이 술에서 일고

開瓮春生酒

병법을 말하니 칼이 시퍼렇게 날서네

談兵劍欲霜

어느새 떠나니 어찌할가

如何去忽忽

강수와 위수⁸⁰⁾가 꿈에서도 아득하네

江渭夢蒼茫

76) 자: 원문의 ‘표덕(表德)’은 자(字)를 이른다. 《안씨가훈(顔氏家訓)》에, “옛날에는 이름으로써 몸을 바르게 하고, 자로써 덕을 표출하였다.[古者, 名以德命, 字以表德.]”라고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후대에는 자나 별호(別號)를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77) 운한장: 주(周)나라 선왕(宣王)이 여왕(厲王)의 난정(亂政)을 거울삼아 잘 다스리려는 뜻을 품고 재변(災變)을 당해서 두렵게 여겨, 몸가짐을 조심하고 행실을 닦아서 재변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였다는 시(詩)로서, 《시경(詩經)》 대아(大雅) 탕지습(蕩之什) 운한장(雲漢章)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

78) 부채: 원문의 ‘선(扇)’ 아래에 “아마도 구(駒) 자의 오류인 듯하다.[恐駒字之誤]”라는 소주가 붙어 있다.

79) 푸른 눈: 원문의 ‘청안(青眼)’은 반갑게 맞는다는 뜻이다. 《진서(晉書)》 권49 <완적전열(阮籍列傳)에 “완적이 상주가 되었을 때 혜희(嵇喜)가 예절을 갖추어 조문하니 완적이 흘기는 눈[白眼]으로 대하고, 혜강(嵇康)이 술과 거문고를 갖고 찾아오니 완적이 기뻐하여 반가운 눈[青眼]으로 맞이했다.”라고 하였다.

80) 강수와 위수: 원문의 ‘강위(江渭)’는 대개 벼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한다. 두보(杜甫)의 <춘일억이백(春日憶李白)의 “위수 북쪽엔 봄 하늘에 우뚝 선 나무, 강 동쪽엔 날 저문 구름.[渭北春天樹 江東日暮雲]”에서 유래하였다.

능허정⁸¹⁾ 시에 차운하다

【정자는 고을의 복암천 가에 있다.】

次凌虛亭韻【亭在州之伏巖川上】

손님이 큰 강가 어귀에 오니
달은 청명한 가을 하늘에 가득하네
다만 흰 갈매기 모습만 보일 뿐
패옥⁸²⁾ 소리는 들리지 않네
구름이 날리니 산이 움직이려 하고
물결 치니 바위도 가벼이 움직일 듯
그대 아니면 나는 누구와 짝하리오
한담 나누는 말마다 정이 담겼네

客來大江口
月滿秋天清
但見白鷗面
不聞環珮聲
雲飛山欲動
浪蹴石如輕
非子吾誰侶
閑談箇箇情

81) 능허정 : 능허처사 나종소(羅宗素)가 건립한 강학소 겸 휴식처로 사용한 정자였는데 나덕명이 왕래하면서 영시담론(詠詩談論)을 하였다. 나주시 노안면 복암강(伏巖江) 위에 있었던 정자이다.

82) 패옥 : 조복(朝服) 좌우에 늘인 옥줄로 조정 신하들이 차고 다니는 것이다.

유선당에 쓰다【당은 복암에 있다.】

題留仙堂【堂在伏巖】

가을날 칠월 십육일	秋七月既望
손님이 강가의 집에 왔는데	客來江上家
주인은 달빛 비추는 모래사장에 누웠고	主人臥沙月
잠자는 백로는 갈대꽃 곁에 있구나	宿鷺傍蘆花
팽택 동산 가운데 버드나무 같고 ⁸³⁾	彭澤園中柳
고산 눈 속 ⁸⁴⁾ 의 매화나무 같네	孤山雪裡槎
내일 아침 다시 머리를 돌려	明朝更回首
서쪽 적성의 노을 ⁸⁵⁾ 을 보리라	西見赤城霞

83) 팽택 …… 같고 : 은자적 삶의 모습을 읊은 것이다. 팽택(彭澤)은 도잠(陶潛)을 가리킨다. 도잠은 집 앞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었기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晉書 卷94 陶潛列傳》

84) 고산 눈 속 : 고산(孤山)은 송(宋)나라 임포(林逋)가 은거하던 곳으로, 그는 이곳에 매화를 많이 심고 학을 길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처학자(梅妻鶴子)라고 불렀다. ‘고산의 눈’은 고산에 핀 눈처럼 흰 매화를 말한다.

85) 적성의 노을 : 적성은 중국 천태산(天台山) 남쪽에 있는 산 이름으로, 토석의 색깔이 붉어 항상 노을이 낀 것 같으며, 산의 모양이 성첩과 같이 생겼으므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진(晉)나라 손작(孫綽)의 〈천태산부(天台山賦)〉에 “적성에 붉은 노을이 일어 표치를 세우고, 폭포는 날아 흘러서 길을 나누었도다.[赤城霞起而建標, 瀑布飛流以界道.]”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아버지의 명으로 목백 임윤신⁸⁶⁾의 시에 대신 차운하다 以嚴君命代次牧伯任公允臣韻

수령 ⁸⁷⁾ 이 금각 ⁸⁸⁾ 을 떠나	鳧鳥辭琴閣
표연하게 산수의 사이에 있네	飄然水石間
안개와 노을 낀 기다란 길 고요하고	煙霞脩逕靜
술동이 있는 작은 집 한가롭네	樽酒小齋閑
하늘의 밝은 태양 얼마나 아득한가	白日天何迥
들녘의 푸르른 모가 스스로 위로하네	靑秧野自寬
쇠약한 백성들은 흰 머리 흘날리며	殘民揚素髮
두 손으로 빛나는 안장에 절을 하네	雙手拜華鞍

86) 임윤신 : 1529~1588. 본관은 풍천(豐川), 자는 경룡(景龍)이다. 1559년 기미년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에 급제하고 부제학, 동래부사를 지내다가 1587년 나주목사를 역임하였다.

87) 수령 : 원문의 ‘부석(鳧鳥)’은 신선들이 신는 신발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지방의 수령들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후한서(後漢書)》〈방술열전 상(方術列傳上) 왕교전(王喬傳)〉에 “왕교는 하동(河東) 사람인데 현종(顯宗) 때 섭현 영(葉縣令)이 되었다. 왕교는 신술(神術)이 있어서 매달 삭망(朔望)에 대(臺)에 나와 조회하였다. 황제가 그가 자주 오는데도 수레가 보이지 않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태사(太史)로 하여금 몰래 엿보게 하니, 태사가 그가 올 때에는 두 마리의 오리가 동남쪽에서 날아온다고 하였다. 이에 오리가 오는 것을 보고 그물을 퍼서 잡으니, 단지 신발 한 짝만 있었다. 상방(尙方)에 명하여 자세히 살펴보게 하니 전에 상서원(尙書院)의 관속들에게 하사한 신발이었다.” 하였다.

88) 금각 : 수령이 정사하는 곳을 말하는데 금당(琴堂)이라고도 한다. 옛날 복자천(宓子賤)이라는 어진 수령이 선보(單父)라는 고을을 다스릴 때 거문고를 타면서 마루 아래에 내려온 일이 없었으나 선보 현은 잘 다스려졌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우연히 읊다

偶吟

태고적 같은 작은 집에서
석양 하늘 아래 홀로 앉았네
금강석 같은 눈은 은빛 세계 이루고
옥정⁸⁹⁾의 안개는 얼음 비단 같네
풍광이 밝은 태양을 씻어주고
비 갠 뒤 달빛은 차가운 샘물을 비추네
천지간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으니
거문고 타고 독서하며 편안히 세월 보내리라

小齋如太古
獨坐夕陽天
銀界金剛雪
氷紈玉井煙
光風洒白日
霽月照寒泉
俯仰吾無愧
琴書穩送年

89) 옥정 : 태화산(太華山) 꼭대기에 있다는 연못 이름이다. 한유(韓愈)의 <고의(古意)>에 “태화산 꼭대기 옥정에 있는 연은, 꽃이 피면 열 장이요 뿌리는 배와 같다네.[太華峯頭玉井蓮, 開花十丈藕如船.]”라고 하였다. 《韓昌黎集 卷3》

유 정자⁹⁰⁾와 이별하며

別俞正字

부모를 떠나 대궐⁹¹⁾로 가는 그대
천리 밤길 조심하게
어찌 공명을 귀중히 여길까
벼슬길의 영광일랑 마음 두지 말게
임금 부모 스승 똑같이 섬겨
마땅히 의리와 정성 다해야지
쇠약하고 병들어 임천에 있으니
갈림길에서 정을 감당치 못하겠네

離親赴雙闕
千里戒宵征
豈爲功名重
非關宦路榮
於三事如一
所在義當誠
衰病林泉處
臨岐不勝情

90) 정자 : 조선 시대 홍문관(弘文館)·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에 두었던 정9품직으로 전적(典籍)이나 문장의 교정을 맡아보았다. 정원은 각 관청에 2명씩으로, 모두 문관(文官)이었다.

91) 대궐 : 원문의 ‘쌍궐(雙闕)’은 궁전 앞 양쪽에 높이 세운 누관(樓觀)으로, 도성의 대궐을 뜻한다. 포조(鮑照)의 악부시(樂府詩)에 “잔잔한 물처럼 잘 닦인 장안 거리, 높은 궁궐이 구름 속에 떠 있는 듯.[九衢平若水, 雙闕似雲浮.]”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文選 卷28 結客少年場行》

칠언율시

七言四韻

영암태수가 월출산 소나무를 읊은 시에 차운하다

次靈岩太守詠月出山松韻

집 아래에는 긴 냇물 집 위에는 산봉우리	屋下長川屋上峰
이끼 낀 사립문 적막한데 곁에는 차가운 소나무	苔扉寂寂傍寒松
십 년 비바람에 밝은 달빛 감추고	十年風雨藏明月
삼대의 아름다운 소리를 체종의 거문고에 맡겼네	三代徽音托遞鍾
구리 기둥 ⁹²⁾ 장사 마음도 오히려 쪼개지고 녹으니	銅柱壯心猶鑠鑠
초당의 쇠한 백발도 이미 더벅머리가 되었구나	草堂衰髮已鬢鬆
궁달은 하늘에 달렸으니 나와 무슨 상관이라	在天窮達吾何管
화와 복 ⁹³⁾ 을 다시 새옹 ⁹⁴⁾ 에 맡기리	倚伏還將付塞翁

92) 구리 기둥 : 원문의 ‘동주(銅柱)’는 동으로 만든 기둥으로 국경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였다. 《후한서(後漢書)》 권24 〈마원열전(馬援列傳)〉에 “교남이 모두 평정되었다.[嶠南悉平]”라고 한 내용에 대한 주석에서 《광주기(廣州記)》를 인용하여 “마원이 교지에 이르러 동주를 세워 한나라의 경계로 삼았다.[援到交趾, 立銅柱, 爲漢之極界也.]”라고 하였다.

93) 화와 복 : 원문의 ‘의복(倚伏)’은 화와 복이 서로 원인이 되어 변천하는 것을 말한다. 《노자(老子)》에 이르기를 “화는 복이 기대어 있는 바이고, 복은 화가 숨어 있는 바이다.[禍兮福之所倚, 福兮禍之所伏.]” 하였다.

94) 새옹 : 전화위복(轉禍爲福)과 비슷한 뜻으로서 길흉화복이 갈마들을 이르는 말이다. 중국 변방에 한 늙은이가 살았는데, 하루는 그 아들이 좋은 야생마 한 필을 어디서 얻어 오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하례를 했다. 그러나 새옹은 그것이 나쁜 일의 빌미가 될 수도 있으니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그 아들이 말을 타고 나갔다가 낙마하여 다리를 부러뜨렸다. 마을 사람들이 위로를 하러오자, 노인은 앞으로 이것이 복이 될지 아느냐며 태연해 했다. 그 후 전쟁이 나서 몸이 성한 젊은 이들은 모두 전쟁터에 나가 죽었지만 노인의 아들만은 다리 병신인 까닭에 무사했다.

시축의 시에 차운하다

次詩軸韻

어진 여섯 형제 모두

우애와 충정이 늙을수록 더해가네

큰 뜻은 모두 안연의 학문을 기약하고

한마음으로 함께 백이의 청렴함⁹⁵⁾을 흠모했네

창랑곡⁹⁶⁾을 마치니 어부는 웃음을 지으나

백설음을 읊조리고 오니 영객은 싫어하네⁹⁷⁾

노병이나 숲속에서 창수할 것을 계획하니

초당 매화 대나무도 함께 있다고 하네

兄乎弟也六賢僉

友愛衷情到老添

大志共期顏氏學

一心相慕伯夷廉

滄浪曲罷漁人笑

白雪吟來郢客嫌

衰病已酬林下計

草堂梅竹亦云兼

95) 백이의 청렴함 : 《맹자》〈만장 하(萬章下)〉에 맹자가 백이(伯夷)의 깨끗한 절의를 칭송하며 이르기를 “백이의 풍도를 들은 자들은 완악한 지아비가 청렴해지고, 나약한 지아비가 입지를 갖게 된다.[聞伯夷之風者, 頑夫廉, 懦夫有立志.]”라고 하였다.

96) 창랑곡 : 《맹자》와 《초사》에 실린 노래로 즉 “창랑의 물이 맑거든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거든 나의 발을 씻으리라[滄浪之水淸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 한 것인데, 《맹자》에서는 유자(孺子)가 한 노래로서 길흉·화복은 모두 자초(自招)하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 《초사》에서는 어부(漁父)가 굴원(屈原)에 대하여 부른 노래로서 세상이 태평하면 벼슬을 하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은둔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97) 백설음을 …… 싫어하네 : 백설음은 초(楚)나라의 가곡(歌曲) 이름인데, 곡조가 매우 고상하여 창화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다. 영객은 영인(郢人)과 같은 말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이른다.

오언고시

五言古詩

백수가

白叟歌

백발노인 눈처럼 하얗라
백발노인 천하에 드무네
세상사람은 흰 것을 안 좋아하니
백발노인은 어디에 의지하리오
강호의 가을 달 하얗게 빛나니
백발노인이 돌아갈 수 있으리

白叟白如雪
白叟天下稀
世人不好白
白叟何所依
江湖秋月白
白叟可言歸

선영에 오르니 감회가 있어

上丘墓有懷

왕성했던 모습 다시 볼 수 없지만
혼백은 여전히 여기에 남았네
묵은 풀⁹⁸⁾은 내 집이 아니거늘
비와 이슬까지 적시네
통곡하며 아침저녁으로 절을 하고
홀륭한 말씀⁹⁹⁾ 듣기를 원하지만
고요히 끝내 말이 없으시니
아버지께서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豐容不更覩
體魄猶在茲
宿草非吾家
況復雨露滋
痛哭拜晨夕
警咳願聞之
闐闐竟無語
爺乎知不知

98) 묵은 풀 : 원문의 ‘숙초(宿草)’는 해를 넘긴 풀로, 무덤을 가리킨다. 《예기》〈단궁 상(檀弓上)〉에 “봉우의 무덤에 묵은 풀이 있으면 곡을 하지 않는다.[朋友之墓，有宿草而不哭焉.]” 하였다.

99) 홀륭한 말씀 : 원문의 ‘경해(警咳)’는 기침소리라는 말이지만 남의 말이나 시문(詩文)의 미칭(美稱)으로 사용된다.

생전에 하늘같은 은혜를 저버렸으니
 이날이 되면 장차 어찌 할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돌릴 수 없으매
 애통하며 <육아>¹⁰⁰⁾의 시 읊네
 그런 까닭에 옛 사람은
 무덤 곁에서 영원히 함께 했네
 이곳에 여막을 지으니
 이 마음 진실로 비통하구나
 강산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네
 아침마다 선영에 올라
 돌아가려다 다시 머뭇거리네
 온화하게 받들어 모시며
 한번이라도 평소의 모습 보고 싶은데
 나의 정성이 지극하지 못하니
 어찌 감응할 수 있겠는가
 홀로 남겨준 몸 이끌고 돌아가는데
 석양이 초가집에 저무네

生前負昊天
 此日將何爲
 遑遑不能及
 慟切蓼莪詩
 所以古之人
 墓下長相隨
 結構於此地
 此意良以悲
 湖山雖信美
 亦足添漣漣
 朝朝上丘塚
 欲去還躊躇
 庶幾侍閭閻
 一見平生儀
 伊我誠未至
 何能有格思
 獨將遺體歸
 落日下茅茨

100) <육아>: 낳아 주고 길러 준 부모의 은혜를 말한다. 《시경》<육아(蓼莪)>에 “슬프고 슬프도다, 부모님 생각. 낳고 길러 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던가.[哀哀父母 生我劬勞]”라고 하였다.

북지당 北池塘

먼 곳 나그네 잠에 막 깨니
 구름 낀 산이 새벽에 다시 푸르렀네
 나막신¹⁰¹⁾ 가는대로 내버려 두어
 이에 이르니 서산의 폭포
 처음엔 흰 용이 가로막은 듯
 골짜기 가득히 바람과 비가 일어나더니
 다시 바다의 인어¹⁰²⁾가 온 듯
 기다란 비단이 향나무에 걸려있네
 일만 곡의 구슬이 모두 흩어지고
 일천 층의 옥이 깎아진 듯 서 있으니
 차가운 소리가 나의 귀를 맑게 하고
 맑은 모습이 나의 눈을 기쁘게 하네
 잠시 산수 간에 쉬고 있으니
 도리어 속세의 자취가 부끄럽구나
 우연히 세 사람을 만나서
 함께 계곡 가에 취하도록 마시고
 오늘 아침 한바탕 이야기를 나누니
 십 년 독서보다 훨씬 나았네
 노복이여 가자고 재촉하지 말라
 나는 산을 좋아하는 버릇이 있으니

遠客睡初醒
 雲山曉更碧
 蠟屐任所之
 得此西山瀑
 初疑白龍橫
 滿壑風雨作
 還訝海蛟來
 長綃掛香木
 散盡萬斛珠
 削立千層玉
 冷冷清我耳
 淡淡悅我目
 暫憩山水間
 却愧風塵跡
 偶然見三人
 共醉溪邊酌
 今朝一場話
 遠勝十年讀
 僕夫莫催行
 我有愛山癖

101) 나막신 : 원문의 '납극(蠟屐)'은 밑을 발라 반질반질하게 손질한 나막신을 말한다. 남조 송(南朝宋)의 사영운(謝靈運)이 평소 등산을 좋아하였는데, 산에 오를 때는 나막신의 앞굽을 떼어 버리고 산을 내려갈 때에는 뒷굽을 떼어 걷기에 편하도록 했다는 고사가 있다. 《宋書 卷67 謝靈運列傳》

102) 바다의 인어 : 원문의 '해교(海蛟)'는 전설 속의 교인(蛟人)인 인어를 말한다. 남해 물속에 사는 교인(蛟人)이 비단을 잘 짰는데, 물 밖으로 나와 인간에 머물면서 매일 비단을 짜다가, 작별할 무렵에 눈물을 흘려서 구슬을 만들어 주인에게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太平御覽 卷803》

술에 취하여 강여관과 덕휘 두 현인에게 주다

醉贈姜汝寬德輝二賢

물이 있으나 맑은 위수가 아닌데
젊은 강태공 두 사람이 오니
운건을 한 늙은 제갈공명이
초당 안으로 맞이하여 들어갔네
검법을 논하니 용담¹⁰³⁾이 말라버렸고
병법을 말하니 호랑이 굴이 텅 비네
풍리¹⁰⁴⁾가 평탄한 길을 지나가고
횡운골¹⁰⁵⁾이 험준한 산에서 내려오네
나는 진실로 산속의 주인인데
그대는 어찌 교외의 늙은이인가
일천 잔 마셔도 취하지 않는데
비와 눈으로 동서가 어두어지네

有水非清渭
雙來少太公
綸巾老諸葛
迎入草堂中
說劍龍潭渴
談兵虎穴空
風驪過坦道
雲鵲下危峰
余固山中主
君胡野外翁
千盃不成醉
雨雪暗西東

103) 용담 : 위험하고 흉악한 소굴로 ‘호혈(虎穴)’과 같은 의미이다.

104) 풍리 : 복희씨(伏羲氏) 때 황하(黃河)에서 《주역》 팔괘(八卦)의 근원이 된 하도(河圖)를 지고 나왔다는 용마(龍馬)이다. 《王按集 益州夫子廟碑》

105) 횡운골 : 천리마처럼 빨리 달리는 말로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가 댔던 팔준마(八駿馬) 중 하나이다.

오언배율

五言排律

친구에게 주다

贈友人

매화와 국화는 진짜 도연명 ¹⁰⁶ 이요	梅菊眞元氣
거문고와 책은 가짜 두보 ¹⁰⁷ 라네	琴書僞拾遺
삼대 이래의 인물 초대하여	相邀三代下
함께 오호 ¹⁰⁸ 의 물가에 앉았네	共坐五湖湄
검법을 말하던 백원 ¹⁰⁹ 죽어	說劍白猿死
병법을 논하던 황석 ¹¹⁰ 이 슬퍼하네	談兵黃石悲
누가 은둔한 이내 신세 가련히 여길까	誰憐身在遯
기구한 운수를 만나 절로 애석하구나	自惜數逢奇
변화의 눈물 ¹¹¹ 어찌 뿌리리	卞淚何堪洒

106) 도연명 : 원문의 ‘원기(元氣)’ 아래에 “아마도 ‘亮’ 자의 오류인 듯하다.[恐亮字之誤]”라는 소주가 붙어 있다. 문맥에 맞게 ‘氣’를 ‘亮’으로 바꿔 번역하였다. 원량(元亮)은 도연명(陶淵明)의 자이다.

107) 두보 : 원문의 ‘습유(杜拾遺)’는 당 현종(唐玄宗) 때 우습유(右拾遺)를 지낸 두보(杜甫)를 가리킨다.

108) 오호 : 옛날 월나라 지역의 호수이다.

109) 백원 : 춘추 시대 월인(越人) 처녀가 월왕(越王)에게 검술을 가르치려고 길을 가던 도중에 ‘흰 원숭이[白猿]’가 변신한 원공(袁公)이라는 사람을 만나, 그의 요청을 받고는 검술 시합을 하였는데, 원공이 그녀를 상대하다가 나무 위로 날아올라 다시 흰 원숭이로 몸을 바꿔 사라졌다는 전설이 있다. 《吳越春秋 卷9 句踐陰謀外傳》. 여기에서 유래하여 후대에 검술의 명인을 백원공(白猿公) 혹은 백원옹(白猿翁)이라고 지칭하게 되었다.

110) 황석 : 진(秦)나라 말기의 은사(隱士)로 황석공(黃石公)을 말한다. 장량(張良)에게 치국(治國)의 대도(大道)와 병법(兵法)을 전수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소서(素書)》라 하며, 《삼략(三略)》 또한 그가 전한 책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확실치 않다. 다만 두 책의 내용이 서로 비슷한바, 태공의 《삼략(三略)》을 황석공이 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111) 변화의 눈물 : 재능을 지니고도 세상에 쓰이지 못하는 경우를 비유한 말이다. 춘추 시대 초(楚)나라 화씨(和氏) 즉 변화(和化)가 형산(荊山)에서 직경이 한 자나 되는 박옥을 얻어 여왕(厲王)과 무왕(武王)에게 바쳤으나 옥을 감정하는 사람이 보고 돌이라 하여 두 발이 잘리고 말았다. 그 후 문왕(文王)이 즉위하자 화씨는 형산 아래서 박옥을 안고 사흘 밤낮을 울어 피눈물이 흘렀다. 문왕이 이 사실을 듣고 사람을 보내 “천하에 발이 잘린 사람이 많은데 그대만이 유독 이렇게 우는 것은 어째서인가?”

제나라 피리 ¹¹²⁾ 불지 않으리	齊竽不肯吹
푸른 산에 병든 학이 살고	靑山棲病鶴
푸른 풀에 풍리 ¹¹³⁾ 가 누워 있네	綠草臥風驪
일천 척 소나무 우뚝한데	落落松千尺
계수나무 한 가지 쓸쓸하네	蕭蕭桂一枝
성스럽고 밝은 시대 유유자적하며	優游聖明代
태평가를 부르고 읊네	歌咏太平辭
어찌 바람 앞 사초 ¹¹⁴⁾ 이겠는가	豈是風前麝
골짜기 속 지초 향 희미하네	依徯谷裡芝
초가집에 밤 깊은데	茅齋夜深處
이끼 낀 언덕에 달빛 잠겼네	苔塢月沈時
양춘곡 ¹¹⁵⁾ 을 연주하려다	欲奏陽春曲
도리어 맹호연 ¹¹⁶⁾ 의 가사를 읊었네	還題孟浩然

라고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발이 잘린 것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보배로운 옥을 돌이라 하고 곧은 선비를 미치광이라 하니, 이 때문에 제가 슬피 우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옥공(玉工)을 시켜 박옥을 다듬게 하니, 직경이 한 자나 되고 티 한 점 없는 큰 옥이 나왔다 한다. 《韓非子 和氏》

112) 제나라 피리 : 자격도 없는 사람이 허명(虛名)만 지니고서 자리에 끼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제 선왕(齊宣王)이 피리 연주를 좋아하여 항상 300인을 모아 합주(合奏)하게 하자, 남곽 처사(南郭處士)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슬쩍 끼어들어 국록을 타 먹곤 하였는데, 선왕이 죽고 민왕(湣王)이 즉위한 뒤에 한 사람씩 연주하게 하자 본색이 드러날까 겁낸 나머지 도망쳤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韓非子 內儲說上》

113) 풍리 : 풍리는 복희씨(伏羲氏) 때 황하(黃河)에서 《주역》 팔괘(八卦)의 근원이 된 하도(河圖)를 지고 나왔다는 용마(龍馬)이다.

114) 사초 : 사향초(麝香草)의 준말로 자술향(紫述香)의 별칭인데, 현인 군자의 아름다운 덕을 비유한다.

115) 양춘곡 : 송옥(宋玉)의 <대초왕문(對楚王文)>이란 글에 보이는 <양춘백설가(陽春白雪歌)>로, 지음(知音)의 노래를 뜻한다. 어떤 사람이 영중(郢中)에서 처음에 <하리파인(下里巴人)>이란 노래를 부르자 그 소리를 알아듣고 화답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고, 다음으로 <양아해로(陽阿薤露)>를 부르자 화답하는 사람이 수백 명으로 줄었고, 다음으로 <양춘백설가>를 부르자 화답하는 사람이 수십 명으로 줄었던바 곡조가 더욱 높을수록 그에 화답하는 사람이 더욱 적었다 한다. 《文選 卷45》

116) 맹호연 : 당나라의 시인으로, 양양(襄陽) 사람이기 때문에 맹양양(孟襄陽)이라고도 불린다. 고향 부근의 녹문산(鹿門山)에 은거하다 마흔에 진사과(進士科)에 응시했으나 실패한 뒤 평생 처사(處士)로 지냈다. 전원(田園)의 산수 경치와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심정을 묘사한 작품이 많다. 《新唐書 卷203 孟浩然列傳》

길이 먼 곳으로 떠난¹¹⁷⁾ 자가 아니라면
어찌 고요히 생각하지 않으리

能非長往者
寧不靜言思

117) 길이 먼 곳으로 떠난 : 원문의 '장왕(長往)'은 멀리 가서 영원토록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은사(隱士)들의 은거를 의미한다. 공치규(孔稚珪)의 북산이문(北山移文)에 “장왕했던 유인을 탄식한다.[或歎幽人長往]” 하였다.

칠언고시

七言古詩

감회를 우연히 읊다

感懷偶吟

검각 ¹¹⁸⁾ 이 평지 되고	劍閣平地
평지가 검각 되며	平地劍閣
곤옥 ¹¹⁹⁾ 이 연석 ¹²⁰⁾ 되고	崑玉燕石
연석이 곤옥 되네	燕石崑玉
맑은 바다에 가을바람이 일어나고	淸海起秋風
미친 파도가 은빛 물결 ¹²¹⁾ 을 몰아치네	狂濤駕銀屋
이백이 고래를 탄 듯 ¹²²⁾	李白忽騎鯨
원통한 기운 푸른 하늘에 드리우네	冤氛薄蒼霄
이락 ¹²³⁾ 과 곡구 ¹²⁴⁾ 에 살았던 늙은이여	居伊洛谷口翁

118) 검각 : 낙양에서 촉(蜀)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관문으로, 천 리가 잔도(棧道)로 이어지는 지극히 험한 길로 알려져 있다. 이백의 <촉도난(蜀道難)>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119) 곤옥 : 곤륜산(崑崙山)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옥을 가리킨다.

120) 연석 : 연산(燕山)에서 생산되는 영석(嬰石)으로 옥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옥이 아닌 돌이다. 송(宋)나라의 어리석은 자가 이 돌을 얻고는 큰 보물이라 여겨 애지중지하다가 웃음거리가 된 고사가 있는데, 이후 어리석은 자 혹은 허식(虛飾)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를 비유하는 말로도 쓰인다. 《太平御覽 卷51 地部16》

121) 은빛 물결 : 원문의 ‘은옥(銀屋)’은 높은 파도를 형용한 말이다. 이백(李白)의 <사마장군가(司馬將軍歌)>에 “강중의 하얀 파도는 은빛 지붕 같은데, 몸은 하괴에 임하여 장막 안에 앉았도다.[江中白浪如銀屋 身居玉帳臨河魁]”라고 하였다. 《李太白集 卷3》

122) 이백이 고래를 탄 듯 : 두보(杜甫)의 “고래를 타고 가는 이백[李白騎鯨魚]”이라는 시구가 있다. 《唐才子傳 李白》 당(唐)나라 마존(馬存)의 <연사정(燕思亭)>이란 시에 “이백이 고래 타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니, 강남 땅 풍월이 한가한 지 여러 해라.[李白騎鯨飛上天 江南風月閑多年]”라는 구절이 있다.

123) 이락 : 이수(伊水)와 낙수(洛水)를 지칭하는데, 명도(明道) 정호(程顥)와 이천(伊川) 정이(程頤)가 이 부근에 살았다. 정호(程顥)와 정이(程頤)가 강학하던 이천(伊川)과 낙양(洛陽)을 가리킨다.

124) 곡구 : 한대(漢代)의 은사(隱士) 정박(鄭樸)이 은거하던 곳이다. 정박의 자는 자진(子真)인데, 그는 처음부터 조정의 부름을 사절하고 곡구에 은거하여 일생을 마쳤다. 《漢書 卷72 王吉傳》

길이 생각하여도 밤처럼 아득히 멀구나
아득히 멀어 볼 수 없는데
귀밑머리 세어 절로 쓸쓸하네
차라리 잠들어 깨고 싶지 않거늘¹²⁵⁾
걱정하다가 날이 새어버렸네
사람들 모두 나에게 취하길 권하지만
푸른 산 석양에 취하지 않았네
즐겁지 않다 하여 어찌 길이 근심하리오
흰 갈매기와 누런 학은 본래 무심하다네
외로운 산 정자 위 밝은 달이 남았으니
오솔길 가득한 한매 찾는 것이 어떠하리

長相思夜迢迢
迢迢不可見
鬢雪自蕭蕭
尙寐欲無訛
耿耿逮明發
人皆勸我醉
未醉青山夕
不樂何爲長鬱悵
白鷗黃鶴本無心
孤山亭上餘明月
一逕寒梅盍往尋

125) 차라리 …… 않거늘 : 《시경》〈왕풍(王風) 토원(兔爰)〉에 “온갖 근심 모여드니, 차라리 잠이 들어 깨어나지 말았으면.[逢此百罹, 尙寐無訛.]”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감회사

感懷詞

인생에 늙음이 이르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	人生到老寧不悲
잎 지고 풀 시드니 홀로 사립문 닫았네	落葉秋草獨掩扉
어찌 세상 사람들만 찾아오지 않으리	豈特世人之不問
매우 친한 자와 또한 소원하네	抑亦至親者亦疎
도연명이 교유를 끊고 적공이 큰 글씨를 쓴 ¹²⁶ 까닭이니	所以淵明息交翟公大書
만 겹 구름 긴 골짜기로 영원히 돌아가리	萬重雲壑永言歸歟
강가의 재실은 쓸쓸하고	江齋寂寂
산에 뜬 달은 창창한데	山月蒼蒼
흰 갈매기 날아오니	白鷗兮飛來
오래도록 그대와 소요하리	長與君兮徜徉

126) 적공이 큰 글씨를 쓴 : 한(漢)나라 적공(翟公)이 정위(廷尉)로 있을 때는 빈객이 문에 가득하더니 관직에서 축출되자 문밖에 참새 그물을 쳐도 될 만큼 썰렁하였는데, 그 후 그가 다시 정위가 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에 적공이 문에 큰 글씨로 적기를, “한 번 죽고 한 번 삶에서 벗의 우정을 알 수 있고, 한 번 빈한하고 한 번 부유함에서 벗의 태도를 알 수 있으며, 한 번 귀하고 한 번 천함에서 벗의 우정이 드러난다.”라고 하였다. 《史記 卷120 汲鄭列傳》

도성으로 돌아가는 형 군문 개¹²⁷⁾를 전송하며 送邢軍門玠還京師

황제 이십칠년¹²⁸⁾

장군이 무사히 도성으로 돌아가네

소국의 적은 백성을 황제께서 가엽게 여겨

갈림길에서 무슨 말 주고자 했나

우리 조정 이백 년 종묘사직

예악과 문물은 중화의 의식을 따랐네

황제 은혜 미치는 곳마다 천하가 맑아지니

오래도록 태평성대 기약하였네

지난 임진년 봄 이월을 생각하면

정녕 우리 임금 치세¹²⁹⁾였네

오직 현송¹³⁰⁾ 소리 상서¹³¹⁾에 가득한데

어지러운 전쟁을 어찌 생각이나 하랴

누가 알랴 섬나라 왜구가 황제의 교화를 막아

皇帝二十有七載

將軍無事還京師

小國寡民帝所憐

臨歧欲贈將何詞

我朝宗社二百年

禮樂文物遵華儀

皇恩隨處寰宇清

準擬長占昇平期

憶昨壬辰春二月

正是吾君垂拱時

唯聞絃誦滿庠序

紛紛兵革何思惟

誰知島寇梗皇化

127) 형 군문 개 : 군문은 총독군무아문(總督軍務衙門)의 약칭이다. 명나라 경략(經略) 형개(邢玠, 1540~1612)를 말한다. 형개의 자는 진백(摯伯)이며 호는 곤전(昆田)이다. 1571년(용경 5)에 진사가 되어 밀운지현(密雲知縣)·어사(禦史)·순무(巡撫) 등을 지냈다. 1597년(만력 25)에 풍신수길(豐臣秀吉)이 조선을 침범하자 계요 총독(薊遼總督)으로 파견되어 왜군을 크게 무찔러 병부 상서(兵部尙書)에 이르렀고, 죽은 후 태자태보(太子太保)에 추증되었다. 조선에서는 선무사(宣武祠)라는 사당을 세워 그 공을 기렸다.

128) 황제 이십칠년 : 만력(萬曆) 27년으로 선조 32년, 1599년이다.

129) 치세(治世) : 원문의 ‘수공(垂拱)’은 무위지치(無爲之治)를 가리킨다. 《서경》〈무성(武成)〉에 “웃을 늘어뜨리고 팔짱을 낀 채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잘 다스려진다.[垂拱而天下治]”라고 하였다.

130) 현송 : 옛날 《시경(詩經)》을 배울 적에 거문고와 비파 등 현악기에 맞추어 노래로 불렀는데 이를 현가(絃歌)라고 한다. 그리고 악기의 반주 없이 낭독하는 것을 송(誦)이라고 하는데, 이 둘을 합하여 현송이라고 칭한다. 곧 수업하고 송독하는 것을 말한다.

131) 상서 : 중국 고대의 향교(鄉校) 즉 지방 학교 이름인데 후대에는 학교를 범칭한 말로 쓰인다. 《맹자》〈양혜왕 상(梁惠王上)〉에 맹자가 양혜왕에게 왕자(王者)의 다스림에 대해 논하면서 이르기를 “상서의 가르침을 삼가서 효제의 의리로써 거듭한다면 머리가 반백이 된 자가 길에서 짐을 등에 지거나 머리에 이지 않을 것입니다.[謹庠序之教, 申之以孝悌之養,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 참상을 입힐 줄	坐使東域生瘡痍
천 척의 배 하룻밤에 바다를 날듯이 건너니	千艘一夕飛渡海
순식간에 도성에 비바람이 부네	倏忽王城風雨吹
조정은 장자방 ¹³²⁾ 처럼 계책 낼 겨를이 없고	廟堂無暇子房籌
전장에는 진평의 기묘한 계책 ¹³³⁾ 미치지 못했네	沙場未及陳平奇
흉악한칼날이 이르는 곳마다 공이가 뜰만큼 피가 흘러넘치고 ¹³⁴⁾	兇鋒到處血漂杵
수많은 마을은 백골로 빈 땅을 메웠네	千村白骨填空基
백성들은 생사 앞에 말조차 못 하는데	蒼生生死不可言
외로운 군신들은 어디로 가는가	子子君臣何所之
만 리 밖 의주에서 <식미> ¹³⁵⁾ 를 읊조리니	萬里龍灣賦式微
눈 내린 변방 달 비친 관문 처량함만 더하네	塞雪關月堪淒悲
우리 왕이 지성으로 황제 마음을 감격시켰으니	吾王至誠感帝衷
어찌 진나라에서 굶던 포서의 ¹³⁶⁾ 신세에 이르겠는가	豈待秦庭包胥飢
시서를 익힌 노련한 장수가 홀연 단에 오르니	詩書老將忽登壇
범 같은 두상 원숭이 같은 팔 실로 영웅의 자태였네	虎頭猿臂眞英姿
뛰어나고 우뚝한 마음으로 일만 병사를 품었으니	胸襟卓卓藏萬兵

132) 장자방 : 한(漢)나라의 개국공신 장량(張良)으로, 자방(子房)은 그의 자이다. 장량은 뛰어난 계책을 내어 한 고조(漢高祖)가 천하를 통일하는 데에 큰 공을 세웠으나, 천하가 평정된 뒤에 한 고조가 제(齊)나라 땅 3만 호(戶)를 봉해 주려고 하자 이를 사양하고 유후(留侯)에 봉해지는 것에 만족하였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133) 진평의 기이한 계책 : 한(漢)나라 진평(陳平)이 고조(高祖) 유방(劉邦)을 위하여 올린 여섯 가지 기이한 계책을 이른다. 《사기(史記)》 권130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 진평에 대해 “여섯 가지 기이한 계책을 올리자 제후들이 한나라에 복종하였다.[六奇旣用, 諸侯實從於漢.]”라고 하였다.

134) 공이가 …… 흘러넘치고 : 《서경(書經)》<무성(武成)>의, “피가 흘러 절굿공이가 떠내려갔다.[血流漂杵]”라는 표현을 인용한 것이다.

135) <식미> : 《시경》<식미(式微)>에 “쇠할 대로 쇠했거늘,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오.[式微式微, 胡不歸.]”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136) 진나라에서 굶던 포의서 : 신포서(申包胥)는 춘추 시대 초(楚)나라 사람으로, 소왕(昭王)의 대부(大夫)를 지냈다. 오자서(伍子胥)가 오(吳)나라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초나라 수도 영(郢)을 함락하자, 진(秦)나라의 애공(哀公)에게 7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울며 구원병을 청하였다. 《史記 卷66 伍子胥列傳》

대궐의 파목 ¹³⁷⁾ 이 공이 아니고선 누구이겠는가	禁中頗牧非公誰
칼에 기대면 남산의 백호가 달아나고	倚劍南山走白額
활을 쏘면 장교 아래의 이무기가 놀라네 ¹³⁸⁾	彈弓橋下驚蛟螭
황제께서 내가 가서 왜구 ¹³⁹⁾ 를 정벌하고	帝曰汝往征不軌
난을 평정하여 위태로운 조선을 도와라 하셨네	蕩平扶我東藩危
씩씩하게 ¹⁴⁰⁾ 삼십 만 병사가 출정하니	桓桓出師三十萬
햇빛에 창을 번쩍거리며 앞다투어 내달렸네	金戈耀日爭奔馳
赫赫한 황제의 위엄이 구주 ¹⁴¹⁾ 에 진동하고	赫赫皇威動九州
삼군 ¹⁴²⁾ 의 씩씩한 기상이 오랑캐를 능멸하였네	三軍壯氣凌蠻夷

137) 대궐의 파목 : 문무를 겸비하고 재략(才略)이 탁월한 형개를 뜻하는 말이다. 파목은 전국 시대 조(趙)나라의 명장인 엄파(廉頗)와 이목(李牧)을 병칭한 말인데, 당 선종(唐宣宗) 때 한림학사 필함(畢誠)이 강족(羌族)을 격파할 대책을 상세히 올리자, 황제가 “우리 조정의 시종신 중에 엄파와 이목 같은 명장이 있을 줄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는가.[孰謂頗,牧在吾禁署!]”라고 하고, 필함을 절도사로 임명해서 공을 세우게 했던 고사가 있다.《新唐書 卷183 畢誠列傳》

138) 칼에 …… 놀라네 : 원문의 ‘백액(白額)’은 남산에 사는, 이마가 희고 난폭한 호랑이를 말한다. 중국 삼국 시대 주처(周處)의 고사에서 유래한다. 주처는 젊었을 때 힘이 세고 난폭하여 마을에 해를 끼치고 다녔다. 어느 날 마을의 노인에게 “시절도 좋고 농사도 풍작인데 어찌하여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노인이 한숨을 쉬며, “세 가지 폐해가 없어지지 않는데 무어 즐겁겠는가?” 하였다. 주처가 그게 무어냐고 묻자, “남산에 있는 이마가 흰 호랑이[白額虎]와 장교(長橋) 아래에 사는 이무기와 자네라네.” 하였다. 주처는 호랑이를 때려잡고 이무기를 죽였으나, 사람들이 도리어 그를 더욱 두려워하였다. 이후 주처는 열심히 학문을 닦고 자신을 다스려 훌륭한 인물이 되었으며, 진(晉)나라에서 벼슬하여 어사중승(御史中丞)이 되었다. 뒤에 제만년(齊萬年)의 반란에 후퇴하지 않고 싸우다가 전사하였다.《晉書 卷58 周處列傳》

139) 왜구 : 원문의 ‘불궤(不軌)’는 마땅히 좇아야 할 법이나 도리에 벗어났다는 뜻으로, 모반이나 반역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왜구를 의미한다. 한(漢)나라 가의(賈誼)의 <과진론(過秦論)>에 “비록 교활한 백성이 있더라도 주상을 떠난 마음이 없다면, 불궤(不軌)의 신하가 그 간사한 지혜를 꾸밀 길이 없어서 포란(暴亂)의 간사함이 그쳐집니다.[雖有狡猾之民 無離上之心 則不軌之臣無以飾其智 而暴亂之奸弭矣]”라고 하였다.

140) 씩씩하게 : 《시경(詩經)》<주송(周頌) 환(桓)>의 “씩씩한 무왕이여, 그 땅을 보전했도다.[桓桓武王, 保有厥土.]”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141) 구주 : 중국 전역을 지칭하는 말이다. 《상서(尚書)》<우공(禹貢)>에서는 예주(豫州), 청주(青州), 서주(徐州), 양주(揚州), 형주(荊州), 양주(梁州), 웅주(雍州), 기주(冀州), 연주(兗州)를 ‘구주’라고 하였다.

142) 삼군 : 제후국의 군사로, 중국 고대 주(周)나라의 군대 편제에서 비롯하였다. ‘군(軍)’은 군사의 단위로, 다섯 사람이 ‘오(伍)’가 되고 5오가 ‘양(兩)’이 되고 4양이 ‘졸(卒)’이 되고 5졸이 ‘여(旅)’가 되고 5려가 ‘사(師)’가 되고 5사가 ‘군(軍)’이 되므로 1군은 1만 2500명이고 6군은 7만 5000명이 된다. 또한 천

장막 안의 훌륭한 계책 ¹⁴³⁾ 은 극맹과 같고	嘉猷幕中有劇孟
문 앞에 늘어선 용사들은 모두 범과 곰 ¹⁴⁴⁾ 같으니	列戟門前皆虎羆
황소 ¹⁴⁵⁾ 가 저도 모르게 걸상에서 떨어져 울 터	黃巢不覺下床泣
석록 ¹⁴⁶⁾ 이 어찌 감히 금구 ¹⁴⁷⁾ 를 엿보리	石勒何敢金甌窺
팔 년 요망한 기운을 일시에 걷고	八載妖氛一時捲
유악 ¹⁴⁸⁾ 에서 신묘한 계책 베풀었네	自是帷幄神謀施
마원처럼 구리 기둥으로 ¹⁴⁹⁾ 공을 자랑하지 않고	馬援休誇銅柱功
한유처럼 <평회서비>를 ¹⁵⁰⁾ 찬술하지 않았지만	韓愈莫撰淮西碑

자는 6군을 거느리고, 큰 나라는 3군을 거느리고, 작은 나라는 2군을 거느리고, 아주 작은 나라는 1군을 거느린다. 《周禮注疏 卷28 下官 司書》

143) 훌륭한 계책 : 원문의 ‘가유(嘉猷)’는 나라를 다스리는 훌륭한 계책이라는 뜻으로, 《상서(尙書)》〈군진(君陳)〉에 “그대에게 훌륭한 계획과 계책이 있거든 들어가 궁중에서 그대 임금에게 아뢰고 그대는 밖에서 거기에 따르라.[爾有嘉謀嘉猷, 則入告爾后于內, 爾乃順之于外.]”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144) 범과 곰 : 원문 ‘호비(虎羆)’는 《서경》〈목서(牧誓)〉에 “부디 군세고 군세여 범과 같고 비호와 같으며 곰과 같고 큰곰과 같이 상나라 교외에서 싸워 도망하는 자들을 맞아 공격하여 서토 사람들을 노역하게 하지 말라.[尚桓桓如虎如貔, 如熊如羆于商郊, 弗迓克奔, 以役西土.]”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용감한 장병을 의미한다.

145) 황소 : 820~884. 당나라 말기 반란군의 지도자로 왕선지가 난을 일으키자 그를 따르다가, 왕선지가 죽자 남은 무리를 이끌고 수도 장안(長安)을 점령하여 국호를 ‘대제(大齊)’라 하였으나, 뒤에 관군에게 패하여 자살하였다. 이 일로 당나라는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146) 석록 : 274~333. 중국 16국 시대 후조(後趙)의 건국자로, 상당 무향(上黨武鄉) 사람이며 갈족(羯族)이다. 유연(劉淵)에게 투항하여 대장이 되었다가 319년 후조(後趙)를 건국하고 조왕이라 일컬었다.

147) 금구 : 금으로 만든 사발을 말하는데, 흠이 없고 견고하다 하여 강토(疆土)에 비유된다. 양(梁)나라 무제(武帝)가 일찍 일어나 무덕각(武德閣)에 이르러 “나의 국토는 금구와 같아서 하나의 상처도 흠도 없다.[我家國猶若金甌, 無一傷缺.]”라고 말한 데서 유래하였다. 《양서(梁書)》〈후경열전(侯景列傳)〉

148) 유악 : 본래 대장의 진영에 치는 장막을 이르던 말로 전(轉)하여 임금의 곁에서 나라의 정사(政事)를 늘 함께 의논하는 참모의 뜻을 지니게 되었다. 한 고조(漢高祖)가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장악(帳幄) 안에서 계책을 운용하여 천 리 밖의 승리를 결단하는 것은 내가 자방(子房)만 못하다.”라고 했던 데서 왔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149) 마원처럼 구리 기둥으로 : 원문의 ‘동주(銅柱)’는 구리로 만든 기둥으로 국경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였다. 《후한서(後漢書)》권24 〈마원열전(馬援列傳)〉에 “교남이 모두 평정되었다.[嶠南悉平.]”라고 한 내용에 대한 주석에서 《광주기(廣州記)》를 인용하여 “마원이 교지에 이르러 동주를 세워 한나라의 경계에 삼았다.[援到交趾, 立銅柱, 爲漢之極界也.]”라고 하였다.

150) 한유처럼 <평회서비>를 : 당나라의 한유(韓愈)가 지은 글로, 헌종(憲宗) 때 회서선위초토처치사

만백성이 환호하고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모두들 요순의 신하 고요와 기와 같다고 하였네
 개선하면 응당 두터운 층애 입으리
 생각건대 화곤과 부월¹⁵¹⁾로 영화를 더하리라
 명성을 어찌 하인들만 알겠는가
 큰 공로 역사¹⁵²⁾에 길이 전하리라
 이로부터 육로와 수로로 사해가 통하니
 온 세상이 다시 화락하고 태평해졌네¹⁵³⁾
 서생 또한 외람되이 은혜와 교화 속에서
 춤을 추며 다시 <청아>¹⁵⁴⁾의 시를 불렀네
 생각건대 한 마디 말을 대궐에 아뢰었거늘
 황제의 조정에서 알고 계시는지
 우리 왕께서 처음부터 그 덕을 잃지 않아
 늦게까지 정사 살피느라¹⁵⁵⁾ 걱정이 많으셨네
 훈육이 빈 땅을 침범하자 고공단보가 옮겨 가¹⁵⁶⁾

萬姓歡呼拜稽首
 咸曰堯舜臣卑夔
 旋師應荷寵渥優
 想見華鉞增榮滋
 聲名豈獨走卒知
 鴻功竹帛傳無虧
 自此梯航通四海
 可使一世回雍熙
 書生亦忝恩化中
 舞蹈更唱菁莪詩
 思將一言達九重
 借問皇朝知不知
 我王初非失其德
 宵衣丙枕多憂思
 獯鬻侵幽亶父移

(淮西宣慰招討處置使)가 되어 오원제(吳元濟)의 반란을 평정한 재상 배도(裴度)의 공을 으뜸으로 서술하였다. 《古文眞寶後集 平淮西碑》

151) 화곤과 부월 : 원문의 ‘화월(華鉞)’은 화곤(華袞)과 부월(鈇鉞)의 약칭이다. 여기서는 임금에게 받은 최고의 은총이라는 뜻을 말한다.

152) 역사 : 원문의 ‘죽백(竹帛)’는 죽소(竹素)와 같은 말로, 글을 대쪽이나 형짚에 쓴 데에서 연유하여 사서(史書)나 서책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153) 화락하고 태평해졌네 : 원문의 ‘옹희(雍熙)’는 천하가 잘 다스려져서 화락(和樂)한 모양을 뜻한다. 요순(堯舜) 때의 정치를 찬양하는 말에서 유래한다. 진(晉)나라 장형(張衡)의 <동경부(東京賦)>에 “백성들이 부유함을 함께하고, 상하가 그 옹희(雍熙)를 함께 누린다.[百姓同於饒衍 上下共其雍熙]”라고 하였다.

154) <청아> : <소아(小雅) 청청자아(菁菁者莪)>로 인재를 양성함을 노래한 시이다. 《시경》<청청자아(菁菁者莪)>에 “무성하고 무성한 쑥이여, 저 언덕 가운데 있도다.[菁菁者莪 在彼中阿]”라고 하였다.

155) 늦게까지 정사 살피느라 : 원문의 ‘소의(宵衣)’는 소의간식(宵衣旰食)과 같은 말로, 임금이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밥을 먹는다는 뜻인데, 정치에 부지런히 힘쓰는 것을 의미하고, 원문의 ‘병침(丙枕)’은 병야(丙夜 3경(三更))에 잠자리에 든다는 뜻으로 임금이 정사를 살피다가 늦게야 잠자리에 드는 것을 말한다.

156) 훈육이 …… 옮겨 가 : 고공단보(古公亶父)는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조부(祖父)이고, 훈육은 고대 북방(北方)의 소수 민족 이름으로 중국을 자주 침범하여 포악한 짓을 일삼았다. 고공단보가 빈

이는 사람이 아니라 실로 하늘이 그렇게 한 것이었네
 자연에 따라 성하고 자연에 따라 쇠락하니
 흥망성쇠의 권력을 누가 잡았는가
 옛날 요동성에서 오랑캐 기병을 물리쳤으니
 우리나라에 남아가 없다고 말하지 마오
 남산은 높고 한강은 밝아
 예로부터 영웅호걸이 여기에서 태어났다네
 흥망 속에 시대가 바뀌고 인사도 변하나
 앞에는 을지문덕이요 뒤에는 김유신이 있네
 더구나 이제 우리 임금께서는
 암혈의 현자까지 남김없이 망라하였으니
 어찌 훌륭한 장수와 죽을 각오한 신하
 예리한 병기를 든 강한 병사가 무수히 따르지 않겠는가
 아! 국운이 매우 어지러워
 부산의 한 번 패배로 병사들이 절로 피폐했거늘
 원수의 조정에 무릎 꿇은 자 하나도 없으니
 만약 배양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겠는가
 공께서 돌아가 혹시 이 뜻을 기억하실런지
 천자께서 물으시매 헛된 말이 없으리

不是人爲天實爲
 自然而盛自然衰
 盛衰權柄其誰持
 伊昔遼城却虜騎
 莫道吾國無男兒
 南山峨峨漢水明
 古來英傑生於茲
 興亡遞代人事變
 後有庾信前乙支
 何況如今我主聖
 網羅巖穴賢無遺
 豈無良將志死綏
 利兵勁卒紛相隨
 嗟嗟國運極濛濛
 一敗釜山兵自疲
 屈膝讎庭無一人
 若非培養能如斯
 公歸倘記此意否
 天子有問無虛辭

(幽) 땅에 살고 있을 때 훈육이 침범하자 사람들은 모두 싸우고자 하였는데, 고공단보는 차마 살상을 할 수 없다 하여 기산(岐山) 아래로 옮겨 가니 빈 땅 사람들이 모두 그를 따라갔다. 이에 비로소 주(周)라는 국호를 정하였다. 《書經 武成》

칠언장편

七言長篇

한 장수가 공을 이루면 일만 해골이 썩나니¹⁵⁷⁾

【만력 1579년 진사 합격.】

一將功成萬骨枯【萬曆己卯, 進士入格.】

나는 삼대¹⁵⁸⁾가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역사서¹⁵⁹⁾를 보다가 장탄식을 하였네
주나라 진나라 이후 수천 년 동안
어지러운 전쟁이 어느 때든 없었겠는가
예로부터 명장들은 제마다 공을 세웠으나
어찌하여 일만 해골을 썩게 하였나
적개심으로 처음에는 성 밖에서 명을 받고
칼을 뽑고 단에 오르면 마음이 거칠어졌네
만 리의 요망한 기운 재빨리 쓸어버리고
하늘의 기둥을 내가 지탱하리라 여겼네
웅대함과 지략을 다투는 기각의 형세¹⁶⁰⁾로
양 보루를 비바람처럼 몰아쳐 삼군이 외치네

我思三代不能回
目擊青史興長吁
周秦以後數千載
紛紛戰爭何時無
古來名將各立功
幾教萬骨翻成枯
敵愾初承闔外命
拔劍登壇心膽麤
萬里妖氛擬迅掃
自謂天柱吾當扶
爭雄鬪智勢犄角
兩壘風雨三軍呼

157) 한 장수가 …… 썩나니 : 당나라 조송(曹松)의 <기해세(己亥歲)> 시에 “그대여 봉작의 일에 대해 말하지 말라, 한 장수가 공 이루면 만 해골이 썩나니.[憑君莫話封侯事, 一將功成萬骨枯.]”라고 하였다. 이는 전쟁을 벌여 한 장수가 큰 공훈을 세우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병졸들의 희생이 따른다는 뜻으로, 싸우다 죽은 병졸들의 뼈가 묻히지도 못한 채 전쟁터에서 말라 뒹군다는 것이다.

158) 삼대 : 하(夏)·은(殷)·주(周)나라를 말한다. 이 시대를 이상적인 태평성대로 여겼다.

159) 역사서 : 원문의 ‘청사(靑史)’는 역사상의 기록으로, 종이가 없을 때 푸른 대궐질에 사실(史實)을 기록하던 데서 유래한다.

160) 기각의 형세 : 원문은 ‘의각(犄角)’인데,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근거하여 ‘기각(犄角)’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기각은 의각(犄角)이라고도 쓴다. 사슴을 잡을 때에 뒤에서는 다리를 잡고 앞에서는 뿔을 잡는 것으로, 인신(引伸)하여 군사를 양편으로 나누어 적을 협공하거나 앞뒤에서 견제하는 형세를 이른다. 《춘추좌씨전》 양공(襄公) 14년 조에 “비유하면 사슴을 잡을 적에 진나라 사람들은 뿔을 잡고 여러 용족들은 다리를 잡는 것과 같다.[譬如捕鹿 晉人角之 諸戎犄之.]”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우레 같고 번개 같으며 호령조차 엄하지만	雷騰電過號令嚴
칼 끝에 뿌린 피는 모두 무고한 자의 것	劍頭血洒皆無辜
그런 뒤에 장군은 큰 공훈을 세우고	然後將軍樹大勳
각자의 이름이 운대도 ¹⁶¹)에 들어가네	姓名各入雲臺圖
공을 탐하려고 옥문관 ¹⁶²)을 다투어 나아가	貪功爭出玉門關
어느새 수고롭게 이오 ¹⁶³)에 이르렀네	勞勞不覺窮伊吾
청해성 ¹⁶⁴)에 백골이 높이 쌓여	青海城頭白骨高
반초 ¹⁶⁵)의 명성에 흉노가 놀랐네	班超聲價驚匈奴
삼변 ¹⁶⁶)의 백발 이 비장 ¹⁶⁷)은	三邊白首李飛將
한때의 공업이 오랑캐를 감당하였네	一時功業堪葫蘆
장평에서 사십만 군사를 한 구덩이 몰살했으니 ¹⁶⁸)	長平一坑四十萬
백기는 진정한 장부 되기 어렵네	白起難爲眞丈夫

161) 운대도 : 운대는 후한(後漢) 명제(明帝) 때 등우(鄧禹) 등 전대(前代)의 명장 28인의 초상화를 그려서 걸어 놓고 추모한 공신각(功臣閣)의 이름으로 그에 대한 그림을 운대도라 한다.

162) 옥문관 : 중국과 서역(西域)의 경계에 있는 관문이다. 서역에서 옥석(玉石)을 실어 들일 때 이 관문을 지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63) 이오 : 이오로(伊吾廬)로, 신강성(新疆省) 합밀(哈密) 근처에 있으니, 주로 변방 지역을 뜻한다. 후한(後漢)의 장궁(臧宮)과 마무(馬武)가 서역이 쇠약해진 틈을 타서 공격하기를 청하면서 “갈을 울리고 손뼉을 치며 이오의 북쪽에서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後漢書 卷48 臧宮列傳》

164) 청해성 : 유담(柳談)의 <양주곡(涼州曲)>에 “청해성 하늘에는 달이 있으나 황사가 쌓인 곳엔 봄이 없구나.[青海城頭空有月 黃沙磧裏本無春]”라고 하였는데, 그 주에 “청해성은 감주(甘州) 장액하(張掖河)에서 남쪽 청해(青海)까지 이른다.”라고 하였다.《唐音 卷10》

165) 반초 : 후한(後漢) 때의 무장으로, 흉노의 지배하에 있던 50여 나라를 한(漢)나라에 복종시켰고 중국과 서역(西域) 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를 촉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166) 삼변 : 한나라 때의 흉노, 조선(朝鮮), 남월(南越)을 말하는데, 흔히 변경 지역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167) 이 비장 : 한나라 때의 장수 이광(李廣)을 말한다. 《사기(史記)》<이장군열전(李將軍列傳)>에 “이광이 우북평에 있을 때 흉노가 그것을 듣고, ‘한나라의 비장군(飛將軍)’이라 부르며 수년 동안 그를 피하여 감히 우북평에 들어가지 못했다.[廣居右北平, 匈奴聞之, 號曰漢之飛將軍, 避之數歲, 不敢入右北平.]”라고 되어 있다.

168) 장평에서 …… 몰살했으니 : 장평은 전국 시대 조(趙)나라 군사 40만이 진나라 장수 백기(白起)에게 몰살당한 곳이다. 진나라 백기가 조나라를 공격하자 조나라에서는 처음에 명장 염파(廉頗)가 장수로 나와 진나라를 상대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진나라의 반간계(反間計)에 속은 조왕(趙王)이 염파를 쫓아내고 싸움에 서투른 조괄(趙括)을 장수로 삼음에 따라, 백기가 이를 이용하여 조나라 군대를 대파하고 조나라의 투항한 40만 군사를 구덩이에 묻어 죽였다.《史記 卷81 廉頗藺相如列傳》

강동의 붉은 수염 손권 말할 것 없으니	莫道江東孫紫髯
하물며 업하의 누런 수염 조조를 꼽으랴 ¹⁶⁹⁾	況數鄴下曹黃鬚
공명이 새겨진 이정 ¹⁷⁰⁾ 이 어찌 귀할까	銘功彝鼎何足貴
백 번의 전쟁 겪고 몸은 썩어가리 ¹⁷¹⁾	百戰之餘身亦枯
세상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장수 없으니	不戰而勝世無將
가련하구나! 어리석은 우리 백성 어육 ¹⁷²⁾ 이 되었네	可憐魚肉吾民愚
지금도 전장에 비바람 부는 저녁이면	至今沙場風雨夕
흐느끼는 귀신 통곡 소리 하늘까지 닿네	啾啾鬼哭于雲衢
다소간의 공을 이룬 장수들에게 말하노니	爲語多少成功將
이 말을 들으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聽此寧不悲來乎
원컨대 우리 임금께서 간우를 쥐고 춤추시면	願言吾王舞干羽
유묘가 귀순하듯 ¹⁷³⁾ 대궐 ¹⁷⁴⁾ 로 달려오기를	一格有苗彤墀趨
장군과 사졸에게 기이한 공을 요구하지 말고	休令將士責奇功
동포들의 몸을 온전하게 하기를	要使同胞全其軀

169) 하물며 … 꼽으랴 : 《왕유집(王維集)》〈노장행(老將行)〉 “업하의 황수아를 꼽을 것 있겠는가.[肯數鄴下黃鬚兒]”에서 따온 말이다. 업하는 조조가 도읍한 업(鄴) 지역을 가리킨다.

170) 이정 : 종묘(宗廟) 제사에 쓰는 제기(祭器)로 이(彝)는 술항아리이고 정(鼎)은 솥이다. 옛날에는 큰 공을 세우면 그 일을 제기에 새겨 오래도록 전하게 하였다.

171) 썩어가리 : 원문의 ‘고(枯)’ 아래에 “거듭 ‘고(枯)’의 오류가 의심스럽다. 혹은 ‘통(痛)’이 될 수 있다.[疊枯誤疑. 或爲痛字.]”라는 소주가 붙어 있다.

172) 어육 : 물고기와 육고기를 통칭한 말인데, 사람들을 잔인하게 짓밟아 해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도 쓰인다.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였다. 《후한서(後漢書)》〈중장통전(仲長統傳)〉에 “백성들을 어육으로 만들어 그 욕심을 채웠다.[魚肉百姓, 以盈其欲.]”라는 구절이 보인다.

173) 간우를 …… 귀순하듯 : 간우는 방패를 쥐고 추는 간무(干舞)와 새 깃을 쥐고 추는 우무(羽舞)를 함께 칭하는 말로, 성군의 덕화(德化)를 비유한다. 《서경》〈대우모(大禹謨)〉에 “순 임금이 문덕을 크게 펴면서, 방패와 새 깃을 들고 두 섬돌 사이에서 춤을 추니, 그로부터 70일 만에 유묘족이 귀순하였다.[帝乃誕敷文德 舞干羽於兩階 七旬有苗格]”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174) 대궐 : 원문의 ‘동지(彤墀)’는 붉게 꾸민 천자의 뜰로, 전하여 조정을 가리킨다.

삼 년의 피리 소리 속에 관산의 달¹⁷⁵⁾

三年笛裡關山月

옥관의 바람 쌀쌀하니 기러기 울음 구슬프고
 수척한 말은 밤에 장성의 굴에서 물을 마시네
 서리 맞은 백초¹⁷⁶⁾가 날리고 갑옷은 차가운데
 일천 리 밖에서 삼 년의 세월을 보냈네
 처량한 피리 소리에 달은 또한 어떠하였는가
 이 한 밤 출정나간 사람은 머리가 다 세었네
 마음 아프게 하는 빛 창자 끊어질 듯한 소리
 서풍에 분부하지만 한이 그치지 않네
 임금의 수레 닿는 곳마다 <식미>를 읊조리고
 계문¹⁷⁷⁾은 피비린내 옛 대궐마져 혼란하였네
 멀리 고향을 가리키니 눈가에 눈물이 나오고
 일만 리 변방의 구름 꿈처럼 아득하네
 남쪽 동산 풀은 푸른데 서산에 눈이 내리고
 푸른 바다 아득한데 물고기는 소식¹⁷⁸⁾이 없네
 서릿달 비추는 곳곳마다 옷 다듬이질 하지만
 규방의 여인들 꿈에 백골을 보네
 누런 모래 쌓인 속에 화살이 눈앞에 가득한데

玉關風淒雁聲酸
 瘦馬夜飲長城窟
 霜翻白草鐵衣寒
 一千里外三年卒
 淒涼笛裡月又何
 一夜白盡征人髮
 傷心之色斷腸聲
 分付西風恨未歇
 龍輿何處賦式微
 薊門腥塵迷舊闕
 家山遙指淚眼邊
 萬里關雲夢恍惚
 南園綠草西山雪
 碧海茫茫魚信沒
 擣衣幾處杵霜月
 半是香閨夢白骨
 黃沙磧裡箭滿眼

175) 삼 년의 …… 달 :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의 <세병마행(洗兵馬行)>이란 시에 “삼 년 동안 강적(羌笛) 소리에 관산의 달 보았고, 만국의 군대 앞에 초목이 바람에 흔들리네.[三年笛裏關山月, 萬國兵前草木風.]”라는 구절이 보인다. ‘관산의 달[關山月]’은 한나라 때 악부(樂府)의 곡명이다.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악부시이다. 문인들이 이 제목의 악부시를 지어 병사가 오랫동안 수자리를 나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여 가족과 떨어져 있는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였다.

176) 백초 : 목초(牧草)의 일종으로, 건조할 때 흰색이 되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주로 황사(黃沙)와 함께 변경 지역의 황량한 풍경을 말할 때 쓰인다.

177) 계문 : 북경의 덕승문(德勝門) 밖의 지역으로, 요동과 함께 우리나라로 통하는 관문이다.

178) 물고기는 소식 : 소식을 전해 주는 편지를 뜻한다. 고악부(古樂府)에 “손님이 먼 지방으로부터 와서 나에게 한 쌍의 잉어를 주었네. 아이를 불러 잉어를 삶게 하니, 뱃속에 한 자의 흰 비단 편지 있었네.[客從遠方來, 遺我雙鯉魚。呼童烹鯉魚, 中有尺素書.]”라고 하였다. 《古文眞寶前集 卷3 樂府上》

머리 세게 한 세월 치달려 돌격하듯 따라 붙네
 천산에 일찍 활 걸었다는¹⁷⁹⁾ 소식 아직 못 들었으니
 언제나 오랑캐¹⁸⁰⁾를 평정하고 개선거 부를까
 아득히 먼 곳에서 삼 년 동안 눈물 뿌렸지만
 피리 소리에 달 비칠 때 가장 마음이 아팠네
 소리마다 슬픔이 뒤섞여 농수¹⁸¹⁾에 목이 메고
 변방의 구름 구슬프니 낮이 끊어지네
 바람 맞으며 고향 돌아가고픈 시문 읊고 나니
 외로운 새 지나가는 곳에 변방의 산 우뚝하네

鬢上光陰付馳突
 天山未聞早掛弓
 凱歌何時定胡羯
 天涯洒盡三載淚
 最是傷心笛裡月
 聲聲悲雜隴水咽
 塞雲淒迷魂斷絕
 臨風咏罷思歸篇
 獨鳥去邊陰山兀

179) 천산에 …… 걸었다는 : 오랑캐를 평정한다는 뜻이다. 두보의 <개부 가서한에게 드리는 시[投贈哥舒開府翰]>에 “청해엔 화살을 전함이 없고, 천산엔 일찍 활을 걸어 놓았네.[青海無傳箭 天山早掛弓.]”라고 하였다.

180) 오랑캐 : 흉노의 별종인 오호(五胡) 중 갈족(羯族)을 일컫는 말인데, 보통 북쪽 오랑캐란 말로 쓰인다. 호락(胡羯)·호로(胡虜)·호맥(胡貊)·호학(胡貉)이라고도 한다.

181) 농수 : 섬서성의 농현(隴縣) 서북쪽에 있는 농산(隴山)에서 발원하는 강인데, 이 지역은 중국 서쪽 변경의 요체처이므로 흔히 변경 지방에 있는 강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망제가 춘심을 두견새에 의탁하다¹⁸²⁾

望帝春心托杜鵑

가을 깊은 화표 ¹⁸³⁾ 에 학이 슬피 조문하고	秋深華表鶴悲弔
세밑에 남쪽 변방 원숭이가 구슬피 우네	歲暮南塞猿哀吟
사물의 본성에 유래가 있음을 알고 나니	憑知物性有自來
봄 숲에서 우는 두견새가 더욱 가엽구나	更憐杜宇鳴春林
어느 해에 망제는 나라 떠나 시름겨웠나	何年望帝去國愁
가만히 불어오는 동풍에 마음이 한량없네	暗入東風無限心
잠충은 몇 해 동안 진나라와 왕래하지 않았으나 ¹⁸⁴⁾	蠶叢幾歲隔秦煙
갑자기 시체가 있다는 보고에 강가로 왔네	有屍忽報來江濤
천인이 따르고 복종함에 어찌 까닭이 없겠는가	天人歸命豈無以
선위를 받는 날 임금으로 통치함을 사양했네	禪受此日辭君臨

182) 망제는 …… 의탁하다 : 망제는 전국 시대 말엽의 촉(蜀)나라 왕 두우(杜宇)로, 억울하게 왕위를 선양한 뒤에 서산(西山)에 들어가 은거하다가 죽었는데, 그의 원통한 넋이 두견새가 되어 돌아와 봄이면 밤낮으로 애절하게 피를 토하며 운다는 전설이 있다. 당 나라 시인 이상은(李商隱)의 〈금슬(錦瑟)〉에 “금슬은 뜬금없이 오십 줄, 줄 하나 기러기발 하나에 꽃다운 시절 그리워하네. 장생은 꿈에서 깨어나 나비인가 어지러웠고, 망제는 춘심을 두견새에 의탁했지. 푸른 바다 달 밝은데 진주는 눈물 흘리고, 남전 따스한 햇살에 옥에선 연기 피어나네. 이 사랑 추억이 될 수 있겠으나, 그때 되면 이미 모든 것이 아득할 것.[錦瑟無端五十弦 一弦一柱思華年 莊生曉夢迷蝴蝶 望帝春心托杜鵑 海月明珠有淚 藍田日暖玉生煙 此情可待成追憶 只是當時已惘然]”라고 했다.

183) 화표 : 화표주(華表柱)로 궁전이나 능묘 등 대형 건축물 앞에 장식용으로 세우는 돌기둥을 말한다. 과거 요동 사람으로 신선이 된 정영위(丁令威)가 학이 되어 천 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화표주 위에 내려앉았더니, 한 소년이 활을 쏘려고 하자 허공으로 날아올라 배회하면서 “새여 새여 정영위로다, 집 떠난 지 천 년 만에 이제 처음 돌아왔네. 성곽은 의구한데 사람은 바뀌었나니, 신선술 왜 아니 배워 무덤만이 즐비하고?[有鳥有鳥丁令威, 去家千年今始歸. 城郭如故人民非, 何不學仙家壘壘.]”라고 탄식한 전설이 《수신후기(搜神後記)》에 전한다.

184) 잠충은 …… 않았으나 : 잠충(蠶叢)은 옛날 촉(蜀)나라의 선왕(先王)이다. 양웅(楊雄)의 《촉국본기(蜀國本紀)》에 의하면, 촉국에는 어부(魚鳧), 잠충 등 수많은 선왕이 있었다고 하였고, 이백(李白)의 〈촉도난(蜀道難)〉에 “잠충과 어부 등이 개국한 지가 어이 그리 아득하고. 오늘날까지 사만팔천 년을, 진나라 번세와도 서로 왕래하지 않았네.[蠶叢及魚鳧 開國何茫然 爾來四萬八千歲 不與秦塞通人煙]”라고 하였다. 《李太白集 卷3》

금구¹⁸⁵⁾가 이미 별령¹⁸⁶⁾의 손에 떨어졌으니
 고국의 풍광에 슬픔을 금할 수가 없었네
 호화롭지만 적막한 초나라 구름 텅 비었으나
 옛날에 놀던 어느 곳이든 봄빛은 깊어가네
 처량하게도 다시 대궐¹⁸⁷⁾을 다스리지 못하여
 지난 일들 연기 따라 잠기니 가련하구나
 문득 불여귀거라는 소리가 한스러워
 강남의 새에게 아득히 주었네
 강남의 태양이 무성한 숲속으로 떨어지는데
 봄빛은 침침한 연기 속에 일렁이네
 화려한 옛 습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밤마다 꽃 사이에서 길게 읊조리네
 나그네 닢 쓸쓸하나 돌아갈 기약도 없는데
 고향의 연기와 나무가 텅 비어 서늘하네
 용루¹⁸⁸⁾와 봉궐¹⁸⁹⁾ 축 땅 서쪽에 있으니
 떨어진 꽃과 향초를 무슨 수로 찾겠는가
 봄이 오고 가는 것은 해마다 반복하는데
 부질없이 세월 빨리 흘러감에 놀라네

金甌已落龍靈手
 故國風日悲難禁
 豪華寂寞楚雲空
 舊遊何處春光深
 淒涼無復御楓宸
 可憐往事隨烟沈
 翻將不如歸去恨
 悠悠付與江南禽
 江南日落樹依依
 韶光蕩漾烟陰陰
 繁華舊習未全除
 夜夜長占花間音
 羈魂零落去無期
 故山煙樹空森森
 龍樓鳳闕蜀天西
 落花芳草何由尋
 春來春去年復年
 最驚歲月空駸駸

185) 금구 : 금으로 만든 사발로 흠이 없고 견고하다 하여 강토(疆土)를 비유한다. 양 무제(梁武帝)가 “나의 국토는 오히려 금구와 같아 하나의 상처도 흠도 없다.”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梁書 卷 38 朱異列傳》

186) 별령 : 옛날 초나라 망제는 별령이란 초나라 귀신에 현혹되어 왕위를 잃고 객지를 떠돌며 돌아가지 못하였는데, 죽어서 두견새가 되어 매년 봄바람이 불고 가을 달이 뜨면 ‘귀촉도 불여귀(歸蜀道不如歸)’라고 울면서 끝내 피를 토하였다고 한다.

187) 대궐 : 원문의 ‘풍신(楓宸)’은 제왕의 궁전을 말한다. ‘신(宸)’은 북신(北辰)이 있는 곳으로 임금의 궁궐을 뜻하는데, 한(漢)나라 때 그곳에 단풍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188) 용루 : 왕세자의 거처 및 왕세자를 가리키는 말로 조정을 의미한다. 중국 한(漢)나라 때 〈성제기(成帝紀)〉에서 나온 말로, 성제(成帝)가 태자로 있을 때 계궁(桂宮)에 거처하였는데 임금이 태자를 불러 용루문(龍樓門)으로 나오게 하였다는 데서 비롯하였다.

189) 봉궐 : 한 무제(漢武帝)가 세운 궁궐의 이름인데, 구리로 만든 봉황이 있었다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이후 궁궐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배꽃에 내리던 비는 밤 깊은 뒤 그쳐
 달¹⁹⁰⁾은 엄습해오는 구름을 허락지 않네
 다정해라 마음껏 울어 그치지 않으니
 소리마다 푸른 산봉우리 찢으려 하네
 삼파협에 노두¹⁹¹⁾의 마음이 더해지니
 곳곳마다 시름겨운 사람 마음 적시네
 울 때 그저 이전의 원통함을 하소연하니
 애원함이 웅문자주의 금곡¹⁹²⁾과 같구나
 산속의 오늘 밤 나그네 회포 외로운데
 듣고 나니 나도 몰래 수심 견딜 수 없네
 누가 슬픈 소리를 청상¹⁹³⁾에 들었나
 남은 한이 이어져 지금까지 전승하네

梨花雨歇夜深後
 銀蟾不許雲侵侵
 多情一任啼不歇
 聲聲欲裂蒼山岑
 三巴添却老杜心
 到處沾盡愁人襟
 啼時只管訴前冤
 哀怨不啻雍門琴
 山中今夜客懷孤
 聞爾不覺愁難任
 誰將哀響入清商
 遺恨綿綿傳至今

190) 달 : 원문의 ‘은섬(銀蟾)’은 달을 말한다. 달에 토끼와 두꺼비가 산다는 전설이 있어 옥토(玉兔), 은섬이 달의 이칭이 되었다.

191) 노두 : 두보(杜甫)를 가리킨다. 같은 두씨(杜氏)로 유명한 두목지(杜牧之)가 있기 때문에 두보는 노두, 두목지는 소두(少杜)라 하였다.

192) 웅문자주의 금곡 : 웅문자주는 본디 금곡(琴曲)에 뛰어나서 거문고 연주로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는데, 그가 일찍이 맹상군 앞에서 인생의 부귀영화가 덧없음을 소재로 하여 거문고를 한 곡조 타니, 맹상군이 슬퍼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는 고사가 전한다. 《설원(說苑)》 선설(善說)

193) 청상 : 악부(樂府)의 가곡(歌曲) 이름으로, 가을에 속하는 상성(商聲)의 맑고도 슬픈 노래를 말한다.

좋은 새는 멋대로 날지 않는다

好鳥不妄飛

바람 불어 천길 높이 날아오른 봉황은	天風彩鳳上千仞
훨훨 나는 날개 ¹⁹⁴ 로 사람에 얽매이지 않네	飄飄六翮無人鞿
청전 ¹⁹⁵ 에서 내려온 맑고 깨끗한 외로운 학은	清霜孤鶴下靑田
멀리 나는 날개로 위기를 뛰어넘네	迢迢逸翰超危機
좋은 새는 날고 멈추기를 선택할 줄 알아서	憑知好鳥擇飛止
영험한 마음으로 기미를 미리 알아 해를 멀리 하네	遠害靈心先炳幾
서식하여 어찌 백량대 ¹⁹⁶ 연회 함께 하리	棲息寧同栢梁燕
높이 날아올라 풍성한 벼와 기장 돌아보네	高超肯顧稻梁肥
왕손의 담장 밖에 따르지 않나니	王孫牆外不相隨
도성 거리의 꽃나무에 어찌 날겠는가	紫陌芳樹何曾飛
일생을 푸른 산과 흰 구름 가에 살아가면서	生涯靑嶂白雲邊
날아가고 날아오며 의지할 바를 아네	飛去飛來知所依
산바람 계곡의 달과 좋은 이웃 되었으니	山風溪月好爲隣
몸을 돌려 세속을 향해 가지 않네	將身不向紅塵歸
길이 자유롭게 노닐리라 그윽히 맹세하니	幽盟長占自在遊
허공에 깃털은 찬란한 빛 자아내네	半空毛羽生光輝
조도 ¹⁹⁷ 에서 어찌 사람이 쏠까 걱정하리	鳥道何憂羅人射

194) 날개 : 원문의 ‘육핵(六翮)’은 튼튼한 날개를 가리킨다. 공중에 높이 나는 새는 여섯 개의 튼튼한 근육으로 이루어진 깃축이 있다고 한다.

195) 청전 : 학이 나는 고장의 이름이다. 《초학기(初學記)》 제30권에, “수목계(洙沐溪)가 있는데, 청전(靑田)에서의 거리가 9리이다. 이 가운데 백학(白鶴) 한 쌍이 살면서 해마다 새끼를 낳는데, 새끼들은 다 자라면 모두 떠나가고 오직 어미 백학 한 쌍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 색깔이 아주 희어서 사랑스러운 바, 이는 신선이 기르는 학이라고 한다.” 하였다.

196) 백량대 : 한 무제(漢武帝)가 장안성(長安城)에 건립하여 연회를 베풀고 시를 읊는 장소로 쓰던 누대를 말한다. 높이가 20장(丈)이고 향백(香柏)으로 전각의 들보를 만들어 향기가 수십 리까지 퍼졌다 한다.

197) 조도 : 새만이 날아서 통과할 수 있는 좁고 험준한 산길을 이른다. 당나라 이백(李白)의 시 <촉도난(蜀道難)>에 “서쪽으론 태백산에 조도가 있으니, 아미산 꼭대기를 횡단할 수 있네.[西當太白有鳥道,

불필요한 물건은 군왕의 위엄을 두려워하지 않네	長物不畏君王威
다시 생각건대화를 피하는 것은 사람과 ¹⁹⁸⁾ 새가 같으니	翻思避禍人與鳥
모두 한결같은 이치로 서로 어긋남이 없네	全身一理無相違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君不見
진나라 법이 만들어지자 기러기 이미 날아오르고	秦法初成鴻已舉
상안 ¹⁹⁹⁾ 의 풍광에 안개가 미세하게 날림을	商顏風日烟飛微
또 보지 못했는가	又不見
부춘산 가운데에서 봉황이 나오지 않고	富春山中鳳不出
동강 물가에서 양 갓옷 ²⁰⁰⁾ 반쯤 걸쳤네	羊裘半脫桐江磯
아! 저들은 살길 찾아 먹이를 다투고 탐하다가	嗟彼謀生競貪餌
도리어 앞길이 그물로 에워싸임을 잊었네	却忘前程羅四圍
정신없이 마시고 쪼다가 피할 줄 모르고	紛紛飲啄不知避
그물에 떨어져 잡히지 않음은 예로부터 드물었네	罔墜網罟從來稀
팔뚝 위 매를 동문 어디에서 다시 얻겠는가	臂鷹東門寧復得
아! 화정의 외로운 학 ²⁰¹⁾ 은 이미 글렀구나	孤鶴華亭嗟已非
감회가 일어나 읊조린 이가 있으니 그는 누군가	興懷有咏彼何人

可以橫絕峨眉巔.]”라고 하였다. 《古文真寶 前集 卷7 蜀道難》

198) 과 : 원문에는 ‘여(與)’ 아래에 “아마도 여(如) 자의 오류인 듯하다.[恐如字之誤]”라는 소주가 붙어 있다.

199) 상안 : 진(秦)나라 말기에 어지러운 세상을 피하여, 동원공(東園公), 기리계(綺里季), 하황공(夏黃公), 녹리선생(甬里先生) 등 네 명의 은자가 은거하였던 산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산(商山)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을 ‘상산사호(商山四皓)’라고 부른다. 《史記 卷55 留侯世家》

200) 부춘산(富春山) …… 갓옷 : 원문의 ‘양구(羊裘)’는 양피(羊皮)로 지은 갓옷을 말하는데,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의 어릴 적 학우(學友)이기도 했던 은사(隱士) 엄광(嚴光)이 광무제가 등극한 이후로는 광무제의 간곡한 부름을 끝내 거절하고 부춘산(富春山)에 은거하면서 양구를 입고 동강(桐江)에서 낚시질을 하며 일생을 보냈던 데서 온 말이다. 여기서 봉황은 엄광을 가리킨다.

201) 화정(華亭)의 외로운 학 : 화정은 지금의 상해시(上海市) 송강현(松江縣) 서쪽에 있는데, 학의 산지로 유명하다. 진(晉)나라 육기(陸機)가 벼슬길에 들어서기 전에 동생 육운(陸雲)과 함께 이곳에서 10여 년을 살았는데, 나중에 참소를 받고 처형당하기 직전에 “화정의 학 울음소리를 듣고 싶다면 그 일이 또 어떻게 가능하겠는가.[欲聞華亭鶴唳 可復得乎]”라고 탄식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世說新語 尤悔》

만고토록 주옥같은 시문이²⁰²⁾ 끊이지 않았네
내 이제 산림에서 좋은 새에 대해 배우고
시 한 수 읊조리며 사립문을 걸어 닫았네

萬古未免聯珠璣
我今山林學好鳥
題詩一嘯扃柴扉

202) 주옥같은 시문이 : 원문에는 ‘聯珠璣(런주기)’ 아래에 “아마도 오류인 글자가 있는 듯하다.[恐有誤字]”라는 소주가 붙어 있다.

부 賦

임하탄 臨河歎

하늘이 천하에 대성인(大聖人)을 태어나게 한 것은 천하를 위해서이지
어찌 한갓 옛 성인을 잇고 후학을 열어주려는²⁰³⁾ 것뿐이겠는가? 이에 성인은
천하를 자신의 임무로 삼아 수레를 타고 팔방을 두루 다니다가 하수(河水)
에 이르러 건너지 않고 탄식하셨네.²⁰⁴⁾ 성인의 마음을 생각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조(趙)나라에 훌륭한 임금이 있음을 듣고는 이 도가 혹 시행되기를
바라 장차 먼 길을 떠나는 것에 의심이 없었으며, 서로 걸맞은 법도를 구하여
만일 나를 등용해주는 자가 있다면 1년 만에 변화를 기약할 수 있거늘²⁰⁵⁾,
문득 성인의 행차가 하수에 이르니 넓고 광대한 강물에 느끼는 점이 있었네.
아! 조나라 임금의 아름다운 명성도 전후로 어긋남이 있도다. 세상이
경박하여 자주 변화하니 훌륭한 자제²⁰⁶⁾도 믿지 못하고, 팔다리 같은

203) 옛 …… 열어주는 : 원문의 ‘계왕개래(繼往開來)’는 지난 성인(聖人)의 뒤를 잇고 앞으로 올 후학을 열어주는 학문의 공을 말한다. 주자(朱子)가 〈중용장구서(中庸章句序)〉에서 공자의 덕을 찬양하면서 “지나간 성인을 잇고 후세에 올 학자를 열어 준 것은 그 공이 도리어 요순(堯舜)보다도 나은 점이 있다.[繼往聖 開來學, 其功反有賢於堯舜者.]”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04) 하수(河水)에 …… 탄식하셨네 : 공자(孔子)가 위(衛)나라에 있을 때 진(晉)나라 조간자(趙簡子)의 가신 필힐(佛髫)이 중모(中牟) 땅을 근거지로 배반하여 공자를 붙렸는데, 이때 공자가 가려고 하다가 결국 가지 않았고 또 조간자를 만나려고 황하에까지 갔다가 돌아선 일을 말한다. 《論語集註序說》

205) 만일 …… 기약할 수 있거늘 : 《논어》〈자로(子路)〉에 공자(孔子)가 “만약 나를 써 주는 사람이 있다면 단 1년만 정치를 담당하더라도 그런대로 괜찮아질 것이요, 3년이면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苟有用我者, 期月而已可也, 三年有成.]”라고 하였다.

206) 훌륭한 자제 : 원문의 ‘지란(芝蘭)’은 훌륭한 자제를 뜻한다. 진(晉)나라 때 큰 문벌을 이루었던 사안(謝安)이 자질(子姪)들에게 “어찌하여 사람들은 자기 자체가 출중하기를 바라는가?” 하고 묻자, 조카 사현(謝玄)이 “비유하자면 마치 지란과 옥수가 자기 집 뜰에 자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譬如芝蘭玉樹 欲使其生於庭階耳]” 한 데서 유래하였다. 《晉書 卷79 謝玄列傳》

중신²⁰⁷⁾을 죽이고도 깨우치지 못하니, 어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예조(桡鑿)²⁰⁸⁾가 맞지 않아 버리고 떠났는데 다시 찾고, 한창 자라나는 것을 꺾어 인(仁)을²⁰⁹⁾ 해쳤네. 기린이 머물지 않으니 동지의 알이 엮어져도 애석해하지 않고, 봉황이 높이 날아가니 성인의 수레가 뒤돌아오던 길로 돌아가네. 그 뜻을 궁구해 보니 슬프도다. 천하를 돌아보아도 모두 조나라이니 누가 신의를 닦고 지극히 흠모하겠는가?

공산필힐(公山佛份)의 부름에 나아가고자 했으니²¹⁰⁾, 아마도 하늘이 성인에게 책임 지우신 것이 이와 같거늘 진(陳)으로 가고 채(蔡)로 가기를 황급히 한 것을²¹¹⁾ 초광(楚狂)²¹²⁾이 비웃은들 어찌 알겠는가?²¹³⁾ 덕이 있으나 지위가 없어 비록 한때의 봉록 없는 백성이었지만, 시서(詩書)를 산정(刪正)하고 예악(禮樂)을 제정하였으니 진실로 후세의 유학자들이 의탁하였네. 천년토록 공자를 흠양하니, 산처럼 높고 높으며 물처럼 깊고 깊도다. 당시

207) 팔다리 같은 중신 : 원문의 ‘고굉(股肱)’은 다리와 팔로, 임금이 팔다리처럼 의지하는 중신(重臣)을 뜻한다. 《서경》〈익직(益稷)〉에 순(舜) 임금이 말하기를 “신하는 짐의 다리와 팔과 귀와 눈이 되어야 한다.[臣作朕股肱耳目.]”라고 하였다.

208) 예조(桡鑿) : 예(桡)는 둥근 자루, 조(鑿)는 네모난 구멍을 뜻하는 것으로, 둥근 자루를 네모진 구멍에 넣으면 맞지 않듯이 쌍방이 서로 맞지 않거나 모순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초사(楚辭)》〈구변(九辯)〉에 “둥근 자루에 모난 구멍을 뚫으니, 어긋나서 들어가기 어려울 줄을 나는 알겠다.[圓枘而方鑿兮, 吾固知其鉅細而難入.]”라고 하였다.

209) 인(仁)을 : 원문에는 ‘인(人)’자 아래에 “아마도 인(仁) 글자의 오류인 듯하다.[恐仁字之誤]”라는 소주가 붙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원문의 소주를 따라 국역하였다.

210) 공산필힐(公山佛份)의 …… 했으니 : 진(晉)나라 대부 조간자(趙簡子)의 가신(家臣)인 필힐이 중모(中牟)에서 반란을 일으켜 공자(孔子)를 부르자 공자가 그에게 가려고 한 일을 가리킨다. 《論語 陽貨》

211) 진(陳)으로 …… 황급히 한 것을 : 《장자》〈양왕(讓王)〉에 “공자(孔子)가 일찍이 진(陳)나라와 채(蔡) 나라의 사이에서 곤궁한 액운을 당했을 때, 7일 동안이나 밥을 지어 먹지 못하고 명아주 국에 쌀 한 톨도 넣지 못한 채로 멀건 국만 마시다 보니, 얼굴빛이 매우 초췌했는데도 방 안에 앉아서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불렀다.[孔子窮於陳蔡之間, 七日不火食, 藜羹不糲, 顏色甚憊, 而絃歌於室.]”라고 한 데서 온 말로 보인다.

212) 초광(楚狂) : 춘추 시대 초(楚)나라 사람 육통(陸通)을 가리킨다. 그의 자(字)는 접여(接與)이다. 그가 난세를 만나 미친 체하니 사람들이 그를 초광(楚狂)이라 일컬었다. 접여(接與)가 공자의 문을 지나가며 “봉이여 봉이여, 어찌 이리 덕이 쇠하였나.[鳳兮鳳兮, 何德之衰也.]”라고 풍자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論語 微子》

213) 어찌 알겠는가? : 원문에는 ‘하어(何如)’자 아래에 “아마도 지(知) 글자의 오류인 듯하다.[恐知字之誤]”라는 소주가 붙어 있다.

하수에 이르러 탄식한 일을 생각하니 나의 마음에 더욱 걱정스러운 점이 있네. 만약 조간자(趙簡子)가 어질고 정성이 있어 그 땅에서 공자를 맞이했다면 공자는 과연 하수를 건넌 것이고, 신하가 되어 그 재능으로 섬겼을 테니 조간자로 하여금 훌륭한 정치로²¹⁴⁾ 회귀하게 하였을 것이네. 조간자의 정사는 어질지 못하였니 어찌 시종일관 공자를 수용하였겠는가? 훌륭한 신하를 죽이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며²¹⁵⁾ 지위가 비슷하고 덕망이 비슷하다고 말하였으리라. 하늘이 큰 덕으로 임금 노릇을 못하게 하였으니 성인께서 분주히 떠돌아다닌 것이²¹⁶⁾ 마땅하여 성인은 마음을 맡길 곳이 없어 하수에 의탁하여 감흥한 것이니, 성인의 덕으로도 때를 만나지 못함이 이와 같도다. 아! 후세에 천명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마땅히 이 일을 거울삼아야 한다.

214) 훌륭한 정치로 : 원문에 ‘지치(至治)’는 이상적인 훌륭한 정치를 말한다. 《서경(書經)》〈군진(君陳)〉에 “지치(至治)는 향기로워서 신명을 감동시켜 이르게 한다. 서직(黍稷)이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명덕(明德)이 향기롭다.[至治馨香, 感于神明. 黍稷非馨, 明德惟馨.]”라고 하였다.

215) 훌륭한 …… 지혜롭다고 하며 : 조간자(趙簡子)가 공자(孔子)를 초빙하자 공자가 하수(河水)까지 갔는데, 하수에서 진(晉)나라의 현신(賢臣)인 두명독(竇鳴犢)과 순화(舜華)가 살해되었다는 말을 듣고 탄식하며 ‘추조(陬操)’라는 노래를 지었다. 《사기(史記)》 47권 〈공자세가(孔子世家)〉와 《공종자(孔叢子)》의 〈기문(記問)〉 참조.

216) 분주히 떠돌아다닌 것이 : 원문의 ‘서서(棲棲)’는 분주히 떠돌아다니는 모양이다. 《논어》〈헌문(憲問)〉에 미생묘(微生畝)가 공자를 일러 “구는 어찌하여 이리도 분주한가. 아침하는 것이 아닌가? [丘, 何爲是棲棲者與? 無乃爲佞乎?]”라고 하였다.

증삼이 왔으나 문하에 들이지 않다

參來不納門

높고도 높은 성인의 문하는 활연하게 열려 있어 위의(威儀)가 삼백이요, 예의(禮儀)가 삼천이네.²¹⁷⁾ 안회(顏回)와 자공(子貢)은 강론하는 자리 함께하였지만, 어찌하여 증삼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어찌 실천이 부족하여서 그러했겠으며 어찌 독실함이 모자라서 그러했겠는가? 군자의 가르침은 생각해보면 일천 층에 한 층을 더하는 것이라네.

효자의 지극한 마음은 오직 부모의 마음을 받드는 것인데 만일 아이가 죄를 지어 매질을 당할 경우에 어찌 감히 피 흘리는 것에 대해 미워하고 원망하겠는가. 만약 부모의 분노가 의(義)에 어긋나 심하게 훼손하거나 손상하면 어찌 이 몸을 죽히 돌아보겠는가? 자애롭지 못하다는 말이 있을 것을 두려워 해야 하네. 큰 몽둥이를 들면 마땅히 피하고²¹⁸⁾ 부자간의 지극한 은정을 온전히 해야 하네. 분한 기운이 염천(炎天)²¹⁹⁾보다 심하면 자애로운 하늘은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니 자식의 도리에 있어서 잘 처신할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맑고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네. 도망하지 않고 팽형(烹刑)을 기다리는 것은 비록 공손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대효(大

217) 위의(威儀)가 …… 삼천이네. : 예의(禮儀)는 기본적인 대강령(大綱領)인 경례(經禮)를 말하고, 위의(威儀)는 구체적인 소절목(小節目)인 곡례(曲禮)를 말한다. 《예기》〈예기(禮器)〉에 “경례가 3백 가지요, 곡례가 3천 가지인데, 그 정신은 하나이다.[經禮三百, 曲禮三千, 其致一也.]”라는 구절이 있고,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7장에 “위대하다, 성인의 도여. 물이 넘쳐흐르듯 끝없이 만물을 발육시켜 그 높은 도의 경지가 하늘에까지 닿았도다. 크고 넉넉하도다 예의가 3백 가지요, 위의가 3천 가지로 다.[大哉, 聖人之道. 洋洋乎發育萬物, 峻極於天. 優優大哉, 禮儀三百, 威儀三千.]”라는 구절이 있다.

218) 큰 몽둥이를……피하고 : 일찍이 증삼이 부친 증점과 함께 오이밭을 김매던 도중에 실수로 오이 뿌리를 끊자 증점이 몽둥이로 마구 때려서 증자가 땅에 쓰러져 실신했다가 깨어났는데, 공자가 이 말을 듣고는 순(舜)과 고수(瞽瞍)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작은 회초리를 들면 화가 풀릴 때까지 다 맞고, 큰 몽둥이를 들면 얼면 피해 달아나야 한다.[小槌則待過, 大杖則逃走.]”라고 증자를 타이른 일화가 전한다. 《孔子家語 六本》《후한서(後漢書)》 권52 〈최인열전(崔駰列傳)〉에 “순 임금이 부친을 모실 적에 작은 회초리로 때릴 때에는 맞고, 몽둥이로 때릴 때에는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간 그것이 불효는 아니었다.[舜之事父, 小杖則受, 大杖則走, 非不孝也.]”라는 구절이 있다.

219) 염천(炎天) : 원문에는 ‘염천(炎天)’ 아래에 “아마도 화(火) 글자의 오류인 듯하다.[恐火字之誤]”라는 소주가 붙어 있다.

孝)라고 할 수는 없네. 순임금에게 우물을 파게 한 것을²²⁰⁾ 우러르고 성현이 변고에 대처한 것을 따져보며 물고기와 곰 발바닥²²¹⁾의 취사를 분별하니 성인 문하의 고제로서 어찌 이런 이치를 살피지 않았겠는가? 양지(養志)²²²⁾의 지극한 뜻을 미루어 단지 뜻을 따르는 것으로 의(義)를 삼았으니, 마땅히 성인이 질책하시어 매우 힘쓰라는 뜻을 보인 것이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는 나아간 바에 깊고 얕음이 있으니 큰 몽둥이를 피하라는 성인의 가르침은 증자의 경우에는 괜찮으나 보통 사람이 실수를 한다면 용서하기 어려운 불순(不順)의 죄일 터이니 어찌 그 정성을 돌이켜 살피지 않았는가? 아! 후세의 자식이여.

220) 순(舜)임금에게 …… 한 것을 : 《맹자》〈만장(萬章)〉2장에 “순(舜)의 부모가 순으로 하여금 곳집을 손질하게 하고서 사다리를 치운 다음, 고수(瞽叟)가 창고에 불을 질렀으며, 순에게 우물을 파게 하고는 순이 나오려 하자 따라서 흙을 덮었다.[父母使舜, 完廩捐階, 瞽叟焚廩, 使浚井, 出, 從而擯之.]”라고 하였다.

221) 물고기와 곰 발바닥 : 두 가지를 다 원하지만 한꺼번에 할 수 없을 경우는 의(義)에 맞는 쪽을 택하겠다는 뜻이다. 원문의 ‘어웅(魚熊)’은 물고기와 곰 발바닥 요리를 가리킨다.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물고기도 내가 먹고 싶은 바이고 곰 발바닥도 내가 먹고 싶은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없을 경우 나는 물고기를 놓아두고 곰 발바닥을 먹겠다. 삶도 내가 원하는 바이고 의(義)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얻을 수 없을 경우에 나는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라고 하였다. 《孟子 告子上》

222) 양지(養志) :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효성을 말한다. 《맹자》〈이루 상(離婁上)〉에, 증자가 부친 증석(曾皙)을 봉양할 때의 일과 증자의 아들이 증자를 봉양할 때의 일을 비교해 거론하면서, 효행은 비슷하지만 증자는 부모의 뜻을 봉양하였고[養志], 증자의 아들은 부모의 몸만 봉양한 것[養口體]이라며, 진정한 효도는 뜻을 봉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병조판서 홍여순²²³⁾에게 보내는 편지【1599년 3월】
與洪兵判書【己亥三月】

예전에 변방에서 한번 뵙고 싶었던 소원을 이루었는데 갑작스러운 거취 때문에 태산북두²²⁴⁾의 회포를 아직 풀지 못하였으니 남과 북에서 근래에 삼가 만나고 싶은 마음이 늘 간절하였습니다. 작년 여름 저는 적을 피하여 떠돌아다니다가 한강 가에서 기거하고 있었는데, 병판께서 성에 계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댁으로 찾아뵙고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을 보이고 싶었으나 제가 상중이라 감히 최질(衰絰)²²⁵⁾의 복장을 보여 놀라게 할 수 없어 객지에서 문을 걸어 닫고 있으며 다만 그리는 마음만 더했습니다. 급기야 적이 물러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니 산천이 아득히 멀고 현회(顯晦)²²⁶⁾의 자취가 달라 가르침을 받을 길이 없으니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저는 지난달 초 담제(禫祭)²²⁷⁾를 마치고 몸을 의지할 곳이 없어 선영

223) 홍여순(洪汝諄) : 1547~1609. 자는 사신(士信),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임진왜란 중에 복인의 영수 이산해(李山海)와 밀착하여 남인 유성룡(柳成龍) 등을 몰아내고 복인 세력이 정권을 잡는 데 기여하였다. 난후(亂後)에는 병조 판서로서 무반 인사권과 병권을 장악하고, 독자 세력을 구축하여 대북을 영도하면서 남이공(南以恭) 등의 소북과 대립하다가 탄핵을 받아 관직이 삭탈되었다. 복관되어 유영경(柳永慶)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1608년 광해군 즉위 후 또 대간의 탄핵을 받아 진도(珍島)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224) 태산북두 : 원문의 ‘산두(山斗)’는 태산북두(泰山北斗)의 준말로, 《신당서(新唐書)》 권176〈한유열전(韓愈列傳)〉에서 그에 대한 찬(贊)에 “한유가 작고한 뒤 그의 말이 크게 행해져, 학자들이 그를 태산북두처럼 우러러 받들었다.[自愈沒, 其言大行, 學者仰之如泰山北斗云.]”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25) 최질(衰絰) : 최는 4치, 6치짜리 베 헝겊을 왼쪽 가슴에 붙인 것이며, 질은 머리에 두른 띠[首帶]와 허리에 두른 띠[腰帶]로 상주에 있는 것을 말한다..

226) 현회(顯晦) : 드러나거나 가려지는 것으로 세상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과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27) 담제(禫祭) : 3년의 상기(喪期)가 끝난 뒤 상주가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을 고하는 제례 의식이다. 부모상(父母喪)과 죽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손자가 지내는 조부상(祖父喪) 및 부상(夫喪)과 처상(妻喪)에만 행한다. 일반적으로 부모상의 경우 대상제(大祥齋)를 치른 뒤 3개월째, 곧 초상을 치른 후

아래에 초가삼간을 짓고 삶을 마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남쪽 지방이 한 번의 병란을 겪고 난 뒤에 물력(物力)이 모두 쓸려나갔으니 천자의 조정²²⁸⁾에서 오랫동안 병사를 머물게 하여 우리 호남과 영남을 보호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황제의 은혜도 끝이 있을 것이니 비록 오랫동안 주둔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천자의 병사를 먹일 군량이 어찌 남아 있겠습니까? 8년간 이어진 병란으로 살아남은 백성은 뼈와 살이 거의 다 없어졌으니 결단코 지탱할 수 없는 형세입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한 사람이 외진 지역에 살고 있는데 해마다 강도의 침입을 받아 가장과 자제들이 수수방관하며 오직 이웃이 와서 구원해주기를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이웃의 정성은 한계가 있으니 도적이 쳐들어오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집안을 망하게 한 뒤에야 그만둘 것건만, 부자와 형제가 서로 마주보고 눈물을 흘리며 “이것은 천명이고 운수이다.”라고 말하며 천명과 운수로 돌리고 담장을 수리하거나 활과 칼을 준비하여 견고하게 스스로 방어하는 계책을 세우지 않는 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세가 정녕 이와 같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력은 천자의 조정에서 오랫동안 빌릴 수 없고 흉악한 도적의 근심은 해마다 없어지지 않을 테니 호남과 영남에 얼마 남지 않은 백성으로 장차 다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자리를 방어하는 장구한 계책은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의 일에 불과할 뿐이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은 비록 높은 선비의 진부한 말일지라도 진부(陳腐)한 말속에 스스로 활법(活法)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건대 합하(閣下)께서도 이미 헤아리고 계실 텐데 제가 어찌 감히 번잡한 혀로 지껄이겠습니까? 다만 하늘 끝 아득히 먼 곳에서 숨어 지내며 지금의 일을 눈으로 보고 백성을 괴롭히는 폐단을 고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제가 때때로 집정자(執政者)를 만나면 힘써 간쟁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나 집정자들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지난해에도 이와 같았고 올해도 이와 같다면 틀림없이 국가의 명맥이 날로 무너지게 될 것이니, 식견이 있는

27개월이 되는 달의 정일(丁日) 또는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내고, 남편이 죽은 아내를 위하여 지내는 담제는 상후 15개월째 지낸다.

228) 천자의 조정 : 원문의 ‘천조(天朝)’는 천자의 조정을 제후국에서 일컫는 말로 여기서는 명나라를 가리킨다.

자라면 누구인들 길게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통제사(統制使)와 감·병·수사(監兵水使)가 여러 아문(衙門)을 다스리고 각각 둔전(屯田)²²⁹⁾을 설치하는데 더러는 여염(閭閻)의 보잘 것 없는 사람을 유사(有司)로 삼기도 하고, 더러는 군관 중에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을 차관(差官)으로 삼기도 합니다. 별처럼 많은 주현(州縣)에서 민전(民田) 열 가운데 둔전이 다섯을 차지하는데 통제사의 둔전이요 병 수사(兵水使)의 둔전이라고 합니다. 둔전이라 이름을 붙이면 요역(徭役)이 없고 연호(煙戶)²³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둔전으로 앞다투어 달려가 바로 하나의 아문(衙門)을 이루면 이른바 차관과 유사의 무리가 흉악한 속셈으로 위복(威福)²³¹⁾을 행사하여 밭을 갈고 파종을 할 때면 마을의 백성을 가노(家奴)처럼 부립니다. 급기야 가을 추수 때가 되면 관아에 납부하는 것은 겨우 10분의 3이나 4이고, 모두 자신을 살찌우는 자본으로 삼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한 자는 사전(私田)을 가리켜서 둔전이라 하고, 공물과 부세를 모두 폐하고 수확한 허다한 곡식으로 편안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오직 이와 같은 까닭으로 공부(貢賦)와 요역(徭役)을 바치는 백성이 몹시 드물어 수령은 상사(上司)의 위엄에 겁하고, 둔전에 거주하는 백성은 둔전에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으며 유사(有司)의 권위가 도리어 수령보다 우위에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머리가 도리어 아래에 있다는 것이니, 길게 탄식할 일이라 할만합니다.

지금울 위한 계책은 마땅히 여러 아문의 둔전을 급히 폐지하고 수령으로 하여금 백성을 관장하여 부역을 균등하게 하며, 백성에게 권면하여 힘껏 농사짓기를 힘쓰게 하여 묵은 땅이 없게 하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백성에게 반드시 남은 곡식이 있을 것입니다. 백성에게 남은 곡식이 있으면 군국(軍國)의 수요에 어떻게 여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지키고 방어한다면 백성은

229) 둔전(屯田) : 변경이나 군사요지에 주둔한 군대의 군량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토지로, 군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와 농민에게 경작시켜 수확량의 일부를 거두어가는 경우가 있다.

230) 연호(煙戶) : 연역(煙役)이라고도 하는데, 민가(民家)의 매 호(戶)마다에 부과하던 여러 가지 부역을 가리킨다.

231) 위복(威福) : 벌(罰)과 상(賞)을 뜻한다. 원래는 군주만이 상벌을 행할 수 있는데, 후대에는 집권자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 내치기도 하고 벼슬을 주기도 하는 것을 이른다. 《서경》〈홍범(洪範)〉에 “오직 군주만이 복을 짓고 오직 군주만이 위엄을 지을 수 있다.[惟闢作福 惟闢作威]” 하였다.

병란에도 고달파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출정하여 싸운다면 백성은 날카로운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옛날 사람이 손과 발을 가지와 앞에 비유한 것이 과연 이와 같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오랑캐를 방어할 장구한 계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합하께서는 특별히 이 뜻을 비변사(備邊司) 여러 회의 중에 발의하시고, 속히 사자를 보내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둔전을 폐하게 하시어 백성으로 하여금 각자의 밭에서 밭 갈게 하고, 수령으로 하여금 부역을 균등하게 하여 국가의 근본을 세워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만약 부득이하여 둔전을 반드시 두고자 한다면 조충국(趙充國)의 고사²³²⁾에 의거하여 관내의 군졸들이 묵은 땅을 얻어 경작하고 파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또 시골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둔전의 여러 차관과 유사를 폐지하고 가을 추수를 기다렸다가 밭 1결당 곡식 1섬을 납부하도록 하여 둔전의 곡식을 채우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이는 둔전에 속하지 않는 백성이 계속해서 지나친 요역에 고달파하고 차관과 유사의 침해에 시달리므로 이런 계책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멀리 초야에 있으나 칠실(漆室)의 근심²³³⁾이 없을 수 없기에 감히 민간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갖추어서 근엄한 위엄을 더럽혔으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합하의 뜻에 어떠하신지요? 혹시라도 사람 때문에 그 말까지 폐하지 않아 주신다면²³⁴⁾ 국가에 큰 다행이요 백성에게도 큰 다행이겠습니다.

232) 조충국(趙充國)의 고사 : 조충국(趙充國)은 자가 용손(翁孫)으로 용기와 지략이 있었고 사이(四夷)의 일에 능통하여 한 선제(漢宣帝) 때에 장군에 올랐다. 선제가 흉노의 정황과 얼마의 군사면 방비할 수 있는지 물으니, 조충국은 “병사는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금성에 가서 방략(方略)을 세워 올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서, 금성에 가서 살핀 후에 기병(騎兵)을 없애고 요해처에 보병 수만을 주둔시키자는 취지로 둔전(屯田)의 열두 가지 편리한 점을 아뢰었다. 매번 상주문이 올라오면 선제는 공경들에게 의논케 하였는데, 승상 위상(魏相)이 그 계책을 시행할 만하다고 하니 선제가 따랐다. 《漢書 卷69 趙充國傳》

233) 칠실(漆室)의 근심 : 춘추 시대 노(魯)나라의 칠실이라는 읍(邑)에 과년한 처녀가 자신이 시집가지 못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임금은 늙고 태자가 어린 것을 걱정하여 기둥에 기대 울자, 이웃집 부인이 비웃으며 “이는 노나라 대부가 할 근심이니 그대가 무슨 상관인가?”라고 하였다. 《列女傳 卷3 漆室女》 이는 분수에 지나친 근심을 뜻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국사(國事)를 걱정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겸사로 쓰인다.

234) 사람 …… 앓는다면 : 《논어》 위령공(衛靈公)에 “군자는 말만으로 사람을 높이지 않고, 사람 때

좌의정 오리 이원익²³⁵⁾에게 올리는 편지 【1600년 봄】

上左相李梧里元翼書【庚子春】

예전에 여관에서 비로소 한번 뵈고 싶었던 소원을 이루었는데 상국(相國)께서 포의(布衣, 평민)라고 경시하지 않고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남다르게 대우하시니 저는 마음에 감격하여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대감의 뜻을 살펴보니 도탄에 빠진 백성을 지성으로 구제하고, 상국께서 남쪽 지방을 왕명으로 몸소 살펴 백성의 병폐를 힘써 제거하며 국가의 근본을 굳건하게 한 것은 상국의 어짊입니다. 문교(文教)를 붙들어 세우고 풍화(風化)를 펼쳐 일으킨 것은 상국의 지혜입니다. 제가 비록 무식하나 감히 흠양(欽仰)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저도 사람들 속에 끼어 있기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 산처럼 우리러보는 마음이 이에 이르러 더욱 간절합니다.

오직 백성 지키는 한 가지 일만은 상국과 여러 집정자가 잘 헤아리고 생각하시어 이미 세워두신 계획이 있을 테니, 우활(迂闊)한 서생이 어찌 그 계획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선비 중에 어진 자의 말을 듣고 싶으시다면 저 또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남쪽 선비 중에 아무개가 효자이고 아무개가 현자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바이니, 상국께서도 일찍이 들으신 것이 한 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유명한 사람이라 해서 반드시 모두 어질지 않고,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라 해서 반드시 모두 어리석지 않다고 여깁니다.

삼가 생각건대 상국께서는 덕이 크고 지혜가 높으시며, 현자(賢者)를 숭상하고 유능한 자를 천거하시니 한강 이남에서도 이미 감화되어 도의가 행해지고 있거늘²³⁶⁾

문에 그 말까지 폐하지 않는다.[君子不以言舉人, 不以人廢言.]”고 하였다.

235) 이원익 : 1547~1634.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공려(公勵), 호는 오리(梧里),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604년(선조 37) 호성 공신(扈聖功臣)에 녹훈되고 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에 봉해졌다.

236) 삼가 …… 있거늘 : 한유(韓愈)의 <상병부이사랑서(上兵部李侍郎書)> “삼가 생각건대 합하께서는 내심(內心)이 인자하고 외행(外行)이 의로우시며, 행실이 고상하고 덕이 크시며, 현자를 높이고 유능한 자를 薦擧하시며, 곤궁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억울한 사람을 가엾게 여기시니, 강남 서도(西道)의 백성들이 이미 감화되어 도의(道義)가 행합니다.[伏以閣下內仁而外義, 行高而德鉅, 尙賢而與

누가 청황(靑黃)²³⁷⁾의 선비를 대인군자에게 속여 추천하겠습니까? 혹여 있을지라도 밝은 것을 아래에서는 곱고 추함이 저절로 구별됩니다. 저처럼 무상(無狀)한 사람이 외람되이 대감의 문하를 바라고 만약 사사로운 정에 얽매어 말한다면 의리상 마땅히 문하에서 거절을 당할 따름입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남들이 알지 못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윽한 난초²³⁸⁾가 골짜기에 있는데 맑은 바람이 불지 않으니 그윽한 향기를 누가 맡겠습니까?

저의 친구 이유경(李有慶)은 어려서부터 지조가 있었고, 장성해서는 학문과 품행에 힘썼습니다. 저와 10년을 함께 공부하면서 속마음 털어놓기를 자기 일처럼 하였으니 과연 충효(忠孝)하고 독실한 선비였습니다. 교유를 좋아하지 않고 오직 부모님 섬기는 것에만 정성을 다하였는데 혼정신성(昏定晨省)하는 겨를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아 경사자집(經史子集)에 통달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었거늘 미관말직도 받지 못하였으니 또한 성스러운 시대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덕현(羅德顯)²³⁹⁾은 제 동생입니다. 마음이 한결같이 밝고 깨끗하여 악(惡)을 원수처럼 미워하고, 문을 닫고 서책을 읽으면서 남이 알아주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효도하고 우애하는 행실을 형으로서 감히 말할 수 없으나 성취한 것이 빼어납니다. 사람들의 이목에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기축년(1589) 겨울에 양천경(梁千頃) 등이 무리를 모아 상소를

能, 哀窮而悼屈, 自江而西, 既化而行矣.]”의 말을 인용하였다.

237) 청황(靑黃) : 화려한 관직 생활을 뜻한다. 《장자》 천지(天地)에 “백 년 된 나무를 베어서 제기(祭器)를 만들고 그 위에 청황(靑黃)의 문채로 장식한 뒤에는 나머지 나무토막들을 구렁 속에 내버리는 데, [其斷在溝中] 제기와 나무토막 사이에 아름답고 추하게 된 차이는 있다 하겠지만, 나무의 본성을 잃은 점에 있어서는 똑같다고 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유래하여 청황은 벼슬을 가리키고 구목(溝木), 즉 구렁 속의 나무토막은 벼슬을 잃고서 실의에 빠진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238) 그윽한 난초 : 원문의 ‘유란(幽蘭)’은 빈 골짜기에 피어난 난초로,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홀로 향기를 내뿜는 초아의 군자(君子)를 상징한다. 굴원(屈原)의 <이소(離騷)>에 “집집마다 썩을 허리춤에 가득 차고 다니면서 유란은 찰 것이 못 된다고 한다네. [戶服艾以盈腰兮, 謂幽蘭其不可佩.]”라고 하였다.

239) 나덕현(羅德顯) : 1565 1625. 자는 회지(晦之), 호는 반계(潘溪)이다. 유희춘, 이이, 박순, 청계 청 등에게 배웠다.

올려 어진 재상과 선비들을 모함할 때 나덕현은 그 아우 나덕헌(羅德憲)²⁴⁰⁾과 그 모임에 쳐들어가 큰소리로 배척하니 양천경 등이 상소 내용 가운데 함께 넣어 나추(拿推)²⁴¹⁾를 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청(請)’자가 빠진듯하다】 그때 위관(委官)²⁴²⁾이 양천경의 사주를 듣고 상소를 저지하고 도모함을 헤아려 법률에 따라 북관(北關)으로 유배를 보냈으며 영사(令使) 김성일(金誠一)²⁴³⁾은 항상 그의 의열(義烈)에 감복하고 칭찬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상국께서도 이 일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건대 상국께서 반드시 독실한 선비에 대해 듣고자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옛사람들이 거자(擧子)²⁴⁴⁾를 위해 추천하던 뜻을 본받아 문득 외람되이 말씀드립니다.

이 두 사람은 실로 이름은 없지만 행실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상국께서 이끌어 이르게 하여 더욱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틀림없이 칭찬하고 권장하는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저는 진실로 밝은 구슬이 모래에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여 상국의 상자에 거두어지기를 바라니, 이 또한 덕을 우러러보는 사사로운 마음인데 상국의 뜻이 어떠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240) 나덕헌(羅德憲) : 1573~1640. 자는 헌지(憲之), 호는 장암(壯巖),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1603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1624년 이괄(李适)의 난 때 도원수 장만(張晩)을 도와 안현(鞍峴) 싸움에서 공을 세우고, 진무원종(振武原從)의 훈공을 받았다.

241) 나추(拿推) : 범죄 혐의자를 의금부(義禁府)의 옥에 가두고 의금부의 당상관(堂上官) 등이 회좌(會座)하여 신문하는 것을 말한다.

242) 위관(委官) : 죄인을 추국(推鞠)할 때, 의정대신(議政大臣) 가운데서 임시로 뽑아서 임명하는 재판장으로 당시 정철(鄭澈)이 담당하였다.

243) 김성일(金誠一) : 1538~1593.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사순(士純), 호는 학봉(鶴峯),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568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경상 우도 병마절도사, 경상 우도 관찰사, 순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학봉집(鶴峯集)》 등이 있다.

244) 거자(擧子) : 과거(科擧) 때에 추천을 받아 응시하는 선비를 거자(擧子)라 칭한다. 《구당서(舊唐書)》 고적전(高適傳)에, “고적이 유도과(有道科)에 합격하였는데, 그 당시 정승 이임보(李林甫)가 문아(文雅)가 경박하여 오직 거자(擧子)로만 대우했다.” 하였다.

정 참봉에게 보내는 편지 與鄭參奉書

지난번 산사(山寺)에서 이미 술에 취한 데다 또한 덕으로 배가 불렀습니다.²⁴⁵⁾ 이따금 글 읽는 것보다 나은 말을 보내주시어 자못 일깨워주는 점이 있으니 더욱 마음에 몹시 감격하여 감사함을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학(聖學)을 논하신 한 단락에 대하여서는 삼가 제가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성인은 하나이나 태어나면서 알기도 하고 배워서 알기도 합니다.²⁴⁶⁾ 태어나면서 아는 자는 요(堯), 순(舜), 주(周), 공(孔)이고, 배워서 아는 자는 우(禹), 탕(湯)입니다. “능히 생각하고[克念] 생각이 없다[罔念]²⁴⁷⁾”라고 말한 것은 모두 스스로 배워서 아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니 만약에 태어나면서 안다면 어찌 이러한 공부의 과정이 있겠습니까? 시청언동(視聽言動)은 혼연(渾然)한 천리(天理)이니 어떻게 감히 사물(四勿)²⁴⁸⁾을 그 사이에 두겠습니까? 전자의 성인들 또한 견지(堅持)하는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경을 위주로 하는 공부를 섭렵해야 할 듯합니다. 이것이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수습하고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여 다른 쪽으로 흩어지지

245) 이미 …… 불렀습니다. : 《시경》〈대아(大雅) 기취(既醉)〉에 “이미 술에 흠뻑 취하였고 이미 덕에 배가 불렀도다. 군자께서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리시기를.[既醉以酒, 既飽以德. 君子萬年, 介爾景福.]”라고 한 말을 인용하였다.

246) 태어나면서 …… 합니다. :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혹은 태어나면서 알고, 혹은 배워서 알고, 혹은 곤란을 겪은 뒤에 아니, 그 앞에 미쳐서는 마찬가지이다. 혹은 편안히 행하고, 혹은 이롭게 여겨서 행하고, 혹은 억지로 힘써서 행하니, 그 성공함에 미쳐서는 마찬가지이다.[或生而知之, 或學而知之, 或困而知之, 及其知之之一也. 或安而行之, 或利而行之, 或勉強而行之, 及其成功一也.]”라고 하였다. 《中庸章句 第20章》

247) 능히 생각하고[克念] 생각이 없다[忘念] : 《서경》〈주서(周書) 다방(多方)〉에 “오직 성인도 생각이 없으면 미치광이가 되고 미치광이도 능히 생각하면 성인이 된다.[惟聖罔念作狂, 惟狂克念作聖.]”라고 하였다.

248) 사물(四勿) : 네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논어》〈안연(顏淵)〉에, 공자의 제자 안연(顏淵)이 ‘극기복례(克己復禮)’의 조목을 묻자, 공자가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라고 한 데서 보인다.

않게 하여²⁴⁹⁾ 사물의 이치가 극진한 곳에 이르게 합니다. 무엇이 천리이며, 무엇이 인욕(人欲)이었습니까? 택선고집(擇善固執)²⁵⁰⁾과 고수기궁(固守其窮)²⁵¹⁾이 성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태어나면서 아는 성인은 성으로 말미암아 밝아진 사람이니²⁵²⁾ 온화한 천리가 마음에 가득 채워져 발하는 것이 모두 절도에 맞고 경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는 효도해야 한다고 하며, 임금에게는 충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천지의 성(誠)이 심원하여 그치지 않는 것은 사계절의 춥고 더움이 자연에서 들으면 털끝만큼도 경영할 의사(意思)가 없는 것과 같으니, 경(敬)이 아니면 배나무에서 복숭아꽃이 피고 복숭아나무에서 배꽃이 피어 뒤섞여 무질서하게 되는 실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심원하여 그치지 않아 초목이 각각 그 바름을 얻는 것은 천지의 성(誠)과 경(敬)이요 발하는 것이 모두 천리이고 사물이 그 자리를 어기지 않는 것은 성인의 성과 경입니다. 성과 경을 위주로 하지 않았는데 성과 경이 저절로 운행되니 이것은 자연히 그렇게 된 것이고, 하지 않았는데 행해진 것입니다. 어찌 이 마음을 관섭(管攝)하여 내려놓지 않는 것이 배우는 자들의 경(敬)이라 하겠습니까? 만약 성인의 마음이 오로지 주재한 바가 없는 것이라 한다면 성인의 마음 잡고 빈 껍데기로 돌아갈 테니 어찌 함께 의론하겠습니까?

249) 마음을 …… 하여 : 원문의 ‘주일무적(主一無適)’은 정자(程子)가 경(敬)을 설명한 말로,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여 다른 쪽으로 흩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뜻이다. 주희가 이 말을 계승하여, 《논어》〈학이(學而)〉의 ‘경사이신(敬事而信)’에 대한 주희(朱熹)의 〈집주(集註)〉에 “경은 주일무적을 의미한다.[敬者, 主一無適之謂.]”라는 말이 나온다.

250) 택선고집(擇善固執) : 성(誠)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중용장구》 제20장 “성실함은 하늘의 도요, 성실히 하려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성실한 자는 힘쓰지 않고도 도에 맞으며 생각하지 않고도 도에 맞으니 성인이요, 성실히 하려는 자는 선을 택하여 굳게 잡는 자이다.[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 誠者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誠之者擇善而固執之者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51) 고수기궁(固守其窮) : 공자(孔子)가 이르기를 “군자는 진실로 궁할 때가 있는 것이니, 소인은 궁하면 죄를 짓는다.[君子固窮, 小人窮斯濫矣.]”라고 하였는데, 정자(程子)는 고궁(固窮)을 ‘궁함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固守其窮.]’라고 하였는바, 여기서는 바로 정자의 해석에 따라서, 군자는 궁궁하거나 현달하거나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잘 지킨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論語 衛靈公》

252) 성으로 …… 사람이니 : 원문의 ‘자성명(自誠明)’은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1장에 보이는 구절로, 본성이 거짓이 없이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를 환히 아는 것이다. 이는 천성으로 덕을 간직한 성인(聖人)의 경우를 뜻한다.

생각건대 노형께서 논하신 바는 성인께서도 견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거경(居敬)하고 힘쓰라는 저의에 벗어나지 않았으니 이것이 배워서 아는 것이고 우와 탕이 이런 사람입니다. 우와 탕이 그것과 반대로 하여 혼연(渾然)함에 이르렀다면 견지하는 수단이 없었을 터인데 견지하는 것은 배우는 자의 일입니다. 안자(顔子) 같은 경우 3개월 동안 인(仁)을 떠나지 않다²⁵³⁾ 3개월 후 물처럼 일렁이려 하자 곧바로 존양(存養)을 견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3개월 안이라고 하면 안자 또한 대화(大化)²⁵⁴⁾의 영역이 있었으니 문득 견지하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태어나면서 아는 성인 중에 주공과 공자 같은 분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또 일설에는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천하를 주면서 “진실로 그 중도를 잡으라.”라고 하였으니 순임금은 태어나면서 안 사람인지라 요임금의 말이 비록 미치지 않았더라도 순임금이 어찌 분명히 알지 못했겠습니까? 천하를 주고받은 것과 성인이 서로 전하는 도가 마땅히 이와 같습니다. 순임금은 우임금에게 천하를 주면서 다시 세 마디 말²⁵⁵⁾을 덧붙였으니, 모두 신사(愼思), 명변(明辨)²⁵⁶⁾, 택집(擇執), 고수(固守)의 학문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임금은 그것을 반대로 한 성인이시니 유정유일(惟精惟一)의 뜻을 어찌 순임금께서 경계하여 고한 말을 기다려 알았겠습니까? 순임금도 이같이 운운하였으니 성인이 서로 전하는 도입니다. 만약 이것으로 우임금을 가리켜 경을 위주로 하는 공부가 있었다고 한다면

253) 안자(顔子)……않았다: 《논어》〈용야〉5장에 공자가 “안회는 그 마음이 3개월 동안 인을 떠나지 않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루나 한 달에 한 번 인에 이를 뿐이다.[回也, 其心三月不違仁, 其餘, 則日月至焉而已矣.]”라고 한 데 나오는 말이다.

254) 대화(大化):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네 단계의 큰 변화로, 유아기, 청년기, 노년기 그리고 죽음을 말한다. 《列子 天瑞》

255) 세 마디 말: ‘윤집궐중(允執厥中)’은 요 임금이 순 임금한테 전한 말인데, 순 임금이 세 마디를 덧붙여서 우(禹)에게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약하니, 오직 정밀하게 살피면서 한결같이 행해야만 진실로 그 중도를 잡을 수 있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라고 당부였다. 《書經 大禹謨》

256) 신사(愼思)·명변(明辨): 《중용장구》 제20장에 학문을 하는 데서는 “넉리 배우며,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며, 밝게 분별하며, 독실히 행하여야 한다.[博學之, 審問之, 愼思之, 明辨之, 篤行之.]”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일찍이 우임금께서 도를 전하는 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서 아는 것이나 배워서 아는 것이 성공을 이루기에 이르면 똑같습니다. 성인은 사물의 위에서 천리를 유행시켜 자연의 경이 그 가운데 있으니 관섭(管攝)하고 그것을 위주로 하는 공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천지와 그 덕이 부합하고, 귀신과 그 길흉이 부합하며, 일월과 그 밝음이 부합한다.”²⁵⁷⁾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벗어나면 성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형의 얇이 여기에 이르지 않음이 아니나 다만 성인께서 견지하는 곳이 없다는 말이 배우는 사람의 경(敬)을 위주로 하는 일에 가까움으로 감히 하찮은²⁵⁸⁾ 견해를 펼쳤으니, 좌우에 질정하여 취하십시오. 삼가 바라건대 비루하게 여기지 마시고 맑은 가르침을 내려주시어 막힌 마음²⁵⁹⁾을 열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257) “성인은 …… 부합한다.” : 주돈이의 <태극도설>에 “성인은 천지와 덕이 부합하며 일월과 밝음이 부합하며 사시와 차례가 부합하며 귀신과 길흉이 부합하는 것이다.[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其序, 鬼神合其吉凶.]”라고 하였다. 《近思錄 卷1 道體》

258) 하찮은 : 원문의 ‘작화(燭火)’는 횃불이라는 의미로, 흔히 자신의 능력을 겸손히 낮추는 말로 쓰인다. 요(堯) 임금의 천하를 허유(許由)에게 넘겨주려고 하면서 “해와 달이 나와 밝은데, 횃불을 끄지 않는다면 그 빛은 빛나기 어렵지 않겠는가.[日月出矣而燭火不息 其於光也 不亦難乎]”라고 말한 데서 유래하였다. 《莊子 逍遙遊》

259) 막힌 마음 : 원문의 ‘모색(茅塞)’은 띠풀이 자라서 길을 막는 것으로, 사욕에 가려진 마음을 비유한다. 맹자(孟子)가 고자(高子)에게 이르기를 “산속의 오솔길이 잠깐 사용하면 길을 이루고, 한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띠풀이 자라 길을 막나니, 지금 띠풀이 그대의 마음을 꼭 막고 있구나.[山徑之蹊間, 介然用之而成路, 爲間不用則茅塞之矣. 今茅塞子之心矣.]”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孟子 盡心下》

병신봉사【선조 29년(1596) 겨울, 금오랑²⁶⁰⁾에서 산거(散居)해 있을 때.】
丙申封事【宣祖二十九年冬, 金吾郎散居時.】

삼가 아뢰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사람에게 달려있고, 인심의 향배(向背)는 하늘에 호응하는 것이니, 하늘이 반드시 사랑하고 돌보아준 연후에 나라를 보호하고 안정하여 인심이 흠어지는 근심이 없을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반드시 돌아온 연후에 천명(天命)을 맞이하고 이어²⁶¹⁾ 하늘의 뜻이 순(順)한 자를 도와주는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진실로 하늘의 뜻을 돌아오게 하면 큰 환난을 이겨낼 것이니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되는 계기가 여기에 있고, 진실로 인심을 결속시키면 윗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것이니 적국을 제어하고 수치를 씻는 방책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난리를 평정하는 방도는 하늘의 뜻을 감동시켜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적국을 제어하는 방도는 인심을 굳게 결속시키는 것보다 간절한 것이 없으니, 인심을 굳게 결속시키고 하늘의 뜻을 감동시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오직 군주의 한 마음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신들이 이 두 가지의 말을 오늘날에도 늘 마음에 잊지 못한 것은²⁶²⁾ 오직 우리나라에 하늘이 큰 재앙을 내려 섬나라 오랑캐가 틈을 타서 침략하니,

260) 금오랑(金吾郎) :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의 별칭으로 금부랑(禁府郎)이라고도 한다.

261) 너희의 …… 이어주려 하니 : 《서경(書經)》〈반경 중(盤庚中)〉에 “나는 너희들의 명을 하늘에서 맞이하고 이어 주려 하노니, 내가 어찌 너희들을 위협하겠는가. 너희들을 받들어 기르려고 하는 것이니.”[予迺繼乃命于天, 予豈汝威. 用奉畜汝衆.]”라는 말을 인용하였다.

262) 늘 …… 것은 : 권권(眷眷)은 ‘권권(睽睽)’으로 쓰는데, 마음속에 잊지 않고 있는 모양, 헤어지기를 못해 아쉬워하는 모양 등을 뜻하는 말이다. 《시경》〈소아(小雅)·소명(小命)〉 “저 공인을 생각하니, 아쉬워 돌아보며 그리워하네.[念彼共人, 睽睽懷顧.]”라고 하였다.

삼도(三都)²⁶³가 연달아 함락되고 칠묘(七廟)²⁶⁴가 몽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성상의 계책에 힘입어 난리를 평정하고 이미 적병이 물러가는 날을 보게 되었으니, 중흥(中興)의 경사와 유신(維新)²⁶⁵의 교화를 거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난리를 싫어하지 않아 왜적²⁶⁶을 섬멸하지 못하고 흉악한 꾀가 더욱 방자하여 난리가 아직 평정되지 않았으니 하늘의 뜻을 감동시켜 돌아오게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곽에 올라가 피눈물을 흘리며 누가 사수(死綏)²⁶⁷의 뜻으로 분발할 것이며, 싸움에 임하여서는 물결이 갈라지듯 먼저 갑옷을 버리고 달아날 마음을 품으니, 인심이 굳게 결속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뜻이 돌아오지 않으면 비록 백만의 무리가 있어도 오히려 그 난리를 평정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우리나라는 애당초 백만의 무리가 없었으니 말해 뭐하겠습니까? 인심이 결속되지 않으면 비록 이길 만한 형세가 있더라도 진실로 그 공을 이루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우리나라는 당시에 이길 만한 형세가 없었으니 말해 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계책으로는 하늘의 뜻을 돌리고 인심을 결속하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을 따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의 뜻을 감동시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까?

아! 위로 푸르른 것은 하늘이고 아래로 지극히 작은 것은 사람입니다. 높고 낮음이 현격하게 다르고, 보고 듣는 것이 미치지 못하여 처음에는 상관인 없는 것 같으나 한 이치로 서로 감응하는 것은 마치 한 집안에서의 부자(父

263) 삼도(三道) : 한성(漢城)·개성(開城)·평양(平壤)을 가리킨다.

264) 칠묘(七廟) : 천자(天子)의 종묘(宗廟)로, 시조(始祖)의 사당에 삼소(三昭)와 삼목(三穆)을 합쳐서 7묘가 된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종묘를 가리킨다.

265) 유신(維新) : 구법(舊法)을 혁신하고 새로운 정사를 펼친다는 것으로, 《시경(詩經)》〈문왕(文王)〉에 “문왕이 위에 계시어 아, 하늘에 밝게 계시니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나 천명은 새롭게 다. 주나라가 드러나지 않을까 상제의 명이 때에 맞지 않을까 문왕의 오르내리심이 상제의 좌우에 계시니라.[文王在上, 於昭于天. 周雖舊邦, 其命維新. 有周不顯, 帝命不時. 文王陟降, 在帝左右.]”고 하였다.

266) 왜적 : 원문의 ‘경예(鯨鯢)’는 고래의 수컷과 암컷을 가리키는 말로, 소국(小國)을 병탄(并呑)하려는 흉악무도한 자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왜적을 가리킨다. 《春秋左氏傳 宣公 12年》

267) 사수(死綏) : 군사가 패하면 장수는 마땅히 죽어야 함을 뜻하는 말이다. 《좌전(左傳)》 문공(文公) 12년에 “사마법(司馬法)에 장군은 수레에 오르는 끈을 잡고 죽는다.[死綏]”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子)와 같아 사람의 기운이 화평하면 하늘이 화평함으로써 호응하고, 사람의 기운이 어그러지면 하늘도 반드시 어그러짐으로써 호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개 국가에 재앙이 내려오는 것도 한 지아비가 원한을 품은 것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으니,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는 이치를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지난 기축년(1589)에 역적 정여립(鄭汝立)²⁶⁸⁾이 왕망(王莽)²⁶⁹⁾처럼 세상을 속이는 재주를 끼고 육당(陸棠)²⁷⁰⁾처럼 거짓으로 착한 척하며 명성을 가장(假裝)하니, 온 나라의 선비들이 모두 속았습니다. 더러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도 있었고, 더러는 그 얼굴을 본 사람이 있었으나, 그 마음에 반역의 행위²⁷¹⁾가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께미에 가득 찬²⁷²⁾ 죄는 밝은 일월(日月) 아래에서 도망가기 어렵고, 흉악한 꾀와 큰 악행은 하루아침에 발각되니, 한때 속았던 선비들 중에 마음으로 놀라고 뼈 속까지 아파하며 대역적이

268) 정여립(鄭汝立) : 1546~1589. 본관은 동래(東萊)이고, 자는 인백(仁伯)이다. 본래 서인(西人)으로, 이이(李珣)와 성혼(成渾)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으나, 이이가 죽은 뒤에는 당시 집권 세력인 동인(東人)에 가담하여 이이를 배반하고 박순(朴淳)·성혼을 비판하면서 동인의 이발(李潑)과 특히 친하게 지냈다. 선조가 이를 불쾌히 여기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전라도로 돌아가, 진안(鎭安) 죽도(竹島)에 서실(書室)을 지어 놓고 대동계(大同契)를 조직하여 매달 사회(射會)를 여는 등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 뒤 대동계의 조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황해도 안악(安岳)의 변승복(邊崇福)·박연령(朴延齡), 해주(海州)의 지함두(池涵斗), 운봉(雲峰)의 승려 의연(義衍) 등 기인(奇人)과 모사(謀士)의 세력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던 중 선조 22년에 이들의 기밀이 누설되어 관련자들이 차례로 체포되었으며, 정여립은 죽도로 피신하였다가 자살하였다.

269) 왕망(王莽) : 전한(前漢) 말기 평제(平帝)를 독살한 뒤 두 살 된 유영(劉嬰)을 추대하고, 당시 유행하던 오행참위설(五行讖緯說)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인심을 모았다. 후에 결국 유영을 몰아낸 후 국호를 신(新)이라 고치고 황제가 되었으나, 한말(漢末)의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하에게 죽음을 당함으로써 건국한 지 15년에 멸망하였다.

270) 육당(陸棠) : 육당은 송(宋)나라 양시(楊時)의 사위이다. 처음에 양시가 육당의 용모가 매우 단정하고 앉은 자세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것을 보고는 호인(好人)이라 하여 그를 사위로 삼았다. 그러나 후에 범여위(范汝爲)가 난을 일으켰을 때에 그의 당(黨)이 되었기 때문에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민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朱子語類 卷133 本朝7》

271) 반역의 행위 : 원문의 ‘불궤(不軌)’는 마땅히 좇아야 할 법이나 도리에 벗어났다는 뜻으로, 모반이나 반역을 뜻한다. 한(漢)나라 가의(賈誼)의 <과진론(過秦論)>에 “비록 교활한 백성이 있더라도 주상을 떠난 마음이 없다면, 불궤(不軌)의 신하가 그 간사한 지혜를 꾸밀 길이 없어서 포란(暴亂)의 간사함이 그쳐집니다.[雖有狡猾之民 無離上之心 則不軌之臣無以飾其智 而暴亂之奸弭矣]”라고 하였다.

272) 께미에 가득 찬 : 원문의 ‘관영(貫盈)’은 ‘죄악관영(罪惡貫盈)’이란 말의 준말로, 죄악이 찰대로 가득 차서 마치 돈이 께미의 마지막까지 가득 찬 것에 비유한 것이다.

사람을 기만한 악행에 분하게 여기고 자신들이 밝지 못했던 죄를 후회하지 않은 자가 없으니, 이른바 그 이름을 알고 그 얼굴을 본 사람이 어떻게 모두 역적의 당파라 하겠습니까?

성상께서 위에 계시면서 감형(鑑衡)²⁷³⁾으로 스스로를 바르게 하시고, 항상 옥(玉)과 돌이 함께 불타는 것을²⁷⁴⁾ 마음 아파하며 삼가 요수(要囚)를 크게 결단할 때²⁷⁵⁾ 더욱 간절하고 신중히 분별할 것을 생각하셨으니 어떻게 청명함 아래에서 원통한 마음을 머금은 자가 있겠습니까? 다만 간신 정철(鄭澈)은 사납고 고약한 성질로 잔인하고 독한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희학과 방탕으로 가식하고 속으로는 시기심이 가득 차니, 맑은 의론에 용납되지 않아 항상 만족하지 않고 분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 몰래 그 틈을 기다렸다가 필시 보복하는 자리에서 한 번 독한 성미를 마음껏 부리려고 하였습니다. 급기야 역적이 사대부의 사이에서 나왔다는 말을 듣고는 오늘에야 내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스스로 다행으로 여기며 몸소 심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에 일망타진할 계책을 이루고자 공법(公法)을 개인적인 원수를 보복하는 은밀한 함정으로 삼고, 의금부²⁷⁶⁾를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깊은 구덩이로 삼았습니다. 평소애 조금이라도 흘겨보는 눈초리가²⁷⁷⁾ 있는 사람들을 모두 기록하여 주머니 속에 두었다가 죄가 있든 죄가 없든 성상의 총명을 가리고, 살리고 죽이는 것을 자신의 은혜와 원망으로써 하였습니다. 만일 성상의

273) 감형(鑑衡) : 거울과 저울을 말한다. 거울은 연추(妍醜)를 비추어 보는 것이고 저울은 경중을 다는 것이므로, 시비(是非)와 호오(好惡)를 가리는 마음·기준 등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임금의 사물을 감별하는 안목을 말한다.

274) 옥(玉)과 …… 것들 : 선인과 악인이 모두 함께 재앙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서경(書經)》〈하서(夏書) 윤정(胤征)〉에, “불이 곤륜산을 태우면 옥과 돌이 다함께 불타고, 임금이 덕을 잃으면 사나운 불보다 더 무섭다.[火炎崑岡, 玉石俱焚, 天使逸德, 烈于猛火.]”라고 하였다.

275) 요수(要囚)를 …… 때 : 요수(要囚)는 옥사를 처결할 때 죄인의 진술을 잘 살펴서 그 정실(情實)을 파악하는 것을 이른다. 《서경(書經)》〈주서(周書) 강고(康誥)〉에서, “요수하는 데 5, 6일을 생각하며 열흘이나 한 철을 신중히 생각해서 명확하게 판결하라.[要囚, 服念五六日, 至于旬時, 丕蔽要囚.]”라고 하였다.

276) 의금부 : 원문의 ‘왕옥(王獄)’은 의금부(義禁府)의 별칭이다.

277) 흘겨보는 눈초리가 : 원문의 ‘睚眦(애자)’는 사소한 원한을 뜻한다. 전국 시대 위(魏) 나라 사람으로 진(秦) 나라에 망명한 범저(范雎)는 출세한 뒤, 자신에게 밥 한 그릇 준 사람에게도 반드시 보상하고 눈 한번 흘린 사람에게도 반드시 보복했다고 한다. 《史記 卷79 范雎列傳》

감식안(鑑識眼)이 중천의 일월처럼 밝지 않았더라면 한 시대의 충성스럽고 현명한 사람들 중에 반드시 남은 무리가 없었을 것이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 당시에 원한을 품고 죽음에 나아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 도(道)에서 가장 원통한 자로 말한다면 정개청(鄭介淸)²⁷⁸⁾은 행실이 진실되고 입각(立脚)²⁷⁹⁾한 것이 확고하며,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아²⁸⁰⁾ 의리를 밝혀 사문(斯文)에 큰 공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흰히 보이건대 간신 정철은 한 시대의 상황을 그르쳐 항상 <항백(巷伯)>²⁸¹⁾편처럼 악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정철이 음험한 수단으로 남을 해치려 한 것이²⁸²⁾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유몽정(柳夢井)²⁸³⁾은 성품이 바르고 곧으며, 행실은 효성과 우애로 독실하였고, 조정에 들어가서는 구차히 영합(迎合)하는 태도가 없었으며, 백성을 다스릴 적에는 청렴근신(淸廉謹愼)한 실상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278) 정개청(鄭介淸) : 1529~1590. 자는 의백(義伯), 호는 곤재(困齋)이다. 서인(西人) 박순(朴淳)의 문인이었으나, 박순이 영의정(領議政)에서 파직되자 동인(東人) 이발(李潑)·정여립(鄭汝立)과 교분을 맺었다. 스승 박순을 배반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자 절의청담변(節義淸談辨)을 지어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니, 정철(鄭澈) 등 많은 사람으로부터 배절의론(排節義論)이란 비난을 받았다. 그러다가 정여립의 모반 사건이 일어나 연루되어 죽었다.

279) 입각(立脚) : 다리를 세운다는 말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몸을 의연히 지키는 것을 말한다.

280) 가르치기를 …… 않아 : 《맹자》〈공손추 상(公孫丑上)〉에 “옛날에 자공이 공자에게 물기를 ‘선생님은 성인이십니다.’라고 하자, 공자가 말하기를 ‘성인은 내가 능하지 못하지만 나는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昔者, 子貢問於孔子曰, 夫子聖矣乎. 孔子曰, 聖則吾不能, 我學不厭而教不倦也.]”에서 나온 말이다.

281) 항백(巷伯) : 참소하여 작은 허물을 가지고 큰 죄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시경》〈항백(巷伯)〉에 “조그마한 무늬로 이 자개 비단을 이루도다. 저 남을 참소하는 자여, 또한 너무 심하구나.[蕤兮斐兮, 成是貝錦. 彼讒人者, 亦已大甚.]” 하였다.

282) 음험한 …… 것이 : 원문의 ‘함사(含沙)’는 함사역(含沙蜮)과 같은 말로 흉독을 품고 남을 음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시경집전(詩經集傳)》〈하인사(何人斯)〉에 “저 사람은 도깨비도 되었다가 또 물여우도 되었구나.[爲鬼爲蜮]”라고 하였는데, 주희(朱熹)의 주(註)에 “이 물여우가 입에 모래를 머금고 물에 비친 사람의 그림자를 쏘면 그것에 맞은 사람은 바로 병에 걸리지만 형체는 보이지 않는다.[能含沙以射水中人影 其人輒病 而不見其形也]”라고 하였다.

283) 유몽정(柳夢井) : 1529~1590. 본관은 문화(文化), 호는 청계(淸溪)이다. 생원 진사시에 합격했고, 유일(遺逸)로 집의 지냈고, 남원 부사로 있다가 기축옥사로 국문을 받고 죽었다.

사헌부(司憲府)²⁸⁴의 자리에 있으면서 문득 간열(奸孽)의 싹을 자르니, 정철이 이를 갈며 분노한 것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이황종(李黃鍾)은 타고난 자질이 독실하고 식견이 뛰어났으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선(善)을 좋아하고 악(惡)을 원수처럼 미워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간신 정철과 죽마고우²⁸⁵였는데 중년에 이르자 간사하고 괴이한 실상을 보고는 단번에 끊어버리고 일절 서로 만나지 않다가 마침내 최영경(崔永慶)²⁸⁶과 마음으로 교유를 맺었는데, 정철이 평소에 시기하여 죽이고자 한 사람이 최영경이었습니다. 이황종이 정철을 버리고 최영경을 취하였으니, 정철이 원한을 품게 된 것은 진실로 당연한 일입니다.

조대중(曹大中)²⁸⁷은 사람됨이 강개하고 뜻을 세움이 청고(淸苦)하여 권문세가의 옷자락을 끌어당기지 않고 매번 간사한 것을 막으려고 격렬하게 의론하니, 도(道) 안에서 고립되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던 것입니다. 그가 좌막(佐幕)²⁸⁸이 되어서는 정철의 집이 가까이 있어도 지나가지 않았고, 그가 거리낌 없이 지적하며 말하는 것은 모두 정철의 악이니 저들에게 노여움을 사게 된 것도 괴상할 것이 없습니다.

284) 사헌부(司憲府) : 원문의 ‘풍헌(風憲)’은 풍교와 헌장이라는 뜻으로, 백관의 비리를 탄핵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직책을 이르는 말이다. 당(唐)나라 원결(元結)의 <사감찰어사표(辭監察御史表)>에 “신이 일반 백성의 신분으로 출사한 지 몇 달이 안 되어서 풍헌의 벼슬을 하여 군사를 사찰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285) 죽마고우 : 원문의 ‘총죽(蔥竹)’은 파로 만든 피리와 죽마(竹馬)이다. 총죽지교(蔥竹之交)라 하여 죽마고우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286) 최영경(崔永慶) : 1529~1590. 본관은 화순(和順), 자는 효원(孝元), 호는 수우당(守愚堂)이다. 조식(曹植)의 문인이다. 학문이 뛰어나 명망이 높았으며, 여러 차례 벼슬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나가지 않다가 1584년(선조 17) 교정청 낭관(校正廳郎官)이 되어 《경서훈해(經書訓解)》의 교정(校正)에 참여하고 곧 낙향하였으나 1589년(선조 22)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 때 무고로 투옥되어 정적(政敵)인 서인(西人) 정철(鄭澈)의 국문을 받다가 옥사(獄死)하였다. 그 후 신원(伸冤)되어 대사헌(大司憲)에 추증(追贈)되었고, 진주(晉州) 덕천서원(德泉書院)에 배향되었다.

287) 조대중(趙大中) : 1549~1590.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화우(和宇), 호는 정곡(鼎谷)이다. 1589년 전라도도사로 지방을 순시하던 중 보성에 이르러 부안에서 데려온 관기(官妓)와 이별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이것이 당시 반란의 음모로 처형된 정여립(鄭汝立)의 죽음을 슬퍼한 것으로 오해되어, 정여립의 일파로 몰려 국문을 받다가 이듬해 장살(杖殺)되었다. 국문을 받던 중 읊은 시가 ‘난언(亂言)’이라 하여 죽은 뒤 추형(追刑)을 당하였다.

288) 좌막(佐幕) : 각 도의 도사(都事)를 말한다.

아! 얼음과 쏙이 한 그릇에 있을 수 없고 간사함과 바름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인의 도(道)가 왕성하면 군자의 도(道)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곧은 도리로 세상에 용납되기 어려운 군자가 사람을 해치고²⁸⁹⁾ 간독(奸毒)을 자행하는 소인을 만났으니, 꿩이 그물에 걸리는 화²⁹⁰⁾를 어찌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소인이 군자를 죽이려고 도모할 때에 혹은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고, 혹은 불측한 말로 얹어 남김없이 섬멸하여 반드시 나라를 텅 비게 한 뒤에야 그만두니 그 꾀가 참혹합니다.

아! 정개청의 절의설(節義說)²⁹¹⁾은 선유(先儒)들의 정론에 의거하여 후학들의 허황된 습관을 금하는 것인데, 정철은 그 당파들을 사주하여 정개청이 저술한 설(說)에 임의로 ‘배(排)’자를 더하여 ‘배절의(排節義)’라고 이름하고 마침내 북방 밖으로 귀양 보내 죽게 하였습니다. 유몽정은 역적과 비록 같은 도(道)라고 하지만 이미 친밀하거나 가까운 교분이 없었으며, 비록 얼굴을 보았다고 하지만 또한 교유하여 왕래하는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거늘, 정철은 평소에 자기와 다르다는 분노를 품고 오늘날 원수 값을 꾀를 마음대로 하여 역적과 두터운 교분을 맺었다고 지목하여 마침내 형장 아래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이황종이 최영경에게 보낸 편지에 정철을 ‘노간(老奸)’이라 하고, 정철을 ‘괴귀(怪鬼)’라고 한 것은 단지 그 ‘노간’과 ‘괴귀’에서 모습을 적절히 보고 글로 나타낸 것입니다. 일찍이 이름을 알거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또 정확히 역적의 초사(招辭)²⁹²⁾에도

289) 사람을 해치고 : 원문의 ‘석영(射影)’은 물여우의 별칭으로 남모르게 사람을 해친다는 뜻이다. 《시경》 소아(小雅) 〈하인사(何人斯)〉에 “귀신이 되기도 하고 물여우가 되기도 한다.[爲鬼爲蜮]”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주에서 ‘역(蜮)’을 설명하면서 “이 물여우는 입에 모래를 머금고 사람의 그림자에 뿜으면 그 사람에게 바로 피부병이 생긴다.”라고 하였다.

290) 꿩이 그물에 걸리는 화 : 원문의 ‘치리지화(雉羅之禍)’는 토저치리(兎置雉理)와 같은 말로 토끼 그물에 꿩이 걸린 것이니 무고한 사람이 횡액에 걸린 것을 말한다.

291) 절의설(節義說) : 정개청이 지은 동한절의진송청담설(東漢節義晉宋清談說)을 말한다. 정개청은 본디 서인(西人) 박순(朴淳)의 문인이었으나 박순이 영의정에서 파직되자, 동인(東人) 이발(李潑)·정여립과 교분을 맺음으로써 스승을 배반했다는 비난을 받고는 절의청담변을 지어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니, 정철(鄭澈) 등 서인들로부터 배절의론이라는 비난을 얻었다.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卷40.

292) 초사(招辭) : 죄인이 법관의 신문(訊問)에 따라 범죄 사실을 진술한 말로 공초(供招), 공사(供辭)와 같은 의미이다.

나오지 않았거늘, 정철은 자신의 심술이 군자의 바른 견해에 탄로 나는 것을 꺼려서 단지 한 조각 편지를 빙자하여 참혹한 형벌을 거듭 가하고 죽음에 나아가게 하였으나, 그 실상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조대중은 역적과 이미 같은 조정의 신하가 아니었고, 비록 안면을 아는 정도의 교분은 있었으나 원래 두텁게 교류하는 사이가 아니었으니, 반드시 죽음에 슬퍼할 정도의 마음은 없었을 터인데, 하물며 역적의 죽음에 어찌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 슬퍼하였겠습니까? 정철의 도당들이 정철의 비위를 맞추려고 근거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혹자는 역적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하며, 혹자는 역적을 위하여 채식하였다고²⁹³⁾ 하여 무고한 사람을 부당한 형벌에 죽게 하였으니 참담합니다. 소인이 어진 사람을 엮어서 죽인 것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아! 고금 천하에 비록 사람의 화가 있었지만, 어찌 오늘날과 같은 원통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옛날 미천한 신하가 가슴을 두드리자 6월에 서리가 내렸고²⁹⁴⁾, 서녀(庶女)가 하늘에 호소하자 3년 동안 가물었으니²⁹⁵⁾, 보통 남녀의 원통함도 화평한 기운을 손상시켜 재앙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물며 지금 현인(賢人)과 군자 중에 죄 없이 죽음에 나아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니, 그 원통함이 어찌 동해의 한 아낙네와

293) 채식하였다고 : 원문의 ‘행소(行素)’는 상을 당하여 고기나 고기가 든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菜食)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고기를 먹는 것은 개소(開素)라고 한다.

294) 미천한 …… 내렸고 : 전국 시대 제(齊)나라 추연(鄒衍)이 연(燕)나라에서 무함을 받고 하옥되어, 하늘을 우러러 억울함을 호소하며 통곡을 하니, 5월에 하늘에서 서리가 내렸다는 고사가 전하는데, 여기에서 유래하여 유월비상(六月飛霜)이 원옥(冤獄)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後漢書 卷57 劉瑜列傳》 남조(南朝) 양(梁)의 강엄(江淹)이 지은 <예건평왕상서(詣建平王上書)>에 “옛날에 천신이 가슴을 두드리자, 하늘이 연나라 땅에 서리를 내렸다.[昔者賤臣叩心 飛霜擊於燕地]”라는 표현이 나온다.

295) 서녀(庶女)가 …… 가물었으니 : 중국의 한(漢)나라 때 동해 효부(東海孝婦)의 고사를 가리킨다. 한(漢)나라 때 동해(東海)에 사는 수절 과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시어머니는 자기 때문에 머느리가 개가지지 못한다고 여겨 스스로 목을 매 죽었는데, 이에 시누이는 머느리가 핍박하여 시어머니를 죽게 했다고 고소하였다. 이때 우공(于公)이 옥리(獄吏)로 있으면서 힘껏 변호했으나 머느리는 변명할 길이 없어 죄를 시인하고 죽게 되었다. 그후 동해 지방이 3년 동안 가물었고, 나중에 동해 태수(東海太守)가 새로 부임하자, 우공이 그 사실을 말하여 그 머느리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주게 하니, 곧 비가 내렸다고 한다. 후에 우공의 아들 우정국(于定國)이 승상에 올랐는데, 바로 우공이 옥리로 있으면서 쌓은 음덕 때문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史略 卷2 西漢》

연나라 감옥의 외로운 신하에게 특별하겠습니까? 여러 사람의 원한이 거둑 쌓여 하늘에 사무치니 하늘의 기운이 손상되어 화평한 것은 패려함으로 변하고, 요열(妖孽)의 재앙이 겹겹이 나타나 선비의 기풍은 날로 상실되고 국가의 명맥은 날로 허물어졌습니다. 이어서 임진년(1592)에 변란이 일어나 2백 년 종묘사직이 하루아침에 비린내 나고 더럽혀져 수많은 백성은 간과 뇌가 땅에 문드러지듯 참혹히 죽게 되었고 계속된 병란으로 화를 불러옴이 이제 5년의 긴 세월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른바 큰 옥사 후에 반드시 큰 병란이 있다는 말을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성상께서 재앙을 가져오는 실마리를²⁹⁶⁾ 깊이 아시고 널리 누명을 씻는 은명(恩命)을 내리신 덕분에 최영경이 모함을 입은 일로 한밤중에 눈물을 흘렸다는 교지가 있어 특별히 그 원통함을 풀어주며 높은 벼슬을 포증(褒贈)²⁹⁷⁾하기에도 이르렀으며, 나머지 귀양 가고 폐고(廢錮)²⁹⁸⁾된 자들도 아울러 은전을 입었으니, 이는 천지의 신과 사람의 복이요, 국가를 회복하는 기틀입니다. 그러나 왜적이 아직도 우리 강토에 주둔하고 있어 국운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막힌 것은 진실로 남은 원통함을 모두 씻어주지 못하고 하늘의 뜻을 모두 돌리지 못한 까닭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을 돌아보건대, 인심이 이미 흩어지고 병력이 이미 고갈되었으니 이와 같은 형세로써 저와 같은 적을 제어하려면 별다른 방책이 없어 믿고 바라는 것은 오직 하늘의 뜻뿐입니다. 진실로 하늘의 뜻이 돌아보신다면 비록 막강한 적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어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체로 하늘의 뜻을 감동시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 지극함을 다하지 않음이 없어야 하니²⁹⁹⁾ 감동시켜 돌아오게 하는 기틀은 오직 원통함을 풀어주는 한 가지 일뿐입니다.

296) 재앙을 가져오는 실마리 : 《시경》〈상유(桑柔)〉의 “누가 화의 계제를 만들어 지금에 이르도록 병들게 하였는가.[誰生厲階 至今爲梗]”라는 구절에 나오는 말이다.

297) 포증(褒贈) : 나라에서 포창하여 관직을 추증하는 것이다.

298) 폐고(廢錮) :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299) 그 지극함을 …… 하니 : 《대학장구》전2장에 “이런 까닭으로 군자는 그 지극함을 다하지 않음이 없다.[是故, 君子無所不用其極.]”라고 한 데 나오는 말이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해와 달 같은 밝은 빛을 넓혀 어두운 곳까지 비치지 않음이 없게 하시고, 천지와 같은 어진 은혜를 베풀어 하나의 사물도 받지 않음이 없도록 하시며 네 사람의 원통함을 통찰하시고, 한 번에 씻을 수 있는 덕음(德音)³⁰⁰⁾을 빨리 내리시어 위로는 하늘의 뜻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여망(興望, 여러 사람의 기대)을 위로하시며, 구천³⁰¹⁾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초보은의 정성을 닦아 품게 하고, 많은 선비의 기상이 의로운 것을 따르는 뜻을 더욱 가다듬게 하시면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통쾌할 것이고 하늘의 뜻도 바야흐로 돌아올 것이니 자그마한 역적은 우리의 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발(李潑)³⁰²⁾과 이길(李洁)³⁰³⁾의 경우 망령되이 역적과 사권 죄는 만 번 죽어도 용서할 수 없으나, 역적의 흉측한 꾀와 반역의 마음에 이르러서는 아마도 반드시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신들은 같은 도내에 있으면서 이발과 이길의 평생 효도와 우애가 천성에서 나와 집안에서의 행실이 옛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익히 들었습니다. 충신은 반드시 효자의 집안에서 찾으라³⁰⁴⁾ 하였으니, 효도하면서 충성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다만 식전이 어두웠기 때문에 역적에게 속임 당하는 것을 면할 수 없었으니, 그 죄는 죽을 만하나 그 실정은 용서할 만합니다. 이발과 이길이 정철에게 평소 물과 불의 관계라는 것은 전하께서도 이미 아실 것입니다. 삼가 원컨대 전하께서는 아울러 굽어 살피소서. 어떻게 하면 인심을 굳게 결속시킬 수

300) 덕음(德音) :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라는 뜻에서 군주가 내리는 명령이나 조칙을 뜻한다.

301) 구천 : 원문의 '중천(重泉)'은 구천(九泉)과 같은 말로 죽은 뒤에 नी이 돌아가는 곳 즉 저승을 가리킨다.

302) 이발(李潑) : 1544~1589.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경함(景涵), 호는 동암(東巖)·북산(北山)이다. 1589년 정여립의 모반을 계기로 일어난 기축옥사에서 모반에 가담하였다 하여 모진 고문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인조반정 후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의 상소로 신원되었다.

303) 이길(李洁) : 1547~1589.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경연(景淵), 호는 남계(南溪)이다. 1577년 태묘별시 문과(太廟別試文科)에 급제하고, 사인을 거쳐 벼슬이 응교에 이르렀다.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희천으로 귀양 갔다가 뒤에 죽음을 당하였다. 1694년에 신원되고 부제학에 추증되었다.

304) 충신은 …… 찾으라 : 《후한서(後漢書)》 권26 〈위표열전(韋彪列傳)〉에 “아버이를 효도로 섬기는 까닭에 충성을 임금에게 옮길 수가 있다. 그래서 충신은 반드시 효자의 집안에서 구하는 것이다.[事親孝故忠可移於君. 是以求忠臣必於孝子之門.]”라는 공자(孔子)의 말이 인용한 것이다.

있겠습니까?

아! 구중궁궐 위에 살며 백성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임금이요, 나라 안에 거처하며 한 사람의 명을 받든 사람은 백성입니다. 임금은 백성과 상하 관계이니 비록 【아마도 ‘수(殊)’자의 오류인 듯하다.】 귀천의 현격한 형세로 막혀 있어 마치 서로 미치지 못하는 것 같으나, 그 마음은 풀과 바람³⁰⁵⁾, 그림자와 메아리³⁰⁶⁾처럼 서로 호응합니다. 임금이 뜻을 정성스럽게 하면 백성 또한 정성으로 호응하고, 임금의 뜻이 게으르면 백성 또한 게으름으로 호응합니다. 대개 백성의 마음을 보합(保合)³⁰⁷⁾하는 요체는 임금이 정성껏 대하는 것에 기인하지 않음이 없고, 흠어지게 하는 폐단 또한 임금의 태만으로 기인하지 않음이 없으니 임금과 백성이 서로 호응하는 기틀을 어찌 소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소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성인과 현인이 계속해서 나와 보위(寶位)를 전한 것이 12대에 200년이 지났습니다. 백성을 쉬게 하고 길러주며,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고 함양하여 의로써 묶고 인으로써 결속시키니 그 발원이 깊고 뿌리내린 것이 견고합니다. 삼가 우리 전하에 이르러 마침내 선왕의 업을 따르고 선대의 공렬(功烈)을 아름답게 빛내며 다친 사람을 본 듯한³⁰⁸⁾ 마음으로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사에 대한³⁰⁹⁾ 근심이 절실하였고, 보호하듯이 하는 정성으로 자주 산둥(山東)처럼 조령(詔令)

305) 풀과 바람 : 바람이 불면 풀이 쓸리듯이 위사람이 인도하면 아랫사람이 따른다는 말이다. 《논어(論語)》〈안연(顔淵)〉에 이르기를,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게 된다.[君子之德風也, 小人之德草也, 草尙之風, 必偃.]”라고 하였다.

306) 그림자와 메아리 : 형성에 따르는 그림자와 소리에 따르는 울림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서로 밀접하게 호응하는 일에 비유하고 있다.

307) 보합(保合) : 안정시키고 화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역》〈건괘(乾卦) 단(象)〉에 “하늘의 도가 변화함에 각각 성명을 바르게 하여 큰 화기를 보전케 해 준다.[乾道變化, 各正性命, 保合大和.]”라고 하였다.

308) 다친 사람을 본 듯한 : 원문의 ‘여상(如傷)’은 백성들을 보기를 마치 다친 사람 대하듯이 걱정한다는 말이다. 《맹자(孟子)》〈이루 하(離婁下)〉에, “문왕은 백성 보기를 마치 다친 사람처럼 하였다.[文王視民如傷]”라고 하였다.

309) 아침부터 …… 정사에 대한 : 원문의 ‘宵旰(소간)’은 소의간식(宵衣旰食)의 준말로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옷 입고, 해가 진 후에 늦게 저녁을 먹는다는 뜻으로, 군주가 정사에 부지런함을 뜻하는 말이다.

을 반포하시니³¹⁰⁾ 백성들이 모두 사랑하여 떠받들고 차마 배반할 수 없는 마음을 가졌습시다.

나라의 근본이 공고해져서 이미 흔들릴 수 없는 형세를 이루었으나 한번 기축년의 변고를 겪으면서 하늘의 뜻은 이미 손상되고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와해되었습니다. 임진(壬辰 1592)년에 왜적이 이르러 아직 호경(鎬京)³¹¹⁾을 침범하지 않았으나 이미 흙이 무너지는 형세가 있었고, 금수(禽獸)가 달아나 숨듯 오직 구차하게 살아날 계책만 알았습니다. 임금이 옥을 당하고 신하가 죽었으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없었고 오랑캐³¹²⁾가 이르자 태왕(太王)이 빈(邠) 땅을 떠나듯 하였으니³¹³⁾ 어찌 강한 우리나라가 하루아침에 꺾여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아! 성곽과 해자가 높거나 깊지 않아서가 아니고 병기와 갑옷이 견고하거나 날카롭지 않아서가 아니며 쌀과 곡식이 많지 않아서가 아닙니다.³¹⁴⁾ 성상께서는 변방을 수비할 계책이 진실로 한나라 문제(文帝)보다 뒤지지 않거늘, 도성을 지키지 못함이 요(遼)와 금(金)이 하수(河水)를 건너는 날보다 심했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흩어진 인심은 수습하기 어려워 하늘도 사랑하여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하께서

310) 산둥(山東)처럼 …… 반포하시니 :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 박사제자(博士弟子) 가산(賈山)이 천자를 간(諫)하기 위해 지은 <지언(至言)> 가운데 “산둥의 관리가 조령을 포고하자, 아무리 늙고 병든 백성이라도 모두 지팡이를 짚고 와서 들으면서, 잠시나마 죽지 않고 더 살아 덕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山東吏布詔令, 民雖老羸癯疾, 扶杖而往聽之, 願須臾毋死, 思見德化之成.]”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漢書 卷51 賈山傳》

311) 호경(鎬京) : 주(周) 나라에서 호경(鎬京)을 서경(西京)이라 하고 낙양(洛陽)을 동경(東京)이라 하였으므로, 이것을 모방하여 평양을 호경이라 하였다.

312) 오랑캐 : 원문의 ‘험윤(獯鬻)’은 중국 북방의 오랑캐 종족인 흉노족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오랑캐를 통칭한다.

313) 태왕(太王)이 …… 하였으니 : 빈은 주(周)나라의 근거지로, 옛날 주 태왕(周太王)이 빈 땅에 거주할 적에 적인(狄人)이 침략하자 그곳을 버리고 기산(岐山) 아래로 갔다는 말이 《맹자》〈양혜왕 하(梁惠王下)〉에 나온다. 여기서는 임금이 난을 피해 옮겨 간다는 의미로 쓰였다.

314) 성곽과 …… 아닙니다. : 《맹자(孟子)》〈공손추하(公孫丑下)〉에서 “성이 높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해자가 깊지 않은 것도 아니며, 무기와 갑옷이 견고하고 날카롭지 않은 것도 아니며, 양식이 많지 않은 것도 아니다. [城非不高也, 池非不深也, 兵革非不堅利也, 米粟非不多也.]”라고 한 말에 나온다.

국난을 널리 구제하신 것에 힘입어 원릉(園陵)³¹⁵⁾을 빨리 소제(掃除)하고 옛 도읍에 환궁하시어 오늘에 이르러서는 거의 회복될 기미가 보였으나 승냥이 같이 탐욕스러운 자들이 아직도 날뛰고 뱀처럼 파리를 틀고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근래에 또 국경에 왜구가 온다는 소문이 있자 도성 밖 인심이 흥흥하여 안정되지 못하고 모두 와해되려는 뜻이 있었습니다.【아마도 ‘의(宜)’자가 빠진듯하다.】 이제 분산된 마음을 진정하고 수습하기에 이르렀으나 길가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듣자니 성상께서 확고하게 정해진 뜻이 없이 전교(傳敎)³¹⁶⁾를 발의하면 도읍의 인심이 더욱 어지러워질 것이며 도성 밖에 있는 사람도 따라서 소동이 일어나니 앞선 소문으로 겁먹는 바가 오히려 이와 같습니다. 만약 말을 몰고 전진하여 마구 들어오는 형세가 있다면 무엇으로 적을 막을 것이며 무엇으로 나라를 지킬 것입니까? 말이 여기에 이르니 지극히 통곡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아! 성상께서 위에 있고 조정에 사람이 있으니 오랑캐를 방어할 상책을 버려둘 일은 없을 것이나 초야의 사이에도 취할만한 견해³¹⁷⁾가 없을 수 없으니 감히 먼지와 이슬 같은 하찮은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부(夫)’자가 빠진듯하다.】 천하의 일에는 완급이 있으니 마땅히 천천히 할 일에 급하게 하면 일이 전도(顛倒)되어 어쩔 줄 모르는 근심이 있게 되고, 마땅히 급히 할 일에 천천히 하게 되면 후회해도 소용없는³¹⁸⁾

315) 원릉(園陵) : 일반적으로 왕실의 묘를 통칭하여 원릉이라 한다. 원은 세자·세자빈, 또는 왕의 후궁(後宮)인 왕의 생모(生母)의 무덤이고, 능은 왕과 왕비의 무덤이다.

316) 전교(傳敎) : 임금이 명령을 내리는 일이나 그 명령을 이르던 말이다.

317) 어리석은 견해 : 원문의 ‘일득지우(一得之愚)’는 자신의 견해에 대한 겸사이다. 천 번을 생각하여 하나를 얻는 어리석음이라는 말로, 《사기(史記)》 권92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 “지혜로운 사람도 천 번 생각에 반드시 한 번쯤의 실수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천 번 생각하면 반드시 한 번은 얻는 것이 있다.”라고 하였다.

318) 후회해도 소용없는 : 원문의 ‘서제(噬臍)’는 사람이 자기 배꼽을 씹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일이 잘 못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장공(莊公) 6년에 “초 문왕(楚文王)이 신국(申國)을 토벌하러 가면서 등(鄧)나라를 지나니 등나라 기후(祈侯)가 초 문왕을 머무르게 하고 대접하였다. 추생(雕甥), 담생(聃甥), 양생(養甥)이 초 문왕을 죽이라고 요청하였으나 등후가 듣지 않았다. 삼생(三甥)이 등나라를 망칠 자는 반드시 이 사람일 것이니 ‘만약 미리 도모하지 않으면 나중에 배꼽을 씹으려 한들 되겠습니까. [若不早圖 後君噬臍 其及之乎]’라고 하였으나 등후가 듣지 않

뉘우침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땅히 천천히 할 때는 조치하고 대비하는 계책을 강구하여 만전을 도모함이 좋습니다. 일을 급히 해야 할 때는 반드시 한번 죽기를 각오하고 그 어려움을 구제하는 것이 또한 좋습니다. 오늘의 일로 살펴보자면 급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옛 사람들의 말에 “일이 급하면 천천히 걸어갈 수 없고, 마음이 아프면 느긋하게 말할 수 없다.³¹⁹⁾”라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이런 위급한 때를 당하여 어찌 조정에서 아직도 아무 말이 없다고 하여 또한 전하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겠습니까?

신들은 예사롭지 않는 변란을 만난 뒤에 예사롭지 않는 경사가 있고, 예사롭지 않는 일이 있는 뒤에 예사롭지 않는 공을 세운다고 들었습니다. 옛날 주(周)나라 선왕(宣王)은 몸소 창을 들고 적을 물리쳤고, 당(唐)나라 숙종(肅宗)은 몸소 갑주(甲冑, 갑옷과 투구)를 입고 적군을 평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급급한 날을 당하면 반드시 몸소 정벌하는 일이 있는 뒤에야 인심이 격동할 수 있고, 천토(天討)³²⁰⁾가 행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백성의 마음을 만약 감동하게 하거나 격려할 방도가 없다면 비록 아침에 장수 하나를 보내고 저녁에 장수 하나를 보낸다 한들 반드시 이 백성으로 하여금 감히 목숨 바칠 마음으로 나아가 저 적군을 섬멸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의(矣)’자가 빠진듯하다.】

지금에 위한 계책으로는 빨리 애통해하는 교시(敎示)를 내리시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측은히 여기고 애통해하는 정성으로 위로는 종묘에 고하고, 아래로는 신하와 백성들을 유시(諭示)한 뒤 몸소 임금의 수레³²¹⁾

가 초나라에 의해 멸망하였다.”라고 하였다.

319) 일이 급하면 …… 수 없다 : 왕암수(王巖叟)의 <상신종왕안석(上神宗王安石)>에서는 원문의 ‘불가(不可)’가 ‘무(無)’로 되어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원문에 의거하여 국역하였다. “신이 듣자니 일이 급한 자는 천천히 걸을 수 없고, 심장이 아픈 사람은 느긋하게 소리를 낼 수 없다.[臣聞事之急者, 無徐行, 心之痛者, 無緩聲]”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宋代名臣奏議 卷116》

320) 천토(天討) : 천토유죄(天討有罪)의 줄임말로 하늘이 죄 있는 사람을 응징하고 다스리는 일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 일을 임금이 대행하는 것이다. 《서경》<고요모(皋陶謨)>에 법관인 고요가 우(禹) 임금에게 건의하면서 “하늘이 죄 있는 자를 토벌하려 하시거든, 왕께서는 다섯 가지 등급의 형벌을 적용하여 그들을 처벌하십시오.[天討有罪 五刑五用哉]”라고 하였다.

321) 임금의 수레 : 원문의 ‘육비(六飛)’는 여섯 필의 빠른 말이라는 뜻으로, 임금의 수레를 끄는 말을

를 몰고 삼군(三軍)에게 명령을 내려 남쪽 지방에 어가를 머물며 요새에 의거하여 험지(險地)를 지키면서 도내 수령에게 각각의 병마(兵馬)를 거느리게 한다면 백성들이 숲처럼 모이고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할 것입니다. 백성들을 불러 맹세한 말을 모두 듣게 하고 목숨을 바치려는 충성으로 앞 다투어 분발한다면 백성들은 임금의 거마(車馬) 소리를 듣고 임금의 아름다운 깃발을 보고 모두 혼연(欣然)히 기뻐하는 낯빛으로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께서 정벌을 나가시니 우리가 무슨 근심을 하겠는가? 우리 왕께서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떠나가겠는가?”라고 하며 비록 궁벽한 산야의 어린아이나 늙은이라도 임금과 함께 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³²²⁾ 함께 일어나서 임금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면 우리가 무위(武威)를 떨치고 임금께서 위엄을 더욱 떨쳐 적군의 간담을 부수고 적군의 혼백을 흩어버리기에 족하며 적장(賊將)의 머리를 북쪽 궁궐 아래에 매달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호남은 물력이 풍부하고 창고가 완전하여 분탕(焚蕩)질 당한 지역과 다릅니다. 또 산성이 천혜의 험준하고 견고한 곳에 만들어져 있으니 어떻게 3리 되는 성과 7리 되는 외성을 포위하여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³²³⁾ 국가의 근본이 오로지 여기에 달려있고, 회복하는 일 또한 여기에 달려있으니 중대한 이 지역이 어찌 강회(江淮)의 보장(保障)³²⁴⁾과, 세류영(細柳營)에서

이른다. 당(唐)나라 두목(杜牧)의 <장안잡제장구(長安雜題長句)>에 “육비(六飛)가 남쪽으로 부용원으로 행차한다[六飛南幸芙蓉苑]”라고 하였다.

322) 백성들은 …… 할 것입니다 : 《맹자》<양혜왕장구 하>에 “지금 이곳에서 사냥을 하시면 백성들이 왕의 수레 소리, 말소리를 들으며 깃발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모두 혼연히 기뻐하는 기색을 띠며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이 질병이 없으신가. 어떻게 사냥을 다 하시는가.’ 한다면,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백성과 더불어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今王田獵於此, 百姓聞王, 車馬之音, 見羽旄之美, 舉欣欣然有喜色而相告曰: 吾王庶幾無疾病與. 何以能田獵也. 此無他, 與民同樂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323) 3리 …… 있겠습니까? : 《맹자》<공손추 하>에서 “3리 되는 성과 7리 되는 외성을 포위하여 공격해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포위하여 공격하면 반드시 천시(天時)를 얻을 때가 있으면마는, 그런데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천시가 지리만 못하기 때문이다.[三里之城, 七里之郭, 環而攻之而不勝. 夫環而攻之, 必有得天時者矣, 然而不能勝者, 是天時不如地利也.]”라고 하였다. 여기서 3리와 7리는 성곽이 작은 것을 뜻한다.

324) 강회(江淮)의 보장(保障) : 원문의 ‘강회(江淮)’는 강수 회수를 말하나, 여기에서는 호남(湖南)을 가리킨다. 참고로 안록산(安祿山)과 사사명(史思明)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수양성(睢陽城)이 반란군

군대를 위로하려고 임한 행차³²⁵⁾와, 단연(澶淵)³²⁶⁾에서 적을 물리치고자 주둔한 행차 일뿐이었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마땅히 급히 할 일과 천천히 할 일의 형세를 살피시고 (몸소 창 든)선왕(宣王)과 (몸소 갑주를 입은)숙종(肅宗)을 법으로 삼아 당장에 편한 것만 취하는 계책을 삼지 마시고 【아마도 ‘중(中)’자의 오류인 듯하다.】 중흥의 일을 살피셔야 합니다. 만약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강약의 형세가 달라진다면 마땅히 진(秦)나라에서 통곡하던 신포서의 정성을 본받고, 형(邢)나라를 구원했던 것처럼 군대를 내어주기를 청하여³²⁷⁾ 힘을 모아 일제히 거행한다면 저 적들이 반드시 이기고 우리 병사들은 반드시 패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송(宋)나라 신하 종택(宗澤)³²⁸⁾의 상소에 “하늘이 진실로 송나라를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에 포위되었다. 성 안에 양식이 고갈되자 사람들은 모두 성을 버리고 도주하자고 하였으나 장순(張巡)과 허원(許遠)은 “수양은 강회(江淮)의 보장(保障)이다. 만약 이 성을 버리고 떠나면 적이 반드시 승세를 타고 깊이 쳐들어올 것이니, 그렇게 되면 강회는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수양을 지키다 전사하였다. 《新唐書 卷192 張巡列傳》

325) 세류영(細柳營)에서 …… 행차 : 한나라 문제(文帝) 때에 주발(周勃)이 장군이 되어 군사를 세류(細柳)에 주둔해 놓고 흉노를 방비하였다. 문제가 직접 가서 군사를 위로하려고 군문에 이르렀으나 위에서 명령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문제가 사자(使者)에게 병부(兵符)를 주어 장군에게 명을 내리자 주발이 명을 내려 문을 열고 군례(軍禮)로 뵈기를 요청하였다. 문제가 군영으로 들어가 돌아보고 말하기를 “정말 장군다운 장군이다. 옛그제 패상(霸上) 극문(棘門)의 군대는 어린아이 가 장난하는 것 같았다.”라고 하였다. 《史記 卷57 周勃世家》

326) 단연(澶淵) : 하남성(河南省)에 있는 지명으로, 송(宋) 나라 때 구준(寇準)이 거란(契丹)을 물리친 곳이다. 송 나라 진종(眞宗)이 즉위한 함평(咸平) 초년에 거란군이 침입해 오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 황제에게 남쪽으로 피해 가 있을 것을 청하였으나, 구준만은 친정(親征)하기를 청하였다. 이에 진종이 친정을 결정하였으나, 남성(南城)에 이르러서는 군사를 주둔한 채 강을 건너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구준이 다시 강을 건너기를 고집하여 황제가 할 수 없이 강을 건넜는데, 이로 인해 사기가 고무되어 거란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거란을 물리친 뒤 거란에서 화친을 요청하자, 구준은 이에 반대하였으나 황제가 구준의 말을 듣지 않고 화친하였다. 《宋史 卷281 寇準列傳》

327) 진(秦)나라에서 …… 내어주기를 청하여 : 춘추 시대 초(楚)나라 오자서(伍子胥)가 일찍이 초왕(楚王)이 자기 가족을 주멸(誅滅)할 때에 홀로 오(吳)나라로 도망가 있다가 뒤에 그 보복(報復)을 하기 위해 오나라 군대를 거느리고 초나라로 쳐들어가자, 초나라의 신하 신포서(申包胥)가 진(秦)나라에 가서 원병(援兵)을 요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으므로, 그가 정장(庭牆)에 기대서서 7일 밤낮을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통곡을 계속하니, 진나라에서 그의 정성에 감동되어 마침내 원병을 보내서 초나라를 구원해 주었던 고사에서 온 말이다.

328) 종택(宗澤) : 1060~1128. 북송 말 남송 초의 명신으로, 자는 여림(汝霖)이다. 동경 유수(東京留守)

큰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소순(蘇洵)³²⁹⁾이 또 말하기를 “백 번 싸워 이기면 상대가 비록 굴복하더라도 우리 또한 수고로울 것이다.³³⁰⁾”라고 하였습니다. 저 적의 군대는 늙고 병사는 피폐하며, 하늘이 버리셨고 귀신까지 벌을 내렸으니 멀리서 건너올 수는 있으나 소리나 형체의 움직임에 미리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 소강(少康)³³¹⁾은 군사 500명【아마도 ‘중(衆)’자가 빠진듯하다.】으로 중흥하였고, 포서(包胥)는 3호로【아마도 ‘오백승(五百乘)’의 오류인 듯하다.】초(楚)나라를 보존하였습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병사가 적다고 하여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들은 인심을 수습하고 적군을 섬멸하는 것이 급하니 감히 구준(寇準)이 강을 건너고자 했던 소원과 장준(張浚)³³²⁾이 스스로 장군이 되고자 했던 청을 본받겠습니다. 그러나 옛 사람의 말에 “천금의 자식은 마루 끝에 앉히지 않는다.³³³⁾”라고 하였으며, 또 “적로(賊

守)로 재직할 때 20여 차례에 걸쳐 고종(高宗) 조구(趙構)에게 상소하여 남경(南京)에서 동경 즉 개봉(開封)으로 환도할 것을 주장하고 중원을 수복할 방책을 제정하자고 건의하였는데,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화병이 났고, 7개월 뒤 임종할 때에 “황하를 건너라.[過河]”라는 말을 세 번 외치고 죽었다고 한다.《宋史 卷360 宗澤列傳》

329) 소순(蘇洵) : 1009~1066. 중국 송(宋)나라의 문인·학자.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으로, 예리한 논법(論法)과 정열적인 평론(評論)으로 구양수(歐陽脩)의 인정을 받아 명성을 떨쳤으며, 아들 소식(蘇軾)·소철(蘇轍)과 함께 ‘삼소(三蘇)’로 일컬어진다.

330) 백 번 …… 것이다. : 《당송팔대가문초(唐宋八大家文抄)》 소순(蘇洵) 편〈심작론(審敵論)〉 “우리가 백 번을 싸워 상대를 이겨서, 상대가 굴복하더라도 우리 또한 수고로울 것이다.[我百戰而勝人, 人雖屈, 而我亦勞.]라고 한 말에 나온다.

331) 소강(少康) : 상(相)의 유복자로, 한착(寒浞)을 죽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하나라를 중흥시킨 임금이다.《春秋左氏傳 襄公4年, 哀公元年》 후예(后羿)가 태강(太康)을 내쫓고 중강(仲康)을 세우고서 정권을 독단하였고, 그의 신하 한착이 후예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였고, 한착의 아들 오(杼)가 상을 시해하였는데, 상의 아들 소강(少康)이 5백 명의 군사로 오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회복하였다.

332) 장준(張浚) : 1097~1164. 남송의 정치가이자 학자이다. 금(金)나라 군대가 침입하자 고종(高宗)은 항주(杭州)로 피신하였는데, 고종을 호위하던 묘부, 유정언 등이 고종에게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장준이 한세충(韓世忠) 등과 군사를 내어 난을 토벌하고 고종을 복위시켰다.《宋史 卷361 張浚列傳》

333) 천금의 …… 않는다. : 임금이 험난한 곳에 가지 말라는 뜻이다. 참고로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말을 타고 험한 언덕을 치달리려 하자, 원앙(袁盎)이 “귀한 집 아들은 마루 끝에 앉지 않는 법이다.[千金之子, 坐不垂堂.]”라고 하면서 만류했던 고사가 있다.《史記 卷101 袁盎列傳》

虜)를 처리하는 일을 군부(君父)에게 남겨드리지 않는다.³³⁴⁾”라고 하였으니 신들이 어찌 감히 전하께서 몸소 시석(矢石)³³⁵⁾의 사이에서 위험을 무릅쓰기를 바라겠습니까? 단포(丹浦)의 승리를 위해 군주가 몸소 철계(澈溪)에 이르러 정벌할 필요가 없으니 네가 가라는 명령을 내려 중신(重臣)을 택하여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한 사람이 원수(元帥)의 직임을 겸임하게 하여 활을 당길 수 있는 백성을 다 취하여 원문(轅門)³³⁶⁾에 모아 한결같이 강습하고, 여러 곳으로 흩어져 때에 임하여 낭패의 환난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벼슬하지 않는 선비 가운데 재주와 지략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막하(幕下)에 두어 계책을 묻고 함께 계획을 세우면 위급한 일에 생겼을 때 적군에 대응할 걱정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 하늘의 뜻이 감응(感應)하면 반드시 사람을 감응시키고, 인심이 감응하면 반드시 하늘에 통하니 하늘의 뜻이 감응하는 것이 곧 인심이 감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귀신을 감동시킨 우(禹) 임금은 완악한 묘족(苗族)이 복종하는 것을 보았고³³⁷⁾, 애통한 조서³³⁸⁾를 내린 당(唐)나라 덕종(德宗)은 봉천(奉天)으로 가는 수레를 돌이킬 수 있었으니, 참으로 하늘의 뜻을 되돌리고 인심을 결속시키는 것은 적을 토벌하고 나라를 부흥시키는 기틀에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334) 적로(賊虜)를 …… 남겨드리지 않는다: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가 노(魯)에 있을 적에, 경감(耿弇)이 장보(張步)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출동하였는데, 이에 진준(陳俊)이 경감에게 상의 군대가 도착할 때까지 잠깐 전투를 멈추고 기다리자고 건의하자, 경감이 “승여가 곧 도착할 터이니, 신자로서는 응당 소를 잡고 술을 걸러서 백관을 기다려야 할 것인데, 거꾸로 적로를 처리하는 일을 군부에게 남겨 드린단 말인가. [乘輿且到, 臣子當擊牛釀酒以待百官, 反欲以賊虜遺君父邪.]”라고 하고는 크게 싸워서 적을 대파한 고사가 전한다. 《後漢書 卷80 耿弇列傳》

335) 시석(矢石): 화살과 쇠뇌로 발사하는 돌을 이른 말로, 전하여 전쟁을 뜻한다.

336) 원문(轅門): 수레의 끝채를 마주 세워 문 모양을 만든 것으로, 병영(兵營)의 문을 가리킨다.

337) 우(禹)임금은……보았고: 우 임금이 군대를 거느리고 묘족을 복종시키려 하였으나 한 달이 지나 도록 묘족이 지형의 험고(險固)함과 군대의 강함을 믿고서 항복하지 않았다. 이에 익(益)의 간언을 받아 아들이 군대를 철수하고 덕교(德教)를 숭상하는 의미에서 간척(干戚)과 우모(羽毛)를 들고 춤을 추자 70일 만에 묘족이 스스로 항복하여 왔다. 《書經 大禹謨》

338) 애통한 조서(詔書): 당 덕종(唐德宗)이 주자(朱泚)의 난(亂)을 피하여 봉천(奉天)으로 파천(播遷)하였는데, 육지(陸贄)가 덕종에게 아뢰어 황제 자신을 책하는 애통조(哀痛詔)를 내리게 하였다. 《당서(唐書)》에 보인다.

아! 신들이 임진년의 변란이 기축년의 원통함으로 초래되었다고 여겨 이 어지러운 날에 반드시 억울함을 씻고자 한 것이 전하께서 즉위한 이래로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덕을 잃은 것이 하늘에 죄를 얻지 아니하였거늘, 오늘날 막대한 변란이 있으니 이 어찌 전하 때문이겠습니까? 실로 간신이 현자(賢者)를 해치고 나라를 병들게 하여 화평한 기운을 손상시킨 탓입니다. 이 때문에 신들은 변란을 안정시키는 방책을 하늘의 뜻을 감동시켜 돌리는 데 귀착시키고, 하늘의 뜻을 감동시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원통함을 밝게 씻겨주는 데 귀착시키니 전하를 위하여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들은 또 적의 침략을 【아마도 빠진 글자가 있는 듯하다.】 인심이 흠어졌기 때문이라고 여겨 반드시 군대의 사이에 직접 거동하시기를 청하는 것이니 어찌 성상을 위험한 곳에 이르시게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친히 거동하시어 군사를 어루만지지 않으시면 민심을 고무할 수 없을 것이고, 적의 흉악한 병기가 다시 일어나 개미집이 강물에 터진 듯하면 우리나라의 형세도 다시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니, 신들이 적의 칼날에 죽는 것은 진실로 아까울 것이 없으나 전하께서 어디로 돌아가시며, 종묘사직이 어디에 의지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때문에 신들은 적을 토벌하는 요체가 인심을 굳게 결속시키는 것에 귀결되고, 인심을 굳게 결속시키기 위하여 임금의 수레가 친히 거동하기를 바라기에 전하를 위하여 거듭 말씀드립니다. 삼가 전하께서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들은 모두 초야의 미친 서생으로 감히 만 번 죽기를 무릅쓰고 구중궁궐에 우러러 호소하는 것은 진실로 국가 흥망의 기틀에 관계되기 따름입니다. 삼가 성상을 사모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을 이기지 못하여 문득 망녕되고 참람됨을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바를 토로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 특별히 밝게 살피시어 조금이라도 받아들이신다면 신들에게 다행일 뿐만 아니라 또한 종묘사직의 복이기도 합니다. 신들은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고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金 庵 습 유》

錦 巖 拾 遺

《錦城三稿》

기해봉사

【선조 32년(1599) 8월 2일, 전 사포서 별좌에서 산거(散居)해 있을 때.】

己亥封事【宣祖三十二年八月初二日, 以前別坐散居時.】

삼가 아뢰입니다. 옛날 제왕은 어려움을 구제하고 막힌 것을 제거하는³³⁹⁾ 때를 당하여 하늘의 뜻이 이미 돌아왔다고 여기지 않고 천명을 받들어 따르는³⁴⁰⁾ 정성을 더욱 생각하였으며, 인심이 이미 안정되었다고 여기지 않고 위로하며 기뻐하는 도리를 더욱 지극히 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품은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깨우쳐 이끌어준 뒤에야 아래에서 막히는 마음이 없고,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다면 반드시 씻어준 뒤에야 위에서 슬퍼하는 환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이요,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사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막힌 운수가 다시 형통하여 흉악한 적이 물러가 변방의 경계가 조금 느슨해졌고, 세자³⁴¹⁾가 탄생하는 상서를 맞아 경사가 종묘사직에 이어졌으니, 오늘날 하늘의 뜻이 보살펴 도와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신(君臣)을 거짓으로 속여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³⁴²⁾ 통쾌하게 분별하니 신민(臣民)은 서로 기뻐하고, 전쟁의 아픔에서 막 일어나 사졸들이 편히 쉬게 되니³⁴³⁾ 오늘날의 인심이 대체로 안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39) 막힌 것을 제거하는 : 원문의 ‘경비(傾否)’는 비색(否塞)한 운수를 없앴다는 말이다. 《주역》〈비괘(否卦) 상구(上九)〉에 “상구는 비색함을 제거하는 것이니 먼저는 비색하고 뒤에는 기쁘다.[上九, 傾否, 先否後喜.]”라고 하였다.

340) 천명을 받들어 따르는 : 《서경》〈중궤지고(仲虺之誥)〉에 “유하가 덕에 어두워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거늘 하늘이 마침내 왕에게 용맹과 지혜를 내려주시어 만방을 표정하여 우왕(禹王)이 옛날 행하셨던 것을 잊게 하시니, 이는 그 떳떳함을 따라서 천명을 받들어 순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有夏昏德, 民墜塗炭, 天乃錫王勇智, 表正萬邦, 纘禹舊服, 茲率厥典, 奉若天命.]”라고 한 표현에서 따온 것이다.

341) 세자 : 원문의 ‘춘위(春闈)’는 봄에 시행하는 과거 시험장을 말하나, 여기에서는 ‘춘궁(春宮)’과 같은 말로 세자를 가리킨다.

342) 군신(君臣)을 …… 왜곡하는 것을 : 원문의 ‘방무(邦誣)’는 군신(君臣)을 거짓으로 속여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가리킨다. 《주례》〈추관(秋官) 사사(士師)〉에 죄와 사건을 판결한 여덟 가지 성례(成例)인 팔성(八成) 가운데 하나이다.

343) 편히 쉬게 되니 : 원문의 ‘식견(息肩)’은 짐을 내려놓고 어깨를 쉰다는 뜻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2년에, “정나라 성공이 병을 앓았을 때 자사(子駟)가 진(晉)나라에 식견(息肩)하

하늘의 뜻이 이미 돌아오고 인심이 이미 안정되었는데 전하께서 정사를 근심하고 부지런히 하는 마음이 하나같이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는 마음에서 나와 백성의 괴로움을 돌보고 날마다 조세를 덜어 감면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며, 하늘의 재앙을 두려워하여 수신(修身)하고 반성하는 도리를 더욱 부지런히 하시니, 이것은 바로 성탕(成湯)이 백성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성대한 마음³⁴⁴⁾인 것입니다. 마땅히 한 사람의 백성과 하나의 사물도 은택을 입지 않음이 없으나 홀로 역적의 변란에 갑자기 걸려 황천에서 원통함을 품고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억울함을 깨끗이 씻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하늘과 사람이 감응한 바를 성상께서 마땅히 측은하게 생각하실 바가 아니겠습니까?

아! 지난해 국운이 불행하여 역적의 변란이 사대부의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여립은 당초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겁박하는 도적이 아니어서 왕망(王莽)³⁴⁵⁾처럼 세상을 속이는 교묘한 재주를 끼고, 육당(陸棠)³⁴⁶⁾처럼 착한 척하는 명성을 가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온 나라의 선비들 중에 그 이름을 알거나 그 얼굴을 보지 못한 자가 없었는데, 겹쳐하거나 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속임을 당하였으니, 그 극악무도한 형태가 이 지경에 이를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께미에 가득 찬 죄가 갑자기 천만 뜻밖에 일어나니, 당시 속았던 선비들은 마음으로 놀라고 뺨속까지 통분하지 않는 자가 없었고 자신들이 밝지 못했던 죄를 후회하였습니다. 성상께서 밝게

기를 청하였다.[鄭成公疾, 子駟請息肩於晉.] 하였다.

344) 성탕(成湯)이 ……마음 : 은(殷)나라 왕 성탕(成湯)의 천품은 지극히 어질어 금수(禽獸)까지도 살리려 하였으며, 7년의 큰 가뭄이 있을 때에는 자신이 희생(犧牲)이 되어, 상림(桑林) 등에 나가 비를 빌어서 큰 은택을 백성들에게 입히기도 하였다. 《십팔사략(十八史略)》은기(殷紀).

345) 왕망(王莽) : 한(漢)나라 효원황후(孝元皇后)의 친정 조카이다. 자는 거군(巨君)이다. 대사마(大司馬)로 선정을 베풀어 인심을 얻었다. 평제(平帝) 때에 안한공(安漢公)이라 불렀고 지위가 더욱 귀해지자, 평제를 시해하고 유자(孺子) 영(嬰)을 세워 섭정(攝政)하고 가황제(假皇帝)라 불렀다. 마침내 한실(漢室)을 찬탈(篡奪)하고 국호(國號)를 신(新)이라 하였다. 뒤에 법령이 까다로워 민심을 잃고 난리가 사방에서 일어났다. 광무제(光武帝)에게 패하여 죽었다. 《漢書 卷99 王莽傳》

346) 육당(陸棠) : 구산(龜山) 양시(楊時)의 사위로, 그가 구산을 찾아올 적마다 용모가 장중하고 언제나 단정하게 앉아 있어 사람들이 경탄하였다. 이에 구산이 사위로 삼았는데 후에 난리를 일으킨 범여위(范汝爲)의 무리가 되었다가 범여위가 패하자 극약을 먹고 자결하였다. 《朱子書節要講錄刊補 卷3 答楊子直》

살피고³⁴⁷⁾ 널리 비추시어 거울과 저울대처럼 스스로 바르게 하고, 일찍이 옥과 돌이 함께 불타는 것을 아프게 여기시어 요수(要囚)³⁴⁸⁾를 크게 결단할 때 더욱 간절하고 신중히 분별할 것을 생각하셨으니 어찌 청명한 아래에서 원통한 마음을 품은 자가 있었겠습니까?

다만 간신 정철(鄭澈)은 사납고 고약한 성질로서 잔인하고 독한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희학(戲謔)과 방탕으로 가식을 떨지만 속으로는 시기심이 가득하니, 맑은 의논에 용납되지 않아 항상 불평하는 마음을 품고 몰래 그 틈을 엿보아 반드시 보복하고자 하더니 오늘에야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겨 몸소 심문하는 관원이 되어 일망타진할 계책을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조금이라도 흘겨보는 눈초리가 있는 자는 은밀하게 경박한 무리를 사주하였으니, 소장(疏章)에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대론(臺論)³⁴⁹⁾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만약 하늘같은 성상이 아니었다면 당대의 충성스럽고 현명한 사람 중에 반드시 남은 자가 없었을 것이니 당시의 일이 어찌 한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원통함을 안고 죽음에 나아간 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신들이 거주한 도내(道內)에서 가장 원통한 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개청은 진실한 실천으로 덕이 완성되었고 행동은 존엄하였으며 한결같이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학문을 따라 사도(斯道)를 밝히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습니다. 일찍이 호남 일부 선비들의 습관이 간신 정철에게 물들어 오로지 교만하고 포학하기에만 힘쓰고 의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걱정이었으니, 어떤 이는 스스로 절의를 표방하였으나 명교(名敎)³⁵⁰⁾에는 전혀 몽매하였고, 어떤 이는 청담(淸談)을 흠모하고 본받는다고 하나 실은 이록(利祿)을 탐하였습니다. 그 귀결점을 돌아보면 모두 세교(世敎)에 해로움이 있기 때문에 정개청은 매번 이를 일세(一世)를 그르치는 폐해라

347) 밝게 살피고 : 원문의 ‘이명(離明)’은 원래 밝은 해를 가리키나 여기서는 임금에 위에서 밝게 비추는 것을 말한다. 《주역》〈설괘전(說卦傳)〉에 “이(離)는 불이 되고 해가 된다.[離爲火, 爲日.]”라고 하였다.

348) 요수(要囚) : 요수는 죄인을 심문하여 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49) 대론(臺論)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공론(公論)을 말한다.

350) 명교(名敎) : 명분(名分)을 중시하는 예교(禮敎)를 이르는 말로 흔히 유교(儒敎)를 지칭한다.

여거 후학의 폐단이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급기야 《주자어류(朱子語類)》³⁵¹⁾를 읽다가 혹자가 이천(伊川)의 말을 인용하며 “진송(晉宋)의 청담(淸談)이 동한(東漢)의 절의(節義)로 인하여 한번 물결이 쳐서 이에 이르렀다.”고 하자, 주자(朱子)가 “동한에서 절의를 숭상할 당시에도 청담과 같은 의사가 본래 그 속에 들어 있었다. 대개 당시 절의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온 세상을 거만하게 흘겨보고 조정을 더럽게 여기는 뜻이 있었는데, 이러한 의사에서 자연히 천하를 경시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 얼마 있다가 청담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³⁵²⁾ 또 “절의 있는 선비는 진실로 마땅히 말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니, 재앙에 이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하였습니다.³⁵³⁾ 또 “후한(後漢)의 명절(名節)이 말년에 이르러서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남은 천하게 여기는 폐단이 있었다. 이것이 그치지 않고 쌓이면 그 폐단이 반드시 허탄(虛誕)함에 이르러 노장(老莊)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³⁵⁴⁾ 또 “진송(晉宋)의 인물이 비록 청고(淸高)한 것을 숭상한다고 말하였으나 개개인마다 관직을 탐내었으므로 이쪽에서는 청담을 말하지만 저쪽에서는 일면 권세를 부리며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³⁵⁵⁾ 정개청은 이 주자의 논설로 인하여 진·송 시대 청담의 폐해를 밝혀 호남의 선비 습관에 대한 폐단을 구제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간적(奸賊)은 평생 심술이 군자의 올바른 견해에 드러남을 미워하여 은밀히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으되 엿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역적의 변란이 일어나자 간적은 본도(本道)에서 행동에 검속(檢束)이 없고

351) 《주자어류(朱子語類)》: 주자와 제자들의 문답(問答)을 기록하여 모은 책이다. 송(宋)나라 경정(景定) 4년(1263, 이종 4)에 여정덕(黎靖德)이 분류, 편집하여 함순(咸淳) 6년(1270, 도종 6)에 《주자어류대전(朱子語類大全)》 140권을 간행하였다.

352) 혹자가 …… 하였습니다: 《주자어류》 권34 〈논어(論語)16 술이편(述而篇)〉 자위안연왈장(子謂顏淵曰章)에 나온다.

353) 절의의 …… 하였습니다: 《주자어류》 권135 〈역대(歷代)2〉 문기원조(問器遠條)에 나온다.

354) 후한의 …… 하였습니다: 《주자어류》 권129 〈본조(本朝)3 자국초지희령인물(自國初至熙寧人物)〉에 나오는데, 대본은 원문의 일부 내용을 생략하고 인용하였다.

355) 비록 …… 하였습니다: 《주자어류》 권34 〈논어16 술이편〉 자위안연왈장(子謂顏淵曰章)에 나온다.

망령된 홍천경(洪千璟),³⁵⁶⁾ 임회(林檜)³⁵⁷⁾와 같은 무리들을 사주하여 이에 정개청이 저술한 논설에 임의로 ‘배(排)’자를 더하여 배절의(排節義)³⁵⁸⁾라 지목하고, 유생들의 공론으로 빙자하여 상소를 올려 모함하니, 일시에 이름난 선비들이 모두 그 상소에 들어가 거의 한 그물에 모조리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성상이 실상을 밝게 살핌을 힘입어 상소의 앞부분에 이름을 올린 10여 명을 잡아와서 장차 무함한 죄를 다스리려고 하였으나, 정철이 대간(臺諫)을 사주하여 이를 막고 도리어 정개청이 저술한 절의설에 대해 엄한 형벌을 내릴 것을 청하여 마침내 먼 변방에서 죽게 하였으니, 천지 사이의 원통함 중 무엇이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아! 하늘은 푸르지만 말이 없고 죽은 사람 또한 구천에서 스스로 밝히지 못하니, 신들이 청컨대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그가 지은 글의 뜻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 글의 첫머리에 “동한의 절의를 공명(功名)과 비교한다면 그 고상함이 오히려 완고한 자를 격동시키고 나약한 자를 일으킬 수 있으며, 진송의 청담을 이익만 도모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그 기개가 또한 세상의 마음을 바로잡고 외물을 진정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그는 참된 절의를 비방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말류의 폐단을 구제하려 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르기를 “그 처음을 살펴보면 모두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356) 홍천경(洪天璟) : 1553~1632.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군옥(羣玉), 호는 반환·반항당(盤恒堂)이다. 기대승(奇大升)·이이(李珥)·고경명(高敬命)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 때 김천일(金千鎰)을 따라 군량의 수집과 수송을 담당하였고, 1597년 정유재란 때에는 도원수 권율(權慄) 휘하에서 의병모집의 격문을 작성하였다. 1609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장원하였다. 월정서원(月井書院)에 제향되었다.

357) 임회(林檜) : 1562~1624. 본관은 평택(平澤), 자는 공직(公直), 호는 관해(觀海)이다. 정철(鄭澈)의 문인이자 사위이다. 1611년 50세에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이 되었으나 대북파 정인홍(鄭仁弘)·이이첨(李爾瞻)에게 모함을 당하여 곧 사직하였고, 1613년에는 양산에 유배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대북파가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하자 예조 정랑에 복직되었으며, 1624년 이괄(李适)의 난 때 경안역(慶安驛)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358) 배절의(排節義) : 선조(宣祖) 때 정여립(鄭汝立)의 옥사로 화(禍)를 입은 정개청(鄭介淸)이 지은 <동한절의진송청담설(東漢節義晉宋淸談說)>을 가리킨다. 그 내용이 절의를 배척한 것이라고 하여서 정철(鄭澈)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아 화를 입었다. 정개청은 본래 서인(西人) 박순(朴淳)의 문인이었으나, 박순이 영의정에서 파직되자, 동인(東人) 이발(李潑)·정여립과 교분을 맺음으로써 스승을 배반하였다는 비난을 받고는 <절의청담변(節義淸談辨)>을 지어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니, 정철 등 서인으로부터 ‘배절의론’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학문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니, 절의라는 것은 바로 명덕(明德) 가운데 한 가지 일ियो, 명덕이라는 것은 바로 절의의 근본인 것입니다. 만일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명덕(明德)을 알게 하면 환란에 임하거나 생사의 기로에 처할 때에 의리가 있음을 알고 이욕이 있음을 알지 못하며, 임금이 있음을 알고 자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며, 절의에 대해 기약하지 않아도 높은 절의가 곧바로 해와 달과 함께 다투어 빛날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륜(彝倫, 사람으로서 떳떳이 지켜야 할 도리) 밖에서 독선(獨善)하며, 자신을 단속하고 예방하는 절도를 스스로 방일(放逸)한 것은 말세에 숭상하는 일ियो, 성현의 중화(中和)하는 도(道)가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중화(中和)의 두 글자는 만 가지 선(善)이 구비되어 오직 요(堯), 순(舜), 공자(孔子), 맹자(孟子)만이 해당할 것입니다. 만일 자식이 자식 된 도리를 다하고, 신하가 신하된 도리를 다하여 삼강오륜의 도리에 이르기까지 각각 그 마땅함을 얻지 아니함이 없으면 곳곳마다 중도(中道)를 얻어 중화(中和)라고 말할 수 있으니, 이 어찌 절의를 버리고 말한 것이겠습니까? 이 두어 조목을 가지고 그 뜻을 궁구해 보면 그가 저술한 논설은 정자 주자가 남긴 의론을 조술(祖述)³⁵⁹⁾하여 절의의 근본을 복돋고 후세에 허황되고 실상이 없는 폐단을 구제하려 한 것이니 뜻이 지극히 깊고 간절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간접이 중상모략하는 자료가 되어 사방에 방문(榜文)을 게시하여 온 세상의 이목을 어지럽히기게 이르렀으니, 어떻게 통분함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아! 고금 천하에 비록 사람의 화가 많이 있었으나, 어찌 오늘날처럼 참혹함이 있었겠습니까? 정개청은 머리가 세도록 경서(經書)를 연구하면서 산림에 자취를 감춰 본래부터 역적과는 서로 접촉하지 않다가 계미(癸未 1583)년에 사서 교정 낭청(四書校正郎廳)으로 공무를 보는 좌석에서 함께 나란히 하고서야 비로소 그 얼굴을 알았으나 갑자기 아버이 병환으로 먼저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그 교분이 매우 얹았으며, 마침 동료였기 때문에 편지로 서로 안부를 물은 것이 겨우 두 차례였을 뿐 이것은 마음을 비우고

359) 조술(祖述) : ‘조(祖)’는 조종(祖宗)처럼 높인다는 뜻ियो, ‘술(述)’은 이어서 따른다는 뜻이니 ‘조술한다’는 말은 높이어 따른다는 말이다. 《중용장구(中庸章句)》 제30장에 “공자는 멀리 요 임금과 순 임금을 조종(祖宗)으로 받들어 계승하고, 가까이로는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법도를 드러내 밝혔다.[仲尼, 祖述堯舜, 憲章文武.]”라는 하였다

있다가 속임을 당한 소치에 불과하니 한때 사대부가 살피지 못한 공죄(公罪)입니다.

그 아우 정대청(鄭大清) 또한 일찍이 학문에 종사하여 행실이 효우(孝友)에 독실하였는데, 형이 무고하게 죽은 것을 애통하고 신원(伸冤)될 것을 바라며 상복을 입고 슬퍼하다가 파리하여 장차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이 지금 10년의 오랜 세월에 이르렀으니, 대개 보고 들은 자라면 누구인들 오열하며 상심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15~6세 때로부터 일찍이 외종숙(外從叔) 유희춘(柳希春)³⁶⁰에게 수학하였는데, 유희춘은 정개청을 함양한 공력이 깊어 마땅히 후배들의 사표(師表)가 될 것이라 여겨 신들에게 빨리 가서 따르도록 권하였으니, 신들이 마침내 자신의 몸을 맡겨 스승³⁶¹으로 섬기고 따른 지 거의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외우고 강론하는 것은 《소학(小學)》, 《논어(論語)》, 《맹자(孟子)》, 육경(六經)의 책에 지나지 않았고, 그가 강론하며 밝혔던 것도 다만 인(仁)·의(義)·예(禮)·악(樂)·천리(天理)·인욕(人慾)을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결점을 살펴보니 신하된 자는 충성하고 자식된 자는 효도하라는 것 아님이 없거늘, 어찌 감히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이미 죽은 스승을 두둔하여 성상을 기망하고자 하였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스승과 제자의 의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떳떳한 본성에 근거하여 차마 존망(存亡) 때문에 그 마음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망령된 생각에 사유(師儒)가 역당(逆黨)에 연좌됨이 진실로 사문(斯文)의 성쇠와 치도(治道)의 고하(高下)에 관계된다고 여겼으므로 지난 을미년(1595) 봄 신들이 감히 발을 싸매고 천 리 길을 와서 구중궁궐에 원통함을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성상께서 소원하고 미천한 신하의 말을 굽어 살피어 채택하여 주시고, 이에 지당한 의론이라고 하유(下諭)하시니, 정녕

360) 유희춘(柳希春) : 1513~1577.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선산(善山)이다. 자는 인중(仁仲), 호는 미암(眉巖)이며, 시호는 문절(文節)이다. 외할아버지 최보(崔溥)의 학통을 계승해 이항(李恒), 김인후(金麟厚) 등과 함께 호남 지방의 학풍 조성에 기여하였다. 저서에 《미암일기(眉巖日記)》, 《역대요록(歷代要錄)》, 《주자어류훈석(朱子語類訓釋)》, 《시서석의(詩書釋義)》 등이 있다.

361) 스승 : 원문의 '함장(函丈)'은 선생(先生)이나 장자(長者)가 앉는 자리를 뜻하는 말로, 함연(函筵)이라고도 한다. 제자는 스승의 자리와 한 발[一丈]의 거리를 둔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혈기 있는 모든 이들 중에 흥기하고 감격하여 울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당시에 대신(大臣)의 회계(回啓)³⁶²⁾하는 말이 애매모호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성상께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뜻이 조정과 재야에 명백히 선포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조정의 의론과 대각(臺閣)의 논의가 지성으로부터 나와 기필코 국시(國是)³⁶³⁾를 정하고자 하였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으니, 인심이 더욱 막히고 사론(士論)이 더욱 격절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 10년이면 반드시 회복하는 것은 천도(天道)이며, 민멸되었다가도 다시 퍼지는 것은 공론입니다. 지난날 다행히 하늘이 성상의 마음을 열어 민심을 통촉하시어 당시에 모함 받아 귀양 갔던 자들이 모두 용서받고,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원통함을 풀어 높은 벼슬의 포증(褒贈)이 이미 최영경에게 더하였으나, 유독 정개청만은 아직 은전이 늦어지고 있으니, 어찌 오구(梧丘)³⁶⁴⁾가 구천에서 눈을 감지 못할 뿐이겠습니까? 민심이 꼭 막히고 선비의 기상이 사라져 천하의 어둠이 이에 이르러서 유감이 없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신들이 지난 사적을 살펴보니 동탁(董卓)의 화³⁶⁵⁾가 바야흐로 커질 때 식자들은 금고(禁錮)의 형벌을 풀어줄 것을 급선무로 삼았고, 백안(伯顔)의 난이 비로소 성대했을 때 왕응린(王應麟)은 제왕(濟王)의 후손 세울 것을 청하였으니,³⁶⁶⁾ 한두 명의 군자가 원통함을 머금은 것이 적(敵)과

362) 회계(回啓) :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신하들이 심의하여 대답하던 일을 말한다.

363) 국시(國是) : 국민 전체가 옳다고 인정한 주의(主義)와 시정(施政)의 근본 방침으로 다시 말해, 확정되어 있는 한 나라의 방침을 말한다.

364) 오구(梧丘) : 죄없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가리킨다. 제 영공(齊靈公)이 사냥갔을 때 무죄한 다섯 장부(丈夫)를 죽여 그들의 머리를 잘라 묻었는데, 그 뒤에 경공(景公)이 오구(梧丘)에서 사냥할 때 꿈에 다섯 장부가 나타나서 무죄함을 호소했다. 경공은 그곳을 파서 다섯 해골을 찾아내어 장사를 잘 지내주었다 한다. 《안자(晏子)》 잡하(雜下).

365) 동탁(董卓)의 화 : 후한(後漢)의 장군으로, 낙양(洛陽)에 입성하여 소제(少帝)를 폐하고 헌제(獻帝)를 옹립하여 정권을 전횡하였다. 원소(袁紹)가 기병하여 동탁을 토벌하려 나서자, 낙양의 궁묘(宮廟)와 100리에 걸친 지역을 불태우고 장안(長安)으로 천도하였으며 스스로 태사(太師)가 된 후에는 형포가 더욱 심하였는데, 이후 왕윤(王允)과 여포(呂布)에게 살해되었다. 《後漢書 卷72 董卓列傳》

366) 백안(伯顔)의 …… 청하였으니 : 송(宋) 나라 영종(寧宗)이 아들이 없어서 종실 중에서 제왕

보루에서 대치하는 것보다 급하지 않은 것 같으나, 옛 사람들이 반드시 이에 급급한 까닭은 어찌 한 사람의 마음이 곧 천만인의 마음 같아 보이지만 인심의 향배와 천명(天命)의 길흉에 진실로 크게 두려워할 만한 것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 더불어 유신(維新)하는 날이 진실로 적과 보루에서 대치하는 때와 다르며, 원한을 머금고 죽은 혼백이 당고(黨錮)³⁶⁷와 제왕(濟王)³⁶⁸의 원통함보다 더 심함이 있으니, 오늘날의 급선무는 그 원통함을 씻어 인심을 위로하고, 인심을 위로하여 천심(天心)을 흠향하는데 있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간절하게 피눈물을 흘리기를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전하를 위함이고, 억울한 자를 위함이 아니라 사직을 위해서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특히 초야의 말을 받아들이시고, 비와 이슬³⁶⁹ 같은 은택을 널리 펼치시어 오랫동안 막혔던 인심과 땅속에 묻혀 썩은 백골로 하여금 푸른 하늘의 대낮처럼 시원함을 보게 하신다면 진실로 사도(斯道)를 붙들고 국가의 명맥을 오래케 하는 하나의 큰 기틀이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는 유념하여 받아들이소서. 신들은 지극히 황공하여 떨며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횡(濟王玠)을 양자로 데려왔는데, 그때의 권력 있는 신하 사미원(史彌遠)의 참소로 죄없이 죽고, 다시 다른 종실에서 양자하여 들어서 후에 이종(理宗)이 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북쪽에서 몽고의 대군이 침입하여 내려오는데 백안(伯顔)은 몽고의 대장이었다. 그의 침략으로 송 나라의 국운은 풍전등화 같았으나, 그때 왕응린이라는 사람이 제왕(濟王)이 무죄하게 죽은 것을 말하고 그를 위하여 입후(立后)할 것을 청하였다.

367) 당고(黨錮) : 후한(後漢)의 환제(桓帝) 때 진번(陳蕃)·이응(李膺) 등 우국지사가 환관(宦官)의 발호를 미워하여 대학생(大學生)들을 거느리고 환관을 공격하니, 환관들이 조정을 반대하는 당인(黨人)이라고 도리어 몰아 이들 자식들을 옥에 가두고 그 사진(仕進)의 길을 막았으며, 영제(靈帝) 때 두무(竇武)·진번(陳蕃) 등이 환관 등을 죽이려 하다가 일이 누설되어 그와 뜻을 같이하는 1백여 명과 함께 피살한 사건을 말한다.

368) 제왕(濟王) : 송나라 조형(趙昞)으로, 기왕(沂王) 조병(趙柄)의 후사가 되어 황자(皇子)에 책립되었으나, 사미원(史彌遠)의 농간으로 이종(理宗)이 즉위한 뒤 제왕에 봉해지고 펄박을 당하여 죽었다. 《宋史 卷255 鎮王玠列傳》

369) 비와 이슬 : 원문의 ‘우로(雨露)’는 곧 촉촉이 내려 적서 주는 비와 이슬을 말한 것으로, 전하여 임금의 은택(恩澤)에 비유한다. 당나라 고적(高適)의 <협중으로 가는 이소부(王少府)와 장사로 가는 왕소부를 보내다[送李少府貶峽中王少府貶長沙]> 시에 “지금은 태평성대 은택이 많아 잠시 이별하는 것이니 주저하지 말게.[聖代即今多雨露, 暫時分手莫躊躇.]”라고 하였다.

비답(批答)에서 대략 “처음부터 역적으로 지목하여 국문하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고, 또 “대개 옳고 그름은 마땅히 조정의 처분에서 나올 것이니, 너희들의 뜻이 비록 근실(勤實)하지만 매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

【성명은 전하지 않는다. 1592년 5월 일, 부령³⁷⁰ 유배지에 있을 때.】

與人書【姓名不傳. 壬辰五月日, 在富寧謫所時.】

지난번 한 통의 편지는 진실로 그리워하던 차에 받았습니다. 봉함을 뜯고 반복하여 읽어보니³⁷¹ 마치 많은 가르침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근래 무더운 여름 날씨가 되었으니 정신을 굳게 하며 서로 의지하고 있는지요? 비록 한창 무더울 때를 마주하여 쉽게 그대 계시는 곳으로 의리상 달려갈 수 없으니 단지 그리움만 더할 뿐입니다. 아름다운 봄날에 객지에서 시름으로 한결같이 초조하고 애가 타니 정신이 어지럽고 산란합니다. 지난날 학문을 헤아려 보니 아직 평생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조금 얻은 것으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떠하겠습니까? 남쪽 지방은 왜적의 변란으로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니 부모와 형제가 어떻게 몸을 보전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음식을 먹어도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고 잠자리에 나아가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당당했던 나라로 다시 안정되어야 할 텐데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 차라리 죽어 인간 세상의 소식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귀댁의 하인이 돌아와서 도성의 소식들을 어떻게 말하였는지요? 바닷가에서 가졌던 아름다운 만남을 다시 마련할 수는 없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70) 부령(富寧) : 함경북도의 부령군 지역이다. 본래 본래 경성군(鏡城郡)의 석막성(石幕城) 지역이었는데, 1449년에 부거현(富居縣)과 회령부(會寧府)의 땅을 떼어 붙여 부령 도호부(富寧都護府)로 삼았다.

371) 반복하여 읽으니 : 원문의 ‘구복(圭復)’은 《논어》〈선진(先進)〉에 “남용이 백규의 글을 세 번씩 되풀이하여 읽거늘, 공자가 형의 딸을 그의 아내로 삼아 주었다.[南容三復白圭, 孔子以其兄之子妻之.]”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상대방의 시문을 정성스럽게 읽는 것을 말한다.

세 아들 찬소, 계소, 위소에게 경계하다

戒三子纘素繼素緯素

장남은 고지식하여 융통성이 없고, 차남은 허술하여 실속이 없으며, 막내는 협애(狹隘)한데, 모두 식견(識見)이 없다. 그리고 또한 각자의 기질에 병통이 있으니 만약 학문의 공과 변화의 힘을 이루는 데 급급하지 않으면 단지 옛 기량에만 의지한 채 향상되는 점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이가 서른에 가까운데 아직 뜻을 세우지 못하고 답습에만 골몰하여 시골 사람과 똑같은 모양이니 부모와 형제의 책망이 이른 것이다. 옛 사람이 말하지 않았느냐? “말이 충신(忠信)하지 못함이 하등인이고, 행실이 독후하고 공경하지 않음이 하등인이다.”³⁷²⁾라고 하등의 말을 듣고 하등의 일을 하니 너희들은 장차 하등의 인물이 되는 데 그치려고 하느냐?

아! 이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질이 아름답고 또 부지런히 교육하였으나 아직 작은 효과도 보지 못하고 세월만 흘러가 장차 어찌할까? 아버이를 섬기는 절차며 몸을 행하는 방법이며 말하고 행동하는 사이에 속세의 하등인과 똑같다면 풍모와 절조가 늠름하고 준엄하며 학문이 높고 밝음은 더욱 바랄 수 없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학문에 힘써 사우(師友)를 따르고 도의(義議)를 강론하였으나 아직도 진실한 공부를 하지 못하였고, 때때로 또 불우(不遇)하여 궁려(窮廬)의 탄식³⁷³⁾만 하니, 너희들은 늙은 아버를 경계로 삼아 후회가 없어야 한다. 너희들은 몸을 세우고 뜻을 독실히 하여 존심양성(存心養性)³⁷⁴⁾을 몸소 알고 극기복례(克己復禮)를 실천하는 것을 배운다면

372) 말이 …… 하등인이다. : 《소학》〈가언(嘉言)〉에 “말이 충신하지 못함이 하등인이고, 행실이 독후하고 공경하지 않음이 하등인이고, 잘못을 저지르고서 후회할 줄 모르는 것이 하등인이고, 뉘우치되고 칠 줄을 모르는 것이 하등인이다. 하등의 말을 듣고 하등의 일을 행하면 비유하건대 마치 방 가운데에 앉아서 사면이 모두 담벽인 것과 같으니, 비록 열어 밝게 하고자 하나 될 수 없을 것이다.[言不忠信, 下等人也, 行不篤敬, 下等人也, 過而不知悔, 下等人也, 悔而不知改, 下等人也. 聞下等之語, 爲下等之事, 譬如坐於房舍之中, 四面皆牆壁也, 雖欲開明, 不可得矣.]”라고 보인다.

373) 궁려(窮廬)의 탄식 : 허송세월을 하는 데 대한 탄식을 말한다. 궁려는 가난한 사람이 사는 집이다. 제갈량(諸葛亮)의 〈계자서(誡子書)〉에, “나이는 시절과 더불어 치달아 가고 뜻은 날짜와 더불어 떠나가 마침내 쇠락하니 그때 가서 궁려에서 비탄에 잠겨 본들 장차 무슨 수로 되돌릴 수 있겠는가.[年與時馳 意與歲去 遂成枯落 將復何及也]”라고 하였다.

374) 존심양성(存心養性) : 원문의 ‘존심(存心)’은 존심양성의 준말로 본래의 순수한 마음을 보존하고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오히려 향상되고 진보되는 점이 있을 것이다. 분수 밖에서 몸을 영화롭게 하고 집에 거처하면서 편안히 있는 것을 군자는 부끄럽게 여기니,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경계하고 경계하며 반드시 겸손하고 공경하면서 스스로 수양하고 맑은 절조로 스스로 힘써 《소학(小學)》을 읽고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배워 몸을 검속(檢束)하는 방도로 삼아라. 사서(四書)를 말미암아 육경(六經)에 통달하는 것을 학문하는 방법으로 삼고, 여러 서책을 널리 통섭하여 이치에 밝고 의리를 정밀히 하면 어찌 옛사람에게 미치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이 만약 우둔하고 완악하여 가르칠 수 없다면 그만이니 꾸짖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자질은 가르칠만한 훌륭한 점이 있는 것 같고, 학문은 조금 문리에 통한 점이 있는 것 같으니, 지금 만약 뜻을 세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오히려 기대할 만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뜻을 세우지 않으며 배움에 독실하지도 않아 이와 같이 끝나버릴 뿐이라면 결국 소인으로 귀착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은 분명하다. 삼재(三才)³⁷⁵에 참여한 이 몸이 가없지 않느냐? 원컨대 너희들은 마음을 고치고 반성하여 늙은 아버지의 보잘 것 없는 지극한 바람에 부응하라.

돌아보건대 너희들은 가없게도 일찍 어미³⁷⁶를 여의어 어여빠 여겨 가르치지 않았더니 엄숙하게 공경하는 마음이 매우 부족하였다. 그래서 예(禮)가 없고 의(義)가 없어 도리어 이치에 어긋난 일을 하니, 이것은 자식의 죄가 아니라 실로 아버지의 허물이다. 하물며 아버지가 비록 자애롭지 않을지라도 자식은 효도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천하에 옳지 않은 부모가

본성을 배양한다는 뜻인데 성리학에 있어 심성 수양론을 대표하는 말이다. 《맹자집주》〈진심장구 상(盡心章句上)〉에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그 성(性)을 아니, 그 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그 마음을 보존하여 그 성을 기르는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라고 하였다.

375) 삼재(三才) : 천(天)·지(地)·인(人)을 가리키는 말로, 《주역》〈설괘전(說卦傳)〉에 “하늘의 도(道)를 세움은 음(陰)과 양(陽)이요, 땅의 도를 세움은 유(柔)와 강(剛)이요, 사람의 도를 세움은 인(仁)과 의(義)이니, 삼재를 겸하여 두 번 하였기 때문에 역(易)이 여섯 번 그어서 괘(卦)가 이루어진다. [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兼三才而兩之, 故易六畫而成卦.]”라고 하였다.

376) 어미 : 원문의 ‘천지(天只)’는 어머니의 별칭이다. 《시경》〈백주(柏舟)〉에 “하늘같은 어머니님이 이토록 사람 마음 몰라주시는가. [母也天只, 不諫人只.]”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없으니³⁷⁷⁾,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는 중대한 것이 효의 의리이다. 하늘의 법과 땅의 의리,³⁷⁸⁾ 삼강오상(三綱五常),³⁷⁹⁾ 윤리와 기강의 중차대한 것이며, 온갖 행실의 근원이요 인도(人道)의 떳떳함이니, 배우려는 사람은 이를 배울 따름이고, 행하는 사람은 이를 행할 뿐이다. 효도하는 집안에서 충신을 찾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의 식견이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였으니 더욱 더 생각하고 힘써라. 내가 말한 바를 빈 말로 돌리지 않는다면 사람이 사람 되는 도리를 다할 것이요, 성인을 배우고 현인에 이를 것이다.

임인(壬寅 1602)년 11월 16일 노부 금암이 병석에서 썼으니 만력 30년이다.

377) 아버지가 …… 없으니 : 《동몽선습(童蒙先習)》〈부자유친(父子有親)〉 “천하에 옳지 않은 부모가 없으니 부모가 사랑하지 않으나 자식은 불효를 해서는 안 된다.[天下無不是底父母, 父雖不慈, 子可以不孝.]라는 말을 인용하였다.

378) 하늘의 …… 의리 : 원문의 ‘천경지의(天經地義)’는 천지간의 변경할 수 없는 당연한 도리를 이른다. 《춘추좌씨전》 소공(昭公) 25년 조에 “예는 하늘의 법칙이고 땅의 도리이고 사람들이 본받아 이행하는 것이다.[夫禮 天之經也 地之義也 民之行也]”라고 하였다. 《효경》〈삼재(三才)〉에 “효는 하늘의 법칙이고 땅의 도리이다.[夫孝 天之經也 地之義也]”라고 하였다.

379) 삼강오상(三綱五常) : 원문의 ‘강상(綱常)’은 유교 도덕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인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말한다. 삼강은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이고 오상은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이다.

또
又

너희들은 모두 약관(弱冠) 남짓의 나이인데 재주가 오히려 지금 사람들의 과거(科擧) 글에 미치지 못하니 어찌 과거에 급제하여 몸을 영화롭게 하고 쇠약한 우리 가문을 부지 하겠느냐? 단지 한 가지 기량으로는 천지 사이에서 한낱 용렬한 사람에 그칠 뿐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기질과 품성이 맑고 순수함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또한 바탕이 있어 배울 수 있으니, 만약 옛 사람의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뜻을 세워 안으로는 마음을 다스리며 밖으로는 용모를 단정하게 하여 반드시 ‘경근(敬勤)’ 두 글자로 시작하고 이를 따라서 올라가면 조존성찰(操存省察)³⁸⁰⁾하여 이윤(伊尹)이 뜻한 바에 뜻을 두고 안연(顔淵)이 배운 바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³⁸¹⁾ 힘쓰고 힘써 순서를 따르며 부지런히 글을 읽어 마음을 열고 이치를 밝히며, 공경히 존양(存養)하여 자기 사사로움을 제거하면 옛 사람의 문정(門庭)을 거의 엿볼 수 있으니, 어찌 스스로 향리 속의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게 될까 걱정하느냐?

아! 사람이 사람이 된 까닭은 보잘 것 없는 몸으로 천지에 참여하여 나란히 서 있으니 그 책임이 지극히 중대하다. 그러나 그 뜻을 세우지 못하고 답습에만 골몰하여 쉽게 자포자기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면 어찌 애통하고 애석한 일이 아니겠느냐? 나 또한 18, 19세부터 개연(慨然)히 도를 구하려는 뜻이 있어 집안사람들의 생산 작업은 일삼지 않고 사우(師友)의 뒤를 따라 몸을 맡겨 종사하였다. 뜻을 독실히 하였던 처음에는 성현을 배워 이를 수 있다고 여겼으니, 어찌 오늘날 용렬하게 무너짐이 너무 심하여 다시는 초심을 떨쳐 일으키지 못하리라 생각이나 했겠느냐? 마침내 평생을 시세(時勢)에

380) 조존성찰(操存省察) : 마음을 잡아 보존하고 성찰하는 공부를 말한다. 《맹자》〈고자 상(告子上)〉에 “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없어져 일정한 시간과 방향 없이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하였다.

381) 이윤(伊尹)이 …… 것이다 : 《근사록(近思錄)》 권2 〈위학류(爲學類)〉에 “이윤이 뜻을 두었던 것에 뜻을 두고 안연이 배웠던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여 이들을 능가하면 바로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이요, 제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비록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명성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志伊尹之所志, 學顔子之所學, 過則聖, 及則賢, 不及則亦不失於令名.]”라는 송유(宋儒) 주돈이(周敦頤)의 말이 나온다.

따르다가³⁸²⁾ 뜻을 세운 대본(大本)과 사우에게 얻은 것을 여기에 이르러 다 잃어버렸으니, 한밤중에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너희들에게 저절로 부끄러웠다.

이미 네 아버지는 배운 것이 없어 텅 빈 것 같다. 또 먹고 입는 생각으로 근심하나 먹고 입는 것은 지극히 미미하고 지엽적인 일이니, 못 얻었다고 해서 반드시 죽지는 않는다. 예로부터 젊은 나이의 학자가 어찌 차마 이 속에서 스스로 골몰하는가라는 분명한 훈계가 있었다. 옛날에 자공(子貢)은 넉넉함과 검소함의 사이에 마음을 두었으나 재물과 이익의 해가 심하여 안자(顔子)와 증자(曾子)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후학들이 살피 유념해야 할 곳이다. 바라건대 너희들이 외물의 유혹에 초연하여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뜻과 학문을 독실하게 하여 선대의 뜻과 공업을 잘 계승(繼述)한다면³⁸³⁾ 내가 비록 죽더라도 지하에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내 세 아들에게 바라건대 경계하고 경계하며 게을리 태만하지 말라. 인의(仁義)와 충신(忠信)은 사람의 본성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공손히 따르는 것은 사람의 행실이니, 배우는 것은 이것을 배울 따름이니 어찌 이를 벗어나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건대 학문을 강론하여 이치를 밝히고 극기복례하여 실천하는 것을 내면의 자기 공부로 삼는다면 진실로 지금 사람이 옛 사람처럼 되어 몸도 이미 대장부요 마음도 대장부일 것이다. 부디 너희들에게 바라는 점이니 너희들은 경계하라.

382) 시세(時勢)에 따르다가 : 원문의 ‘건몰(乾沒)’은 《사기집해(史記集解)》 권122 <혹리열전(酷吏列傳) 장탕전(張湯傳)> 주(注)에 “시세에 따라 부침(浮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383) 선대의 …… 계승(繼述)하면 : 원문은 ‘선계선술(善繼善述)’인데, 선계는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는 것을 말하며, 선술은 선대의 공업을 잘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효도란 것은 아버지의 뜻을 잘 계승하며, 아버지의 사업을 잘 따라 행하는 것일 뿐이다.[夫孝者, 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者也.]”라고 하였다. 《中庸章句 第19章》

《金 峯 拾 稿》

錦 峰 拾 稿

《錦城三稿》

을미봉사【선조 28년(1595).】

乙未封事【宣祖二十八年.】

삼가 아뢰입니다. 《서경(書經)》에 “하늘이 듣고 보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듣고 보는 것을 따르는 것이며, 하늘이 밝고 두려운 것은 우리 백성의 밝고 두려움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³⁸⁴⁾ 이 말은 하늘이 듣고 보는 것은 보고 들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하여 보고 들음을 삼고, 하늘이 밝고 두려운 것은 좋아하고 미워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밝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밝고 두려운 것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대개 하늘과 사람은 그 이치가 하나여서 막힘없이 통하니, 민심이 있는 곳이 바로 천리(天理)가 있는 곳이어서 기쁨으로 감동하면 복으로 감응하고, 원망으로 감동하면 재앙으로 감응하니, 그 뚜렷한 효험이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처럼 빠름은 그 이치가 반드시 그러한 것입니다.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국가가 어렵고 위태로운 날에 백성이 도탄에 빠져 괴로워하는 것을 아파하시어 강개(慷慨)하고 분발하시며 공검(恭儉)하고 부지런히 애쓰셔서 안으로는 국정을 잘 닦고 밖으로는 적을 물리치며, 어진 인재를 등용하고 간사한 무리를 물리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기에 힘쓰셨습니다. 처사의 원한을 특별히 신설(伸雪)하고 국가를 병들게 하는 간악하고 흉악한 자들을 드러내 배척하여 하늘의 뜻에 보답하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며 기쁘게 하신 것이 지극하다고 할 수 있으니, 어찌 중흥과 회복의 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나라가 개국한 이래로 사특함과 올바름이 줄어들과 늘어나는 것에 진실로 많은 반복이 있었으나, 사람에게 재앙을 끼쳐 국가의 명맥을 끊어지게 함에 이르러서는 기축(己丑 1589)년의 변란보다 심한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건대 국가가 무너지고 집안이 망하는 징조가 필시 여기에서

384) 《서경(書經)》에 …… 하였습니다. : 《서경》〈고요모(皋陶謨)〉에 “하늘의 듣고 봄이 우리 백성의 듣고 봄으로부터 하며, 하늘이 선한 자를 밝혀 드러내주고 악한 자를 두렵게 함이 우리 백성의 밝혀주고 두렵게 함으로부터 한다. 그리하여 상하에 통달하니, 공경할지어다! 땅을 소유한 군주들이여.[天聰明, 自我民聰明, 天明畏, 自我民明威. 達于上下, 敬哉! 有土.]”라고 한 말을 인용하였다.

연유하지 않음이 없으니, 혈기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인들 분격하여 팔뚝을 걷어붙이고 간사한 적의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을 성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화살에 놀란 새처럼 두려운 마음³⁸⁵⁾은 겨우 그쳤지만 가시지 않는 두려움이 아직도 있어 입을 다물고 혀를 묶은 채 답답한 마음을 펴지 못한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하늘이 성상의 마음을 열어 밝은 태양³⁸⁶⁾이 널리 비추듯 시비를 분별하고 원통함을 밝게 씻겨주어 조야(朝野)의 분통한 마음을 덜어주셨으니, 지금이 바로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이 말을 다할 때입니다.

신들은 청컨대 그 강령(綱領)을 하나하나 들어 우러러 전하를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기축년에 역적의 변란이 사대부의 사이에서 일어났는데, 정여립(鄭汝立)은 당초부터 불을 지르고 사람을 겁박하는 도적이 아니라 실로 하늘을 속이고 사람을 기망한 간인이었으므로 당시에는 박식하고 견문이 넓어 사림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이(李珥)와 같은 무리도 맨 처음 교유할 때 깊이 추앙하며 칭찬하였으니, 청요직에 천거되어 쓰인 것도 실은 이이가 이끌어준 힘이었습니다.

계미(癸未 1583)년에 분당(分黨)이 이미 심하여 이이가 세력을 잃은 뒤로부터 정여립은 비로소 속마음을 고치지 않고 겉만 달라진 채 동인(東人)에게 빌붙었습니다. 동인은 이미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없이 한갓 일시의 헛된 명성만을 믿어 뿌리쳐 물리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가려서 사귀지 못한 죄입니다.

왕망(王莽)이 거짓으로 공손하니 당시 【다른 본에는 ‘당시(當時)’ 두 글자가 없다.】 8만 명이 그 덕을 칭송하였고, 육당(陸棠)의 속임수에 선유(先儒)가 믿어 의심치 않고 사위로 삼았으니,³⁸⁷⁾ 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운

385) 화살에 …… 마음 : 원문의 ‘상궁(傷弓)’은 상궁지조(傷弓之鳥)의 준말로, 한번 화란을 겪은 사람은 화살에 상한 새처럼 매사에 놀라고 조심함을 비유한다. 《전국책(戰國策)》 초책(楚策)에, “한번 화살에 상한 새는 시위의 맹렬한 소리만 듣고도 높이 난다.[傷弓之鳥, 聞弦音而高飛.]”고 하였다.

386) 밝은 태양 : 원문의 ‘이명(離明)’은 밝은 해를 가리키는 말로 《주역》〈설괘전(說卦傳)〉에 “이(離)는 불이 되고 해가 된다.[離爲火, 爲日.]”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는데, 전하여 임금의 밝은 덕을 의미한다.

387) 육당(陸棠)의 …… 삼았으니 : 육당은 송 나라 양시(楊時)의 사위이다. 처음에 양시가, 육당의 용모가 매우 단정하고 앉은 자세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것을 보고는 호인(好人)이라 하여 그를 사위

것은 예나 지금이나 공통된 걱정거리입니다. 만약 실정을 따져 그 죄를 차등한다면 교유하며 칭찬하고 인정한 책임에 대하여 스스로 먼저 죄를 받아야 하나 나머지는 마땅히 감면하여 가벼운 형벌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일 조정으로 하여금 서로 화합하고 의리를 강구하여 밝게 한다면 반드시 정자(程子)가 희령(熙寧)·원풍(元豐) 때 봉당을 아울러 쓰자는 논의³⁸⁸⁾처럼 하여야 합니다. 사람 쓰는 것에 피차를 구분하여 나가고 물리나게 하지 않으며 다만 충성스러운지 사특한지로 취사(取舍)해야 합니다. 친분을 맺는 데도 또한 마땅히 그 사람이 현명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분별하여 자신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데 급급하지 않으며 공정하게 보고 들어³⁸⁹⁾ 대립하는 단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러한 변란을 당하여 마땅히 각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세상을 속이는 상황을 극력 진달하여 사람에게 화가 미치지 않게 할 것이니 이것이 군자의 책임입니다.

로 삼았다. 그러나 후에 범여위(范汝爲)가 난을 일으켰을 때에 그의 당(黨)이 되었기 때문에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민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朱子語類 卷133 本朝7》

388) 희령(熙寧) …… 논의 : 송나라 신종(宋神宗)은 처음에 연호를 희령(1068~1077)이라 하였다가 뒤에 원풍(1078~1085)으로 고쳤다. 신종 때에 왕안석(王安石)이 시폐(時弊)를 없애고 부국 강병(富國強兵)하는 방책으로 재정(財政)·병제(兵制) 등 여러 방면에 걸쳐 개혁하기 위하여 청묘법(靑苗法)·균수법(均輸法)·모역법(募役法) 등 여러 법을 새로 시행하였는데, 이를 구래(舊來)의 법의 대칭으로 신법(新法)이라 하고 신법을 지지하던 채확(蔡確)·장돈(章惇)·여혜경(呂惠卿) 등의 무리를 신법당(新法黨)이라 하였으며, 이를 반대하던 범중엄(范仲淹)·한기(韓琦)·부필(富弼)·사마광(司馬光) 등의 무리를 구법당(舊法黨)이라 하였다. 신·구당이 처음부터 확립된 것은 아니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서로 용납하지 않아 뒤에는 함께 조정에 서지 못하게 되었다. 왕안석은 신종 9년에 죽었으나 신당이 계속하여 집권하다가 철종(哲宗)이 즉위하고 태후(太后)가 청정(聽政)하면서부터 신당은 모조리 내쳐지고 구당이 집권하였고, 철종이 친정(親政)하자 신당이 집권하고 휘종(徽宗)이 즉위하고 태후가 섭정(攝政)하자 구당이 집권하고, 또 친정하자 다시 신당이 집권하였으며, 구당은 신법에 대체하는 방안이 일치하지 않아 뒤에는 소식(蘇軾)을 중심으로 하는 촉당(蜀黨), 정이(程頤)의 낙당(洛黨), 유지(劉摯)의 삭당(朔黨)으로 분파되어 다투었다. 휘종 친정 이후 채경(蔡京)이 집정할 때에 구당을 탄압하여 그 세력을 아주 없애 버렸으니, 왕안석 이후 구당의 집권은 태후가 정사를 보던 얼마 안 되는 기간에 불과하였다. 신법은 갑작스런 변혁에 대한 백성의 반발과 특히 유신(儒臣)들의 반대와 시행과정에서의 농간 등이 방해되는 요인이었고, 신법의 실패를 거두기 전에 신종이 자주 외征(外征)의 군사를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요(遼)나라와 다투어 도리어 북방의 군을 잃었으며, 채경이 재상이 되어서는 신법을 더욱 강행하되 재리(財利)에만 힘을 뽐내려 휘종에게 사치를 권하고 토목일을 자주 일으켰으므로 백성의 고통이 극심하여 민심이 이반하고 나라가 쇠약해져 마침내 남도(南渡)하게 되는 큰 원인이 되었다.

389) 공정하게 보고 들어 : 《한서(漢書)》 卷51 <추양전(鄒陽傳)>에 “공평하게 듣고 다방면으로 살피면 당대에 밝음을 드리오(公聽竝觀, 垂明當世).”라고 하였다.

정철(鄭澈)은 사납고 고약한 성질로 이것이 재앙을 만들려는 피를 내어 불령(不逞)³⁹⁰한 무리를 모아 그 세력을 확장하고, 은밀히 함정을 파서 무고한 사람을 빠뜨리며, 공법(公法)에 의탁하여 사적인 원수를 갚아 평소 눈을 흘긴 조그만 원한까지도 반드시 모두 보복하는 처지에 들었습니다. 밖으로는 경박한 무리를 부추겨 한 도(道)의 선비들 의론을 가장(假裝)하여 전하를 현혹하고, 안으로는 간사하고 옹졸한 무리에게 부탁하여 대간(臺諫)의 명성과 위세를 빙자하여 불측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얹어 밤낮으로 협공하여 반드시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중천의 태양 같은 성상의 밝음이 아니었으면, 일세(一世)의 충신과 어진 사람들이 모두 반역의 깊은 구렁이에 빠졌을 것이니, 그 피가 참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당파의 재앙을 역대와 비교하여 증험하면 실로 위험한 기미와 패망의 징조이니 시비와 사정(邪正)의 분별에 대해 자연히 후세의 공론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전하께서 밝게 분별하시어 잘 살피고 선택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달려 있으니, 진실로 초야에 있는 신하가 감히 알 바는 아닙니다.

정개칭의 경우는 당초부터 조정의 반열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만 산림(山林)에서 한결같이 학문에 매진하던³⁹¹ 선비였습니다. 그 사람됨은 성품이 순수하고 독실하며, 조예가 정확하고 도학을 밝혀 세상의 큰 선비가 되었습니다. 항상 장횡거(張橫渠)³⁹²가 예(禮)로 사람을 가르쳤던 교훈을 지키며 구용(九容)³⁹³의 공부를 더욱 엄밀하게 하였으니, 스스로 학문에

390) 불령(不逞) : 원한, 불만, 불평 따위를 품고서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91) 학문에 매진하던 : 원문의 ‘장수(藏修)’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업에 매진한다는 뜻이다. 《예기》〈학기(學記)〉에 “군자는 배움에 있어 장하고, 수하고, 식하고, 유한다.[君子之於學也, 藏焉, 修焉, 息焉, 遊焉.]”라고 하였는데, 공영달(孔穎達)의 소(疏)에서 “장은 마음속에 항상 학업을 품는 것이고, 수는 닦고 익히기를 그만두지 않는 것이다.[藏謂心常懷抱學業也, 修謂修習不能廢也.]”라고 풀이하였다. 《禮記正義 卷36 學記》

392) 장횡거(張橫渠) : 횡거는 장재(張載)의 호로 자는 자후(子厚), 섬서성(陝西省) 사람이다. 정호(程顥)·정이(程頤)에게 유(儒)를 배우고, 신종(神宗) 때에 문원 교서(文院校書)가 되었으나,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에 반대(反對)하여 벼슬을 내어 놓고 물러났다. 그의 설은 예(禮)를 숭상하고 역(易)으로 종(宗)을 삼고, 중용(中庸)으로 체(體)를 삼았으며, 이기 일원론(理氣一元論)을 주장(主張)하였다.

393) 구용(九容) : 옛날 군자가 수신하고 처세할 적에 견지해야 하는 아홉 가지 몸가짐으로, “발걸음을 경망하게 하지 않고, 손으로 아무 데나 어지럽게 가리키지 않고, 눈은 흘려보지 않고, 말을 경박하

독실하고 행실에 힘쓰는 선비가 아니면 그를 알면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대체로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멋대로 하는 것을 즐기면서 예법으로 단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배척하여 그를 원수처럼 【다른 본에는 ‘구(仇)’ 자 아래에 ‘적(敵)’ 자가 있다.】 미워하였습니다.

정철은 작은 일에 청렴하고 근신함으로써³⁹⁴⁾ 헛된 명성을 도둑질하고, 스스로 예법에서 벗어나 방자하게 권세와 이욕의 자리에 분주하였습니다. 급기야 그 뜻을 만족하고 기세를 얻은 뒤에는 주색을 음탕하게 즐겼으니, 함께 당파를 연결하고 벗을 맺은 사람은 모두가 품행이 없고 염치가 없는 무리였습니다. 스스로 순수한 유자(儒者)와 단정한 선비의 의론에 배척되는 것을 알고, 이에 감히 스스로 절의와 청담의 명류(名流)로 의탁하여 한결같이 형기(刑器)와 법도를 하찮게³⁹⁵⁾ 여기더니 마침내 부화(浮華)한 것을 자랑하고 근본과 실질을 망각하며, 통달을 귀하게 여기고 명검(名檢)³⁹⁶⁾을 천하게 여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그 지식 재변(才辯) 모계(謀計) 기개를 또한 빛나게 드러내어 장황하게 하고, 후배들 중 허황되고 경망하여 선비들 사이에 끼지 못하는 자들이 종횡(縱橫)과 패합(捭闔)³⁹⁷⁾의 변론으로 서로 선동하며 그의 논설을 지지하고, 막연히 예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해학과 방종으로 몸을 검속하고 물욕을 막는 예법의 밖에서

게 하지 않고, 목소리를 온화하게 하여 괴상한 소리를 내지 않고, 고개를 곧게 세워 마구 가우뚱거리거나 돌아보지 않고, 기운을 엄숙하게 하고, 서 있을 때에는 바르게 서서 덕 있는 기상을 지니고, 낮 빛을 장중하게 한다.[足容重, 手容恭, 目容端, 口容止, 聲容靜, 頭容直, 氣容肅, 立容德, 色容莊.]”라는 것이다. 《禮記 玉藻》

394) 작은 …… 근신함으로써 : 주희(朱熹)의 <답혹인(答或人)>에 “향원은 일종의 작은 일에 청렴하고 근신하며, 세상에 아부하고 시속을 좇는 사람이다.[鄉原, 是一種小廉曲謹, 阿世徇俗之人.]”라고 한 데서 나왔다.

395) 하찮게 : 원문의 ‘추구(葛狗)’는 짚을 엮어 만든 개를 말하는데 쓸모없는 사물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장자(莊子)》<천운(天運)>에 “추구를 진설하기 전에는 상자에 담아서 좋은 비단으로 감싸 두지만 시축(尸祝)이 재계를 한 뒤에 모셔다가 제사를 지낼 때 쓰고 나면 발로 밟기도 하고 가져다가 불을 지피 밥을 짓기도 한다.” 한 데서 나왔다.

396) 명검(名檢) : 명교(名敎)로서 말과 행실을 속박하여 조심함을 말한다.

397) 패합(捭闔) : 개폐(開閉), 억양(抑揚), 허실(虛實) 등을 끝없이 펼쳐나가는 변론술(辯論術)을 가리킨다. 《귀곡자(鬼谷子)》에 <패합>이 있는데, 전국(戰國) 시대 소진(蘇秦)과 장의(張儀)가 귀곡자를 스승으로 삼아 패합과 종횡의 술(術)을 배워 유세(遊說)하는 방법으로 삼았다.

스스로 안일하였으니, 천리를 해치고 민심을 어지럽게 하며 도술(道術)을 방해하고 풍교(風敎)를 무너지게 한 것이 이처럼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정개칭의 학문은 항상 정자와 주자를 종주로 삼아 간신들이 세상을 그르치는 상황을 보고는 후학의 폐단이 될까 염려하여 선유(先儒)의 말을 부연한 하나의 논설을 저술하여 절의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폐단을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성인의 문하에 종사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의리의 편안함을 따르지 않으며, 의기가 발하는 대로 장황하게 하여 나라를 망치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말한 것은 진실로 정철이 절의와 청담에 가탁(假托)한 폐단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가 “천하를 경시하고 온 세상을 오만하게 즐겨보며, 예의의 규범을 벗어나 성명(性命)의 바른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자기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끝내는 교활한 무리와 함께 일어나 왕위³⁹⁸를 즐겨보았다.”라고 말한 것은 실제 주자가 주장한 동한절의(東漢節義) 한 조항의 말을 논하여 정철이 세상을 속이고 나라를 그르친 정황에 정확히 적중한 것입니다. 그가 “부귀를 바라지 않고 빈천을 잊을 수 있다고 하여 한편으로는 비록 청고(淸高)한 듯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실로 권세를 부리고 뇌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면치 못하여 온 세상이 본받고 흠모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이끌어 교만하고 허탄(虛誕)하게 하여 끝내 회복할 계책을 진작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한 것도 주자의 의론을 위주로 하여 정철이 자신을 그르치고 다른 사람까지 그르친 정황을 모두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의에 대해 저술한 논설은 진실로 선유(先儒)가 이미 정한 공론에 의거한 것이 그 뜻은 전적으로 정철이 세상을 속이고 충애를 취하여 명교(名敎)를 어지럽힌 것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늙은 간신이 자신의 평소 심술이 남들에게 조사당하여 군자의 올바른 견해로 탄로나게 되어 그 실정을 당대 사람들에게 숨길 수가 없게 됨을 미워하여 이를 덮고 가리기 위한 계책으로 마침내 중상모략 할 꾀를 낸 것입니다. 이에 저술한 논설에 ‘배(排)’ 자를 임의로 더하여 ‘배절의(排節義)’라고 지목하고

398) 왕위 : 원문의 ‘신기(神器)’는 원래 왕위(王位) 계승에 따르는 보물인 옥새(玉璽)나 보정(寶鼎)을 이르는데, 곧바로 왕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전하를 크게 기만하고, 심지어는 홍수와 맹수의 폐해에 비유하여 사방에 방(榜)을 붙여 보이고 역당의 이름을 덮어씌웠으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은 원통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논설의 첫머리에서 “동한절의(東漢節義)를 공명(功名)과 비교하면, 그 고상함이 오히려 완고한 자를 격동시키고 나약한 자를 일으킬 수 있으며, 진송청담(晉宋淸談)을 모리(謀利)와 비교하면, 그 기개가 또한 실정을 바로잡고 외물을 진정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학문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성현의 중화(中和)의 도(道)에 죄를 지었다.”고 하였으니, 명덕(明德)과 중화(中和)는 진실로 절의에서 나온 것이며, 정개청이 스스로 힘쓰고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여기에 있었으니, 정개청의 논설은 절의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절의의 근본을 복돋운 것이며, 한갓 절의라는 이름을 내세워 과격하게 일을 그르치고 사람과 국가에 화를 입히는 자를 미워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논설은 그 자신이 처음 만든 말이 아니고, 진실로 주자의 뜻을 조술(祖述)한 것입니다. 주자의 의론은 《주자어류(朱子語類)》 권34 〈논어해자위안연장(論語解子謂顏淵章)〉에 있으니, “동한(東漢)에서 절의를 숭상하던 때 문득 온 세상을 오만하게 흘겨보고, 조정을 더럽게 여기는 뜻을 두었다. 이런 의사에서 문득 천하를 경시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 얼마 후 청담으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절의 있는 선비가 진실로 그 지위에서 마땅히 할 말이 아니니 재앙에 이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후한(後漢)의 명절(名節)이 말년에 이르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천하게 여기는 폐단이 있으니, 이것이 쌓여 그치지 않으면 그 폐단은 반드시 허무맹랑한 데에 이르러 노장(老莊)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진송(晉宋)의 인물을 논함에 이르러서는, 또 “비록 청고(淸高)한 것을 숭상하나 개개인마다 관직을 요망하여 한편으로는 청담을 주장하며 한편으로는 권세를 부리고 뇌물을 받아들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주자의 논설로 인하여 한(漢) 나라와 진(晉) 나라의 폐단을 밝혀 간악한 괴수의 정황을 정확히 논파하였습니다.

절의는 사람의 마음에 본래 있는 것이나, 사적인 마음이 끼게 되면 이욕에

가리어 자기 한 몸만 사사롭게 하고 의리에는 어두워 임금과 부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현(聖賢)이 가르침을 베풀 적에 사람들에게 그 밝은 덕을 밝히고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이치를 알게 하며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면 의리에 밝아 이해(利害)에 미혹하지 않고, 군부(君父)를 소중히 하여 그 한 몸을 돌아보지 않으니, 생사와 환난의 때를 당하여 절개에 복종하고 의리에 죽는 행동을 기약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한갓 절의의 이름만 알고 실제로 절의에 힘쓰지 않으면, 비록 아침저녁으로 담론하더라도 급기야 이해에 임하고 생사에 처하여서는 시비에 현혹되어 인욕을 천리로 잘못 알고 시의(時宜)에 어두워 손실을 이득으로 여겨 지키며 위의(威儀)에 굴복하고 부귀에 미혹하여 자신을 도모하는 데는 신중하고 군부(君父)는 가볍게 여기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봉당에 금고(禁錮)된 여러 어진 선비들은 대의(大義)가 마음에 근본이 되어 생사에도 그 바탕이 변하지 않으니 진실로 숭상할 만합니다. 그러나 성현의 학문을 일삼지 않고 의리의 근원에 밝지 못하여 오직 조정의 정사만을 비판하고 인물이 선한지 그렇지 않은지 평가하여 악을 배척하고 선을 장려하는³⁹⁹⁾ 것만 제일가는 사업으로 삼고, 곧 성현의 도리가 이와 같은 데 지나지 않는다고 여겨 실제로 인(仁)에 처하고 의(義)를 행하는 것에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임금과 신하의 의리를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양기(梁冀)가 질제(質帝)를 시해했을 적에 이고(李固)는 재상으로서 그 죄상을 성토하고 공개적으로 죽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의 명령을 듣고 제어를 받으면서 은인자중하였습니다.⁴⁰⁰⁾ 은총과 친압의 폐단을 제거하고자

399) 악을 …… 장려하는 : 원문의 ‘격탁양청(激濁揚清)’은 흐린 물을 쳐내고 맑은 물을 일게 한다는 뜻으로, 악을 물리치고 선을 권장함을 비유한다. 전국 시대 초(楚)나라 시교(尸佼)가 말하기를 “물은 네 가지 덕이 있으니……맑은 물을 일게 하고 흐린 물을 쳐내, 더러운 것을 씻어 버리는 것이 의이다.[水有四德……揚清激濁，蕩去滓穢，義也.]”라고 하였다. 《山堂肆考 卷22 水有四德》

400) 양기(梁冀)가 …… 은인자중하였습니다. : 양기는 후한 순제(後漢順帝)의 왕후 양씨(梁氏)의 오라비로, 누이동생인 양 태후(楊太后)가 임조(臨朝)하면서 정권을 독점하였다. 충제(沖帝)가 죽자 질제(質帝)를 세웠는데, 질제가 “이 사람이 발호장군이다.[此跋扈將軍也]”라고 자신을 평한 것을 미워하여 독살하고 환제(桓帝)를 세웠다. 이고(李固)는 충제 때의 태위(太尉)로 조야(朝野)의 명망이 높았는데, 충제가 죽었을 때와 질제가 시해되었을 때에 모두 청하왕(清河王) 유산(劉蒜)을 옹립하려고 노력하다

하였으나 환관들이 전횡(專橫)할 적에 두무(竇武)는 죽이기를 도모하면서 그 경중과 선후의 차례를 스스로 잃은 나머지 마침내 선비들이 섬멸되고 나라도 따라서 멸망하였습니다.⁴⁰¹⁾

또 하진(何進)이 동탁(董卓)을 끌어들이 정권을 바꾸는 역모를 이루게 하고⁴⁰²⁾, 두무의 한 가문에서 세 명의 제후가 나와 여러 사람의 뜻을 불평하게 만들며⁴⁰³⁾, 순상(荀爽)이 간신이 날뛰는 조정에 들어오고⁴⁰⁴⁾, 순욱(荀彧)이 당형(唐衡)의 사위가 되고 조조(曹操)의 신하가 된 일⁴⁰⁵⁾ 등은 모두 의리를 행하고

가 양기의 비위를 거슬러 면직되었다. 환제 건화(建和) 1년(147)에 유문(劉文) 등이 유산을 황제로 세우려다 실패하고 죽음을 당하였는데, 양기가 이고를 이 사건에 연루시켜 하옥시키자, 이고의 문생 등이 상소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대궐에 나아가 호소하였다. 이에 양 태후가 사면하여 출옥시키자 경사(京師)의 시민들이 환호하며 만세를 부르니, 양기가 대경실색하여 위협을 느낀 나머지 다시 무옥(誣獄)을 일으켜 이고와 두교(杜喬)를 죽이고 그 시신을 성 북쪽에 전시하였다. 양기는 20여 년 동안 권력을 전횡하다가 연희(延熙) 2년(159)에 양 태후가 죽자 환제가 환관 5인과 합세하여 그를 복주(伏誅)하고 그 종족을 모두 기시(棄市)하였다. 《後漢書 卷34 梁冀列傳, 卷63 李固列傳》

401) 환관들이 …… 하였습니니다. : 후한 영제(後漢靈帝)가 즉위한 뒤에 두 태후(竇太后)의 부친인 대장군 두무(竇武)가 환관(宦官)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진번(陳蕃)·이옹(李膺) 등 이른바 청류(淸流)와 함께 환관들을 제거하려고 계획하였는데, 그 일이 누설되어 두무가 환관들에게 먼저 살해당하자, 진번이 70여 세의 나이로 곧장 관속(官屬)과 제생(諸生) 등 80여 인을 이끌고서 칼을 빼 들고 승명문(承明門)으로 돌입했다가 패하여 죽음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100여 인이 피살을 당하였는데, 뒤를 이어 계속해서 사형과 유배를 당하고 수감(囚禁)된 자가 700여 인에 이르렀다. 두 태후는 환제(桓帝)의 황후로, 환제가 죽자 수렴청정하면서, 장제(章帝)의 현손(玄孫)으로 당시 12세였던 영제를 맞아들어 황제로 세웠다. 《後漢書 卷69 竇武列傳》

402) 하진(何進)이 …… 이루게 하고 : 후한(後漢) 환제(桓帝) 때 우림랑(羽林郎)으로 여러 번 전공(戰功)이 있었고 영제(靈帝) 때는 병주목(并州牧)으로 있었는데, 영제가 봉하자 동탁(董卓)이 하진(何進)의 부름에 응하여 군사를 이끌고 경사에 들어가 곧 스스로 상국(相國)이 되어 소제(少帝)를 폐하고 하태후(河太后)를 시해하고서 헌제(獻帝)를 세우는 등 모든 권병을 독점하였다.

403) 두무의 …… 만들며 : 두무가 태후(太后)의 명으로 영제(靈帝)를 받아들여 제위(帝位)에 앉힌 공로로 대장군(大將軍)이 되고 문희후(閔喜侯)에 봉해졌으며, 아들과 조카들까지도 모두 후에 봉해져 그 위세가 천하를 흔들었다.

404) 순상(荀爽)이 …… 들어오고 : 이옹(李膺)은 명망이 높았으므로 선비 중에 그의 인정과 대접을 받은 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용문(龍門)에 올랐다고 칭하였는데, 순상(荀爽)이 찾아가서 이옹을 위해 수레를 몰아주고는 집에 돌아와서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오늘 드디어 이군의 수레를 몰았다.”라고 하였다. 《後漢書 卷67 李膺傳》 순상은 후한 때 순숙(荀淑)의 여덟째 아들로 순씨의 팔룡(八龍) 가운데 한 명이다.

405) 순욱(荀彧)이 …… 된 일 : 순욱은 4세 때 권세를 휘두르던 환관 당형(唐衡)의 딸과 혼인이 결정되어 두고두고 비난거리가 되었다. 189년 27세에 원소(袁紹)의 예우를 받았으나, 대업을 이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조조(曹操)에게 투탁하였다. 조조는 순욱을 나의 자방(子房)이라고 기뻐하며 중용하

절조를 지키는 실상을 알지 못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절의에 대해 진실로 얻은 바가 있었다면 그 출처와 시의(時宜)가 반드시 이처럼 어긋나지는 않았을 것이니, 주자는 한(漢)나라 선비들이 의리의 학문을 외학(外學)으로 여겼다고 말하였고, 남헌(南軒) 장식(張栻)은 그들의 학문에 미진한 바가 있다고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아! 우리나라는 외지고 누추하여 선비들의 견문이 국한되며, 사람은 없고 학문은 끊어져 도학이 분열되고 사특한 것이 아울러 일어나니 인심을 해롭게 하는 이단 사설이 많습니다. 가령 호남 한 도(道)의 풍습은 직분을 닦지 않고 벼슬자리에 나가기를 생각하며, 항상 인물을 비난하고 조정을 비방하는 것을 선비의 풍격으로 삼아 남들이 만약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려 하고,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으면 반드시 무함(無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정철은 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교묘한 임기응변까지 갖추었으니, 절의의 남은 습속을 흠쳐 의탁하고 청담(淸談)의 오류를 거리낌 없이 행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식견을 그릇되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술수를 부리고 괴이함을 자랑하며 급박하게 곤경에 빠트려 온 세상의 이목을 어지럽히고 역적을 심문할 때 몸을 드러내어 간신의 무리와 결탁하고 사설(邪說)을 격동시켜 기회를 틈타 함정에 빠지게 하고, 흉악한 심보를 제멋대로 자행하여 어진 이를 해치고 나라를 그르치게 하는 데에 이르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이는 진실로 유림들에게 큰 물여우⁴⁰⁶⁾요 국가의 큰 간적(奸賊)으로 죄가 하늘까지 통하였으니 왕법으로 반드시 죽여야 할 자입니다.

최영경(崔永慶)은 산림고의(山林高義)라는 이름을 지고 있으니, 참으로 성세에 은거하는 백성입니다. 남쪽 지방의 허탄하고 망령된 무리가 정철의 조종을 받아 삼봉(三峯)의 설⁴⁰⁷⁾을 지어 최영경을 엮어낸 상황을 세상

였고, 순욱도 정치와 전략에서 많은 공적을 세웠다. 그러나 조조가 찬탈 의사를 비추기 시작했으므로 후한(後漢)을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이상을 가졌던 순욱과는 자연히 틈이 생기게 되었다. 212년 50세에 손권(孫權) 정벌하는 데에 조조를 따라 출정하였으나 병으로 졸하였다. 《三國志 卷10 魏書 荀彧傳》 406) 물여우 : 간악하고 음흉한 사람을 비유한 말이다. 물여우는 귀신과 같이 그 형태를 볼 수가 없는데, 모래를 입에 물고 있다가 물에 비치는 사람의 그림자에 뿌리면 그 사람이 병에 걸린다고 한다. 《시경》〈하인사(何人斯)〉에 “귀신이나 물여우였다면 볼 수가 없었겠지만[爲鬼爲蜮, 則不可得.]”이라고 하였다.

407) 삼봉(三峯)의 설 : 1590년 서인들의 사주를 받고 양천경(梁千頃) 등과 함께 기축옥사 때 정여립

사람들이 모두 소상히 보거늘⁴⁰⁸⁾ 권력을 잡은 괴수에게 서캐처럼 붙어 아직 머리를 보존하고 있으니 어찌 천리에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삼봉의 설을 온 나라에 퍼뜨리고 왜적의 난리를 당하자 대소 백성들이 모두 “특별한 한 신인(神人)이 있는데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사방으로 흩어져 나오면 감히 막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니, 몰래 거짓말을 지어내어 인심을 어지럽히고 나라를 망치는 재앙을 불러온 것은 진실로 이 무리의 못된 짓⁴⁰⁹⁾입니다.

유몽정(柳夢井)과 이황종(李黃鍾)은 모두 청렴하고 근신하는 선비입니다. 본도(本道) 출신으로 일찍부터 정철의 속내를 알고 반드시 강하고 편벽됨으로 나라를 그르칠 것이라고 단정하더니 역시 간악한 무리에게 무함을 입었습니다. 유몽정이 원통하게 죽은 다음해에 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예전에 예를 강론하던 뜰에서 자라나니, 사람들은 그의 정성에 감동한 소치라고 하였습니다. 정개청의 아우 정대청(鄭大淸)은 형이 비명(非命)에 죽은 것을 아파하고 억울함을 한번 풀기를 바라서 복상(服喪) 중에 슬피 울며 감히 고기를 먹지 않은 지 지금까지 6년이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듣고 마음 아파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그 원통함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성상께서 만 리 밖까지 밝게 내다보시고 괴귀(怪鬼)한 정황을 환히 통찰하시어 정암수(丁岩壽)⁴¹⁰⁾ 등 상소 첫머리에 있는 열 사람을 잡아들여

(鄭汝立) 일당의 자백에서 나왔던 이른바 정여립의 친구라는 김삼봉(吉三峯)이 바로 최영경(崔永慶)이라고 무고하여 옥사하게 하였다. 그 뒤 1591년 양사(兩司)에서 무고인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탄원이 있자, 최영경을 모함한 당시의 언관(言官)이 파면되고, 무고인 양천경, 양천회(梁千會), 김극관(金克寬), 김극인(金克寅) 등과 같이 잡혀 문초당하였다. 그러자 정철(鄭澈)을 따르던 끝에 그와 같은 허위 사실을 상소하였음을 자백하여, 양천경, 양천회 등과 함께 복도로 장형을 받고 유배되어 가다가 장형을 받은 후유증으로 도중에 모두 죽었다.

408) 세상 …… 보거늘 : 많은 사람이 삼엄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대학(大學)》 성의(誠意)에서 증자(曾子)가 말하기를, “열 눈이 보는 바이며 열 손이 가리키는 바이니, 그 엄함이어! [十目所視, 十手所指, 其嚴乎!]”라고 하였다.

409) 못된 짓 : 원문의 ‘작용(作俑)’에서 용(俑)은 장사(葬事)에 쓰는 나무로 만든 허수아비인데, 이는 좋지 못한 선례(先例)를 뜻한다. 《맹자》〈양혜왕 상(梁惠王上)〉에 “중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으로 용을 만든 자는 아마 후손이 없을 것이다.’ 하셨으니, 이는 사람을 형상하여 장례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다.[仲尼曰, 始作俑者, 其無後乎, 爲其象人而用之也.]”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410) 정암수(丁巖壽) : 1534~1594.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응룡(應龍)이고, 호는 창랑(滄浪)으로, 전

국문하라고 특명을 내리셨으나 간신들이 농간을 부려 대간(臺諫)에 부탁하고 공론을 빌려 이를 저지하여 마침내 전하께서 악을 미워하시는 뜻을 당시에 실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떳떳한 본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이를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같은 도(道)에 있어 우선 눈과 귀로 보고 기억한 점을 들추어 낸 것인데, 부당하게 걸려들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당시 조정에서 시기하고 저지하는 단서가 쌓여 원한이 되어 틈을 이루었을 것이니, 어찌 악독한 수단에 해를 당한 자가 없었겠습니까? 길거리의 의론이 모두 다 상심하고 통분하여 간악한 괴수의 살점을 씹어 먹고자 하지 않는 자가 없거늘, 단지 주상전하께서만 미처 통촉하지 못하시니, 아! 조정의 신하들이 주상전하를 섬기는데 지극한 정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초왕(楚王) 유영(劉英)이 반란을 도모하여⁴¹¹⁾ 은밀히 천하의 명사(名士)를 기록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어 국문을 당하게 되니, 화를 장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시어사(侍御史) 한랑(寒朗)이 마음으로 원통한 것을 아파하여 온갖 죽음을 무릅쓰고 힘써 다투어 천여 명을 조사하여 풀어주니,⁴¹²⁾ 그가 남긴 풍모와 공렬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이목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남도 화순군(和順郡) 동복(同福)에서 출생하였다. 1589년 12월 박천정(朴天挺)·박대봉(朴大鵬)·임윤성(任尹聖)·김승서(金承緒)·양산룡(梁山龍)·이경남(李慶男)·김응회(金應會)·유사경(柳思敬)·유영(柳瑛) 등과 연명하여 이산해(李山海)·정언신(鄭彦信)·정인홍(鄭仁弘)·유성룡(柳成龍) 등은 나라를 병들게 하는 간인(姦人)이며 역당이므로 멀리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왕에게 올렸다. 뒤에 이 무함(誣陷)하는 상소가 실은 정철(鄭澈)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소문이 정철의 문객(門客)으로 드나들던 심희수(沈喜壽)에 의해 퍼지기도 하였다. 상소를 본 선조는 연명한 사람 모두를 잡아들일 수 없으니 정암수(丁巖壽)를 포함하여 위에서 10명만을 추국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1591년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이 논집(論執)하고 태학생(太學生)들도 그를 탄원하는 상소를 올려 구원받았다.

411) 초왕(楚王) …… 도모하여 : 유영은 후한(後漢) 광무제의 여섯 번째 아들로써 초왕에 봉해졌다. 명제(明帝)의 아우로서 불교를 독실하게 신봉하였는데, 연광(燕廣)이란 자가 투서하기를, 초왕 유영이 왕평(王平) 안충(顔忠) 등과 함께 불교를 신봉한다는 명목으로 도서(圖書)를 조작하여 모반을 꾀하고 있다고 하였다. 명제는 유영의 봉작(封爵)을 박탈하고 단양(丹陽)으로 귀양을 보냈는데 유영은 단양에 이르러 자살하였다. 명제는 이 사건을 혹독하게 다스려 수천 명이 무고하게 연루되어 억울한 옥사가 만들어졌다. 《後漢書 卷42 楚王英列傳》

412) 한랑(寒郎)이 …… 풀어주니 : 한랑은 후한 명제(後漢明帝) 때 알자수시어사(謁者守侍御史)로 초왕 영(楚王英)의 역역을 조사하다가 이 옥사에 연루된 수향후(隧鄉侯) 경건(耿建), 낭릉후(郾陵侯) 장신(臧信), 호택후(護澤侯) 등리(鄧鯉), 곡성후(曲成侯) 유건(劉健) 등이 무고하게 걸린 것을 알고서 명제에게 고하여 풀려나게 하였다. 《後漢書 卷41 寒朗列傳》

어찌하여 최영경과 정개청은 산림에서 은거하던 선비로 사람의 영수가 되었는데 한 사람도 감히 전하를 위하여 한마디 말을 올린 자가 없습니까? 비록 간적의 위세가 두려워 입을 다물고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으나 또한 조정에 충직한 신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리(天理)가 밝고 밝아 오래되면 나타나지 않음이 없으니, 간사한 무리가 틈을 타서 허를 이용하여 비록 간교한 꾀를 한때 자행하였으나 부월(鈇鉞)의 형벌을 만세에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간적(奸賊)의 정황을 통촉하시고, 특별히 착한 무리들의 원통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최영경이 모함받은 한 가지 일로 밤중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하교까지 있었으니, 이는 천지와 신인(神人)의 복입니다.

사도(斯道)를 붙들고 국가의 명맥을 길게 유지하는 방책은 선비의 기상을 떨치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고, 선비의 기상을 떨치게 하는 기틀은 또 명분을 바르게 하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습니다. 공자께서 말하기를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예악이 흥기하지 못하고, 예악이 흥기하지 못하면 형벌이 도리에 맞지 않게 되며, 형벌이 도리에 맞지 않게 되면 백성은 손발을 둘 곳이 없게 된다.”⁴¹³⁾라고 하였습니다. 바야흐로 회복하려는 초기에 진실로 명분을 바르게 하는 일을 앞세우고 국시(國是)를 분명히 정하여 인심을 위로하면, 유신(維新)⁴¹⁴⁾의 정사를 차례대로 거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국시를 정하지 못하면 인심이 쉽게 흔들리고, 명분을 바로잡는 일이 미진하면 좋은 정사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만약 간구(姦究)⁴¹⁵⁾의 소굴을

413) 공자께서 …… 없게 된다 : 《논어》〈자로(子路)〉에 나오는 구절이다.

414) 유신(維新) : 구법(舊法)을 혁신하고 새로운 정사를 펼친다는 것으로, 《시경(詩經)》〈문왕(文王)〉에 나오는 말이다. 원문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왕이 위에 계시어 아, 하늘에 밝게 계시니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나 천명은 새롭도다. 주나라가 드러나지 않을까 상제의 명이 때에 맞지 않을까 문왕의 오르내리심이 상제의 좌우에 계시니라.[文王在上, 於昭于天. 周雖舊邦, 其命維新. 有周不顯, 帝命不時. 文王陟降, 在帝左右.]”고 하였다.

415) 간구(姦究) : 원문은 ‘간구(姦究)’인데 《서경》〈순전(舜典)〉 등에 근거하여 ‘간구(姦究)’로 바로 잡아 번역하였다. 간구는 안팎에서 법을 어기고 난행(亂行)을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서경》〈순전(舜典)〉에 “제순(帝舜)이 이르기를 ‘고요야, 오랑캐가 중하(中夏)를 어지럽혀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며, 안팎으로 나쁜 짓을 하기에 너를 사(土)로 삼는다.’ 하셨다.[帝曰: 皋陶, 蠻夷猾夏, 寇賊姦究, 汝作土.]”라고 하였다.

소탕하여 국가의 원기를 붙들어 지키지 않으면, 군자는 민을 곳이 없어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소인은 틈을 엿보아 악행을 이으려고 할 것이니, 어찌 매우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로부터 임금의 다스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지 않으나, 혹은 편벽되어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에 끌리고, 혹은 사육의 틈에 빠져 한번 간사함에 들어가게 되면 도깨비 같은 무리에게 온갖 방법으로 교묘하게 유인되어 저들과 함께 동화되고 맙니다. 저쪽으로 동화되면 이쪽에 둔 마음이 변하고, 좋아하는 것이 저쪽에 있으면 미워하는 것은 이쪽에 있으며, 저쪽과 당파를 결성하면 이쪽은 원수가 되어 마라를 병들어 망하게 하니, 송(宋) 나라 철종(哲宗)·휘종(徽宗)·영종(寧宗)·이종(理宗) 같은 이들이 경사(經史)에 실려 있거니와 이런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삼가 원컨대 전하께서는 옛날 도(道)를 잃은 일을 오늘의 귀감으로 삼아, 금석(金石)과 같이 굳게 뜻을 가져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여 변하지 말고 일월과 같이 도를 밝혀 음흉한 기운을 소탕하여 침범하지 말며, 간괴(奸魁)의 죄상을 드러내어 원통한 사람을 밝게 신설(伸雪)하여 종묘사직에 고하고, 교유문(敎諭文)을 안팎으로 반포하여 나라와 혁신한다면 지난날의 사특한 무리와 간특한 잡배들도 장차 신령스러운 교화에 변화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이니, 또 어찌 혹여 등용되어 우리의 우환이 되겠습니까? 《주역(周易)》에 말하기를 “성인이 그 도(道)를 오래 하면 천하가 교화되어 이루어진다.”⁴¹⁶⁾ 라고 하였고, 《맹자(孟子)》에 말하기를 “군자는 떳떳한 도를 회복할 뿐이니, 떳떳한 도가 바르게 되면 서민이 흥기하고 서민이 흥기하면 이에 사악하고 간특함이 없을 것이다.”⁴¹⁷⁾ 라고 하였으니, 오직 성상은 여기에 마음을 두소서.

비답하기를 “너희들의 의론이 지극하다. 마땅히 의논하여 처리하리라.” 하였다.

416) 주역(周易)에 …… 이루어진다 : 《주역(周易)》〈항괘(恒卦)〉의 단사(彖辭)에 있는 말로서, 성인(聖人)이 오랫동안 한결같이 항구한 정도(正道)를 지키고 있어 천하가 교화되어 아름다운 풍속을 이룬다는 뜻이다.

417) 맹자(孟子)에 ……하였으니 : 원문에는 ‘맹자왈(孟子曰)’이 누락되어 있으나 《맹자》〈진심 하(盡心下)〉에 “君子反經而已矣, 經正, 則庶民興; 庶民興, 斯無邪慝矣.”를 근거하여 보충하고 국역하였다.

서애 유성룡⁴¹⁸⁾의 회계⁴¹⁹⁾

【일이 비변사에 내려져 서애 유성룡이 영의정으로써 회계하였다.】

柳西厓成龍回啓【事下脩邊司, 西厓以領議政回啓.】

근래에 대간 및 지방 유생들이 연이어 상소와 차자를 올려 기축년 역모 사건⁴²⁰⁾에 연루된 사람들 중 매우 원통한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고, 또 한랑(寒朗)이 초(楚) 나라의 옥사를 판별⁴²¹⁾했다는 한 구절을 인용하여 조정 대신들이 간언하지 않은 잘못을 책하셨습니다. 신들은 마땅히 머리를 찡으면서 부끄러워하고 사죄하기에 겨를이 없으니 무슨 낯으로 다시 논의하겠습니까.

국운이 불행하여 역모의 변란이 대신들 사이에서 일어나 바야흐로 옥사(獄事)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상께서는 이미 파급의 환난이 있을 것임을 걱정하시어 옥석이 함께 불타는 것을 경계하여 덕음(德音)을 거듭 내리셨습니다. 만약 당시에 일을 담당하여 옥사를 다스렸던 신하가 성상께서 보이신 지극한 뜻을 미루고 넓혀서 심문을 잘하고 밝게 판단하여 그 허실(虛實)과 경중(輕重)의 실정을 얻고 조금이라도 사의(私意)가 그 사이에 섞이지 않게 하였다면, 원악(元惡)과 대돈(大慝) 및 법에 걸리는 것이 마땅한 자 외의 나머지, 즉 비록 평시에 교유하였더라도 역모를 알지 못했던 자, 한두 번 정도 얼굴을 본 적이 있거나 한두 번 서신을 왕래한 자, 고알(告訢)하던 중에 거론된 자, 풍문으로 거론된 자 등은 모두 차례로 신원되어 풀려나

418) 유성룡 : 1542~1607. 본관은 풍산(豐山)이며, 자는 이현(而見), 호는 서애(西厓)이다. 임진왜란 때 영의정에 올라 명나라의 참전을 이끌어냈고 평양과 한양 수복에 공을 세웠다. 1598년 복인의 탄핵으로 삭탈관직당했다가 복관되었으나 은거하며 세상을 마쳤다. 임진왜란의 교훈을 정리한 《징비록(懲毖錄)》을 남겼다.

419) 회계(回啓) :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신하들이 심의하여 대답하던 일을 말한다.

420) 기축년 역모 사건 : 기축옥사(己丑獄事), 혹은 기축사화(己丑士禍)라고도 한다. 기축년(己丑年)인 1589년(선조 22), 정여립(鄭汝立)이 반란을 꾀한다는 고변(告變)에서 시작하였는데 1591년까지 그와 연루된 수많은 동인(東人)의 인물들이 희생되었다.

421) 한랑(寒朗)이……판별 : 한랑(寒郎)은 후한(後漢)때 설(薛)땅의 사람이다. 초왕(楚王) 영(英)은 소시에 유협(遊俠)을 좋아하였고 만년에는 황로(黃老)·부도(浮屠)를 즐기며 방사(方士)와 교유하였는데 뒤에 역적으로 몰려서 자살하였다. 이 때 억울한 연루자가 수천 명이나 되어 여러 해 동안 판결을 내지 못한 것을 한랑(寒郎)이 가서 공정하게 처리하여 죄 없는 많은 사람을 풀어주었다 한다. 《후한서(後漢書)》 권72.

실정과 죄가 서로 걸맞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았다면 인정이 크게 감복하고 억울함이 풀릴 수 있었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이른바 천토(天討)이며 또한 왕법(王法)이나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근원은 실로 근년 이래 조정이 분열되어 형색을 너니 나니 하며 가르는 데서 비롯되었으니, 이른바 한편에 선 사람들이 이 일을 빌미로 하여 수사연좌(收司連坐)⁴²²⁾하려는 계책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시기에 영합하고 풍지(風旨)를 엿보아 소차를 올려 포승줄로 사로잡으려는 자들이 관서(官署)의 앞에 줄을 지어 잇닿으니, 위로는 사대부로부터 아래로는 벼슬하지 않은 선비까지 발을 움직이고 손을 흔드는 것조차 모두 주시해서 지켜보는 중에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있게 되면 반드시 역적을 구원하려 했다는 죄목에 빠뜨렸습니다. 이 때문에 삼 년 동안의 큰 옥사에 원통하게 고초를 받은 일이 천태만상이었으나 한 사람도 이러한 사실을 성상께 밝게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신하들이 나라를 저버림이 심한 것이니 모두에게 똑같이 죄가 있는 것이지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죄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바야흐로 사변의 초반에 성상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윤음(綸音)⁴²³⁾을 널리 내리시어 역적으로서 법에 응당 연좌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석방의 문을 열어젖히셨으니 하늘같은 은혜가 크게 흘러넘치고 말 못한 원통함이 전부 씻기었습니다. 그리하여 인심을 위로하고 하늘에 무궁한 수명을 빌어 중흥만세의 근본을 세우셨으니, 이는 진실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이와 같이하였기에 옛날 죄적(罪籍)⁴²⁴⁾에 있는 자 중 살아있는 이는 거의 다 은혜를 입었으나, 유독 이미 죽은 사람 중 최영경(崔永慶),⁴²⁵⁾

422) 수사연좌(收司連坐) : 진 나라 상양(商鞅)이 제정한 법이다. 10호를 1조(組)로 하여 서로 규찰하게 하고, 그 중에 한 집이 법을 어길 경우 아홉 집이 관아에 고발하되, 만일 규찰하여 고발하지 않으면 10호가 연좌되었다.

423) 윤음(綸音) : 임금의 신하나 백성에게 내리는 말. 오늘날의 법령과 같은 위력을 지닌다.

424) 죄적(罪籍) : 죄인의 죄상을 적은 도류안(徒流案)이나 형명부(刑名簿) 등을 이른다.

425) 최영경(崔永慶) : 1529~1590. 본관은 화순(和順). 자는 효원(孝元), 호는 수우당(守愚堂)으로 서울 출생. 조식(曹植)의 문인이다. 정여립 역옥사건(鄭汝立逆獄事件)이 일어나자 무고로 옥사(獄死)하였는데 당시 정철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정철의 사주로 죽임을 당한 것이라 의심되었다.

정개청(鄭介淸), 유몽정(柳夢井)⁴²⁶⁾, 이황중(李黃鍾)⁴²⁷⁾ 등과 같은 이들은 당시 함께 누명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최영경은 특별히 성상의 명이 내려 대간들이 잇달아 논의하여 이미 억울함을 푼 데다 증직(贈職)을 하였으니 이를 듣고 보는 자들이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정개청과 유몽정, 이황중 등은 비록 인품의 고하가 다르고 죄를 입음에 선후가 있기는 하나 원통하고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개청은 호남인 중에서 특히 이름이 있어 평생토록 학술과 행실로서 자임하였는데 우연히 한 편의 논설을 저술한 것으로 죽음에 이르렀으니, 나덕윤(羅德潤) 등의 무리들이 천 리 길을 발을 싸매고 와서 문을 두드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이 당연합니다.

대저 큰 병란과 큰 옥사는 한·당(漢·唐)이 망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큰 옥사의 뒤에 반드시 큰 병란이 있었던 것은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심이 이전의 일을 경계로 삼아 나라의 명(命)을 장래에 일신하고자하는데 백성들이 만약 저승에서 원통함을 품고 결백을 밝히지 못한다면 어둡고 답답한 기운이 올라가 하늘의 조화에 간여하여 국가 형정(刑政)의 누가 될 수 있으니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신들의 뜻에는 정개청과 유몽정, 이황중 등에게는 특히 유생의 소(疏)를 윤택하시어 모두 신원하여 결백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밖에 소차(疏筭)에서 미처 거론하지 못한 자들 또한 많이 있으니 임진년(壬辰年) 하교(下敎)에 의거하여 법에 마땅히 연좌되는 경우 외에는 모두 옥문을 열어 석방하는 뜻으로 의금부로 하여금 상세히 개록(開錄)⁴²⁸⁾하게 하고 관련된 실상의 경중에 따라 일체 석방하여 그물을 건어주는 은혜를 깊은 땅 속과 얹어놓은 향아리 속까지도 고루 입을 수 있게 해주신다면 유신(維新)의 정사(政事)에 보탬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황공하게도 감히 아뢰옵니다.

비답(批答)하시를, “이후에 마땅히 면대하여 의논하라.” 하였다.

426) 유몽정(柳夢井) : 1557~1590. 자(字)는 경서(景瑞). 조선시대 호남 지역 문신으로 기축옥사 때 옥사하였으며 무고로 옥사한 것이라 의심되었다.

427) 이황중(李黃鍾) : 1534~1590. 자(字)는 중초(仲初). 조선시대 호남 지역 문신으로 기축옥사 때 사망하였다.

428) 개록(開錄) : 개록이란 상급 기관에 문서를 보낼 때, 문서의 후반에 이름이나 의견을 적어 보내는 일을 말한다.

곤재 정개청 선생에게 올린 편지

【1577년 7월 24일 당시 공의 나이 21세였다.】

上困齋鄭先生書【丁丑七月二十四日, 時公年二十一.】

황면재(黃勉齋)⁴²⁹는 자신의 스승 주자(朱子)의 상(喪)을 당하여 조복에 마질(麻經)까지 가하였는데⁴³⁰ 제도는 심의(深衣)⁴³¹와 같았고 관질(冠經)을 착용하였습니다. 왕백(王栢)⁴³²은 자신의 스승 하기(何基)⁴³³의 상에 심의를 입고 대질(帶經)⁴³⁴을 두르며 관(冠)에 사무(絲武)를 더하였습니다. 왕백이 죽자 그의 제자 김인산(金仁山)⁴³⁵은 백건(白巾)에 수질(首經)을 더하였는데, 수질은 시마복(總麻服)⁴³⁶과 같이 하고 소대(小帶)는 가는 모시 베를 썼습니다.⁴³⁷ 황면재, 왕백, 김인산 세 군자는 모두 주자 문하의

429) 황면재(黃勉齋) : 남송(南宋)의 성리학자인 황간(黃幹, 1152~1221)을 말한다. 자는 직경(直卿)이며, 면재(勉齋)는 호이다. 주희(朱熹)의 문인으로, 그의 사위가 되었다.

430) 마질(麻經)까지 가하였는데 : 원문의 ‘가마(加麻)’는 오복제에 속하지 않지만 복을 입을 대상인 경우 머리에 환질(環經), 즉 마(麻)로 만든 수질(首經)만 두르는 것을 말한다.

431) 심의(深衣) : 대개 흰 베를 써서 두루마기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소매를 넓게 하고 검은 비단으로 소맷단을 두른 것으로 주로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옷이다.

432) 왕백(王栢) : 1197~1274. 송나라 때 학자이며 자는 회지(會之)·백회(伯會), 호는 장소(長嘯)·노재(魯齋),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황간(黃幹)의 제자 하기(何基)에게 배웠다.

433) 하기(何基) : 1188~1269. 남송 무주(婺州) 금화(金華) 사람으로 자는 자공(子恭)이고, 호는 북산(北山). 주희(朱熹)의 문인 황간(黃幹)에게 수학하였다.

434) 대질(帶經) : 상복에 허리에 두르는 것을 대(帶)라 하고, 머리에 두르는 것을 질(經)이라 한다.

435) 김인산(金仁山) : 송나라 말기, 원나라 초기의 학자인 김이상(金履祥, 1232~1303)으로, 인산(仁山)은 그의 호이다. 주희(朱熹)와 면재(勉齋) 황간(黃幹)의 학통(學統)을 이어받아, 절학(浙學)을 중흥하였다.

436) 시마복(總麻服) : 조선시대에 입었던 오복(五服) 중의 하나. 가는 베로 만든다.

437) 황면재(黃勉齋) …… 썼습니다. : 구준(丘濬)의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 권51 〈치국평천하지요(治國平天下之要) 명예악(明禮樂) 가향지례(家鄉之禮)〉에 “송나라 유학자 황간이 그의 스승인 주자(朱子)의 상에 조복(弔服)에 가마(加麻)하였는데 제도는 심의(深衣)와 같았고 관질(冠經)을 착용하였으며, 왕백이 그의 스승인 하기(何基)의 상에 심의를 입고 대(帶)와 질(經)을 더하고 관(冠)에 사무(絲武)를 더하였으며, 왕백이 죽자 그의 제자인 김이상이 상을 치르면서 백건(白巾)에 수질(首經)을 가하였는데, 수질은 시마복의 수질과 같았고 소대(小帶)는 가는 모시 베로 만들었다. 황간·왕백·김이상 세 사람은 모두 주자 문하의 적전(嫡傳)이니, 그들이 만든 스승을 위한 복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후

적통이었으나 스승을 위해 조복을 입는 결정에 조금씩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았으니, 무엇으로 준거를 삼아야 하겠습니까? 또 스승을 위하여 삼년상을 지냈는데 그들은 관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도사(都事) 김천일(金千鎰)⁴³⁸⁾ 문인들의 말을 들으니 “선생께서는 지금 일재(一齋)⁴³⁹⁾ 【이항(李恒)】의 상을 만났으나 이미 조정에 몸을 바쳤기에⁴⁴⁰⁾ 관직을 떠나지 못한다.”라고 하였는데 제 생각에는 매우 편치 않아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군자는 연고가 있으면 있는 곳에 따라 당시의 일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까? 옛날 공자(孔子)의 문하에는 오직 안연(顔淵)과 민자건(閔子騫)만이 벼슬을 하지 않았는데, 공자께서 돌아가시자 칠십 명의 제자들이 집을 짓고 삼년 상 치르기를 마치 아버지 상을 치르는 것처럼 하였으나 복은 입지 않았으니 칠십 명의 제자는 예를 아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또 몸소 최마복(衰麻服)⁴⁴¹⁾을 입지는 않으나 마음에는 슬퍼하는 감정이 있어서 마치 부모를 잃은 것 같은 뜻과 정자(程子)가 말한 바 안연과 민자건 같은 사람은 공자에 대해서는 비록 참취(斬衰)⁴⁴²⁾를 삼년 간 입더라도 괜찮다고 했던 뜻을 미루어 보면 진실로 평소 스승을 섬기는 은혜와 의리가 모두 지극하니, 삼년 간 관직을 떠나는 것이 비록 《예경(禮經)》에 실려

세에 스승의 은혜와 의리에 보답하고자 하는 자들은 의당 이를 준하여 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였다.

438) 김천일(金千鎰) : 1537~1593. 이항(李恒)의 제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경명(高敬命), 최경회(崔慶會)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크게 활약하였다. 왜적이 남으로 퇴각할 적에는 진주성(晉州城)에 주둔하여 사력을 다해 싸우다 성이 함락되자 투신 자결하였다.

439) 일재(一齋) : 1499~1576.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항지(恒之), 호는 일재,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1566년 명경행수(明經行修)로 추천되어 벼슬길에 올라 1574년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을 거쳐 장악원정(掌樂院正)을 지냈다. 저서로는 《일재집(一齋集)》이 있다.

440) 몸을 바쳤기에 : 원문의 ‘위질(委質)’은 처음 벼슬하는 사람이 임금에게 예물(禮物)을 바치는 것으로 전하여 처음 벼슬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또는 자기 몸을 임금에게 맡긴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春秋左傳 僖公24年》《國語 晉語9》

441) 최마복(衰麻服) :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의 상중에 후손이 입는 상복인 베옷을 뜻한다.

442) 참취(斬衰) : 오복(五服) 중의 하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상(喪)에 입는 것으로 거친 베로 짓되 아랫단을 꿰매지 않고 접는다.

있지는 않았더라도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김천일의 문하에서 저를 꾸짖고 책하는 비방이 많으니 매우 우습고 우습습니다.

도사 김천일과 함께 한 성(城)에 있어 본래 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이항 선생에게 수학하여 총명하고 언변이 좋았기에 세상의 중망을 받아 천거되어 이름난 관리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항 선생이 돌아가시자, 비록 초상에 달려왔다고는 하지만 한 번 조문한 뒤로는 장례의 일을 조치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는 요를 여러 겹으로 깔고 앉아서⁴⁴³⁾ 관의 지공(支供)을 받고 빈객들을 응접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스승이 살아 있을 때는 달려가서 잘 모셔 명성을 낚는 미끼로 삼고, 돌아가시자 마침내 등을 돌려 배신한 것입니다. 저는 강직한 성미로 강개한 마음을 많이 표출하고, 그의 문인들과 극언으로 변론하며 간간히 거칠고 난폭한 기운을 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김천일 문하에서는 방문한 향인(鄉人)에게 드러내어 말하지 않겠다고 깊이 생각하였다고들 하니, 말세의 교묘하고 험한 인심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소견이 과연 의리의 정당함에 부합합니까? 바라건대 또한 살펴봐 주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주자께서 연평(延平)⁴⁴⁴⁾ 선생의 상(喪)에 복(服)을 입지 않고 조정에서 토론하셨다는데 그러합니까? 또한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이에 곡절이 많이 있었으나 이 사람의 행사가 뜻밖에 나오고 날까지 저물어 급하게 대략 씁니다. 마음이 어수선하고 기운이 없어 비똥비똥하게 쓰게 되어 매우 황공합니다.

443) 요를 …… 앉아서 : 원문의 ‘누인(累茵)’은 《공자가어(孔子家語)》 권2〈치사(致思)〉에 자로가 “남 쪽으로 초나라에서 유세하여 시종하는 수레가 백 대나 되고 쌓인 곡식이 만 종이나 되며, 자리를 겹쳐서 앉고 술을 늘어놓고 먹었습니다.[南遊於楚, 從車百乘, 積粟萬鍾, 累茵而坐, 列鼎而食.]” 하였는데, 전하여 높은 벼슬을 하며 누리는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말로 쓰인다.

444) 연평(延平) : 송(宋)나라 학자 이통(李侗, 1093~1163)을 말한다. 연평은 호이고 자는 원중(愿中),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양시(楊時)의 제자인 나종언(羅從彦)에 수학하였고 주자(朱子)의 스승이다.

답서를 붙이다 【곤재 정개청】

附答書【困齋】

스승의 상례라는 일에 대해 논변한 것이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합당하니 그대의 군자다운 정직함에 탄복하였습니다. 주자께서는 연평에게 다만 수학했을 뿐입니다. ‘수학’이라는 것을 주자는 “종유(從遊)하다.”라고 말하였으니, 대개 존경하지만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이항에게 수학만 하였을 뿐이라면 지금의 처신이 오히려 혹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만약 스승⁴⁴⁵⁾이 어리석음을 깨우쳐준 은혜가 있는데도 그렇다면 나머지는 죽히 볼 것도 없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친구 간에도 오히려 마땅히 복을 입고 마질(麻經)까지 가하였는데, 하물며 은혜와 의리가 무거운 스승에 대해 어찌 슬픔을 표출하는 변화가 없을 수 있었습니까.

황면재(黃勉齋), 왕백(王栢), 김이상(金履祥) 세 군자가 입은 조복이 같지 않은 것에 대해 나는 예에 정해진 복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은혜의 경중(輕重)과 슬픔의 심천(深淺)에 따라서 그것을 드러내 입은 것뿐이니, 이후에 스승을 위해 조복(弔服)을 입은 자는 마땅히 은혜와 슬픔의 얕고 깊음에 따라 정할 일입니다. 만약 이미 군주에게 몸을 맡겼다고 하여 심상(心喪) 삼년복을 입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하된 자는 끝내 대공(大功)⁴⁴⁶⁾의 상례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니 그것이 관찰겠습니까. 이른바 오직 있는 곳에 따라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군주 곁에 있으면 군주를 위해 죽고, 부모 곁에 있으면 부모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지 군주를 모시고 있어서 삼년의 상에 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445) 스승 : 원문의 ‘함장(函丈)’은 스승이나 장자(長者)가 앉는 자리를 뜻하는 말로, 함연(函筵)이라고도 한다. 제자가 스승의 자리와 한 길[一丈]의 거리를 둔 것에서 유래하였다. 《예기》〈곡례 상(曲禮上)〉에 “만일 음식 대접이나 하려고 청한 손이 아니거든, 자리를 펼 때에 자리와 자리의 사이를 한 길 정도가 되게 한다.[若非飲食之客, 則布席, 席間函丈.]”라고 하였다.

446) 대공(大功) : 다섯 등급의 복 중 하나로 굵은 베로 지었으며 대공친의 상사에 9개월 동안 입는 복제(服制)이다. 다섯 등급의 상복(喪服)으로, 참취(斬衰) 3년, 자취(齊衰) 1년, 대공(大功) 9개월, 소공(小功) 5개월, 시마(緦麻)는 3개월을 가리킨다.

“아버지의 상을 당한 것처럼 하되 복은 입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관직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들이 마땅히 못 사람들의 긍휼(矜恤)함을 포용하여 마음을 가눌 수 없어 지나치게 명백하고 곧은 성품으로 다툼의 빌미를 일으켜서는 안 될 듯합니다. 잘 모르겠으나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스승의 상례라는 한 가지 일에 대해 답해 보겠습니다. 《예기》를 상고해보면 “심상 삼 년⁴⁴⁷⁾”이라 하였고, 또 “아버지의 상을 치르는 듯이 하면서 복을 입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공자의 상에 제자들이 모두 수질(首絰)을 하고 나갔다.”고 하였고, 《의례(儀禮)》〈상복(喪服)〉의 주석에서는 “모두 수질을 하고 나갔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스승을 위해 나간 것이며 떠날 때에도 역시 수질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자께서 “안연과 민자건은 공자에 대하여 비록 참취(斬衰)를 입고 삼년상을 지내더라도 괜찮다.”라고 하였고, 주자께서는 “스승에 대한 의리는 친구와는 구별되니 임금이나 아버지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만약 그 상복을 논한다면 마땅히 임금이나 아버지와 같아야 하므로 《예기》에서 아버지의 상을 치르는 것처럼 하면서도 복은 입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말씀하시길 “평소에 거처할 때에는 수질을 두른다.”라고 하였고, 또 《의례》〈상복〉 기(記)에 봉우 간에 마(麻)를 한다는 주(註)에 “봉우는 비록 친족 관계는 아니나 도(道)를 함께 하는 은혜가 있어 시마복(總麻服) 때에 쓰는 질대(絰帶) 차림을 한다.⁴⁴⁸⁾”라고 하였으니 그 복은 조복(弔服)이고, 그 관(冠)은 공경대부(公卿

447) 심상 삼 년 : 《예기》〈단궁 상(檀弓上)〉의 ‘심상삼년(心喪三年)’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註)에 “심상은 슬퍼하는 모습이 부친상을 당한 것과 같은데, 복이 없는 것이다.[心喪戚容如父而無服也]”라고 하였다. 심상은 스승의 상을 당했을 때, 비록 상복은 입지 않더라도 슬퍼하는 마음만은 상복을 입고 있을 때처럼 하는 것을 말한다.

448) 봉우는 …… 한다. : 《의례(儀禮)》〈상복(喪服)〉에 “봉우를 위해서는 마를 한다.[朋友麻]”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의례주소(儀禮注疏)》 정현(鄭玄) 주에서 이르기를 “봉우는 비록 친족 관계는 아니나 도(道)를 같이하는 은혜가 있으므로 서로를 위하여 시마복(總麻服) 때에 쓰는 질대(絰帶) 차림을 한다. 《예기(禮記)》〈단궁(檀弓)〉에 이르기를 ‘여럿이 함께 있을 때에는 질을 두르고, 밖으로 나갈 때에는 두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옷은 조복을 입는다.[朋友雖無親, 有同道之恩, 相爲服總之絰帶. 檀弓曰羣居則絰, 出則否, 其服弔服也.]”라고 하였다.

大夫)와 사(士)는 변질(弁絰)⁴⁴⁹⁾을 쓰고 서인은 소위모(素委貌)⁴⁵⁰⁾를 쓴다고 하였습니다.

조복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왕이 삼공육경(三公六卿)을 위해 입는 석취(錫衰)⁴⁵¹⁾, 제후를 위해 입는 시취(緦衰)⁴⁵²⁾, 대부와 사를 위해 입는 의취(疑衰)⁴⁵³⁾가 있습니다. 제후와 경대부 또한 시취로 조복을 삼고, 친구 간에 서로 입는 복은 선비[士]의 조복이 됩니다. 의취와 소상(素裳)⁴⁵⁴⁾의 주에 “서인은 하얀 모시로 된 심의를 입는다. 석취라는 것은 석마(錫麻)중에서도 부드럽고 고운 것인데 15승(升) 중에서 그 절반을 제거하니 그 삼베[布]는 일삼음이 있고 그 올[縷]은 일삼음이 없는 것이다. 시취(緦衰)는 또한 15승 중에서 그 절반을 제거하니 그 올[縷]은 일삼음이 있고 그 삼베[布]는 일삼음이 없는 것이다. 의취(疑衰)는 14승이며 의(疑)라는 말은 비긴다[擬]는 말이니, 길(吉)에 비긴다는 것이다.”⁴⁵⁵⁾라고 하였습니다.

이 몇 가지 설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심상 삼년복은 조복의 제도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스승의 은혜와 의리는 임금과 아버지에 대한 것과 같으니, 그 조복은 아마 자취(齊衰)의 승과 그 수가 같을 것이고, 질대는 아마 기공(期功)·대공(大功)의 대소(大小)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황면재,

449) 변질(弁絰) : 상복 제도에서 변(弁 고깔) 위에 삼으로 끈 끈을 더하여 두르는 것이다. 환질(環絰)이라고도 한다.

450) 소위모(素委貌) : 원문의 ‘위모(委貌)’란 주(周)나라의 관(冠)으로, 후대의 진현관(進賢冠)과 비슷한 모양이다. 원문의 ‘소위모(素委貌)’는 흰색 비단으로 만든 위모를 말한다. 《의례》〈사관례(士冠禮)〉에 “위모는 주나라의 도이다.[委貌, 周道也.]”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현의 주에 “위(委)는 편안함과 같으니, 이 관을 써서 용모를 편안하고 바르게 함을 말한 것이다.[委, 猶安也, 言所以安正容貌.]”라고 설명하였다. 위모는 보통 검은 비단으로 만드는데, ‘소위모’는 흰색 비단으로 만든 것이다.

451) 석취(錫衰) : 세마포(細麻布)로 지은 상복, 석(錫)은 석(緇)과 통한다. 고대에 왕이 삼공(三公)과 육경(六卿)을 위해서 입었던 상복인데, 후대에는 대부끼리 서로 조문할 때에도 입었다.

452) 시취(緦衰) : 시취(緦衰)는 천은 빨지 않고 베를 짤 때에 실을 가늘게 뽑아서 만든다. 왕이 제후의 상에 조문할 때 입었다.

453) 의취(疑衰) : 길(吉)에 건주는 상복이라는 뜻으로 고대에 왕이 대부(大夫)와 사(士)를 위해서 입었던 상복인데, 후대에는 사끼리 서로 조문할 때에도 입었다.

454) 소상(素裳) : 흰색의 하상(下裳)으로, 길복(吉服)과 흉복(凶服)에 모두 착용한다.

455) 서인은 …… 것이다. : 《주례주소(周禮註疏)》정현(鄭玄)의 주석에 나온다.

왕백, 김인산 세 현자가 스승을 위해 입은 복은 조복의 제도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예의에 준하여 본다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다만 은혜와 의리의 경중은 알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옛 예의의 올바름을 가지고 논의한 것일 뿐이니, 만약 말세에서 이른바 현자들이 행했던 일들을 가지고 살펴보면 앞의 세 현자들이 스승을 위해 입은 조복의 제도가 어찌 우뚝하게 높이높아 미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말세의 이른바 현자라는 이들은 반드시 모두 의리로 스승에게 구하는 것도 아니며, 더러는 공리(功利) 때문에 서로 따르는 경우가 있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사우(師友)들과 강론하는 것이 언어와 문자 사이에 그칠 뿐이며 기대하는 것도 남들에게 알려지기를 구하거나 얻을 것만 꾀하는 사사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그들은 격물치지(格物致知), 성의정심(誠意正心)의 실제와 만물을 밝히고 인륜을 고찰하는 근본에 대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일에 임하여 시행하고 조치할 때 공정하게 사리에 밝지 못하고 한결같이 이익을 도모하고 공리(功利)를 꾀하여 처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니 스승의 상에 복을 입지 않은 일이야 무슨 괴이할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른바 스승이라는 것은 그 은혜와 의리가 가벼운지 중한지, 얕은지 깊은지에 따라 차등이 다르니 우선 그 한두 가지를 거론해보면, 구두(句讀)와 훈고(訓詁)의 스승이 있고, 문장(文章)과 공리(功利)의 스승이 있으며, 종유(從遊)와 수학(受學)의 스승이 있고, 수업(受業)과 전도(傳道)의 스승이 있습니다. 더러는 대성(大聖)이고 더러는 대현(大賢)이며 더러는 현인(賢人)에 버금가니, 도덕의 크고 작음과 은의(恩義)의 가벼움과 중함을 살펴보고 자신의 복(服)을 걸맞게 할 뿐입니다. 어떤 경우는 삼년복, 어떤 경우는 기년복, 대공복, 소공복, 시마복으로 저절로 등분(等分)이 없을 수가 없으니 이 또한 알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살아계실 때는 스승을 섬겨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돌아가신 뒤에는 마침내 배신하여 그 은혜와 의리를 잊어버리는 자라면 또 어찌 함께 도를 논의하기에 족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보낸 편지【함께 귀양 갔던 영남 사람으로 성명은 전하지 않는다. 1592년 6월 일 회령 귀양지에 있을 때이다.】

與人書【嶺南人同被謫者，而姓名無傳。壬辰六月日，在會寧謫所時.】

호남과 영남으로 떨어져 살다가 변방 너머에서 서로 만나게 되어 여러 해를 어울리며 함께 가슴 속까지 내보였으니 인정과 의리의 친분이 혈육을 뛰어넘습니다. 지난번 방문하셨을 때에 사랑하고 염려하시는 뜻을 크게 입어 더욱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강(東岡)⁴⁵⁶ 선생께서 떠나신 뒤로【아마도 빠진 글자가 있는 듯하다.】우리들의 처지가 더욱 쓸쓸한데,⁴⁵⁷ 그대와의 거리가 멀지 않으나 각자 쓸데없는 일들에 얽매어 조석으로 정답게 만날 수 없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번민에 잠기게 합니다.

근래에 듣기로는 적의 형세가 기세등등하여 임금께서 수레를 타고 또 서경(西京)⁴⁵⁸으로 피신하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안변(安邊)⁴⁵⁹이 함락되어 방백(方伯)들은 몸을 숨기고 왕주(王胄)⁴⁶⁰처럼 깊이 들어오려는 계책이 있으니, 고금 천하에 오늘날과 같은 참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본래 인재를 모아 양성하지 않았으니 이러한 큰 환란을 당하여 누가 거친 주먹을 휘두르고 크게 발길질하며⁴⁶¹ 평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456) 동강(東岡) : 김우옹(金宇顙, 1540~1603)으로,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숙부(肅夫), 호는 동강·직봉(直峯)이다. 조식(曹植)의 문인이며, 외손서이다. 1558년 진사가 되었고 1567년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에 급제한 후 이조 좌랑, 홍문관 직제학, 성균관 대사성, 사간원 대사간, 이조 참판 등을 지냈다. 저술로 《속자치통감강목(續資治通鑑綱目)》, 《경연강의(經筵講義)》, 《동강집》이 있다.

457) 쓸쓸하고 : 원문의 ‘우우(踽踽)’는 친한 사람이 없어 쓸쓸한 모습을 뜻한다. 《시경》〈당풍(唐風) 체두(杕杜)〉에 “쓸쓸히 홀로 길을 가니, 어찌 타인이 없으랴마는, 내 형제만 못하니라. 아 길 가는 사람들은, 어찌 도와주지 않는고.[獨行踽踽，豈無他人。不如我同父。嗟行之人，胡不比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458) 서경(西京) : 고려시대 사경(四京) 가운데 하나로 지금의 평양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459) 안변(安邊) :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함경도에 속한 도호부였다. 지금은 북한의 강원도에 속한 군(郡)이다.

460) 왕주(王胄) : 수(隋) 나라 시인이다. 수 양제(隋煬帝)보다 시가 낫기 때문에 늘 미움을 받다가 그로 하여 해침을 당했다.

461) 거친 …… 발길질하며 : 주희(朱熹)가 진량(陳亮)에게 준 편지에 “공자가 어찌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정성스럽지 않았으며, 맹자가 어찌 거친 주먹을 휘두르고 크게 발길질하지 않았겠는가.[孔子豈

몸을 숨겨 달아날 곳이 없어 하루아침에 화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걱정이니 한번 오셔서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제학 김성일에게 올린 편지〉 한 통을 숨기지 않고 찾아 부칩니다. 이 편지의 첫 부분은 남들이 보면 번거로운 일이 있을까 두려워 감히 마음속 말을 다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품고 있는 생각을 충분히 알 수 있을 테니 끝내 동지에게 침묵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차운시 또한 지어 올리니 아울러 해아려주십시오. 틀림없이 만날 테니 일일이 쓰지 않겠습니다.

부제학 학봉⁴⁶²⁾ 김성일에게 올린 편지

上鶴峰金副提學誠一書

성주⁴⁶³⁾께서 왜국에 사신의 임무를 받드신 뒤로 마음이 온통 걱정스러워 일찍이 먹고 쉬는 사이에도 감히 잊지 못하였는데, 지금 들으니 거센 파도를 잘 건너시고, 또 사신의 임무를 잘 처리하고⁴⁶⁴⁾ 돌아와서 임금의 은혜에 감응하고 임금의 은총과 영광을 받으셨더군요. 이는 실로 정성이 금석(金石)을 뚫고 신물(神物)이 호위한 바이니, 변변찮은 저는 공경히 박수를 보낼 뿐 어찌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행실이 신명(神明)을 저버려서 이런 기이한 화를 만나 칠십이 되신 늙은 아버지와 떨어져 삼천리 밖에 유배되었습니다. 불효의 죄는 스스로 속죄할 길이 없고, 얹어지고 고꾸라지는 고통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지경이라

不是至公至誠, 孟子豈不是龔拳大踢.]”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晦庵集 卷28 答陳同夫書》

462) 학봉(鶴峰) : 김성일(金誠一, 1538~1593)로,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사순(士純), 호는 학봉(鶴峯),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568년 증광시 병과에 급제하였다. 1577년 사은사(謝恩使)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를 다녀왔다. 경상 우도 병마절도사·초유사·경상 우도 관찰사·순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학봉집(鶴峯集)》 등이 있다.

463) 성주(城主) :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을 가리킨다.

464) 사신의 임무를 잘 처리하고 : 원문의 ‘전대(專對)’는 외국에 사신으로 나가서 독자적으로 응대하며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논어》〈자로(子路)〉에 “시경 삼백 편을 외우면서도 정치를 맡겼을 때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사방으로 사신 가서 혼자서 처결하지 못한다면 비록 많이 외운다 한들 어디에 쓰겠는가.[誦詩三百, 授之以政, 不達, 使於四方, 不能專對, 雖多, 亦奚以爲.]”라는 말이 보인다.

겨우 죽음만 모면했으니 다른 일이야 어찌 말씀 드리겠습니까. 믿을 것은 하늘의 태양 같은 임금의 밝고 밝음이 없어진 항아리의 속의 어둠⁴⁶⁵⁾을 비추어 주시는 일 뿐입니다.

별지(別紙)에 적은 슬픔과 간절함은 오로지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마음을 믿고 사사로이 품고 있던 생각을 솔직하게 토로한 것이니, 한 번 보시고 불에 태워 다른 이들의 눈에 뜨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언제쯤 다시 빛나는 모습을 뵈 수 있겠습니까? 이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고 나니, 다만 더욱 목이 메일 뿐입니다.

별지 別紙

기축년(1589) 겨울에 있었던 일⁴⁶⁶⁾을 생각하니 여섯 부자(父子)⁴⁶⁷⁾가 함께 중대한 옥사로 모함을 받을 적에 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은 한마디 말도 위로해준 적이 없었으나 오직 우리 성주께서 편지를 내려 위로해주셨고, 우리 일가족이 온전히 목숨을 보전하게 되기에 이르자 그것을 효성이 응한 소치로 돌리셨으니, 군자의 마음이 평탄하거나 어려움에 따라 지조를 바꾸지 않은 점에 삼가 탄복하고, 또한 보잘것없는 제가 어찌 성주의 지우를 입어 이와 같기에 이르렀는지 감탄하였습니다.

스스로 도깨비나 살 것 같은 시골에 들어가 흙집에서 흙덩이처럼 엎드려

465) 엎어져서 …… 속까지 : 원문의 ‘복분(覆盆)’은 태양이 밝아도 땅에 엎어 놓은 동이 속에는 태양 빛이 미치지 못한다는 뜻인데, 억울한 사정을 위사람이 몰라준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포박자(抱朴子)》〈변문(辨問)〉에 “해와 달도 비치지 못하는 곳이 있고, 성인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어찌 이 때문에 성인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며 천하에 신선이 없다고 하겠는가. 이것은 바로 삼광이 엎어 놓은 동이 안을 비추지 못한다고 책망하는 격이다. [日月有所不照, 聖人有所不知. 豈可以聖人所不爲, 便云天下無仙. 是責三光不照覆盆之內也.]”라고 하였다.

466) 기축년(1589) 겨울에 있었던 일 : 기축옥사. 1589년(선조 22)에 일어났으며,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을 계기로 동인이 서인의 박해를 받은 옥사를 말한다.

467) 여섯 부자(六父子) : 아버지 나사침(羅士枕), 첫째 나덕명, 둘째 나덕준(羅德峻), 셋째 나덕윤(羅德潤), 넷째 나덕현(羅德顯), 다섯째 나덕신(羅德愼), 여섯째 나덕헌(羅德憲)을 지칭하는 말이다.

살면서 예전의 잘못들을 들추어보니, 대체로 평생의 제 행실은 단지 선(善)을 좋아하나 밝게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싫어하나 미워함이 지나치게 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소인배들이 농간을 부리고 말을 만들어내며 기회를 엿보아 모함에 빠지게 하여 그 재앙이 장차 친족을 모조리 죽일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남쪽 지방 선비들의 습속이 괴팍하고 심술이 그르다고 알려져 여우와 쥐새끼⁴⁶⁸⁾ 같은 무리가 우르르 모여 벼룩이 호랑이나 표범에 달라붙은 형세를 이루어 위로는 사대부로부터 아래로는 벼슬하지 않은 선비까지 모조리 일망타진하려는 계책을 세웠거늘, 성상께서 위에서 해와 달과 같은 빛으로⁴⁶⁹⁾ 보이지 않는 곳까지 통촉하시어 감히 그 흉악한 생각을 제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는 종사(宗社)의 복이요, 사림(士林)의 행운입니다.

아! 정적(鄭賊)⁴⁷⁰⁾은 애초에 마을 입구를 막고 사람을 겁박하는 도둑이 아니라 진실로 고상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간신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박학다식하여 사물의 이치에 막힘이 없다는 명목으로 세상에 명성을 떨쳤고 벼슬이 청요직에 이르렀으니, 비록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숨겨진 흉악함과 간특함을 미리 알아채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저와 같이 어둡고 아둔한 자야 어찌 그 사람이 거짓을 꾸며 온 세상을 속일 줄 알았겠습니까.

예전 도성에서 노닐 적에 율곡 선생께서 일찍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쪽 지방에서 학문하는 선비 중에 정철이 최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평소 선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일찍이 그 사람됨을 보고 싶어서 을유(乙酉 1585)년 봄에 아버이를 뵈러 도성에 올라갔다가 비로소 한번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과장되고 허황되었으며, 급기야 경연(經筵)에서 율곡 선생을 매우 심하게 공격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일찍이

468) 여우와 쥐새끼 : 원문의 ‘호서(狐鼠)’는 여우와 쥐를 이른다. 본래는 사람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성안에 사는 여우와 사당에 사는 쥐[城狐社鼠]’라는 고어(古語)에서 온 말로, 흔히 임금 곁에서 알랑거리는 간소배(奸小輩)에 비유된다.

469) 해와 달과 같은 빛으로 : 원문의 ‘이명(離明)’은 곧 일월(日月)의 밝음을 말한 것으로, 임금의 총명을 가리킨다. 《주역(周易)》〈이괘 상(象)〉에는 “밝은 것 둘이 이를 만드니, 대인이 그것을 인하여 밝음을 이어서 사방에 비추니라.[明兩作離 大人以 繼明 照于四方]” 하였다.

470) 정적(鄭賊) : 기축옥사를 이끌었던 정철(鄭澈)을 말한다.

형제간에 말하기를 “오랜 친구를 버리지 않는 것은 옛 사람도 경계한 일⁴⁷¹⁾인데 빛과 어둠처럼 서로 등지게 되었으니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으로 그를 매우 의심하였기 때문에 왕래하고 지나면서 일찍이 한 번도 그 문에 이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술(丙戌 1586)년 사이에 쇠약한 가문에 괴이한 변고가 있고 의론이 분분할 때 정적이 상도(上道)⁴⁷²⁾에 있으면서 시비를 주장하므로 도성에서 돌아오는 길에 과연 한 통의 편지를 써서 그 일의 전말을 논하였을 뿐이니, 어찌 받들어 존중하는 뜻이 있었겠습니까.

성주께서 나주에 계실 때 일찍이 정적의 심술을 논하였는데 제가 추종하여 그의 단점을 지적했던 일이 또한 많았습니다. 결국 한 번 얼굴을 보고 한 번 편지를 보낸 일로 마침내 큰 재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실로 운명이 기구해서이니 어찌겠습니까. 이 한 몸의 길흉화복은 마땅히 하늘의 뜻을 따르겠지만, 다만 연로하신 아버지의 노년을 생각하면 밤낮으로 통곡하게 될 것이니 자식 된 입장으로 마땅히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대개 겸허하고 선을 좋아하는 선비 중에 세상을 속이는 사람에게 연루되어 큰 참화를 입은 사람이 많으니, 조정에 어찌 그 원통함을 마음으로 아파하고 한랑(寒朗)⁴⁷³⁾처럼 다스려 풀어주고자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속으로 이해를 따지는 마음이 있고 겉으로 행적을 의심하여 그러한 일을 좌시하며 감히 한마디 말을 꺼내 구원하지 않으니,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비록 소득이 있는듯하나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은

471) 오랜 …… 경계한 일 : 《論語》의 〈泰伯〉에 나오는 말로 “군자가 친족에게 두터이 하면 백성들이 인에 흥기하고 옛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투기하지 않는다.[君子 篤於親, 則民興於仁, 故舊不遺, 則民不偷.]”고 하였다.

472) 상도(上道) : 남원(南原)·순천(順天) 일대의 전라도 동반(東半) 지역을 말한다.

473) 한랑(寒朗) : 후한(後漢) 때 사람으로 자가 백기(伯奇)이다. 명제 때 초왕(楚王) 유영(劉英)의 역욕이 발생하였는데, 유영의 무리인 안충(顔忠)과 왕평(王平) 등이 함께 역모를 하였다고 끌고 들어간 사람 가운데 수향후(隨鄉侯) 경건(耿建), 낭릉후(郎陵侯) 장신(臧信), 호택후(護澤侯) 등리(鄧鯉), 곡성후(曲成侯) 유건(劉建) 등이 있었다. 한랑은 이때 알자수시어사(謁者守侍御史)로서 이 옥사를 다스렸는데,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이 모두들 황제가 몹시 노한 데 겁을 집어먹고서 이들이 역모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서를 꾸몄으나, 한랑만은 이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 이를 사실대로 말하여 풀려나게 하였다. 《後漢書 卷41 寒朗列傳》

아마도 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성주께서 얼굴빛을 바르게 하고 조정에서 정성은 천지를 감동시키고 믿음은 신명과 통하여 이해와 행적을 초월하고 한결같이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으신다면 반드시 깊은 원한을 밝혀 씻어주어야 하는 책임을 갖고 한량으로 하여금 앞시대의 아름다움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할 것을 생각하실 터인데,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성주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곁에서 듣기로 조정에서 관대한 법을 적용하고 성스러운 덕이 또한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니 이것은 참으로 깊은 원한을 밝혀 씻을 수 있는 한 번의 큰 기회입니다. 원컨대 성주께서는 깊이 헤아리시고 빠르게 도모하소서. 서애 유성룡 상공(相公)께서 조사하여 국문하시는 것이 공평하고 분명하여 잘 처리되어 석방된 자 또한 많으니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감복하고 민심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도(斯道)를 붙들고 나라의 명맥을 연장하는 책무를 더욱 사양하셔서 안 됩니다. 원컨대 성주께서 협력하여 세상에 없던 공적을 도모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참의 구암 명길 한백겸⁴⁷⁴에게 보낸 편지

與久庵韓參議鳴吉百謙書

지난번 공께서 우연히 찾아오셨을 때 비록 식사하며 정담을 나누는 기쁨이 있었지만, 당상의 존귀함에 압도되어 자세히 대화를 나누며 평온하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여 더욱 답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맑고 화창한데 삼가 몸조리를 조용히保重하고 계신지요?

제 나이 오십이 넘어서야 비로소 벼슬에 나아갔지만, 백발로 세상 풍진을

474) 한백겸 : 1552~1615.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명길(鳴吉), 호는 구암(久菴)이다. 1579년 생원시에 합격한 이후 관직 생활을 하였으나, 1589년 정여립 사건에 연루되어 귀양을 갔다가 임진왜란으로 사면되고, 다시 벼슬에 기용되었다. 특히 선조가 인재를 천거하라는 명령에 정탁은 한백겸을 재략(才略)이 있는 인물로 추천하기도 하였다. 그는 《주역》에 뛰어났으며, 실증적이고 고증학적인 학술 경향이 있다. 저술로는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 《기전고(箕田考)》와 문집 《구암유고(久菴遺稿)》가 있다.

겪었으니 무슨 심정이겠습니까? 몸소 큰 환란을 겪고, 또 노모와 오랜 벗들이 모두 신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하여 이에 감히 평소 소신을 바꾸고 변변치 않은 일들로 분주하였으나 결국 이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초복(初服)⁴⁷⁵⁾에 부끄러워 참으로 몹시 절로 슬픕니다.

우리 조선 200년간 유학⁴⁷⁶⁾의 근원을 밝게 탐구하고 정주학(程朱學)⁴⁷⁷⁾을 계승한 이가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고려 말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가 성리학을 처음 열었고, 그 후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네분의 선생께서 서로 계승하여 도학을 일으켜 비로소 세상을 밝혔는데, 모두 뜻밖의 재앙을 면치 못하시어 그 도가 크게 행하지 못하였으니 기묘사화(己卯士禍)⁴⁷⁸⁾와 을사사화(乙巳士禍)⁴⁷⁹⁾의 참혹함을 차마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어 죽이고 소멸시킨 나머지 자리에서 퇴계(退溪) 이황(李滉), 남명(南冥) 조식(曹植)이 그 사이에서 출현하여 사문(斯文)을 창도하여 일으키셨습니다. 성상께서 초년에 유학을 높이고 도(道)를 중히 여기시어 일대의 어질고 재주 있는 이들이 무성히 세상을 위해 등용되니 사람들은 모두 선을 지향하게 되고 세상의 도(道)가 볼 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무리 또한 이러한 풍조를 듣고 흥기한 자들이고, 우리 형께서 이런 마음을 제기하셨으니 어찌 선현(先賢)들의 【아마도 글자가 빠진 듯하다】 풍조에 힘입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475) 초복(初服) : 벼슬하기 전에 입던 옷이라는 뜻으로, 벼슬을 떠나 처음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 은거함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굴원(屈原)이 지은 <이소(離騷)>의 “물러가 다시 나의 초복을 손질하라.[退將復修吾初服]”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476) 유학 : 원문의 ‘수사(洙泗)’는 중국 산둥성(山東省) 곡부(曲阜)를 지나는 두 개의 강물 이름으로, 이곳이 공자의 고향에 가깝고 또 그 강물 사이의 지역에서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보통 유학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477) 정주학(程朱學) : 원문의 ‘낙건(洛建)’은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朱熹), 또는 그들의 학문인 정주학을 가리킨다. 정호와 정이는 낙양(洛陽)에서, 주희는 복건(福建)에서 살며 강학하였다.

478) 기묘사화(己卯士禍) : 1519년(중종 14)에 일어난 사화. 훈구파가 성리학에 바탕을 둔 이상 정치를 주장하던 사림파(士林派)를 죽이거나 귀양 보낸 사건을 말한다.

479) 을사사화(乙巳士禍) : 1545년(명종 원년)에 일어난 사화. 윤형원이 윤임 일파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윤임과 함께 했던 사림(士林)이 큰 화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아! 기축년(1589)의 변고가 진신(搢紳)들로부터 나왔을 때 만약 조정에서 협력하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분노하며 간적(奸賊) 정철(鄭澈)이 세상을 속였던 상황을 극진히 간언하였다면 어찌 사람에게까지 미칠 수 있었겠습니까. 간적 정철은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때를 틈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려 이미 조정에 섰던 명사들을 죽이고, 산야에 은거하던 선비들마저 살해하였습니다. 벼슬길의 풍파는 옛날에도 있었지만, 어찌 산림에 숨어 수양하면서 도학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던 자들까지 아울러 역모를 꾸몄다는 화(禍)를 입힐 수 있었겠습니까? 고금 천하에 참으로 원통함이 심합니다. 율곡은 비록 사람을 알아보는 것에 밝지 못하였으나 본심은 선량하니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담당하게 했다면 반드시 살육의 재앙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 간적 정철처럼 사납고 강박하며 화를 잘 내는 사람과 같겠습니까.

곤재(困齋) 선생께서 평생 사도(師道)를 자신의 소임으로 여기고 성리학의 근원을 정밀히 연구하여 사도(斯道)를 창도하고 밝히셨으니, 후생 소자들이 모두 그의 문하에 나아가면 반드시 예법으로 자신을 단속하였는데, 저 정철은 해학하고 방종하였으니 절의로 맑고 담박하며 스스로 고상한 자들을 몹시 시기하는 바가 지극하였습니다. 이에 배절의론(排節義論)을 지어내어 때를 틈타 모함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북쪽 변방으로 귀양 보내어 죽게 하였습니다. 그 아우 정대청(鄭大淸)은 형이 비명에 돌아가심을 애통해하여 상복을 입고 슬피 울부짖다가 14년 만에 말라 죽게 되었으니, 떳떳한 본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이런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십여 년 이래로는 공의(公議)가 지극히 엄중하고 인심(人心)을 속이기 어려워 초야의 선비들이 자주 상소를 올려 은혜를 바랐고 조정에서도 대신들이 자주 진언을 하였으며, 옥당(玉堂)에서는 차자(箚子)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로 먼저 죽자고 하는 친구가 조정에 없었고 지성으로 힘써 간쟁(諫爭)하러 나서는 자도 없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통곡이 나올만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고명(高明)께서 반드시 함께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며 계실 것인데 그 또한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존형께서 서관

(庶官)⁴⁸⁰의 반열에 있어 손을 쓸 처지가 아님을 알지만, 상서(尙書)의 두 대인(大人)께서 때때로 인재를 선발하거나 도를 논하는 책임이 있으시니, 형님께서 조용히 그 사이에서 억울한 죄상을 뒤집어쓴 원한을 풀어주신다면 무덤 속에서 감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斯道)를 붙들고 국가의 명맥을 연장하는 큰 기틀이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 형님의 깊은 계책을 믿고 성기(聲氣)⁴⁸¹에 의탁할 뿐입니다. 감히 마음속의 일을 진술하였으니 불쌍히 여기고 살펴 주시어 지극한 뜻에 부합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바라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영의정 한음 이덕형⁴⁸²에게 올린 편지【1610년】

上領相李漢陰德馨書【庚戌】

가을 기운이 싸늘한데, 삼가 대감의 기거가 평안하고 강녕하십니까? 오랫동안 소식을 듣지 못하여 대감의 덕스러운 모습을 흠양하였던 한결같은 제 마음은 감히 잠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 가문은 불행히도 흉화(凶禍)가 거듭 닥쳐와서 아우의 초상을 치른 지 오래되지 않아 형이 또 세상을 등졌으니 슬프고 참혹하여 스스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연로한 어머니의 노년에 양식을 마련할 길이 없어 구차하게 우관(郵官)⁴⁸³을 보전하며 보잘것없는 것에 머뭇거리고 있으니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가만히 들으니 상국께서 밀어주고 끌어주신 뜻이 매우 크다고 하는데, 용렬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지극한 뜻에 부응하겠습니까? 한갓 감회만 깊을 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원통함을 푸는 일은 이욕고 임금의 뜻을 돌려

480) 서관(庶官) : 6품 이하의 하급 관원을 이르는 말이다.

481) 성기(聲氣) : 《주역(周易)》〈건괘(乾卦)〉의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한다.[同聲相應 同氣相求]”에서 나온 말로, 뜻이 맞는 사람을 말한다.

482)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 : 이덕형(李德馨, 1561~1613)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명보(明甫), 호는 한음(漢陰)이다.

483) 우관(郵官) : 우편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로, 역(驛)의 찰방(察訪), 역승(驛丞)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승과 저승을 지극히 감동시켰으며 경사가 사림(士林)에 관계되는 일이니, 무릇 혈기가 있는 자 중에 누구인들 흔쾌히 여기며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조정의 처리와 결말이 어떠할지 모르겠으나 관직만 회복시키고 적몰(籍沒)⁴⁸⁴했던 재산만 지급해주는 정도라면 어떻게 민심을 기쁘게 하고 정기가 펼쳐지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경함(景涵) 【이발(李潑)의 자(字).】 형제는 효성스럽고 공손한 사람인데 대궐문에 머리를 나란히 하고 죽음을 당하였으니 그 원통함이 아마도 천지에 다 하였을 것입니다. 곤재(困齋) 선생은 머리가 하얗게 세도록 경서를 궁구하고 항상 스승의 도리로 자임하였으나 함께 잔혹한 수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우 정대청은 슬픔을 머금고 상복을 입은 채 결국 말라 죽게 되었으니 천고의 고통 중에 무엇이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까? 수우당(守憂堂) 최영경(崔永慶)은 오로지 기상과 의리를 숭상하여 한결같은 절조를 지닌 고상한 선비에 지나지 않았으며 포증(褒贈)⁴⁸⁵이 이미 지극하였습니다. 곤재 선생께서 평생토록 이룩한 학문의 조예는 한 가지 절조만 지닌 선비와 견줄 수 없거늘, 세상에 도(道)를 아는 자가 없으니 누가 이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상공께서 선을 좋아하고 선비들을 사랑하심은 진심에서 우러나왔고, 억울함을 슬퍼하며 풀어주심은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절로 나왔으니, 이러한 큰 기회를 맞이하여 마땅히 몸과 마음을 다해 덕을 드러내고 후세에 밝히심이 좋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고명께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선진(先進)들께서는 쇠락(衰落)하거나 거의 다 돌아가셨는데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⁴⁸⁶, 두암(斗巖) 조방(趙瑯)⁴⁸⁷, 사순(士純) 【학봉(鶴峯)

484) 적몰(籍沒) : 적록(籍錄)하여 몰수(沒收)하는 일을 말하는데, 중죄인의 재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을 관가의 문적(文籍)에 적고 모두 거둬들이는 것을 말한다.

485) 포증(褒贈) : 나라에서 포창하여 관직을 추증하는 것이다.

486) 이산해(李山海) : 1539~1609. 자는 여수(汝受), 호는 아계(鵝溪)로, 1561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이 대제학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고 복인의 영수가 되었다. 1591년(선조 24) 서인 측 대신인 좌의정 정철(鄭澈)로 하여금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도록 건의하게 만들고, 이를 빌미로 정철, 윤두수(尹斗壽), 윤근수(尹根壽) 등 서인의 주요 인물들을 대거 축출하고 권력을 잡아 서인으로부터 소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487) 조방(趙瑯) : 1557~1638. 본관은 함안(咸安), 자는 극정(克精) 호는 두암(斗巖) 반구정(伴龜亭)이다. 생육신 조려(趙旅)의 현손이다.

김성일(金誠一)의 자(字).】, 숙부(肅夫)⁴⁸⁸⁾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頤)의 자(字).】와 같은 여러 현인들도 이미 고인(故人)이 되셨으니 한 시대의 인물들을 돌아보면 아득해지니, 적을 물리쳐 깨끗이 소탕하는 공(功)을 상공께 바라지 않으면 누구에게 기대하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시되 빨리 도모하시어 사우(士友)들의 마음에 부응해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저처럼 온갖 걱정과 환란 속에서 갖가지 염려들을 덜어내려면 죽음을 각오할 뿐이며 다른 것에는 겨를이 없습니다. 【두 글자가 결락되었다.】 사우(師友)들의 뜻이 중하고 인정상 차마하지 못하였는데 황궁하게도 알아주시고 장려해주셔서 마음속에 하나의 떡처럼 맷힌 부분을 직접 토로한 것이니, 다시 바라건대 너그려이 포용하시고 헤아려주십시오. 삼가 절하며 드립니다.

좌랑 목대흠에게 보낸 편지

與睦左郎大欽書

겨울에 남대문 밖으로 나가 형께서 손수 쓰신 편지를 보고 저를 외면하지 않으신 마음에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북에서부터 남쪽까지 길은 멀고 인편도 드물어 편지 한 통 부칠 심부름꾼을 구할 수 없었을 터인데 두터운 마음으로 답장을 주시니, 부끄러움과 서운함이 마음속에 교차하여 사뭇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노모를 봉양하는 데 다급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구차하게 보전하느라 초심을 등졌으니 절로 슬플 뿐입니다. 선배들께서 쇠락하거나 거의 다 사라져 주장할 사람이 없으니, 사문(斯文)은 순치(馴致)⁴⁸⁹⁾하고 인심(人

488) 숙부(肅夫) : 김우옹(金宇頤, 1540~1603)의 자(字)이다. 호는 동강(東岡)이며 시호는 문정(文貞). 조식(曹植)의 문인이며 경상북도 성주 출신으로 조선시대 병조참판, 예조참판,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489) 순치(馴致) : 점차로 나쁜 결과가 오는 형세로 그 조짐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주역(周易)》〈곤괘(坤卦) 상(象)〉에,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곧 이르게 됨은 음이 비로소 얼기 시작함이니, 그 도를 순조로이 점차로 익히어 가서 단단한 얼음에 이르는 것이다.[履霜 堅冰, 陰始凝也, 馴致其道, 至堅冰也.]”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心)은 둘로 나뉘며 사론(士論)은 분명치 못합니다. 서로 대립하여 굽히지 않은 근심이 조정이나 재야나 똑같으니 어찌 식자(識者)가 깊이 두려워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원컨대 우리 형님께서 변화의 기미를 깊이 살피서 야원 돼지가 진실로 날뛰지 못하게 하신다면⁴⁹⁰⁾ 국가에 매우 다행한 일이며 우리 도(道)에도 역시 매우 다행한 일일 것입니다. 외람되이 보살펴주심을 입어 감히 주제님은 말을 토로하였으니 너그럽게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편지를 올립니다.

순상 우복 정경세⁴⁹¹⁾에게 올린 편지

上巡相鄭愚伏經世書

작별 인사를 드리고 자리를 떠난 지 여러 세월이 지났는데 온통 대감의 덕을 우러르는 제 마음은 감히 조금도 그치질 않습니다. 지금 늦더위로 여전히 괴로운데, 삼가 시절에 마땅히 순응하며 기거는 강녕하십니까?

저는 몸조리에 어두워 질병이 번갈아 침투하였는데 다행히 조금 나아져 몸을 이끌고 역(驛)으로 돌아와 적막한 우정(郵亭 역관)에서 예전에 했던 공부를 복습하고 연구하고 있다가 지우(知遇)⁴⁹²⁾의 은혜에 감격하였으나 달리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사색하여 한 가지 어리석은 생각을 얻었는데, 만분의 일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오니, 별지에 기록한 것을 부디

490) 야원 …… 하신다면 : 《주역》〈구괘(姤卦) 초육(初六)〉의 “약한 돼지가 날뛰고 싶은 마음이 진실하다.[羸豕孚蹢躅]”에서 나온 말이다. 이시(羸豕)는 파리한 돼지이고, 척축(蹢躅)은 도약(跳躍)인데, 이시가 비록 강맹(強猛)하지 못하지만 항상 도약할 뜻을 품고 있듯이 소인(小人)이 기세가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항상 군자(君子)를 해치려는 뜻을 품고 있다는 말이다.

491) 정경세 : 1563~1633.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경임(景任), 호는 우복(愚伏), 시호는 문숙(文肅)에서 문장(文莊)으로 개시(改諡)되었다. 1586년 알성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로 등용되었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워 수찬이 되었고, 1598년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다. 광해군 때 정인홍과 반목 끝에 삭직되었다. 인조반정 후 발탁되어 이조판서 겸 대제학에 이르렀다. 유성룡(柳成龍)의 문인으로 이황의 학통을 계승하였는데, 경전에 밝았고 특히 예학에 조예가 깊었다. 상주의 도남서원(道南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저서로 《우복집》·《상례참고(喪禮參考)》 등이 있다.

492) 지우(知遇) : 인격(人格)이나 학식(學識)을 남이 알고서 잘 대우해 주는 것을 뜻한다.

한 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바라건대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헤아려주십시오. 삼가 격식을 갖추지 못한 채 편지를 드립니다.

별지 別紙

지난번 그대⁴⁹³⁾에게 인사드렸을 때 합하(閣下)를 처음 뵈었습니다.
합하께서는 공문서로 일이 많아 바쁘신 중에도 주자의 서책을 읽고 의리(義理)를 궁구하며 토론하시니 이는 이른바 옛 사람이 벼슬을 하면서 여가가 있으면 학문을 한다.⁴⁹⁴⁾는 것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흠양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칭송하면서 우러러보게 하여 오래도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글을 써서 즐거움을 취할 자료를 갖추어보았는데, 제가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니 바라건대 조금이라도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사람이 천지 사이에 서서 삼재(三才)⁴⁹⁵⁾에 참여한 까닭은 마음이 한 몸을 주재하여 온갖 변화에 수작(酬酢)하며 천지가 제자리에 위치하고 만물을 화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⁴⁹⁶⁾ 그러나 마음이라는 물건은 홀연히 나갔다가 홀연히 들어오고, 있는 듯 하면서 없는 듯 하며, 연못에 빠졌다가도 하늘로 날아오르고,⁴⁹⁷⁾ 불처럼 뜨겁다가도 얼음처럼

493) 그대 : 원문의 ‘하풍(下風)’은 자신이 상대방의 교화 아래에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494) 옛 사람은 …… 한다 : 《논어》〈자장(子張)〉에 “벼슬을 하면서 여가가 있으면 학문을 하고, 학문을 하고서 여가가 있으면 벼슬을 한다.[仕而優則學 學而優則仕]”라는 말이 나온다.

495) 삼재(三才) :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가지 바탕, 곧 하늘[天], 땅[地], 사람[人]을 말한다.

496) 천지가 …… 때문입니다.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장에서 “중화를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에 위치하고, 만물이 길러진다.[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라 하였는데, 집주(集註)에, 이것을 일러 학문(學問)의 극공(極功)이요 성인(聖人)의 능사(能事)라고 하였다. ‘參天地 贊化育’은 ‘參贊化育’의 의미이다. 즉 천지(天地)의 화육(化育)을 돕는다는 뜻으로, 제왕(帝王)의 덕화(德化)가 자연과 부합됨을 일컫는 말이다.

497) 연못에 …… 날아오르고 : 마음의 예측할 수 없음을 말한다. 《주자시집》 권4 〈재거감흥(齋居感興)〉에 “인심의 오묘함은 예측할 수 없어, 드나들 때에 기를 타고 나오네. 얼음처럼 얼었다가 불처럼

공공 얼어버리니⁴⁹⁸) 힘써 제어할 수 없고 억지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오사(五事)⁴⁹⁹)를 공경히 하고 사물(四勿)⁵⁰⁰)을 지켜서 겉으로 희롱하는 것에 방탕하게 현혹되지 말고, 안으로 살펴서 구차하게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動)과 정(靜)을 아울러 기르고 표(表)와 리(裏)에 간극을 없게 하며 마음을 잡아 보존하고⁵⁰¹) 제어하여 기(氣)가 개인적인 사욕을 쫓지 않게 하며, 성찰하고 깨달아 일이 반드시 의리를 따르게 하여 수작(酬酢 응대(應對))하고 참여해 돕는다면 어찌 가는 곳마다 마땅함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물에는 선악의 차이가 있고 일에는 옳고 그름의 구별이 있으니, 만약 학문(學問)과 사변(思辨)의 공부에 우선적으로 힘쓰지 않고 천리와 인욕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면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바가 다만 지엽적인 일에 자질구레하게 얽매입니다. 비록 혹시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연히 도리에 합치되더라도 그 과정과 근본은 진실로 성현의 모양(模樣)이 아니니 어찌 천지와 그 큼을 함께하여 사물의 마땅히 그러함을 따르겠습니까. 이 때문에 《대학(大學)》의 가르침은 반드시 치지(致知)와 격물(格物)을 먼저 한 뒤에 성의(誠意), 정심(正心)하고, 수신(修身)한 이후에 미루어서 제가(齊家)와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에 미치는 것이니, 배우는 자들로

타오르며, 연못에 빠졌다가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네.[人心妙不測, 出入乘氣機。凝冰亦焦火, 淵淪復天飛.]”라고 하였다.

498) 불처럼 …… 얼어버리니 : 《장자》에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뜨거워지면 불처럼 타올라 모든 것을 태워 버리고, 차가워지면 얼음장처럼 모든 것을 공공 얼어붙게 만든다.[其熱焦火 其寒凝冰]”고 한 말이 나온다. 회로애락 등 인간의 마음속에 이는 번뇌(煩惱)를 뜻하는 표현이다.

499) 오사(五事) : 홍범구주(洪範九疇)의 하나이다. 《서경》〈홍범(洪範)〉에 “오사(五事)이니, 첫째는 모(貌), 둘째는 언(言), 셋째는 시(視), 넷째는 청(聽), 다섯째는 사(思)이다.”라고 하였는데 외모는 공손히, 언어는 조리 있게, 보는 것은 밝아야 하며, 듣는 것은 분명해야 하며, 생각은 지혜로워한다고 했다.

500) 사물(四勿) : 네 가지 하지 말라는 것으로, 공자의 제자 안연(顏淵)이 ‘극기복례(克己復禮)’의 조목을 묻자, 공자가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라고 하였는데, 이를 가리킨다. 《論語集註 顏淵》

501) 마음을 잡아 보존하고 : 원문의 ‘조존(操存)’은 마음을 간직하여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맹자》〈고자 상(告子上)〉에 “공자가 이르기를 ‘잡고 있으면 보존되고, 놓아 버리면 없어지며,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일정한 때가 없고, 어디를 향할지 종잡을 수 없는 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을 두고 말한 것이다.[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鄉, 惟心之謂與!]’하였다.”라고 한 데서 나왔다.

하여금【두어 글자가 결락하였다.⁵⁰²⁾】의 소재를 먼저 알게 하여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땅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삼가 그 염려하는【두어 글자가 결락하였다.⁵⁰³⁾】마음을 항상 육체에 보존하고 몸이 한쪽으로 빠지지 않게 한 이후에 집안과 국가와 천하가 이로써 제자리에 놓이게 될 뿐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명덕(明德)과 신민(新民)의 학문이며, 자기를 이루고 남을 이루어주는 도(道)입니다. 성인과의 거리가 비록 멀더라도 남아 있는 경전은 아직 존재하고 있으니 그 책을 읽고서 마음을 다스린다면 어찌하여 옛 사람들에게 미칠 수 없겠습니까.

우리 조선 200년간 유학의 근원을 밝게 탐구하고 정주학을 계승한 이가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고려 말 포은 정몽주가 성리학을 처음 열었으나 입언(立言)⁵⁰⁴⁾의 공은 드러내지 않았습시다. 그 후 한원당 김굉필, 일두 정여창, 정암 조광조, 회재 이언적, 퇴계 이황 다섯 분의 선생께서 서로 계승하여 도학을 일으켜 세상에 크게 밝혔는데, 모두 때를 만나지 못하여 그 도가 크게 행하지 못하였으나 그 유풍과 남은 공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세의 풍습이 경박스럽고 거짓되어 갑자기 20년 전의 규모로 변하여 예법을 천하게 여겨 버려두고 오로지 부화(浮華)한 것만을 일삼아서 말 잘하는 것은 숭상하나 덕은 숭상하지 않으며, 이익은 아나 의리는 알지 못하니, 인심이 둘로 나뉘고 시론(時論)이 분열된 것이 어찌 괴이하게 여기기에 족하겠습니까. 선배들께서 쇠락하고 다 돌아가셔서 주맹(主盟 주장(主掌))이 없으니 한 세대를 돌아보아도 인물이 묘연한데, 봉당은 나뉘어 대립하면서 오직 이익만 추구하고 세도(世道)는 오랑캐와 금수(禽獸)로 귀결되니, 오히려 어떻게 유가의 대업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502) 두어 글자가 결락하였다 : 《우득록(愚得錄)》〈與崔監司書〉에 의거하여 ‘선악(善惡)’ 두 글자가 결락한 것으로 보인다.

503) 두어 글자가 결락하였다 : 《우득록(愚得錄)》〈與崔監司書〉에 의거하여 ‘지발이(之發而)’ 세 글자가 결락한 것으로 보인다.

504) 입언(立言) : 후세에 교훈이 될 만한 말을 하거나 저술 또는 불후의 학설을 남긴다는 말이다. 《춘추좌씨전》 양공(襄公) 24년 조에 “가장 뛰어난 것은 덕을 세움이고, 그 다음은 공을 세움이며, 그 다음은 후세에 전할 만한 말을 남겨서, 비록 오래 되어도 폐해지지 않으면 이를 일컬어 영원히 썩지 않는다고 한다.[大上有立德, 其次有立功, 其次有立言, 雖久不廢, 此之謂不朽.]”라고 하였다.

오직 합하께서 지위가 높으신데 독서를 그만두지 않으시고, 지혜가 밝은데도 겸양의 덕에 더욱 힘쓰시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확고하고 세상을 붙들려는 뜻에 독실하시니, 이는 모두 부귀하고 현달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나 오직 합하께서만 능하시므로 여기에서 유래한 연원을 볼 수 있고 반드시 남다른 명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책임을 중히 여기고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니 거의 속세에서 견줄 바가 없어 구구한 마음으로 경탄하며 제 자신은 하루도 마음속이 석연(釋然)치 않았습니니다. 이에 미치광이나 소경[妄靈]의 말로 시인에게 음식을 대접하던 정성을 대신하고, 또한 은혜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해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고자 합니다. 삼가 살펴보고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어질고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독서에 공력을 더 가하시며,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다시금 겸허함에 힘쓰시며, 의리를 살피 사물에 처하시고, 눈과 귀를 넓혀 시비(是非)를 살피시며 사람들의 폄훼나 칭찬으로 평생의 정해진 뜻을 바꾸지 말고 자신의 이익과 해로움으로 천하의 공변된 도(道)를 폐하지 않으시면,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 허물이 없어지고 들릴 만한 것이 있을 것이며, 천리(天理)를 회복할 수 있어서 더 하지 않아도 자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니, 저승에서는 반드시 말없이 도움이 있을 것이고 이승에서는 반드시 드러나는 도움이 있을 것이며, 정성으로 하늘을 감동시키고 올바름으로 사악함을 제압하며, 삼재(三才)에 참여하여 나란히 서는 책임을 거의 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하의 덕은 한 집안의 덕이 아니라 천하의 큰 덕이 되며, 합하의 영광은 한때의 영광이 아니라 만세토록 길이 전해지는 영광이 되리니, 원컨대 합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유념하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오현서원⁵⁰⁵⁾ 봉안 제문

【학봉 김성일이 나주 목사 시절⁵⁰⁶⁾ 나주의 서쪽 대곡동⁵⁰⁷⁾에 서원을 창건하였는데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임윤신⁵⁰⁸⁾이 후임으로 부임하여 공사를 이어 완성하여 만력 1587년 11월 22일에 봉안하였다.⁵⁰⁹⁾】

五賢書院奉安祭文【金鶴峰誠一知州時，創建書院於州西大谷洞，未訖工。任公允臣來代踵成，以萬曆丁亥十一月二十二日奉安。】

기자의 흥범 ⁵¹⁰⁾ 이 전해지지 않아	箕範失傳
문장과 충심은 실마리가 끊어졌는데	文忠絕緒
오직 우리 다섯 현인들께서	惟我五賢
우리나라에서 앞장서서 도를 이끄셨네	倡道東方
《소학》의 글 속에서	小學書中
천기 ⁵¹¹⁾ 를 신묘하게 깨달았네 【한훤당 김굉필】	妙契天機【寒暄】

505) 오현서원(五賢書院) : 1583년, 유림이 상소를 올려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 김굉필(金宏弼)을 모실 서원 창건을 허락받았다. 당시 나주 목사로 있던 김성일(1538~1593)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듬해인 1584년에 금양서원(錦陽書院)이라는 이름으로 완공되었다. 김성일에 이어 나주목사로 임윤신이 부임해오자 나덕준 등이 발의하여 1589년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 이황(李滉) 등 4위를 추가로 배향하고 명칭을 오현사(五賢祠)로 바꾸었다가 정유재란 때 소실된 뒤, 1608년(광해군 원년)에 중건하고 1609년 사액서원이 되면서 ‘경현(景賢)’이라는 액호를 받았다.

506) 학봉 김성일이 나주 목사 시절 : 김성일은 선조 1584년에 나주 목사(羅州牧使)로 부임하였다가 1586년에 나주 사직단(社稷壇)의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다.

507) 대곡동 : 현재는 나주의 경현동 부근을 말한다.

508) 임윤신 : 1529~1588. 본관은 풍천(豐川), 자는 경룡(景龍)이다. 1585년에 강원도관찰사를 역임하고 1587년에 나주 목사로 부임하였다.

509) 학봉 김성일이 …… 봉안하였다. : 《일두집(一蠹集)》부록(附錄)에 “학봉 김성일이 나주(羅州) 수령이 되어 오현(五賢)을 추모하여 주(州)의 서쪽 대곡동(大谷洞)에 경현서원(景賢書院)을 건립하였는데,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임윤신(任允臣)이 후임으로 부임하여 공사를 이어 마무리하고 제사를 올리고, 선비들의 학문 수양 장소로 삼았다. [鶴峯金誠一知羅州，追慕五賢，建景賢書院于州西大谷洞，未訖而任允臣來代踵成，設俎豆，以爲士子藏修之所.]”는 기록이 나온다.

510) 기자(箕子)의 흥범(洪範) : 원문의 ‘기범(箕範)’은 기자(箕子)가 무왕(武王)에게 전해준 《서경》 흥범구주(洪範九疇)을 가리킨다.

511) 천기(天機) : 만물 속에 내재(內在)한 하늘의 기틀, 즉 자연의 이법(理法)을 뜻한다.

깊은 공부로 벗에게 도움을 주고 ⁵¹²⁾	功深麗澤
덕이 온전하여 효도하고 공경하였네【일두 정여창】	德全孝悌【一蠹】
그 근원이 분명하여	有的其源
우리나라를 동주로 기약하였네 ⁵¹³⁾ 【정암 조광조】	期我東周【靜庵】
독실한 학문으로 경계하고 경계하며	學篤箴警
간절한 뜻으로 임금께 계옥하였네 ⁵¹⁴⁾ 【회재 이언적】	志切啓沃【晦齋】
성현의 깊은 도를 천명하여	闡揚聖蘊
진실로 집대성 하였네【퇴계 이황】	展也大成【退溪】
태어난 시대는 비록 다르지만	生雖異時
도는 한가지로 귀결되니	道則同歸
우리 소자 ⁵¹⁵⁾ 로 하여금	俾我小子
밤이 아침이 돌아오듯 하게 하네	如夜復朝
진실로 선생들께서는	允矣先生
만세의 법도를 만들어	萬歲作程
잘 받들어 ⁵¹⁶⁾ 어긋남이 없었으니	靈承不爽
마치 물이 땅 위에 흐르는 것과 같았네	如水在地

512) 벗에게 도움을 주고 : 원문의 ‘이택(麗澤)’은 봉우(朋友)가 함께 학문을 강습하여 서로 이익을 줌을 뜻한다. 《주역》〈태괘(兌卦)〉에 “두 못이 연결되어 있는 형상이 태(兌)이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봉우 간에 강습한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513) 동주(東周)로 기약하였네 : 이상적인 나라인 옛 주(周)나라의 문물제도를 우리나라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이른다. 동주는 본디 동쪽 노(魯)나라에 주나라의 도(道)를 일으키겠다는 말로, 계씨(季氏)의 가신(家臣)인 공산불요(公山弗擾)가 일찍이 공자를 불렀을 때 공자가 가려고 하자, 자로(子路)가 하필 공산씨(公山氏)에게 갈 것이 있느냐고 못마땅하게 여기므로, 공자가 이르기를 “나를 부르는 자가 어찌 공연히 불렀겠는가. 만일 나를 써 주는 자가 있다면 나는 동쪽 주나라를 만들 것이다.[夫召我者 而豈徒哉 如有用我者 吾其爲東周乎]”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論語 陽貨》

514) 계옥하였네 : 선도(善道)를 개진하여 임금을 인도하고 보좌한다는 뜻이다. 《서경(書經)》〈열명(說命)〉에, 은(殷)나라 고종(高宗)이 부열(傅說)에게 “그대의 마음을 열어 나의 마음을 적셔라.[啓乃心, 沃朕心.]”라고 하였다.

515) 소자(小子) : 원문의 ‘소자(小子)’는 일반적으로 제자, 자식, 임금의 겸칭어로 사용되나, 여기에서 말하는 소자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고 후학의 의미로 보인다.

516) 잘 받들어 : 원문의 ‘영승(靈承)’은 《서경》〈다방(多方)〉에 “능히 백성을 잘 받들지 못하며[不克靈承于旅]”라고 한 말에 나온다.

이에 비로소 계획하여
 이 재실에 함께 배향하고자
 좋은 날과 좋은 때를 잡았으니
 서원의 모습 벌써 엄숙해보이네
 정결한 제수⁵¹⁷⁾가 향기로워
 정성스러운 뜻에 감통하네
 경건히 진설하여 제수를 올리니
 강림하여 굽어 살펴주소서

爰始爰謨
 合享斯室
 吉日辰良
 廟貌既嚴
 蘋藻維馨
 誠意感通
 式陳明薦
 尙克鑑臨

517) 정결한 제수 : 원문의 ‘빈조(蘋藻)’는 모두 물풀의 이름으로, 옛 사람들은 이를 채취하여 제수로 사용하였다. 《시경(詩經)》〈채빈(采蘋)〉에 “남간의 물가에서 빈을 캐고, 저 도랑에서 조를 채취해 오네.[于以采蘋, 南澗之濱. 于以采藻, 于彼行潦.]”라는 구절이 있다.

동강 김우옹 문장⁵¹⁸⁾의 <우분시>⁵¹⁹⁾에 삼가 차운하다

【1592년 5월 동강이 적소에서 사면되어 풀려나 행재소⁵²⁰⁾로 나아갔을 때이다.】

敬次金東岡文丈憂憤詩韻【壬辰五月，東岡自謫所蒙放，赴行在所時.】

만년에 어쩌면 이리도 기구했던지	末路一何奇
보름이 거듭되어 육십 삼세 되었네	三五重七九
온갖 흉악함으로 눈앞이 번잡하니	百兇叢目下
내가 뒤늦게 태어남이 슬프구나	哀哉我生後
왕망 ⁵²¹⁾ 때처럼 이미 내분이 일어나거늘	賊莽既內訌
추한 오랑캐가 밖에서 짓밟네	醜虜又外蹂
어찌 생각이라도 했겠나 이백년 기업이	何圖二百基
하루아침에 경계수비를 잃을 줄을	一朝失警守
원대한 계책 ⁵²²⁾ 세운 자 누구의 아들인지	訐謨者誰子
부끄러운 그 얼굴 어찌 그리 두꺼울까	忸怩顏何厚
나라의 근본에 대한 계책 일삼지 않고	不事邦本計
다만 우리 임금 기만하는 것만 잘하네	徒能瞞我后
백성들 오래도록 원망으로 떠들썩한데	赤子久嗷嗷
부모를 받드는 일을 어찌 알겠나	焉知戴父母
조정의 계획은 이전 계획을 잃어버렸으니	廟算失前籌

518) 문장(文丈) : 재주가 높고 덕이 뛰어나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존칭이다.

519) <우분시> : 《동강선생문집(東岡先生文集)》에는 <壬辰五月聞倭賊大舉入寇京城不守>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520) 행재소(行在所) : 임금이 궁을 떠나 멀리 나들이 할 때 머무르던 곳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임진왜란 때 임금의 피난처를 가리킨다.

521) 왕망 : 전한(前漢) 말기 평제(平帝)를 독살한 뒤 두 살 된 유영(劉嬰)을 추대하고, 당시 유행하던 오행참위설(五行讖緯說)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인심을 모았다. 후에 결국 유영을 몰아낸 후 국호를 신(新)이라 고치고 황제가 되었으나, 한말(漢末)의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하에게 죽음을 당함으로써 건국한 지 15년에 멸망하였다.

522) 원대한 계책 : 원문의 ‘우모(訐謨)’는 우모정명(訐謨定命)으로, 《시경》〈억(抑)〉의 “원대한 계책으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며, 장구한 계획을 세우고 때맞추어 알린다.[訐謨定命，遠猶辰告.]”에서 인용한 것이다.

어떻게 호랑이처럼 험걸차게 돕겠는가
 임금님 수레가 홀연히 몽진을 하시니
 신료들은 차고 있던 인끈 벗어 던졌네
 이리저리 흩어져 세력을 떨치지 못하니
 의로운 군대 누가 규합할 수 있겠는가
 살아있는 백성 모두 어육이 되고
 남녀 모두 놀라서 달아나기만 할뿐이네
 누가 무목⁵²³⁾의 마음을 품고
 누가 문상⁵²⁴⁾의 손을 잡을까
 의관이 모두 엎어지고 넘어져
 대궐 연못⁵²⁵⁾에는 초목만 무성히 우거졌네
 당당하던 우리나라 조정이
 어찌 차마 왜적에게 시달릴 줄이야
 옥에 갇힌 신하는 새로운 은총을 입으나
 근심과 울분이 우두성⁵²⁶⁾을 찌르네
 원하건대 장차 재앙을 야기한 이유를
 양쪽을 들어서 다 말하고자 하시니⁵²⁷⁾
 간악한 자를 주벌하고 요사한 기운 쓸어내

有何補虎赴
 乘輿忽蒙塵
 臣僚捐綰綬
 離披勢不振
 義旅孰能糾
 生民儘魚肉
 士女但驚走
 誰懷武穆心
 孰握文相手
 衣冠盡顛倒
 鳳池生灌莽
 堂堂我國朝
 豈忍困海醜
 羈臣荷新恩
 憂憤衝牛斗
 願將階禍由
 欲竭兩端叩
 誅奸掃氛祲

523) 무목: ‘무목(武穆)’은 남송(南宋)의 명장 악비(岳飛, 1103~1142)로, 자는 봉거(鵬舉), 시호는 무목이다. 금(金)나라의 남하(南下)에 대항하여 많은 공을 세웠으며 ‘정충악비(精忠岳飛)’라고 쓰인 사자기(四字旗)를 하사받을 정도로 고종(高宗)의 신임이 두터웠으나 진회(秦檜)의 참소로 결국 옥사(獄死)하였다.

524) 문상(文相): 송나라의 문천상(文天祥, 1236~1282)을 이르는 말이다. 송(宋)과 원(元)의 전쟁 중 원나라에 사로잡혔다.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가 그를 이용하여 송나라의 잔당을 치려했으나 문상은 충절을 굽히지 않았고 3년 간의 옥살이 끝에 살해되었다.

525) 대궐 연못: ‘봉지(鳳池)’는 위진 남북조(魏晉南北朝) 시대에 금원(禁苑)에 파 놓았던 연못인 봉황지(鳳凰池)를 가리키는 말인데, 전하여 대궐 안의 연못을 의미한다.

526) 우두성(牛斗星): 견우성(牽牛星)과 북두성(北斗星)을 말한다.

527) 양쪽을 …… 하시니 : 《논어(論語)》〈자한(子罕)〉 “내가 아는 것이 있는가? 나는 아는 것이 없지만 비루한 사람이 나에게 묻되 그가 아무리 무식하다 하더라도 나는 그 양단을 들어서 다 말해주노라.[吾有知乎哉。無知也。有鄙夫問於我，空空如也，我叩其兩端而竭焉。]”라고 한 데 나오는 말이다.

우리 백성들 크게 위로하여 주소서	大慰吾黔首
선생께서는 도가 서로 같으니	先生道相同
충직한 단심으로 피를 토하며	忠赤垂血嘔
제 몸 잊은 채 왕 계신 곳으로 가시니	忘身赴王所
선택받은 그 의미 ⁵²⁸⁾ 저버리지 마소서	不背熊魚取
본분에 맞는 행위 ⁵²⁹⁾ 이미 정해졌으니	素履已先定
마음을 저버리지 마소서 ⁵³⁰⁾	毋令負心肘

528) 선택받은 그 의미 : 원문의 ‘웅어취(熊魚取)’는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뜻. 《맹자》〈고자상(告子上)〉에 “고기[魚]도 갖고 싶고 곰 발도 갖고 싶지만 두 개를 모두 가질 수 없을 때에는 고기를 버리고 곰 발을 갖는다.” 하였다.

529) 본분에 맞는 행위 : 소리(素履)는 본분대로 행함을 의미한다. 《주역》〈이괘(履卦) 초구(初九)〉에 “본래의 행함으로 가면 허물이 없으리라.[素履, 往, 無咎.]”라고 하였다.

530) 마음을 저버리지 마소서 : 원문에는 ‘肘(주)’ 아래에 “아마도 오류의 글자가 있는 듯하다.[恐有誤字]”라는 소주가 붙어 있다.

동강의 원운시

原韻【東岡】

내 생애 때를 잘못 만나 고생함이
 어찌 재앙⁵³¹⁾을 만난 것 때문만일까
 하늘이 내린 죽음의 환란은
 지난 일도 아니고 앞으로의 일도 아니네
 해충 같은 적들로 내홍이 일어났는데
 오랑캐의 기병마저 제멋대로 짓밟으니
 백성들은 원수가 되어
 국경을 지킬 사람조차 없다네
 슬프구나 이백년 동안
 그 은혜 얼마나 깊고 두터웠던가
 하루아침에 백성을 잃었으나
 우리 임금을 위로하는 말이 없네⁵³²⁾
 조정에는 보좌하는 신하들 있고
 변방 성곽에는 헌걸찬 무인들 많으며
 높은 관직과 후한 녹봉에
 겹겹의 도장에 인끈 거듭 매었거늘
 좋은 책략 있단 말 들어본 적 없고
 의병 모집하는 모습 본 적도 없으니
 어지러이 문환⁵³³⁾처럼 항복하고
 요란스레 단공⁵³⁴⁾처럼 달아나네

吾生苦不辰
 胡獨遭陽九
 旻天降喪亂
 不自我先後
 蠱賊作內訌
 戎馬恣躪蹂
 赤子化仇讎
 疆圉無人守
 哀恫二百年
 恩澤何深厚
 一朝失丘民
 不云撫我后
 廟堂有相臣
 邊城多武赳
 高官與厚祿
 纍印若若綬
 不聞籌策紆
 不見義旅糾
 紛紛文煥降
 擾擾檀公走

531) 재앙 : 양구는 음양도(陰陽道)에서 수리(數理)에 입각하여 추출해 낸 말로, 4천 5백 년 되는 1원(元) 중에 양액(陽厄)이 다섯 번 음액(陰厄)이 네 번 발생한다고 하는데, 1백 6년 되는 해에 양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엄청난 재액(災厄)을 말할 때 쓰는 용어이다. 《漢書 律歷志 上》

532) 우리 …… 없네 : 원문에는 ‘后(후)’ 아래에 “이 아래 ‘무(毋)’자 운(韻)이 없으니 아마도 빠진 듯하다(此下無毋字韻恐脫)”라는 소주가 붙어 있다.

533) 문환(文煥) : 송말(宋末) 원초(元初) 때 사람이다. 일찍이 송나라에 벼슬하였는데 원 나라 세조의 권유로 투항, 이후 송을 공략하는 데 많은 계책을 제공하였으며 결국 송조(宋朝)의 멸망에 공헌하였다. 《新元史 列傳 74》

534) 단공(檀公) : 유송(劉宋) 때의 장군 단도제(檀道濟)를 말한다. 그는 지략(智略)이 뛰어나서 고조

칠묘 ⁵³⁵)는 타고 남은 재 되고	七廟化灰燼
도성은 적들의 손에 떨어졌네	京邑付賊手
임금님 수레 어디 쫓 향하실지	玉輅向何許
공경대부들은 초야로 흩어졌네	公卿落草莽
누가 환란을 초래하였기에	誰生禍亂階
도적을 이르게 하고 오랑캐까지 불렀는가	致寇招戎醜
외로운 신하 북쪽 변방에 있으니	孤臣在北塞
속절없이 한 말 간담만 남아	空餘膽一斗
고개 들어 서쪽 하늘 바라보고	舉頭望西方
대궐 섬돌 향해 머리 조아리네	欲向螭階叩
원하건대 상방검 ⁵³⁶) 빌려서	願借尙方劍
아침하는 신하 머리 단번에 참하리라	一斬佞臣首
답답한 마음 누구에게 하소연 할까	膈臆誰與訴
쓰라린 피를 토해내고자 하네	辛酸血欲嘔
일찍이 고인의 가르침을 들으니	嘗聞古人訓
물고기 버리고 곰 발바닥을 취한다고 했네	魚舍熊掌取
바람 부는 처마에서 주자의 서책 펼쳐드니	風簷展朱書
도리가 가슴에 사무치네	道理貫心肘

(高祖)를 따라 북벌(北伐)할 적에 전봉장(前鋒將)으로 누차 공을 세워 명장(名將)으로 이름이 났는데, 뒤에 남제(南齊)의 왕경축(王敬則)이 일찍이 매우 급한 때를 당하여 어떤 사람에게 고하기를, “단공(檀公)의 삼십육책(三十六策) 가운데 주(走) 자가 상책(上策)이었으니, 너희들은 응당 급히 도주해야 한다.”고 했던 데서 온 말로, 전하여 적과 싸우다 불리하면 도주하는 것을 이른 말이다.

535) 칠묘(七廟) : 칠묘(七廟)는 종묘(宗廟)이니, 곧 태조(太祖)의 종묘와 삼소(三昭), 삼목(三穆)의 총칭이다.

536) 상방검(尙方劍) : 임금이 신하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의미에서 내려 주는 보검이다. 한(漢)나라 성제(成帝) 때 주운(朱雲)이 대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황제의 신임을 믿고 정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장우(張禹)를 베어 죽여야 하니 상방검을 내려 달라고 청하였던 고사가 있다. 《漢書 卷37 朱雲傳》



《소포유고》부록
嘯浦遺稿附錄

《錦城三稿》

조선 승훈랑 행 의금부도사 소포 나공 사실기

有明朝鮮國承訓郎行義禁府都事嘯浦羅公事實記

공의 이름은 덕명(德明)이고, 자는 극지(克之)이며, 호는 구암(龜巖) 또는 소포(嘯浦)이고, 성은 나씨(羅氏)이며,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고려 시대 나부(羅富)는 감문위(監門衛) 상장군(上將軍)으로 곧 공의 시조가 된다. 이후 공조 전서(工曹典書) 나진(羅璉)에 이르러 가문이 매우 귀하게 되었다. 나진은 전농시(典農寺) 정(正) 나공언(羅公彦)을 낳았는데 홍무(洪武) 연간에 왜적을 물리친 공훈이 있어 대대로 호남의 명문집안이 되었다.

증조 나일손(羅逸孫)은 전연사 직장(典涓司直長)을 지내고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에 추증되었다. 조부 나질(羅咥)은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지내고 호조 참판(戶曹參判)에 추증되었다. 부친 나사침(羅士沈)은 이소재(履素齋) 이중호(李仲虎)를 스승으로 섬겼으며 지극한 행실로 세상에 알려져 중종(中宗) 때 정려로써 표창받았고 조세와 부역을 면제받았다. 선조(宣祖) 초에 관찰사(觀察使)가 그의 어짊을 천거하여 여러 번 관직을 지냈고, 벼슬은 이산 현감(尼山縣監)⁵³⁷⁾에 이르렀다. 그의 거사비(去思碑)⁵³⁸⁾에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한 송이 시든 꽃 외로운 한 마리 학
쓸쓸한 행리에 고인의 품모 있구나

倭花一朵鶴一隻
行李蕭然古人風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추증되었다.

첫째 부인은 파평 윤씨(坡平尹氏)로 부사(府使) 윤언적(尹彦商)의 따님이다. 둘째 부인은 광주 정씨(光州鄭氏)로 사도 첨사(蛇渡僉使) 정호(鄭虎)의 따님이다. 각기 세 아들을 낳았기에 그들을 육룡(六龍)이라 불렀는데 공은 그 가운데 장자로 자질과 품성이 훌륭하여, 식견을 지닌 자들은 그를

537) 이산 현감(尼山縣監) : 이산(尼山)은 충청남도 논산 지역의 옛 이름이며, 현감(縣監)은 종6품으로서 현의 수장이다.

538) 거사비(去思碑) : 전임 감사나 수령이 벼폰 선정을 추모하여 백성이 세운 비를 말한다.

원대한 그릇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나이 8~9세에 길에서 고을 아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아전이 예로써 대하지 않자 공은 이치를 들어 꾸짖었다. 아전이 곧바로 숙연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탄복했으니,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기특하게 여겼다.

만력(萬曆) 기묘년(1579) 진사에 급제하였는데 때는 선조 12년이였다. 전조(銓曹)에서 공의 명성을 듣고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에 임명했는데, 임기가 끝나 고향으로 돌아올 때 화려한 명성이 있어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다.

두 아우 나덕준(羅德峻)과 나덕윤(羅德潤)은 정곤재(鄭困齋)⁵³⁹의 문인으로 모두 훌륭하다는 명성이 있었지만 마침내 그들을 좋게 여기지 않은 자들에게 시기를 받았다.

기축년(1589) 겨울에 정여립(鄭汝立)이 난을 일으키려 한다고 아뢰는 자가 있어 위관(委官) 정철(鄭澈)이 기미를 틈타 있지도 않은 죄를 꾸몄다. 정암수(丁巖壽), 양천경(梁千頃), 홍천경(洪千璟) 등이 정철의 뜻을 받들어 무고하는 상소를 올려 세상의 유명 인사 30여명을 포함하였다. 또 공과 공의 부자 이름을 거론하면서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 등이 정여립과 더불어 매우 친밀하게 교유하다가 재앙이 자기에게 미칠 것을 알고는 터무니없는 말을 꾸며 빠져나가려고 하니 모두 죄를 물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공의 아우 나덕현(羅德顯)과 나덕헌(羅德憲) 등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장을 심사하는 자리에 나가 큰 소리로 그들을 배척하였다.

정암수의 상소가 임금에게 들어가자, 임금께서 진노하며 “역적의 변란을 틈타 몰래 사악하고 간교한 상소를 올려 훌륭한 재상과 이름 있는 경들까지 배척하지 않음이 없으니 반드시 나라가 텅 비게 한 이후에야 그만둘 것이다. 이는 반드시 간교한 사람의 사주를 따른 것이다.”라고 하고, 의금부에 명하여 정암수 등 10명을 잡아들이도록 하셨다. 이에 정철이 두려워 대관과 태학생들로 하여금 혹은 장계를 올리도록 하고 혹은 글을 올리도록 하여, 임금의 명이 중단되었다.

539) 정곤재(鄭困齋) : 정개청(鄭介淸, 1529~1590)을 말한다. 자는 의백(義伯)이고, 본관은 고성(固城)이다. 나주 출신으로서, 아버지는 정세웅(鄭世雄)이며, 어머니는 나씨(羅氏)이다.

얼마 후 무안 유생 배명(裴蒙)이 곤재와 공과 공의 부자의 원통한 상황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상소하였으나, 정철은 끝내 정암수의 상소를 저지한 것으로 죄목을 엮어, 공과 여섯 부자가 일시에 심문을 받게 되었다.

찬성공(贊成公)은 특별히 효로써 용서받았고, 공은 경성(鏡城)으로 귀양 가게 되었으며, 여러 아우들은 각지에 나뉘어 유배 갔다. 공이 유배지에 이르러 시를 지어 아우에게 척강(陟岡)의 회포⁵⁴⁰⁾를 부쳤다.

변방의 구름 높이 떠가고 기러기 무정한데	關雲迢遞鴈無情
어느 곳 외로운 성에서 부모형제 그리나	何處孤城憶父兄
촛불 깜박이는 깊은 밤 서리 맞은 잎 소리에	殘燭夜深霜葉響
꿈속의 연못 풀은 자라나지 못하네	夢中池草不能生

임진년(1592)에 섬나라 오랑캐들이 들끓었고 적장 가등청정(加藤清正)이 말을 달려 쳐들어오니, 북쪽 변방의 회령(會寧) 사람 국경인(鞠景仁)이 마침내 난을 일으켜 왕자 임해군(臨海君) 이진(李瑱), 순화군(順和君) 이보(李) 및 재신(宰臣) 김귀영(金貴榮), 황정옥(黃廷彧) 등을 붙잡아 왜적에게 대응하였다. 이에 진보(鎭堡)의 배반한 군졸들이 지키던 장수들을 다투어 결박하고 적들에게 항복했는데, 종성(鍾城) 사람 국세필(鞠世弼)이 바로 그들의 우두머리였다.

북평사(北評事) 정문부(鄭文孚), 전 감사(監司) 이성임(李聖任), 경원 부사(慶源府使) 오응태(吳應台), 경흥 부사(慶興府使) 나정언(羅廷彦), 수성 찰방(輸城察訪) 최동망(崔東望) 등이 의병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자, 공은 함께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한백겸(韓百謙)과 함께 그들의 계획에 힘을 모으기로 찬성하였다. 종성 부사(鍾城府使) 정견룡(鄭見龍), 고령 첨사(高嶺僉使) 유경천(柳擎天) 등도 또한 와서 모여 적의 우두머리를 잡아 목을 베니, 군성(軍聲)이 크게 떨쳐졌다.

이듬해 봄에 별장(別將) 이봉수(李鵬壽)와 만호(萬戶) 이희당(李希唐)이

540) 척강(陟岡)의 회포 : 원문 ‘척강(陟岡)’은 《시경》〈척호(陟岵)〉에서 나온 표현으로, 행역(行役) 나간 효자가 “저 언덕에 올라 형을 바라보네.[陟彼岡兮, 瞻望兄兮.]”라고 한 것에서 파생하여, 부형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노래함을 말한다.

왜적과 전투를 하던 도중 같은 날 죽었다. 공과 정문부는 시를 지어 이러한 일을 슬퍼했는데, 이 일은 택당(澤堂) 이식(李植)이 편찬한 《북관지(北關志)》⁵⁴¹⁾에 실려 있다. 그해 공이 비로소 죄를 용서받고 풀려나 돌아왔다.

병신년(1596)에 찬성공(贊成公)의 장례를 무안(務安) 주룡(住龍) 나루에서 치르고 묘 아래에서 시묘살이를 하였다. 정유년(1597)에 왜적이 다시 쳐들어오자 공이 여러 동생들과 함께 주룡으로부터 은적산(銀積山)⁵⁴²⁾으로 난리를 피하려할 때, 고향사람 효자 이유경(李有慶)이 공과 함께 나루를 건너고자 하였다. 공이 이공에게

“그대가 먼저 건너십시오.”

라고 하자, 이공이 사양하면서

“주객의 차이가 있으니 내가 비록 뒤에 떨어져 낭패를 당한다 한들 형세가 그러할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공이

“내가 만약 먼저 나루를 건너간다면 우리집 종들이

반드시 그대에게 정성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끝내 그를 먼저 건너게 하였다.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의리를 지키는 데 피차 양보함이 없음을 칭찬하였다.

난리가 평정되자, 주룡 소포 위에 정자를 짓고 편안히 즐기면서 일생을 마쳤다. 매번 선산에 성묘할 때면 회포를 노래하는 시를 지었는데 다음과 같다.

아침마다 선산에 올라

朝朝上丘壟

떠나려다 또 주저하네

欲去還躊躇

모시기에 정성을 다하여

度幾侍閭閻

늘 평생의 거동 보이리라

一見平生儀

541) 택당(澤堂) 이식(李植)이 편찬한 《북관지(北關志)》: 이식(1584~1647)의 본관은 덕수(德水)이며, 자는 여고(汝固), 호는 택당(澤堂)이다. 1610년(광해군 2) 문과에 급제하여 7년 뒤 선전관이 되었으나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택풍당(澤風堂, 양평군 향토유적 제16호)을 지어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북관지》는 북관 각 군의 읍지(邑誌)를 개괄하여 편집한 책이다. 이식(李植)이 북평사로 있을 때에 함경도 북부 지방의 각 군읍지를 모아 편집에 착수한 것을 그 아들 이단하(李端夏)가 계승하고 완성한 것이다.

542) 은적산(銀積山): 황해북도 은파군(銀波郡)에 소재한 산이다.

공은 가정(嘉靖) 신해년(1551)에 태어나 60세에 돌아가셨으니 만력(萬曆) 경술년(1610) 5월 28일이었다. 찬성공의 묘 아래에 장사 지냈다.

공은 키가 매우 크고 위용이 경외할만하여, 그를 본 사람들은 산하 간의 기운을 얻었다고 생각하였다. 본주 목사는 공과 나이가 비슷했으나 반드시 그를 ‘노형’이라고 불렀고, 대여섯 살 적은데도 반드시 ‘어르신’이라고 불렀으니 그 공경하고 예우 받는 일이 이와 같았다.

고을 사람 문화(文化) 임환(林權)은 재주와 기개로써 당세에 이름난 사람으로 공은 그와 더불어 잘 지냈다. 한번은 산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여 임공이 먼저 도착하였는데 마치 주변에 사람이 없는 듯 거침없이 담론하다가, 공이 뒤이어 이르자 임공은 자기도 모르게 기운을 잃고 공이 말하기만 하면 ‘예, 예’ 하고 대답만 하였다. 당시 절의 승려 가운데 이를 목격한 자가 이와 같은 미담을 전하였다.

성품 또한 호방하여 작은 예절에 얽매이지 않았고 세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사람을 인정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하루는 화장실을 가려는데 지주가 갑자기 이르자, 공이 가까스로 맞아 당에 오르고는 곧장 섬돌 위에다 볼일을 보고 태연하게 대처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당상에 설사를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라고 하자, 사람들이 그의 넓은 도량에 감복하였다.

공은 이미 남쪽에서도 명성이 알려져, 마음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모두 일면식이라도 있기를 원하였고, 여러 벼슬아치들이 연이어 찾아왔는데 맞이할 때의 예모는 자못 단출하였다. 그러다 망우당(忘憂堂) 곽재우(郭再祐)가 영암(靈巖)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룽으로 공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문에서 응대하는 자로 하여금 곽거사가 당도한 일을 들어와서 전하게 했는데, 공은 허둥지둥 옷과 갓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당에서 내려와 그를 맞이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 말하기를 “공이 평소 남에게 굽히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떠한 거사이기에 공께서 지극히 공경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까?”라고 하였다. 공은 마침내 곽공과 토론하며 마음이 서로 몹시 잘 맞았다. 그 뒤 곽공이 조정으로 돌아갔을 때, 임금께서 원수(元帥)의 재주를 가진 사람에 대해 묻자 공을 천거했다고 한다.

공은 비록 초야에 있었지만 시대를 걱정하는 뜻이 절실하여 하늘의 뜻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결집하는 방법에 대해 통달하여 기축년(1589)에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을 신원해 주십사 청하였고, 잘못된 정치를 혁파하고 고역을 균등하게 할 수 있는 계책을 조목조목 말씀드리면서 각 영에 설치한 둔전을 폐할 것을 청하였다. 이는 병신년 상소와 기해년 병영에 보낸 글과 그림 등을 통해 모두 징험할 수 있다.

공이 한번은 여름날 주룽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산모통이에서 큰 뱀이 기어와 배 위에 꼬리를 틀고 있었다. 공이 잠에서 깨어 그것이 뱀인 줄 알고는 끝내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스스로 떠나가기를 기다렸으니 그 기량과 신중함이 이와 같았다.

또 장을 청소하는 방법에 능통하여 저녁마다 물은 한 그릇 마시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토해내 반드시 그 그릇에 가득 찼다. 홍시 같은 과일도 삼켰다가는 한참 후에 씨와 벌레를 토해내니 사람들 중 기이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다.

시를 쓸 때는 반드시 웅대하면서도 맑고 씩씩하여 국한되지 않는 흰칠한 기개가 있었으니, 이는 공에게 그저 여사(餘事)일 뿐이었다. 읊조린 시 몇 수가 있기는 하지만 글자에 잘못된 것이 많아 그 진수를 전할 수가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공이 돌아가시자, 아우 나덕윤(羅德潤)이 시를 지어 곡했으니 대략 다음과 같다.

가슴에는 운몽을 삼키고 ⁵⁴³⁾	胸吞雲夢
말은 보불을 토하도다 ⁵⁴⁴⁾	詞吐黼黻
뜻은 우주를 넘고	志凌宇宙
눈은 천지를 초월하네	眼空霄壤

543) 가슴에는 …… 삼키고 : 광대한 포부가 있음을 말한다.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상림부(上林賦)〉에, “초나라에는 칠택이 있고 그중에 하나인 운몽택은 사방이 9백 리인데, 운몽택 같은 것 여덟아홉 개를 삼키어도 가슴속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楚有七澤，其一曰雲夢，方九百里，吞若雲夢者八九，其於胸中曾不蒂芥.]”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544) 말은 …… 토하도다 : 벼슬할 만한 재주가 있음을 말한다. 보불(黼黻)은 임금의 대례(大禮)에 사용하던 제복(祭服)이다. 구장복(九章服)에 용(龍), 산(山), 화충(華蟲), 화(火), 종이(宗彝), 조(藻), 분미(粉米), 보(黼), 불(黻)의 그림을 수놓는다. 전하여 벼슬함을 의미한다.

용처럼 강가에 누워

龍臥江潭

자신을 관중과 제갈공명에 견주었네

自擬管葛

공의 평소 뜻을 잘 묘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슬프다! 하늘이 공을 세상에 낼 때는 훌륭한 일을 하도록 한 것인데 끝내 한 번도 시험해 보지 못하였으니 운명이다.

공의 첫째 부인은 광산 김씨(光山金氏)로 문과에 급제하여 담양(潭陽) 부사(府使)를 지낸 김경헌(金景憲)의 따님이다. 둘째 부인은 문화 유씨(文化柳氏)로 유절(柳節)의 따님이다. 모두 나주(羅州) 장흥동(長興洞)에 장사지냈다.

아들 넷을 두었는데, 나이소(羅以素)와 나인소(羅因素)는 김씨가 낳았고, 나성소(羅成素)와 나취소(羅就素)는 유씨가 낳았다. 나성소는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되었다.

나이소는 네 아들을 두었는데 나유(羅楡), 나심(羅禔), 나규(羅桂), 나현(羅紘)이다.

나인소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나결(羅桔), 나격(羅禡)이다. 딸 하나를 두었는데 유시화(柳時華)에게 시집갔다. 또 서자를 두었는데 나첩(羅挾)이다.

나성소는 딸 하나를 두었는데 참봉(參奉) 이소(李韶)에게 시집갔다. 또 서자로 아들 셋을 두었는데 나표(羅表), 나방(羅方), 나원(羅袁)이다.

나취소는 후손이 없다.

공의 자손이 대를 이어 점차 쇠락하다가 나결의 손주 나만영(羅晩榮)이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벼슬이 지평(持平)에 올라 집안의 명성을 다시 떨치니 이를 통해 남은 경사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 공이 돌아가신 지 어느덧 106년이나 되었다. 그 평생 행적이 반드시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지만 세월이 오래되어 증험할 것이 없으므로 간략하게나마 보고 들은 것을 적는다. 만에 하나라도 훗날 공에 대해서 더 논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글을 통하여 공의 간략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송정(崇禎) 병자년(1636) 이후 79년 을미년(1715) 7월에 종증손(從曾孫) 생원(生員) 나두동(羅斗冬)이 삼가 쓰다.

조선 증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 행 선교랑 보은현감 금암 나공 사실기

有明朝鮮國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
副摠管行宣敎郎報恩縣監錦巖羅公事實記

공의 이름은 덕준(德峻)이고, 자는 대지(大之)이며, 성은 나씨(羅氏)이고, 호는 금암(錦巖)이다. 조상은 고려 시대 감문위(監門衛) 상장군(上將軍) 나부(羅富)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대대로 나주(羅州)를 본관으로 삼았고, 자손들은 고향을 벗어나지 않아 호남의 명망 있는 성씨가 되었다. 그 계통의 구체적인 것은 찬성공(贊成公)에 추증된 선고(先考)의 사실기(事實記)에 실려 있다.

선고는 나사침(羅士沈)으로, 중종 때 효자로 정려를 표창받았다. 일찍이 이소재(履素齋) 이중호(李仲虎)를 스승으로 섬겼고 학행(學行)으로 명성이 있었다. 벼슬은 이산 현감(尼山縣監)을 지내고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여러 아들은 중훈(從勳)으로 여러 번 추은(推恩)되었다.

두 아내를 두었는데, 파평 윤씨(坡平尹氏)는 부사(府使) 윤언적(尹彦商)의 따님이고, 광주 정씨(光州鄭氏)는 첨사(僉使) 정호(鄭虎)의 따님으로, 모두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되었다. 두 부인은 각자 아들 셋을 두어 육룡(六龍)이라고 일컬어졌는데, 공은 그 둘째 아들이다.

공이 6살이 되었을 때 윤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후비 정부인은 마치 자신이 낳은 자식처럼 길러 주었다. 공은 천성이 순수하고 아름다웠는데, 찬성공 또한 몸소 인륜에 독실하여 귀에 익고 눈에 젖었으니 가정에서 보고 감복한 것이 다만 글의 가르침뿐만이 아니었다.

나이 17~8세에 이미 고인의 학문에 뜻을 두어 세속에 휩쓸리거나 과거공부에 개의치 않았다. 아우 나덕윤(羅德潤) 금봉공(錦峰公)과 함께 날마다 서로 학업을 갈고 닦으며 형제는 지기(知己)가 되었다. 미암(眉庵) 유문절공(柳文節公)⁵⁴⁵⁾은 찬성공에게 이종형(姨從兄)이 되기에 그 문하에서

545) 미암(眉庵) 유문절공(柳文節公) :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을 말한다.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인중(仁仲)이고, 호가 미암(眉巖)이며, 해남 출신이다.

배우기를 청하여 선유들의 실마리를 얻어 들었다.

경저(京邸)⁵⁴⁶⁾에서 찬성공을 따르며 이름난 사람들 사이에서 두루 교유하였는데, 범애(汎愛) 유조인(柳祖詔), 정산(鼎山) 박동(朴洞), 사문(斯文) 신의경(申義慶)과 더불어 《예경(禮經)》을 강론하였고, 사암(思庵) 박순(朴淳), 울곡(栗谷) 이이(李珣)가 모두 인정하여 남쪽으로 돌아가는 공을 전송하며 “들으니 남쪽에 정개청(鄭介淸)⁵⁴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학행이 독실하여 남의 스승이 될 만하다고 하니 마땅히 종유하여 학업을 마치시오.”라고 하였다. 울곡은 내사한 《주자어류(朱子語類)》⁵⁴⁸⁾ 한 질을 전별품으로 주었다. 정개청은 호가 곤재(困齋)이다.

공이 고향으로 돌아와 주성 북쪽 대안동(大安洞)에 서재를 짓고 예를 갖추어 곤재에게 스승이 되어주기를 청하였다. 뜻을 같이하는 학자들과 함께 강의계(講義契)를 맺고, 절목은 향약을 더하거나 빼어 법으로 삼고, 학령은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규정⁵⁴⁹⁾을 준칙으로 삼았으니, 요컨대 학문을 닦고 힘써 행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곤재 선생이 늘 공을 애지중지하여 그를 추천하고 장려했던 말이 편지의 문답한 글에 나타나 있는데 “타고난 본성이 강하면서도 밝아 소견이 날로 발전하고 두렵고 위로됨이 모두 지극하다.”라고 한 것, 또 “뜻이 성현의 공부에 돈독하여 전적으로 수양공부에 나아가 성명(性命)의 온전함을 구하니, 이것이 이른바 군자의 자기를 위한 학문이다.”라고 한 것, 또 “그대처럼 고상하고 밝고 두려워할만한 이에게

546) 경저(京邸) : 조선 시대에 각 지방 관아에서 그 지방의 공물(貢物), 입역(立役)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에 둔 사무소를 말한다.

547) 정개청(鄭介淸) : 1529~1590. 자는 의백(義伯)이고, 호는 곤재(困齋)이며, 나주(羅州) 출신이다. 저서로 《우득록(愚得錄)》이 있다.

548) 주자어류(朱子語類) : 송대 유학의 집대성자인 주희가 강학하면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어록 모음집이다. 모두 140권이다.

549)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규정 : 주희(朱熹)가 만든 백록동서원의 규약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부자유친 등 오륜의 조목, 둘째는 널리 배운다는 ‘박학지(博學之)’ 등 학문하는 순서, 셋째는 말을 충직하고 진실되게 하라는 ‘언충신(言忠信)’ 등 수신(修身)의 요결, 넷째는 의리를 지키고 이익을 피하지 말라는 ‘정기의 불모기리(正其義 不謀其利)’ 등 사무 처리의 요결, 다섯째는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 《朱子大全 卷74 雜著 白鹿洞書院揭示》

감히 스스로를 크고 망령되이 높다고 하여 후생이 예의를 지켜 대우하는 것을 기대하겠는가. 그와 함께 의심스런 예의 문제에 대해 토론해보면 탄복하게 된다.”라고 한 것들이다.

공은 돈후하고 정밀하여 자세하여 몸소 은혜롭고 자애로운 행동을 살피 남들에게 추앙받았지만 그 스스로는 실례를 뉘우치는 뜻을 보였다. 이와 같은 사례가 매우 많은데 모두 정씨의 《우득록(愚得錄)》에 기록되어 있다.

집안에 간소한 부인이 유복자가 있다고 사칭하며 양자를 기르고자 도모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찬성공이 막 고을에 부임하여 공의 형제들이 그 일을 가지고 윤리와 기강을 근거로 소장을 올렸으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판결이 나지 않았다.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이 고을에 부임하여 거짓을 밝혀 결단하며 “세상의 쟁송은 이익으로써 하는데, 그대들은 하늘의 이치로써 하니, 그대들은 진정 의로운 선비이다.”라고 하고, 마침내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더불어 교유하였다.

성의 서쪽 대곡동(大谷洞)에 서원을 세우고 한훤(寒暄)⁵⁵⁰, 일두(一蠹)⁵⁵¹, 정암(靜菴)⁵⁵², 회재(晦齋)⁵⁵³, 퇴계(退溪)⁵⁵⁴ 등 다섯 분의 선생께 제사를 올려 사림(士林)으로 하여금 본보기로 삼게 하였는데, 실제 공의 형제가 의논하고 학봉이 지은 것이었다.

기축년(1589) 겨울에 정여립(鄭汝立)의 옥사가 있었다. 정여립은 일찍이 거짓된 마음과 가식적인 행동으로 당세를 두루 속였다. 처음에는 울곡과 우계(牛溪) 성혼(成渾)에게 수학하여 칭찬을 받고 인재로 뽑혀 자못 힘을 얻었으나 울곡이 세상을 떠나자 정여립은 비로소 마음과 얼굴을 바꾸어 도리어 울곡을 배척하고 비판하였다. 선조(宣祖)께서 교서에 “정여립은 오늘날 형서와 같은 자이다.”⁵⁵⁵”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 대개

550) 한훤(寒暄) :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을 말한다. 자는 대유(大猷)이고, 호가 환당이다.

551) 일두(一蠹) :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을 말한다. 자는 백옥(伯蔚)이고, 호가 일두이다.

552) 정암(靜菴) : 조광조(趙光祖, 1482~1519)를 말한다. 자는 효직(孝直)이고, 호가 정암이다.

553) 회재(晦齋) : 이언적(李彦迪, 1491~1531)을 말한다. 자는 복고(復古)이고, 호가 회재이다.

554) 퇴계(退溪) : 이황(李滉, 1501~1570)을 말한다. 자는 경호(景浩)이고, 호가 퇴계이다.

555) 오늘날 …… 자이다 : 스승을 저버리고 배반한 제자를 가리킬 때 흔히 거론하는 인물이 형서(邢

조정의 의론이 어그러진 이래로 동서가 서로 배척함이 갈수록 격해지자, 정철은 속이 좁고 괴팍하여 불평이 많아졌다. 또 곤재가 일찍이 정철이 주색에 빠지고 예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세상의 도가 윤택될 것을 걱정했는데 이 때문에 정철에게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홍천경(洪千璟)과 양천경(梁千頃)은 향리에 살면서 행실이 경박하고 하지 않는 일이 없어 선비 무리에 들지 못했던 자들이었는데, 오직 정철만을 우러러보면서 곤재를 업신여김이 특히 심하였다. 공의 형제가 곤재를 따라 공부하는 사람 중 가장 이름이 났기 때문에 질투를 받는 것 또한 심하였다.

정여립이 옥사를 일으키자, 정철이 위관을 맡아 때를 틈타 없는 죄를 만들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여러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정암수(丁巖壽), 홍천경, 양천경 등이 정철의 생각을 받들어 모함하는 상소를 지어 조야의 유명 인사 30여 명을 무고했는데 곤재도 그 속에 들어 있었다. 또 공과 공의 부자 이름을 들어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는 정여립과 엄밀히 교유를 맺고 있다가, 재앙이 자기에게 미칠 것을 알고 죄 없는 사람들을 신원해 주는 글을 지었습니다.”라고 하였고, 또 공의 형제들의 말을 날조하여 “쇠퇴한 세상에는 과거에 응시할 필요가 없으며 수년이 지나면 반드시 태평한 세상이 올 것이니 기다려라.”라고 했으니 그 밖의 다른 말들도 흉악하고 참람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했다. 공의 아우 나덕현(羅德顯)과 나덕헌(羅德憲)이 매우 분통해하며 정암수 등이 모인 장소에 가서 면전에서 그를 준엄하게 배척하였다.

상소가 들어가자, 임금께서 진노하며 “역적들의 변란을 틈타 형제도 없는 말을 날조하여 몰래 사악한 상소를 올려 어진 재상과 이름난 벼슬아치들을 배척하지 않음이 없으니, 반드시 나라를 텅 비게 한 뒤에야 그만둘 것이다. 이들은 반드시 간교한 사람들의 사주를 따른 것이다.”라고 하고, 정암수 등 10인을 잡아와 국문하도록 명하였다.

정철은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 더욱 속이고 진실을 가리는 계획을 세워

憲)이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형서의 자는 화숙(和叔)으로, 《근사록(近思錄)》 권9 치법류(治法類)에 자기의 스승인 정명도(程明道)를 통유(通儒)요, 전재(全才)라고 극찬한 말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보주(補註)에 “형서가 명도에 대해서는 이처럼 추앙하며 심복하였지만, 명도의 아우인 이천에 대해서는 아마도 불만스러운 생각이 있었던 듯하다. 그래서 함께 배운 벗들이 그가 스승을 배반하였다고 많이 꾸짖게 되었던 것이다.”라는 말이 나온다.

양사(兩司)와 태학생들을 부추겨 교장(交章)으로 구제하기를 힘써 ‘상소한 선비는 국문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하니, 마침내 그 명령이 그치게 되었다. 옥사에 연루된 자들이 더욱 많아 향읍으로 하여금 죄인 무리, 홍천경, 품관 중 불량한 자들을 수소문하게 하였는데, 유발(柳潑) 등의 무리가 그 사이에서 모함하기도 하였다.

경인년(1590) 여름에 곤재가 체포당하고 공과 공의 부자 여섯 사람도 모두 심문을 받게 되었는데, 정암수의 상소를 저지하도록 도모한 것이 죄의 사안이었다. 임금께서 교서를 특별히 내려 “이름이 효자에 든 자는 용서하고, 증오를 쌓아 무고하게 끌어들이 자들은 모두 파직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찬성공은 마침내 곧바로 용서받았지만, 공은 차월에 따라 부령으로 귀양 갔다. 여러 형제 중 어떤 사람은 변방 고을로 옮기고, 혹은 중도에 유배 갔다. 이때 죽음과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진실로 찬성공의 지극한 행동에 묵묵히 임금께서 마음속으로 감동함이 있어서였다. 곤재 또한 경원(慶源)으로 장배(杖配) 되어 가는 길에 공의 처소에 들러 마주했는데, 근심하는 낯빛 없이 다만 《주역》 강의를 약속하였다. 얼마 후 곤재가 유배지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패를 만들어 곡하였다.

이듬해 임금께서 후회하고 국시(國是)가 안정되자, 옥사를 주관한 정철이 강계(江界)에 귀양 가게 되었다. 또 이듬해 왜란이 일어나자 크고 작은 죄를 지어 귀양 간 사람들을 석방하라는 명을 내리셨는데 곧장 공도 계사년(1593)에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갑오년(1594)에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이 영의정이 되어 자격에 구애받지 않고 10가지 조목에 따라 선비를 취하여 발생한 난리에 방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건의를 청하고 구암(久庵) 한백겸(韓百謙) 등 3인을 뽑았는데, 공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는 재상 두암(斗巖) 김응남(金應南)이 천거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망운(望雲)⁵⁵⁶ 감목관(監牧官) 겸(兼) 장모속사(掌募粟事)의 관직을 내렸다. 예전에는 임금께서 목관의 다스림이 허술할까를 걱정하여 일찍이 대관(臺官)을 거친 자들을 등용하여 감목(監牧)으로 삼아

556) 망운(望雲) : 전라남도 영광의 망운면을 말한다.

수령들을 규찰하고 왕래하면서 조사하도록 하였다. 또 당시에는 마음대로 둔전을 만들어 군대의 양식에 보충할 계획을 세웠으니 아예 사람을 뽑아 그 일을 주관하게 한 것이었다. 전임 수령과 낭서(郎署)에 임명된 자들을 대부분 임명했으나 공을 초야에서 뽑아 임명했으니 어찌면 공의 재주를 시험해보고자 한 것이었다.

이듬해 서애 재상이 나라를 막는 대책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논계(論啓)를 올리라며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의 종사관으로 공을 뽑도록 청하고 전년에 모은 곡식을 품자하여 연변의 여러 둔전에 파종 허가를 청하였으니, 이 일은 《서애유고》에 실려 있다.

이윽고 사포서(司圃署) 별좌(別坐)에 임명되었는데, 당시 찬성공의 나이가 70이 넘었기에 부모를 섬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겨 사양하고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병신년(1596) 12월에 찬성공이 돌아가시자 상례를 치름에 예를 어김없이 치렀고, 장례를 치른 후에는 묘 아래에서 시묘살이를 하였다.

정유년(1597)에 왜적들의 배가 갑자기 앞에 있던 강까지 다다랐는데, 비록 매우 위급한 때를 만났을지라도 초상에 대한 슬픔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니, 사람들은 더욱 칭찬하였다.

기해년(1599) 봄에 상복을 벗었다. 그해 가을 곤재의 원통함을 상소했지만 윤허 받지 못하였다. 이윽고 보은 현감(報恩縣監)에 발탁되었으나 관직에 나가기도 전에 그를 좋아하지 않은 자들에게 모함 받았다. 공의 형제들은 스승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기를 매우 원통해 하며 비록 난리 속 정신없는 가운데에서도 의리상 차마 잊을 수 없어 지하에 계신 분을 위해 한번 씻어주기를 바랐다.

그보다 앞서 을미년(1595)에 공의 아우 금봉공(錦峰公)이 처음 상소를 올려 바로잡으려 하였다. 임금께서 비답에 “너희들의 의론이 지극하다. 마땅히 의논하여 처리하라.”라고 하며 비변사에 명을 내리셨다. 재상 서애 유성룡이 회계(回啓)하고 애통해 하면서, 애당초 옥사가 너무 지나친 이유를 아뢰고 또 정개청(鄭介淸)이 학술과 검박한 행동으로 자임하다가 우연히 한 편 지은 글로 인하여 몸을 망치기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이러한 원통함을

하소연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임금께서는 훗날 얼굴을 마주하고 의논하자고 답하는 데 그치셨다.

이듬해 큰형 나덕명(羅德明) 소포공(嘯浦公)이 하늘의 뜻을 감동시키고 인간의 마음을 맺는 도를 상소하여 기축년(1589)에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의 신원을 청하였고 이에 이르러 또한 공의 상소가 있었다. 대개 큰 옥사가 있는 뒤에는 사람의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이 보통인데, 공의 형제는 위기를 피하지 않고서 목소리를 내어 진심을 드러내 앞뒤로 서로 이어 거의 임금께서 생각을 되돌리기를 바랐지만, 임금께서는 속으로 어렵게 여기셔서 여전히 사림의 섭섭함을 풀어주지 않으셨다. 사람들 중에 정철을 보호하려는 사람이 또 공의 집안을 원망하여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지만, 공은 어려움을 겪고서도 일찍이 근심과 수모 때문에 뜻을 꺾지 않은 채 평탄하게 일을 처리함이 이와 같았다.

공은 가정 계축년(1553) 2월 3일에 태어나 52년을 살았다. 만력 갑진년(1604) 8월 28일에 세상을 떠나 남영산(南榮山) 간좌(艮坐) 곤향(坤向)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인조 때 아들 나위소(羅緯素)가 원종(原從)에 참여하여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에 추증되고, 현종(顯宗) 때 동추(同樞)에 오르자 다시 호조 참판(戶曹參判)에 추증되었다.

공은 타고난 성품이 진실하고 순박하며 덕을 갖추었고 순수함이 넘쳐 두루두루 교제를 하면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으며, 정도를 따르면서도 작은 신의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화한 기운과 온후한 기풍이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바라보게 했음을 알 수 있다.

공의 뜻은, 자공(子貢)이 풍부함과 절약 사이에 마음을 두었기에 안자(顔子)와 증자(曾子)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어렸을 때부터 집안 식구들의 생업에 대해 일삼지는 않았다. 그는 학문을 통해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의를 강마하여 밝힐 수 있다고 여겼다. 《소학(小學)》과 《가례(家禮)》로부터 사서(四書)를 경유하여 육경(六經)에 통달했고 또 여러 책에 두루 통하였는데 스승과 벗들을 섬기며 종유하여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수양하였다.

여러 아들에게 글을 남겨 가르쳤으니 마음을 보존하고 체득하며, 몸을

이기고 형제를 실천하는 노력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여 그것에 힘쓰라고 했으며, 분수에서 벗어나고 몸을 영화롭게 하거나 집에 편안히 거처하면서 스스로 편하게 살려는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신신당부하면서 경계하고 조심하도록 하였다. 종신토록 효친의 뜻에 성의를 다하며 “효도란 천경(天經), 지의(地義), 강상(綱常), 윤기(倫紀)의 중한 것과 큰 것이요 모든 행동의 근원이며 사람 도리의 늘 해야 하는 것이니, 학자들은 이를 배울 따름이고 행하는 사람은 이를 행할 뿐이다. 효자의 집에서 충신을 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공은 일찍이 어머니를 잃어 평생의 한으로 여겨 영리에는 생각을 끊고 오로지 부모님을 모시는 데 뜻을 두었다. 타인을 만날 때도 집안에서 사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며 집안에서 부모님께 음식을 올릴 때에도 그것을 나누어 드려야 되는지를 여쭙어 부모님의 뜻을 받들었다. 찬성공이 돌아가시자, 정부인(鄭夫人)은 공의 집에 거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번은 별좌(別坐)의 집에서 거처하는 것이 편안하다고 늘 말하였다.

공이 보은 현감(報恩縣監)에 임명되었을 때 아우 나덕신이 막 무장 현감(茂長縣監)이 되었으니 영화로움과 부모 봉양이 지극하다고 소문이 났으며 공은 즐거운 마음을 갖고 왕래하고자 하였다. 고을 사람들 중 자손을 가르치고 두 번째 어머니를 모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보은(羅報恩)을 모범으로 삼아라.”라고 말하였다.

선조의 제사가 있을 때면 반드시 3일 전부터 소복을 입고 조용히 거처하면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제사 지냈다. 일찍이 옛사람을 사모하여 형제들과 함께 살며 동당이실제(同堂異室制)⁵⁵⁷⁾를 계획하여 장차 의전(義田)⁵⁵⁸⁾을 만들고자 했으나 생각지 못한 화를 당한데다가 다시 나라의

557) 동당이실제(同堂異室制) : 건물은 같이 쓰고 그 안에서 실만 따로 하는 제도이다. 원래 종묘의 제도는 소목(昭穆)의 제도로 태조의 묘를 중앙에 놓은 다음 2세, 4세, 6세를 왼쪽에 놓아 소묘라 하고, 1세, 3세, 5세를 오른쪽에 놓아 목묘라 하는데, 묘는 각각 독립된 건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후한(後漢)에 이르러 명제(明帝)가 자신의 사당을 따로 세우지 말고 광무제(光武帝)의 사당에 안치하도록 유지를 남김으로써 동당이실의 제도가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들여와 종묘에 적용한 것이다.

558) 의전(義田) : 문중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하는 전지(田地)이다. 송(宋)나라 범중엄(范仲淹)이 처음 명명한 것으로, 범중엄은 한창 현달했을 때에 부과(負郭)의 좋은 토지 천묘(千畝)를 마련하고 이

난리까지 더해져 모든 뜻을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종족을 극진히 사랑하고 정다운 마음이 망운에 있었다.⁵⁵⁹⁾

심한 흉년을 만나 백성이 매우 곤궁해지자 공은 장랑(長廊)을 짓고 일가의 자제들을 모두 모아 기근에서 구제하였으며 또 그들을 위해서 학문을 권장하니, 전하는 자들이 미담으로 삼아 칭찬하였다. 그의 실제 행동이 집안에서 드러난 것이 대략 이와 같았다.

처음에는 장수 황씨(長水黃氏) 어모장군(禦侮將軍) 황호(黃顥)의 따님에게 장가들었으니 영의정 익성공(翼成公) 황희(黃喜)의 6세손으로, 신해년(1551) 8월 9일에 태어나 45년을 살다 을미년(1595)에 세상을 떠났다. 다시 문화 유씨(文化柳氏) 유렴(柳濂)의 따님에게 장가를 들었으니 우의정(右議政) 문간공(文簡公) 유관(柳寬)의 8세손으로 정축년(1577) 7월 22일에 태어나 30년을 살고 병오년(1606)에 세상을 떠났다. 기일은 같은 정월 10일이다. 모두 정부인(貞夫人)에 추증되고 모두 공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다섯 아들과 두 딸을 두었다. 나찬소(羅縝素)는 선무랑(宣務郎)을 지냈고, 나계소(羅縝素)는 무과에 급제하여 첨중추(僉中樞)를 지냈고, 나위소(羅緯素)는 문과에 급제했지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 고을에서 고생을 하다가 만년에 동중추(同中樞)를 지내고 좌참찬(左參贊)에 추증되었다. 공의 첫째 딸은 주부(主簿) 김잡(金礪)에게 시집가서 절의를 지키다 죽어 정려로써 표창받았고, 둘째는 선교랑(宣敎郎) 최광헌(崔光憲)에게 시집갔다. 이들은 황씨가 낳았고, 나치소와 나경소는 유씨가 낳았다. 또 양자로는 나함소(羅緘素)가 있다.

나찬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들 나겁(羅楫)은 선교랑(宣敎郎)을 지냈고, 딸은 김훈(金燾)에게 시집갔다. 나계소는 아들이 없어 동추(同樞)의 셋째 아들 나진(羅軫)을 데려다 후사로 삼았다.

나위소는 아들 셋과 딸 셋을 두었는데, 세 아들 중 나염(羅裨)은 호조정랑

를 의전이라 호칭하여, 여기에서 수확한 재물로 가난한 종족들을 구제하였다. 《宋史 卷310 范仲淹列傳》

559) 정다운 …… 있었다 : 원문의 ‘망운(望雲)’은 타향에서 멀리 떨어진 부모나 형제, 친지를 그리워 할 때 쓰는 표현이다. 당나라 적인걸(狄仁傑)이 태항산(太行山)에 올라 멀리 남쪽으로 흰 구름 하나가 떠가는 것을 보고는, 저 구름 아래에 부모님이 계실 것이라면서 한참 동안 슬퍼하다가 구름이 보이지 않게 된 뒤에야 떠났다는 고사가 있다. 《新唐書 卷115 狄仁傑列傳》

(戶曹正郎)을 지냈고, 나금(羅欒)은 성천 부사(成川府使)를 지냈고, 나진은 금부 도사(禁府都事)를 지냈다. 첫째 딸은 생원 김만수(金晩壽)에게, 둘째 딸은 이만종(李萬鍾)에게, 셋째 딸은 서령(署令) 정기수(鄭岐壽)에게 시집갔다.

김잡은 후손이 없고, 최광현은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다. 아들 최명해(崔鳴海)와 최익해(崔翼海)가 있는데, 최익해는 생원시에 합격했고, 딸은 조종경(趙宗慶)에게 시집갔다.

나치소는 아들 넷과 딸 둘을 두었는데, 나기(羅祺)는 통덕랑(通德郎)을, 나겸(羅兼)은 선교랑(宣敎郎)을, 나균(羅鈞)은 수작(壽爵)으로서 부호군(副護軍)을, 나형(羅瑩)은 통덕랑을 지냈다. 두 딸은 강석종(姜碩宗), 정두형(鄭斗亨)에게 각각 시집갔다.

나경소는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나적(羅積)은 통덕랑을 지냈고, 나단(羅檀)과 나선(羅禎)은 문과에 급제하여 장령(掌令)을 지냈으며, 딸은 이진교(李震嶠)에게 시집갔다. 나함소는 딸을 하나 두었는데 양변(梁忭)에게 시집갔다.

나겸은 나두천(羅斗天)을 낳았는데, 무과에 급제하여 현감을 지냈으며, 나두우(羅斗宇)이다. 나염은 나두삼(羅斗三)을 낳았는데 현감을 지냈으며, 둘째 나두장(羅斗章)은 교관을 지냈다. 나반은 아들이 없어 나두장을 데려다 후사로 삼았다.

나진의 첫째 나두춘(羅斗春)은 좌랑을 지냈고, 나두하(羅斗夏)와 나두추(羅斗秋)는 모두 통덕랑을 지냈으며, 나두동(羅斗冬)은 생원에 합격했다.

나기는 나두규(羅斗奎), 나두서(羅斗緒), 나두집(羅斗集), 나두홍(羅斗弘)을 낳았다. 나겸은 나두회(羅斗會)를 낳았다.

나균은 자식이 없어 나두선(羅斗璇)을 데려다 후사로 삼았다. 나형은 나두선, 나두종(羅斗琮)을 낳았다.

나적은 나두남(羅斗南)을 낳았는데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을 지냈다. 나두창(羅斗昌), 나두형(羅斗亨)은 모두 통덕랑을 지냈다.

나단은 아들이 없어 나두형을 데려다 후사로 삼았다.

나선(羅禎)은 첫째 나두원(羅斗元), 둘째 나두문(羅斗文)을 낳았는데 모두

통덕랑을 지냈고, 셋째 나두도(羅斗度)를 낳았다.

나두전은 나만형(羅晩亨)을 낳고, 나두우는 나만성(羅晩成)을 낳았는데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을 지냈다.

나머지 내외의 자손들 모두 거론할 수 없다.

아! 공의 재주와 학업과 품행과 도의로도 불행한 때를 만나 세상에 펼쳐보지도 못하셨으며, 돌아가신 지 또 백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장차 이름이 묻혀 전하여지지 않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나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는 동추(同樞)의 따님이다. 내가 일찍이 작은 외삼촌을 섬기고 또 여러 내종형제를 종유하여 매번 선조의 옛일에 대해 들었는데 그 말들이 마치 어제 들은 것 같다. 내외증손들 중 뒤에 죽은 자들로 하여금 다만 몇 명 있지만 남은 사람들 또한 많이 늙었다. 이에 나두동 씨가 세월이 장차 멀어질수록 더욱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을 것을 개탄하여 사적들 가운데 여러 문적에서 뒤섞여 나오는 것을 모으고 또 집안에서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를 가지고 증거로 삼아 후세에 볼 수 있게 도모하고자 고개 넘어 천리에 부쳐 나로 하여금 다듬고 수정하여 책으로 만들게 하였다. 삼가 이 뜻에 감격하여 감히 보잘 것 없는 말로 거절할 수가 없기에 일의 본말을 차례대로 서술하여 사실기로 삼는다.

송정(崇禎) 정축(丁丑) 후(後) 85년인 임인년(1722) 3월 16일에 외증손 전 참봉(參奉) 팔계(八溪) 정중원(鄭重元)은 삼가 쓰다.

조선 통훈대부 행 사헌부 감찰 금봉 나공 사실기

有明朝鮮國通訓大 行司憲府監 錦峰羅 事實記

나씨(羅氏)는 대대로 나주(羅州)에 살면서 덕이 두텁고 경사스러움이 쌓여 벼슬이 끊어진 적이 없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호남의 명문가를 꼽으라면 반드시 나씨를 말한다. 고려시대 감문위(監門衛) 상장군(上將軍) 나부(羅富)가 실로 시조이며, 후대의 나진(羅璉)에 이르러 공조 전서(工曹典書)가 되어 공양왕 2년(1390) 영산(榮山)에서 조창과 축성을 감독했으니, 이 일은 《여지지(輿地志)》에 실려 있다.⁵⁶⁰⁾

아들 나공언(羅公彦)은 전농시(典農寺) 정(正)을 지냈다. 우왕 7년(1381)에 도순문사(都巡問使) 이을진(李乙珍)을 따라 왜적을 물리친 공이 있었는데, 이 일은 《고려사》에 실려 있다.

아들 나집(羅諱)은 식목도감 녹사(式目都監錄事)를 지냈고, 아들 자강(自康)은 무안 현감(務安縣監)을 지냈으며, 아들 나계조(羅繼祖)는 장사랑(將仕郎)을 지냈으니, 이 분이 바로 공의 고조이다. 증조 나일손(羅逸孫)은 전연사 직장(典涓司直長)을 지내고,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에 추증되었다. 조부 나질(羅晳)은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지내고, 호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부친 나사침(羅士沈)은 어려서부터 지극한 효행이 있어, 중종께서 정려로 표창하셨다. 이소재(履素齋) 이중호(李仲虎)의 문하에서 공부했으며, 동문들이 모두 추대하고 중히 여겼다. 선조 초에 관찰사(觀察使) 서교(西郊) 송찬(宋贊)이 그를 학행으로 천거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이산 현감(尼山縣監)에 이르렀는데, 그의 거사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한 송이 시든 꽃 외로운 한 마리 학
쓸쓸한 행리에 고인의 풍모가 있네

倭花一朵鶴一隻
行李蕭然古人風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추증되었다. 첫째 부인은 파평 윤씨(坡平尹

560) 여지지(輿地志)에 …… 있다 : 이러한 내용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 34에 실려 있다.

氏)로 부사(府使) 윤언적(尹彦適)의 따님이고, 둘째 부인은 광주 정씨(光州鄭氏)로 사도 첨사(蛇渡僉使) 정호(鄭虎)의 따님이다. 두 분은 각기 세 아들을 낳았다.

첫째는 도사(都事)를 지낸 나덕명(羅德明)으로, 영특하고 호걸스러워 명예에 얽매이지는 않았다. 둘째는 현감을 지낸 나덕준(羅德峻)으로 곧 나의 증조부이다. 효도와 우애와 품행과 도의로 이름이 났었다. 공은 바로 셋째이다. 그 다음 넷째는 처사 나덕현(羅德顯)으로, 효행이 있어 추증되었다. 또 그 다음 다섯째는 군수(郡守)를 지낸 나덕신(羅德愼)이며, 막내는 수사(水使)를 지낸 나덕헌(羅德憲)인데, 두 분 모두 무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가 왜적을 섬멸하여 공을 세웠고, 오랑캐의 조정에서 항거하여 절개를 지키기도 하였다. 형제 여섯 명이 모두 당세에 이름이 나서, 어떤 이는 찬성공의 만사에,

사씨 집안의 쌍벽⁵⁶¹을 하찮게 여기고
순호의 팔룡⁵⁶²도 가볍게 여겼지

謝家雙璧賤
荀戶八龍輕

라고 했으니, 공의 형제들을 칭송한 것이다.

공의 이름은 덕윤(德潤)이다. 처음에는 자를 유지(有之)라고 했다가 훗날 성지(誠之)로 고쳤다. 금봉(錦峰)은 그의 호이다. 가정(嘉靖) 36년인 정사년(1557) 3월 1일에 태어났다. 이듬해 9월에 어머니 윤부인(尹夫人)이 세상을 떠나자, 공은 울며 젖을 먹지 못하여 늙은 여종에게 길러졌다. 나이 열다섯이 되자 비로소 학문에 나아갔다.

임신년(1572)에 찬성공이 서울에서 벼슬하게 되어 공이 따랐는데 나이가 겨우 열여섯 살 밖에 되지 않았어도 문사는 이미 통달하였다. 당시 같은 고을 사람 함양(咸陽) 이언양(李彦讓)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561) 사씨 …… 쌍벽 : 원문 ‘사가(謝家)’는 진(晉)나라 때 태부(太傅)를 지낸 사안(謝安)의 집안을 말한다. 또 ‘쌍벽(雙璧)’은 본래 한 쌍의 옥벽(玉璧)을 말하는데, 전하여 형제 또는 두 사람이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뛰어난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귀한 집안이나 벼슬을 한 훌륭한 자식 등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562) 순호의 팔룡 : 후한(後漢) 때, 순숙(荀淑)의 여덟 아들을 가리킨다. 모두 뛰어난 재능이 있었으므로 ‘순씨팔룡’이라고 불렸으며, 후세에 남의 자제들이 훌륭하다고 칭찬할 때 흔히 사용한다.

문인으로 선비들 사이에서 명성이 난 인물이었는데 찬성공과 함께 경저(京邸)에서 생활하면서 수년 동안 공을 가르쳐 선비의 정식으로 《소학(小學)》, 사서(四書), 《심경(心經)》과 《근사록(近思錄)》을 전수했더니, 공의 실력이 일취월장하였다. 이공은 그의 재주를 매우 아껴 자신의 딸을 시집보냈다.

장성해서는 과거 공부를 좋게 여기지 않았고, 둘째 형과 뜻을 같이 하여 학문에 힘써 늘 미암(眉岩) 유희춘(柳希春)에게 의심나는 것을 물었다. 미암은 곧 찬성공의 이종형으로 학문이 넓고 들은 것이 많아 경연의 이름난 선비였다. 매번 공을 장려하여 힘쓰도록 하였고, 기량이 크고 중하다 여겼다. 또 범애(汎愛) 유조인(柳祖詔), 정산(鼎山) 박동(朴洞), 사문(斯文) 신의경(申義慶)을 증유하며 《예경(禮經)》을 강론하여 이로부터 벗들에게 크게 인정받았다. 사암(思庵) 박순(朴淳), 울곡(栗谷) 이이(李珣) 같은 이들도 더욱 가상하게 여겨, 곤재(困齋) 정개청(鄭介淸)의 어짐을 칭찬하며 공의 형제들이 증유하여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권장하였다. 마침내 남쪽 고향으로 돌아와 고을 성의 북쪽 대안동(大安洞)에 서재를 짓고 곤재를 스승으로 받들어 모시고 동지들과 강의계를 결성하여 경전을 토론했는데 특히 주자서(朱子書)에 더욱 힘썼다.

정축년(1577) 무렵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이 곧 좌막(佐幕)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의 스승 일재(一齋) 이항(李恒)의 상을 당하자 달려가 곡하고 난 뒤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비단 방석에 앉아 관가에서 지공하는 것을 받은 일이 있었다. 대개 김천일은 일찍 고아가 되어 일재에게 수업을 받아 실로 그의 가르침과 추천에 힘입어 세상에서 중시되었는데, 스승이 돌아가셨는데도 상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공은 마음속으로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곤재에게 편지를 올려 스승의 상복제도에 대하여 강론한 것이다. 김천일의 문인들 가운데 질책하는 자들이 많았지만, 공은 개의치 않았으니 당시 공의 나이 21세였다. 이 일은 《우득록(愚得錄)》에 실려 있다.

이보다 앞서 공의 큰아버지 목사공(牧使公)의 후처 서씨(徐氏)가 성격이 사납고 교활하여 전처의 자손들을 미워하고 질시하였는데, 자신이 낳은 아들인 나덕순(羅德純)이 일찍 죽은 뒤에 그의 며느리 임씨와 함께 몰래

남의 자식을 데려다 유복자라고 속였다. 공의 형제들은 그의 패륜적인 행동에 분개하여 찬성공에게 자문하고 미암에게 의논하여 관에 소장을 올려 일을 밝혀냈다. 한강(寒岡) 정구(鄭逋)가 이른바 “나씨 가문에서 그의 거짓됨을 변별하고 집안을 어지럽힌 것에 대해 쟁송하였다.”라고 한 것은 대개 이 일을 가리킨다.

여러 번 추핵(推覈)을 거치고 몇 년 동안 결판이 나지 않자,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이 목사로 부임하여 그 거짓을 밝히고 곧장 판결하였다. 학봉이 공의 형제들에게 “세상의 쟁송들은 이익으로써 하는데 그대들의 쟁송은 천리으로써 하니 진정 의로운 선비이다.”라고 하고 마침내 진심으로 교류를 맺었다.

이에 공의 형제들이 학봉에게 의논을 드려 성의 서쪽 대곡동(大谷洞)에 서원을 세워 한훤(寒暄), 일두(一蠹), 정암(靜庵), 회재(晦齋), 퇴계(退溪) 등 오현(五賢)을 함께 제사 올려 사림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했는데 일을 미처 마치지도 못한 채 학봉이 물러나게 되자, 임윤신(任允臣)이 와서 그 일을 대신 이루었다.

정해년(1580) 겨울에 비로소 봉안의 예를 행했는데, 그 제문은 바로 공이 지은 것이다. 공이 스승을 따른 지 십수 년이 되었지만 틀에 박힌 공부를 일삼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억지로 향시를 보아 양장(兩場)에 모두 합격하였다. 총산(葱山) 정언응(鄭彦應)은 함께 같은 시험장에 들어가 공이 지은 것을 보고는, 글이 근원이 있고 넓어 저절로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이 통하게 한다고 칭찬하였다.

이듬해 무자년(1581) 봄, 진사에 급제했으니 바로 선조 21년이였다. 당시 조정의 의논이 나누어지고 더욱 더 격렬해지자, 정철(鄭澈)은 늘 뜻을 잃고 원망함이 있었기에 나주 사람 홍천경(洪千璟)과 창평 사람 양천경(梁千頃) 등을 그의 부하로 삼아 당을 만들고 무리를 결성하여 뜻을 마음대로 하고 바른 것을 날조하니, 곤재는 더욱 천경의 무리들에게 공격받았다. 공의 형제가 곤재의 문하생으로 모두 훌륭한 명성이 있었는데, 간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여 이를 갈고 틈을 노린 것이 대개 수년이나 지속되었다.

기축년(1589) 겨울에 정여립이 반역한 옥사가 일어나자, 정철이 위관(委

官)이 되어 기미를 틈타 없는 죄를 만들었다.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이 훗날 등대(登對)⁵⁶³⁾하였을 때, 기축년(1589)의 옥사가 사람으로서는 차마 하지 못할 짓이라고 진설하였다. 동복(同福) 사람 정암수(丁巖壽), 홍천경, 양천경 등이 정철의 뜻을 이어 상소하여 여러 이름난 사람들을 무고하니 영상(領相) 이산해(李山海)와 예판(禮判) 유성룡(柳成龍)은 모두 임금께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인데도 상소에 들어 있었고 심지어 공과 공의 부자 이름 또한 들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정여립과 교유를 긴밀하게 하다가 일이 드러나자 거기에서 자신을 구하려 한다.”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그들이 쇠퇴한 세상에는 과거에 응시할 필요가 없으니, 장차 태평시대를 기다리라고 했으니 말뜻의 흉악함이 극심하다.”라고 하였다. 공의 동생 나덕현(羅德顯)과 나덕헌(羅德憲) 등은 무고 받은 것을 분하게 여겨 상소한 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지극한 말로 준엄하게 배척하였다.

정암수의 상소가 들어가자, 임금께서 진노하며 “역적의 변란을 틈타 드러나지 않은 말을 거짓으로 만들고 사악하고 속이는 상소를 몰래 올려 어진 재상이나 이름 난 경(卿)들까지 지목하여 배척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반드시 나라를 텅 비게 한 뒤에야 그만 둘 것이다. 이는 필시 간신배들의 부추김을 따른 것이다.”라고 하고 정암수 등 10명을 잡아들여 국문하며 죄를 밝히도록 명하였다. 정철은 그 사실이 발각될까 걱정하여 대간과 태학생들을 시켜 힘써 구제하게 하자, 이미 낸 명령이 그만두게 되었다. 하지만 옥사가 오랫동안 끝나지 않자 더욱 심해졌다.

경인년 여름에 또 군읍의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들, 홍천경, 품관(品官) 유발(柳潑), 정여릉(鄭如陵) 등을 염탐하게 하여 묵었던 감정을 드러내 이에 따라 죄목에 엮었다. 이에 곤재가 체포되었고 공의 여섯 부자 또한 심문을 받게 되었는데, 이전 정암수의 상소를 저지했다는 이유로 죄목을 엮은 것이었다.

심문의 답변이 이르자, 임금께서 특별히 전교를 내려 “효자의 가문에서 충신을 구한다고 했으니, 이름이 효자에 든 사람은 용서하고, 무고하여 미움을 받은 자들은 모두 파직하라.”고 하였다. 찬성공은 다행히 곧바로

563) 등대(登對) : 임금의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조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면되었지만, 공의 형제 다섯은 모두 풀려나지 못하였다. 공은 회령으로 유배 갔고, 나머지 형제 중 어떤 이는 바닷가로, 어떤 이는 도형(徒刑)을 받고 유배 갔다.

이때 재앙을 예측할 수가 없어,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면서 감히 안부를 묻는 사람이 없었는데 학봉(鶴峰)만은 홀로 편지를 써서 위로하며 “한 집안 사람들이 온전히 살아있는 이유는 진실로 효도에 감동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顙)이 회령에 먼저 유배 갔었는데 공이 유배지에 이르자 마침내 서로 따르며 마음으로 인정하고 글을 써서 회포를 풀어 시름을 보냈다.

곤재 또한 장형을 받고 유배 가게 되어 북쪽으로 가다가 공의 유배지에 들렀는데, 조금도 원망하는 말 없이 다만 《주역》 강의를 약속하였다. 얼마 후 곤재의 병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서 달려가 돌봤으며 초상이 나자 공서(公西)의 일⁵⁶⁴⁾을 행하였다.

이듬해 임금께서 비로소 정철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아 간악하고 악독한 정철에 관한 교서를 특별히 내리시고 방을 붙여 조정에 알렸다. 헌장(憲章) 이원익(李元翼) 등이 마침내 달아난 정철을 잡아야 된다는 장계를 올리고 형벌의 법률을 추가하였으니, 공론이 대개 이렇게 정해졌다.

임진년(1592)에 왜란이 일어나자 동강이 은혜를 입어 먼저 사면되었다. 시를 지어 공에게 회포를 보냈는데, 공도 그 운에 따라 답시를 보냈으니 다음과 같다.

온갖 흉악한 자들 눈앞에 모였으니	百兇叢目下
슬프다! 우리가 뒤에 태어남이여	哀哉我生後
적들이 무리지어 이미 안에서 시끄러운데	賊莽既內訌
추악한 오랑캐들마저 밖에서 짓밟고 있네	醜虜又外蹂

564) 공서(公西)의 일 : 상을 치르고 묘를 돌보는 것을 말한다. 공서는 공자의 문인으로, 공서(公西)가 씨(氏)이고 적(赤)이 이름이며, 자는 자화(子華)이다. 공자 앞에서 공자의 여러 제자들이 자신의 소원을 각자 말했는데, 공서화는 ‘예복(禮服)과 예관(禮冠) 차림으로 종묘의 제사를 돕는 일이 소원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논어》〈선진(先進)〉

계사년(1593)에 공이 마침내 풀려나게 되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어지러운 상황을 맞았는데도 돌아가신 스승에 대한 지극한 원통함을 의리상 잊을 수가 없었다.

을미년(1595) 봄에 둘째 형님과 함께 임금께 글을 올려 몇 차례나 스승에 관한 일을 자세히 아뢰었다. 사건이 비변사에 내려지자,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은 애당초 옥사를 다스린 일이 지나쳤다는 이유를 모두 진설했으며 또 정개청(鄭介淸)은 호남 사람 가운데서도 더욱 이름이 난 사람으로 평소 학술과 행실의 검박함으로 자임한 자인데 우연히 한 편의 글을 지었다가 자신을 죽게 하는 경우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마땅히 나덕운과 무리들이 천리를 멀다 여기지 않고 발을 싸고 대궐의 문을 두드리며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아뢰었지만, 임금께서는 처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셨다. 비록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았지만 화를 당한 나머지, 사람들 모두 기운을 잃고 감히 입을 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공이 먼저 피눈물을 토하며 마음을 드러내어 사림들로 하여금 흥기하도록 하여 점차 회복될 희망을 가지게 만들었으니 이는 모두 공의 힘이었다.

병신년(1596) 12월에 찬성공(贊成公)이 돌아가시자 무안(務安) 주룡(住龍) 나루에 장사 지내고 곧 묘에서 시묘살이를 하였다. 정유년(1597)에 왜적들이 다시 쳐들어오자 비록 난리를 피해 정신이 없는 중이라 하더라도 상례를 한결같이 지켜 마쳤다.

기해년(1599)에 또 둘째 형님과 함께 곤재의 원통함을 거의 앞뒤로 대궐에 하소연하여 두 번 세 번 지속하자 마침내 유음이 내려졌다.

공은 처음에 현릉 참봉(顯陵參奉)에 임명되었지만 사은하고 곧장 그만두었다. 또 금부 도사(禁府都事)에 임명되었으나 곧이어 그만두었다.

광해군 초 무신년(1608)에 왕자의 사부에 으뜸으로 의망(擬望)되었다가, 3월에 다시 금부 도사에 임명되었는데 얼마 있다가 그만두고 12월에 청암도 찰방(靑巖道察訪)이 되었으며, 신해년(1611)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파직되었다. 계축년(1613) 5월에 또 금부 도사가 되었다가 다시 경력(經歷)이 되었으며, 갑인년(1614)에 사재감 주부(司宰監注簿)에 승진했다가 7월에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이 되었다.

중년에 기러기를 놀라게 할 활을 함께 만들고
 만년에는 눈 덮인 소나무를 함께 보자 했었지

일찍이 공이 포대기에 싸여 어머니를 잃었을 때 유모의 남편이 극진하게 양육의 도리를 다 하였다. 그래서 그가 죽자 함께 밥을 먹은 식구가 죽은 듯 시복(總服)의 의리로 백건(白巾)을 쓰고 곡하며 관을 마련하고 염하여 장례를 치렀다. 이는 공에게 있어서 하나의 작은 절개이지만, 작은 것도 잊지 않는 은혜로운 마음 또한 높이 칭송할 만한 일이다.

집에 있으면서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 반드시 정명과 분수를 우선으로

《소포유고》부록 219

삼았다. 집안이 엄숙하여 질서가 있으니 사람들 가운데 출입하는 자들은 모두 경외하면서 감히 분수를 넘는 사람이 없었다.

약관의 나이로부터 이미 선생과 어른들에게 인정을 받아 훌륭한 스승을 얻어 귀의하였다. 처음에는 사암과 율곡에게 가르침을 받다가 중년 이후 명성이 날로 드러나 학봉이나 동강 같은 일대의 유현들이 공을 인정하여 그냥 두지 않았다. 심지어 두암(斗巖) 김응남(金應南)은 공을 국사(國士)로서 대우하였고,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는 방백(方伯)으로 있을 때 공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을 알아주고 대우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올렸다. 유학(儒學)의 연원, 전후, 법도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자들은 공과 함께 공사를 의논하였다. 그가 순안(巡按)하던 날이면 그때마다 공을 머물게 하여 대접하려는 뜻을 미리 관문(官文)으로 알렸으니, 고을사람들은 전하여 미담으로 삼았다.

매번 스승과 벗들이 원통하게 죽은 아픔을 생각하며 그들의 원통함을 씻어내길 바랐으나 임금님의 마음을 돌리지 못해 밤낮으로 마음 아파하였다.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 구암(久庵) 한백겸(韓百謙), 남이공(南以恭), 정협(鄭協) 등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신변(申抃)하는 말을 하였다. 또 스승을 우러르고 사모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곤재의 사우를 지어 제사를 올려 덕을 숭상하는 정성을 드러내는 일을 의논하였으니, 그 섬기는 바를 한결같이 하는 것 또한 지극하였다.

공은 처음에 고을 금성산(錦城山) 북쪽 기슭에 장사 지냈는데, 그 뒤에 점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 집에 이롭지 않다고 하여 병신년(1656) 3월에 현손(玄孫) 나만석(羅晩錫) 등이 대안(大安) 동쪽 자라바위 위 건좌(乾坐) 손향(巽向)⁵⁶⁶⁾의 언덕으로 이장하였다. 공이 돌아가신 지 96년이 되는 해였다.

아내인 의인(宜人)⁵⁶⁷⁾ 이씨는 본관이 양성(陽城)으로, 정사년(1557) 5월 17일에 태어나 경신년(1620) 12월 20일에 세상을 떠나 공의 묘에 합장되었다.

세 아들을 두었는데, 나회소(羅繪素)는 무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通政大

566) 건좌(乾坐) 손향(巽向) : 풍수지리에서, 밋자리 또는 집터 따위가 북서쪽을 등지고 남동쪽을 바라보는 방향을 말한다.

567) 의인(宜人) : 조선 시대, 정육품과 중육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어지던 품계이다.

夫)와 이천 부사(伊川府使)를 지냈고, 나유소(羅由素)는 선교랑을 지냈고, 나익소(羅宜素)는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 정랑(禮曹正郎)을 지냈는데, 성품이 대범하고 우뚝하여 세상과 더불어 뜻이 땀겨져 벼슬이 현달하지 못하였기에 사람들이 모두 안타까워하였다.

부사(府使)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나성(羅暻)은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지냈고, 나첨(羅檐)은 통덕랑을 지냈고, 사위 이명구(李鳴衢)는 진사에 합격하였다.

선교(宣敎)는 아들 하나와 딸 넷을 두었는데, 아들은 나일(羅裨)이고, 사위는 윤적망(尹商望), 임고(任皐), 조정오(曹挺五), 진사에 합격한 정현(鄭櫟)이다.

정랑(正郎)은 후사가 없어 나첨을 후사로 삼았다.

선전(宣傳)은 아들 나두정(羅斗正)과 서출 아들 둘을 두었으니 나두점(羅斗占), 문과에 급제한 나두평(羅斗平)이다.

나일은 아들 셋을 두었는데, 나두흥(羅斗興), 나두진(羅斗鎭), 나두응(羅斗應)이다.

나첨은 서출 아들 넷을 두었는데, 나두원(羅斗遠), 무과에 급제한 나두승(羅斗承), 나두주(羅斗胄), 나두영(羅斗盈)이다.

나두정은 아들 둘을 두었는데 나만석(羅晩錫), 나만우(羅晩遇)이다.

나두흥은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나만현(羅晩賢)이다.

아! 나는 언젠가 공의 제문을 본 적이 있었다. 우리 증조의 제문이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함께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 시와 예를 공부하고, 같은 스승을 섬겨 학문을 강습했으니, 마음과 덕을 함께했던 즐거움이 어찌 다만 형을 형으로 섬기고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는 대의일 뿐이겠는가! 그렇다면 형제간이요 지기라고 할 만하다.” 이 글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다보면 나도 모르게 처연한 마음이 들어 눈물이 흐른다.

지금 나만석이 공의 소장, 문적, 역관(歷官), 편지 등을 가지고 와서 내게 보여주며 차례로 글을 엮어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요청하니 더욱 마음에 감동되는 바가 있어 감히 글솜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양하지 못하고 삼가 일의 전말을 써서 보낸다.

송정(崇禎) 병자(丙子) 후(後) 80년 병신(1716) 윤3월 모일에 종증손(從曾孫) 생원(生員) 나두동(羅斗冬)이 삼가 쓰다.

《금봉유사》의 뒤에 쓰다 題錦峰遺事後

나의 외가인 나주 나씨(羅州羅氏) 상사(上舍) 나두동(羅斗冬) 종형과 삼종 나두흥(羅斗興) 아우가 함께 나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 선고조(先高祖) 금호공(錦湖公), 증조 금암공(錦巖公), 금봉공(錦峰公) 형제의 행적에 대해 추술(追述)한 일을 더욱 잘 알 수 있었다. 이에 나는 지극한 뜻과 부지런하고 정성스러움에 감동하여 감히 책임자가 아니라는 핑계로 사양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보내준 여러 기록을 상고하여 외람되이 그 사이를 고쳐, 금호와 금암 2대의 사실기(事實記)를 지었다.

돌아보건대 금봉의 사적은 상사 종형이 장초(狀草)한 것으로 저절로 편의 체제를 이루어 처음과 끝이 차서가 있고 말의 뜻에 흠이 없었다. 끝부분에는 증조 금암공의 제문을 인용하고 그에 대해 “여러 번 이 글을 읽어보니 나도 모르게 엄숙한 마음이 들어 눈물이 흐른다.”라고 쓴 글 또한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다만 크게 상관없는 선에서 그 가운데 때로 한 글자 빼기도 하고 혹은 한 글자 바꾸기도 한 곳이 약간 있었을 뿐이니 어찌 굳이 고칠 필요가 있겠는가.

삼가 살펴보건대 금봉은 금암보다 네 살 어린 동생이지만, 부친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같고, 스승을 따른 일이 같고, 추구한 일의 뜻이 같고, 강론한 것의 학문이 같고, 힘쓴 일의 행실이 같고, 세상의 변란을 만난 것과 어려움을 겪은 일 또한 같다. 어려서는 공손하고 장성해서는 칭찬을 받았고 늙어서는 몸에 덕을 쌓아 당세 훌륭한 사람과 군자들에게 어질다는 칭송을 들은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름이 없었으나, 다른 것이라고는 태어나고 죽은 해와 달, 벼슬 경력, 계급 차서 등에 불과하였다.

옛날 이천 선생(伊川先生)⁵⁶⁸⁾이 형님 명도(明道)⁵⁶⁹⁾의 행장(行狀)을 쓰고

568) 이천 선생(伊川先生) : 자는 정숙(正叔), 호는 이천(伊川)으로, 정이(程頤, 1033~1107)를 말한다. 북송(北宋) 중기의 유학자이다.

569) 명도(明道) : 자는 백순(伯淳), 호는 명도(明道)로, 정호(程顥, 1032~1085)를 말한다. 북송(北宋) 중기의 유학자이다.

문인들에게 “나의 도는 거의 형님 명도와 같으니 나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이 글에서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지금 금봉의 뜻과 학업, 품행과 도의는 그 평생을 개괄해 볼 때 실로 금암과 같다. 나는 금암의 사실기를 지은 뒤 또 붓을 옮겨 금봉의 사실기를 짓고자 했으나 한 편의 같은 글로 귀결되었다.

나는 상사 종형에게 장초한 글의 제목을 고칠 것을 청하며 “금봉의 사실기와 금암의 사실기가 모두 전하니,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 글을 합하여 서로 참고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이와 같은 말을 책 뒤에 써서 돌려보낸다. 나는 금암의 생증손(甥曾孫)이다.

임인년(1662) 봄 3월 하순에 외손 팔계(八溪) 정중원(鄭重元)이 쓰다.



부 록 보 유

【경신년에 추가로 간행하였다.】

附 錄 補 遺

【庚申追刊】

《錦城三稿》

임진년에 의병을 일으킨 일을 기록하다【택당(澤堂) 이식(李植)⁵⁷⁰⁾】
記壬辰舉義事【澤堂 李植】

만력 20년【선조 25년이다.⁵⁷¹⁾】인 임진년 6월에 왜장 가등청정(加等清正)이 먼 길을 내달려 북으로 쳐들어오자, 병마사(兵馬使) 한극함(韓克誠)이 마천령(磨天嶺)을 지켜 관북(關北)을 보호하고자 했는데 군대가 궤멸되자 달아났다. 적들이 마침내 길주(吉州), 명천(明川), 경성(鏡城), 부령(富寧) 등의 진(鎭)에 침입하고 회령(會寧)에 침입하여 왕자들을 붙잡았으며 강을 건너 노토부락(老土部落)을 공격하고 노략질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종성(鍾城)과 문암(門嚴)을 거쳐 강을 건너 온성(穩城), 경원(慶源), 경흥(慶興)의 바닷길로 두루 침입하고는 경성으로 내달렸다. 이에 진보(鎭堡)의 배반한 군사들이 앞다투어 수장(守將)을 포박하고 성을 바쳐서 적에게 붙었다.

경성에서 사노(寺奴) 국세필(鞠世弼)【세필은 곧 관노(官奴)이다. ‘사(寺)’자는 오자(誤字)인 듯하니, 아마 사노였다가 관노로 이속되었을 것이다.】이 우두머리가 되어 왜서(倭署)를 받아 관호(官號)를 두어 명성과 위세가 더욱 커져갔다.

8월에 가등청정이 편장(偏將) 한 명으로 하여금 수천 명의 보병을 이끌고 길주를 점거하여 여러 진(鎭)을 모두 거느리게 하고 자신은 남도(南道)로 돌아가면서 북청(北靑)과 안변(安邊)에 각각 강한 군대를 두어 도왔다. 이때 대장부터 대부에 이르기까지 난리를 피해 북쪽으로 달아났던 자들이 적의 수중에 떨어져 거의 다 죽었지만, 오직 평사(評事) 정문부(鄭文孚)만이 오래전부터 그곳의 토박이 유생들과 잘 지냈던 까닭에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면했다.

마침내 전 감사(監司) 이성임(李聖任), 경원 부사(慶源府使) 오응태(吳應台), 경흥 부사(慶興府使) 나정언(羅廷彦), 수성 찰방(輸城察訪) 최동망(崔

570) 택당(澤堂) 이식(李植) : 1584~1647. 자는 여고(汝固)이며, 호가 택당(澤堂)이다. 장유와 더불어 당대의 이름난 학자로서 한문4대가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571) 선조 25년이다 : 원문은 “선종 26년[宣宗二十六年]”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誤記)이므로 고쳐서 번역하였다.

東望), 유배객 한백겸(韓百謙) 및 나덕명(羅德明)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부성(府城)에 들어가 점거하였다. 국세필이 적의 세력을 믿고 공갈협박을 하자 모두 이리저리 흩어졌는데, 어떤 이들은 샛길을 따라 남쪽으로 달아나기도 하였다.

정문부는 다시 상황이 어려워져 어란리(禦亂里)⁵⁷²⁾에 숨자, 민가의 유생들이 소문을 듣고 달려왔다. 정문부가 바닷길을 경유하여 남쪽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유생들이 다시 함께 의병을 일으키자고 요청하였다. 정문부는 그들에게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 살폈고, 그들이 강성한 뒤에야 허락하였다. 곧장 몇몇 무리로 하여금 근처에 있는 오응태 등과 종성 부사(鐘城府使) 정현룡(鄭見龍), 고령 첨사(高嶺僉使) 유경천(柳擎天) 등을 불러오게 하니 모두 와서 모였다. 정문부가 정현룡에게 맹주(盟主)를 양보했지만 정현룡도 단호하게 사양하였다. 사민(士民)들도 정문부에게 소속되기를 원하자 마침내 그를 추대하여 대장으로 삼고 정현룡과 오응태는 차장(次將)으로 삼으니 흩어져 도망쳤다가 차츰 모인 이들이 모두 300여 명이었다.

9월 15일에 병사들을 이끌고 부성(府城)에 도착하였다. 국세필이 성의 현문(懸門)에 들이지 않으며 질책하기를 “너희들은 우리의 곡식을 축내려고 하느냐! 빨리 떠나라!”고 하였다. 정문부가 한편으로는 협박하고 한편으로는 달래자, 국세필이 갑자기 성안으로 그들을 맞아 들였다. 여러 장수들이 먼저 국세필을 베려고 하자, 정문부가 “급작스레 처단하는 것은 계획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고는 국세필에게 명하여 관아의 일을 담당하게 하였고 또 예전에 화살을 쏘서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던 반병(叛兵)을 등용하여 비장(裨將)으로 삼았다. 【‘비장’ 두 글자는 초본에 먹으로 지웠는데 고쳐 쓴 글자가 없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그대로 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왜적 1백여 명이 노략질을 하다가 성의 남쪽에 이르렀다. 정문부가 군사들에게 문을 열라 명하고 적 몇 명의 목을 베자 적들이 달아났다. 육진(六鎭)에서는 정문부가 배반한 자들을 풀어줬다는 소식을 듣고 앞다투어 투항하자 민심이 조금은 안정되었다. 이에 비로소 장졸들을 보내어 반란의 우두머리를 쫓아가 토벌하게 하니, 명천(明川)의 말수(末秀)

572) 어란리(禦亂里) : 경성부(鏡城府) 남쪽 100리 지점에 있다.

와 회령의 국경인(鞠景仁)이 연달아 붙잡혔다. 마침내 국세필 등 13인을 모두 베어서 여러 진에 돌렸다.

병사들이 모집에 꽤 응하여 그 무리가 6천 명에 이르자 정현룡이 경성을 지키면서 틈을 노리려고 하니, 정문부가 “본래 의병을 일으킨 것은 나라를 위해서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저 자신을 지킬 뿐 나아가 적을 공격하지 않으니 배반한 무리를 본받으려는 것입니까? 여론을 들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른 아침 남문 밖에 사람들을 모아 두 사람의 논쟁에 대해 누가 옳은지 물었더니 사람들은 모두 정문부가 옳다고 하였다.

10월 2일에 명천과 길주의 경계로 병사들을 진격시켰다. 이때부터 연달아 적과 싸워 장덕산(長德山)에서 크게 이기고 쌍개포(雙介浦)에서 재차 이겼으며 길주성과 영동책(嶺東柵)을 여러 겹으로 포위하고 고개를 넘어 단천군(端川郡)을 구한 뒤 가등청정과 백탑교(白塔郊)에서 전투를 벌여 전후로 1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이 사실은 《길주사적(吉州事績)》에 실려 있다.

이때 관찰사(觀察使) 윤탁연(尹卓然)이 정문부의 명성과 공적이 자기보다 뛰어남을 질시하여 큰소리로 다투며 “정문부는 본래 한 장수의 막좌(幕佐)로 스스로 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위치를 어긴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문부가 사양하지 않자 윤탁연은 매우 화를 내며 사실과 반대로 행재소(行在所)에 알리고 수급(首級)을 모조리 노략질하여 휘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뇌물 보낼 일을 도모하였다.

또 정현룡 등을 격려하여 정문부의 군대를 맡게 하고 장군을 여섯 번이나 바꾸자 군인들이 그때마다 흩어져 달아나니 어쩔 수 없이 정문부를 일으켜 그들을 거느리게 하였다. 그사이 전기(戰機)를 그르친 일이 많았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정현룡이 처음에는 겁을 먹어 앞장서려 하지 않았는데, 공을 세우게 되자 다시 정문부와 틈이 생겼다.

이에 앞서 약탈당한 사대부들은 대개 정문부에게 나아가 재산과 보물을 찾아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정문부는 백성을 동요시킬까 염려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사대부들이 다시 정현룡에게 요구하니 그가 듣고서 허락하였는데, 정문부가 또 책망하며 그만두게 하였다. 사대부들이 마침내 유언비어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관찰사가 몰래 그 일을 주관하여 매번

군법에 따라 정문부를 죽이고자 하였으니, 정문부의 장좌(將佐)가 이따금 불려가 매질을 당하여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으나, 군정(軍情)은 더욱 격분하여 공도 없이 해를 입었다는 이유로는 정문부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듬해 조정에서는 정현룡을 방어사(防禦使)로 발탁하고 이육고 절도사로 삼았다. 정문부가 비로소 군병을 해산하고 북쪽 육진에 가서 변방의 오랑캐들을 타일러 투항하게 하고 배반한 무리를 찾아 죽여 관북이 마침내 평정이 되었으니, 대개 모든 것이 그의 힘이었다.

아! 관북은 풍속이 본래 오랑캐와 같고 길이 멀고 험하여 절로 한 구역이 되니 옛날의 이른바 ‘병목의 요새’였다. 그럼에도 가등청정이 정예병으로 그 입구를 움켜쥐었고, 배반한 적들이 성읍(城邑)으로 연대해서 짝을 이루어 함세하니, 사람 하나 땅 한 자도 이미 우리의 소유가 아니었다. 그러나 서너 명의 유생들이 한 사람의 종사관을 잘 추대할 줄 알았기에 달아나 숨어 있던 중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적은 수로 많은 무리를 공격하여 빈기(郛岐)⁵⁷³⁾ 같은 옛 영토가 오랑캐의 땅이 되지 않게 하였다. 그러니 그 공을 충분히 이야기할 만하고 우리나라가 문치(文治)를 닦아 풍속을 변화시킨 효험 또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문부는 역적 국세필을 죽인 공로로 회령 사람들과 함께 겨우 3품에 오르고 어려운 일에 따른 병사들은 한 사람도 고신(告身)⁵⁷⁴⁾을 받지 못한 채 도리어 모욕당한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다. 이에 사람들이 울분을 느끼고 한탄하며 왕사(王事)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하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ऐ당초 조정은 거리가 멀어서 그를 무고하는 한두 장계에만 근거하여 그대로 믿어 버렸는데, 그 뒤 20년간 사신이 행차하여 묻는 일이 없지 않았으나 으레 이전의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간혹 조정의 허튼 소문에 미혹되어 끝내 그 실상을 기록한 자가 없었다.

근래 일을 마친 여가에, 늙은 군교 및 퇴역한 병졸들에게 묻기를 좋아하여

573) 빈기(郛岐) : 주나라 태왕(太王) 고공단보(古公亶父)는 원래 빈(郛)에 도읍하였는데, 북적(北狄)의 침공을 받아 기산(岐山) 아래로 천도하였다. 주나라는 뒤에 이곳을 근거로 왕업(王業)을 이루었다. 후에 제왕의 발상지를 이르는 말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이성계의 고향 영흥(永興)이 있는 함경도를 가리킨다. 영흥(永興)에는 그의 어진(御眞)을 모신 준원전(濬源殿)이 있다.

574) 고신(告身) : 조선시대에 관원에게 품계와 관직을 수여할 때 발급하던 임명장이다.

깊은 산속과 궁벽한 변방에까지 귀와 눈이 두루 미쳤는데, 들어 알게 된 바가 늘 같았으니 비록 윤탁연과 정현룡의 무리에게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감히 더하거나 꾸미는 일은 없었다. 그런 뒤에 단연코 의심하지 않게 되었으니, 그 개략을 간략히 써서 사적의 끝에 외람되이 붙인다.

무릇 정문부와 함께 의병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과 같다. 서울 사람 권관(權管) 고경민(高敬民), 봉사(奉事) 오대남(吳大男), 경성(鏡城) 출신 권관강문우(姜文佑), 훈도(訓導) 이봉수(李鵬壽) 【전사하였다.】, 박은주(朴銀柱), 유생 최배천(崔配天), 지달원(池達源), 박유일(朴惟一), 김여광(金麗光) 【전사하였다.】, 오윤적(吳允迪), 부령(富寧) 출신 차응린(車應麟), 박극근(朴克謹), 유생 김전(金銓), 김경(金鏡), 차득도(車得道), 경원(慶源) 사람 정윤걸(鄭允傑)과 정응성(鄭應聖) 부자(父子), 경성 출신 김사주(金嗣朱), 최경수(崔敬守), 남계인(南繼仁) 【본래 관노였다.】 온성(穩城) 여정(余貞) 【본래 관노였다. 계미년(1583)에 신립(申砮)을 따라 전공을 세웠다. 이때 영동(嶺東)의 전투에서 죽었다.】

장계 초【농포 정문부】

狀啓抄【農圃 鄭文孚】

장계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병조 좌랑(兵曹佐郎) 서성(徐渚)과 정배인(定配人) 나덕명(羅德明)이 외촌(外村)에서 마을에 사는 군정(軍丁)들을 잘 타이른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모두 성【즉 경성(鏡城)이다.】으로 들어갔습니다. 【만력 20년인 임진년 10월 14일이다.】

신이 대장에서 체직된 뒤에 회령 부사(會寧府使) 정현룡(鄭見龍)을 대신 대장(大將)으로 삼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그믐께 정현룡이 검 절도사에 차임되어 육진(六鎭)을 순행하였고 다시 경원 부사(慶源府使) 오응태(吳應台)를 대장으로 개정(改定)하였습니다. 금년 정월 13일에 도착한 순찰사(巡察使)의 관문(關文)에 오응태를 대장에서 체직하고 전처럼 평사(評事)를

다시 대장으로 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달 10일에 도착한 전 대장 오응태의 첩정(牒呈)에 겸 절도사 정현룡이 대장에서 체직되어 북쪽으로 들어갈 때, 육진의 정예병 1백여 명을 모두 거느리고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절도사가 왜적을 토벌하는 정예병을 자기가 거느리기는 하지만 마음대로 거느리고 가서 내보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져 왜적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이러한 때 왜적을 토벌하는 일이 지극히 염려되므로, 신 또한 관문을 보내어 병사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에서는 각별히 사목(事目)을 주어 그 수대로 병사를 모으게 하는 일로써 누군가를 방어사로 임명하여 정현룡에게 내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언뜻 들으니 팔도 중 남도에서는 이미 과거가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유독 이 북도에서는 과거를 보러 갈 수 없으니 진작시키려는 본래의 뜻에 어긋나는 듯합니다. 그러나 순찰사가 임금께 아뢰어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변변찮은 소관(小官)이 임금께 아뢰어 청하기 어렵습니다.

도내(道內)에서 의병을 일으킨 우두머리인 경성에 사는 전 훈도(訓導) 이봉수(李鵬壽), 좌수(座首) 서수(徐遂)와 이기수(李驥秀), 경성에 정배(定配)되었다가 풀려난 전 도사(都事) 나덕명(羅德明), 부령(富寧) 좌수 김전(金銓) 등이 온 힘을 다하여 내달려 어리석고 완악한 사람들을 잘 타일렀으니, 지금까지 일을 거행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그들의 공에 힘입은 바입니다.

지난번에 상(賞)을 논할 때 과거(科擧)에 응시하려고 준비하던 유생들 가운데 금위(禁衛)를 임명한 일을 원통하게 여기는 듯하여 감히 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성 판관(鏡城判官)에 송안정(宋安廷)을 임명했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지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본부 역시 큰 도회지이기에 적을 토벌하는 여러 도구를 태반이나 마련하고 있는데, 진에 머물고 있는 가장(假將) 전 감찰(監察) 오명수(吳命壽)만은 계책을 내어 돕는 데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송안정을 재촉하여 부임하게 하거나 조정에서 따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잘 아뢰어 주소서. 만력(萬曆) 21년 계사(1593), 1월 16일.”

의려록 초【전적 박흥종】

義旅錄抄【典籍 朴興宗】

대략 다음과 같다.

“계사년(1593) 1월 26일에 단천(端川) 지역 마흘(馬屹) 경계⁵⁷⁵⁾에서 전투를 할 때 세 번 싸워 세 번 모두 이겼다. 마침내 길주(吉州)로 군대를 돌려 병사들과 말을 쉬게 하였다. 잠시 후 왜장이 많은 병사를 보낸다는 소식을 듣고 길주에서 그들을 맞닥뜨렸는데, 주둔하고 있던 왜적들이 남도로 철수하여 돌아갔다. 대장수의 군대가 한편으로는 싸우고 한편으로는 추격하여 백담교(白塔郊) 남쪽 칠목(漆木) 아래에 이르렀다. 별장(別將) 이봉수(李鵬壽)가 화살 하나를 왜장에게 쏘았는데 활시위가 울리자마자 왜장이 쓰러졌으나, 봉수는 대장의 말 앞에 나와 서 있다가 갑자기 날아온 탄환에 맞아 죽었다. 주을온(朱乙溫)과 만호(萬戶) 이희당(李希唐) 역시 같은 날 죽었으니 이날은 바로 28일이었다.”【본주(本註) 여섯 명의 대장과 나덕명(羅德明)이 함께 시를 지어 애도하였다.】

575) 단천(端川) …… 경계 : 함경남도(咸鏡南道) 동북부(東北部) 지역을 말한다.

영흥에서 나극지의 시에 차운하여 증별하다【정문부】 永興次羅克之韻因贈別【鄭文孚】

한 번 만나 마음을 알고 일산도 이미 기울였으니 ⁵⁷⁶⁾	一見知心蓋已傾
재상과 장군 같은 귀한 모습 온 성에 가득했지	相將玉貌在圍城
털을 불어 도처에서 사람들은 잘못을 찾지만 ⁵⁷⁷⁾	吹毛到處人求過
화살이 바위를 뚫음에 어찌 감복하지 않을까 ⁵⁷⁸⁾	沒羽如何石感誠
삼천의 귀밑머리는 백발 되어 깜짝 놀라나	鬢上三千驚白髮
십만의 가슴은 귀신같은 병술에 의지하네 ⁵⁷⁹⁾	胸中十萬杖神兵
중흥한 이후로부터는 몸에 병이 많아	自中興後身多病
돌아와 임원에 누웠자니 이런 품행 괜찮을까	歸臥林園羨此行

【소포공(嘯浦公)이 애초부터 정문부(鄭文孚), 서성(徐攄), 한백겸(韓百謙) 등과 거사하여 전장을 오간 것이 전후로 거의 2년이나 되었다. 박공의 《의려록(義旅錄)》과 정공의 증별시를 보면 그의 대략을 알 수 있다. 당시 일을 도운 것이 바야흐로 소략하고 전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을 터이나 세월이 오래되어 증거로 삼을 만한 것이 없다. 전쟁에서 사망한 이봉수(李鵬壽)과 이희당(李希唐)의 애사(哀詞)와 함께 이 시의 원시는 잃어버려 기록할 수 없다.】

576) 일산도 …… 기울였으니 : 원문 ‘개경(蓋傾)’은 타고 가던 수레의 일산을 기울인다는 뜻으로 길을 가다가 벼를 만난 기쁨을 말한다. 《史記 卷83 鄒陽列傳》

577) 털을 …… 찾지만 : 사람들이 공을 비난함을 뜻한다. 원문 ‘취모(吹毛)’는 ‘터럭을 불어 헤쳐서 흩터를 찾아낸다.[吹毛求疵]’의 준말로, 즉 남의 사소한 허물까지 각박하게 들춰내는 것을 말한다. 《漢書 卷53 景十三王傳》

578) 화살이 …… 않을까 : 잘못을 찾아도 없는, 깨끗한 인물이었음을 말한다. 원문 ‘몰우(沒羽)’는 화살을 말한다. 한대(漢代)의 명장 이광(李廣)이 한번은 사냥을 나갔다가 풀 속에 엎드려 있는 돌[石]을 보고는 잘못 호랑이로 알고 활을 쏘았더니, 화살이 돌에 꽂혀 파묻혀 버렸는데, 자세히 보니 돌이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579) 십만의 …… 의지하네 : 가슴속으로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이다. 위(魏)의 최호(崔浩)와 송(宋)의 범중엄(范仲淹)의 고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통 “胸中十萬兵”, “胸中甲兵”의 속어로 사용된다.



부사문간찰초
附師門簡札抄

《錦城三稿》

나대지⁵⁸⁰⁾에게 보낸 편지【무인년(1578)이다. 곤재 선생⁵⁸¹⁾】

與羅大之書【戊寅 困齋先生】

봄이 저물어 막바지에 이르렀으니 만물은 번창하고 있구나.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그대는 만복을 누리며 학문을 잘하며 지내고 계시는가? 나는 궁벽한 산속에 엮드린 듯 지내고 있어 소원하고 용렬함이 마치 어제처럼 게을리 지내다가 수시로 한두 학도들과 더불어 옛 경서를 강독하고 토론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어느 날 다시 품모와 위의를 갖추어 대면하고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상세히 이야기 나눌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 끝이 없다네.

근래 손수 쓴 편지를 받아 보니, 우리 그대가 뜻은 성현의 공부를 돈독히 하며, 오로지 공부하는 것은 덕에 나아가 수양하며, 마음을 가라앉혀 경전을 완미하며, 일상생활에 실상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성명(性命)의 온전함을 구한다고 하니, 이른바 옛 사람들이 말한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으로서, 공경과 감탄을 이길 수가 없겠으며 위로와 기쁨은 지극하다네.

이른바 ‘문을 닫고 단정히 앉아 있다.’라고 말한 것은 학문을 하는 방법을 깊이 터득한 것이니 정말 훌륭하고 매우 훌륭한 것이네. 다만 자세히 묻고 밝게 변별하는 것을 벋들과 강론하고 닦지 않는다면 터득할 수가 없네. 때때로 도가 있는 분에게 나아가 질정하는 것 또한 불가한 것은 아니니 경전을 먼저하고 주를 뒤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앞선 스승들이 이미 밝혀 놓은 것으로 다시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대저 그대의 자질은 강직하고 밝으며 보는 바가 날로 발전하니 두렵고 위로됨이 모두 지극하구나.

나는 보잘 것 없는 사내로서 마음속에 보존하고 있는 것과 몸으로 행하는 것이 남들에게 구하여 듣고 계획된 샅된 마음 아닌 것이 없었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찍이 볼 낮이 없도록 부끄럽지 않은 적이 없었고, 조금도 보통 사람과 비슷한 마음이 없었네.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보다 나은 사람을

580) 나대지 : 나덕준(羅德峻, 1553~1604)을 말한다. 자가 대지(大之)이고, 호는 금암(錦巖)이다.

581) 곤재 선생 : 정개정(鄭介淸, 1529~1590)을 말한다. 자는 의백(義伯)이고, 호는 곤재(困齋)이며, 나주(羅州) 출신이다. 저서로 《우득록(愚得錄)》이 있다. 일찍이 나덕준의 스승이 되어 그를 가르쳤다.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을 우러르고 머리를 숙여 그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더군다나 자네처럼 고상하고 밝고 두려워할만한 이에게 감히 스스로를 크고 망령되이 높다고 하여 후생이 예의를 지켜 대우하는 것을 기대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예의는 노력해야 하고 말은 공손해야 한다는 것이니, 바라건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게나. 나머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적기 어려워 다만 이렇게 적는다.

또 【갑신년(1584)】

又【甲申】

절하고 답하네. 봄이 저물어 막바지에 이르니 날씨는 화창하구나. 멀리서 생각하건대, 그대는 관아에서 부모님을 살피 모시면서 봉양까지 겸하니 마음으로 이해하고 성정으로 딱 들어맞아 어긋남이 있지 않을 터라 인간세상의 무슨 즐거움이 이와 같겠는가!

나는 소원하고 용렬함이 어제와 같아 달리 무어라 말할 것이 없네. 근심스러운 일은 쇠약함이 날로 더해 가고 학업에 뜻을 둔 것이 날로 게으르며 마음을 접축함이 욕심을 따르는 것인데, 스스로 알면서도 극복하지 못한 채 쌓인 기질은 끝내 세속을 벗어날 기약 없이 영리의 향락에 이르렀네. 그렇다면 마음이 비록 바라고 사모한다 한들 천명은 힘쓸 수가 없는 노릇이니 어찌 하면 좋겠는가.

아버이를 모시는 도리는 오직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뜻을 따르는 데 있네. 나는 진실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에 사람들의 비방과 배척을 스스로 마땅히 감수해야 할 터이니 감히 교묘하게 피하여 바깥의 이익을 도모하려 하겠는가. 다만 마음속으로 더욱 깊이 반성한다면 보탬이 적지 않을 것이네. 곁에 아버이를 모시고 작은 집을 지었다는 소식을 주었으니, 그대가 사랑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였던 깊은 마음에 위로되어 경복하고 또 경복하네.

서울로 가는 일은 내 동생이 막았는데 보내준 편지의 말 또한 이와 같으니

삼가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변산(邊山)의 행차는 유정언(柳定彦)과 이미 약속한 것이니 사람 일의 좋고 나쁨 또한 기필할 수가 없다네.

인생이 역울하여도 이미 어찌할 수 없으니, 바라는 것은 친구 가운데 오직 우리 두 분이 타고난 민첩한 자질로 부모님을 봉양하고 뜻을 정하여 학업에 전일하며 외물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 뿐이네.

바라건대, 더욱 더 옛사람의 자기를 위하는 학문에 뜻을 두어 우선 거처하는 곳에서 공손하며, 일을 집행할 때는 공경히 하며, 남을 대할 때는 충심으로 하는 일에 착수하며, 박약으로 나아가고 게으름과 공경 그리고 의리와 욕망의 이기고 지는 것을 깊이 살피며,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이에 뜻을 오로지 하며, 말세의 의로움과 이로움을 함께 행하여 두 길과 왕도와 패도를 함께 쓰는 무리가 되지 않으며, 늘 만 길 높은 곳에서 우뚝 서서 홀로 천 년 전의 성현들을 벗 삼아 이름이 널리 알려 지기를 마음속에 따지고 헤아리지 않는다면, 매우 다행하고도 다행한 일일 것이네. 외로운 처지에 있는 나 또한 이러한 계책에 힘썼으나, 타고난 자질이 우둔하고 어리석어 조금도 변하지 못하였으니 애석하고 애석하네.

**나유지【훗날 성지라고 자를 고쳤다.】에게 낸 편지 【무인년(1578)이다.】
與羅有之【後改誠之】書【戊寅】**

이별한 뒤로 세 번이나 문안 편지를 받고 보니 글의 뜻이 간절하고 말이 절실하여 마치 아침저녁으로 자주 만나는 날이 많은 것 같네. 이는 자네가 강직하고 우뚝한 지조가 있어 멀거나 가깝거나 따르거나 어기는 일로 변하는 바가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모두 감탄할 만하고 위로도 되네.

보내온 글에 《논어》를 읽고 반드시 마음으로 깨우치며 묵묵히 아는 점이 있어 저절로 가슴 속이 즐겁고 몸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 몹시 부러운 마음 이길 수가 없네. ‘선비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안 된다. 책임은 무겁고 길은 멀기 때문이다’의 장(章)⁵⁸²⁾을 매우 깊이 연구하고 완미하여

582) 선비는 …… 장(章) : 원문 ‘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은 《논어》〈자로(子路)〉에 보인다.

장래에 자기의 임무로 삼아 굳건하게 정립하여 실천하겠다니, 천리 떨어진 곳에서 쇠약한 채 형구를 차고 있는 나의 바람에 위로되었다네. 그대의 타고난 자질은 진실로 강직한 것을 실행하는 데 걱정할 일이 없음을 알고는 있으나, 강직함을 실천하는 일에는 많은 힘을 기울여야 바야흐로 얻을 수 있네.

대저 《논어》의 글은 성현의 문답으로 수천만의 말이 있지만 그 직접적인 요지를 구한다면 ‘존심(存心)’에 지나지 않을 뿐, 존심이 완성되면 인(仁)은 그 가운데에 있네. 대개 존심이라는 것은 마땅히 존재할 곳에서 이 마음을 얻는 데 있으니, 다른 사물에게 이끌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네. 예컨대 ‘배우고 때로 익힌다.’⁵⁸³⁾를 읽었다면, 어떻게 해야 배움이 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때로 익히는 것인지를 생각하여 만약 이를 추론하고 궁구한다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다른 생각의 여지가 없을 것이네.

또 ‘자기 몸을 이겨 예를 회복한다.’⁵⁸⁴⁾를 읽었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의 몸을 이기고 어떻게 해야 예를 회복하는지 또 몸에는 무엇이 있는지 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끝까지 궁구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에 돌이켜 구한다면, 행하는 일과 존재하는 것이 몸이고 예일 것이네.

만약 이르지 못했다면 있는 힘을 다해 장차 나아가 천리에 합치되도록 구해야 한다네. 이와 같은 공(功)이 비록 하루 아침저녁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지런히 노력하여 세월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기질이 변화하여 내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천리 아닌 것이 없을 것이니, 어찌 매우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천지에 사람이 삼재(三才)로 참여하여 오직 이에 대장부가 되었으니 그대는 반드시 힘써야 하네.

나의 평소 뜻 또한 다른 데 있지 않으나 타고난 성질이 굳어 변화되기에는 어렵고 노쇠한 지금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애석하다네. 바라는 바는 오직 우리 그대의 강직하고 굳은 뜻으로 천만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네.

화천정(花川正)⁵⁸⁵⁾은 하늘로부터 타고난 본성이 사랑스럽고 그 지조 또한

583) 배우고 …… 익힌다 : 원문 ‘學而時習’은 《논어》〈학이(學而)〉에 보인다.

584) 자기 …… 회복한다 : 원문 ‘克己復禮’는 《논어》〈안연(顏淵)〉에 보인다.

585) 화천정(花川正) : 이수봉(李壽鵬)을 가리킨다. 이수봉은 남이공(南以恭)과 함께 정개청에게 수학하였고, 학봉 김성일(金誠一)과 교유하였다. 또한 윤휴(尹鑰)의 숙조(叔祖) 윤진(尹埏)이 그에게서

속되지 않아 더불어 큰일을 할 만한 사람이네. 자네가 때때로 맞이하여
권면할만하니 권면하는 게 어떨겠는가. 남과 더불어 선을 행하는 것 또한
군자가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라네.

금성삼고 발문⁵⁸⁶⁾

錦湖遺事跋

우리 증조부 형제 6인에게 육룡(六龍)이라는 호칭이 있었다. 첫째는 소포공(嘯浦公)이고, 둘째는 금암공(錦巖公)이며, 금봉공(錦峰公)이 그 다음이다. 모두 성대하게 한 시대에 명성이 있었기에, 담론하는 자들은 영특하고 호걸하며 엄매임이 없는 것으로는 소포공을 추대하고, 독실한 학문과 훌륭한 행실로는 금암공과 금봉공을 추대하였으니, 진실로 성대하였다!

소포공은 일찍이 저술한 것이 있으나 베껴 쓴 것에는 섞인 글이 많아, 나는 이전부터 이것을 근심으로 여겼고, 또한 원고가 산실되어 잃어 전해지지 않을까 염려하여 차례를 만들고 베껴 적었더니 시, 부, 약간의 편지글, 상소문 등 모두 60여 편이 되었다. 엮으려 생각하건대, 금암과 금봉 두 분도 모두 약간의 글이 있어 또한 차마 사라지게 할 수 없었기에 소포공의 글 끝에 모두 부치고 또 <세계(世系)>, <장(狀)>, <녹(錄)> 등을 실어 하나의 책으로 합쳤다.

마침내 소포공의 현손 나만운(羅晩運)과 금봉공의 증손 나두흥(羅斗興)과 함께 어떻게 출판할 것인지 협의하고, 판각하는 사람에게 부쳐 없어지지 않도록 도모하였다. 다만 정곤재의 《우득록》을 보면 금암공에게 준 편지가 많아 40여 작품에 이르고, 그 학문과 예에 대해 논하며 추장한 말들은 공을 예우하여 권면하는 글뿐만이 아니었는데, 필시 원고가 사라져 용사(龍蛇)의 병화에 일실되어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곤 이처럼 원고가 소략하니, 참으로

수학하였다. 《愚得錄 卷2 論禮 答花川正壽鵬書》

586) 금성삼고 발문 : 제목은 없다. 내용상 삼고(三稿)의 발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다.

애석하다.

아! 옛날을 회상하면 어느덧 1백여 년이 지났건만 오직 이 유문(遺文)은 사라지지 않았거늘 이제야 이 일을 행하여 몇이라도 보존된 것이 있는 듯하니 또한 자손들에게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공역(工役)이 이미 완성되어 전말을 위와 같이 대략 쓴다.

송정(崇禎) 후(後) 두 번째 신축(1721) 1월 신미에 금암공의 증손인 생원 나두동(羅斗冬)이 삼가 쓰다.



《金 湖 遺 事》
錦 湖 遺 事

《錦城三稿》

금호유사 서문(1)

錦湖遺事序

도(道)란 사람으로서 항상 지켜야할 도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배우는 자가 부지런히 날마다 익히는 것은 이 도를 구하여 이 도를 행하는 일 뿐이니, 이것이 천성의 밖에 있겠는가. 유자(有子)가 “군자는 근본에 힘써,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생기니, 효제는 인을 행하는 근본일 따름이다.”⁵⁸⁷⁾라고 했으니, 우리 외고조 금호(錦湖) 나공 같은 분은 인을 행하는 근본을 터득함이 있는 분이다.

어려서부터 지극한 성품을 지녀 진실로 이미 신명의 경지에 이르렀고 또 스승과 벗들 사이에서 학문을 익혔으며, 가정에서는 몸을 닦았으며, 나라에서는 명성이 자자하였다. 하나의 관직을 맡겨 시험해 보았더니 한 달의 교화에 그 백성으로 하여금 “어질고 현명하다.”라는 칭송을 듣게 되었다. 불행히 갑작스런 재앙에 걸려 예측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임금께서는 용서하시며 “효자이다.”라고 하셨으니, 아, 사람으로서 항상 지켜야할 도리가 이 분에게 있다.

이에 지금 4대손 상사 나두동 씨가 백 수십 년 뒤에 선조의 유적을 수집하여 《금호유사》 한 권을 편성하고 장차 간행하여 오래도록 전하게 하고자 하면서 나에게 서문을 부탁하였다. 아! 나는 이전에도 외람되게 공의 사실기를 지었는데, 어떻게 또 중언부언 유사의 서문을 쓰겠는가. 그러나 공의 유사가 세상에 사라지지 않게 한다면 사람으로서 항상 지켜야할 도리에 느끼는 바가 있고 인륜에 보탬이 될 것이요 자손들에게만 다행한 일이 아닐 터이니 감히 서문을 쓰지 않겠는가.

송정(崇禎) 후(後) 두 번째 병오년(1726) 초여름, 외현손 팔계(八溪) 정중원(鄭重元)은 삼가 쓴다.

587) 군자는 …… 따름이다 :《논어》〈학이(學而)〉에 보인다.

금호유사 서문(2)

錦湖遺事序

우리 선조이신 금호공의 유사 한 권은 대개 말씀과 행실이 없어질까 염려하여 편찬한 것이다. 우리 선조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효성을 타고나 일찍이 모친의 병환이 위독해지자 손가락에 피를 내어 생명을 살리셨다. 이 때문에 중종과 선조 두 조정에서 세 번의 표창이 있었으니 정려를 표시한 일, 발탁하여 등용한 일, 죄를 용서하여 사면한 일 등이 그것이다.

또 어진 스승과 벗들과 종유하면서 학문의 단서가 될 의론을 들었으니, 송서교[宋贊]가 칭찬하여 “학문과 행실을 갖추었다.”라고 한 것과 김학봉[金誠一]이 말한 “학문으로 업을 삼았다.”라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 끼친 가르침이 자손에게 남아 충(忠), 효(孝), 열(烈)이 한 집 안에 모두 나왔으니, 어찌 덕을 두텁게 하고 선을 쌓은 군자가 아니겠는가. 아! 우뚝 솟은 정려문은 옛 마을 길가에 지금도 있어 사대부로서 그 앞을 지나는 자들은 모두 두 손을 모으고 예를 표하니 세상의 부자(父子)들은 반드시 모두 이를 보고 감동하여 권면한다.

다만 남은 전적들은 세대가 멀어 남아 있는 것이 없어 진실로 훗날 사람들에게 끝없는 유감이다. 이는 내가 일찍이 들었던 《대기(載記)》에 “선조에게 훌륭한 점이 있어 알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어질지 못한 것이다.”⁵⁸⁸⁾라고 한 것과 같다. 나는 이 점을 두려워하여 이에 뜻을 다하여 수집한 뒤에 <세계>를 앞머리에 두고, 각 조목을 <저술>, <유목>, <포장>, <사실기>, 묘도문 순서로 하였다. 또 행적 가운데 선인들의 글에 끼여 나온 것, 여러분들과 수창한 시, 종유했던 스승과 벗들에 대한 기록을 끝에 부록하여 하나의 책을 이루었다.

우리 선조의 언행 전말을 여기에서 증명할 수 있어 장차 판에 새겨 사라지지 않기를 도모하는 일은 감히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손들로 하여금 집에 간직하여 수시로 열람하여 갱장(羹牆)의 사모⁵⁸⁹⁾에

588) 선조에게 …… 것이다 : 《예기》<제통(祭統)>에 보인다.

589) 갱장(羹牆)의 사모 : 죽은 사람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말한다. 요(堯) 임금이 죽은 뒤에

부치고자 하는 것이다.

승정(崇禎) 후(後) 두 번째 을사년(1725) 겨울 11월 하순에 현손 나두동(羅斗冬)이 삼가 쓰다.

순(舜) 임금에 3년 동안이나 그를 앙모(仰慕)하여, 앉아서는 요 임금을 담장[牆]에서 보고, 밥을 먹을 때면 요 임금을 국[羹]에서 보았다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後漢書 卷63 李固列傳》

세계 世系

나씨의 본관은 나주이다. 대대로 거주하였고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시조 이후로 세대는 증거로 삼을만한 것이 없고 족보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는 다만 12세 이하이다.

- 시조 나부(羅富) 【고려시대 정의대부(正議大夫) 감문위(監門衛) 상장군을 지냈다.】
- 나득규(羅得虬) 【영동정(令同正)을 지냈다.】
- 자(子) 나중윤(羅仲允) 【영동정을 지냈다.】
- 자(子) 나송기(羅松奇) 【영동정을 지냈다.】
- 자(子) 나수영(羅守永) 【진사(進士)에 합격했다.】
- 자(子) 나원(羅遠) 【통사랑(通仕郎) 사온서 직장(司醢署直長) 동정(同正)을 지냈다. 묘는 나주 남쪽 송현(松峴)에 있다.】
- 자(子) 나진(羅璉) 【가선대부(嘉善大夫) 공조 전서(工曹典書)를 지냈다. 묘는 송현에 있다.】
- 자(子) 나공언(羅公彦) 【중현대부(中顯大夫) 전농시(典農寺) 정(正)을 지냈다. 우왕 7년(1381) 전라도 순문사(巡問使) 이을진(李乙珍)을 따라 왜적을 물리친 공이 있었다. 묘는 나주 서쪽 장흥동(長興洞)에 있다. 부인은 고흥 유씨(高興柳氏)로 흥위위 보승랑장(興威衛保勝郎將) 유번(柳蕃)의 따님이다.】
- 자(子) 나집(羅諱) 【식목도감 녹사(式目都監錄事)를 지냈다. 묘는 무안군(務安郡) 주룡 나루 판문치(板門峙)에 있다.】
- 자(子) 나자강(羅自康) 【통훈대부(通訓大夫) 행(行) 무안 현감(務安縣監)을 지냈다. 묘는 주룡 나루에 있다. 부인은 영천 최씨(永川崔氏)의 둘째 따님이다.】
- 자(子) 나계조(羅繼祖) 【장사랑(將仕郎)을 지냈고 성화(成化) 갑오년(성종 5, 1574) 5월 25일에 세상을 떠났다. 묘는 장흥동에 있다. 부인은 순창 조씨(淳昌趙氏)로, 전라 감목관(全羅監牧官) 조여경(趙餘慶)의 따님이다.】

- 자(子) 나일손(羅逸孫) 【자는 안지(安之)이다. 선무랑(宣務郎) 행(行) 전연사직장(典涓司直長)을 지내고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 겸(兼) 경연 참찬관(經筵參贊官)에 추증되었으며 3월 초파일(초파일)에 세상을 떠났다. 묘는 장흥동에 있다. 부인은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된 창원 공씨(昌原孔氏)로, 생원(生員) 장원(壯元) 공섬승(孔瞻勝)의 따님이다.】
- 자(子) 나질(羅咥) 【자는 백승(伯升)이다. 홍치(弘治) 무신년(성종 19, 1488)에 태어나, 가정(嘉靖) 무자년(중종 23, 1528) 무과에 합격하여 통훈대부(通訓大夫) 행(行)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지내고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 참판(戶曹參判) 겸(兼) 동지의금 부사(同知義禁府事) 오위 도총관(五衛都摠官)에 추증되었다. 가정(嘉靖) 병신년(중종 31, 1536) 10월 9일에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69세였다. 묘는 장흥동에 있다. 부인은 정부인(貞夫人)에 추증된 강진 최씨(康津崔氏)로, 홍문관 부응교(弘文館副應敎)를 지내고 예조 참판(禮曹參判)에 추증된 호(號) 금남(錦南) 최부(崔溥)의 따님이다.】
- 자(子) 나사침(羅士忱) 【자는 중부(仲孚)이고, 호는 금호(錦湖)이다. 통훈대부(通訓大夫) 행(行) 이산 현감(尼山縣監)을 지냈다. 승정대부(崇政大夫) 의금부 좌찬성(議政府坐贊成) 겸(兼) 판의금 부사(判義禁府事)에 추증되었다. 사적은 사실기와 묘문에 자세히 보인다. 첫째 부인은 경부인(敬夫人)으로 추증된 파평 윤씨(坡平尹氏)이며 아들 셋을 두었다. 둘째 부인은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된 광주 정씨(光州鄭氏)이며 아들 셋과 딸 셋을 두었다.】
- 자(子) 나덕명(羅德明) 【진사(進士)에 합격하여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를 지냈다. 기축년(선조 22, 1589)의 화를 당하여 경성(鏡城)으로 귀양갔다. 임진왜란에 북평사(北評事) 정문부(鄭文孚)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킬 것을 도모하고 변방에 사는 백성으로서 왜적에 응하여 난을 선동한 자를 포획하여 목을 베었다. 이 일은 《북관지》에 실려 있다.】
- 자(子) 나이소(羅以素) 【아들 넷을 두었는데, 나유(羅楡), 나심(羅禱), 나규(羅桂), 나현(羅炫)이다.】
- 자(子) 나인소(羅因素) 【아들 둘을 두었는데, 나결(羅桔)과 나격(羅褐)

이고, 서자가 하나 있는데 나곶(羅袂)이다.】

- 자(子) 나성소(羅成素) 【무과에 합격하여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다. 서자가 셋 있었으니, 나표(羅表), 나방(羅方), 나원(羅袁)이다.】
- 자(子) 나취소(羅就素) 【자식이 없다.】
- 자(子) 나덕준(羅德峻) 【곤재(困齋) 정개청(鄭介淸)을 스승으로 모셨다. 품행과 도의로 천거되었으며, 벼슬은 보은 현감(報恩縣監)에 이르렀고, 호조 참판(戶曹參判)에 추증되었다. 천성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으며 아버지를 정성으로 모셨으며 두 번째 어머니 모시기를 친어머니처럼 하였다. 고을 사람들 가운데 자손들을 가르치거나 두 번째 어머니를 모시는 자들은 반드시 모범으로 삼았다고 한다.】
- 여(女) 사위 김잡(金磻) 【주부(主簿)를 지냈다. 임진왜란에 숲으로 달아나 숨었는데 갑자기 밤에 깜짝 놀란 일이 생겨 부부가 서로 헤어졌는데 스스로 목을 매고 죽음으로써 열녀의 정각을 표창받았다.】
- 자(子) 나찬소(羅纘素) 【사위는 선무랑(宣務郎)을 지냈다.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나곶(羅袂)이며 선교랑을 지냈다.】
- 자(子) 나계소(羅繼素) 【무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와 개천 군수(价川郡守)를 지냈다. 서자가 있는데 이름은 나진(羅袵)이며 생원시에 합격하여 도사(都事)를 지냈다.】
- 자(子) 나위소(羅緯素) 【생원과 문과에 합격하여 동지중추 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내고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추증되었다. 아들 셋을 두었는데, 나염(羅裨)은 생원시에 합격하여 정랑을 지냈고, 나반(羅攀)은 생원시에 합격하여 부사(府使)를 지냈고, 나진(羅袵)은 출계(出繼)하였다.】
- 여(女) 사위 최광헌(崔光憲) 【선무랑(宣敎郎)을 지냈다.】
- 자(子) 나치소(羅緻素) 【아들 넷을 두었는데, 나기(羅基)는 통덕랑(通德郎)을, 나곶(羅兼)은 선교랑(宣敎郎)을, 나균(羅鈞)은 절충부호군(折衝副護軍)을, 나형(羅瑩)은 통덕랑을 지냈다.】
- 자(子) 나경소(羅經素) 【아들 셋을 두었는데, 나적(羅積)은 통정랑(通德郎)을, 나단(羅檀)과 나선(羅禎)은 문과에 합격하여 장령(掌令)을 지냈다.】
- 서자(庶子) 나함소(緘素)

- 자(子) 나덕윤(羅德潤) 【진사에 합격하여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지냈다. 곤재(困齋)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품행과 도의로 이름이 알려졌다.】
- 자(子) 나회소(羅繪素) 【무과에 합격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와 이천부사(伊川府使)를 지냈다. 아들 둘을 두었으니, 나성(羅成)은 무과에 합격하여 선전관(宣傳官)을 지냈고, 나첨(羅檐)은 출계하였다.】
- 자(子) 나유소(羅由素) 【선교랑(宣敎郎)을 지냈다.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나일(羅昶)이다.】
- 자(子) 나의소(羅宜素) 【진사와 문과에 합격하여 예조 정랑(禮曹正郎)을 지냈다. 서자 나첨(羅檐)은 통덕랑(通德郎)을 지냈다.】
- 여(女) 사위 윤항(尹沆) 【충절위(忠義衛)를 지냈다. 정유왜란 때 아우 덕윤의 부인 정씨와 함께 치마끈을 같이 묶고서 주룽 나루에 몸을 던져 죽음으로써 열녀의 정각을 표창받았다.】
- 자(子) 나우탕(羅佑湯)
- 자(子) 나덕현(羅德賢) 【곤재의 문인이다. 천성이 효우를 지녀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미음을 먹고 물만 조금 마셨다. 정유재란 때 어머니를 업고 달아나다 숨어 엎드려 있었는데, 적들이 갑자기 이르자 그가 어머니를 안고 처연히 비통하게 울부짖었더니, 적들이 해치지 않고 떠나, 사람들은 그의 효성에 감복하였다고 한다. 인조께서 이 일을 듣고는 사옹원 참봉(司饗院參奉)에 추증하였다. 부인은 하동 정씨(河東鄭氏)인데 또한 주룽 해구에 목숨을 바쳤기에 열녀로서 정각을 표창받았다.】
- 자(子) 나익소(羅益素) 【선교랑(宣敎郎)을 지냈다. 아들 둘을 두었는데, 나우(羅祐)와 나호(羅祐)는 진사에 합격하였고, 효성이 지극하여 태학에 추천을 받았으며, 벼슬은 참봉에 이르렀다.】
- 여(女) 사위 정오(鄭澳)
- 자(子) 나후소(羅後素) 【아들 넷을 두었는데, 나직(羅植), 나찬(羅攢), 나탁(羅柢), 나예(羅榘)이다.】
- 자(子) 나득소(羅得素) 【천성이 지극한 효성을 지냈다. 19세에 부친이 돌아가시자 시묘살이를 3년 동안 하면서 계속 피눈물을 흘리고 점차

아위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으니, 인조께서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정려를 내려 표창하셨다.】

- 자(子) 나상소(羅尙素) 【선교랑(宣敎郎)을 지냈다. 아들 셋을 두었는데, 나유(羅裕)는 무과사마(武科司馬)에 합격하였고, 나섬(羅穢)과 나완(羅完)이 있다. 서자(庶子)는 한 명 있는데 나금(羅衿)이다.】
- 자(子) 나순소(純素)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나육(羅裕)이고, 서자가 둘 있는데 나보(羅祿)와 나복(羅復)이다.】
- 자(子) 나중소(羅重素) 【아들 둘을 두었는데, 나연(羅漣)은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또 나식(羅式)이 있다.】
- 자(子) 나덕신(羅德愼) 【무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와 영암 군수(靈巖郡守)를 지냈다. 병신년(1596)의 어려움을 만난 뒤 재기하여 무장 현감(茂長縣監)이 되었다. 무술년(1598)에 노량(露梁) 전투에서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과 함께 선봉에서 왜적과 싸운 공이 있었는데 당시 나이가 31세였다. 선무중훈(宣武從熏) 1등에 녹훈(錄勳)되었다.】
- 여(女) 사위 민희일(閔喜一)
- 여(女) 사위 유천(柳遷) 【충의위(忠義衛)를 지냈다.】
- 여(女) 사위 위홍주(魏弘宙) 【참의(參議)에 추증되었다.】
- 자(子) 나산보(羅山寶) 【무과에 급제하여 현령(縣令)을 지냈다.】
- 자(子) 나정보(羅廷寶) 【문과에 급제하여 현감(縣監)을 지냈다.】
- 자(子) 나국보(羅國寶)
- 자(子) 나덕헌(羅德憲) 【무과에 급제하여 절충장군(折衝將軍)과 경기 수사(京圻水使)를 지냈다. 병자년(1636) 봄에 명을 받들어 심양(瀋陽)으로 들어갔는데 오랑캐가 황제라고 부르고 축하하라 하면서 참가한 하반(賀班)⁵⁹⁰들을 위협하였다. 공은 절의를 지켜 굴복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당시 사람들이 소무(蘇武)⁵⁹¹에 견주었다. 가도 도독(假島都督)이

590) 하반(賀班) : 국가와 왕실의 경사 때 조정에서 하례하는 반열을 말한다.

591) 소무(蘇武) : 소무는 한 무제(漢武帝) 당시의 사신이다. 한무제가 흉노와의 친선을 위하여 소무를 사신으로 보냈는데, 흉노 선우는 소무에게 한나라를 배반하고 자신의 노복이 되어 달라고 강요하였으나 굴복하지 않았다. 소무는 황야로 보내져 19년에 걸친 억류생활을 하면서도 흉노에게 굴복하지 않았으며, 무제의 아들 소제(昭帝)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러한 일을 황조에 아뢰니 숙종께서 병조 참판(兵曹參判)에 표창하여 추증하였다.】

- 여(女) 사위 김용건(金用健)
- 여(女) 사위 이준신(李僞臣) 【진사에 합격하였다.】
- 자(子) 나수소(羅守素) 【선무랑(宣務郎)을 지냈다. 부인은 언양 김씨(彦陽金氏)이며 충신으로서 정려를 표창받았다. 안주 목사(安州牧使)이자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된 장무공(壯武公) 김준(金浚)의 따님이다. 정묘호란 때 안주성이 함락되자, 장무공은 스스로 몸을 태워 목숨을 바쳤다. 김씨 또한 스스로 목을 매어 목숨을 바쳤기에 열녀로서 정각을 표창받았다.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나위(羅禕)이며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 자(子) 나정소(羅貞素)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나회(羅繪)이다.】

저술 著述

대안서재에 머물며 한충의에게 보냄

【한충의는 한응몽이다. 정해년(1587) 5월에 쓰다.】

在大安書齋贈韓忠義【應夢 丁亥五月】

여름 길 천리 고생고생 와서 문 두드리니
똑똑똑 하는 소리에 놀라 잠 못 이루네
진중하고 돈독한 정을 어떻게 하면 갚을까
얼굴 펴고 마주함에 흥겨움은 끝이 없어라

炎程千里勤來叩
剝啄聲中驚困眠
珍重厚情何可報
怡然相對興無邊

차운하다 【나덕명】

次韻【德明】

산자락 누각에서 노성사람 얼굴에 놀라
그리움 말하고자 밤에 잠도 잊었노라
정신없이 속마음 아직 반도 못 했는데
붉은 해는 어느덧 새벽노을 되었구나

山樓驚見魯城面
欲道相思無夜眠
忽忽不曾開一半
紅輪已輾曙霞邊

다시 한충의에게 보냄

又贈韓忠義

쇠약한 몸 병 들자 아픔 참기 어려워
산자락 누각 올라 저녁 바람 쐬어본다
해 떨어지자 골짜기 어두워 분간하기 어려운데
어찌 알았을까 내방한 이가 바로 한충의란 걸

支離疾病難堪苦
徙倚山樓納晚風
日暮洞幽看未辨
豈知來訪是韓公

대안서재에 머물며 큰아들 나덕명이 거문고소리를 듣고

지어 올린 시에 차운하여【정해년(1587) 6월에 지은 것이다.】

在大安書齋 次伯子德明聽琴吟呈韻【丁亥六月】

비 온 뒤 재루에서 한 동이 술 열어 놓았더니
이내 피어나고 푸른 느티나무 모습 드러난다
맑게 갠 경치 눈에 들자 한없이 시 읊조리는데
울리는 거문고 소리에 막힘없이 술 들어간다

齋樓雨後一樽開
正是浮嵐捲翠槐
霽景入眸吟不盡
鳴琴端合倒千盃

원운【나덕명】

原韻【德明】

장맛비 그치더니 맑게 개여 저녁 하늘 열리고
남산의 신록이 뜨락의 회화나무까지 이어졌네
촉나라 거문고⁵⁹²⁾ 요지⁵⁹³⁾의 곡조 연주하며
삼천갑자 동방삭에게 한 잔 술 부치노라

積雨晴來暮色開
南山新翠接庭槐
蜀琴又奏瑤池曲
方朔三千屬一盃

592) 촉나라 거문고 : 촉금(蜀琴)은 한(漢)나라 때 촉 땅에서 살았던 사마상여(司馬相如)가 거문고를 잘 연주하여 그가 사용하던 거문고를 촉금이라 했던 데서 유래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거문고의 범칭으로 쓰였을 뿐이다.

593) 요지 : 곤륜산(崑崙山) 꼭대기에 있다는 신화 속의 못 이름인데, 선녀인 서왕모(西王母)가 주 목왕(周穆王)을 영접하여 이곳에서 연회를 베풀었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穆天子傳 卷3 古文》

목백 영공 임윤신의 시에 차운하여【정해년(1587) 6월에 지었다.】

次牧伯任令公允臣韻【丁亥六月】

병들고 졸렬한 나를 누가 찾을까	病拙誰相問
바위산에 숨어 살고 있으니	幽居巖石間
연못 맑아 물고기들 팔딱거리고	池淸魚潑潑
숲 우거져 새들은 한가롭네	樹密鳥閑閑
죽은 이들까지 깊은 은택 내려졌고	朽骨叨恩款
모든 백성 너그러운 다스림 펼쳐졌네	齊民荷政寬
영광스럽게 와주시니 산색마저 변하고	榮臨山動色
이마에 손을 얹어 가시는 말 바라봅니다	加額望征鞍

차운시【나덕명】

次韻【德明】

현령 ⁵⁹⁴)께서 관아 ⁵⁹⁵)를 떠나	臬滄辭琴閣
표연히 자연으로 돌아오셨네	飄然水石間
노을 진 오솔길 조용도 하고	烟霞修逕靜
작은 서재 술동이 한가롭구나	樽酒小齋閑
해 걸린 하늘 멀기도 하고	白日天何迥
푸른 모 낸 들판은 넓구나	靑秧野自寬
백성들 흰 머리 날리며	殘民揚素髮
두 손 모아 원님께 절 올리네	雙手拜華鞍

594) 현령: 원문 '부석(臬滄)'은 현령(縣令)의 별칭이다. 동한(東漢)의 왕교(王喬)가 섭현(葉縣)의 현령이 되었을 때 도술(道術)을 부려 오리(鳧)를 타고 왕래하였는데, 그 오리를 잡고 보니 상서령(尙書令) 때 하사받았던 신발(鳥)이 있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것이다. 《後漢書 卷82上 方術列傳上 王喬傳》

595) 관아: 원문 '금각(琴閣)'은 수령이 정사하는 곳을 말하는데, 금당(琴堂)이라고도 한다. 옛날 복자천(宓子賤)이라는 어진 수령이 선보(單父)라는 고을을 다스릴 때 거문고를 타면서 마루 아래에 내려온 일이 없었으나 선보현은 잘 다스려졌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금성관 방회연 자리에서 제독 정인귀의 시에 차운하여 장원을
했던 방백 윤두수⁵⁹⁶에게 바치다【정해년(1587) 7월에 쓰다.】

錦城館 榜會宴席 次鄭提督仁貴韻 呈壯元尹方伯斗壽【丁亥七月】

상공의 온화한 기운은 사람들 감화시키니
향 머금고 기쁨 받들자 정신은 맑아지네
삼십여 년 만에 이런 모임 갖었더니
백발이 꽃자리 비추는 모습 애뜻하네

相公和氣便薰人
飲馥承歡足暢神
三十年餘成此會
各憐華髮照花茵

596) 윤두수 : 1533~1601. 1590년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으로 광국공신 2등에 책록되고, 건저(建儲) 문제로 서인 정철이 화를 입자 이에 연루되어 회령(會寧) 등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기용되어 선조를 호종하여 어영대장이 되었고, 우의정 좌의정에 올랐다.

정해일기 초 丁亥日記抄

▪1월 14일 비

오늘 만형의 장남 나경(羅綱)의 처, 원길(元吉)의 어머니 소상(小祥)에 아들 나덕명, 나덕준, 나덕현, 나덕신이 각기 술과 과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다. 이어 아들 나덕명이 서울소식을 들었다고 하는데, 나의 벗 순천 군수(順川郡守) 유조인(柳祖詔)이 어리석은 논박을 펼치는 사람으로 지목되었다고 한다. 언제 적 일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크고 밝은 임금께서 위에 계시고 어질고 준절한 신하들이 아래에 있어 그 보좌하고 다스림이 마땅히 지극함에 이르지 않은 적이 없는데, 대간된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저 유 군수처럼 우뚝하고 뛰어난 사람이 진실을 잃어버린 논의를 펴겠는가.

생각해보건대 팔도 군읍의 관리들 중 유공보다 뛰어난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나는 유군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당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세도의 혼탁을 깊이 탄식한 것이니, 어찌 유군을 마주하여 이러한 울분의 마음을 말할 수 있겠는가. 유군은 한 시대의 위인일 뿐만 아니라 전 옛 시대의 현명하고 준절한 인물들과 비교해도 더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 충효의 절개는 실로 빼어남을 대적할 이가 없는 훌륭한 남자이거늘 지금 간쟁하는 신하들의 탄핵을 당하니, 만약 평소 그를 증오하던 자가 음해한 것이 아니라면 정녕 간사한 무리들의 탄핵을 받은 것이리라.

이러한 유공의 어썩 때문에 우의정 정지연(鄭芝衍)은 이미 그의 충효와 큰 절개를 들어 경석(經席)의 자리에 앉힌 것이다. 정재상 또한 어진 재상이라 분명 어릴 때부터 그의 사람됨이 어질다는 것을 잘 알아 그를 천거하여 승진시킨 것이니 반드시 그 좋아하는 바에 아부하여 망령되게 그를 천거하여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지금 대간의 지위에 있는 자들은 실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유군이 어리석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질고 뛰어나단 말인가! 해피함의 극치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1월 15일 비

아들 나덕명, 나덕준, 나덕운은 성현을 사모하고 본받고자 하여 형실이 세속을 넘으니 실로 자신을 위해 힘쓰는 선비이다. 일찍이 형제끼리 같이 살고자 하는 뜻을 두고 여러 차례 나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나 또한 일찍이 그러한 뜻이 있기는 했어도 이루지 못하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지 몇 년이 흘렀다. 지금은 부모형제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나 나만 홀로 한밤중에 남아 있는 것 같이 비통한 마음 또한 지극하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뜻이 고인들에게 있어 이처럼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자 하는지 어찌 알았겠는가.

이에 동당이실제(同堂異室制)를 도안하여 나에게 주었는데 그 법규와 도안을 살펴보니 실로 이전 현인들께서 남기신 뜻을 법으로 삼은 것으로 어찌 가상히 여겨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만 생각하건대 이는 진실로 말세에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비록 처음에는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끝을 잘 맺기란 어려울까 걱정이다. 그러나 여섯 아들이 한 집안 사람들을 잘 이끌어 끝내 연익(燕翼)⁵⁹⁷⁾의 아름다움을 거둘 수 있을지 어찌 알겠는가.

나덕명, 나덕준, 나덕운아! 늘 삼가 힘써라. 세속의 비웃음을 당하지 마라. 나는 이제 늙고 병마져 많아 너희들이 같이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을까 두렵다. 비록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뜻을 성취한다면 또한 구천에서라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바라건대 여섯 아들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깊이 새겨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마라.

▪1월 17일 맑음

오늘 새벽 이웃 조카의 집에 제사가 있었으나 감기에 걸려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아들 나덕명, 나덕준, 나덕현, 나덕신을 참석하도록 했다. 한 집안의 형제들이 거의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병들고 나이 또한 많아 여러 차례 제사에 참석하지 못했으니 그 비통하고 슬픈 마음이 얼마나 지극한지.

597) 연익(燕翼) : 조상이 자손을 위해 세운 계책이나 교훈을 말한다. 《시경》〈대아(大雅) 문왕유성(文王有聲)〉에서 주(周)나라 문왕에 대해 “후손에게 계책을 남겨 두어 공경하는 아들을 편안케 하겠다.[詒厥孫謀, 以燕翼子.]” 하였다.

▪1월 19일 맑음

강진에 사는 이모 김씨께서 그 덕의 어른 경원 부사(慶源府使) 이억복(李億福)의 상을 당했기에 오늘 조문을 쓰고 노비를 보내 위로하도록 했다. 이억복은 이름난 무관으로 당상관에 올라 오랫동안 벼슬을 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 죽었으니 그 가문의 불행함이 극심하다. 나와 이군은 한때 서울에서 관직생활을 하며 서로 따르고 좋아하는 마음이 적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었는데 홀연히 죽으니 애통한 마음 더욱 끝이 없다. 같은 고향의 벗 진사 이담(李曇)과 생원 정이상(鄭履常)도 동시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제 부음(訃音)을 들었으니 슬프고 애도하는 마음을 어찌 다할까. 이공은 우리 집안과도 서로 왕래하는 사람이고, 정군은 나의 동년배이다. 모두 평소 교유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인데 이제 고인이 되었으니 그 비통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평소의 마음에 비할 바가 아니다.

▪1월 20일 맑음

모산(茅山)에 사는 조카 박자하(朴自夏)가 오늘 새벽 갑자기 세상을 떠나 그 집안의 종들이 달려와 부고를 전하여 아들과 함께 대성통곡하였다. 박 조카는 자녀가 많지만 집이 매우 가난하여 초상에 염습하는 도구는 필시 갖추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어 아들과 함께 있는 힘을 다해 도모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슬프다. 가난함이어! 우리 집에서 보낸 물건은 정목(正木)⁵⁹⁸ 한 필, 관에 바르는 대장지(大壯紙) 열 장, 유지(油紙) 두 장, 생마(生麻) 한 묶음, 풀자리 두 개, 명정(銘旌) 한 개, 홍색 물들인 명주 다섯 척, 먹목(幘目)⁵⁹⁹ 악수(握手)⁶⁰⁰ 등의 도구였다.

▪2월 3일 맑음

목백 성주가 아침에 사람을 보내 담양(潭陽) 김사중(金士重)【이름은 천일(千鎰)이다.】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김사중은 술과 음식을 갖추고

598) 정목(正木) : 품질이 썩 좋은 무명을 말한다.

599) 먹목(幘目) : 소렴(小殮)을 할 때 얼굴을 싸는 천이다.

600) 악수(握手) : 소렴을 할 때 손을 감싸는 천이다.

목백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은밀하게 주인에게 말했더니 먼저 작은 상에 만두를 내왔다. 목백은 또 관에서 큰 상을 내오도록 명하여 매우 즐겁게 즐기고 자리를 떠났다. 좌객으로는 두 성주, 목백의 아들 임전(任鉉), 이광우(李光宇), 이광주(李光宙), 주인과 내가 있었다. 또 주인의 아들 김상건(金象乾), 김상곤(金象坤) 등과 돌아가신 부윤(府尹) 양응정(梁應鼎) 영공(令公)의 아들 양산숙(梁山燾) 또한 참석하였다. 목백은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나의 손과 사중의 손을 잡고 “바라건대 제가 큰 실정이 없도록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가 우리를 대하는 도는 진실로 정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목백 임윤신(任允臣)은 1월에 막 부임했고, 판관(判官) 임기문(林起門)은 무인 집안이다.】

▪ 2월 7일 온종일 비가 내림

청암 찰방(靑巖察訪) 경시정(慶時貞)은 근래에 와서 인사한 사람으로 오늘 백상지(白常紙) 각 다섯 권을 보내왔다. 이 사람과는 평소 친분이 없었는데, 내가 그의 형 경시경(慶時經)과 함께 관직생활을 하여 서로 친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들러 서로 만났으니 정성된 마음을 보인 것이다. 대화 중 그의 형 얘기가 나오면 눈물이 흘러 멈추지 못한 것으로 보면 우애가 깊고 지극한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이기에 탄복하기를 그치지 못하였다. 이 사람은 그의 형이 죽자 마음으로 슬퍼하며 삼년상을 마쳤으니 어찌 오늘날 세상에 보기 드문 사람이 아니겠는가.

왜구가 좌도와 우도로 나눠 이르러 변경의 경계가 바야흐로 시급하였다. 얼핏 듣기로는 가리포(加里洵) 첨사(僉使) 이필중(李苾中)이 눈에 탄환을 맞아 전쟁에 이기지 못하였고 우수영(右水營) 우후(虞侯)가 병사를 매복시켰으나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고 하였다. 이는 실로 막대한 변고로서 우려가 어찌 끝이 있겠는가. 태평한 시절이 오래도록 유지되자, 문무의 벼슬아치들은 직무를 게을리 하고,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어 나라에는 곡식을 쌓아둔 것이 없으며, 북쪽의 난리가 아직 안정되지도 않았고, 남쪽의 오랑캐들은 또 다시 일어났는데도, 조정에는 훌륭한 장수가 없고 백성은 윗사람을 위해 죽을 마음이 없으니, 저 왜적들은 필시 우리나라의 허실을

자세하게 살펴 틈을 타 침략한 것이다. 만약 내가 쇠약하고 병든 몸을 버려 비록 전쟁에서 죽는다고 한들 실로 아까울 것은 전혀 없다. 다만 안타까운 건 주상께서 위에서 외롭게 서서 충성스러운 신하가 누구의 자제이기에 능히 충절의 절개를 다하여 사수(死綏)⁶⁰¹⁾의 정성을 다하는지 알지 못하신 것이다. 말과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진다. 만약 저 왜구가 우리를 곤경에 처하게 할 계책을 잘 알아 동쪽으로 서쪽으로 공격하여 거의 헛된 날이 없다면, 우리나라가 장차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다.

▪2월 14일 맑음

나덕명, 나덕준, 나덕현, 나덕헌 등을 데리고 걸어서 새 집터에 올라 성안의 봄빛을 두루두루 고개 숙여 바라보니, 이미 매화는 봉우리를 터뜨리고 버드나무는 누런빛을 내고 있었다. 가까이는 산의 푸른빛을 맞이하고 멀리는 하늘의 푸른빛이 뒤섞여 함께 천태만상의 아름다움을 눈에 담으니 실로 얻기 어려운 장관이다. 여러 명의 종을 불러 삽으로 언덕 끝을 우뚝하게 만들다가 비가 와서 그쳤다.

▪2월 25일 맑음

감사 한준(韓準)이 순행하다 이곳에 이르렀다. 아들 나덕준과 나덕윤을 감사가 거쳐하고 있는 곳으로 보내 왜적을 막는 대책에 대해 자문하고 의논하도록 하였다.

▪3월 3일 맑음

오늘은 답청절(踏青節)⁶⁰²⁾이다. 아들은 각각 술과 안주를 가지고 남산 서당에 모여 청아한 기쁨을 오롯이 누렸다. 아들들은 진사 정양좌(鄭良佐)를 좌장으로 모시고 함께 즐겼으며 나원로, 나덕진, 나덕의 등이 또한 와서 참석하였다. 나덕창이 소반에 과일을 담아오고 나덕진 또한 술상자를 가지고

601) 사수(死綏) : 군사가 패하면 장수는 마땅히 죽어야 함을 뜻하는 말이다. 《춘추좌씨전》 문공(文公) 12년에 “사마법(司馬法)에 장군은 수레에 오르는 끈을 잡고 죽는다.[死綏]”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602) 답청절(踏青節) : 3월 3일은 들판의 풀을 밟는 풍속이 있어 답청절(踏青節)이라 한다.

왔다. 아들 나덕명, 나덕준, 나덕윤이 각자 소반에 과일과 제철 음식을 상에 가득 담아 올려 좋은 음식이 상에 가득하여 담소를 나눌 수 있었다. 끝내고 돌아올 때 새 집터에 모여 앉아 술을 가져와라 하고, 자식들과 조카들로 하여금 각자 노래하고 춤을 추게 했으니 오늘 즐거움은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말할 만하다.

▪4월 2일 잠깐 비가 내리다 곧바로 쾌청해 짐

목백의 부름을 받아 나덕명과 나덕준을 데리고 서원에 갔다. 서원의 유생들을 선발하였는데 뽑거나 탈락시키는 데 어려운 것은 여러 사람의 논의가 분분하기 때문이다. 담양(潭陽) 김천일(金千鎰)이 내게 좌장을 양보했는데 한참을 서로가 좌장을 하라고 하니, 목백이 곧장 “향당에서는 나이가 우선입니다. 선생께서 윗자리에 앉는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좌장이 되자 유생 15~6명이 와서 모였다. 저물녘에 목백이 우리들 3~4명을 끌어당기며 시냇가 누대 위로 자리를 옮기자고 청하였다. 목백과 담양 김천일은 활쏘기 놀이를 했다. 다시 김정간(金廷幹)의 시냇가 정자 높은 누대에 자리를 옮기고는 온종일 즐겁게 노니다가 헤어졌다.

▪4월 27일 맑음

정(正) 정인귀(鄭仁貴)는 나의 동년배로 서로 우애하는 막역한 사이다.

▪4월 28일 맑음

오늘은 명종의 기일(忌日)이다. 전에는 매번 소찬(素饌)⁶⁰³을 했는데, 오늘 중병을 겪은 뒤라서 소찬을 행하지 못하였다.

▪7월 18일 오전은 맑고 오후에는 비가 옵니다

오늘 감사(監司) 윤두수(尹斗壽)가 방회(榜會)를 열어 여러 동년들을 모아 큰 잔치를 베풀고자 하였다. 나는 장모의 기일이어서 갈 수가 없다고 사양했더니, 감사가 전하기를 “그런 일은 예문(禮文)에도 적혀 있지 않으니

603) 소찬(素饌) : 고기나 생선이 들어 있지 않은 식사를 이른다.

빨리 와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여러 해 모셨던 제독(提督) 정인귀(鄭仁貴), 동북 현감(同福縣監) 김부윤(金富倫), 전 함안 군수(咸安郡守) 장이길(張以吉), 진사 위대용(魏大用) 등 또한 편지를 보내 초대했다고 하였다. 아들과 상의해보니 감사가 장원으로 감찰사가 되어 방회를 연 것이기에 빙모의 기일을 핑계로 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나도 생각해 보니 참석하는 것이 마땅한 듯하여 서당에서 집으로 내려와 관복을 잘 입고 부중(府中)으로 들어갔다.

먼저 서상방(西上房) 작은 누각에서 방백을 배알하고, 다음 금성관(錦城館) 뒤의 행랑에서 이아(二衙)⁶⁰⁴의 성주를 배알한 뒤 이어서 여러 동년들을 만났다. 감사가 먼저 무이루(撫夷樓)⁶⁰⁵에 앉아 동년들에게 들어와 용복(戎服)을 입으라고 재촉하였다. 동년들이 모두 윗옷을 벗고 들어와 감사에게 인사를 올리니 감사가 일어나 자리 밖으로 나가 절을 받은 다음 방(榜)의 순서대로 앉아 있었다. 감사 다음 동북 현감 김부윤이 상석에 앉고, 그 다음에 전 군수 장이길이 앉고, 그 다음은 내가, 나 다음 진사 위대용, 그 다음 제독 정인귀가 앉았다.

자리에 앉은 뒤 감사가 도사(都事) 권율(權慄)과 목사(牧使) 임윤신(任允臣)을 오도록 청하였다. 감사가 나는 오늘 기일이고 위대용 또한 삼촌의 상이 있으니, 음악을 울려서는 안 되는 일이고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술이 한 순배 돈 뒤에 악상(岳相) 앞에 나아가 “영공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30년 만에 방회를 베푸셨는데 방(榜)에 들었던 사람 중 반은 살아 있고 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늘의 일은 참으로 성대한 일이거늘 우리 두 사람 때문에 마침내 풍악을 울리지 않으신다니 먼저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감사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 이윽고 허락하였다. 내가 먼저 나가자, 위대용도 내가 나가는 것을 보고 나갔다. 비로소 음악이 울리더니 밤까지 놀았다고 한다.

잔치에서 정제독이 절구를 한 수 읊자 감사가 바로 화답하였다. 또 좌중에 종이를 주게 하여 나 또한 차운하여 올리니, 감사가 일어나 받아 보고는

604) 이아(二衙) : 보통 관찰사의 감영(監營)이 있는 곳의 아문을 가리킨다.

605) 무이루 : 무이루(無夷樓)는 나주에 있는 누각의 이름이다.

칭찬하여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윤두수는 자가 자양(子昂)이고, 호는 오음(梧陰)이며, 본관은 해평(海平)이고, 서울에 거주하였다. 이소재(履素齋)의 문인으로 훗날 무오년(명종 13, 1558)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영의정과 해원 부원군(海源府院君)에 이르렀고, 시호는 문정공(文精公)이다. ○ 김부윤은 자가 돈서(惇敍)이고, 호는 설월당(雪月堂)이며, 본관은 광주이고, 예안에 거주하였다. ○ 장이길은 자가 천응(天應)이고, 본관은 흥덕(興德)이며, 나주에 거주하였다. ○ 위대용은 자가 사행(士行)이고, 본관은 장흥(長興)으로 사는 곳도 같다. ○ 정인귀는 자가 사현(士顯)이고, 본관은 광주로 무안에 거주하였다. 훗날 신유년(명종 16, 1561) 문과에 급제하여 시정(寺正)과 목사를 지냈다.】

▪ 7월 19일 맑음

아침에 동북 군수 김부윤이 편지를 보내오면서 또한 청주 한 되와 옷칠한 부채 서너 개를 보내와 그 중 세 개는 나의 아들 나덕명, 나덕준, 나덕윤에게 보내고 중미(中米) 두 말은 산재(山齋)의 찬값에 걸맞게 보냈다. 이 사람이 바로 퇴계(退溪) 이 선생(李先生)의 고제(高弟)로 나를 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나의 아들들까지 사랑하여 한 번 오면 밤까지 술잔을 잡고 산재에서 위로해주었는데, 지금 또 음식을 보내와 이렇게 뜻을 두터이 하니 감사인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동북 현감은 또 오늘 사상(使相)⁶⁰⁶에게 술잔을 올리고 곧 여러 선배들과 대화할 일을 일러주며 나에게 정성을 내라고 청하였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두 성주를 찾아뵈 뒤에 악상을 찾아뵈려 했으나, 악상이 바야흐로 정사를 듣느라 바쁘시기에 감히 나아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한 채 여러 선배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었다. 조방장(助防將)⁶⁰⁷이 서울로부터 본주로 내려와서 부중이 매우 소란스러웠다. 내가 이에 동북 군수에게 힘써 고하여 작별하고 돌아가니, 동북 군수도 말리지 못하였다.

606) 사상(使相) : 감사(監司)의 별칭이다.

607) 조방장(助防將) : 조방장은 무재(武才)가 있는 수령이 겸임하게 하였는데, 비상 시 도내의 군사 요충지 수비 강화를 위해 둔 직임이다.

▪8월 16일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비가 옵

나덕준, 나덕윤, 나덕현 세 아들이 시험장 고을【영광(靈光)이다.】로 갔다. 내일 시험 장소에 당도할 예정이나 천거할 만한 재주가 어떨는지 모르겠다. 기대가 끝이 없다.

▪8월 20일 맑음

온종일 바깥채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오후에 나덕준, 나덕윤, 나덕현이 시험을 마치고 돌아왔다. 들어보니, 나덕윤은 진사과장에서 부(賦)를 지어 삼등이 되었다고 한다. 생각하건대 반드시 높은 점수로 합격할 것이니 어떤 기쁨이 이만하겠는가. 나덕준과 나덕윤은 두과장에서 초고를 모두 잘 지었다고 하는데, 나덕준의 의대(疑對)는 더욱 뛰어나 기뻐할 만하였다.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8월 21일 비를 뿌리다가 맑게 갠

아침에 향교의 노비 4~5명이 방(榜)을 들고 와서 밖에서 소리쳤다. 방록(榜錄)을 보니 아들 나덕준이 생원시에 6등으로 합격했다. 반드시 우등일 것이다. 아들 나덕윤도 두 시험에 합격했으니, 쇠미한 가문의 경사로 이보다 기쁜 것이 없다. 나의 생각이 끝이 없다.

▪9월 9일 맑음

오늘은 가절이라 헛되이 보낼 수 없어, 나원로, 나덕진, 나덕의와 아들 나덕명, 나덕준, 나덕윤, 나덕현, 손자 나용, 나규, 나진 등을 데리고 강가에 놀러 나가 낚시하여 물고기를 잡아 소반 가득 팔딱팔딱 뛰는 좋은 회와 진귀한 생선으로 사람들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나원로, 나덕진, 아들 나덕준 등이 각자 술을 올렸는데 맛있는 물고기와 좋은 과일 모두 계절에 맞는 맛있는 것들이었다. 나 또한 점심으로 먹을 흰 쌀 열다섯 되를 가져오게 하여 밥을 지어 모두 배불리 먹었다. 저녁에 버드나무 가지에다 물고기를 꿰 것이 거의 수십 수백 개나 되었다. 달빛을 받으며 돌아왔는데 모자를 떨어뜨릴

정도의 흥취⁶⁰⁸⁾란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것이리라. 오늘 아침에 목백 성주가 살아 있는 송어 한 마리를 보냈다. 회를 뜨기에 적합하여 역시 가지고 나가 먹을거리로 삼았다. 저녁 돌아오는 길에 아들 나덕준이 그의 아들 나규와 나수를 데리고 나와서 함께 말을 타고 오다가 말에서 땅에 떨어졌다. 흥이 넘쳐나는 와중에 오점이 하나 되었다.

▪9월 19일 비

내일은 조카 박자춘을 안장하는 날이므로 쌀 세 말, 큰 초 한 쌍, 만장 세 폭, 떡 한 상자, 술, 과일 등을 부의로 보냈고, 아들 나덕명과 나덕윤은 급히 말을 달려갔다. 나덕준은 병으로 가지 못하고, 나덕현은 그의 처가에 갔다. 생각하건대 나덕명과 나덕윤이 함께 제사를 드리며 슬퍼할 것이다. 내가 관직을 그만두고 귀향한 뒤에 사돈 윤언부의 처, 김담양【경헌(景憲)이다.】, 이함양【언양(彦讓)이다.】의 여동생, 박자춘, 박자하, 종질 나병문 등 모두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연달아 세상을 떠났으니 뜬구름 같은 인생 어찌도 이렇게 갑자기 죽음에 이르는 것인지. 조용히 생각해보니 가슴 아픈 생각 끝이 없다.

▪10월 1일 맑음

정상사【정량좌(鄭良佐)이다.】와 여섯 아들, 여섯 조카를 데리고 나란히 말을 타고 북암리(伏巖里)에 있는 담양 김사중의 서당에 갔다. 조용한 세속 밖의 깨끗한 유람이었다. 서재에 모여 점심을 먹은 뒤 바위 꼭대기로 이동하여 모였다. 어부를 시켜 노를 두드려 올리게 하고 그물을 던지게 하여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다. 주망으로 잡은 물고기로 탕을 끓여 씹어보니 강호의 맛이 났다. 저녁이 되어 함께 말을 타고 돌아왔다. 내가 앞장서서 뒤를 돌아봤는데 말을 타고 횃불을 들고 줄지어 오는 자들이 무려 15~6명이나 되어 매우 성대하였다. 이는 옛날 부친과 형님들을 모시고 즐기던

608) 모자를 …… 흥취 : 원문 ‘낙모(落帽)’는 가을바람이 모자에 붙어 모자를 떨어뜨린다는 말로, 진(晉)나라 맹가(孟嘉)가 일찍이 환온(桓溫)의 참군(參軍)으로 있을 때, 중구일(重九日)에 환온(桓溫)이 베푼 용산(龍山)의 주연(酒宴)에 참석했다가, 술에 흠뻑 취한 나머지 바람에 모자가 날아가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고사가 있다. 《世說新語 識鑑》

일인데 오늘 내가 자제들과 친구들을 데리고 놀았으니 슬프고 애도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11월 8일 맑음

내일은 선군의 기일이다. 죽은 조카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에 제사 참석을 위해 목욕재계를 하였다.

▪11월 9일 맑음

닭이 울자 일어나 의복을 바르게 하고 걸어서 이웃 조카의 집에 갔다. 나덕준, 나덕헌, 종질 나덕진을 데리고 제사 지내는데 술잔을 올리며 엎드려서는 옛날 형제들이 모두 살아 있을 때 모여 제사 올리던 일이 떠올랐고 부모님의 평소 모습과 말씀하시던 목소리를 그리는 마음이 가슴속에서 일어나 서글퍼서 나도 모르게 통곡의 슬픔을 참으로 이겨낼 수 없었다.

▪11월 18일 맑고 매우 추움

멀리서 변방 수비를 보는 병졸들이 혹독한 추위에 고생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측은한 마음이 든다. 필시 얼어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구중궁궐 세전(細甃) 609) 위까지 이 마음 미칠 수 있을까.

▪11월 19일 큰 눈에 몹시 추움

아들 나덕준과 나덕윤이 금양서원(錦陽書院)에서 와서 안부를 물었다.

▪11월 22일

서원 사우에서 한훤(寒暄), 일두(一蠹), 정암(靜庵), 회재(晦齋), 퇴계(退溪) 다섯 선생의 봉안 제례를 올렸다. 나덕준과 나덕윤이 집사로 차출되어 저녁을 먹은 뒤 곧장 서원으로 올라갔다. 내가 차헌관(次獻官)이지만 목백에게 병이 있다고 알리고 나덕명에게 대신 일을 행하도록 하니, 목백이 정성을 다해 그를 가르쳐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덕명이 또 말에서 떨어져 어깨를 다쳤기에 참여할 수 없을까 걱정된다.

609) 세전(細甃) : 궁전(宮殿) 바닥에 까는 고운 용단을 이르는데, 전하여 어전(御前)을 뜻한다.

▪11월 22일 맑음

오늘 새벽부터 기분이 좋다. 서원에서 다섯 선생을 봉안하는 제사를 행하니 한 고을에 있어서 천고토록 있지 않았던 성대한 일이 어찌 아니겠는가. 전 목사 김성일(金誠一)이 서원을 창립하고 지금 목사 임윤신(任允臣)이 사우를 다 지어 다섯 분의 현인들을 봉안하고 제사를 올리니 실로 선비들의 큰 경사이다. 아들 나덕명, 나덕준, 나덕윤 등이 애당초 이미 김목백과 함께 건물을 세우는 것을 논의했지만 그 공을 미처 이루기 전에 김사군이 생각지도 못하게 파직되어 떠나 버렸다. 지금 목백 임사군이 그 일을 이어 다시 사우를 세우니, 이 두 목백은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만하다. 목백이 온 고을의 선비들에게 제문을 지어 올리게 했는데, 목백은 아들 나덕윤이 지은 것이 좋다고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12월 3일 추위가 매우 심해짐

정우상의 노비를 만나 그 집안의 상하 모두의 안부를 모두 상세하게 물었다. 정우상과 나는 나이가 같고 지위가 같고 스승이 같은 벗이다. 일평생 지기로는 이만한 벗이 없는데 예전에 만나 서로 따르며 형제처럼 지내다가 나를 버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지 지금 4년이 흘러 매번 생각이 나서 헤어나지 못했다. 오늘 눈앞에 그의 종을 보고 어떻게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재상 정지연(鄭芝衍)의 노비가 2일 서울에서 편지를 가지고 왔기에 이처럼 불러서 만나봤던 것이다.】

▪12월 8일 맑음

시장에서 청어를 사다가 종가 부모님과 백부의 신주에 천신(薦新)⁶¹⁰ 하였다. 【이때 서씨가 종부로서 그 위손(僞孫)이 되는데 혼사로 인해 서울로 올라갔기에 천신의 제례를 거행하지 못하여 공이 진설하여 행하였다.】

610) 천신(薦新) : 시절을 따라 새로 난 과일이나 농산물을 먼저 신주(神主)나 신(神)에게 제사지내는 일을 말한다.

▪ 12월 29일 맑음

선영에 올리는 제사는 나덕현과 죽은 조카 다음에 하는 것이 마땅하고, 부모님의 묘제는 박(朴) 조카 등의 다음에 하는 것이 옳기에 제사의 예물을 보내지 않다가 오늘 재사(齋寺)에 보냈다.

▪ 30일 비온 후 눈

선달그믐 모임이 있어 나는 병을 무릅쓰고 사랑방에 나가 참석하였다. 회원은 종질 나환문, 나형문, 나섭문, 나덕진, 나덕신, 조카 나덕창, 아들 나덕명, 나덕준, 나덕운, 나덕현, 나덕신, 나덕현, 작은 조카 나덕홍 등이 참석하였다. 매우 즐겁게 노닐다 끝나니 묵은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시각이 되었는데, 다만 고시(古詩) 중에 ‘흰머리 내일 아침이면 또 한 살 더 먹지. [霜鬢明朝又一年]⁶¹¹⁾’라는 구절이 떠올라 슬픈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611) 흰머리 …… 먹지 : 당(唐) 나라 시인 고적(高適, 약 707~765)은 일찍이 자사로 있을 때 “고향 땅 오늘밤에 천리 멀리 그리는데, 흰머리 내일 아침이면 또 한 살을 더 먹지.[故鄉今夜思千里 霜鬢明朝又一年]”라는 <제석시(除夕詩)>를 지은 적이 있다.

만력 연간에 올린 글 萬曆中呈文

김응기(金應期)의 자는 언정(彦挺)이다. 타고난 기질이 성실하고 훌륭하며 효성이 순수하여 어려서부터 맛있는 음식을 얻으면 곧장 부모님에게 올렸고 부모님께서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

병오년(1546)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양친에게 병이 있어 관사에서 거처하는 과거의 계책에 다시는 뜻을 두지 않았다. 정미년(1547)에 부친이 위독하자 곁에서 모시며 탕약을 올리고 대변을 맛보아 길흉을 살폈다. 부친이 돌아가시자 장례를 치름에 정성과 슬픔이 상례의 법도를 넘어 몸을 훼손할 정도였다. 3년 동안 죽을 먹고 채소와 과일은 먹지 않았으며 몸소 묘소에 올리는 음식을 준비하였고 또한 맛있는 음식으로 모친을 봉양하였다.

겨우 부친의 상을 마쳤는데 모친 또한 오랜 병이 있어 여러 해 동안 탕약 시중을 들며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엎드린 채 아침을 기다려 흙 걸상에 무릎 닿는 곳이 움푹 패여 들어가 오목한 모양이 만들어지니, 의원들이 그것을 보고 감탄하였다.

평생 사사로운 재산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모친이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따로 재산을 베풀어 주고자 하니 모친의 뜻에 앞서 이를 수 있게 하였다.

무진년(1568)에 모친께서 돌아가시자, 갑자기 쓰러졌다가 곧 회복하여 3일장을 치르는 동안 게을리 행동하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던 날, 밤새도록 많은 비가 내리자 슬프게 울부짖으며 하늘에 빌었더니 하늘이 갑자기 맑아졌다. 조문하는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모두가 효성에 감복한 것이라고 여겼다.

아침저녁으로 묘를 살피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도 거르는 날이 없었다. 제수를 깨끗하게 하며 반드시 평소 좋아하던 것을 생각하여 공판(供辦)을 지극히 힘썼다. 또 미음을 먹으며 삼년상을 마쳤더니 눈은 어두워지고 귀가 들리지 않았으며 몸은 가시처럼 말랐기에, 그를 본 사람들 중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상을 마친 후 반드시 묘를 향하여 앉았고 부모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눈물부터 먼저 펴펴 흘렸다. 그 효행의 독실함이

대개 이와 같았다. 명종 때 그의 행동을 가상히 여겨 두 차례 참봉을 제수하였지만, 그는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우리 선조는 김공과 더불어 고을【고을은 노곡(蘆谷)이다.】에 같이 살면서 모두 지극한 행실이 있어 송서교[宋贊]의 추천을 함께 받았다. 생각건대 반드시 서로 추대하여 인정해 주는 것이 마치 지초와 난초의 향취가 서로 꼭 부합한 것과 같다. 일찍이 창강(滄江) 조장령(趙掌令)⁶¹²이 손수 쓴 글을 보니, 김공의 효성에 관한 사적을 책 앞에 두고 <만력증정문>을 그 아래에 둔 다음 또 나공 이산 현감이 기록한 것에 적었으니, 어쩌면 우리 선조가 이 글을 지어 포장하여 올린 것이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지은 글을 우리 선조가 취하여 기록하신 것일까? 우선 우리 선조가 지은 조목을 끝에 덧붙여 사정을 아는 사람을 기다린다.

현손 나두동(羅斗冬)이 삼가 쓰다.

612) 창강(滄江) 조장령(趙掌令) : 조속(趙淾, 1595~1668)을 말한다.

유묵【당시 공의 나이 63세였다.】

遺墨【時公年六十三】

아들 나덕명, 나덕준, 나덕운 등은 성현을 사모하고 법으로 삼으며 행실은 세속을 넘어서, 진실로 자기를 위한 학문을 하고 실상에 힘쓰는 선비이다. 일찍이 형제들끼리 같이 거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나에게 여러 차례 자문을 구했고, 나 역시도 일찍이 이러한 뜻이 있었으나 실행하지 못하여 매우 감개한 마음이 있는 지 수년이 지나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 부모형제들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났고 나만이 홀로 심야에 남아 비통함 또한 너무도 지극하다. 어찌 우리 아이들이 옛사람의 뜻을 가지고 이와 같은 미풍양속을 행하고자 하는가. 이에 동당이실제(同堂異室制)에 대해 도안하여 그 법규와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올렸더니 진실로 옛 현인들이 남긴 뜻을 법으로 삼은 것이다. 어찌 가상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만 이 실상을 생각해 보면 말세에는 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비록 그 처음에는 힘써 행하더라도 끝까지 잘 할 수 있을지는 어려운 일이기에 두렵다. 그러나 여섯 아들이 한 집안의 사람들을 잘 이끌어 끝내 연익(燕翼)의 아름다움을 거둘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나덕명, 나덕준, 나덕운아! 조심함과 부지런함을 숭상하여 세속의 비웃음을 사지 마라. 나는 지금 늙고 병도 많아 너희들이 함께 살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을까 두렵다. 비록 이러한 뜻을 잘 성취하는 것을 미처 볼 수는 없을지라도 또한 지하에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바라건대 우리 여섯 아들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깊이 새겨 집안을 욕되게 하지 마라.

포장 褒獎

중종 때 정려를 세워 표창하고 세금과 부역을 면제하였다. 【어떤 이는 정려를 세워 표창한 일이 가정(嘉靖) 갑진년(1544)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만 자세하지 않다. 본도 감사의 계문(啓聞)과 전교(傳敎)의 글에는 모두 증거가 없다. 이후 만력 갑인년(1614) 가을에 광해군이 진원부원군(晉原府院君) 유근(柳根) 등에게 《동국신속 삼강행실(東國新續三綱行實)》을 충신 1권, 효자 8권, 열녀 8권으로 편차하여 그림을 그리고 사적을 기록하도록 명하였다. 공의 사적에 이르러서는 ‘사침단지(士沈斷指)’를 제목으로 삼아 그 아래 손가락을 깨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끝에 사적을 적었으니 “현감 나사침은 본관이 나누이다. 효성을 타고났는데 나이 16세에 어머니의 병이 위중하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올렸더니 병이 즉시 나았다. 중종⁶¹³⁾께서 정려를 세워 표창하였다.”라고 한 것이다. 인조반정 이후 혼탁한 조정의 간신 이이첨(李爾瞻)⁶¹⁴⁾의 성명 또한 일찍이 효자의 반열에 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이 세상에 유행하지 않았고 당초 간행본 중에 여전히 전해지는 책이 있어 이처럼 덧붙여 보인다.】

용경 무진년⁶¹⁵⁾ 본도의 감사 송찬(宋贊)의 계본(啓本) 【본주의 목사 한복(韓馥)이 논하여 알린 것을 따른다. 송찬은 자가 치숙(治淑)이고, 호는 서교(西郊)이며, 진천(鎭天) 사람이다. 가정(嘉靖) 정유년(1537) 생원시에 장원을 하였고, 경자년(1540)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찬성(贊成)에 이르렀다. 일찍이 무진년(1568)에 호남의 방백이 도내의 훌륭한 선비를 천거했는데 공이 그 가운데 으뜸이었고, 그 다음으로 같은 고을의 전 참봉 김응기(金應期), 유학(幼學) 김천일(金千鎰), 장흥(長興) 진사 유호인(兪好仁), 김윤(金胤)

613) 중종 : 원문 ‘恭僖大王’은 중종(中宗)을 말한다. 공희(恭僖)는 중종의 시호이다.

614) 이이첨(李爾瞻) : 1560~1623. 자는 득여(得輿)이고, 호는 관송(觀松) 또는 쌍리(雙里)이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자 가족을 이끌고 영남 지방으로 도망가던 중 광주의 이보현(利甫顯)을 넘다가 관군에게 잡혀 참형되었다.

615) 용경 무진년 : 원문은 ‘萬歷’으로 되어 있으나 만력 연간에 무진년은 없다. 아마도 오기(誤記)인 듯하다. 주석을 참고하면 무진년은 선조의 원년이며 1568년에 해당되므로 용경(隆慶)이 맞다.

등 모두 다섯 사람이었다. 그대로 대신들이 포장 교지를 의논하라는 일이 있었다.】

생원 나사침(羅士沈)은 모친의 병이 수개월 간 치료되지 않자 의술로 낮게 할 수 없음을 슬피 여겨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 약과 함께 올렸더니 어머니의 병이 곧바로 나았다. 종종 때 임금께 알려져 정려를 표창받았다. 그 사람됨은 천성이 진실하고 순박하며 학문과 행실을 겸비하여 그의 부모형제간에 대해 사람들은 이견이 없었으며, 일을 처리하고 남들과 만날 때에도 믿음과 의리를 실천했으며, 부모의 상에도 한결같이 예를 따라 시묘살이를 하는 전후에 한 번도 집에 이른 적이 없었으며, 추모함에 정성스럽고 독실하게 하여 제사를 지낼 때도 반드시 삼가 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휼할 때에도 불쌍히 여겨 지극 정성으로 했으며, 일찍이 과거의 공부를 하지 않아 명성이 알려지거나 현달하기를 구하지도 않아, 온 고을 사람들이 그의 행실에 모두 감복했기에, 선조께서 교지에 “나사침 등의 행실은 지극히 가상하여 포장할 만한 일이니, 해당 부서는 대신들과 의논하도록 하라.”라고 한 것이다.

《미암일기(眉巖日記)》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무진년 5월 15일에 나중묵(羅仲默)【사선(士愼)이다.】의 형이 내게 고하기를 ‘아침에 이조 판서 이공을 만났는데, 나사침과 유호인은 품계에 맞는 직을 내리며, 김천일에게는 식물(食物)을 내려 학업을 마치도록 하며, 김응기에게도 식물을 내리며, 김윤에게는 정려문을 표창하고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줄 것이니, 이는 대개 이조와 대신들이 의논하여 정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유미암은 유희춘(柳希春)으로, 자는 인중(仁仲)이고, 본관은 선산(善山)이며, 호는 성은(城隱)이다. 유계린(柳桂隣)의 아들로, 공과는 이종형제 사이다. 정덕 계유년(1513)에 태어나 배움을 널리 했고 기억하는 데 힘을 쏟은 인물이다. 가정 정유년(1537) 생원에 합격하고, 무술년(중종 33, 1538) 문과에 급제하였다. 을사년(1545)에 권세 있는 간신들의 재앙이 있던 날, 정언(正言) 벼슬에 있다가 대사헌 민제인(閔齊仁) 등과 함께 연좌되어 파직 당하였다. 정미년(1547)에 제주로 유배 갔다가, 무신년(1548)에 종성으로 이배되어, 을축년(1565)에 특별히 은진(恩津)⁶¹⁶⁾으로 이배되었다. 선조 초에 교리로서 부름

616) 은진(恩津) : 충청남도 논산군 은진면을 말한다.

받고 이어 대사헌과 이조 참판을 역임한 뒤 특별히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진하여 부제학(副提學)으로 경학을 시강(侍講)하였다. 정축년(1577) 5월 5일에 세상을 떠났다.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절공(文節公)이다.】

만력 경인년(1590)에 심문할 때의 전교 萬曆庚寅就理時 傳教

전교(傳教)는 다음과 같다.

“ ‘효자의 가문에서 충신을 구한다.’⁶¹⁷⁾라고 했으니, 이름이 효자에 든 자들은 용서해 주고, 무고한 혐의를 씌운 자들은 파직하라.” 【지난해 기축년(1589) 10월에 정여립(鄭汝立)이 반역으로써 옥사를 일으키자, 좌찬성(左贊成) 정철(鄭澈)이 위관(委官)이 되어 옥사를 주관하고선 기회를 틈타 무고한 이들을 잡아들였다. 동복(同福) 사람 진사 정암수(丁巖壽) 등은 은밀한 뜻을 이어 여러 명사들을 무고하는 상소를 올려 함정에 빠뜨렸는데 공과 공의 부자 이름 또한 그 안에 실려 있었다. 정암수의 상소가 들어가자, 임금께서 진노하며 정암수 등을 잡아들이라 명하셨다. 정철이 대간과 태학생들을 부추겨 그만 둘 것을 청하여 결국 운허를 받아냈다. 이듬해 경인년에 공과 다섯 아들 모두 끝내 체포당했으나 이 ‘효자의 가문에서 충신을 구한다.’라는 전교가 있었기에 죄를 용서받게 된 것이다.

또 이듬해 신묘 윤3월에 양사(兩司)에서 정철이 조정의 기강을 제제하여 마음대로 한다는 논의로 합계(合啓)를 올려 일시에 파직을 청하였더니 임금께서 그대로 운허하였으며, 조정의 당(堂)에 그의 죄목을 방문(榜文)으로써 보이도록 명하였다. 6월에 대사헌(大司憲) 이원익(李元翼) 등과 대사간(大司諫) 홍여순(洪汝諄) 등이 정철은 조정을 어지럽히고 자기와

617) 충신은 …… 구한다 : 《후한서(後漢書)》 권56 <위표열전(韋彪列傳)>에 “국가는 현자를 선발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하며, 현자인지 아닌지는 효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버이에게 효성스러운 사람은 이 효성을 임금에게 옮겨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신을 구하려면 반드시 효자의 가문에서 찾아야 합니다.[夫國以簡賢爲務 賢以孝行爲首 孔子曰 事親孝故忠可移於君 是以求忠臣必於孝子之門]”라고 위표가 황제에게 건의한 내용이 보인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며 호남의 유생들을 유도하여 명경과 사류들을 상소함으로써 역모의 무리로 몰아 모조리 없애려고 한다는 논의로 합계를 올려 멀리 쫓아내기를 청했는데, 임금께서 그대로 윤허하였으며 특별히 강가로 유배 보내도록 명하셨다.

7월에 양사에서는 일찍이 이전의 대간들이 권세가 있는 간신들의 사주를 받아 정암수 등을 구하라 논의하여 잡아들이라는 명을 그치게 했으니 모두 파직해 주시기를 청하는 합계를 올렸는데, 임금께서 그대로 윤허하였으며, 전교에 “정철은 타고난 성품이 교활하고 간악하여 이미 유배 갔고, 그와 교제하는 여러 사람들조차도 어떠한 인물인지 알 수가 없다. 죄상이 엄중하므로 위리안치 시켜라.”라고 하셨다. 2년 뒤 계사년(1593) 12월에 정철은 죽었다. 이듬해 갑오 11월에 양사와 대사헌 김우옹(金宇顒) 등과 대사간 이기(李璡) 등은 정철이 옥사를 주관하고 죄를 뒤집어씌운 죄를 논하여 관작을 추가로 삭탈함을 청하자 임금께서 그대로 윤허하였다.】

사실기 事實記

공의 성은 나씨(羅氏)이고, 이름은 사침(士忱)이며, 자는 중부(仲孚)이고, 자호(自號)는 금호(錦湖)이다. 본관은 나주이며, 주성(州城)에 거주하였다.

시조는 나부(羅富)로서 고려 시대 감문위(監門衛) 상장군(上將軍)이었다. 그의 후손 중 계첩(系牒)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나득규(羅得蚪), 나중운(羅中允), 나송기(羅松奇)로 3대가 모두 영동정(令同正)을 지냈다. 나수영(羅守永)은 진사에 합격하였고, 나원(羅源)은 사문서 직장(司醞署直長) 동정(同正)을 지냈고, 나진(羅璉)은 공조 전서(工曹典書)를 지냈다. 홍무(洪武) 23년(1391) 이전에 판사(判事)로서 영산(榮山)에 있는 조창(漕倉)과 성을 쌓는 일을 감독하였다. 이 일은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기록에 있다.⁶¹⁸⁾

618) 양촌(陽村) …… 있다 : 권근(1352~1409)의 저서 《양촌집》의 〈용안성조전기(龍安城漕轉記)〉에 보인다. 권근의 자는 가원(可遠) 또는 사숙(思叔)이고, 호가 양촌(陽村)이다.

나공언(羅公彦)은 전농시(典農寺) 정(正)을 지냈다. 홍무(洪武) 14년(1381) 이전에 소윤(少尹)으로서 도순문사(都巡問使) 이을진(李乙珍)을 따라 왜적을 물리친 공이 있었다. 이 일은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⁶¹⁹⁾

나집(羅諶)은 식목도감 녹사(式目都監錄事)를, 나자강(羅自康)은 무안현감(務安縣監)을, 나계조(羅繼祖)는 장사랑(將仕郎)을, 나일손(羅逸孫)은 전연사 직장(典涓司直長)을 지내고,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에 추증되었다. 일찍이 같은 고을의 훌륭한 사람들 11명과 함께 난정(蘭亭)의 고사⁶²⁰⁾를 모방하여 금강계(錦江契)를 만들어 풍류와 고상한 운치를 즐기니, 이 일이 전해져 호남의 미담이 되었다.

나질(羅晔)은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지내고 호조 참판에 추증되었으니, 공의 부친이다. 모친은 탐진 최씨(耽津崔氏)로, 홍문관 부응교(弘文館副應敎)를 지내고 예조 참판에 추증된 분의 따님이다. 금남(錦南) 선생은 “최부(崔溥)가 외할아버지인데 문학과 절개로 세상에 이름났지만 연산군 때 무오사화를 당했다.”라고 하였다.

가정(嘉靖) 을유년(1525) 2월 28일에 공이 태어났다. 타고난 기질이 보통의 아이들과 남달랐고 효도와 우애가 하늘로부터 타고났다. 나이 겨우 16세에 어머니 최부인의 병이 위독해지자 손가락의 피를 약에 타서 드렸더니 곧장 나았다. 이 일은 종종 임금께 알려져 정려로 표창되었고 부역과 세금을 면제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장성해서는 이소재(履素齋) 이중호(李仲虎) 선생을 종유하고, 남봉(南峰) 정지연(鄭芝衍), 범애(汎愛) 유조인(柳祖詒) 등의 동학들과 교유하며 서로 추대하여 인정해 주었다. 명종(明宗) 때 을묘방(乙卯榜) 생원시에 급제하였다.

선조 원년 무진년(1568)에 서교(西郊) 송상찬(宋相贊)이 호남을 순찰하다가 전라도의 훌륭한 선비 다섯 사람을 천거하였는데, 공을 으뜸으로 여겨 학문과 훌륭한 행동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칭찬하였다. 다른 네 사람은 김응기(金

619) 《고려사》에 …… 있다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31 신우(辛禡) 2년조에 보인다.

620) 난정(蘭亭)의 고사 : 중국 회계 산음(山陰)에 있던 난정(蘭亭)에서 동진(東晉) 때 회계 내사(會稽內史)로 있던 왕희지(王羲之)를 비롯하여 손작(孫綽)·사안(謝安) 등 당시의 명사 42인이 그곳에 모여 제제사(禋祀)를 행한 뒤에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며 놀았던 고사가 있다. 《蘭亭考 卷1》

應期), 김천일(金千鎰), 유호인(劉好仁), 김윤(金胤)이다. 임금께서 교서를 내려 “나사침 등은 행실이 매우 가상하니 해당 부서로 하여금 대신들과 의논하여 포장하시오.”라고 하시니, 이조에서 드디어 대신들과 의논했는데 혹은 정려로 표창하고 세금과 부역을 면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고 혹은 식물(食物)을 공급하여 학업을 마치도록 힘쓰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의 정려 표창과 부역 및 세금 면제는 이미 선조 때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발탁하여 경기전 참봉(慶基殿參奉)의 벼슬을 내리게 하였다.

이듬해 만형 나사선(羅士愼) 시정공(寺正公)이 서울에서 돌아가시자, 공이 정신없이 달려가 곡하고서 관을 들고 남쪽으로 돌아와 안치하였다. 이 일로 고과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이종형 부제학(副提學) 미암(眉庵) 유희춘(柳希春)은 감탄하며 “나중부는 멀리에서 와 형의 상을 치르고 돌아갔으니 그의 체적이 어찌면 훌륭한 일이다.”라고 하였고, 상서(尙書) 홍담(洪曇) 또한 자주 공을 칭찬하였다.

신미년(1571)에 선릉 참봉(宣陵參奉)에 제수되고 5년 뒤(1576)에 경기전 참봉으로 관직이 바뀌었다가 다시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와 종묘 직장(宗廟直長)으로 옮기고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로 승진하였다.

갑신년(1584)에 외지로 나가 이산 현감(尼山縣監)이 되어 정치를 청렴하고 간소하게 하였으며, 고을의 세도가와 농사꾼 간에 송사가 있으면 공이 한 마디 말로 판결하였다. 방백의 뜻을 거슬러 고과의 점수는 낮았지만, 그 고을 백성은 비석을 세우고 시를 새겨 공을 추모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한 송이 시든 꽃 외로운 한 마리 학
쓸쓸한 행리에 고인의 품모 있구나

倭花一朵鶴一隻
行李蕭然古人風

기축년(1589)에 정여립(鄭汝立)이 반역으로 옥사를 일으키자, 위관(委官) 정철(鄭澈)은 기미를 틈타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씌워 재앙이 지극했는데, 그 여파는 평소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미쳐 그들을 몰아 일망타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동복(同福) 사람 정암수(丁巖壽) 등이 정철의 뜻을 이어받아 무고하는

상소를 올려 여러 유명 인사 30여 명을 함정에 빠뜨렸는데 이를테면 재상 이산해(李山海), 재상 정언신(鄭彦信), 재상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징군(徵君)⁶²¹ 곤재(困齋) 정개청(鄭介淸) 등 모두 그 안에 포함되었다. 또 공의 부자를 거론하며 “나 모씨는 그의 아들과 정여립이 평소 교분이 두터웠으나, 재앙이 자기에게 미칠 것을 알아채고 터무니없는 말을 꾸며 죄를 용서받고자 하였습니다.”라고 하였고, 그밖에 위험한 말들조차 끝이 없었다. 공의 자식 중 나덕현(羅德顯)과 나덕헌(羅德憲) 등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상소를 올린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 큰 소리로 준엄하게 배척하였다.

정암수 등의 상소가 어느새 임금에게 들어가자, 임금께서 진노하며 “역적의 변란을 틈타 감히 함정에 빠뜨리는 계책을 내고 형체도 없는 말을 날조하고 거짓된 상소를 몰래 올려 어진 재상과 이름난 경들조차 배척하고 지목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반드시 나라가 텅 비게 한 이후에야 그만둘 것이다. 흉악하고 참혹한 상황이 매우 놀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반드시 간악한 자들의 부추기는 말을 들었음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고는 의금부에 명하여 정암수 이하 10명을 잡아 국문하도록 하셨다.

정철은 매우 두려운 마음이 들어 대각의 신하들을 부추겨 간쟁하게 하고 태학생들을 부추겨 어리석은 상소를 올리도록 하자, 이미 내렸던 명이 그만두게 되었고 그 상소 안의 일 또한 묻지 않게 되었다.

이때 무안 유생 배명(裴堃) 등이 역시 곤재와 공의 무고함에 대하여 자세하게 상소를 올렸는데, 옥사를 주관했던 자가 또 홍천경(洪千環) 등으로 인하여 죄를 만들어 모해하였다. 그러다 결국 정암수의 상소를 막았다는 이유로 죄목을 날조하는 바람에 공과 다섯 아들 모두 체포되었다.

임금께서 교서를 내려 “효자의 가문에서 충신을 구한다고 했으니, 효자로 든 자들은 용서하고 무고하게 죄를 씌운 자들은 파직하라.”라고 하셨다. 공은 곧바로 풀려났지만, 다섯 아들은 모두 유배되었다. 나덕명은 경성(鏡城)으로, 나덕준(羅德峻)은 부령(富寧)으로, 나덕운(羅德潤)은 회령(會寧)으로, 나덕현과 나덕헌은 철원(鐵原)으로 도배를 당하였다가 계사년(1593)

621) 징군(徵君) : 징사(徵士)와 같은 말로 학문과 덕행이 있어 나라의 초빙을 받았으나 출사하지 않은 선비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에 풀려났다. 공이 병신년(1596) 12월 23일에 돌아가셨으니 향년 72세였다.

공의 성품은 진실하고 덕행이 순수하고 돈독하였으며 효도와 공경이 지극하였으니 신명에 통하였다고 하겠다. 상을 치를 때에도 한결같이 법도를 따랐으며, 시묘살이를 하는 전후로는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으며, 제사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경건히 조상에게 보답하는 마음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심지어, 외증조 진사 최택(崔澤)의 묘가 무안에 있는데 이미 대가 끊겨 대를 지키고 보호할 사람이 없자 공은 그것을 위해 묘를 정하고 성묘를 하며 곧장 나무하고 소먹이는 일을 금지시켰으니,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이 감동하였다.

일찍이 형제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뜻은 있었지만 이루지는 못했으니, 형제들 모두 공과 같은 거처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통한으로 여겼다. 여러 아들이 그 뜻을 잘 이어 동당이실제(同堂異室制)를 모두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 매우 가상히 여겨 힘쓰도록 했으며 태어난 집안의 가르침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집안에 윤리와 기강을 잇는 큰 송사가 있었으나 오래도록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이 고을의 목사가 되어 곧바로 송사를 판결하고는 공과 여러 아들 중 송사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세상의 쟁송은 대부분 이익으로써 하는데, 이들의 쟁송은 곧 천리으로써 한다.”라고 하였고 또 공을 학문으로 업을 삼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였다.

명종의 제사 때마다, 공은 소식(素食)을 했는데 60여 세에 이르기까지 병을 핑계대어 혹 게을리 하는 경우가 없었으니, 어쩌면 명종 때 인재를 두텁게 대하는 교화로써 국자(國子)에 올랐기 때문일 것이다.

공은 비록 늙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임금을 연모하는 마음을 잊은 적이 없었다.

옥봉(玉峰) 백광훈(白光勳)⁶²²이 공에게

유유히 베개 높이 벤 곳에

悠然高枕處

대궐의 꿈 아득하네

雲闕夢蒼茫

622) 옥봉(玉峰) 백광훈(白光勳) : 자는 창경(彰卿)이고, 호는 옥봉(玉峰)이며, 관향은 수원이다. 해남에서 살았다. 시조와 글씨로 세상에 이름이 났다. 일직이 원접사(遠接使), 백의(白衣) 종사관(從事官)이 되었고, 벼슬은 참봉(參奉)에 이르렀다.

라는 시구를 글을 주었으니 이는 바로 공의 심경을 잘 드러낸 것이었다.

평소 고을에 거처하며 신의를 죽을 때까지 지녀 궁핍한 사람들을 구휼하고 곤궁한 사람들에게 힘썼으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 또한 미물에까지 이르렀다. 한번은 주방에서 작은 물고기가 뱃속에 알이 가득 찬 것을 보고는 그릇에 놓아 물고기를 살리도록 명하였다. 음식을 대함에 비록 작은 예절이었지만 그의 어진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산 현감으로 있을 때, 도둑질한 아이 하나를 잡아 의리로 가르치고 놓아주었는데, 그가 드디어 감동하여 잘못을 고쳤다. 고을 앞에 여관을 설치하고 길을 가는 사람들을 대접하여 그가 자신을 부지런히 하여 스스로 새로워지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덕화가 남에게 미친 것이 또한 이와 같았다.

공의 지극한 행동은 서경(西峒) 유근(柳根)의 《신편 속 삼강행실(新編續三綱行實)》에 실려 있는데, 광해군(光海君) 때 이이첨(李爾瞻)의 성명 또한 효자의 반열에 섞여 있던 까닭에 그 책이 전하지 않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 몇몇은 이 일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였다.

공은 무안의 주릉 나루 건좌(乾坐) 손향(巽向)의 언덕에 장사지냈으니 유언을 따른 것이었다. 아들 나덕운, 나덕신, 나덕현은 모두 종훈(從勳)이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고, 여러 차례 벼슬이 더해져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이르렀다.

부인은 파평 윤씨(坡平尹氏)로 부사(府使) 윤언적(尹彦商)의 따님이다. 네 아들을 낳았고, 별도로 본주의 장흥동(長興洞)에 장사지냈다. 둘째 부인은 광주 정씨(光州鄭氏)로 첨사 정호(鄭虎)의 따님이다.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았고 공과 함께 합장하였다. 두 분 모두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되었다.

아들 나덕명은 기묘년(1579) 진사에 합격하여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를 지냈다. 나덕준은 재주와 행실로 천거되어 보은 현감(報恩縣監)을 지냈다. 나덕진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나덕운은 무자년(1588) 진사에 합격하여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지냈다. 나덕현은 효행으로 사옹원 참봉(司饔院參奉)에 추증되었다. 부인 정씨는 절개 있는 행동으로 정려를 표창받았다. 나덕신은 신묘년(1591) 무과에 급제하여 영암 군수(靈巖郡守)를 지냈다. 나덕현은 계묘년(선조 36, 1603) 무과에 급제하여 경기 수사(京畿水使)를

지내고 병조 참판(兵曹參判)에 추증되었다. 큰딸은 충의위(忠義衛) 윤항(尹抗)에게 시집갔고, 절개 있는 행동으로 정려를 표창받았다. 둘째 딸은 참의(參議)에 추증된 위홍주(魏弘宙)에게 시집갔다.

도사(都事)는 아들 넷을 두었는데, 나이소(羅以素), 나인소(羅因素), 나성소(羅成素)는 무과에 급제를 하여 선전관이 되었고, 또 나취소(羅就素)가 있다.

현감(懸監)은 아들 다섯을 두었는데, 나찬소(羅纘素)는 선무랑(宣務郎)을, 나계소(羅繼素)는 무과에 급제하여 첨중추(僉中樞)를, 나위소(羅緯素)는 문과에 급제하여 동중추(同中樞)를 지내고 좌참찬(左參贊)에 추증되었으며, 나치소(羅緻素)와 나경소(羅經素)가 있다. 딸 둘을 두었는데, 장녀는 주부(主簿) 김잡(金鑿)에게 시집갔고 절개 있는 행동으로 정려를 표창받았으며, 둘째 딸은 선교랑 최광헌(崔光憲)에게 시집갔다.

감찰(監察)은 아들 셋을 두었는데 나회소(羅繪素)는 무과에 급제하여 이천 부사(伊川府使)가 되었고, 나유소(羅由素)는 선교랑(宣敎郎)을, 나의소(羅宜素)는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 정랑(禮曹正郎)을 지냈다. 사위 윤항(尹抗)은 아들 우탕(禹湯)을 두었다.

참봉(參奉)은 아들 여섯을 두었는데, 나익소(羅益素)는 선무랑(宣務郎)을 지냈고, 나후소(羅後素)와 나득소(羅得素)는 효행으로 정려를 표창받았으며, 나상소(羅尙素), 나순소(羅純素), 나중소(羅重素) 등이 있다. 첫째 딸은 군수를 지낸 정환(鄭渙)에게, 둘째 딸은 민희일(閔喜一)에게, 셋째 딸은 유천(柳遷)에게 시집갔다. 사위 위홍주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 위산보(魏山寶)는 무과에 급제하여 현령(縣令)을 지냈고, 위정보(魏廷寶)는 무과에 급제하여 현감을 지냈고, 또 위국보(魏國寶)가 있다. 두 딸은 주부(主簿) 정경일(鄭敬一)과 장사랑(將仕郎) 최환(崔渙)에게 각각 시집갔다.

수사(水使)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나수소(羅守素)는 선무랑(宣務郎)을 지냈고, 부인 김씨(金氏)는 절개 있는 행동으로 정려를 표창받았다. 나태소(羅泰素)는 종사랑(從仕郎)을 지냈으며, 또 나정소(羅貞素)가 있다. 두 딸 중 첫째는 김용건(金用健)에게 시집갔고, 둘째는 진사 이준신(李儁臣)에게 시집갔다.

나머지 안팎의 자손이 수백 수천에 이르러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아! 《예기》에 “산 사람 섬기는 것을 사랑과 공경으로 하고 죽은 사람

섬기는 것을 애도와 슬픈 마음으로써 한다면, 생민의 근본을 다한 것이요 효자가 부모를 섬기는 일이 끝난다.”⁶²³⁾라고 하였다. 또 “사람의 자식 된 자는 장차 착한 일을 할 적에 부모의 아름다운 이름을 끼칠 것을 생각하여 반드시 과감하게 해야 하며, 불선한 일을 할 때에는 부모에게 치욕이 끼칠 것을 생각하여 반드시 과감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⁶²⁴⁾라고 하였다. 자하께서 “부모 섬기기를 능히 자신의 힘을 다하고, 임금 섬길 때는 능히 그 몸을 다하며, 친구와 더불어 사귄 때는 말에 믿음이 있으면, 비록 그가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웠다고 할 것이다.”⁶²⁵⁾라고 하였다. 가만히 살펴보건대 공은 학문을 함에 일상생활의 떳떳한 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니, 그로써 선한 행동을 닦고 선한 이름을 세운 것이다. 저 서교께서 공을 학행으로 천거하였고 학봉께서 학문을 들어 칭찬하신 데에는 진실로 이유가 있다.

여러 자식들도 훌륭한 사람의 행적을 이어 육룡(六龍)이라고 칭송받았으니, 예컨대 나덕명은 귀양 갔을 때 임진왜란을 당하여 북평사 정문부(鄭文孚)와 의병 일으킬 것을 도모하고 바닷가 백성 중 왜적을 이끌어 난을 선동한 자들을 붙잡아 목을 베었으며, 나덕신은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을 따라 노랑에서 왜적을 섬멸하였으며, 나덕현은 안현(鞍峴) 전투에서 이괄(李适)⁶²⁶⁾의 무리를 물리쳤고 또 사신의 명을 받들어 심양(瀋陽)에 가서 절개로 항거하며 굴복하지 않았다. 나덕준과 나덕윤은 모두 의를 행하여 이름을 알렸다. 나덕현은 난리 중에 위급함을 만나 어머니를 안고 울부짖어 왜적을 감동시키고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 나득소는 상을 당하여 몸이 상할 정도로 슬퍼하다 세상을 떠났으며 딸, 손녀, 며느리, 손부도 순절하였다. 또

623) 산 사람 …… 끝난다 : 《예기》에는 “生事愛敬, 死事哀慊, 生民之本盡矣, 死生之義備矣, 孝子之事親終矣.”라고 하여 몇 글자가 더 있다.

624) 사람의 …… 안 된다 : 《예기》〈내칙(內則)〉에 보인다.

625) 부모 …… 것이다 : 《논어》〈학이(學而)〉에 보인다.

626) 이괄(李适) : 1587~1624. 본관은 고성(固城)이고, 자는 백규(白圭)이다. 인조반정 때 큰 공을 세웠으나, 1624년 정월에 외아들 이진(李梅), 한명련(韓明璉), 정충신(鄭忠信), 기자현(奇自獻), 현집(玄楫), 이시언(李時言) 등과 함께 반역을 꾀한다는 무고를 받았다. 서울에서 군대가 오자 이들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관군에 대패하고 피신하던 중 부하 장수에게 살해되었다.

네 아들과 손자들이 2대에 걸쳐 충신과 효자와 열녀로 나란히 나와 세상에서 영예롭게 여겼으니, 공이 가정에서 가르침을 완성하고 그 효과가 나타난 것 아님이 없다. 《시경》에 “효자가 다하지 아니하니 길이 너에게 복을 주리라.”⁶²⁷⁾라는 것은 이를 말한 것이다. 지위가 덕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삶의 중간에 갑자기 화를 만난 것은 운명이고 시운이지만 공의 덕에게 무슨 손상됨이 있겠는가.

공께서 돌아가신 지 127년이 지나, 현손(玄孫) 나두동(羅斗冬)이 세대가 더욱 멀어져 선대의 사적이 없어 징험할 것이 없을까 걱정하여 집안의 유사(遺事), 족첩(族牒), 묘문(墓文) 등을 수습하고 보고 들은 것을 미루어 한 권의 책으로 후세에 전하고자 하였다. 나는 외손의 반열에 있어 이를 산정하라는 부탁을 받고 감히 그 초고를 바탕으로 하고 개괄적인 내용을 간략히 하여 공의 처음과 끝을 위와 같이 적었지만 진실로 공의 아름다운 덕을 드날리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선철왕(先哲王) 두 조정에서 세 번이나 포장하신 뜻을 우러러 보건대, 공의 행실과 의리가 몇 백 년 뒤에도 남아있으리라는 사실을 징험할 수 있으니 또한 마땅히 효도의 교화와 떳떳함의 천성에 감발함이 있으리라. 옛날 도연명(陶洞明)이 외할아버지 맹장사(孟長史)를 위하여 전을 지어⁶²⁸⁾ “내가 행적을 살펴보다가 혹 잘못을 범하여 훌륭한 군자의 덕이 훼손될까 두렵다.”라고 하였다. 나 또한 이와 같은 두려움이 없을 수 없기에 감히 한 마디 말도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질박하게 적을 뿐이다.

송정(崇禎) 정축(丁丑) 후 85년 임인년(1722) 늦봄 상현(上弦)에 외현손 통덕랑(通德郎) 전 행광릉참봉(行光陵參奉) 팔계(八溪) 정중원(鄭重元)은 삼가 쓰다.

627) 효자가 …… 주리라 : 《시경》〈기취(既醉)〉에 보인다.

628) 옛날 …… 지어 : 〈맹장사전(孟長史傳)〉은 도잠(陶潛)의 외조부인 맹가(孟嘉)의 전(傳)인데, 도잠은 401년에 모친 맹씨(孟氏)의 상중에 이를 지었다. 《도연명전집(陶淵明全集)》 권6에 〈진고정서대장군장사맹부군전(晉故征西大將軍長史孟府君傳)〉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묘갈명【서문과 함께 적는다.】

墓碣銘【竝序】

나는 어려서부터 관직에 있는 분들과 종유하면서 호남의 나씨(羅氏) 가문이 찬란하게 대대로 덕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노인이 되어 선비 나두하(羅斗夏)를 만났는데 그의 돌아가신 아버지와 돌아가신 큰형님 비문을 부탁하였기에, 내가 사모하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 그 적임자가 아님에도 사양하지 못하고 애써 일을 마쳤다.

지금 또다시 그 고조와 증조 2대의 묘문을 부탁받았으니, 돌아보건대 나는 더욱 늙고 병들어 실로 내 힘으로 다시 나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어 오래도록 머뭇거렸다. 그러나 남쪽을 향하여 길 떠난 사람이 영(郢) 땅⁶²⁹⁾에 이르지 못하고 돌아와서 “나는 이미 초(楚)나라를 다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기에 마침내 억지로 일어나 마른 몸에 기운을 불어 넣어 글을 짓는다.

나생의 고조부는 찬성공(贊成公)에 추증된 나사침(羅士沈)으로, 자는 중부(仲孚)이다. 그 시조는 고려 시대 감문위(監門衛) 상장군(上將軍)을 지낸 나부(羅富)이다. 그 후손으로는 공조 전서(工曹典書) 나진(羅鎭)과 전농시(典農寺) 정(正) 나공언(羅公彦)이 가장 현달하였다. 나자강(羅自康)은 무안 현감(務安縣監)을 지내고 장사랑(將仕郎) 나계조(羅繼祖)를 낳았으며, 장사랑은 전연사 직장(典涓司直長)을 지내고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된 나일손(羅逸孫)을 낳았으며, 승지는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지내고 호조 참판(戶曹參判)에 추증된 나질(羅陟)을 낳았으니, 이 분이 찬성공의 4대조이다.

어머니 최씨(崔氏)는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을 지내고 예조 참판에 추증된 금남(錦南) 선생 최부(崔溥)의 따님이다. 금남 선생은 박학하고 장엄한 절의가 있어 성종 때의 명신(名臣)이 되었다.

찬성공은 가정(嘉靖) 을유년(1525) 12월 28일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지극한 효성을 지녀 16세에 최부인이 위독해지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약에 타서 올리니 곧바로 병이 나았다. 중종께서 정려를 표창하고 세금과 부역을

629) 영(郢) 땅 : 전국(戰國)시대 초(楚)나라 수도였다.

면제하라 명하셨다. 장성하여 이소재(屬素齋) 이중호(李仲虎)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는데 동문인 남봉(南峰) 정지연(鄭芝衍), 범애(汎愛) 유조인(柳祖詒) 등 모두 서로 추대하며 인정해 주었다.

명종 을묘년(1555) 국자생(國子生)이 되었고, 선조 원년 무진년(1568)에 관찰사 송찬(宋贊)이 공의 바른 행실을 임금께 아뢰니 임금께서 가상하게 여겨 여름에 경기전 참봉(慶基殿參奉) 관직을 내리셨으나, 만형의 상을 당하자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뒤에 선릉 참봉(宣陵參奉)을 맡았고, 다시 금오랑(金吾郎)을 지냈다. 종묘서 직장(宗廟署直長)을 거쳐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로 승진하였다.

갑신년(1584)에 이산 현감(尼山縣監)이 되자, 세력이 강한 자를 억제하고 가난한 백성을 구휼하는 정치를 펼치다가 방백에게 미움을 받아 고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고을 백성은 그를 추모하여 비를 세웠으니 그 구절은 다음과 같다.

한 송이 시든 꽃 외로운 한 마리 학
쓸쓸한 행리에 고인의 품모 있구나

倭花一朵鶴一隻
行李蕭然古人風

기축년(1589) 겨울에 역신(逆臣) 정여립(鄭汝立)의 옥사가 발생하자 위관(委官) 정철(鄭澈)이 기회를 타서 죄상을 꾸몄는데 호남인 정암수(丁巖壽) 등이 정철의 뜻을 받들어 상소를 작성하여 한 시대의 이름난 선비들에게 화를 덮어쓰웠으니 재상 이산해(李山海), 재상 정언신(鄭彦信), 유성룡(柳成龍), 곤재(困齋) 정개청(鄭介淸) 등 모두 30여 명이 한 그물에 걸려들었고, 또 공의 부자 이름을 거론하며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는 정여립과의 교분이 지극히 친밀합니다. 아무개는 그가 연루되는 것이 두려워 여러 차례 속임수를 펴서 풀어날 것을 구할 것이니 모두 죄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였다.

공의 아들 나덕현(羅德顯)과 나덕헌(羅德憲) 등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정암수의 소장을 심문하는 자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변론하고 배척하였다. 정암수의 소장이 임금께 이르자, 임금께서 진노하며 “반역의 변란을 틈타

부정한 소장을 진언하여 어질고 이름 있는 재상들을 지목하여 배척하지 않은 자가 없으니 나라를 텅 비게 한 뒤에야 그만둘 것이다. 이는 반드시 간사한 놈이 있어 부추긴 것이다.”라고 하고 의금부에 명하여 정암수 등 10인을 붙잡아 심문하게 하셨다. 정철이 두려워 대관과 성균관 유생들에게 부탁하여 소를 올려 요청했더니, 임금의 명이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나 임금의 해안은 대단히 밝았기에 믿고 근심하지 않았다.

또 무안(務安)의 유생 배명(裴冀) 등이 상소를 올려 곤재와 공의 원통한 상황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 하지만 끝내 이전 정암수의 소장을 저지한 것이 죄가 되어 경인년(1590)에 공과 다섯 아들이 모두 연루되었다. 임금께서 하교하시길 “효자는 용서해주고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이 자는 자세히 살펴라.”고 하셨다. 공은 곧 다행히 용서를 받았지만, 다섯 아들은 벗어나지 못하여 북쪽으로 귀양 갔으니 참으로 위태로웠다.

만력 병신년(1596) 12월 23일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향년 72세였다. 무안 주룡(住龍) 나루 손향(巽向)에 터를 잡아 장사를 지냈으니, 그것은 유언을 따른 것이다. 세 아들은 모두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서 거듭 추증되어 좌찬성(左贊成)에 이르렀다. 첫째 부인 파평 윤씨(坡平尹氏)는 부사(府使) 윤언적(尹彦商)의 따님으로 네 아들을 낳았으며, 묘는 나주 장흥동(長興洞)에 있다. 둘째 부인 광주 정씨(光州鄭氏)는 사도첨사 정호(鄭虎)의 따님으로, 세 아들을 낳았으며 공과 함께 합장하였다. 두 분 모두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되었다.

아들 나덕명(羅德明)은 기묘년(1579) 진사에 합격하여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를 지냈고, 나덕준(羅德峻)은 보은 현감(報恩縣監)을 지냈고, 나덕진(羅德進)은 어려서 요절하였고, 나덕윤(羅德潤)은 무자년(1588) 진사에 합격하여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지냈고, 나덕현(羅德顯)은 효행으로 알려져 사옹원 참봉(司饗院參奉)에 추증되었고, 나덕신(羅德愼)은 무과에 급제하여 영암 군수(靈巖郡守)를 지냈고, 나덕헌(羅德憲)은 무과에 급제하고 경기 수사(京畿水使)를 지냈다. 큰딸은 윤항(尹抗)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위홍주(魏弘宙)에게 시집갔다.

나덕명은 아들 넷을 두었다. 나이소(羅以素), 나인소(羅因素)가 있고,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을 지낸 나성소(羅成素)가 있고, 또 나취소(羅就素)가 있다.

나덕준은 아들 다섯과 딸 둘을 두었다. 나찬소(羅纘素)는 선무랑(宣務郎)을 지냈고, 나계소(羅繼素)는 무과에 급제하여 개천 군수(价川郡守)를 지냈고, 나위소(羅緯素)는 문과에 합격하여 동지 중추(同知中樞)를 지냈고, 또 나치소(羅緻素)와 나경소(羅經素)가 있다, 사위는 주부(主簿)를 지낸 김잡(金礪)과 최광헌(崔光憲)이 있다.

나덕윤은 아들 셋을 두었다. 나회소(羅繪素)는 무과에 급제하여 함안 군수(咸安郡守)를 지냈고, 나유소(羅由素)와 나익소(羅宜素)는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 정랑(禮曹正郎)을 지냈다.

나덕현은 아들 여섯과 딸 하나를 두었다. 나익소(羅益素)는 선무랑을 지냈고, 나후소(羅後素)와 나득소(羅得素)는 지극한 행실이 있어 삼년상에 죽을 마시고 피눈물을 흘리다 죽었고, 나상소(羅尙素), 나순소(羅純素), 나중소(羅重素)가 있었으며, 정환(鄭渙)은 그 사위이다.

나덕신은 딸 둘을 두었다. 민희일(閔喜一)과 유천(柳遷)이 사위이다.

나덕헌은 아들 셋과 딸 둘을 두었다. 나수소(羅守素)는 선무랑을 지냈고, 나태소(羅泰素)는 종사랑(從仕郎)을 지냈고, 또 나정소(羅貞素)가 있으며, 진사 김용건(金用健)과 이준신(李儻臣)은 그 사위이다.

윤항은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우탕(禹湯)이다. 위홍주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두었는데, 위산보(魏山寶)는 무과에 급제하여 현령(縣令)을 지냈고, 위정보(魏廷寶)는 무과에 급제하여 현감(懸監)을 지냈고, 또 위국보(魏國寶)가 있다. 주부(主簿)를 지낸 정경일(鄭敬一)과 최환(崔渙)은 그 사위이다.

내외 자손들이 많아 다 기록할 수 없다.

공은 타고난 성품이 참되고 순박하며 효도와 우애가 하늘로부터 이르렀으니 부모형제간에 남들이 나쁜 말을 하는 이가 없었다. 상을 당하여 치를 때에는 예를 극진히 하였으며, 부모의 삼년상에 시묘살이를 할 때에는 전후로 한 번도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으며, 제사를 모실 때에는 정성을 다하였으며, 남을 구휼해 줄 때는 어진 마음을 다하였다.

자식들이 모두 훌륭하여 사람들은 육룡(六龍)이라 불렀으니, 가정의

가르침이 세상을 구제하고 행실을 아름답게 한 것을 이른 것이다. 예컨대 나덕신이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을 따라 노량(露梁)에서 왜적을 섬멸한 일, 나덕현이 여러 장수들을 따라 안현(鞍峴)에서 이괄(李适)을 물리친 일, 사신으로서의 명을 받들고 후금(後金)의 조정에 들어가 절개로 항거하여 굽히지 않았던 일 등은 충(忠)이다. 예컨대 나덕현이 부모를 잘 봉양한 일, 나득소가 삼년상에 몸을 상하여 죽게 된 일 등은 효(孝)이다. 예컨대 윤항에게 시집간 공의 큰딸, 나덕현의 아내 정씨, 김잡에게 시집간 나덕준의 큰딸, 수소의 아내 김씨 등이 모두 순절하여 정려를 표창받은 일 등은 열(烈)이다. 한 집안에 삼강(三綱)이 모두 갖추어졌으니, 아! 세상에 어찌 흔한 일이겠는가! 명(銘)은 다음과 같다.

효로 부모님을 섬기고	孝於事親
청렴으로 몸을 단속하며	廉以律身
의로 궁핍한 자들을 구휼하니	義施于窮乏
가르침이 자손들에게 행해졌도다	教行于子孫

아! 공은 독실한 행동이 있는 분이라 할 것이다.
 가선대부(嘉善大夫) 공조 참판(工曹參判) 겸(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이서우(李端雨)가 쓰다.

묘갈명【서문과 함께 적다.】

墓碣銘【竝序】

중종 경자년(1540)에 호남 나씨의 자제들이 어려서는 작무를 추고⁶³⁰⁾ 정려를 표창받았으며 부역과 세금을 면제받았으니 곧 손가락을 잘라 피를 올려 어머니를 소생하게 했기 때문이다. 장성하여 더욱 명성이 높아져 선조 원년 무진(1568)에 포장되어 벼슬에 천거되었다. 기축옥사(己丑獄事) 때 이르러 또 효자의 가문에서 충신을 구한다는 가르침을 널리 알렸고, 시상(柴桑)에서 벗어나 산중턱 학과 매추라기 사이에서는 날갯짓을 게을리 했다.⁶³¹⁾

아! 두 임금의 조정에서 세 번이나 포장을 받은 것은 경전(經典)에 이른바 “하늘과 땅의 바른 도리.”⁶³²⁾인데 모두 이 사람을 말하는 것 또한 어찌 유래한 바가 없겠는가.

대개 세상에서 나씨에게 기대를 건 것은 감문위(監門衛) 상장군(上將軍) 나부(羅富)에게서 시작되었고, 공조 전서(工曹典書) 나진(羅璉)과 전농시(典農寺) 정(正) 나공언(羅公彦)이 가장 현달했다고 전한다.

식목도감 녹사(式目都監錄事) 나집(羅諶)은 덕의 기초를 닦았고, 나자강(羅自康)은 무안 현감을 지냈고, 나계조(羅繼祖)는 장사랑을 지냈고, 나일손(羅逸孫)은 전연사 직장(典涓司直長)을 지내고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에 추증되었으며, 나질(羅晳)은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지내고 호조 참판에 추증되었으니, 4대가 박식하고 장엄한 절개가 있었다.

성종 때 이름난 신하로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을 지내고 예조 참판에 추증된

630) 어려서는 …… 추고 : 원문 ‘무상(舞象)’은 《예기》〈내칙(內則)〉에 “13세가 되면 음악을 배우고 시가(詩歌)를 읊으며 작무(勺舞)를 배운다. 15세 이상이 되면 상무(象舞)를 배우고 활쏘기 및 말 다루는 법을 배운다. 20세가 되면 관례(冠禮)를 행하고 비로소 예(禮)를 배운다.[十有三年, 學樂誦詩舞勺, 成童舞象, 學射御, 二十而冠, 始學禮.]”라는 말이 나온다.

631) 시상(柴桑)에서 …… 했다 : 현실에 적극 참여했다는 의미이다. 원문 ‘시상(柴桑)’은 진(晉)나라 때 도잠(陶潛)이 팽택령(彭澤令)으로 있다가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읊고 돌아와서 시상에서 은거하였다는 데에서 유래한 말이다. ‘학’ 역시 은자의 상징이며, ‘매추라기’ 또한 자연에 귀의하여 만족하며 사는 것을 상징한다.

632) 하늘과 …… 도리 : 천지간의 당연한 이치로서 변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25년 조에 “대저 예라는 것은 하늘의 떳떳한 도이고, 땅의 후한 덕이며, 사람이 행하는 길이다.[夫禮, 天之經也, 地之義也, 民之行也.]”라는 말이 나온다.

금남 선생(錦南先生) 최부(崔溥)가 외할아버지이고 또 이소재(履素齋) 이중호(李仲虎)를 스승으로 삼아 선조들의 영광을 품고 몸으로 먼저 올바름을 깨우치니 이후는 알 만하다. 그러므로 고을에서는 일찍부터 강남에 훌륭한 효자가 있다고 일컬었고, 동학들은 마치 마문(馬門)과 정현(鄭玄)⁶³³처럼 추존했다고 한다.

명종 을묘년(1555)에 국자생(國子生)이 되었으나, 기사년(1569)에 큰형의 상을 당하여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추천을 받아 경기전 참봉(慶基殿參奉)에 제수되었다. 신미년(1571) 이후 선릉 참봉(宣陵參奉),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종묘서 직장(宗廟署直長)에 연이어 임명되고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에 승진하였다.

갑신년(1584)에 이산 현감(尼山縣監)이 되어 부호들을 억누르다가 상관을 거슬러 관직을 그만두고 돌아갔는데 고을 사람들이 비석에 시를 새겼으니 마치 조청헌(趙淸獻)의 거북과 학⁶³⁴ 같은 말들이 담겼다. 이로부터 도서(圖書)와 송죽(松竹)을 즐기며 천기가 깊었으니 이른바 기축년(1589)의 화는 장계(狀啓)와 갈문(碣文)에 상세히 있다. 당시 옥사를 다스린 자가 홍로(烘爐)를 갖추고서 모두 해치려고 했으나, 공의 부자는 형장의 귀신을 면했으니 하늘의 해가 머리에 임한 듯 다행스런 일이었다. 하지만 다섯 아들이 모두 유배 가게 되어 머리털 한 올 마냥 쓸쓸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병신년(1596) 12월 23일에 병으로 돌아가셨으며 그의 태어난 해가 을유년(1525) 2월 28일이니 향년 72세다. 무안의 주룡(住龍) 나루 손향(巽向) 언덕에 장사를 지냈다. 세 아들은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공이 있어 여러 차례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공의 이름은 사침(士沈)이고, 자(字)는 중부(仲孚)이다. 첫째 부인은 파평 윤씨(坡平尹氏)로 부사(府使) 윤언적(尹彦商)의 따님이다. 아들 넷을 두었고 장지는 장흥동(長興洞)에 있다. 둘째 부인은 광주 정씨(光州鄭氏)로 첨사(僉使) 정호(鄭虎)의 따님이다.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았고 공과 함께

633) 마문(馬門)과 정현(鄭玄) : 원문 ‘마문(馬門)’은 마용(馬融)을 지칭한다. ‘정현(鄭玄)’은 후한(後漢)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둘 모두 경(經)을 주석하여 이름을 날렸다. 《南史 王僧虔列傳》

634) 조청헌(趙淸獻)의 거북과 학 : 조청헌은 송(宋)나라 인종(仁宗), 신종(神宗) 때의 조변(趙抃)을 말한다. 청헌(淸獻)은 그의 시호이다. 조변이 성도지부(成都知府)를 여러 번 지냈는데, 치적이 있었다. 그가 성도로 부임할 때, 거북 한 마리, 학 한 마리를 가지고 갔고, 재임(再任) 때는 그 거북과 학마저 버리고 다만 종 하나뿐이었다.

합장하였다. 두 분 모두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되었다.

나덕명(羅德明)은 진사에 합격하여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를 지냈고, 나덕준(羅德峻)은 보은 현감(報恩縣監)을 지냈고, 나덕진(羅德進)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나덕윤(羅德潤)은 진사에 합격하여 사헌부 감찰을 지냈고, 나덕현(羅德顯)은 효행으로 명성이 있어 사옹원 참봉(司饔院參奉)에 추증되었으며, 나덕신(羅德愼)은 무과에 급제하여 영암 군수(靈巖郡守)를 지냈고, 나덕헌(羅德憲)은 무과에 급제하여 경기 수사(京畿水使)를 지냈다. 큰딸은 윤항(尹抗)에게 시집갔고, 둘째 딸은 위홍주(魏弘宙)에게 시집갔다.

나덕명은 아들 넷을 두었는데 나이소(羅以素), 나인소(羅因素),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을 지낸 나성소(羅成素), 나취소(羅就素)가 있다.

나덕준은 아들 다섯과 딸 둘을 두었는데, 나찬소(羅纘素)는 선무랑(宣務郎)을 지냈고, 나계소(羅繼素)는 무과에 급제하여 개천 군수(价川郡守)를 지냈고, 나위소(羅緯素)는 문과에 급제하여 동지 중추(同知中樞)를 지냈고, 또 나치소(羅緻素)와 나경소(羅經素)가 있다. 주부(主簿)를 지낸 김잡(金礫)과 최광언(崔光憲)은 그의 사위이다.

나덕윤은 아들 셋을 두었는데, 나회소(羅繪素)는 무과에 급제하여 함안 군수(咸安郡守)를 지냈고, 나유소(羅由素)와 나의소(羅宜素)는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 정랑(禮曹正郎)을 지냈다.

나덕현은 아들 여섯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나익소(羅益素)는 선무랑(宣務郎)을 지냈고, 나후소(羅後素)와 나득소(羅得所)는 피눈물을 흘리며 상례를 이기지 못하는 지극한 행실이 있었다. 또 나상소(羅尙素), 나순소(羅純素), 나중소(羅重素)가 있다. 정환(鄭渙)은 그의 사위이다.

나덕신은 딸 둘을 두었는데, 민희일(閔喜一)과 유천(柳遷)은 그의 사위이다.

나덕헌은 아들 셋과 딸 둘을 두었는데, 나수소(羅守素)는 선무랑(宣務郎)을 지냈고, 나태소(羅泰素)는 종사랑(從仕郎)을 지냈고, 또 나정소(羅貞素)가 있다. 진사 김용건(金用健)과 이준신(李儁臣)은 그의 사위이다.

윤항은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이름은 우탕(禹湯)이다.

위홍주는 아들 셋과 딸 둘을 두었는데, 위산보(魏山寶)와 위정보(魏廷寶)는 모두 무과에 급제하여 현감(縣監)을 지냈고, 또 위국보(魏國寶)가 있다. 주부(主簿)를 지낸 정경일(鄭敬一)과 최환(崔渙)은 그의 사위이다. 내외의

후손이 천백 명에 이른다.

이시랑(李侍郎) 서우(端雨)는 묘갈명에 “자식들이 모두 훌륭하여 사람들은 육룡(六龍)이라 불렀으니 가정의 가르침이 세상을 구제하고 행실을 아름답게 한 것을 이룬 것이다. 예컨대 나덕신이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을 따라 노량(露梁)에서 왜적을 섬멸한 일, 나덕현이 여러 장수들을 따라 안현(鞍峴)에서 이괄(李适)을 물리친 일, 사신으로서의 명을 받들고 후금(後金)의 조정에 들어가 절개로 항거하여 굽히지 않았던 일 등은 충(忠)이다. 예컨대 나덕현이 부모를 잘 봉양한 일, 나득소가 삼년상에 몸을 상하여 죽게 된 일 등은 효(孝)이다. 예컨대 윤항에게 시집간 공의 큰딸, 나덕현의 아내 정씨, 김잡에게 시집간 나덕준의 큰딸, 수소의 아내 김씨 등 모두 순절하여 정려를 표창받은 일은 열(烈)이다. 한 집안에 삼강(三綱)이 모두 갖추어졌으니, 아! 세상에 어찌 흔한 일이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로 인하여 삼가 공의 행적을 대략 개관해 보건대, 공은 다리 살을 베어 부모님께 올리고 눈물로 무덤 가 송백나무를 마르게 한 것은 효의 근본이다. 형제들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힘껏 인륜을 앞다퉈 실행한 것은 효의 가지이다. 자기를 단속하고 벼슬을 경계하며 다른 사람을 마땅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한 것은 효의 잎이다. 마땅히 찬란하고 아름다워 만세토록 한 가문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제 이 글로 묘비명을 삼는다.

지극히 어질고 지극히 신묘함은	至仁至神
오직 그대와 오직 하늘 뿐	惟君惟天
하늘이 포상하사 명성 알려지고	褒而誼芬
하늘이 도우사 경사 영원하리니	祐而慶綿
군자의 무덤이라 하노라	曰君子之阡

통정대부(通政大夫)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겸(兼) 경연 참찬관(經筵參贊官) 춘추관 수찬관(春秋館修撰官) 민창도(閔昌道)⁶³⁵가 쓰다.

635) 민창도(閔昌道) : 1654~1725. 본관은 여흥(驪興)이고, 자는 사회(士會), 호는 화은(化隱)이다. 문장과 글씨에 능하여 광산의 개원사(開元寺) 불랑비문(佛糧碑文)과 영변의 보현사(普賢寺) 월제대사

행적집록 行蹟輯錄

《미암일기(眉巖日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무진년(1568) 6월 20에 도목정(都目政) 나사침(羅士沈)이 경기전 참봉(慶基殿參奉) 수망(首望)에 들어 낙점되었다.”

“8월 1일, 나사침을 불러 함께 외조부 금남 선생의 문집을 교정하였다. 【당시 공은 사은숙배(謝恩肅拜)⁶³⁶를 위해 서울에 와 있었다.】”

“기사년(1569) 6월에 나중부(羅仲孚)가 관직을 버리고 멀리 와서 형의 상을 지내기 위해 관직을 그만두었으니 훌륭한 행동이다. 【같은 해 6월 7일에 만형 시정(寺正) 나사선(羅士愷)이 서울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공은 경기전 부임지에서 15일에 부고를 듣고 다음날 곧바로 출발하여 곡하였다. 관례에 따라 전 참봉(參奉) 최감사(最監司)가 주관했는데 관직을 버리고 멀리 떠나면 근무평가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이처럼 관직을 그만둔 일에 대하여 훌륭하다는 말이 있었던 것이다.】”

“7월, 나사침이 27일에 보낸 편지를 길 가던 중에 보았다. 내용은 대략 이렇다. ‘길목마다 각 관아에서 군인과 수레와 소를 성대하게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내어주고 노자를 도와준 곳도 있었으니 이는 모두 형님께서 편지를 써준 덕분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날날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처음 출발하던 날 광주(廣州)에서는 군인과 소를 또 성대하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출발한 날에 용인의 행원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충청도의 각 관아에서 감사가 노자를 소략하게나마 주어 상하 노비의 주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은진(恩津) 현감은 특별히 모두를 대접하고 또 노자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같은 달 21일에 공은 시정공을 모시고 상갓집을 가기 위해 서울에서 출발하여 여산(礪山)에 이르러 편지를 썼다.】”

“경오년(1570) 5월 15일, 나사침의 편지를 보았는데 지난 4월 26일 무안

비문(月渚大師碑文)을 찬하였다.

636) 사은숙배(謝恩肅拜) : 관료로 처음 임명된 자가 궁중에서 임금에게 국공사배(鞠躬四拜)하여 은혜에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務安) 석진리(石津里)에 있는 외증조 최진사(崔進士)의 묘를 찾아 가서 묘지기를 정하고 풀을 베고 소먹이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묘의 모습은 예전과 같고 무덤 앞 땅도 완전했으며 석물들도 옛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여 감개가 무량했다. 【최진사의 이름은 택(澤)이고, 부인은 여양 진씨(驪陽陳氏)로, 태평관 직(太平館直) 최용지(崔用之)의 따님이니, 곧 금남(錦南)의 어머니이다. 묘는 석진리 어을곶(於乙串)에 있다. 미암이 일찍이 공에게 가서 성묘를 요청하니 이에 산지기를 정하여 묘를 지키게 했고 또 본현 수령에게 편지를 보내 그 일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도록 했으므로 공이 요청을 따른 뒤에 이처럼 답장을 보낸 것이다.】”

“9월 12일, 호조 판서 홍담(洪曇) 태허공(太虛空)이 지나가다 들러 조용히 말해주기를 ‘나사침이 형의 죽음을 듣고 급히 달려갔다가 최하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잘못한 점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진 사람인지 알 수 있다.’⁶³⁷⁾라고 했습니다. 내년 6월이면 부임한 지 2년이 되어갑니다. 영공께서 만일 이조 판서가 되시면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자, 홍공은 ‘매우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였다.”

“신미년(1571) 6월 5일, 중부가 나의 선조 제사를 위하여 담은 술 두 병을 보내와 냉수에 담가 두었다. 【미암이 본도의 감사로서 순행하다 나주에 도착했는데 6월 6일이 곧 부모님의 기제(忌祭)이므로 공관에서 지방을 써서 제사를 올리고자 했으니, 공이 제사에 쓸 술을 걸러 보내온 것이다.】”

“8월 19일, 나사침이 선릉 참봉(宣陵參奉) 수망(首望)에 들어 낙점을 받았기에 매우 기뻐 급히 편지를 보내 축하하였다. 【곧 20일 곡성을 순행할 때의 일이다.】”

“갑술년(1574) 4월, 나사침은 정(正) 나중묵(羅仲默) 형의 아들 나몽남(羅夢男)이 3월 26일 상한(傷寒)⁶³⁸⁾으로 죽었다고 알려왔다. 이 사람은 바로 병사(兵使) 임진(林晉)의 사위이다. 매우 놀랐고 슬펐다. 【몽남은 바로 나덕순(羅德純)의 어린 때 이름이다. 재작년에 겨우 혼례를 치렀는데 올해 16살로 요절한 것이다. 공이 초상을 치르고 난 뒤에도 여전히 매일같이

637) 잘못된 …… 있다 : 《논어》〈이인(里仁)〉에 보인다.

638) 상한(傷寒) : 추위로 인한 급성 열병을 말한다.

소찬을 먹었기에 미암이 공을 맞이하여 간곡히 육식을 권하며 말려놓은 평한 마리를 보냈던 것이다.】”

“5월 6일, 나사침을 맞이하여 잘 정미한 쌀을 주고 매화시(梅花詩)를 주었다. 【이는 퇴계의 작품이다.】”

“7일, 황해 감사(黃海監司) 민기문(閔起文)이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나사침에게 보내 답서를 보내왔는데 ‘이는 평소 경모하고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보배처럼 진주처럼 아끼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서씨가 아들을 잃은 후 나사침에게 편지를 보내 나덕운을 양자로 삼기를 청하였지만, 나사침은 그럴 수 없다고 답장을 보냈다. 나는 그가 의를 안다고 칭찬하였다. 【서씨는 나정(羅正)의 둘째 부인이자 나몽남의 어머니이다. 6월 그믐과 7월 20일 두 차례 편지를 보내 양자로 삼게 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았다. 뒷날 서씨가 부인 임씨와 더불어 간사한 꾀를 내고서는 몰래 고을 서문 밖에 살고 있는 사노비 김서비(金西非)의 아들을 유복자라고 속이고 윤달 12월 22일 해산했다고 하였다.】”

“병자년(1576) 4월 20일에 나사침을 다시 경기전 참봉(慶基殿參奉)으로 삼았다.”

“김학봉(金鶴峰)이 임씨와 나씨의 송사 결미의 문건에 ‘임씨가 나사침을 불러 말했지만, 그의 자식을 양자로 들이지 않음을 분하게 여겨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말을 지어냈다. 당초 서씨가 나사침에게 양자를 들일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나사침이 허락하지 않자, 서씨는 억지로 그 일을 하고자 하여 언문으로 무식한 부인이 무슨 법을 알겠나 하고 썼으니 서씨의 간절한 요구와 나씨의 견고한 사양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서씨가 간곡하게 양자를 요구했으나 끝내 도리가 아닌 말을 더했으니, 나사침은 매우 어려움에 빠진 것이다.’ 【김학봉은 김성일(金誠一)이다. 자는 사순(士純)이고, 의성(義城) 사람이며, 거주지는 안동(安東)으로, 퇴계의 문인이다. 가정(嘉靖) 갑자년(1564) 생원에 급제하였다. 윤경(陰慶) 무진년(1568) 문과에 급제하였고, 계미년(1583)에 사인(舍人)으로 특별히 나주 목사(羅州牧使)의 관직을 받았다. 병술년(1586)에 임씨와 나씨에 대한 송사를 판결을 내려 거짓 자식에 관한 복잡한 사연을 밝혔다. 그해 겨울 파직되었다. 계사년

(1593)에 경상 우감사(慶尙右監司)의 관직에 있을 때 진주(晉州)에서 죽었다. 훗날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라고 하였다.”

“학봉이 송사를 판결한 이후 추고공함(推考公緘)⁶³⁹⁾에 ‘나씨의 집안은 화목한 가문이라 온 고을사람들이 감복한다. 나사침이 정려를 표창받고 부역과 세금을 면제받은 일 또한 온 나라 사람들도 아는 것이다. 일이 드러나기 전에는 서씨가 매번 슬픈 말과 괴로운 말로써 나사침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나 나사침이라는 사람은 천리나 떨어진 부임지에서 답장을 쓰면서 우선 위로하여 마음을 풀어주려는 뜻을 지극하게 했으니 이는 인정상 매우 지극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부제학 유희춘은 나씨 가문과 사촌으로서 두 번이나 편지를 써 선처해 줄 계획을 냈다. 부사(府使) 김천일(金千鎰)은 임씨와 서씨의 이웃으로서 그들의 간악한 상황을 잘 알고 있어 의리상 은혜를 끊어야 한다고 권하였다. 이러한 우여곡절이 모두 《추안(推案)》에 실려 있다. 유희춘의 글에는 6~7월에 양자를 구한 일들이 분명히 실려 있고, 김천일의 공함에도 김서비(金西非)가 아이를 요구한 일이 분명히 실려 있다. 오직 이 두 사람의 말로도 옥사를 판단하기에 충분한데 이러한 말들을 믿지 않고 괴이한 아녀자의 말을 믿으니, 나씨 가문에 대한 편지 전후가 서로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로 이해할 수 없다.”

“3월부터 7월까지 이전에는 조금도 사악한 뜻이 없었고, 단지 나사침에게 양자를 요구할 생각만 있었다. 7월 20일 편지에는 마음을 유복자에 두어 또한 어디에 의탁하여도 따질 수 없는 일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뜻이 정성스럽고 비통하여 양자를 구하려는 생각이 더욱 간절했던 것이다. 나사침이 의로써 준엄하게 사양한 뒤라면 저런 계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8월에 처음으로 거짓 임신하였다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6~7월에는 형태도 없던 임신이 갑자기 8월에 형태가 생기는 이치가 있겠는가. 그 거짓 임신한 곡절이 이러하다.”

“가령 나씨 한 집안이 진실로 흉흉하다 한들 반드시 남에게 혐의를 씌우고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뒤에 송사를 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나, 이들은 화목한

639) 추고공함(推考公緘): 글로써 죄인을 심문하는 것 또는 그 내용을 말한다.

행실이 평소에 있고 재물로 다투는 일이 없다. 18세의 질부가 유복자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무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기쁜 행실과 슬픈 감동의 마음이 있는데, 무슨 이유로 효행으로 정려를 표창받고 학업으로 일을 삼는 자가 온 집안이 한 마디 말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죽은 조카의 후손을 꿈으려고 했겠는가. 이런 일들은 법사(法司)가 이미 명확하게 살폈기에 다시 미루어 법으로 다스릴 것이 없는 데에도 굳이 여의원의 말을 믿고서 그렇게 했으니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정한강(鄭寒岡)이 쓴 <학봉행장(鶴峰行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계미년(선조 16, 1583)에 특별히 나주 목사에 제수되었다. 고을에 임씨와 나씨가 있는데 모두 한 고을의 명문 집안이다. 나씨가 임씨 집안에 장가를 들었으나 자식 없이 죽자, 임씨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가 취하여 노비와 더불어 몰래 계획한 뒤 유복자가 있는데 자기가 낳았다고 하였다. 나씨 집안에서 그것이 거짓임을 판별함과 동시에 그가 집안을 어지럽힌 것에 대하여 송사를 청하여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몇 년 동안 판결이 나지 않았다. 공이 한 번에 간파하고 그것이 거짓임을 밝혀 판결했기에, 공론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정한강은 정구(鄭逋)로, 자는 도가(道可)이고, 청주(淸州) 사람이며, 거주지는 성주(星州)이다. 한훤당(寒暄堂)의 외증손으로 도학은 대개 유래가 있었고, 퇴계(退溪) 선생과 남명(南冥) 선생의 문하에서 종유하여 더욱 학문하는 방법을 배웠다. 선조 초에 음덕으로 벼슬을 받아 내외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광해 초에 특별히 대사헌(大司憲) 겸 보양관(輔養官)을 지냈다. 정사년(1617) 겨울에 <학봉행장>을 짓고 경신년(1620)에 세상을 떠났다. 인조 때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고, 문목공(文穆公)의 시호를 받았다. 효종 때 다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무안의 유생 배명(裴蒙) 등이 상소한 글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전 이산 현감(尼山縣監) 나사침은 바로 중종 때 정려를 표창받은 효자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초에 특별히 참봉(參奉)의 관직을 내리고 승진시켜 이산 현감에 임명하셨는데, 그 고을에 많은 업적이 있으므로 청덕거사비(淸德去思碑)를 세웠습니다. 임금과 아버지가 비록 같지 않다고 하지만, 충성과 효도는 본래 두 이치가 없습니다. 가정의 교훈이 미치는 곳에 반드시 그 근본이 있으니

그 한 집안사람이 비록 모두 충성스럽고 신의를 갖추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역적이 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 전 도사(都事) 신(臣) 나덕명(羅德明) 등은 모두가 학문과 독실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써 상소 안에 들었으니 억울하고 또한 비참합니다. 대낮에 햇빛이 비친 듯 충성심이 밝으니 진실로 신 등의 어리석은 말이 없더라도 잘 가려서 사실을 조사할 것입니다.’⁶⁴⁰⁾”

“임금께서 ‘알았다.’라고 하셨습니다.【기축년(1589) 12월에 정암수(丁巖壽)의 무고한 상소가 있었기에 배명 역시 상소를 올려 정곤재(鄭困齋)와 공의 원통함을 밝힌 것이다.】”

“전해오는 기록과 소식에 의하면 ‘나의 형님 취암(鷲巖)【유성춘(柳成春)이다.】은 예전 이조 좌랑(吏曹佐郎)을 지내다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손녀는 있지만 부모가 없었기에, 내가 공의 형제들에게 사위를 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이 외5대조 최유중(崔有中)의 후손 최수경(崔秀景)이 괜찮다는 뜻을 편지로 보내왔는데 나이가 겨우 18세에 인물이 흰칠한 데다 배움의 기상이 있다고 하였다. 나는 평소 공을 신뢰해 왔기에 마침내 그와 혼인시켰다.【최공의 실제 계파 외조(外祖)의 선조는 자세하지 않으나 그 내력은 반드시 공의 고조인 무안 현감(務安縣監)이고, 공의 아내 영천 최씨(永川崔氏)의 선고(先考)이다.】’ 라고 하였다.”

“이산으로 부임하였을 때 도적질하는 사람 하나를 붙잡아 의리로 가르치고 놓아주었으니, 도적질을 했던 사람이 감동하여 마음을 고쳐먹었다. 고을 앞에 객점을 설치하여 오가는 손님을 대접하여 스스로 새롭게 할 땅이라며 애써 부지런히 일했으니, 사람들은 덕화가남에게 미치는 것이 이와 같다며 칭찬하였다.”

“이산에 부임하였을 때 사위의 집과 종손의 집에서 모두 말을 보내와 요청하였기에 응하였다. 종가의 물품을 사위의 집보다 넉넉하게 주었으니 사람들은 종가를 중시 여기는 의리에 감복하였다고 한다.”

“이산현 앞길 옆에 처음 거사비(去思碑)를 두었는데 임진년(1592) 병화에 손상을 입었기에, 유민(遺民)들이 다시 그를 위해 비석을 세워 잊지 않는다는 뜻을 짓들이고 철인 절구를 새겼다.

640) 전 …… 주십시오 : <기축록(己丑錄)>과 <혼정편록(混定編錄)>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시든 꽃 한 송이 외로운 학 한 마리	倭花一朵鶴一隻
쓸쓸히 행리에 옛사람의 풍모 있네	行李蕭然古人風
백성은 훌륭하신 당신 떠남을 안타까워 하니	齊民痛惜仁賢去
소백에 대한 포장도 썩 넉넉한 건 아니리 ⁶⁴¹⁾	召伯修褒亦不公

이 시는 현재 전하지 않는다.”

“공이 경인년(1590)에 붙잡혀 갈 때 다섯 아들도 일시에 잡혀가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화를 입을까 두려워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로지 같은 고을의 효자 이유경(李有慶)만이 도움을 주며 환난에서 서로 구제해주는 의리를 저버리지 않아, 듣는 자들은 그것을 바른 행동이라고 하였다. 【이유경의 자는 효숙(孝叔)이고, 경주(慶州) 사람이다. 일찍이 고을의 모산촌(茅山村)에 살면서 효로 이름이 났으니 곧 기묘(己卯)의 이름난 선비 생원 이해(李蟹)의 증손이다. 역시 경인년에 고을 사람들에게 무고로 체포되었으나 곧바로 방면되었다. 훗날 조정에서는 그가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두 번 사부(師傅)의 관직을 내렸지만 모두 나가지는 않았다.】”

641) 소백에 …… 아니리 : 거사비를 세웠지만 미진하다는 백성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원문 ‘소백(召伯)’은 주나라 문왕(文王)의 아들이다. 남국(南國)을 다스릴 때 선정을 펼치자 백성이 그가 머물고 쉬었던 감당나무를 소중히 생각하여 “무성한 감당나무 자르지도 말고 베지도 말라. 소백께서 머무셨던 곳이니라.[蔽芾甘棠 勿剪勿伐 召伯所茇]” 하였다. 《詩經 甘棠》

여러 공들의 시편

諸公詩章

나중부의 시에 차운하여 선릉재소에 올리다

이언양(李彦讓) 【자는 경례(景禮)이고, 양성(陽城) 사람으로, 흥룡동(興龍洞)에 거주하며 자호를 용강(龍江)이라 하였다.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문인이며 공과 더불어 을묘(乙卯) 사마(司馬) 정묘(丁卯) 문과에 합격하고, 벼슬은 함양 군수에 이르렀다. 공이 일찍이 선릉 침랑으로 함께 벼슬하고 있을 때 “이공과 함께 객지에서 벼슬하며 같은 집에서 살 때, 셋째 아들 나덕윤(羅德潤)이 나를 따라 왔다. 중학(中學)⁶⁴²에 이름을 걸고 《소학》, 《심경》, 《근사록》을 이공에게 배웠다. 그래서 사운시(四韻詩)에 ‘그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공은 그의 재주를 가상히 여겨 딸을 시집보냈다.”라고 하였다.】

次羅仲孚韻 仍呈宣陵齋所 【李彦讓, 字景禮, 陽城人, 居州之興龍洞, 自號龍江. 金河西麟厚門人, 與公同中乙卯司馬 丁卯文科, 官至咸陽郡守. 公嘗於宣陵寢郎, 供仕之曰: “與李公同舍旅宦, 第三子德潤, 亦從焉. 托名中學而受小學 心經 近思錄於李公. 其四韻詩所云君來携一子者, 此也. 李公愛其才, 以女妻之.”云】

풍우에 차가운 창 흰 머리에 수심 가득한데
남쪽하늘 흰 구름 유유히 흘러가네
사람 없는 호수 너머 봄옷을 전하니
천리 밖 여름에 그대는 고생하겠구나

風雨寒窓鶴髮愁
南天杳杳白雲悠
無人湖外傳春服
千里應勞爲子夏

642) 중학(中學): 조선조 때 유생(儒生)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서울에 둔 사부 학당(四部學堂)의 하나로, 중학(中學), 동학(東學), 남학(南學), 서학(西學) 등이 있었다.

또
又

어지러운 세상 고생하며 오랜 시간 보내다가
이 한 몸 스스로 보살피지 못했구나
창밖엔 비가 밤새 낭랑한 소리 내며 내리고
몇 가닥 수염만 공연히 희어지네

風塵役役長馳驚
身是吾身不自顧
一夜浪浪窓外雨
謾教添白數莖髭

또【이상 세 절구시는 빗소리를 들으며 지은 것이다.】
又【以上三絕聽雨】

비 지나간 봄 산엔 풀이 절로 돋지만
남은 꽃 한들한들 떨어져 나비 날아오지 않네
그 모습 눈에 들어오니 온갖 정감 생기는데
차디찬 처마에 방울방울 물소리 들리도다

雨過春山草自生
殘花飄落蝶無情
森森入眼渾成感
滴滴寒簷更有聲

또
又

이 밤 달빛은 매우 밝기만 하고
이웃집 피리소리 정겹기도 해라
두보가 맑은 밤에 서 있던 일 아득히 생각하니
예나 지금이나 달빛 아래 걷는 마음 매한가지⁶⁴³⁾

此夜蟾光十分明
數聲隣笛更多情
遙思杜老清宵立
今古心同步月行

643) 두보가 …… 매한가지 : 아우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말한다. 두보(杜甫)의 <한별(恨別)>에, “고향 집 생각하며 달 아래 거닐다 맑은 밤에 서 있고, 아우를 그리워하며 구름 보다가 한낮에 꾸벅꾸벅.[思家步月清宵立 憶弟看雲白日眠]”라고 하였다.

또
又

눈물 떨어지는 소리 잦아들고 새벽달은 지는데	玉淚聲殘曉月低
객창의 차가운 꿈 곱절이나 쓸쓸하구나	客窓寒夢倍悽悽
삼 년 서울살이 그대와 마음 같을 것이니	三年京國同襟抱
어느 날 강촌에서 기장 쫓던 닭과 함께 할까나 ⁶⁴⁴⁾	何日江村共黍鷄

또 【이상 절구 세 수는 달을 보며 산보하면서 지는 것이다.】

又 【以上三絕步月】

늦은 봄 비단 같은 물은 시름을 삭일만하니	春深錦水可消憂
밝은 달 아래 누가 이응과 곽태의 배를 탈까 ⁶⁴⁵⁾	明月誰乘李郭舟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일로 알았거늘	早識歸田爲第一
세월은 어인 일로 유유히 지나가나	年光何事度悠悠

644) 어느 …… 할까나 : 계서는 닭 잡고 기장밥 지어 손님을 접대하는 것인데, 먼 곳에 사는 벗을 찾아가겠다는 약속이다. 한(漢)나라 범식(范式)은 자가 거경(巨卿)으로 산양(山陽) 금현(金縣) 사람이고, 장소(張邵)는 자가 원백(元伯)으로 여남(汝南) 사람인데, 평소 태학(太學)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우정이 매우 두터웠다. 두 사람이 이별할 때 범식이 장소에게 “2년 뒤 돌아올 때 그대의 집에 들르겠다.”라고 하였다. 꼭 2년째가 되는 날인 9월 15일에 장소가 닭을 잡고 기장밥을 짓고 범식을 기다리자 그 부모가 웃으며 “산양은 여기서 천리나 멀리 떨어진 곳인데, 그가 어찌 꼭 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이에 장소가 “범식은 신의 있는 선비이니, 약속 기한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날이 되자 범식이 과연 왔다고 한다. 《後漢書 卷81 獨行列傳 范式》

645) 이응과 …… 탈까 : 원문 ‘이곽(李郭)’은 동한(東漢)시대의 이응(李膺)과 곽태(郭泰)를 말한다. 이응이 낙양(洛陽)에서 고향으로 떠나는 곽태를 전송하면서 둘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는데, 이 광경을 보고서 사람들이 신선과 같다고 찬탄하며 부러워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後漢書 卷68 郭泰列傳》

다시 칠언사운에 차운하여

又次七言四韻

관중과 포숙이 함께 살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했지만
오히려 아름다운 명성은 만대에 가득하다네
수년 동안 자리를 함께했던 그대와 나
굳은 우정 훗날까지 변치 않으리
강에 막혀 삼 년이나 떨어져 있었지만
아득히 사월 초에 만나기를 기약하네
서울의 수만 집을 여기저기 돌아보지만
타향의 답답한 마음 누구에게 하소연할까

曾嫌管鮑未同居
猶自流芳萬代餘
連席數年君共我
斷金他日子兼余
隔江謾作三秋別
會面遙期四月初
回首長安家十萬
羈懷鬱鬱向誰摎

다시 오언사운에 차운하여

又次五言四韻

그대 아들 손잡고 오니
나까지 홀연 셋이 되었네
쑥이 삼 속에서 자라면 곧아지고
부평초도 사슴이 먹으면 달아지는 법

君來携一子
得我忽成三
蓬入麻中直
萍因鹿食甘

어찌 내가 감히 인을 돕겠다고
그대에게 부끄럼 없이 충고하겠나
마주하여 흰 머리로 상심하다보니
타향의 혼이 아름다운 연못을 휘감아 도네

輔仁吾豈敢
忠告子無慙
相對傷頭白
羈魂繞錦潭

세상살이 오랫동안 골몰하다
자연의 차가운 맹세 저버렸네
늙어서 머리는 점점 희어가고

紅塵長汨沒
泉石負寒盟
老去頭將白

수심에 꿈조차 이루기 어렵네

愁來夢不成

들판에는 가을 기운 진동하니

郊原秋氣動

강한의 나그네 마음 놀라네

江漢客心驚

어느 날 형제들 손 이끌고

何日携兄弟

어머니 모시고 살아갈까

萱堂侍此生

또

又

나그네 남산 가까이 사는데

客寓南山近

매미 우는 소리가 먼 숲에서 들리네

蟬聲咽遠林

국화는 가련하게 비를 막 맞는데

菊憐新得雨

사람은 오랜 친구와 이별을 한다네

人別舊知音

처량한 저녁 무릎 감싼 채 읊조리며⁶⁴⁶⁾

抱膝吟涼夕

밤늦도록 벗과 함께 앉았다네

友瀕坐夜深

고향으로 돌아갈 날 다다르니

桑鄉歸日迫

떠남과 머무름 모두 마음쓰이네

去住總關心

646) 처량한 …… 읊조리며 : 제갈량(諸葛亮)의 <포슬음(抱膝吟)>을 차용한 것이다. 촉한(蜀漢)의 제갈량(諸葛亮)이 출사(出仕)하기 전 남양(南陽)에서 몸소 농사를 지을 때 <양보음(梁甫吟)>이란 노래를 지어 매일 새벽과 저녁이면 무릎을 감싸 안은 채 길게 불렀던 데서 유래한 말로, 고인(高人)과 지사(志士)가 시를 읊어 심회를 푸는 것을 뜻한다.

나중부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며

백광훈 【자는 창경(彰卿)이고, 호는 옥봉(玉峰)이며, 본관은 수원으로, 해남에 거주하였다. 시와 글씨로 세상에 이름이 났다. 일찍이 원접사(遠接使)의 백의(白衣) 종사관(從事官)을 지냈고, 벼슬은 참봉(參奉)에 그쳤다. 공이 금오랑(金吾郎)에서 체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옥봉이 이 이별시를 써 주었다.】

送羅仲孚解官歸鄉 白光勳 【字彰卿, 號玉峰, 水原人, 居海南, 以詩調筆法, 名於世. 嘗爲遠接使 白衣從事官, 官止參奉. 公以金吾郎見遞還鄉時, 玉峰有此別章】

인간 세상의 맛을 모두 봤더니	嘗盡人間味
고향으로 돌아가는 계책이 가장 낫네	歸田策最良
이미 가시덤불처럼 몸을 버려	已拚身似更
남은 것이라곤 서리 같은 살쩍뿐	贏得鬢成霜
연못엔 마름과 연꽃이 아름답고	水國菱荷足
동산엔 토란과 밤꽃 향 가득하다	山園芋栗香
유유히 베개 높이 벤 곳엔	悠然高枕處
대궐의 꿈 아득하기만	雲闕夢蒼茫

삼가 옛 성주의 시에 차운하여 산재의 고요한 책상에 올리다

한응몽 【청주 사람으로 이산에 거주하였다.】

謹次舊城主韻仍呈山齋靜案 韓應夢 【清州人, 居尼山.】

공수와 황패 ⁶⁴⁷⁾ 는 청렴함으로 은택 내려	龔黃清簡昔蒙賜
일부 백성은 먹고 자는 일만 했었지	一部生民但食眠
다시 창주에 들어가 자리 나눠 앉았으니	又入滄洲分半席
층층의 푸른빛이 호숫가와 맞닿아 있구나	層層蒼翠接湖邊

647) 공수와 황패 : 원문 ‘공황(龔黃)’은 ‘공수(龔遂)’와 ‘황패(黃霸)’를 말하는데, 두 사람 모두 한(漢)나라 때 백성을 잘 다스리던 관리였다.

나니산의 산재 고요한 책상에 바치다 임윤신【자는 경룡(景龍)이고 풍천 사람으로, 서울에 거주하였다. 가정(嘉靖) 기미년(1559)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감사에 이르렀다.】

吟呈羅尼山山齋靜案 任允臣【字景龍, 豐川人, 居京. 嘉靖己未文科, 官至監司.】

일찍이 안개와 놀에 약속했으니	夙有煙霞契
벼슬에서 물러나 ⁶⁴⁸⁾ 몇 칸 집에 살으리	棲遲屋數間
거문고 소리 퍼지는데 멀리 물 흐르고	琴中流水遠
처마 밖에 한가로운 구름 지나간다	簷外度雲閑
자제들과 조카들 시서를 공부하고	子姪詩書課
손님들과 벗들 예를 담론하네	賓朋禮數寬
술잔 기울이다 산은 저물어가고	樽傾山欲夕
담소가 끝났으니 조심히 가시게나	談罷戒歸鞍

금성 객관의 방회연에서 제독 정인귀의 시에 차운하여
동년들에게 보이며 화답을 구하다

錦城館榜會宴席 次鄭提督仁貴韻 示諸同年索和

을묘년 사람들 원우 시절 사람 ⁶⁴⁹⁾ 같아	乙卯人同元祐人
담담한 사귀는 곳곳마다 신묘하지 않은 곳 없네	淡交無處不爲神
벽오헌 밖 수많은 대나무여	碧梧軒外千竿竹
당시의 좋은 모임 꼭 기억하시게나	更記當年此錦茵

648) 벼슬에서 물러나 : 원문 ‘서지(棲遲)’는 놀고 쉰다는 뜻으로, 은거하여 편안하게 노니는 것을 말한다. 《시경》〈진풍(陳風) 형문(衡門)〉에 “형문의 아래여 쉬고 놀 수 있도다. 샘물이 졸졸 흐름이여 굶주림을 즐길 수 있도다.[衡門之下, 可以棲遲. 泌之洋洋, 可以樂飢.]”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온 말이다.

649) 원우 …… 사람 : 원우(元祐)는 송나라 철종(哲宗)의 연호이며, 당시 왕안석(王安石)의 신당(新黨)에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마광(司馬光), 정이(程頤), 소식(蘇軾), 유지(劉摯) 등이 바로 원우 때의 사람들이다. 여기에서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 근체시를 지어 동년배들에게 주다

又近體贈諸同年 (【尹斗壽】⁶⁵⁰⁾)

반가운 눈빛으로 함께 무이루에 올라 보니
젊은 시절 을묘년 가을이 배나 생각나네
일대의 풍류는 길이 꿈속으로 드는데
당시 많은 사람 절반이나 세상을 떠났구나
금산은 비 온 뒤에 청색이 홀로 쓰기에 적합하고
영수는 가을 전에 녹색이 배를 띄울 만하네
이 자리 소중히 여겨 저버리지나 마시오
내일 밤 적벽의 달빛 아래에서 놀기로 하세

共擡青眼撫夷樓
倍憶紅顏乙卯秋
一代風流長入夢
當年二百半成丘
錦山雨後青宜笏
靈水秋前綠可舟
珍重此筵須勿負
明宵赤壁月中遊

650) 尹斗壽 : 이 작품은 윤두수(尹斗壽:1533~1601)가 지은 것으로 《오음유고(梧陰遺稿)》에 실린 작품이다. 작자 표기가 없기에 역자가 이를 넣은 것이다.

차운 김부윤
次韻 金富倫

그해 연방에 오른 첫 번째 사람이여
지금 시는 정신을 새롭게 하는구나
술 가득 주고받는 좋은 모임 가졌으니
누각 안에 취한들 나무라지 마시게나

蓮榜當年第一人
只今詩句更精神
要將滿酌酬佳會
莫問樓中醉吐茵

백 척 누각에 일고여덟 손님과 벗들 모였더니
맑은 바람 밝은 달에 가을 왔음을 알겠네
가깝고 먼 수많은 산들을 바라보니
한 무더기 흙일뿐 흥망일랑 묻지 마시게나

七八賓朋百尺樓
清風明月認新秋
且看遠近山千點
不問興亡土一丘

어찌 금성에서 옥 술잔만 날리는가
적벽강에 함께 아름다운 배를 띄워야지
푸른 눈동자 곳곳에 즐거움 무궁하니
인간 세상에 좋은 놀이 있음을 알겠구나

豈獨錦城飛玉盞
須同赤壁泛蘭舟
青眸到處窮歡樂
方信人間有勝遊

만사를 붙이다

【당시 만사가 반드시 이 작품에 그치지 않았겠지만 다만 이 한 편만 전해질 뿐이다.】

附挽詞【當時挽詞, 必不止此, 而只傳此一篇.】

나니산 어른의 만사

김익성【자는 유응(裕應)이며 광산 사람으로, 고을의 성서에 거주하였다, 광해군 때 과거공부를 그만두고 시를 짓고 술을 마시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挽羅尼山丈 金益成【字裕應, 光山人, 居州之城西. 光海朝, 廢科, 詩酒自娛.】

사람들은 생전이 귀하게 된다면	人也生前貴
공은 돌아가신 뒤에 영예롭구나	公惟死後榮
사씨 집안의 쌍벽을 하찮게 여겼고	謝家雙壁賤
순호의 팔룡도 가볍게 여겼지	荀戶八龍輕
땅은 시서의 차례를 덮었고	地閑詩書秩
하늘은 예의의 밝음을 감췄다네	天慳禮義明
평생 충과 효로 행동하셨으니	百年忠孝事
바람이 백양 ⁶⁵¹ 에 소리 내어 하소연한다네	風訴白楊聲

651) 백양: 백양(白楊)은 무덤을 가리킨다. 도잠(陶潛)의 〈만가시(輓歌詩)〉에 “황량한 풀은 어이 그리 아득한가, 백양나무 또한 쓸쓸하기만 하네.”라고 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陶靖節集 卷40》

사우록 師友錄

이소재(履素齋) 선생은 이름이 중호(仲虎)이고, 자는 풍후(風后)이다. 종실인 고안(高安)⁶⁵²⁾ 정(正) 이정(李精)의 아들이며, 효령대군(孝寧大君) 정효공(靖孝公) 이보(李補)⁶⁵³⁾의 현손이다. 어머니는 성산 이씨(星山李氏)로, 태종 때 좌의정을 지낸 충경공(忠景公) 이직(李穰)의 후손이다. 고안 정 이정이 아내로 맞이하여 정덕(正德) 임신년(중종 7, 1512) 9월 무자일에 선생을 낳았다.

일찍이 부모를 잃었고, 장성해서는 뜻을 엄하게 하며 문장을 지을 때는 문체가 기이하고 우뚝함을 숭상했으니,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이 보고 칭찬하기를 “귀신이 아니면 저렇게 잘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서봉(西峰) 처사 유우(柳藕)에게 학업을 받았는데, 서봉은 바로 한훤당(寒暄堂)의 문인이니, 그 학문은 대개 연원이 있다.

일찍이 《맹자》를 읽다가 ‘사람들 모두 요순이 될 수 있다.’⁶⁵⁴⁾라는 구절에 이르러 마침내 깨닫는 바가 있어 과거공부를 그만두고 개연히 도를 구할 뜻을 두고는 낮에는 외우고 밤에는 사색하여 잠자고 밥 먹는 것조차 잊기에 이르렀다. 죽간에 구용(九容)과 구사(九思)⁶⁵⁵⁾를 새겨 책대에 꿰어 차고

652) 고안(高安) : 경기도 용인군 내사현의 옛 이름이다.

653) 이보(李補) : 이보(1396~1486)의 자는 선숙(善叔)이고, 호는 연강(蓮江)으로, 태종(太宗)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양녕대군(讓寧大君)과 함께 충녕대군(忠寧大君)인 세종(世宗)에게 세자의 지위를 양보하고 출가하여 많은 불사를 주관하여 불교의 보호와 진흥에 크게 공헌하였다. 시호는 정효(靖孝)이다.

654) 사람들 …… 있다 : 《맹자》〈고자(告子)〉하 제2장에 보인다.

655) 구용(九容)과 구사(九思) : ‘구사’는 《논어》〈계씨(季氏)〉에 나오는 군자의 아홉 가지 생각으로, ‘볼 때는 밝게 보기를, 들을 때는 밝게 듣기를, 얼굴빛은 온화하기를, 용모는 공손하기를, 말할 때는 충성스럽기를, 일할 때는 조심하기를, 의심날 때는 묻기를, 분노할 때는 어려움을, 얻을 것을 보고서는 마땅히 가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疑思問 忿思難 見得思義]’이다. ‘구용’은 《예기》〈옥조(玉藻)〉에 나오는 군자가 수행(修行)하고 처신함에 있어서 응당 지켜야 할 아홉 가지 자세로, ‘걸음걸이의 모양은 무게가 있어야 하고, 손놀림의 모양은 공손해야 하고, 눈의 모양은 단정해야 하고, 입의 모양은 조용해야 하고, 목소리의 모양은 고요해야 하고, 머리 모양은 곧아야 하고, 기상의 모양은 엄숙해야 하고, 서 있는 모양은 덕스러워야 하고, 얼굴빛은 장엄해야 한다. [足容重 手容恭 目容端 口容止 聲容靜 頭容直 氣容肅 立容德 色容莊]’ 등을 말한다.

종신토록 지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나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의관을 단정히 하고 띠를 묶어 종일 강론하고 정미하게 분석하니, 서화담(徐花潭)이 그와 함께 수일을 강론하고 감탄하며 “미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기묘사화(己卯士禍)⁶⁵⁶ 이후 《소학》의 가르침이 세상에서 크게 금지되었는데도, 선생은 문을 닫고 후학을 가르쳤는데 학도들이 모여들자 반드시 《소학》을 먼저 가르치고 다음으로 《근사록》을 가르친 뒤 점차 여러 경전에까지 이르렀다. 논의가 뛰어나 배우는 사람들의 학문을 복돋아 진작하는 효과가 있기에 전조(銓曹)에서 교직(敎職)에 천거하였으나 번번이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만년에는 병이 심해져 장차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언관(言官)들이 그의 품행과 도의를 칭송하여 계속 서울에 머물도록 청했고, 명종이 이를 가상히 여겨 6품의 관직을 내렸지만 몇 달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으니 바로 가정(嘉靖) 갑인년(1554) 11월 26일로 향년 43세였다. 문인들이 그의 상례를 다스리고 이듬해 정월 25일에 양주(楊州) 송산(松山) 선영에 장사 지냈다.

그의 저술은 <심성정도(心性情圖)>, <성리명감(性理明鑑)>, 자경(自警)의 시문 수백 편이 있으며 선기옥형(璇璣玉衡)의 제도에 이르기까지 깊이 생각하여 곧장 이해해서 직접 제작한 물건이 조금도 도수가 어긋나지 않았다. 【<이소재묘지유사(履素齋墓誌遺事)>와 박상 세채(朴相世采)의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에 보인다.】

남봉(南峰) 정지연(鄭芝衍)은 자가 연지(衍之)이고, 동래(東萊) 사람이다. 봉상시(奉常寺) 정(正) 정유인(鄭惟人)의 아들이고, 영의정 문익공(文翼公) 정광필(鄭光弼)의 증손이다. 가정(嘉靖) 을유년(1525)에 태어나 용경(隆慶) 기사년(1569)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은 우의정에 이르렀다. 만력(萬曆) 계미년(1583)에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59세였다.

범애(汎愛) 유조인(柳祖訥)은 자가 인지(訥之)이고, 진주(晉州) 사람으로, 서봉(西峰) 선생 유우(柳藕)의 아들이다. 가정 계사년(1533)에 태어났다. 어릴 때 의뢰할 곳이 없어 다소 불량하였으나 훗날 마음을 고쳐 이소재의

656) 기묘사화(己卯士禍) : 1519년(중종 14) 남곤(南袞) 홍경주(洪景舟) 등의 훈구파에 의해 조광조(趙光祖) 등의 신진 사류들이 숙청된 사건을 말한다.

문하에서 배워 학업에 뜻을 둔 것이 남달랐고 특히 예(禮)에 밝았으며 각기 남봉 정지연, 퇴암(退菴) 박응남(朴應男), 월담(月潭) 최황(崔滉) 등과 막역한 교우를 맺었다.

만력 계미년(1583)에 남봉이 우의정에 있으면서 공을 천거하여 충과 효와 큰 절개가 있어 삼군(三軍)의 장군이 될 만하다고 하니 마침내 출사하게 되었다. 임진왜란 때 임금의 행차가 서쪽으로 행행(行幸)하자, 공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걸어서 임금을 따라가 2년을 지냈다. 두암(斗巖) 김응남(金應南)은 총재(冢宰)로서 공의 충성과 절개를 알려 통정(通政)으로 품계가 올랐으며 호조 참의(戶曹參議)에 제수되었다. 기해년(1599)에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67세였다.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⁶⁵⁷⁾에 보인다.】

홍용(洪溶)은 남양(南陽) 사람으로, 판관(判官) 홍필세(洪弼世)의 아들이자, 공조 판서 익원군(益原君) 홍경림(洪景霖)의 손자이다. 벼슬은 장례원 사의(掌隸院司議)에 이르렀다.

정유신(鄭惟愼)은 동래(東萊) 사람으로, 돈녕부(敦寧府) 정(正) 정익겸(鄭益謙)의 아들이자, 참봉(參奉) 정위겸(鄭摎謙)의 양자이며, 문익공(文翼公) 정광필(鄭光弼)의 손자이다. 벼슬은 청풍 군수(淸風郡守)에 이르렀다.

지봉(芝峰)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峰類說)》을 살펴보니 “이소재는 기묘사화 이후에도 스승의 도를 자기의 책임으로 삼았는데, 옷자락을 공손히 치켜들고 수업을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수백 명이나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그 문하에서 배움을 청한 선비들이 이처럼 많았을 것이나, 문인 가운데 우리 선조께서 크게 인정했던 이들로는 다만 남봉, 범애, 홍공, 정공 네 사람뿐이므로 위와 같이 선별하여 기록한 것이다.

현손(玄孫) 나두동(羅斗冬)이 삼가 쓰다.

657)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 : 조선 후기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신라시대부터 조선 선조까지 유학자들의 사우 연원을 밝혀놓은 책이다.





《錦城三稿》원문

嘯浦錦巖錦峰三稿合部序【一】

錦城羅氏家塾，新刊嘯浦遺稿，附以錦巖錦峰若干稿，合成一部，錦巖曾孫上舍斗冬氏實收輯之。嘯浦玄孫晚運，錦峰曾孫斗興，與之同圖所以壽其傳者，走書小白山下，屬重元序之。羅吾自出也，錦巖吾先妣之王父也，重元於此，烏可不爲之感。且幸直讓以不文而止乎。粵惟外高祖錦湖公，以行誼聞，其長子，諱德明，字曰克之，筮任金吾郎，旋已之，放迹湖海，卓犖傑魁人也。是爲嘯浦。第二諱德俊，字曰大之，官知縣。第三諱德潤，字曰有之，亦曰誠之，官殿中。俱爲困齋鄭氏弟子，篤學力行，錦巖錦峰其號也。嘯浦詩格超邁，有聲當世，今其遺什，只有古律絕句近體長作，摠五十餘首，及賦二書三疏一而已。錦巖錦峰，講磨斯文，所著於文字間者，宜亦不少，而錦巖疏一書一戒子文二而已，錦峰疏一書七五賢祠揭虔文一次東岡韻語一而已。蓋當己丑禍，兄弟竝投極北絕域，已又有龍蛇寇亂，三千里流離顛沛之際，六七年兵革搶攘之中，平日文字亡失，固已盡矣。嘯浦以萬曆庚戌歿，錦巖之歿先六年，錦峰最後歿，距今百有二年。其詩文之僅存十一於千百者，得追拾於百餘年之後，將不至全泯于來世。嗚呼！此誠可感，亦可幸也。凡古今人文集行于世，多者累數十卷，小者一二卷，或不過零章瑣篇，附傳遺事間焉耳矣。至於頌其詩讀其文，以觀其人論其世，則不以累十卷而有餘，亦不以數篇而不足。如世所珍三賢珠玉一卷，其人平生，亦足想見，奚必多之爲貴哉。一櫝可以識大鼎之味，信乎其有是也。試以斯稿，概之嘯浦之言，個儻自奇，錦巖之言，懇實有倫，錦峰之言，貞確不苟，其本之以孝弟則一也，庸非共氣而生得乎家庭者爲然歟。且觀書翰所與若梧里困齋鶴峯東岡久庵漢陰愚伏茶山睦承宣，諸賢德其人，而所論下無非出於義理，是豈可以等閑視也。噫嘻！己丑之獄，亡論朝紳，卽林下藏修之士，竝被羅織而死。當禍網之餘，先有錦峰乙未疏瀝血數千言，爲亡師訟冤，竝及一時群枉，備盡奸人乘機陷害狀。繼而有嘯浦丙申疏，言回天意結人心之道，申申於雪冤泉壤，仍獻勵志禦戎策。又繼而有錦巖己亥疏，言益激切。此非特師生之義，所宜爲也，是非所在關係世道，可以質諸鬼神而無疑。後之欲知己丑事者，於此三疏，其必有感慨而喟然者矣。竝書之以爲三稿合部序。

崇禎丁丑后八十五年壬寅孟夏初吉，外後屬三世孫八溪鄭重元謹稿。

嘯浦錦巖錦峰三稿合部序【二】

言者，身之文也。行著於身，故言炳以文。揆元都卒，直在穀貽而正養，可以卽辭而觀道。迺今於錦城羅氏嘯浦錦巖錦峰伯仲叔遺墨合編也，竊有所三復而歎仰者。蓋其胚胎前光，生長食息，不離於錦湖公篤守天經之典刑，耳濡目梁，不學而能。其推衿於郭忘憂之偉節，被其薦剡於穆陵問帥之日，鏤膺於鄭困齋之正學，或稱高明可畏，或稱間世人物。是以行餘之學，根茂於宣志，膏沃於屬辭。暗中摸索，知其流出於德肚義腸中，非詩人文士口氣，忱哉！呂侍講所謂人生內無賢父兄，外無嚴師友，能有成者鮮矣，與夫鄒傳所謂誦其詩讀其書，不知其人可乎之益有味也。若戴記所謂先祖有善而不知，不明也，知而不傳，不仁也，則有兢兢乎揀珠導玉之二裔子。錦巖曾孫上舍斗冬，廢舉讀書，唯先事是任無鉅細，必宣著後已末。乃懼話言之寄赫蹄者，日就陞沒，居然使殘篇嚙簡，壽之棗而貴之楮，要內從鄭寢郎重元弁其端。鄭君素富家學，以自出序列，始卒以偶儻懇實貞確，欽其言如其行。以黨禍寇難，慨其文之亡失殆盡。以爲亡師訟冤，兼伸群枉，備陳己丑奸人乘機陷害狀。益激昂，其鼎峙三疏，辭嚴意正，世道所關，神理可質，噫噫！豈但是哉。浦翁拜先壟詩，勵志禦戎策，孝範忠模，義貫神明，巖翁誠子文，峰翁祭兄文，義方友悌，道盡倫類，亡論大鼎一爨吉光片羽。卽蜀道詩之泣鬼神，過江文之敵公卿，祇藝焉耳。吾人事業，不在文章功名，不必區區軒輊其間。唯時不幸，早墜禍網，終沈下僚，使競爽才學，皆不克展其一二，覽斯文者，其亦有餘感也。余於二君，友而畏之，則悅是舉也。敢藉手不腆一言，粗效晚生餐風味道之景懷焉。

崇禎後再癸卯十月上浣驪興閔昌道。



《嘯浦遺稿》

《錦城三稿》

五言絕句

題林滄浪子定忞新齋

江山生子定，子定生梅花。
相生不相克，和氣自成家。

贈朴進士

飲量傾滄海，詞鋒敵項王。
如何老益壯，不勝鏡中霜。

次朴進士韻

日暮碧山裡，無人來往鞭。
夫君意閑適，於此興悠然。

醉吟

白鷗見白髮，自謂影中渠。
飛來不飛去，我亦世情疎。

戲題

羲皇氏不死，太古風長吹。
可笑何爲者，謂余生此時。

乘舟偶吟

月似天皇目，山如孔子仁。
片舟過江水，吾亦武陵人。

詠琴

一曲生纖指，歸雲遏夕陽。
伽倻山下日，應在老仙傍。

贈人

君曾紫霞客，我亦何爲者。
日暮落梅花，草堂雲欲下。

江亭卽事

風靜江湄草，魚耕月下波。
夜寒愁不寐，煙外起漁歌。

偶吟

莫問何爲者，吾非天上仙。
湖山盡圖裡，長對白鷗眠。

訪金生不遇留詩

屋上烏猶好，況逢松下童。
童乎傳我意，明月釣臺中。

有感

隴上老諸葛，渭濱少太公。
如令虎能嘯，冽冽起長風。

秋思

夜怨生秋葉，蕭蕭月欲高。
相思不相見，白盡鏡中毛。

詠松竹

苦竹今蘇武，長松古伯夷。
幽軒多勝已，何用費追隨。

七言絕句

寄舍弟

關雲迢遞雁無情，何處孤城憶父兄。
殘燭夜深霜葉響，夢中池草不能生。

次鄭提督仲愼詳韻 二首

自喜人間苦惱逃，秋風紅染勝春桃。
竹床幸得瓊瑤句，底暮吟來不覺勞。

住龍海曲十年逃，頭戴綸巾手種桃。
遙望白雲迷去路，欲尋仙境不憚勞。

謹次嚴君韻贈尼山韓忠義應夢

山樓驚見魯城面，欲道相思無夜眠。
忽忽不曾開一半，紅輪已輾曙霞邊。

大安書齋奉侍嚴君聽琴詠詩以獻

積雨晴來暮色開，南山新翠接庭槐。
蜀琴又奏瑤池曲，方朔三千屬一杯。

嚴君次韻

齋樓雨後一樽開，正是浮嵐捲翠槐。
霽景入眸吟不盡，鳴琴端合倒千杯。

曉起

蝴蝶爲周翩翩然，去來黃帝伏羲前。
鷄鳴怕聽人間事，喚起山妻問有錢。

山家卽事

山人無事臥山家，日暮秋山山意多。
乘興忽然磯上坐，白鷗明月滿滄波。

寄林閑閑亭坦

鶴唳未聞林下空，出門莫辨烏雌雄。
歸來相與白鷗語，明月疎煙水鏡中。

山家夜宿

山鳥驚栖月上天，江南孤客宿風烟。
前峰寂寂寒生骨，松露無聲暗滴泉。

醉吟

伏羲生在深樽裡，人首蛇身見我言。
可笑屈原何許者，獨醒江畔賦黃昏。

客中偶吟

詩書灰燼寶刀絕，萬里行裝有幾餘。
只將春風千里去，到頭花柳故園如。

閑中詠懷

生於人世爲男子，莘野孤山不可兼。
獨訪梅花霜夜裡，一天明月照茅簷。

題靈藏師詩軸

人曰靈藏我曰師，十年前歲以書隨。
風埃一隔山寮月，雪面青眉夢見之。

到法泉寺寄太守

海客天遊到梵宮，萬重紅錦擁前峰。
風流太守佳期在，桂樹叢中思不窮。

飲僧酒到茅亭醉

傾盡梵宮竹葉樽，夜深隨月到江村。
白鷗同宿風煙裡，天上潮聲繞枕喧。

五言四韻

塞上契軸圖

壯士生於死，樓舡擁兌戈。
爭爲晉祖逖，共據魏山河。
倚劍鯨鯢泣，飛觴草木和。
龍眠傳勝事，豪氣滿滄波。

挽左相金斗巖應南

宗社存亡日，臣民生死時。
棟樑忽自折，大廈竟誰支。
海域雨初霽，江城風更吹。
山人無限哭，不獨爲吾私。

醉贈姜汝寬德輝二賢【德輝 姜僉正 鳳覽 表德也】

廖落草堂暮，悲吟雲漢章。
白扇有佳客，青眼照寒塘。
開瓮春生酒，談兵劍欲霜。
如何去忽忽，江渭夢蒼茫。

次凌虛亭韻【亭在州之伏巖川上】

客來大江口，月滿秋天清。
但見白鷗面，不聞環珮聲。
雲飛山欲動，浪蹴石如輕。
非子吾誰侶，閑談箇箇情。

題留仙堂【堂在伏巖】

秋七月既望，客來江上家。
主人臥沙月，宿鷺傍蘆花。
彭澤園中柳，孤山雪裡槎。
明朝更回首，西見赤城霞。

以嚴君命代次牧伯任公允臣韻

鳧舄辭琴閣，飄然水石間。
煙霞脩逕靜，樽酒小齋閑。
白日天何迥，青秧野自寬。
殘民揚素髮，雙手拜華鞍。

偶吟

小齋如太古，獨坐夕陽天。
銀界金剛雪，氷紈玉井煙。
光風洒白日，霽月照寒泉。
俯仰吾無愧，琴書穩送年。

別俞正字

離親赴雙闕，千里戒宵征。
豈爲功名重，非關宦路榮。
於三事如一，所在義當誠。
衰病林泉處，臨岐不勝情。

七言四韻

次靈岩太守詠月出山松韻

屋下長川屋上峰，苔扉寂寂傍寒松。
十年風雨藏明月，三代徽音托遞鍾。
銅柱壯心猶鑢鑠，草堂衰髮已髩鬆。
在天窮達吾何管，倚伏還將付塞翁。

次詩軸韻

兄乎弟也六賢僉，友愛衷情到老添。
大志共期顏氏學，一心相慕伯夷廉。
滄浪曲罷漁人笑，白雪吟來郢客嫌。
衰病已酬林下計，草堂梅竹亦云兼。

五言古詩

白叟歌

白叟白如雪，白叟天下稀。
世人不好白，白叟何所依。
江湖秋月白，白叟可言歸。

上丘墓有懷

豐容不更覩，體魄猶在茲。
宿草非吾家，況復雨露滋。
痛哭拜晨夕，警咳願聞之。
闐闐竟無語，爺乎知不知。
生前負昊天，此日將何爲。
遑遑不能及，慟切蓼莪詩。
所以古之人，墓下長相隨。
結構於此地，此意良以悲。
湖山雖信美，亦足添漣洏。
朝朝上丘塚，欲去還躊躇。
庶幾侍閭閻，一見平生儀。
伊我誠未至，何能有格思。
獨將遺體歸，落日下茅茨。

北池塘

遠客睡初醒，雲山曉更碧。
蠟屐任所之，得此西山瀑。
初疑白龍橫，滿壑風雨作。
還訝海蛟來，長綃掛香木。
散盡萬斛珠，削立千層玉。
冷冷清我耳，淡淡悅我目。
暫憩山水間，却愧風塵跡。
偶然見三人，共醉溪邊酌。
今朝一場話，遠勝十年讀。
僕夫莫催行，我有愛山癖。

醉贈姜汝寬德輝二賢

有水非清渭，雙來少太公。
綸巾老諸葛，迎入草堂中。
說劍龍潭渴，談兵虎穴空。
風驪過坦道，雲鵲下危峰。
余固山中主，君胡野外翁。
千盃不成醉，雨雪暗西東。

五言排律

贈友人

梅菊真元氣，琴書僞拾遺。
相邀三代下，共坐五湖湄。
說劍白猿死，談兵黃石悲。
誰憐身在邈，自惜數逢奇。
卞淚何堪洒，齊竽不肯吹。
青山棲病鶴，綠草臥風驪。
落落松千尺，蕭蕭桂一枝。
優游聖明代，歌咏太平辭。
豈是風前麝，依稀谷裡芝。
茅齋夜深處，苔塢月沈時。
欲奏陽春曲，還題孟浩詞。
能非長往者，寧不靜言思。

七言古詩

感懷偶吟

劍閣平地，平地劍閣。
崑玉燕石，燕石崑玉。
清海起秋風，狂濤駕銀屋。
李白忽騎鯨，冤氛薄蒼霄。
居伊洛谷口翁，長相思夜迢迢。
迢迢不可見，鬢雪自蕭蕭。
尚寐欲無訛，耿耿逮明發。
人皆勸我醉，未醉青山夕。
不樂何爲長鬱悒，白鷗黃鶴本無心。
孤山亭上餘明月，一逕寒梅盍往尋。

感懷詞

人生到老寧不悲，落葉秋草獨掩扉。
豈特世人之不問，抑亦至親者亦疎。
所以淵明息交翟公大書，萬重雲壑永言歸歟。
江齋寂寂，山月蒼蒼。
白鷗兮飛來，長與君兮徜徉。

送邢軍門玠還京師

皇帝二十有七載，將軍無事還京師。
小國寡民帝所憐，臨歧欲贈將何詞。

我朝宗社二百年，禮樂文物遵華儀。
皇恩隨處寰宇清，準擬長占昇平期。
憶昨壬辰春二月，正是吾君垂拱時。
唯聞絃誦滿庠序，紛紛兵革何思惟。
誰知島寇梗皇化，坐使東域生瘡痍。
千艘一夕飛渡海，倏忽王城風雨吹。
廟堂無暇子房籌，沙場未及陳平奇。
兇鋒到處血漂杵，千村白骨填空基。
蒼生生死不可言，子子君臣何所之。
萬里龍灣賦式微，塞雪關月堪淒悲。
吾王至誠感帝衷，豈待秦庭包胥飢。
詩書老將忽登壇，虎頭猿臂真英姿。
胸襟卓卓藏萬兵，禁中頗牧非公誰。
倚劍南山走白額，彈弓橋下驚蛟螭。
帝曰汝往征不軌，蕩平扶我東藩危。
桓桓出師三十萬，金戈耀日爭奔馳。
赫赫皇威動九州，三軍壯氣凌蠻夷。
嘉猷幕中有劇孟，列戟門前皆虎羆。
黃巢不覺下床泣，石勒何敢金甌窺。
八載妖氛一時捲，自是帷幄神謀施。
馬援休誇銅柱功，韓愈莫撰淮西碑。
萬姓歡呼拜稽首，咸曰堯舜臣臯夔。
旋師應荷寵渥優，想見華鉞增榮滋。
聲名豈獨走卒知，鴻功竹帛傳無虧。
自此梯航通四海，可使一世回雍熙。
書生亦忝恩化中，舞蹈更唱菁莪詩。
思將一言達九重，借問皇朝知不知。
我王初非失其德，宵衣丙枕多憂思。
獯鬻侵幽亶父移，不是人爲天實爲。

自然而盛自然衰，盛衰權柄其誰持。
伊昔遼城却虜騎，莫道吾國無男兒。
南山峨峨漢水明，古來英傑生於茲。
興亡遞代人事變，後有庾信前乙支。
何況如今我主聖，網羅巖穴賢無遺。
豈無良將志死綏，利兵勁卒紛相隨。
嗟嗟國運極濛眊，一敗釜山兵自疲。
屈膝讎庭無一人，若非培養能如斯。
公歸倘記此意否，天子有問無虛辭。

七言長篇

一將功成萬骨枯【萬曆己卯進士入格】

我思三代不能回，目擊青史興長吁。
周秦以後數千載，紛紛戰爭何時無。
古來名將各立功，幾教萬骨翻成枯。
敵愾初承闔外命，仗劍登壇心膽麤。
萬里妖氛擬迅掃，自謂天柱吾當扶。
爭雄鬪智勢犄角，兩壘風雨三軍呼。
雷騰電過號令嚴，劍頭洒血皆無辜。
然後將軍樹大勳，姓名各入雲臺圖。
貪功爭出玉門關，勞勞不覺窮伊吾。
青海城頭白骨高，班超聲價驚匈奴。
三邊白首李飛將，一時功業堪葫蘆。
長平一坑四十萬，白起難爲真丈夫。
莫道江東孫紫髯，況數鄴下曹黃鬚。
銘功彝鼎何足貴，百戰之餘身亦枯。
不戰而勝世無將，可憐魚肉吾民愚。
至今沙場風雨夕，啾啾鬼哭于雲衢。
爲語多少成功將，聽此寧不悲來乎。
願言吾王舞干羽，一格有苗彤墀趨。
休令將士責奇功，要使同胞全其軀。

三年笛裡關山月

玉關風淒雁聲酸，瘦馬夜飲長城窟。
霜翻白草鐵衣寒，一千里外三年卒。
淒涼笛裡月又何，一夜白盡征人髮。
傷心之色斷腸聲，分付西風恨未歇。
龍輿何處賦式微，薊門腥塵迷舊闕。
家山遙指淚眼邊，萬里關雲夢恍惚。
南園綠草西山雪，碧海茫茫魚信沒。
擣衣幾處杵霜月，半是香閨夢白骨。
黃沙磧裡箭滿眼，鬢上光陰付馳突。
天山未聞早掛弓，凱歌何時定胡羯。
天涯洒盡三載淚，最是傷心笛裡月。
聲聲悲雜隴水咽，塞雲淒迷魂斷絕。
臨風咏罷思歸篇，獨鳥去邊陰山兀。

望帝春心托杜鵑

秋深華表鶴悲弔，歲暮南塞猿哀吟。
憑知物性有自來，更憐杜宇鳴春林。
何年望帝去國愁，暗入東風無限心。
蠶叢幾歲隔秦煙，有屍忽報來江潯。
天人歸命豈無以，禪受此日辭君臨。
金甌已落鼃靈手，故國風日悲難禁。
豪華寂寞楚雲空，舊遊何處春光深。
淒涼無復御楓宸，可憐往事隨烟沈。
翻將不如歸去恨，悠悠付與江南禽。
江南日落樹依依，韶光蕩漾烟陰陰。
繁華舊習未全除，夜夜長占花間音。
羈魂零落去無期，故山煙樹空森森。
龍樓鳳闕蜀天西，落花芳草何由尋。
春來春去年復年，最驚歲月空駸駸。
梨花雨歇夜深後，銀蟾不許雲侵侵。
多情一任啼不歇，聲聲欲裂蒼山岑。
三巴添却老杜心，到處沾盡愁人襟。
啼時只管訴前冤，哀怨不啻雍門琴。
山中今夜客懷孤，聞爾不覺愁難任。
誰將哀響入清商，遺恨綿綿傳至今。

好鳥不妄飛

天風彩鳳上千仞，飄飄六翮無人鞭。
清霜孤鶴下青田，迢迢逸翰超危機。
憑知好鳥擇飛止，遠害靈心先炳幾。
棲息寧同栢梁燕，高超肯顧稻粱肥。
王孫牆外不相隨，紫陌芳樹何曾飛。
生涯青嶂白雲邊，飛去飛來知所依。
山風溪月好爲隣，將身不向紅塵歸。
幽盟長占自在遊，半空毛羽生光輝。
鳥道何憂罹人射，長物不畏君王威。
翻思避禍人與鳥，全身一理無相違。
君不見，秦法初成鴻已舉，商顏風日烟飛微。
又不見，富春山中鳳不出，羊裘半脫桐江磯。
嗟彼謀生競貪餌，却忘前程羅四圍。
紛紛飲啄不知避，罔墜網罟從來稀。
臂鷹東門寧復得，孤鶴華亭嗟已非。
興懷有咏彼何人，萬古未免聯珠璣。
我今山林學好鳥，題詩一嘯扃柴扉。

賦

臨河歎

天生大聖人於天下，爲天下也，豈特爲繼往開來。肆聖人以天下爲己任，環其轍周流乎八垓，臨河上不濟而有歎，想聖心寧不悲哉。聞趙國之有君，庶此道之或施，將遠逝而無疑，求矩矱之相宜，如用我者有之，化期月之可期，忽聖行之臨河，斯有感於洋洋。噫！趙君之令名，有前後之乖張。世澆澆而數化，惟芝蘭亦不可恃，戕股肱而莫悟，夫何足與有爲。既枘鑿之難合，來違棄而改求，折方長而傷人。猗猗兮不留，覆巢卵而不惜，鳳凰兮高飛，回聖車而復路。究厥志則可悲。顧天下兮皆趙，孰信修而慕之至。欲赴公山佛盼之召，殆天之所以責聖人者，如斯之陳之蔡而遑遑，可笑楚狂之何如。有其德無其位，雖一時生民之無祿，刪詩書定禮樂，實後世儒學之所托。仰夫子於千秋，山高兮水深深，想當時臨河之起歎，尤有所憾憾於余心。若簡子賢而有誠，迎夫子於其地，夫子果渡河，臣事其能，使簡子回至治。簡子之爲政也非仁，寧容夫子於終始。殺一良輔而自智，所謂地醜而德齊。天不使大德而君之，宜聖人之棲棲，寄聖懷之無處，托河水而興思，以聖德不遇時如此。嗟！後來不知命者，宜鑑于茲。

參來不納門

聖門高高，洞開豁然，威儀三百，禮儀三千。回也賜也之函席，胡爲乎參來斯不受。豈踐履之不足，寧篤實之或少。想君子之教訓，又一層於千層。伊孝子之至情，惟親意焉是承，苟兒罪之當笞，敢疾怨於流血。倘親怒之乖義，致毀傷之斯酷，豈此身之足恤，恐不慈之有言，故大杖則宜避，全父子之至恩。當憤氣劇於炎天，而慈天不暇容，思在子道而善處，俟清涼之有時。無所逃而待烹，雖其恭之可，尚曰大孝則未也。仰虞舜之浚井，原聖賢之處變，判魚熊之取捨，以聖門之高弟，胡不審夫此理。推養志之至意，只順旨以爲義，宜聖人之有責，示十分之加勉。然人子之事親，有所造之深淺，避大杖之聖訓，若曾子則可也，在凡人而差失，罪不順之難赦，盍反察於其誠，嗟！後來之人子。

與洪兵判書【己亥三月】

前於塞上，始副一識之願，只緣去留忽迫，未討山斗之懷，南北年來，敬戴常切。去年夏，某避賊流轉，僑寓於漢濱，傳聞令駕在城，準擬尋拜門屏，以酬景慕，而生持孤時也，不敢以衰經冒駭令視，杜門旅榻，徒增傾係。及其賊退還鄉，非但川原浩渺，顯晦殊迹，披承無路，奈何奈何？生前月初，過了禪事，寄身無地，於先墓下，構草三間，以爲終焉之計矣。第念南州一經兵火，物力如掃，未知天朝長留戍卒，以護我湖嶺否乎。皇恩有終，雖使屯戍長年，天兵糧餉，何以贏了？兵連八載，子遺生靈，膏骨殆盡，其勢決不可支也。比如有一人，居在僻地，歲受強盜之侵，其家長子弟，束手無措，唯賴隣人之來救。噫！隣人之誠有限，盜來不止，則必至於亡家後已。父子兄弟，相對涕泣曰：“此天也數也。”歸之於天也數也，而曾不爲修垣牆備弓劍，以固自禦之策。今我國家之勢，正類是，焉何者？兵力不可長借於天朝，而凶寇之患，無歲無之，則以兩南些少餘民，將復如何？防戍長策，無過於保民一事而已，保民一事，雖曰老儒陳談，陳談之中，自有活法。想閣下亦已斤兩有的，生何敢喋喋煩舌？但屏伏天涯，目見時事，病民一弊，不可不革，而生時遇執政，力爭不已，執政暗於自智，前年如是，今年又將如是，必使國脈日至傷敗，其在有識，孰不長吁？唯統制監兵水使，調度諸衙門，各設屯田，或以閭閻中碌碌者爲有司，或以軍官之貪虐者爲差官。星布州縣，民田之十，屯田居五，曰統制使，曰兵水屯田。名之曰屯田，則無徭役無煙戶。故民爭趨之屯田之所，便成一衙門，所謂差官有司之輩，行胸臆作威福，當耕種時，役村氓如家奴，及其秋來收穀也。納于公，僅是十分之三四，皆以爲肥己之資，不特此也。甚者指私田爲屯田，專廢貢賦，許多收穀，晏然享之。惟其如是，故貢賦徭役之民甚艱，而守令劫於上司之威，屯田處居民，則不敢下手屯田，有司之權，反出於守令之右，此所謂首顧居下，可爲長太息處也。爲今之計，當急罷諸衙門屯田，使守令掌其民均賦役，惟務於勸民力農，俾無陳土，則民必有餘穀矣。民有餘穀，則其爲軍國之需，豈不有餘裕哉？以之爲守禦，民不苦其兵革，以

之爲征戰，民不畏其鋒刃，古人手足枝葉之喻，果如斯歟。向所謂防戎長策此也。伏願閣下，特以此意，發議於備邊司諸會之中，速馳星關，罷屯田於未農前，使斯民各田其田，使守令均其賦役，以植國本，千萬幸甚。屯田如不得已，而必欲爲之，則依趙充國古事，以管下軍卒得陳地耕種可也。生又聞村巷之言，願罷屯田諸差官有司，待秋成，田一結納穀一石，以充屯穀云云。此不屬屯田之民，苦其徭役之偏。又困於差官有司之侵，而有是計也。生遠在山野，不能無漆室之憂，敢具民間疾苦之狀，以瀆嚴威，不審閣下之意，以爲如何？倘無以人而廢其言，則國家幸甚，生民幸甚。

上左相李梧里元翼書【庚子春】

前於旅館，始遂一識之願，而蒙相國不以布衣鄙薄，賜語溫款，見遇殊常，生感激于心，不知所報。竊矚台意，塗炭生靈，血誠拯濟，神相南州，王命體察，務去民瘼，以固邦本，相國之仁也，扶植文教，振起風化，相國之智也。生雖無識，敢不欽聳。且以生比數於人，而有欲聞者，山仰之懷，到此益重。惟保民一事，相國與諸執政，商確斤兩，已有成算。迂闊書生，何敢容籌。如欲聞士之仁者，則生亦有言。第念南士之某也孝，某也賢，衆人之所共知，相國之所嘗聞者，不一其數，而愚則以爲有名者未必皆賢，無名者未必皆愚。伏以相國德鉅而智高，尙賢而與能，漢江以南，旣化而行矣，誰得以青黃之士，誣薦於大人君子耶。雖或有之，明鏡之下，妍醜自別。如生無狀，幸叨台門，若徇私以告之，則義當見絕於門下耳。生之所欲薦者，人不知而實有餘者也。幽蘭在谷，清風不吹，暗香誰聞。生之友李有慶，幼有志操，長懋學行。生十年同榻，肝膽如己，果忠孝篤實士也。不喜交遊，唯事親盡誠，定省之暇，手不釋書，經史子集，無不通曉，年踰五十，不霑一命，亦聖代之所恥也。羅德顯，生之弟也。一心皎潔，嫉惡如讐，杜門讀書，不求人知，家間孝友之行，兄也未敢言，而就卓卓。在人耳目者言之，則己丑冬，梁千頃輩，聚黨封疏，謀陷賢相與士流時，德顯與其弟德憲，撞入其會，大言排之，千頃等，并入疏中，至【恐脫請字】拿推。其時委官聽千頃之嗾，照謀沮封疏，律竄配北關。

金令使誠一氏，常服其義烈，稱道不已，相國亦嘗聞乎？惟相國必欲聞篤實之士，故生體古人舉子之義，輒冒言之。茲二人實無名而有行者也。倘相國引而致之，密加識察，則必有嘉獎之心矣。生誠不忍明珠穢沙，欲收入於相國之篋櫝，是亦仰德之私衷也。不審相國之意，以爲如何。

與鄭參奉書

頃於山寺，既醉以酒，又飽以德。時輸勝讀之語，頗有喚醒之，益感極于心，謝不容口。但論聖學一段，愚竊惑焉。聖一也而有生知學知。生知者，堯舜周孔也，學知者，禹湯也。其曰：“克念罔念。”皆自學知上說來，若生知則，安有這工程也？視聽言動，渾然天理，何敢以四勿下於其間。前者聖人，亦有把持處云云，似涉主敬工夫。此學者收拾身心，主一無適，極致事物。何者天理，何者人欲。擇執固守，以爲作聖之關鍵也。生知之聖，則自誠明者也，藹然天理充積於內，發皆中節，而敬在其中。故在父曰孝，在君曰忠。比如天地之誠於穆不已，四時寒暑，聽於自然，無一毫經營上意思，而非敬，則梨樹桃花，桃樹梨花，有錯雜無序之失矣。然則於穆不已，而草木各得其正者，天地之誠敬也，發皆天理，而事物不舛其位者，聖人之誠敬也。不主於誠敬，而誠敬自行，此自然而然，無爲而爲者也。寧有管攝此心，不使放下，如學者之敬乎。若曰聖心，專無主宰，則把聖人腔子，歸之於空殼也，何足與議。惟老兄所論，聖人亦有把持處云云，以愚思之，未免有居敬思勉底意，此學知也，禹湯是也。禹湯反之，及至渾然，則亦無把持上手段，把持者，學者事也。如顏子三月不違仁，三月之後，如水欲波，便即把持存養，以此之三月之內，則顏子亦在大化之域，頓無把持者矣。況生知聖人，如周孔者哉。且有一說，堯授舜曰：“允執厥中”，舜生知也，堯言雖不及此，舜豈不的然有獲。以天下受授，聖人相傳之道，當如是也。舜授禹，復益之以三言，皆慎思明辨擇執固守之學，始於此矣。然禹反之之聖也，精一之意，何待舜之告戒而知耶？舜之如是云云，亦聖人相傳之道也。若以此指禹有主敬工夫云爾，則曾謂禹爲傳道之聖乎？生知學知，及其成功，則一也。聖人者，事物之上，天理流行，自然之

敬, 存於其中, 其有攝而主之之功哉. 故曰: “聖人與天地合其德, 鬼神合其吉凶, 日月合其明.” 外此則不可言聖人也. 老兄之知, 非不到此, 而第聖人無不把持處說話, 近於學者主敬之事, 故敢陳燭火之見, 取正於左右. 伏冀勿鄙夷之, 特垂清誨, 以開茅塞如何?

丙申封事【宣祖二十九年冬，金吾郎散居時。】

伏以國家之興衰在於人，人心之向背應乎天，天必眷顧，然後足以保定爾邦，而無人心渙散之憂，人必歸心，然後可以迓續乃命，而有天意助順之理。是以苟回天意，則克戡大難，而轉禍爲福之機在乎是，苟結人心，則可使死長，而制敵雪羞之策在乎是。然則戡亂之方，莫先於感回天意，制敵之道，莫切於固結人心，而人心之固結，天意之感回，惟在於人主之一心耳。臣等以此兩說，眷眷於今日者，惟我國家，天降大割，島夷乘之，三都繼陷，七廟蒙塵。幸賴睿謨撥亂，已覩寇退之日，則中興之慶，維新之化，庶幾見之，而天不厭難，鯨鯢未翦，兇謨益肆，亂未有定，則可謂天意之感回乎？登城泣血，誰奮死綏之志，臨戰浪坼，爭懷棄甲之心，則可謂人心之固結乎？天意未回，則雖有百萬之衆，猶不得濟其亂，況我國家，初無百萬之衆乎？人心未結，則雖有可勝之勢，固不得成其功，況我國家，時無可勝之勢乎？然則爲今之計，莫急於回天意結人心而已。何以則感回天意耶？嗚呼！蒼然於上者天也，眇然於下者人也。高卑懸絕，視聽莫及，初若不相關，而一理之相感，若家人父子，人之氣和，則天應之以和，人之氣乖，則天必應之以乖。故凡國家災孽之降，莫不由於一夫之含冤，則天人相感之理，焉可誣哉？焉可誣哉？往在己丑，逆賊鄭汝立，挾王莽欺世之才，詐陸棠假善之名，一國士類，盡爲所欺。或有知其名者，或有見其面者，而不知厥心之不軌也。貫盈之罪，難逃於大明之下，凶謀巨惡，一朝敗露，則一時受欺之士，莫不心驚骨痛，而憤大賊瞞人之惡，悔自己不明之罪，則其所謂知其名見其面者，豈盡爲逆賊之黨耶？聖明在上，鑑衡自正，睿念常軫於玉石之俱焚，愼簡益切於要囚之不蔽，則豈有含冤痛於清明之下哉？第以奸臣鄭澈以狠愎之資，懷慘毒之心，外假譴浪，內實猜忌，爲清議所不容，常有怏怏憤憤之心，陰俟其隙，欲一肆毒於必報之地，及聞逆賊出於搢紳之間，自幸今日可遂吾志，身爲按問之任。乃成網打之計，以公法爲復私讎之陰奔，以王獄爲殺無辜之深坑。平日之少有睚眦者，率以錄置囊中，有罪無罪，蔽九重之聰明，生之殺之，以一己之恩怨。倘非聖

鑑如日月之中天，一世之忠賢，必將無遺類矣。可不寒心哉？可不寒心哉？嗚呼！一時之抱冤就死者，不知其幾許。而以臣等所居一道之最爲冤痛者言之，則鄭介清踐履真實，立腳堅確，不倦不厭，闡明義理，有大造於斯文，而洞見奸澈誤了一世之狀，常有巷伯惡惡之心，則澈之含沙者非一日矣。柳夢井性稟耿介，行篤孝友，入朝無苟合之態，臨民有清謹之實。一居風憲之地，便折奸孽之萌，則澈之切齒者，爲如何哉？李黃鍾，天資篤實，識見高邁，一心好善，嫉惡如讎，而初與奸澈爲蔥竹之交，及其中年，見其奸怪之狀，斷然絕之，一不相接，遂與崔永慶，托爲心契，則澈之平日所忌而欲殺者，永慶也。黃鍾棄澈而取永慶，澈之含憤，固其宜也。曹大中，爲人慷慨，立志清苦，不曳權門之裾，每澈拒奸之論，孤立一道，衆口咻之。及其佐幕，澈家在近，亦不經過，而其所斥言而不諱者，皆澈之惡，則逢彼之怒，無足怪也。噫！氷炭不同器，邪正不兩立，故小人道長，則君子道消。以直道難容之君子，逢射影肆毒之小人，則雉離之禍，豈能免於道消之日乎？是以小人謀殺君子，或造無根之說，或構不測之言，殲滅無遺，必至空國而乃已，其爲計慘矣。嗚呼！介清節義之說，據先儒已定之論，禁後學浮誕之習，而澈也嫉其黨類，於其所著說上，任加排字，名之曰排節義，終致竄死於朔北之外。夢井與逆賊，雖曰同道，既無親厚切近之分，雖曰見面，又無交遊往來之好，而澈也挾平昔異己之憤，逞今日報怨之謀，目之以與逆賊交厚，竟令殞命於杖下。黃鍾與永慶書，以澈爲老奸，以澈爲怪鬼者，只是的見其老奸怪鬼之狀，而發之於書辭者也。曾不是知名見面之類，又不出於賊招，而澈也忌其心術之呈露於君子之正見，只憑一片之書，重加慘酷之刑，使之就死，莫白其情。大中與逆賊，既無同朝之臣，雖有識面之分，元非交厚之間，則必無哀死之心，況於逆賊之死，豈有悲傷於人人所見之處乎？澈之徒黨，承望澈意，捏造無形。或以爲爲賊涕泣，或以爲爲賊行素，令其無辜，斃於淫刑慘矣。小人之構殺仁賢，至此極也。嗚呼！古今天下雖有士林之禍，豈有如今日之冤也哉？昔者賤臣叩心，六日飛霜，庶女號天，三年枯旱，則匹夫匹婦之冤，亦足以感傷和氣，致災降戾，有如此者。況今賢人君子無罪就戮者，不知其幾，則其冤豈特東海之一婦燕獄之孤臣也哉？衆冤積鬱，蒸薄于天，天氣感傷，和變爲戾，妖孽之災，疊現層出，士氣日以鎖鑼，國脈日以億毀。仍致壬辰之變，使二百年宗

社，一朝腥穢。億萬姓蒼生，肝腦塗地，兵連禍結，今至五年之久，所謂大獄之餘，必有大兵，豈不信哉？幸賴聖明，深知厲階之由，渙降昭雪之命，以永慶受誣之事，至有中夜泣下之旨，特伸其冤，褒贈崇秩。其餘竄逐廢錮之輩，竝蒙恩宥，此天地神人之福，而國家恢復之機也。然而海醜尚屯於境上，國運猶否於今日者，實由餘冤未盡雪而天意未盡回也。顧念我國之事，人心已散，兵力已竭，以如此之勢，制如彼之賊，更無其策，則所可恃而仰望者，惟天意而已。苟得天意之眷顧，則雖有莫強之敵，其於予何哉？然則凡所以感回天意者，宜無所不用其極，而感回之機，則惟在於伸冤一事而已。伏願殿下廓日月之明，無幽不燭。垂天地之仁，無物不被，洞察四人之冤，枉亟下一雪之德音，上答天意，下慰輿望。使重泉之人，爭懷結草之誠，多士之氣，益勵仗義之志，則人情已快，天意方回，而蕞爾之賊，不足爲吾憂矣。至若李潑、李洁，妄交逆賊之罪，萬死無赦，至於逆賊之兇謀異志，則恐未必知之也。臣等同在一道，飽聞潑洁一生孝友，出於天性，居家之行無愧古人。求忠臣必於孝子之門，則未有孝而不忠者也。只緣識見昏暗，未免爲逆賊之所欺，其罪則可誅，而其情則可原。潑洁之於澈也，平日水火，殿下亦已知矣。伏願殿下竝垂矜察焉。何以則固結人心？嗚呼！居九重之上，而爲萬民之主者君也，處方域之內，而奉一人之命者民也。君之於民也上下，雖【恐殊字之誤】隔貴賤遼絕勢，若不相及，而其心之相應，如風草影響。君之意誠，則民亦應之以誠，君之意怠，則民亦應之以怠。凡民心保合之要，莫不由於人主之推誠，渙散之弊，亦莫不由於人主之怠慢，君民相應之機，其可忽哉？其可忽哉？恭惟我國家，賢聖繼作，傳祚十二，歷年二百。休養生靈，撫綏涵育，維之以義，結之以仁，則其發源也深矣，植根也固矣。式克至于我殿下，聿遵先業，休有前烈，如傷之念，每切於宵旰之憂，若保之誠，累著於山東之詔，民皆愛戴，咸有不忍叛之心。邦本鞏固，已成不可動之勢，一經己丑之變，天意已傷，民心已解。及乎壬辰之賊，未侵鎬京，已有土崩之勢，禽奔獸遁，唯知偷活之計。主辱臣死，未見授命之人，至使玃狁及方太王去邠，是何我國之強，而一朝摧創，至此極也？嗚呼！城池非不高深也，兵甲非不堅利也，米粟非不多也，則聖上備邊之策，固無讓於漢文，而京師之不守，則甚於遼金渡河之日，其故何也？已散之人心，難可維係，而天亦不爲愛佑也。然而尚賴殿下弘濟

艱難，迅掃園陵，還御舊都。得至今日，庶見恢復，而狼貪尙肆，蛇屯未解。近日，又有掃境來寇之聲，京外之人心，恟恟未定，皆有瓦解之意。【恐脫宜字】及今鎮定收拾渙散之心，而流聞道路，自上亦無堅定之意，至發於傳教之際，使都下人心益致紛擾。而在外之人，亦隨而騷動，先聲所劫。猶尙如此。脫有長驅闖入之勢，則其何以禦賊，其何以守國？言之至此，不勝痛哭之至。嗚呼！聖明在上，廟堂有人，禦戎上策，必無遺矣。而草野之間，亦不無一得之愚，敢言塵露之說。【恐脫夫字】天下之事，有緩有急，當緩而急之，則有顛倒失措之患，當急而緩之，則致噬臍莫及之悔。是故當其可緩之時，則宜講措備之策，以圖萬全可也。及其事急之時，則必決一死，以濟其難亦可也。以今日之事觀之，則可不謂不急乎？古人有言曰：“事急不可徐行，心痛不可緩聲。”臣等當此危急之時，豈以爲朝廷之未發言，而亦含默於殿下之前哉？臣等聞遇非常之變，然後有非常之慶，有非常之舉，然後立非常之功。昔周宣王親執殳而薄伐，唐肅宗躬甲冑而削平。故人君當汲汲之日，必有親征之舉。然後人心可激，而天討可行矣。今此民心，若無感動激勵之方，則雖朝遣一將暮遣一將，必不能使斯民，出敢死之心，而殲彼賊。【恐脫矣字】爲今之計，莫如亟下哀痛之教示。以惻怛之誠，上告宗廟，下諭臣民。親御六飛，申令三軍，駐蹕南州，據要守險，使道內守令，各率其兵馬，其會如林，一乃心力。咸聽格汝之誓，爭奮效死之忠，則“百姓聞王車馬之音，見王羽旄之美，舉欣欣然有喜色而相告曰：‘吾王出征，吾何以爲憂？吾王在此，吾何以去？’”雖窮山僻野黎童白叟，莫不欲與子。偕作爲王前驅，則我武維揚，王威震疊，足以破賊之膽，視賊之魄，而賊酋之頭，可懸於北闕之下矣。況此湖南，物力之衆，倉庫之完，非如焚蕩之地。又有山城，天設險固，豈是三里之城七里之郭，可圍而攻之者哉？國家本根，專在於此，恢復之業，亦在於此，此地之重，豈特江淮之保障，細柳勞軍之行可臨，而澶淵却敵之駕可駐矣。伏願殿下，察當急當緩之勢，以宣王肅宗爲法，而無爲姑息之計，以作候【恐中字之誤】興之舉也。倘或衆寡不敵，強弱異勢，則宜奮哭秦之誠，請出救邢之師。合力而齊舉，則焉保彼賊必勝，而我兵必敗也哉？宋臣宗澤之疏曰：“天苟不欲絕宋，則猶可爲也。”蘇洵又曰：“百戰而勝之，人雖屈而我亦勞。”彼賊師老兵廢，天厭鬼誅。亦可遙度，不可先劫於聲形之動也。噫！少康以一旅【恐脫衆

字】中興，包胥以三戶【恐五百乘之誤】存楚。伏願殿下，勿以兵少爲慮焉。臣等急於收拾人心，殲滅賊醜，敢將寇準過河之願，以效張浚自將之請。然古人有言曰：“千金之子，坐不垂堂。”又曰：“不以賊遺於君父。”臣等亦豈敢望親冒於矢石之間哉？丹浦之捷，不必親到澈溪之征，可以汝往擇遣重臣，民所見瞻者一人，兼帶元帥之職，悉取引弓之民，聚于轅門，一以講習，無使散在諸處，以致臨時狼狽之患。又求韋布中有才智者，置諸幕下，諮諏謀猷，以相劃策，則緩急之際，庶無應賊之憂矣。嗚呼！天意有感，則必應人，人心有感，則必通天，天意之所應，卽人心之所感也。是故至誠感神，大禹見頑苗之格，哀痛有詔，唐宗回奉天之駕，信乎回天意結人心，大有關於討賊興復之機也。嗚呼！臣等以壬辰之變，爲己丑之冤所召，而必欲伸雪於搶攘之日者，自殿下臨御以來，三十年于茲矣。而少無失德獲戾于天，而有今日莫大之變，是豈殿下之故也？實是奸臣賊賢病國，感傷和氣之所致。是故臣等，以靖亂之策，歸之於感回天意，以感回天意，歸之於昭雪冤枉，而爲殿下申申焉。臣等又以致寇之至【恐有脫字】，爲人心之散所由，而必請親臨於行陣之間者，豈欲致君父於阽危之地？若非親幸撫軍，則無以鼓舞民心，而兇鋒再舉，河決蟻封，我國之勢無復可爲，而臣等之血肉於賊刃，固無足惜，未知主上何歸，宗社何依。是故臣等以討賊之要，歸之於固結人心，以固結人心，望之於車駕親臨，而爲殿下申申焉。伏願殿下留神焉。臣等俱以草野狂生，敢冒萬死，仰叫九重者，誠以係國家興亡之機耳。竊不勝愛君憂國之誠，輒忘狂僭，剝瀝肺肝。伏惟殿下特垂明察，少有採納，則非獨臣等之幸，抑亦宗社之福也。臣等不勝惶恐之至，謹昧死以聞。

《錦巖拾遺》

《錦城三稿》

己亥封事【宣祖，三十二年八月初二日，以前別坐散居時。】

伏以古之帝王，當濟屯傾否之時，不謂天意之已回，而益思其奉若之誠，不謂人心之已安，而更盡其慰悅之道。民有所抱而必使之導達，然後下無壅閼之情，冤有可釋而必爲之湔滌，然後上無感傷之患。然則不可不通者，冤鬱之情，而不可不慎者，天人之際也。今我國家否運重亨，劇寇退遁，而邊警少弛，春闈誕祥而慶延宗祚，則今日之天意，可謂眷佑矣。邦誣快辨而臣民胥悅，鎗病初起而士卒息肩，則今日之人心，可謂粗安矣。天意已回，人心已安，而殿下憂勤之念，一出於惻怛，恤民隱，而日下蠲免之令，懼天災而益勤修省之道，此政成湯與民，更始之盛心也。宜無一民一物之不被其澤，而獨有橫罹逆亂，抱冤重泉者，尙不能昭雪於此時，則豈非天人之所感，而聖明之所當惻念者乎。嗚呼！頃年，邦運不淑，逆賊之變，出於搢紳之間。汝立初非放火劫人之賊，挾王莽欺世之巧，假陸棠詐善之名，一國士類，莫不有知其名見其面者，而虛懷好善之人，最爲所誣，夫豈知窮凶大慝，至於此極也？貫盈之罪，忽出於千萬意慮之外，一時受欺之士，莫不心驚骨痛，悔自己不明之罪，而自上離明旁燭，鑑衡自正，睿念嘗軫於玉石之俱焚，愼簡益切於要囚之丕蔽，則豈有含冤抱痛於清明之下哉？第以奸臣鄭澈，以狠愎之資，懷慘毒之心，外假諛浪，內實猜忌，爲清議所不容，常有怏怏之心，陰伺其隙，以爲必報之地，自幸今日可遂吾志，身爲案問之官，乃成網打之計。平日少有睚眦者，陰嗾浮薄之輩，非出於疏章，則必發於臺論，倘微聖明如天，一世之忠賢，必將無遺類矣。當日之事，可不寒心哉？其一時抱枉就死者，不知其幾何，以臣等所居一道內之最爲冤痛者言之，鄭介清真踐履實，德成行尊，一從程朱之學，以闡明斯道爲己任。嘗患湖南之一種士習，薰染於奸澈，專務驕虐，不循義理，或自托於節義，而專然矇昧於名教，或慕效於清談，而實是貪戀於利祿。顧其歸則俱有害於世教，故介清每以是爲誤一世之害，恐爲後學之弊，而及讀朱子語類，有或引伊川之言，而晉宋清談，因東漢節義，一激而至此，朱子曰：“東漢崇尚節義之時，便自有這箇意思了。蓋當時節義底人，便有傲睨一世，污濁朝廷之意，這意思，便自有高視天下之心，小間流入於清談。”又曰：“節義之士，固非是其位之所當言，宜足以致禍。”又曰：“後

漢名節，至於末年，有貴己賤人之弊。積此不已，其弊必至於虛浮，入老莊。”又曰：“晉宋人物，則雖曰尚清高，然箇箇要官職，這邊一面清談，那邊一面招權納貨云云。”因此朱子之說，以發明晉宋清談之害，以救湖南士習之痼弊，而奸賊惡其平生心術敗露於君子之正見，陰蓄欲殺之心，而無隙可乘。及逆變之出，奸賊指喉本道無行檢悖妄如洪千璟、林檜輩，乃於介清，所著說上，任加排字，目之以排節義，托以儒生公議，上疏構陷，一時名流，盡入於其疏，幾爲打盡於一網之中。而幸賴聖上洞燭情狀，乃以疏頭十餘人拿來，將治誣捏之罪，而澈也喉臺諫沮之，反以介清所著節義說，請爲嚴刑，竟死於絕域。天地間冤痛，孰加於此乎？嗚呼！天既蒼然而無語，死者亦不得自明於九原，臣等請代死者，釋其著書之旨也。其書之首曰：“東漢節義，較以功名，則其高尚猶可以激頑起懦，晉宋清談，視之謀利，則其氣岸，亦足以矯情鎮物”云，則非訾其真節義，而只救其末之弊明矣。又曰：“源其所始，皆不知有明德新民之學”云，則節義者，卽明德中一事，明德者，乃節義之根柢也。如使人皆知明德，則臨患難處死生，知有義而不知有利，知有君而不知有身，不期於節義，而節義之高，直與日月爭光明矣。又曰：“獨善於彝倫之外，自逸於檢防之節，是衰世之所尚，而非聖賢中和之道”云，則中和二字，萬善具足，唯堯舜孔孟，可以當之。如子而盡爲子之道，臣而盡爲臣之道，以至於三綱五常，莫不各得其當，而隨處得中，乃可謂之中和，是豈捨節義而言之乎？將此數條而究其旨，則其所著說，乃祖述程朱之餘論，以培壅節義之根本，而救後世浮虛無實之弊也，至深且切矣，而反爲奸賊射影之資，至於榜示四方，以惑亂一世之耳目，可勝痛哉？嗚呼！古今天下，雖有士林之禍，豈有如今日之慘酷哉？介清白首窮經，晦跡林下，本與逆賊不相接，而歲在癸未，以四書校正郎廳，同列公座，始知其面，而旋以親病先歸，則其相知之分甚淺，而適以同僚故，以書相問者，纔二度，此不過虛懷見欺之所致，是則一時士夫不察之公罪也。其弟大清，亦嘗從事於學而行篤孝友，痛兄非辜，冀其伸雪，悲哀服喪，枯朽將死，今至十年之久，凡在瞻聆，孰不嗚咽而傷痛哉？臣等自十五六歲時，嘗受學於表從叔柳希春，希春以鄭介清爲涵養功深，宜後生師表，勸臣等亟往從之，臣等遂委己從事於函丈之間，幾二十餘年。其所誦說者，不過小學語孟六經之書，所講明者，又只是仁義禮樂天理人欲之辨，而

考其歸趣，無非爲臣者忠，爲子者孝而已，豈敢阿其所好，欲護已死之師，而欺罔聖聰哉？第念師生之義，根於秉彝之天，不忍以存亡貳其心，而妄謂師儒坐黨，實關於斯文之盛衰治道之污隆，故頃在乙未春，臣等乃敢千里裹足，訟冤於九重。自上俯採疏賤之言，乃以至論下諭，丁寧凡有血氣者，莫不聳動感泣，而第緣當時大臣回啓之辭，模糊不明，遂使聖上好善惡惡之意，不得昭布於朝野，厥後廟堂之議，臺閣之論，未聞有出血誠擔當期以必定國是者，人心之愈鬱，士論之益激，政在於此也。嗚呼！十年而必復者，天道也，泯滅而再伸者，公論也。頃幸天啓聖心，洞燭輿情，其一時被誣竄謫者，並皆蒙宥，枉死者，得以伸雪，崇秩之褒，已加於永慶，而獨於介清，尙稽恩典，豈唯梧丘之目，不瞑於九原而已？抑恐羣情堙鬱，士氣銷鑠，天地之仁至此，而不能無憾也。臣等考諸往牒，董卓之禍方張，而識者以解黨錮之禁爲先，伯顏之亂始熾，而應麟以立濟王之後爲請，一二君子之含冤，似不急於臨敵對壘之日，而古人之所以必汲汲於此者，豈不以一人之心，卽千萬人之心，而人心之向背，天命之吉凶，實有大可畏者而然歟？咸與維新之日，固異於臨敵對壘之時，而茹恨閉骨之魂，有甚於黨錮濟王之冤，則今日之急務，其不在於釋冤枉而慰人心，慰人心而享天心乎？此臣等之所以懇懇瀝血不能已者，非爲死者也，爲殿下也，非爲冤枉也，爲社稷也。伏願殿下，特採草野之言，渙發雨露之澤，使久鬱之人心，入地之朽骨，快靚青天之白日，則實扶斯道壽國脈之一大機也。伏惟殿下，留神採納焉。臣等不勝兢惶戰慄之至，謹昧死以聞。

答略曰：“初非指爲逆賊而鞫之也。”又曰：“大抵是非，當出於朝廷，爾等之志雖勤，不須每煩。”

與人書【姓名不傳。壬辰五月日，在富寧謫所時。】

頃紆一札，實值想際。開緘圭復，若承清誨。卽日夏熱爲況，神介相須。雖殷際晤，未易向風馳義，只增悠悠。三春佳節，客裡愁過，一向焦枯，神精昏憤。商量舊學，亦未爲平生之志，些子之得，到此如何？南方賊變，令人驚瞻，父

母兄弟，想何保全，食不下咽，寢不能寐。堂堂國家更安，有如此事，寧欲一死而不願聞人間消息也。貴奚入來，洛中諸奇，何以云。然海上佳會，更未謀做乎。以爲如何。

戒三子纘素繼素緯素

長乎固滯，仲也踈虛，季則陋狹，俱無見識，而亦各有氣質病痛，若不急急致學問之功變化之力，則只依舊技倆，未見有長進之處矣。而輩年近三十，尚未豎志，因循汨沒，與鄉人一樣，則父兄責望，到此左矣。古不云乎？言不忠信，下等人也，行不篤敬，下等人也。聞下等之語，爲下等之事，則汝等將作何等人物而止乎？噫！既受天質之美，又有教育之勤，未見有寸效，而歲月如流，其將奈何？至若事親之節行身之方言語之間云爲之際，只是一般俗下人，則其風節之凜峻問學之高明，更不可望矣。吾亦自少厲學，從師友講道義，未有真實工夫，時又不遇，徒有窮廬之歎，汝等戒老父，未能之悔立而志篤，乃學存心體認克己踐形，庶可以變化其氣質，而猶有所向進矣。如分外榮身，居室有便，君子恥之，非吾所願欲也。戒之警之，須以謙恭自牧，清節自厲，讀《小學》學《家禮》，以爲檢身之方。由四書達六經，以爲爲學之法，博通群書，理明義精，則何古人之不可及哉？而等若鈍頑，不可教則已矣，不足責，以質則似有可教之美，以學則稍有文理之通，今若立志，更進一步，則猶有所可望矣。不然而志不立學不篤，如是而終焉而已也，則卒未免爲小人之歸也，昭矣。參三此身，可不惜哉？願汝曹改心存省，以副老父區區至望也。顧憐汝曹，早失天只，慈而不教，殊欠嚴敬之心，無禮無義，反致違理之事，是非子之罪，實父之過也。況父雖不慈，子不可以不孝，天下無不是底父母，子之於親，孝之義大矣。如天經地義綱常倫紀之重且大者，而百行之源人道之常，所以學之者，學此而已，行之者，行此而已，求忠臣於孝子之門者，此也。汝等識見，未到此地頭，更加念之勉之。勿以吾所言，歸之於空言，則人之，而聖可學而賢可至矣。歲在壬寅，至月初生魄，老父錦巖病草，萬曆三十年也。

又

而輩年皆弱冠餘，以才則猶不逮今之人科舉之文，其何以決科榮身，以扶持我衰門耶？只是一種伎倆，天地間一庸人而止耳。然而汝輩氣稟，雖不至於清粹，亦可以有質而可學，若豎志於古人爲己之學，內以治心，外以整容，須着敬勤二字，循之以上，則操存省察，足以志伊尹之所志，學顏淵之所學，勉勉循循，勤以讀書，開心明理，敬以存養，克去己私，則庶可以覬覦古人門庭，何患乎自歸了鄉里中常人乎？噫！人之所以爲人，以渺然之身，參天地而並立，則其責至重至大，但其志不立，因循汨沒，甘爲自棄底人，寧不痛惜？吾人亦自年十八九，慨然有求道之志，不事家人生產作業，追從師友，委己從事，篤志初頭，以爲聖賢可學而至，豈意今日庸頹已甚，無復振起初心。畢竟是乾沒平生，立志之大，師友之得，到此喪盡，每中夜思之，惕然自愧汝輩。既無汝父之學，而空空如也。又病於衣食之念，衣食至微末事，不得未必死。古有明訓，年少學子，何忍自汨了這裡耶。昔子貢留心於豐約之間，而財利之害甚，至於不及顏曾，則宜後學省念處。幸汝輩超然外誘，以起新意思，篤志篤學，善繼善述，則吾雖死矣，亦可以瞑目於地下矣。願吾三子，戒之警之，毋怠毋荒。至若仁義忠信，人之性也，孝親悌順，人之行也，所以學者，學此而已，豈可外求於他乎？復以講學明理克己踐形，爲向裏自做底工夫，則實今人之古人，身既丈夫，心亦丈夫，須有望於汝輩也。汝輩戒之。

《錦峰拾稿》

《錦城三稿》

乙未封事【宣祖二十八年】

伏以書曰：“天聰明，自我民聰明，天明畏，自我民明畏。”此言天之聰明，非有視聽也，因民之聰明，以爲視聽，天之明畏，非有好惡也，因民之明畏，以爲明畏。蓋其天人一理，通達無間，民心之所存，卽天理之所在，而感之以悅，則應之以福，感之以怨，則應之以禍，其明效之速，如影之隨形，其理有必然者矣，其可誣哉？恭惟主上殿下，值國家艱危之日，痛生民塗炭之苦，慷慨發憤，恭儉勤勞，務以內修外攘進賢退邪爲己任。特伸處士之冤枉，顯斥病國之奸凶，其所以奉答天意，慰悅人心者，可謂至矣。豈非中興恢復之一大機耶？嗚呼！我朝自開國以來，邪正消長，固多反覆，至於貽禍士林，斬絕國脈，則莫甚於己丑之變。目今國破家亡之兆，未必不由於此，凡有血氣者，孰不憤奮扼腕，欲討奸賊通天之罪？而傷弓甫已，餘喘尙存，緘口結舌，鬱鬱莫伸者，有年于此矣。幸今天啓聖心，離明旁燭，辨別是非，昭雪幽枉，以紓朝野忿惋之懷，此正志士仁人，盡言之秋也。臣等請毛舉其綱，而仰塵淵聽焉。己丑逆賊之變，起於搢紳之間，而汝立初非放火劫人之賊，實是欺天罔人之奸，故在當時，博洽多聞，爲士類所推許，如李珣輩，最初交遊，推重嘉獎，而薦用清班者，實珣汲引之力也。自癸未分黨已甚，李珣失勢之後，汝立始改頭換面，趨附於東，東人既無先見之智，徒信一時之虛名，不得揮以斥之，是則未能擇交之罪也。王莽之僞恭，當時【一本無當時二字】八萬人頌其德，陸棠之挾詐，先儒信之不疑，作爲家甥，則知人之難，古今通患。若原情以差其罪，則交游稱許之責，自有首受之地，而餘當從末減之科矣。如使朝廷諧協，講明義理，必如程子並用熙豐黨之議，用人不以彼此進退，只以忠邪取舍，交契亦當以其人之賢否分別，而不屑屑於一己之好惡，公聽並觀，不有角立之端，則其遇此變也，正當各自引咎，極陳欺世之狀，無使禍及士林，是乃君子責也。鄭澈以狠愎之性，乃生媒孽之計，聚群不逞之徒，以張其勢，設陰弇以陷無辜，托公法以復私讎，挾平生睚眦之怨，盡入於必報之地，外以嗾浮薄之徒，假一道之士論，而冀惑天聽，內以囑奸細之輩，藉臺諫之聲勢，而構捏不測，思所以日夜挾攻，而必置於死地，倘微聖明如日中天，一世之忠賢，悉陷於叛逆之深坑矣，其爲計可謂慘矣。試以今日之黨禍，擬驗

歷代，實是危機敗證，是非邪正之分，自有後世之公論，唯在殿下明卞而審擇之如何，固非在野之臣，所敢知也。至於鄭介清，初非與於朝紳，而特一林下藏修之士也。爲人稟性醇篤，造履精確，闡明道學，爲世大儒，常守橫渠以禮教人之訓，九容工夫，益加嚴密，自非篤行力行之士，知而好之者蓋寡矣。故世之樂放肆而惡拘檢者，譏訶詆斥，而疾之如仇【一本仇字下有敵字】。澈以曲謹小廉，盜竊虛譽，自放於禮法之外，奔走於勢利之場，及其志滿氣得之後，則耽淫於酒色之中，所與連黨結侶者，皆是無行檢冒廉恥之輩。自知見擯於醇儒莊士之論，乃敢自托於節義清談之流，一以刑器法度爲芻狗，終至於銜浮華亡本實，貴通達賤名檢，而其智識才辨謀爲氣槩，又足以震耀而張皇之，後生之浮誕佻輕，不齒士類者，相與扇縱橫捭闔之辨，以持其說，而漠然不知禮義之爲何物，恢諧放曠，以自逸於檢防之外，其害天理亂人心妨道術敗風教者，至此而極矣。介清之學，常以程朱爲宗，目擊奸臣誤世之狀，恐爲後學之弊，敷衍先儒之論，著一說以救節義之流弊，其曰：“未知從事於聖門，而不循義理之安，張皇義氣之發，以至於亡人之國者。”實指鄭澈假托節義清談之弊也。其曰：“高視天下而傲睨一世，出乎禮義之規，不屑性命之正。使天下之人，皆有以自是而非人，終至於群狡竝起，睥睨神器云者。”實主朱子論東漢節義一款之說，而切中鄭澈欺世誤國之狀也。其曰：“不要富貴，能忘貧賤，這一邊雖似清高，那一邊實未免招權納貨，使一世之效慕者，相率而爲驕虛浮誕，卒無以振作恢復之策。”亦主朱子之論，而畢露鄭澈自誤而誤人之狀也。然則所著節義一說，實據先儒已定之論，而其志專主於攻澈之誣世取寵，以亂名教者也。由是老奸惡其平生心術，被人點檢，敗露於君子之正見，無以遁其情於一世之人，欲爲閉遮之術，遂生射影之計，乃於所著說上任加排字，目之曰排節義，以厚誣聖聽，至比之於洪水猛獸之害，而榜示四方，加之逆黨之名，古今天下，安有如此等冤痛也耶？其說首言東漢節義，較以功名，則其高尚猶可以激頑起懦，晉宋清談，視之謀利，則其氣岸亦足以矯情鎮物。又曰：“不知明德新民之學。”又曰：“得罪於聖賢中和之道。”明德中和，固節義之所自出，而介清之所自勉，而勉人者在是，則介清之說，非排節義也，乃壅塞節義之根本，而特惡其名爲節義而過激誤事禍人國家者也。然則其爲說，非自家創造立說也，實祖述朱子之意，而朱子

之論在語類中三十四卷論語解子謂顏淵章，其曰：“東漢崇尚節義之時，便自有這箇意思了。當時節義底人，便有傲睨一世污濁朝廷之意，這意思，便自有高視天下之心，少間流入於清談。”又曰：“節義之士，固是非其位之所當言，宜足以致禍。”又曰：“後漢名節，至於末年，有貴己賤人之弊，積此不已，其弊必至於虛浮，入老莊。”至論晉宋人物，則又曰：“雖尚清高，然箇箇要官職，這一邊清談，那一邊招權納貨”云云。因此朱子之說，以發明漢晉之弊，而破的奸魁之情狀矣。節義本人心之固有，而私意間之，則蔽於利欲，而私其一身，昧於義理，而遺其君父。故聖賢設教，只是使人明其明德，格致以知之，誠正以修之，如此則義理明，而不惑於利害，君父重，而不顧其一身，當其死生患難之際，伏節死義之舉，有不期然而自不得已也。若徒知節義之名，而不務節義之實，則雖其朝夕談之，而及其臨利害處死生，眩於是非，而認欲爲理，暗於時措，而守失爲得，未免有屈於威義，淫於富貴，而自謀深君父輕矣。黨錮諸賢，其大義根於心，死生不變其質，則誠可尚也，而不事聖賢之學，不明義理之原，唯以非訐朝廷，臧否人物，激濁揚清爲第一等事業，便以爲聖賢之道，不過如是，而其於處仁行義之實，有所未達。是以欲正君臣之義，而梁冀之弑質帝也，李固爲相，而非但不能聲罪顯戮，反聽命受制而隱忍焉。欲去寵昵之弊，而宦寺之盤錯也，竇武謀誅，自失其輕重先後之序，而卒爲士類之殲滅，國隨而亡之。又如何進之引董卓，馴致移鼎之逆，竇武之一門三侯，以致衆志之不平，苟爽濡迹於奸臣專命之朝，苟或媚於唐衡，臣於曹操之類，是皆不知行義守節之實而然也。若能於節義實有所得，則其出處時措，必不如是其乖違也，所以朱子言漢儒以義理之學爲外學，而南軒張氏，亦嘆其於學有所未盡者也。噫！我東僻陋，士局見聞，人亡學絕，道術分裂，邪慝竝興，他歧之害人心者多矣。至如湖南一道風習，則不修職分，思出其位，常以譏議人物誹謗朝政，爲士子標致，人若不知己，則必欲殺之，少有嫌隙，則必致誣陷。澈爲這輩之酋長，濟以機變之巧，竊托節義之餘習，妄肆清談之謬誤，壞人心術，誤人知見，終得以舞弊銜怪，陷溺馳驟，以惑亂一世之耳目，呈身於案間逆賊之時，締結奸黨，鼓動邪說，乘機傾陷，恣行胸臆，賊賢誤國，無所不至。此實儒林之大賊，國家之巨奸，罪通于天，在王法必誅者也。崔永慶負山林高義之名，而眞聖世之逸民也。南方誕妄之輩，承

望澈之指揮，做出三峰之說，以構永慶之狀，昭在十目之視，而夤附用事之魁，尙保首領，豈其天理所可容乎？以其三峰之說，布滿一國，當倭奴之衝突也，大小人民，皆謂別有一箇神人，將兵而來，分進四出，而莫之敢禦。其陰造訛言，惑亂人心，以致亡國之禍者，實此輩之作俑也。至若柳夢井李黃鍾，俱以清謹之士。身在本道，早見澈之心曲，必以強偏誤國斷之，而亦被奸黨之誣陷者也。夢井冤死之後年，有白棗數十莖，生於所嘗講禮之庭，人以謂精感所致。介清之弟大清，痛其兄之非命，冀冤枉之一雪。服喪悲號，不敢食肉者，今至六年之久。行路聞之，莫不傷心，其爲冤痛，何可測乎？自上明見萬里之外，洞照怪鬼之狀，特命拿鞠丁巖壽等疏頭十人，而奸臣作弄囑臺諫假公論以沮之，遂使殿下惡惡之志，不行於當日，人有秉彝，孰不痛惋於此耶？臣等同在一道，姑舉耳目之所覩記，而橫罹枉死之人，一至於此，則當日朝廷之上，積有猜阻之端，讎怨成隙，豈無毒手所害者乎？街談巷議，莫不盡然傷憤欲食奸魁之肉，而特主上未及洞燭，嗟乎！朝臣之事主上，可謂非至誠矣。昔者楚王英之謀亂也，陰錄天下名士，事覺被鞠，禍將叵測。侍御史寒朗心傷其冤，出萬死力爭之，理出千餘人。其遺風餘烈，至今照人耳目。奈何永慶介清，以山林高蹈爲士類領袖，而無一人敢爲殿下伸一喙者。雖其畏奸賊之威勢，噤不敢言，亦可謂朝廷有忠鯁之臣乎？然而天理昭昭，未有不久而著，儉邪之輩，乘間抵巇，縱售奸術於一時，難逃鈇鉞於萬世。而今我殿下洞燭奸賊之情狀，特憐善類之冤枉，以永慶被誣一事，至有中夜泣下之旨，此天地神人之福也。扶斯道壽國脈之策，莫過於振作士氣，振作士氣之機，又莫急於正名。孔子曰：“名不正則言不順，言不順則事不成。事不成則禮樂不興，禮樂不興則刑罰不中，刑罰不中則民無所措手足”。方此恢復之初頭，苟能先事乎正名，明定國是以慰人心，則惟新之政次第可舉。嗚呼！國是未定，則人心易搖，正名未盡，則善政難成。若不掃蕩姦究之囊橐，扶護國家之元氣，則君子無所恃，而罔盡其忠，小人有所窺，而欲紹其惡，豈非可懼之甚也？自古人君非無願治之心，而或牽於好惡之偏，或漏於己私之隙，一爲奸邪所中，則魑魅魍魎，百端巧鑽，與之俱化於彼矣。化於彼則變於此，好在彼則惡在此，黨乎彼則仇乎此，以敗功殄國，如哲徽寧理之爲者，載在經史，此類甚多。伏願殿下以古之失道，爲今之龜鑑，執志如金石，貫終始而毋

渝，明道如日月，廓氛陰而罔干，暴揚奸魁之罪，昭雪冤枉之人，告于宗廟社稷，頒教中外，與一國更始，則向之群邪雜慝，亦將受變於神化之不暇，又安有或進而爲吾患哉？易曰：“聖人久於其道，而天下化成。”“君子反經，經正則庶民興，庶民興則斯無邪慝。”惟聖明之留神焉。

答曰：“爾等之論至矣。當議處。”

柳西厓成龍回啓【事下脩邊司，西厓以領議政回啓】

近日臺諫及外方儒生，連上疏笏，言己丑逆獄連累人冤濫之事，且引寒朗論楚獄一節，責朝臣之不言。臣等當叩頭慚謝之不暇，何顏更有論議。國運不幸，逆賊之變，出於搢紳之間，方獄事之始起也。自上已慮有波及之患，以玉石俱焚爲戒，德音屢下。若使其時當事按獄之臣，推廣至意，淑問明辨，以得其虛實輕重之情，不以一毫私意參錯於其間，則除元惡大憝及律所應坐者外，其餘雖平時交游而未知逆謀者，及一再見面一二書往來者，與出於告訐，出於風聞者，皆當次第伸釋，使情罪相稱，若是則人情大服，而冤枉得伸，夫是之謂天討，亦所謂王法，而當時則有不然者。其源實出於近年以來，朝廷分裂，形色彼此，所謂一邊之人，既假此以爲收司連坐之計。故其投合時好，希望風旨，投疏羅織者，相續於公車之下，而上自士大夫，下及韋布之士，動足搖手，舉在指目之中，少有一言，必陷於營救之罪，所以三年大獄，冤楚萬狀，而無一人以此事狀徹聞於冕旒之下，此則群臣負國之甚，均有其罪，未可專咎於一人也。方事變之初，自上不待人言，渙發綸音，除逆賊法應連坐外，悉開放釋之門，天恩大霽，幽冤盡洩，其所以慰解人心，祈天永命，以立中興萬世之本者，實非偶然也。惟其如是，故罪籍中生存者，幾盡蒙恩，而獨有已死之人，如崔永慶鄭介清柳夢井李黃鍾等，未得一時昭雪。永慶則特出上命，而臺諫繼論，既爲洩冤，又加贈爵，凡在聞見，孰不感激，而介清夢井黃鍾之類，雖人品有高下，被罪有先後，而其爲冤枉則一也。介清則於湖南人中尤有名稱，平生以學術行檢自任，而因偶然一篇之著論，以至於滅身，宜羅德潤輩千里裹足叩閭訴冤也。大抵大兵大獄，漢唐之所以亡國也。故大

獄之後，必有大兵，理所然也。今則人心懲毖於既往，邦命一新於將來，匹夫匹婦，若含冤於重泉之下而不得見白，則幽鬱之氣，亦足以上干天和，而爲國家刑政之累，非小事也。臣等之意，介清 夢井 黃鍾等，特允儒生之疏，悉加伸雪，而此外未及舉名於疏筭者，亦多有之，依壬辰下教法當緣坐外，悉爲開釋之意，令義禁府詳細開錄，從其所坐輕重，一體宥釋，使解網之恩，普被於窮泉覆盆之下，則其於維新之政，所補不細，惶恐敢達。

答曰：“後當面議。”

上困齋鄭先生書【丁丑七月二十四日，時公年二十一】

黃勉齋喪其師朱子，吊服加麻，制如深衣，用冠經。王栢喪其師何基，服深衣加帶經，冠加絲武。栢卒，其弟子金仁山則加經于白巾，經如總麻，而小帶用細苧。黃 王 金三君子，皆朱門之嫡傳，而所制之師服，不無少異，當何爲準。且爲師三年，其不去官耶？聞金都事千鎰門人言則曰：“先生今遭一齋【李恒】喪，而既委質于朝，故不去官。”於愚意甚未安，乃告以此。無乃君有故，以所在而致死時事乎？昔孔子之門，惟顏閔不仕，及其歿也，七十子築室三年，若喪父而無服，夫七十子者，非知禮者乎？且以身無衰麻之服，而心有哀戚之心，若喪考妣之義，與程子所謂若顏閔之於孔子，則雖斬衰三年可也之義推之，則苟平日以師事之恩義兼至，則解官三年，雖不載於禮經，乃所當爲也。以此金門多有詆責侍生之謗，不勝呵仰呵仰。金都事同在一城，固嘗的知，早失父母，受學李丈，穎悟善言，取重於世，至薦爲名宦，今其死也，雖曰奔喪而來，一吊之後，不措襄事，卽返于家，累茵而坐，至奉官供，應接賓客，是乃其生也，趨走善事以爲釣名之資，而之死遂背之也。狷介之性，多發慷慨之懷，與其門人極言辨論，間發粗暴之氣。由此金門深懷，不肯顯說於鄉人之來見者云，末世人心之巧險，不可言也，不可言也。然侍生之所見，果有合於義理之正乎？幸亦垂察開示何如？朱子不服延平而在朝論討云然乎？亦乞示破。其間多有曲折，而此人之行，出於意外，日暮草草，心亂氣短，胡寫至此，惶恐惶恐。

附答書【困齋】

師喪一事，言論至正至當，歎服其君子之正直也。朱子之於延平，但受學而已。受學云者，朱子曰：“從遊”，蓋所尊敬，而不爲師弟子之辭也。彼於李丈受學而已，則今之所處，猶或可矣。若有發蒙函丈之恩，則餘無足可觀，更何言哉。朋友猶當吊服加麻，況於重恩義之師，豈可無表哀之變也。黃王金三君子之所服不同者，愚以爲禮無定服，故特以恩之輕重哀之深淺，而表之以所服爾，後之服師服者，當以恩哀淺深爲定爾。若曰既委質於君而不服三年之心喪，則爲臣者，終無期大功之喪，其可乎。所謂唯其所在則致死者，謂如在君傍則爲君死，在父傍則爲父死云爾，非謂在君而不服三年之喪也。禮曰：“若喪父而無服。”則解官可知。但當今之時，吾輩當以容衆矜不能爲心，似不可太白直以起爭端也，不審，尊侍以爲如何。

又答師喪一事。考於禮曰：“心喪三年。”又曰：“若喪父而無服。”又曰：“孔子之喪，二三子皆經而出。”儀禮喪服疏曰：“皆經而出。”是爲師出，行亦經也。程子曰：“若顏閔之於孔子，則雖斬衰三年，可也。”朱子曰：“師之爲義，卽朋友而分，則與君父等。”若論其服，則當與君父等，故禮謂“若喪父而無服。”又曰：“平居則經。”又按儀禮喪服記朋友麻註曰：“朋友雖無親，有同道之恩，相爲服總之經帶。”其服則吊服也，其冠則卿大夫士弁經，庶人素委貌也。吊服有三，王爲三公六卿錫衰，爲諸侯總衰，爲大夫士疑衰。諸侯及卿大夫，亦以總衰爲吊服，朋友之相爲服，卽士吊服。疑衰素裳疏曰：“庶人則白布深衣。錫衰者，錫麻之滑易者也，十五升去其半，有事其布，無事其縷。總亦十五升去其半，有事其縷，無事其布。疑衰十四升，疑之言擬也，擬於吉也。”將此數說而觀之，則心喪三年之服，不可擬於吊服之制。愚謂師之恩義，有類於君父，則其服疑與齊衰之升數同，而經帶則疑與期大功之大小同也，而黃，王，金三賢之師服，皆未免於吊服之制，準禮義則有未洽，但未知恩義之輕重爾。然此特論其古禮義之正而已，若以末世所謂賢者所行之事觀之，則三賢師服之制，豈不巍巍然高不可及哉。嗚呼！末世之所謂賢者，未必皆以義理求於師，而或未免有以功利相從者。故其平日所與師友講論者，不過言語文字之間，而期望者又不出乎求聞計獲之私，其於格致誠正之實，明物察倫之

本，亦未知其爲何事也。是以，當其臨事施措之際，未能正誼明理，而一以謀利計功爲處之當，其不服師喪，尙何怪哉。但所謂師者，其恩義之輕重淺深，差等不一，姑舉其一二，則有句讀訓誥之師，有文章功利之師，有從遊受學之師，有受業傳道之師。或大聖，或大賢，或次賢，觀其道德之大小恩義之輕重，而權其服而已。或三年，或期功緦，自不能無等分矣，此亦不可不知。至若生而師事之，以濟其所欲，死而遂背之，以忘其恩義者，則又何足與論哉。

與人書【嶺南人同被謫者，而姓名無傳。壬辰六月日在會寧謫所時】

湖嶺分住，塞外相遇，數年遊從，共輸心肝，情義之親，有逾骨肉。頃日之訪，多荷眷眷之意，尤不知所喻。自東岡先生出【恐脫字】，吾儕益自踽踽，與君相去，亦不相遠，而各有穴絆，未得朝夕之款，令人憤憤也。近聞賊勢長駭，乘輿又移西京，且破安邊，方伯遁身，王胄有深入之計，古今天下安有今日之慘禍耶。我國素不儲養人才，當此大禍難，孰有羸拳大踢，可以戡定耶。吾輩亦無藏身之所脫，一朝禍迫，何以爲之，甚可慮也，幸一來謀之。上金部提學書一通，不隱搜付。此書在初頭，恐煩人見，不敢罄其所懷，然亦足以知其所存，不欲終默於同志也。次韻亦錄呈，并惟采之許多。須面不一。

上鶴峰金副題提學誠一書

自城主奉使海國，一心憂虞，未嘗食息之敢忘，今聞利涉鯨濤，又能專對，歸膺明恩，受天寵光。是實誠貫金石，而神物所拱衛，區區欽抃，豈可以言語形容。某行負神明，遭此奇禍，違七十老父，拘三千里外，不孝之罪，無以自贖，顛沛之苦，殆不可堪，僅免一死，他何足言。所恃者，天日昭明，應照覆盆之幽耳。別紙悲懇，專恃愛念之眷，直討幽蘊之私，一覽付丙，毋掛他眼。安得更接儀光？訟此幽鬱，但增嗚咽而已。

別紙

憶在己丑冬，六父子俱陷重獄，所識朋舊無一言以慰者，而惟我城主賜書存撫，至於保全一家，歸之於孝感所致，欽服君子之心不以夷險易操，而又歎無狀何以見知於明公，至於如是耶。自入魍魅之鄉，塊伏土宇，抖擻前愆，大概平生行己，只是好善而卜之不明，惡惡而嫉之太甚，故群小輩，作弄造語，乘機傾陷，其禍將至赤族之地，而況又南方士習壞心術誤知見，群聚狐鼠之輩，夤附虎彪之勢，上自搢紳，下及韋布，盡爲網打之計，而聖明在上，離明燭幽，不敢恣其胸臆，是則宗社之福，士林之幸也。噫！鄭賊初非逢州劫人之盜，而實是高談罔人之奸。故在當世以博洽鳴世，而官至清要，雖智者，不能逆探包裝凶惡，況如生之昏愚，豈知僞情節冒，以誣一世也哉。在昔遊洛時，栗谷嘗謂生等曰：“南中學問之士鄭爲最云。”以生平日好善之心，嘗欲見其爲人，而乙酉春覲親上洛，始一見焉。聽其言論浮誇，及聞筵中攻栗谷已甚之語，嘗語兄弟間曰：“不遺故舊，古人所戒，幽明相負，乃至是耶。”心甚疑之，故往來經過，未嘗一至其門。而丙戌間，哀門怪變，議論紛紜時，鄭賊在上道，主張是非，故自京歸路，果爲一書以論其事之顛末而已，有何推重之意。城主在羅時，嘗論此賊之心術，生之從以短之者，蓋亦多矣。竟以一面之分一度之書，而終陷大禍，是實氣數之奇蹇，奈何奈何。一身禍福，且當聽天，而只念老父臨年，日夜號痛，爲人子者，當作如何懷抱。大抵虛恢好善之士，坐誣欺世之人，最被慘禍者多矣，朝廷之上，豈無心傷其冤，欲其理出如寒朗者，內有利害之心，外爲形跡之疑，坐視其然，而不敢出一言以救之，其於保身之道，雖似得矣，愛君憂國之誠，恐不若是也。惟明公正色立朝，誠足以動天地，信足以通神明，能超乎利害形跡之外，而一以愛君憂國爲己任，則其必思有以昭雪幽冤之責，而不使寒朗專美於前，不審明公其亦念及否。仄聞朝廷用寬典，聖德又日新，此正昭雪幽冤之一大機。願明公深量而亟置之。西厓相公按鞫平明，理出且多，衆志咸服，人心屬望，扶斯道壽國脈之責，益不可以辭也。願明公協贊之，以圖不世之功，幸甚幸甚。

與久庵韓參議鳴吉百謙書

向也，仍公偶進，雖得一餉之款，而壓尊堂上，不克細話，穩承緒論，迨增憤憤。即日清和，令攝理愜重潤。年踰五十，始霑一命，白首風埃，有甚心情。身經大患，又有老母知舊，咸謂伸雪階梯，乃敢輒渝素守，碌碌奔走，未知畢竟所成何事，有愧初服，良切自悼。我朝二百年間，灼然有以探源乎洙泗，接響乎洛建者，有幾人哉。麗末鄭圃隱始闡性理之學，其後寒暄一蠹靜庵晦齋四先生，相繼而起道學，始明於世，而皆不免奇禍，其道不得大行，己卯乙巳士禍慘矣，尚忍言哉。斬伐消鑠之餘，退溪南冥出於其間，倡起斯文。聖明初年崇儒重道，一代賢才，蔚爲世用，人皆向善，世道可觀。如吾輩亦聞風而興起者，吾兄之提起此心，豈非有賴於先正【恐缺遺字】風耶。嗚呼。己丑之變，出於摺紳，如使朝廷諧協，同懷共憤，極陳鄭賊欺世之狀，則豈有延及士類之理。奸澈挾憾乘時，陷人於機穽，既殺立朝名流，又殺山野高蹈。宦海風波，古亦有之，安有藏修林下以道學自任者，并被弑逆之禍耶。古今天下，冤亦深矣。栗谷雖知人不明，素心良善，使斯人當此事，必無殺戮之禍。夫豈如奸澈狠愎悻悻者乎。困齋平生，以師道自任，研精性理之源，倡明斯道，後生小子，咸造其門，必以禮法自持，彼其恢諧放曠，以節義清淡自高者，深有所忌克至。是乃出排節義之說，乘時傾陷，至於竄死朔北。其弟大清，痛兄非命，服喪悲號，十四年而枯死，人有秉彝，孰不動心於斯乎。十許年來，公議至嚴，人心難誣，草野之士，累上章乞恩，朝廷亦有大臣敷奏，玉堂陳筭。而却緣無相先相死之友於朝，不見出血誠力爭者，可謂長痛哭處也。竊念高明，必同病相憐，其亦念及於此否。固知尊兄在庶官之列，無下手地，尚書兩大人有銓時論道之責，令兄可從容其間，以解覆盆之冤，則豈但爲竊中之感泣，抑亦扶斯道壽國脈之一大機。惟吾兄熟計之恃，有聲氣之托。敢陳心裏之事，幸加憐察，以副至意。不勝大願。

上領相李漢陰德馨書【庚戌】

秋氣涼肅，伏惟台候起居神相休福。久不聞問，仰德一心，不敢少置。德潤私門，不幸凶禍荐至，喪弟未久，兄又見背，哀傷慘惻，不自堪忍。老母臨年，辦養無由，苟保郵官，碌碌逡巡，他無足喻者。仄聞相國推輓之意甚盛，自惟蹇劣，將何以副至意？感懷徒深。竊念伸冤事，已得回天，感極幽明，慶關士林，凡有血氣，孰不欣忭。第未知朝家處置結末如何，只復其官，只給籍沒，則奚足以快人心，而伸正氣乎。景涵【李潑字也】兄弟，以孝悌之人，閣門駢首就戮，其爲冤抑，窮天極地。至於困齋，白首窮經，常以師道自任，而並爲毒手所陷。其弟大清，含哀服素，竟至枯死，千古之痛，孰甚於斯。守愚堂專尚氣義，不過一節之高士，而褒贈已極。困齋平生，學問造詣，非一節之可擬，世無知道者，誰能識此人。惟相公好善愛士，發於赤心，悼屈伸枉，出自惻惻，當此大機會，宜盡心力，暴揚其德，昭揚後世，可也。不審高明之秤量如何。先進凋落殆盡，如鵝溪斗巖士純【金鶴峯字也】肅夫【金東岡字顒字也】諸賢，皆已作古人，顧瞻一世人物渺然。摧陷廓清之功，非有望於相公而何願。熟思而亟圖之，以副士友之心，幸甚幸甚。如德潤憂患叢中，百念消歇，分死而已，他無暇。【缺兩字】師友義重，情不自忍，辱荷知獎，直吐出胸中一餅結，更冀寬容以裁之。謹拜以聞。

與睦左郎大欽書

冬中出南大門外，見兄委惠手翰，荷不外之感。自北而南，道遠便稀，不得倩一書，以謝厚意，愧憾交集于中，殆無以爲諭。潤迫於奉老，苟保碌碌，有負初心，自悼而已。先輩凋落殆盡，無人主張，斯文馴致，人心携貳，士論不明。角立之患，朝野同之，豈非識者之所深懼。願吾兄深察消長之機，勿使羸豕孚躑躅，則國家幸甚，吾道幸甚。猥荷知照，敢吐位之言，幸寬財。謹狀。

上巡相鄭愚伏經世書

拜違命席，屢轉駒陰，一心仰德，不敢少置。目今老暑猶苦，伏惟順時之宜，起居休吉。某昧於攝理，疾病軼侵，幸得少蘇，扶曳還驛，寂寥郵亭，溫繹舊學，感蒙知遇，稱效無他。思以一得之愚，冀其萬一之補，別紙所記，幸賜一覽。伏惟寬容以裁之。謹狀不備。

別紙

向也得拜，下風創見。閣下於簿牒倥傯中，讀朱子書，窮討義理，是所謂古人仕優之學。令人欽聳，不覺讚仰，久而不能忘也。因爲之說，以備樂取之資。愚不自揆，竊冀少垂察焉。夫人之所以立乎兩間，而參爲三才者，以其心能主宰一身，酬酢萬變，而可以位天地贊化育也。然而心之爲物，忽出忽入，若存若亡，淵淪而天飛，焦火而凝冰，不可以力而御，不可以強而制。唯能敬用五事，守以四勿，勿蕩眩於外玩，勿苟恕於內省。動靜交養，表裡無間，操存攝伏而氣不逐於己私，省發警悟而事必循於義理，以之酬酢，以之參贊，何所往而不得其當者乎。然而物有善惡之殊，事有是非之別，若不先務學問思辨之功，而不知天理人欲之所在，則寅夕所爲，徒規規於事爲之末。雖或一言一行，偶合於道，而其田地本領，則固非聖賢模樣，安能與天地同其大，而順事物之當然乎。是以大學之教，必先致知格物而后，誠意正心，修身而后，推而及於齊治平者，欲使學者，先知【缺二三字】之所在，而實其好惡之當。謹其念慮【缺三字】心常存於軀殼，身不陷於一偏而后，家國天下以是而措之耳。此所謂明德新民之學，而成己成物之道也。去聖雖遠，遺經尙存，讀其書以治其心，則何古人之不可及哉。我朝二百年間，灼然有以探源乎洙泗，接響乎洛建者有幾。麗末鄭圃隱，始闡性理之學，而不見立言之功。其後寒暄一蠹，靜庵晦齋退溪五先生，相繼而起道學，大明於世，而皆不遇時，其道不得大行，其遺風餘烈，猶有存者。近世風習澆訛，頓變二十年前規模，賤棄禮法，專事浮華，尙言而不尙德，知利而不知義，人心之携貳，時論之分裂，何足怪也。先進凋落殆盡，主盟無人，顧瞻一世，人物渺然。朋分角立，唯利是

趨驅，世道於夷狄禽獸之歸，尙奚足與論儒家之大業乎。惟閣下，位高而不廢讀書，智明而益懋謙德，斷斷乎憂國之念，眷眷乎扶世之志，此皆貴達所不能，而惟明公能之，於此可以見淵源所自，必有異聞。自任之重，迥出常情，殆非流俗之所可擬。區區敬歎，自不能一日釋然於中也。茲將狂瞽之言，以代詩人授粢之誠，且以效其恩顧之萬一。伏願垂察留意。不自賢智而加功讀書，不自矜滿而更勉謙虛，審義理而處事物，廣聰明而察是非，勿以人之毀譽而易平生之定志，勿以己之利害而廢天下之公道，則吾心可制而無過可聞，天理可復而無已可克，幽必有默佑，明必有顯比。誠足以格天，正足以壓邪，參三竝立之責，庶可塞矣。然則閣下之德，非一家之德而爲天下之大德，閣下之榮，非一時之榮而爲萬世之長榮，願明公熟計之加之意，千萬幸甚。

五賢書院奉安祭文【金鶴峰誠一知州時，創建書院於州西大谷洞，未訖工。任公允臣來代踵成，以萬曆丁亥十一月二十二日奉安】

箕範失傳，文忠絕緒，
惟我五賢，倡道東方。
小學書中，妙契天機。【寒暄】
功深麗澤，德全孝悌。【一蠹】
有的其源，期我東周。【靜庵】
學篤箴警，志切啓沃。【晦齋】
闡揚聖蘊，展也大成。【退溪】
生雖異時，道則同歸，
俾我小子，如夜復朝。
允矣先生，萬歲作程，
靈承不爽，如水在地。
爰始爰謨，合享斯室，
吉日辰良，廟貌既嚴。
蘋藻維馨，誠意感通。
式陳明薦，尙克鑑臨。

敬次金東岡文丈憂憤詩韻【壬辰五月, 東岡自謫所蒙放, 赴行在所時.】

末路一何奇, 三五重七九.
百兇叢目下, 哀哉我生後.
賊莽既內訌, 醜虜又外蹂.
何圖二百基, 一朝失警守,
訐謨者誰子, 忸怩顏何厚.
不事邦本計, 徒能瞞我后.
赤子久嗷嗷, 焉知戴父母.
廟算失前籌, 有何補虎赳.
乘輿忽蒙塵, 臣僚捐綰綬.
離披勢不振, 義旅孰能糾.
生民儘魚肉, 士女但驚走.
誰懷武穆心, 孰握文相手.
衣冠盡顛倒, 鳳池生灌莽.
堂堂我國朝, 豈忍困海醜.
纍臣荷新恩, 憂憤衝牛斗.
願將階禍由, 欲竭兩端叩,
誅奸掃氛祲, 大慰吾黔首.
先生道相同, 忠赤垂血嘔,
忘身赴王所, 不背熊魚取.
素履已先定, 毋令負心肘.

原韻【東岡】

吾生苦不辰，胡獨遭陽九。
旻天降喪亂，不自我先後。
蠡賊作內訌，戎馬恣躡蹂。
赤子化仇讎，疆圉無人守。
哀恫二百年，恩澤何深厚。
一朝失丘民，不云撫我后。
廟堂有相臣，邊城多武赳。
高官與厚祿，纍印若若綬。
不聞籌策紆，不見義旅糾。
紛紛文煥降，擾擾檀公走。
七廟化灰燼，京邑付賊手。
玉輅向何許，公卿落草莽。
誰生禍亂階，致寇招戎醜。
孤臣在北塞，空餘膽一斗。
舉頭望西方，欲向螭階叩。
願借尚方劍，一斬佞臣首。
膈臆誰與訴，辛酸血欲嘔。
嘗聞古人訓，魚舍熊掌取。
風簷展朱書，道理貫心肘。

《嘯浦遺稿》附錄

《錦城三稿》

有明朝鮮國承訓郎行義禁府都事嘯浦羅公事實記

公諱德明，字克之，號龜菴，又號嘯浦，姓羅氏，羅州人。麗朝有諱富爲監門衛上將軍，是公鼻祖也。後至工曹典書諱璉，最貴顯，生典農寺正諱公彥，洪武間，有克倭功，仍世爲湖之右族。曾祖諱逸孫，典涓司直長，贈承政院左承旨。祖諱咥，司憲府監察，贈戶曹參判。考諱士忱，師事履素齋李仲虎，以至行聞，中宗旌其閭復其戶。宣祖初，道臣薦其賢，累除官至尼山縣監。其去思碑有倭花一朵鶴一隻，行李蕭然古人風之詩，贈議政府左贊成。前配坡平尹氏府使諱彥商之女，後配光州鄭氏蛇渡僉使諱虎之女，各舉三男人，以六龍目之，公卽其冢嗣，資稟魁偉傑特，識者，期以遠大器。嘗在約年八九時，路逢州吏，吏不爲禮，公舉理叱責，吏乃肅然敬服，聞者咸奇之。萬曆己卯舉進士，實宣祖十二年也。銓曹聞公名，除義禁府都事，罷遞歸鄉時，公蔚有聲華，爲人所倣傚。二弟德峻 德潤，以鄭困齋門人，俱有令名，遂被不悅者所忌嫉。己丑冬，有鄭汝立上變事，委官鄭澈，乘機羅織，丁岩壽 梁千頃 洪千環等，承澈旨，投誣疏陷諸名流三十餘人，而又舉公父子之名曰：“某之子某等，與汝立交至密，知禍及己，譁張救解，皆宜罪。”公之弟德顯 德憲等，不勝憂憤，詣其疏會，大言斥之。及岩壽疏入。上震怒曰：“爲乘逆賊之變，陰陳邪譎之疏，賢相名卿，無不指斥，必欲空國而後已，此必聽奸人指嗾。”命禁府，拿鞠岩壽等十人。於是，澈懼使臺官及太學生，或陳啓，或上章，寢其命。俄而務安儒生裒莫，疏伸卞困齋及公父子冤狀甚悉，而澈竟以謀沮岩壽疏，構成罪目，公之六父子，一時就理。贊成公特以孝見原，公謫鏡城，諸弟等并分配。公到配，吟詩寄弟，以寓陟岡之懷曰：“關雲迢遞鴈無情，何處孤城憶父兄。殘燭夜深霜葉響，夢中池草不能生。”壬辰，島夷充斥，賊將清正長駟至，北邊會寧人鞠景仁，遂作亂，執王子臨海君瑋 順和君及宰臣金貴榮 黃廷彥等，以應倭。於是，鎮堡叛卒，爭縛守將，相繼附賊，鐘城人鞠世必，卽其渠魁也。北評事鄭文孚與前監司李聖任 慶源府使吳應台 慶興府使羅廷彥 輪城察訪崔東望等，謀起義兵。公與同謫人韓百謙，協贊其謀。鍾城府使鄭見龍 高嶺僉使柳擎天等，亦來會，捕得首惡者，斬之，軍聲仍以大振。明年春，別將李鵬壽 萬戶李希唐等，與賊戰，同日死。公與文孚作詩，以哀之事，載李澤堂植

小撰北關志。其年，公始得有還。丙申，丁贊成公憂，奉行襄禮于務安住龍渡，仍居墓下。丁酉，倭賊更熾，公與諸弟，自住龍將避于銀積山，同鄉孝子李有慶，偕公舡欲渡，公謂李公曰：“君可先渡。”李公辭曰：“主客有異，吾雖落後狼狽，理勢固然耳。”公曰：“吾若先渡，吾家奴必不致誠於君。”竟使之先渡。人稱顛沛必是之義，彼與此無讓矣。亂定，作亭于住龍嘯浦上，優游以終老。每省拜先壟有詠懷詩曰：“朝朝上丘壟，欲去還躊躇。度幾侍閭閻，一見平生儀。”公生于嘉靖辛亥年，六十卒，卽萬曆庚戌五月二十八日也。葬贊成公墓下。公體甚長大，威容可畏，見之者，以爲得山河間氣。本州牧與公年相敵者，必稱老兄，少五六歲，必稱丈，其見敬禮如此。鄉人林文化權，以才智氣概，知名當世，公與之相善。嘗約會山寺，林公先到，談論自若，若無人者，及公迫，至林公，自不覺沮喪，公出言輒唯唯，其時寺僧之目擊者，傳以爲美談。性又豪放，不拘小節，傲視一世，於人少許可。一日，將如廁，地主猝至，公僅得延之上堂，仍卽遺矢于堦上，處之晏然曰：“此愈於在堂上滑泄。”人服其廣度。公旣名重南，服人皆願一識，使星冠蓋歷候者絡繹，而迎接之除，禮貌破簡。至於郭忘憂堂再祐之謫居靈岩也，訪公住龍，使應門者入傳郭居士來到，公顛倒衣冠，下堂迎之，一村人皆驚曰：“公平生未嘗屈於人，何狀居士，能令公致敬若是哉？”公遂與討論，襟懷甚相得。其後郭公還朝，上問元帥才，至以公薦劾云。雖在草野，志切憂時，以感天意結人心之道，有所上達，而請伸己丑冤死之類，以革弊政均賦役之策，有所條列，而請罷各營屯田之設，此於丙申疏及己亥抵兵書畫中，俱可徵也。公嘗於夏日，晝眠于住龍，山隅有大蛇來，蟠于腹上，公覺來知其爲蛇，終不動身，以待其自去，其器量凝重類如是矣。又能通洗腸之術，每夕飲水一器，翊朝還吐，必滿其器。至於紅柿等物吞下，良久吐其核與虫屑，人莫不異之。爲詩語必雄放清健，有不局底氣岸，然此特公之餘事耳。其所吟詠者，有若干首，而字多訛誤，不得傳其真，可勝歎哉。公之歿也，弟德潤爲文，哭之其略曰：“胸吞雲夢，詞吐鰐鰕，志凌宇宙，眼空霄壤。龍臥江潭，自擬管葛。”可謂摹得公之平生也。惜乎！天之生公，宜若有爲，而竟未克一試，命也。公先聘光山金氏文科潭陽府使景憲之女，繼娶文化柳氏節之女，俱葬羅州長興洞。有四男曰以素 因素，金氏出也，曰成素 就素，柳氏出也。成素武科宣傳官，以素有四男，楡 禕 桂 炫。

因素有二男，桔 福，一女，柳時華。又有庶出子袞。成素有一女，李韶參奉。又有庶出子表 ㄴ 方 袁 三人。就素無後。公之子孫，連世陵替，而桔之孫晚榮，擢文科壯元，官至持平，能使家聲復振，斯可見餘慶之未艾也。嗚呼！公之歿，今已百有六年矣。其平生行蹟，必不止此，而久遠無徵，略述見聞記，其萬一後之尚論公者，亦可因此而得公之梗概矣。崇禎丙子後七十九年，乙未七月日，從曾孫生員斗冬，謹記。

有明朝鮮國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行宣教郎報恩縣監錦巖羅公事實記

公諱德峻，字大之，姓羅氏，號錦巖。自上祖麗朝監門衛上將軍富以來，世貫羅州，子孫不出鄉，爲湖南望姓。其系具在先考贈贊成事實記。先考諱士忱，中廟世，旌孝子之閭。嘗師履素齋李氏仲虎，以學行聞，官尼山縣監，追爵左贊成，用諸子從勳，累推恩也。兩妣坡平尹氏府使彥商之女若光州鄭氏僉使虎之女，俱贈貞敬夫人。兩夫人各有丈夫子三人，有六龍之稱，公其第二也。生六歲，尹夫人歿，後妣鄭夫人，撫育如所生。公天資純美，贊成公又躬篤人倫，濡染耳目，有得於觀感家庭者，非特文字之教而已。十七八歲，已有志古人之學，不以流俗舉子事屑意。與其弟德潤錦峰公，日相砥礪爲業，兄弟爲知己。眉巖柳文節公於贊成公姨兄也，請學其門，得聞儒先緒論。從贊成公于京邸，遍遊名流間，與柳汎愛祖訥 朴鼎山洞 申斯文義慶，講論禮經。朴思庵淳 李栗谷珥，皆許可之，送公南歸謂曰：“聞南中有鄭介清者，學行篤實，可爲人師表，宜從遊卒業也。”栗谷以內賜朱子語類一帙爲之贐。鄭介清乃號爲困齋者也。公既還鄉，築書齋于州城北大安洞，以禮請困齋爲師。與同志學子，結講義契，節目以增損鄉約爲法，學令以白鹿洞規爲準，要以講磨力行，困齋常敬重之。其推獎之言，發於簡牘答問者有曰：“資稟剛明，所見日進，畏慰俱極。”又曰：“志篤聖賢，功專進修，以求必得夫性命之全，是所謂君子爲己之學。”又曰：“如賢高明可畏，其敢自大而妄尊，待以待後生之禮乎。至於與之論疑禮則歎服。”公敦厚精詳，躬督恩愛之行，能善推於人，

而示其自悔失禮之意，凡若此類，甚多，俱在鄭氏愚得錄。門有陰譎婦人，詐稱遺孕，謀育假兒，時贊成公方任湖邑，公兄弟以其事，稟據倫紀，申狀卞之事，久滯未決，金鶴峰誠一莅州，燭其僞斷之曰：“世之爭訟以利，而君等所爭爲天理，君等真義士也。”遂心許之，與爲交。城西大谷洞創書院，俎豆寒暄一蠹，靜菴晦齋退溪五先生，令士林有所肯式，實公兄弟奉議，鶴峰所經紀也。己丑冬，有鄭汝立獄事。汝立者嘗僞情飾行，以博洽欺當世，初托迹於栗谷及成牛溪渾，吹獎汲引，頗得其力。栗谷既歿，汝立又始改頭換面，反攻斥栗谷。宣廟之教所云，汝立今之邢恕者，此也。蓋自朝議廢乖以來，東西互相排擯，轉加層激，鄭澈褊愎積不平。又困齋嘗以澈耽荒酒色，遽蔭禮法，惧流弊世道，爲澈所銜。洪千環、梁千頃等，居鄉里，輕佻無行，不齒士類。惟澈俯仰，嘲侮困齋特甚。公兄弟從困齋遊，最有名稱，故被媚嫉亦甚。及汝立獄起，澈爲委官，乘時羅織，凡異諸己者，靡不待以機穽。丁巖壽、洪千環、梁千頃等，承望投疏誣陷朝野名流三十餘人，困齋亦入其中。且舉公父子之名曰：“某之子某等，爲汝立密交，知禍及己，請張伸救。”又捏公兄弟曰：“不必應舉衰世，過數年，須待太平。其他說話，凶慘罔極。”公之弟德顯、德憲等，忿忿甚，往巖壽等會所，面折之甚峻。及其疏入，上震怒曰：“爲乘逆賊之變，捏造無形之語，陰陳邪譎之疏，賢相名卿，無不指斥，必欲空國而後已，此必聽奸人指嚇。”命拿岩壽等十人鞠之。澈恐事覺，益爲欺蔽計，囑兩司及太學生等，交章力救，謂之疏儒不可鞠問，遂得還寢其命。獄又益多株累，令鄉邑搜問罪人黨與，千環與品官不逞者，柳潑輩媒孽其間。庚寅夏，困齋被逮，公父子六人，亦并就理，以謀沮岩壽疏爲罪案，上教特曰：“名參孝子者，原之，積嫌誣引者，革之。”贊成公遂即蒙宥，公用次律，竄富寧，諸兄弟或徙邊邑，或配中道。當是時，得免就殞桁楊，實賴贊成公至行，有所默感上衷也。困齋亦杖配慶源路，過公所相對，無憾憾色，只以講易爲約。俄聞困齋歿於配所，爲位哭之。明年，上心追悔，國是乃定，主獄者澈，梲棘江界。又明年，當倭亂，命釋大小竄謫人，公乃於癸巳赦還。甲午，柳西厓成龍爲首相，建請勿拘資格，以十條取士，以備撥亂之用，選韓久菴、百謙等三人，而公居其一，斗巖金相應南薦也。初授望雲監牧官兼掌募粟事。前時，上慮牧政虛疏，嘗命用曾經臺官者，爲監通糾守令，往來檢察，又時當搶攘設屯田，爲補軍食計，擇人幹

其事，前任守令郎署者，率多見差，公自草野被掄爲任，蓋欲試公才也。明年，西厓相論啓防守措置事，請令統制李舜臣從事官取公。前年所聚穀，以資沿邊諸屯播種，語在西厓遺稿。尋除司圃署別坐，時贊成公年逾七旬，以事親日短，辭不就。丙申十二月，丁贊成公憂，執喪，無違禮，既葬，廬墓下。丁酉，倭虜猝到前江，雖當顛沛，不弛哀憾，人益稱之。己亥春，服闋。是秋上因齋訟冤疏，不得命。已而，擢拜報恩縣監，未之官，爲不悅者所嫌。公兄弟嘗痛師至冤，雖在亂離遑遑之中，義不忍忘，願爲泉壤一洒之。先是乙未年間，公之弟錦峰公，始陳疏卞之，批曰：“爾等之論，至矣。當議處。”下備邊司。西厓相回啓痛陳當初獄事，多濫之由，且言鄭介清以學術行檢自任，而因偶然一篇之箸論，以至滅身，宜此訴冤云云。答以後當面議而止。其明年，伯氏德明嘯浦公，上疏言感天意結人心之道，而請伸己丑冤死，至是又有公疏。蓋大獄之後，人心惴惴未息。公之兄弟，不避危機，倡聲瀝血，前後相繼，庶幾有回天之望，而上意持難，未見施士林憾之。人之護澈者，又怨公家不置，而公經歷險難，未嘗以患辱挫其意，處之夷如也。公生以嘉靖癸丑二月三日，得年五十二，萬曆甲辰八月二十八日歿，葬州南榮山艮坐坤向之原。仁廟世，以子緯素參原從追，贈承政院左承旨，至顯廟世，又以躋同樞，故加贈戶曹參判。公稟性真醇，德宇粹盎，通而不汙，貞而不諒，和順之氣，溫厚之風，令人望之，可知也。其志嘗以爲子貢留心於豐約之間，故不及於顏曾也，自少時，不以家人生產作業爲事。其學以爲氣質可以變化，義理可以講明。自小學家禮，由四書達六經，又以博通群書，從事師友，以修其可願也。有訓諸子遺文，以存心體認克己踐形之功，眷眷焉勸勉之，以分外榮身居室自便之恥，申申焉警飭之。終致意於孝親之意曰：“天經地義綱常倫紀之重且大者，而百行之源，人道之常，所以學之者，學此而已，行之者，行此而已，求忠臣於孝子之門者，此也。”公以早違慈顏，爲平生恨，絕念榮利，專意奉養。凡遇物，不私於家，獻于親庭，聽其分與，以承志意。贊成公既卒，鄭夫人處公家爲多，嘗言處別家，得心身俱安。公之除報恩也，弟德慎方爲茂長，致榮養而聞，公得縣決意欲從往。鄉人有訓子孫奉繼母者，必曰以羅報恩爲法也。遇先忌，必前期三日素服，靜處不接人，以行祀事。嘗慕古人，兄弟同居畫同堂異室之制，且營義田，中罹奇禍，加以亂離，齋志未就，愛宗族克盡，

情款在望雲。值歲歉甚，人民顛連，公作長廊，多聚一家子弟，以濟其飢，且爲之勸學，傳者稱爲美談。其實行之著于家，大略如此。初聘長水黃氏禦侮將軍諱顯之女，領議政翼成公喜之六世孫也。辛亥八月九日生，四十五而歿于乙未。繼娶文化柳氏諱濂之女，右議政文簡公寬之八世孫也。丁丑七月二十二日生，三十而歿于丙午。忌日同正月十日。并贈貞夫人，葬皆祔公壟。有五男二女，曰纘素宣務郎，繼素武科僉中樞，緯素文科，爲怨家所中落拓州郡，秩大年同中樞，贈左參贊。女長適主簿金礪，節死旌閭，次適宣教郎崔光憲，黃氏出也，曰緻素經素，柳氏出也。又有側子緘素。贊素一男，極宣教郎，一女適金壘。繼素無子，取同樞第三子衿爲嗣。緯素三男，衲戶曹正郎，攀成川府使，衿禁府都事。三女長適生員金晚壽，次適李萬鍾，次適暑令鄭岐壽。金礪無后。崔光憲二男，鳴海翼海生員，一女適趙宗慶。緻素四男，祺通德郎，ㄱ兼宣教郎，杓壽爵副護軍，ㄱ瑩通德郎。二女適姜碩宗鄭斗亨。經素三男，禎通德郎，檀禎文科掌令，一女適李震嶠。緘素一女，適梁忭。極生斗天武科縣監，斗宇。衲生斗三縣監，斗章教官。攀無子，取斗章爲嗣。衿生斗春佐郎，斗夏斗秋皆通德郎，斗冬生員。祺生斗奎斗緒斗集斗弘。ㄱ兼生斗會。杓無子，取斗璇爲嗣。ㄱ瑩生斗璇斗琮。禎生斗南武科宣傳官，斗昌斗亨，皆通德郎。檀無子，取斗亨爲嗣。檀生斗元斗文，皆通德郎，斗度。斗天生晚亨，斗宇生晚成，文科持平。自餘內外玄雲，不可悉舉。嗟乎！以公之才學行誼，遭時不幸，未能有施于世，歿且百有餘歲，將名湮滅而無傳，豈不悲哉！重元先母，同樞女也。重元嘗逮事仲舅，且從諸內兄，每聞稱說先世故事，其言若前日聞，令內外曾孫之後死者，只有若而人亦既老矣。迺者斗冬氏有慨於世將愈遠而愈無徵也，哀聚事蹟之雜出諸文籍者，證以家中舊聞，曷所以垂示後世，寄來嶺外千里，使重元磨正成編。竊感是意，不敢以鹵莽辭，敘次本末爲事實記。崇禎丁丑，後八十五載壬寅季春既望，外曾孫前參奉八溪鄭重元，謹述。

有明朝鮮國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錦峰羅公事實記

羅氏世居羅州，德厚慶積，簪紳不絕，世之人數湖中望閥，必稱羅氏，在麗朝，有監門衛上將軍諱富，實爲始祖，後至諱璉工曹典書，恭讓二年，監榮山漕倉築城，事載在輿地誌。子諱公彥典農寺正。禍之七年，從都巡問使李乙珍，克倭有功，事載麗史。子諱諝式目都監錄事，子諱自康務安縣監。子諱繼祖將仕郎，是公高祖。曾祖諱逸孫典涓司直長，贈承政院左承旨。祖諱啞司憲府監察，贈戶曹參判。考諱士忱，童而有至行，中宗命旌閭，游履素齋李仲虎之門，同門人皆推重。宣祖初，道臣宋西郊贊薦學行，累官至尼山縣監，其去思碑，有‘倭花一朵鶴一隻，行李蕭然古人風’之句。贈議政府左贊成。前聘坡平尹氏府使諱彥商之女，後配光州鄭氏蛇渡僉使諱虎之女，各舉三男。長都事公諱德明，以英傑不羈名。仲縣監公諱德峻卽我曾王父，以孝友行誼名，公卽序居第三。其次處士公諱德顯，以孝贈職。又其次郡守公諱德愼，季水使公諱德憲，俱以武舉進，或殲倭立功，或抗節胡庭。兄弟六人，俱有聞當世。有人挽贊成公詞曰，“謝家雙璧賤，荀戶八龍輕。”者，蓋贊公兄弟也。公諱德潤，初字有之，後改誠之，錦峰，其號也。嘉靖三十六年丁巳三月初一日生，明年九月尹夫人歿，公呱呱失乳，養于老婢，甫成童，始就學歲。壬申，贊成公供仕京中，公從之，年纔十六，文詞已達。時同鄉有李咸陽公彥讓，以金河西麟厚門人，知名士類間者也。與贊成公同舍京邸，數歲教公，以士子程式，仍授小學四書及心經近思錄，所造日就，李公愛其才，以女妻之。年既長，不屑舉子業，與仲氏同志力學，常質疑於柳眉岩希春，眉岩卽贊成公姨兄，而博學多聞，爲經幄名儒者也。每於公獎勗而器重之。又從柳汎愛祖訥，朴鼎山洞，申斯文義慶，講論禮經，自此大爲朋輩所俦俦，如朴思菴淳，李栗谷珥，尤嘉尚焉。仍稱鄭困齋介清之賢，而勸公兄弟從游以卒業。遂南歸，築書齋于州城北大安洞，奉困齋師事之，結同志爲講義禊，討論經傳，尤致力於朱子書。丁丑間，金倡義使千鎰，方任佐幕，而遭其師李一齋恒之喪，奔哭之後，卽返于家坐花茵，奉官供，蓋金早孤，受業一齋，實賴教誨推薦之力，取重於世，及師死不爲之服，故公心非之，以書上困齋，講論師喪服制。金之門人，多有詆責者，而公略不介意，時公年二十一矣。事載愚得錄。先是，公之

伯父牧使公之繼配徐氏，性鷙悍多譎憎嫉，前室子孫當已出。子德純夭折之後，與其婦林氏，潛謀取他人子，詐爲遺孕，公兄弟憤其悖倫，稟贊成公且議眉岩，狀于官斥之。鄭寒岡述，所謂‘羅門請辨其僞，而訟其亂宗’者，蓋指此也。累經推覈，積年不決，及金鶴峯誠一牧州，明其爲僞卽斷之。鶴峯謂公兄弟曰：“世之爭訟者以利，而君輩所爭則天理，眞義士也。”遂結爲心交。於是，公兄弟奉議鶴峯，營建書院於城西大谷洞，以寒暄 一蠹 靜菴 晦齋 退溪 五賢，竝享之，欲爲士林模範之，所功未及，訖鶴峯遞歸，任公允臣來，代之踵成其事。以丁亥冬，始行奉安之禮，其祭文，公所製也。公從師十數年，不事科臼之工，而爲順親旨，強赴鄉解，俱占兩場。鄭葱山彥同入試圍，見公作，稱詞源浩汗，自令人意思通暢云。明年戊子春，成進士，卽宣祖二十一年也。時朝議，已岐轉加層激，鄭澈常失志怏怏。羅州人洪千璟 昌平人梁千頃等，爲其爪牙，連黨結侶，恣意醜正，而困齋尤被千璟輩所誹詆。公兄弟以困齋門生，俱有令名，奸人惡之，磨牙俟隙，蓋有年矣。己丑冬，鄭汝立逆獄起，澈爲委官，乘機羅織，李梧里元翼，後日登對時，所陳己丑治獄，人所不忍者也。同福人丁岩壽與洪千璟 梁千頃等，承澈旨，投疏誣陷諸名流，領相李山海 禮判柳成龍，皆上之所倚毘者，而入於疏中，至於公父子之名，亦與焉。有曰：“與汝立交密，顯爲伸救。”或曰：“不必應舉衰世，且待太平。”語意極其凶慘。公之弟德顯 德憲等，憤受誣，往疏會，極言峻斥。巖壽疏入，上震怒曰：“爲乘逆賊之變，捏造無形之語，陰陳邪譎之疏，賢相名卿，無不指斥，必欲空國而後已，此必聽奸人指喉。”命拿來岩壽等十人，推鞠定罪。澈恐其情跡之敗露，使臺諫及太學生，力救之，還寢成命。獄久不竟，鍛鍊愈酷。庚寅夏，又令郡邑廉問罪人黨，與洪千璟與品官柳潑 鄭如陵等，逞宿憾，隨而媒孽。於是，困齋被逮，公之六父子，亦就理，蓋以前沮岩壽疏，構成罪目也。及置對，上特教曰：“求忠臣於孝子之門，名參孝子者，原之，積嫌誣引者，革之。”贊成公幸卽蒙宥，而公兄弟五人，俱未得脫。公謫會寧，餘或徙邊，或徙配。當是時，禍網叵測，人皆畏愴無敢問者，而鶴峯獨致書慰問，有曰：“一家全活，寔賴孝感”云。金東岡宇顒先配于會，及公到配，遂與從遊許以心期，論文敘懷以自遣。困齋亦杖流，朔北過公所，少無嗟怨聲，只以講易爲約。俄聞困齋病篤，馳往救護，既喪，仍行公西之事。明年，上始覺爲澈所誤，特下奸澈毒

澈之教，榜示朝堂。憲長李原翼等，遂發竄澈之啓，仍加梃棘之律，公論蓋於是定矣。壬辰倭亂，東岡先被恩赦，以詩詠懷贈公，公步其韻以謝有；“百兇叢目下，哀哉我生後。賊莽既內訌，醜虜又外蹂。”之句。癸巳，公始得宥。還時，當搶攘而亡師至冤，義不忍忘。乙未春，與仲氏上章伸卞，縷縷甚悉。事下備局，柳西厓成龍，洞陳當初治獄濫及之由，且曰鄭介清於湖南人中，尤有名稱。平生以學術行檢自任，因偶然一篇之著論，以至滅身，宜羅德潤輩千里裹足，叩閭訴冤也。”云云。上意持難事。雖不見施，然禍網之餘，人皆喪氣，無敢容喙，而公能先僉瀝血致，令士林興起，稍有陽復之望，皆公之力也。丙申十二月，丁贊成公憂，奉襄務安住龍渡，仍守墓下。丁酉，倭寇再肆，雖在奔避顛沛中，持喪一以禮。己亥，又與仲氏爲困齋訟冤，凡前後叫閭，至再至三，而俞音竟闕。公初授顯陵參奉，謝恩卽已。又除禁府都事，尋罷。光海初戊申，首擬王子師傅，三月再除禁府都事，旋遞，十二月爲青巖都察訪。辛亥，中人嚟罷。癸丑五月，又爲禁府都事，轉經歷。甲寅，遷司宰監主簿，七月爲司憲府監察。八月丁繼妣鄭夫人憂，公年迫六十，喪禮不懈。既葬又廬墓，以終三年。公晚年從仕，只是爲親屈也。既親不待養痛恨，終身不復以世事，爲意閑居自願者五六年，以天啓辛酉閏二月二十八日卒，得年六十五。李察訪克扶，公之莫逆友也。詩以哀之曰‘中年共作弓驚鴈，晚歲同爲雪後松。’蓋歎公經歷險巇，所守確如也。公稟賦英邁，器局凝重，生長禮法之家，奉承孝友之訓，事親以誠，律身以禮。又登師門，好學不倦，講究義理之奧，因齋稱之，以問世人物。嘗在襁褓失恃之日，乳母之夫，極盡育養之道，故及其死也，用同纓總服之義，白巾以哭之，具棺斂以葬之，此在公爲一瑣節，而其不忘之恩，亦可尙矣。與兄弟湛樂無間，欲同居一室，畫同堂異室之制，贊成公深加嘉勉。至有母忝爾所生之教，而遭禍亂未就。居家接下，必以正名分爲先。門庭肅然有序，人之出入者，舉皆敬畏，無敢犯分者。自弱冠時，已見重於先生長者，其得賢師爲依歸。初以思菴 栗谷所指教者，而中歲以後聲名日益著，如鶴峯 東岡，皆一代儒賢推許公不置。至於金斗岩應南則待之以國士，鄭愚伏經世爲方伯，公有書謝知遇，論儒學淵源前後處臬者，欲與公議公事。當其巡按之日，輒以公留待之意，預示于官文，鄉人傳之，以爲美談。每念師友冤死之痛，期以一洒不得回天，日夜疚心。與李漢陰德馨 韓久庵百謙，及

南公以恭 鄭公協, 有往復書牘備, 及伸卞之語. 又與景慕者, 議建困齋祠宇, 以俎豆之庸, 表尚德之誠, 其所以事之如一者, 吁亦至矣. 公初葬于州之錦城山北麓, 其後卜人皆謂兆宅不利. 歲丙申三月, 玄孫晚錫等, 移窆于大安東鰲岩上乾坐巽向之原. 距公歿爲九十六年. 配宜人李氏, 籍陽城, 生于丁巳五月十七日, 歿于庚申十二月二十日, 合祔公墓. 生三男曰 繪素武科通政伊川府使, 由素宣教郎, 宜素文科禮曹正郎. 性簡伉與世抹撇, 而官未達, 人皆惜之. 府使生二男, ㄱ成武科宣傳官, 檐通德郎, 一女李鳴衢進士. 宣教生一男昶, 四女尹商望 任暘 曹挺五 鄭櫨進士. 正郎乏嗣, 以檐後. 宣傳生一男斗正, 又有庶出子二人, 斗占斗平武科. 昶生三男, 斗興 斗鎮 斗應. 檐有庶出子四人, 斗遠 斗承武科 斗胄 斗盈. 斗正生二男, 晚錫 晚遇. 斗興生一男晚賢. 嗚呼! 斗冬嘗見公祭, 我曾王父文略曰: “共趨鯉庭, 幾承詩禮, 同事師門, 麗澤是資, 同心同德之樂, 豈但兄兄弟弟之大義哉! 云. 爾則斯可謂兄弟間知己者也.” 三復斯言, 不覺潛然出涕. 今者晚錫持公疏章文迹及歷官資牒, 示斗冬, 要令撰次以傳後, 尤有所感於中者, 不敢以不文辭, 謹敘顛末以歸之. 崇禎丙子後八十年丙申閏三月日, 從曾孫生員斗冬謹記.

題錦峰遺事後

吾外氏錦城羅上舍斗冬從兄暨三從斗興弟, 并抵重元書, 見層以先高祖錦湖公 曾祖錦巖 錦峰兄弟公行蹟追述事. 重元感至意勤懇, 不敢辭以非其人, 按所寄示諸錄, 猥櫟括其間, 爲錦湖 錦巖兩世事實記. 顧錦峰事, 上舍兄所爲狀草, 自成篇體, 首尾有次, 語意無欠, 至末端引祭曾祖錦岩公文而爲之語曰: “三復斯言, 不覺潛然出涕”云者, 亦足令人感動. 第以不自外之意, 就其中或有省一字易一字若干處而已, 何必改作爲哉. 竊觀錦峰少錦岩四歲爲弟, 受庭訓同, 遊師門同, 所求之志同, 所講之學同, 所勉之行同, 遭罹世變, 履險涉艱又同. 幼而遜弟, 長而有述, 老而蓄德, 于躬爲當世鉅人君子之所賢, 始終無不同, 其所不同者, 不過生卒年月官歷階次焉耳矣. 昔伊川先生狀明道行, 與門人言 “我之道, 蓋與明道同, 欲知我者, 求之此文, 可也.”

今夫錦峰之志業行誼，概其平生，實與錦巖同。重元既爲錦巖事實記，又轉其筆，欲爲錦峰有所云云，則歸疊一件文字也。已請以上舍兄所爲狀草改題目曰：“錦峰事實記與錦巖事實記，俱傳，使觀者，合兩文有以互看參考之爲善也。”遂以是說書其後歸之。重元，錦巖之甥曾孫也。歲壬寅春三月下澣，外後屬八溪鄭重元題。

附 錄 補 遺【庚申追刊】

《錦城三稿》

記壬辰舉義事【澤堂李植】

萬曆二十年【宣宗二十六年】壬辰六月，倭將清正長驅寇北，兵馬使韓克誠欲守磨天嶺，以保關北，軍潰而走。賊遂入吉 明 鏡 富等鎮，入曾寧，擄王子，從渡江，攻掠老土部落。還由鍾城門巖渡江，歷入穩城 慶源 慶興 沿海路，還趨鏡城。於是，鎮堡叛兵，爭縛守將，舉城附賊。鏡城則寺奴鞠世弼【世弼，乃是官奴，寺字，或誤，疑卽寺奴，而移屬官奴】爲首，受倭署，置有官號，聲勢尤張。八月，清正使一偏將分領數千步兵，據吉州，以總攝諸鎮，身歸南道。北青 安邊 各置重兵，以爲聲援。當此時，自大將以下至士夫，避亂落北者，陷賊殆盡，獨評事鄭文孚，以故與土居儒生相善，故累窘迫獲脫免。遂與前監司李聖任 慶源府使吳應台 慶興府使羅廷彥 輸城察訪崔東望 謫人韓伯謙 羅德明等，起義兵，入據府城。世弼挾賊勢恐喝，皆潰散，或從間道南奔。文孚復窘，匿禦亂里，民家儒生等，聞而赴之。文孚欲由海道南還，儒生要與復興義兵。文孚察其有忱懇，強而後許。乃使數輩，號召近境吳應台等，及鍾城府使鄭見龍 高嶺僉使柳擎天，皆來會。文孚讓見龍主盟，見龍固辭。士民亦願屬文孚，遂推爲大將，見龍 應台爲次將，散亡稍集，并三百餘人。九月十五日，引兵到府城。世弼懸門不納，叱曰，“爾輩欲耗我糧耶！亟去！”，文孚且脅且誘，世弼遽迎納。諸將欲先斬世弼，文孚曰，“遽也，非計也。”仍命世弼句管官事，又用叛兵嘗射傷己者，爲裨將。【裨將二字，本草以墨抹去，而無改下字，故姑此仍存。】未幾，倭賊百餘人，掠至城南。文孚命軍士開門，擊斬數人，賊退走。六鎮聞文孚且釋反側，爭相送款，人情稍定。始發遣將士，追討反魁，明川末秀 會寧鞠景仁，連次就執，遂并世弼等十三人斬，以徇諸鎮。兵頗應募，衆至六千人，鄭見龍欲保鏡城以俟釁，文孚曰：“本興義兵，國耳，今但自守，不進擊賊，欲效叛徒爲耶。請聽于輿人。”詰朝集衆南門外，諭以兩人所爭孰可，衆皆是文孚。十月二日，進兵明吉界。自是，連與賊遇，大蹂于長德山，再捷于雙介浦，屢圍吉州城及嶺東柵，踰嶺救端川郡，與清正戰白塔郊，前後斬千餘級，語在吉州事蹟。是時，觀察使尹卓然嫉文孚聲績掩己，嘖言‘文孚本一將幕佐，不當自爲大將，違已節度。’文孚不爲遜，卓然大怒，反其實以聞行在，盡抄其首級，分與麾下人，以謀賂遺，又激見龍等主文

孚軍，六易將，軍人輒散去，不得已起文孚領之。其間誤戰機多，以此故。見龍初恒怯，不欲爲標首，及有功，又與文孚相郤。先是，被掠士大夫多就文孚，求搜還財寶。文孚慮擾民不許，又求於見龍，見龍聽許。文孚又訶止之。遂與造飛語，觀察使陰主之，每欲以軍法殺文孚，文孚將佐往往被追，榜掠危死，然軍情益激，不以無功受毒，貳於文孚。明年，朝廷擢見龍防禦使，俄遷節度使。文孚始釋兵，北行六鎮，招服藩胡，搜誅反黨，關北卒就平定，大抵皆其力也。嗚呼，關北俗，本戎羯，地深阻，自爲一區域，古所稱瓶項塞，而清正以勝兵，扼其口，叛賊連帶城邑，雌雄合勢，一人尺土，已非我有，而數三儒生，能知推舉一介，從事於逋竄之中，抵觸危險，以少擊衆，使邠岐舊疆，免淪於左衽，其功有足談者。我國家修文變俗之效，亦可觀矣。然文孚僅以誅鞠賊功，與會寧人，同陞三品秩，從難之士，未得一告身，反被僇辱，至于今，人情憤惋，以爲王事不可成也，豈不惜哉。當初朝問隔遠，只據一二誣啓爲信，厥後二十年間，非無原濕諮詢，而例不以前事爲意，或爲內朝浮聞所惑，終未有紀其實者。頃於從役之假，竊好問老校退卒，深山窮塞，耳目殆遍，而所聞知如一，雖爲卓然見龍輩所左右者，亦不敢有所增飾，然後斷然不疑，略書其概，僭付于事蹟之末。凡同文孚起兵者，京人權管高敬民，奉事吳大男，鏡城出身權管姜文佑，訓導李生鵬壽【戰死】朴銀柱，儒生崔配天 池達源 朴惟一 金麗光【戰死】吳允迪，富寧出身車應麟 朴克謹，儒生金銓 金鏡 車得道，慶源人鄭允傑 應聖父子，鏡城出身金嗣朱 崔敬守 南繼仁【本官奴】，穩城余貞，【本官奴，癸未從申砬有戰功，至是死於嶺東之戰】

狀啓抄【農圃 鄭文孚】

略曰 兵曹佐郎 徐洧 定配人 羅德明 在外村，曉諭村居軍丁爲白如乎，節段竝只入城【卽境城】爲白有齊云云。【萬曆二十年壬辰十月十四日】自臣適大將後，會寧府使鄭見龍乙用良，代爲大將爲白有如可。前年十二月晦間，鄭見龍差兼節度使，巡行六鎮亦爲白遣，更以慶源府使吳應台，改定大將爲白有如乎。今年正月十三日，到付爲白在巡察使關內，吳應台大將適改，依

前評事，以還定大將，亦爲白臥乎在亦。本月初十日，到付爲白，在前大將吳應台牒呈內，兼節度使鄭見龍，遶將入北之時，盡率六鎮精兵百餘名，入歸是如爲有臥乎所，節度使稱云，討倭精兵乙，自己所率是如，任意率去，不爲出送爲白在如中。當此日氣向暖，倭勢漸張之時，討賊之事，極爲加慮爲白昆，臣段置，通關徵兵爲良音可爲白在果，朝廷以各別授事目依數徵兵事，防禦使稱號爲白在。鄭見龍處下送爲白乎去望良白乎旅節。仄聞爲白乎矣，八道南道，至亦已爲科舉是如爲白去等，獨此北道未得赴舉，似乖聳動之本意爲白良置，巡察使不爲啓請處置事良中，么麼小官，啓請爲難爲白齊。道內倡義首人鏡城居前訓導李鵬壽，座首徐遂 李麒壽，鏡城定配蒙宥前都事羅德明，富寧座首金銓等，極力奔走，曉喻愚頑，到今舉事，實賴其功。前日論賞之時，舉業儒生內，禁衛差下，似爲冤悶，不敢不聞爲白乎旅。鏡城判官段置，宋安廷差下是如爲白乎矣，某處留在爲白有臥乎喻，迄未赴任，本府亦都會大處，以討賊諸具太半辦出爲白去等，留鎮假將前監察吳命壽叱分，以策應齟齬爲白昆，同宋安廷乙，催促赴任教是去乃，朝廷以別樣處置爲白乎去望良臥乎事是良尔，詮次以善啓向教是事。萬曆二十一年癸巳，正月十六日。

義旅錄抄【典籍 朴興宗】

略曰：“癸巳正月二十六日，戰于端川地馬屹境，三戰三勝，遂還軍吉州，休其士馬。俄聞倭將，遣大兵，迎吉州，所駐倭撤還南道。大將帥師，且戰且追，至白塔郊南漆木下。別將李鵬壽射一倭將，應弦而倒。鵬壽卽挺出大將馬前，而立忽中丸死。朱乙溫 萬戶李希唐，亦同日死，時則二十八日也。【本註 六大將及羅德明，并爲詩以哀。】”云。

永興次羅克之韻因贈別【鄭文孚】

一見知心蓋已傾，相將玉貌在圍城。
吹毛到處人求過，沒羽如何石感誠。
鬢上三千驚白髮，胸中十萬杖神兵。
自中興後身多病，歸臥林園羨此行。

【嘯浦公始與鄭公文孚 徐公洧 韓公百謙等，起事出入兵間，首尾幾二載。觀朴公義旅錄及鄭公贈別詩，可知其梗概。其時，協贊方略，宜有可傳者，而久遠無徵。戰亡人李鵬壽 李希唐哀詞并，此詩原韻逸不錄。】



附 師 門 簡 札 抄

《錦城三稿》

與羅大之書【戊寅 困齋先生】

春令迫暮，物華暢繁。伏惟侍候萬福，學履有相。鄙人跼伏窮山，疏庸如昨，而時與一二學徒講討古經，以度遣日月爾，不知何日，更對風儀，細論心懷，鬱陶斯極。近再奉手示，仰認尊侍，志篤聖賢，功專進修，沈玩經籍，着實日用，以求必得，夫性命之全，是乃所謂古人爲己之學，不勝敬歎，慰悅之至。所謂關戶端坐云云，深得爲學之方，甚善甚善。但其審問明辨，非朋友講磨，不得。時就有道正焉，亦未爲不可，先經後註，先師之訓已明，更何疑焉。大抵賢侍之資稟剛明，所見日進，畏慰俱極。介清賤丈夫也，心中所存，身上所行，無非求聞計獲之私。潛思默慮，未嘗不歉然愧怍，少無類人之心。是以稍見賢於己者，不覺其抑心下首而敬貌之，況如賢侍之高明可畏，其敢自大而妄尊，以待後生之禮待之乎。此所以禮欲勤辭欲恭也，幸勿怪焉，餘懷難盡，只此。

又【甲申】

介清拜覆，春令迫暮，風日和淑，緬惟思吾賢省侍衙庭，奉養備具，會心適情，無有拂違，人間何樂，可以如之。鄙人疏頑如昨，他無可言者。所可憂者，衰邁日臻，志業目倦。觸情從欲，自知而不克，氣質之累，終無脫洒之期，而至榮利之享，則心雖企慕，而命不可力，奈如之何。事親之道，唯在樂心順志，而介清實不能焉，人之謗斥，自當甘受，敢欲巧避，以圖外利乎。但內省愈深，爲益不少。親側作小家之示，深慰高明愛護導引之厚意也，敬服敬服。京行，家弟止之，而來教亦如之，敢不敬從。邊山之行，與柳定彥已約，人事好乖，亦不可必也。此生之枉了，已矣無奈何，所望者，朋友之中，唯吾兩賢稟賦通敏，奉養贍足，志定業專，不爲外誘所搖爾。願深加留意於古人爲己之學，先以居處恭執事敬與人忠，爲實下手，而博約以進，深察敬怠義欲之勝負，專意於視聽言動之際，不爲末俗義利雙行王霸并用之流，常伸乎落落萬仞之上，尙友乎子子千載之前，不以聞達較量心慮，幸甚幸甚，孤蹤亦以此策勉，賦質頑愚，不能少變，可惜可惜。

與羅有之【後改誠之】書【戊寅】

別後三奉問書，意懇辭切，似有深於朝夕亟見之日，是知賢侍毅貞立之操，不以遠近從違而有所變易也，嘆慰十分。示諭讀論語，其必有心悟默識，自樂於胸中而得效於身上，不勝健羨之至。士不可以不弘毅，任重而道遠章，切須深究玩味，將來以爲己任，立定脚跟做將去，以慰千里衰朽之望。賢侍之天資，固知其不患於做毅，而於做弘處，大段着力，方得。大抵論語之書，其聖賢問答幾千萬言，而求其直指，則不過曰存心。存心之熟，則仁在其中，蓋存心者，存得此心於所當存之地而不爲他物引將去之謂也。如讀學而時習，如何而可以爲學，如何而可以時習，如此推究，自然心不暇他念。又讀克己復禮，如何而可以克己，如何而可以復禮，又窮極其己是甚底，禮是甚底，反求諸自家身心上，所行所存，是己歟禮歟。如或未至，則盡力克將去以求合乎天理。若此之功，雖非一朝一夕之見效，循循勉勉，積至歲月，自然變化氣質，從吾心之所欲，莫非天理，豈不大快活乎。參三天地，唯此爲大丈夫，賢須勉之，鄙人平生之志，亦不在他，而稟固難化，至於衰朽，嗚呼惜哉。所可望者，唯如賢侍之剛毅，千萬努力。花川正天稟可愛，其志操亦不俗，可與有爲者也，賢侍時有引接可勸則勸之如何，與人爲善，亦君子之所當勉也。

錦城三稿跋【原無題】

惟我曾王父兄弟六人，有六龍之稱。其伯曰嘯浦公也，其仲曰錦巖公，而錦峰公又其次也。皆蔚有聲名一時。談論者以英傑不羈推伯氏，以篤學修行，推仲叔，吁其盛矣。嘯浦公嘗有所著而傳寫多魚魯，斗冬既以是病之，又恐其散失無傳，爲之編次繕寫摠詩賦若書疏六十餘首也。仍伏念錦巖 錦峰二公，俱有若干文字，亦不忍其湮沒，并附諸其下，且載以世系狀錄合成一冊子。遂與嘯浦公之玄孫晚運，錦峰公之曾孫斗興，協議經紀，付諸剞劂氏，以畷不朽，而第見鄭困齋愚得錄，則與錦巖公書多，至四十餘首，而其所論學論禮，推獎之語，不啻勤摯。公必有所覆而逸於龍蛇病禍，今其存者，如是草

略, 可勝惜哉. 嗚呼! 感念今昔, 旣已百有餘年, 而惟此遺文不泯, 始舉斯役, 似若有數存焉, 而亦可謂子孫幸也. 工旣訖功, 略敘顛末如右云爾. 崇禎後再辛丑正月辛未, 錦巖公之曾孫生員冬, 謹識.

《錦湖遺事》

《錦城三稿》

錦湖遺事序

道以彝倫爲重，學者孜孜日講，所以求此道，行此道而已，此有待於性分之外也。有子曰：“君子務本，本立而道生，孝悌也者，其爲仁之本與。”若吾外高祖錦湖羅公，其有得於爲仁之本者哉。童而至性，固已格神明矣，而又講磨師友，有修于家，有聞于邦矣。至其試諸一官，期月之化，令其民頌之曰：“仁賢也。”不幸罹橫逆，臨不測之地，聖主原之曰：“孝子也。”嗟乎！彝倫在是矣。迺今四世孫上舍斗冬氏，蒐集先蹟於百有數十年之下，編成錦湖遺事一卷，將壽諸梓，俾重元序之。噫！重元前既猥爲公事實記矣，奚用又以疊床架屋之說序遺事焉。顧公遺事不泯于世，可以感秉彝益人倫，非特子孫之爲幸而已也，敢不書。崇禎後再丙午孟夏，外玄孫八溪鄭重元，謹序。

錦湖遺事序

吾先祖錦湖公遺事一通，蓋慮言之泯沒，而爲之纂次者也。吾先祖自在童幼時，誠孝出天，嘗值母夫人病篤，血指蘇命，此所以中宣兩朝，有三褒之旨，而旌表之，擢用之，寬宥之也。且從賢師友，得聞緒論，宋西郊所稱學行俱備，金鶴峯所謂學問爲業者，有以也。若其遺教在子孫，至使忠孝烈竝生於一家，豈非厚德積善之君子人耶。噫！巍然旌棹之門，見在故里路傍，而士大夫過其前者，咸拱式之，則世之爲父子者，必皆觀感激勵于斯，而第其遺籍，世遠無存，實爲後人無窮之憾也。嘗聞戴記曰：“先祖有善，知而不傳，不仁也。”斗冬有懼，於是，乃極意蒐集，首錄世系，此敘各條曰著述也遺墨也褒獎也事實記也墓道文也。又以行蹟之雜出於先輩文字者及諸公之所酬唱詩章，及所從遊師友，附諸末端，仍成一冊子。吾先祖言行顛末，於此可徵，將鋟梓圖不朽，非敢擬示諸人也，只欲使子孫，家藏而時閱之，以寓羹牆之慕云爾。崇禎後再乙巳冬十一月下浣，玄孫斗冬，謹書。

世系

羅氏本官羅州。世居不出鄉，而始祖以後世代，無徵譜牒所詳載者，只是十二世祖以下。

始祖 富【高麗正議大夫 監門衛上將軍。】

子 仲允【令同正】

子 松奇【令同正】

子 守永【進士】

子 源【通仕郎 司醞署直長 同正。墓在松峴】

子 璉【嘉善大夫 工曹典書。墓在松峴】

子 公彦【中顯大夫 典農寺正。辛禍七年，從全羅都 巡問使李乙珍，克倭有功。墓在羅州西長興洞。配高興柳氏，興威衛保勝郎將 蕃之女。】

子 諱【式目都監錄事。墓在務安南住龍渡板門峙。】

子 自康【通訓大夫 行 務安縣監。墓在住龍渡。配永川崔氏有中之女。】

子 繼祖【將仕郎。成化甲午五月二十五日卒。墓在長興洞。配淳昌趙氏 全羅監牧官餘慶之女。】

子 逸孫【字安之，宣務郎行典涓司直長，贈通政大夫 承政院左承旨 兼 經筵參贊官。三月初八日卒。墓在長興洞。配贈淑夫人，昌原孔氏，生員壯元瞻勝之女。】

子 啞【字伯升，弘治戊申生。嘉靖戊子武科，通訓大夫 行司憲府監察 贈嘉善大夫 戶曹參判 兼 同知義禁府事 五衛都摠官。嘉靖丙辰十一月初九日卒。享年六十九。墓在長興洞。配 贈貞夫人，康津崔氏，弘文館副應教，贈禮曹參判，號錦南溥之女。】

子 士忱【字仲孚，號錦湖，通訓大夫行尼山縣監 贈崇政大夫 議政府坐贊成 兼 判義禁府事。事蹟詳見事實記及墓文。前配贈貞敬夫人坡平尹氏，有三子。後配 贈貞敬夫人光州鄭氏，有三子二女。】

子 德明【進士，義禁府都事。嘗被己丑禍謫鏡城，當壬辰亂，與北評事鄭文孚等，謀起義兵，捕斬邊民，煽亂應倭者，事載北關誌。】

子 以素【有四子楡 禔 桂 紘。】

子 因素【有二子桔，福庶子一袞。】

子 成素【武科, 宣傳官. 有庶子三表, ㄴ方, 袁.】

子 就素【無后.】

子 德峻【師事鄭困齋介清, 以行誼被薦. 官至報恩縣監. 贈戶曹參判. 天性孝友, 奉親以誠, 事繼母如事所生, 鄉人訓子孫事繼母者, 必以爲法云.】

女 金礫【主簿. 壬辰倭亂, 隱避林藪, 忽因夜驚, 夫妻相失, 自縊死, 以烈女旌閭.】

子 續素【宣務郎. 有一子袞, 宣教郎.】

子 繼素【武科 通政价川郡守, 有繼子, 袞, 生員, 都事.】

子 緯素【生員文科, 同知中樞. 贈議政府左參贊, 有三子, 袞 生員正郎, 攀 生員府使, 袞出繼.】

女 崔光憲, 宣教郎.】

子 緻素【有四子ㄴ基通德郎ㄴ兼宣教郎, 杓折衝副護軍, ㄴ瑩通德郎.】

子 經素【有三子, 禎通德郎, 檀禎 文科掌令.】

庶子 緘素

子 德潤【進士, 司憲府監察. 師事困齋, 以行誼著名.】

子 繪素【武科, 通政伊川府使, 有二子. ㄴ成武科, 宣傳, 官檐出繼.】

子 由素【宣教郎. 有一子, 昶.】

子 宜素【進士 文科, 禮曹正郎. 有繼子, 檐通德郎.】

女 尹沆【忠義衛. 丁酉倭亂, 與弟德顯妻鄭氏, 同結裳帶, 投死住龍海口, 以烈女旌閭.】

子 佑湯

子 德賢【困齋文人. 天性孝友, 居憂之日, 啜粥疏飲. 丁酉倭亂, 負母竄伏, 賊徒猝至, 見其抱母, 悲號惻然棄去, 人謂孝感. 仁祖朝, 事聞, 贈司饗院參奉. 妻河東鄭氏, 亦投死住龍海口, 以烈女旌閭.】

子 益素【宣教郎. 有二子, 祐 祐, 進士以孝被太學薦, 官參奉.】

女 鄭澳

子 後素【有四子植 欖 祐 祉.】

子 得素【性至孝. 十九歲丁外憂, 廬墓三年, 泣盡繼血柴毀自盡. 仁祖朝, 事聞, 旌閭.】

子 尚素【宣教郎. 有三子, 裕武科司果, 欖ㄴ完. 庶子一袞.】

子 純素【有一子褱, 庶子二複.】

子 重素【有二子, 禊 武科 裨 式.】

子 德愼【武科, 通政靈岩郡守. 丙申遭艱後, 起復爲茂長縣監. 戊戌露梁之役, 以統制使 李舜臣前鋒將捷倭有功, 時年三十一. 錄宣武從熏一等.】

女 閔喜一

女 柳遷【忠義衛.】

女 魏弘宙【贈參議.】

子 山寶【武科縣令.】

子 廷寶【文科縣監.】

子 國寶

子 德憲【武科 折衝 京圻水使. 丙子春, 奉使入藩中, 虜稱帝需賀, 而脅使參賀班. 公抗節不屈, 人比之蘇武. 椴島都督, 以其事奏聞皇朝, 肅宗朝, 褒贈兵曹參判.】

女 金用健

女 李儒臣【進士】

子 守素【宣務郎. 妻彥陽金氏旌表忠臣, 安州牧使 贈左贊成 壯武公 浚之女. 丁卯狄亂, 安州城陷, 壯務公自焚死, 金氏亦自剄死, 以烈女旌閭. 有一子禕生員.】

子 貞素【有一子繪】

著述

在大安書齋贈韓忠義【應夢 丁亥五月】

炎程千里勤來叩，剝啄聲中驚困眠。
珍重厚情何可報，怡然相對興無邊。

次韻【德明】

山樓驚見魯城面，欲道相思無夜眠。
忽忽不曾開一半，紅輪已輾曙霞邊。

又贈韓忠義

支離疾病難堪苦，徙倚山樓納晚風。
日暮洞幽看未辨，豈知來訪是韓公。

在大安書齋次伯子德明聽琴吟呈韻【丁亥六月】

齋樓雨後一樽開，正是浮嵐捲翠槐。
霽景入眸吟不盡，鳴琴端合倒千盃。

原韻【德明】

積雨晴來暮色開，南山新翠接庭槐。
蜀琴又奏瑤池曲，方朔三千屬一盃。

次牧伯任令公允臣韻【丁亥六月】

病拙誰相問，幽居巖石間。
池清魚潑潑，樹密鳥閑閑。
朽骨叨恩款，齊民荷政寬。
榮臨山動色，加額望征鞍。

次韻【德明】

鳧瀉辭琴閣，飄然水石間。
烟霞修逕靜，樽酒小齋閑。

白日天何迥，青秧野自寬。
殘民揚素髮，雙手拜華鞍。

錦城館榜會宴席次鄭提督仁貴韻呈壯元尹方伯斗壽【丁亥七月】

相公和氣便薰人，飲馥承歡足暢神。
三十年餘成此會，各憐華髮照花茵。

丁亥日記抄

▪正月十四日 雨.

今日伯氏之長男綱之妻元吉母氏之小祥, 子明 峻 潤 顯 慎等, 各措酒果, 進奠. 因子德明聞京奇, 則吾友順川郡守柳祖詒目之以迂愚論駁云, 未知此何等時耶. 聖明在上, 賢俊在下, 其補佐治理, 宜無所不臻其極, 而不知爲臺諫者, 何如人也. 有如柳倅之磊落傑特之人, 而致此失實之論也. 想居八道之郡邑者, 未知幾何人出柳君之右耶. 吾非惜夫柳君之被論也, 深歎夫世道之混淆也, 安得對柳君道此憤恚之懷耶. 柳君非止爲一世之偉人, 雖比之前古之賢俊, 無以加矣. 其忠孝之節, 實挺特不偶之奇男子, 而今爲諫臣之所劾, 若非平日其所憎嫉之人所陰中, 定是儉邪之類所彈射也. 此柳之賢, 故右議政鄭芝衍已舉其忠孝大節, 達于經席上. 鄭相亦賢相也, 必自小少之時, 審知其爲人之賢, 而有此薦進, 必不至阿其所好而妄告之也, 明矣. 今時之居臺諫之位者, 實不知其何如人耶. 謂柳君爲迂愚, 則更以何等人爲賢俊耶. 不自覺驚怪之極也.

▪十五日 雨.

男明 峻 潤等, 慕法聖賢, 行迢流俗, 實爲己務實之士也. 曾有兄弟同居之志, 屢稟于余, 余亦曾有是志而未就, 深以爲感慨者, 幾年于茲, 今則父母兄弟已皆辭世, 余獨留在中夜, 悲痛亦其極矣. 豈意豚犬輩志在古人, 欲爲此懿美之行耶. 乃圖案同堂異室之制呈之, 觀其規畫, 實法前賢之遺意也, 豈不爲之嘉歎耶. 第思茲實末世所難爲之事. 雖力其始, 恐難善終也. 不知我六男, 其能導率一家之人, 卒收燕翼之美耶. 明乎峻乎潤乎, 尙慎勗哉, 毋爲流俗之譏笑也. 余今老且多病, 恐不及見爾曹同居之美也. 雖未及見如能就此志, 則亦可瞑目於泉下矣. 願吾六男體余至懷, 毋忝爾所生也.

▪十七日 晴.

今曉設天只忌祭于隣姪家, 而因感冒未得進參. 只令男明 峻 潤 顯 慎等, 進參也. 一家兄弟令落殆盡, 唯余獨在, 多病而年且老, 屢未參祭, 其爲悲痛感悼之懷, 何可極乎.

▪十九日 晴.

康津居姨妹金氏, 丁其家翁慶源府使李億福之喪, 故今日修吊狀, 送奴以慰也. 李億福以名武驟陞堂上, 將騁長途, 而遽爲病逝, 其家門之不幸, 極矣. 余與李君, 一時遊宦于京, 其相從相好之情, 不啻萬萬, 而忽焉長逝, 痛惜之懷, 尤不可涯極也. 同鄉友進士李曇, 生員鄭履常, 一時病逝. 昨日聞訃音, 嗟悼何極. 李公通家之人也, 鄭君余之同年也. 俱是平日相好之人, 而今爲作古, 其爲悲悼之情, 非尋常比也.

▪二十日 晴.

茅山居甥姪朴自夏, 今曉忽焉長逝, 其家奴奔來告訃, 與豚輩失聲痛哭. 朴姪多子女, 而家契甚貧, 初喪斂襲之具, 想必不能措. 故與豚輩極力畫之, 而事不入手. 傷哉, 貧也! 吾家所送之物, 正木一疋, 塗棺大壯紙十張, 油紙二張, 生麻一束, 草席二, 一銘旌, 紅紬五尺, 幛目握手等具也.

▪二月初三日 晴.

牧伯城主朝送人, 期會于金潭陽士重【千鎰】家, 薄脫進去. 士重設水食, 以待牧伯來臨, 穩說主人, 先呈小床進饅頭. 牧伯又命進官供大床, 極歡而罷. 坐客, 兩城主, 牧伯之子任鏞, 李光宇 光宙, 主人及余矣. 主人之子金象乾象坤等, 故府尹梁應鼎令公之子山璫, 亦參之. 牧伯酒酣, 就執余手與士重之手, “願教我無大失政也.” 云云. 其待之之道, 實出誠悃【牧伯任允臣, 正月纔到任, 判官林起門武弁也.】

▪初七日 盡日雨.

青巖察訪慶時貞, 頃者來見, 今日送白常紙各五卷. 此人無素分, 而以余與其兄慶時經有同官, 相好之分, 累過相見, 極示款意. 言及其兄, 則輒垂淚不自禁, 非友愛深至之人, 必不到此, 歎服烏可已乎. 此人於其兄之死也, 服心喪終三年, 豈非今世之所稀耶.

倭寇分到左右道, 邊警方急. 似聞加里浦僉使李苾中鐵丸于目, 戰不勝而退兵, 右水營虞侯, 因伏兵而無去處云. 此實莫大之變, 憂慮何可極耶. 昇平日

久，文武恬嬉，連年失稔，國無儲峙，北亂未靖，南夷又起，朝無良將，民無死長之心，彼倭奴必審察我國之虛實，乘釁而發。如我迸棄衰病之身，雖死於兵火之中，固不足惜。只念主上孤立於上，未知忠亮之臣，誰氏之子，能仗忠義之節，盡死綏之誠耶。言念及此，不覺隕淚也。設若彼寇能知困我之策，衝東擊西，殆無虛日，則未知我國將何以應之耶。

▪十四日 晴。

率明 峻 顯 憲 等，步上新基，周覽俯視城中春光，已到梅綻柳黃。邇迎山綠，遠混天碧，供眼佳致千萬，其狀真難得之區也。招數奴，錘治兀桌處，雨作而罷。

▪二十五日 晴。

監司韓準巡到。送男德峻 德潤于監司所，使之諮議禦敵之策。

▪三月初三日 晴。

今日踏青佳節，男等各措酒肴，會于南山書堂，穩做清歡。男等爲邀座首鄭進士良佐氏共樂。羅元老 羅德振 德懿等，亦來參。德昌盛辦盤果，德振亦持壺筇。男德明 德峻 德潤，各呈盤果時物，佳羞滿案，可啖。罷散時，會坐新基，呼酒，使子姪輩，各唱歌起舞。今日之遊，可謂至樂也。

▪四月初二日，暫洒雨旋即快晴。

承牧伯之招，率明 峻進書院。選揀書院儒生，而難於取舍，僉議囂囂故也。金潭陽千鎰讓坐於余，良久相推，牧伯乃曰“鄉黨莫如齒，尼山當上坐。”云。余乃首坐，儒生十五六輩來會。薄晚，牧伯請携吾等數三人，移坐于溪邊臺上。牧伯與金潭陽射候。又移會于金廷幹溪亭高臺，盡日歡樂而散。

▪二十七日 晴。

鄭正仁貴，余之同年同庚，相好莫逆之。

▪二十八日 晴。

今日明宗諱辰. 前每爲素, 而今日纔經重病, 不能行素也.

▪七月十八日.

午前晴午後雨. 今日監司尹斗壽欲爲榜會, 會諸同年, 將設大宴. 我以聘母忌日辭不進, 則監司送言曰“禮文不載, 願亟來參.”云. 餘年侍如提督官鄭仁貴, 同福縣監金富倫, 前咸安郡守張以吉, 進士魏大用等, 亦皆致簡邀之. 議諸豚輩, 則監司以壯元爲道主, 設榜會, 不可以聘親私忌不進云. 余且思之進參似當, 故自書堂下來于家, 整官服入府中. 先謁牧伯于西上房小樓, 次謁二衙城主于錦城館後廊, 因見諸同年. 監司先坐撫夷樓, 促諸同年入來使着戎服云. 諸同年咸脫上服, 入謁監司, 監司起出坐席外而受拜, 因坐以榜. 次同福縣監金富倫居上, 次前郡守張以吉, 次余, 次進士魏大用, 次提督鄭仁貴. 舉床後, 監司請來都事權慄, 牧使任允臣. 監司以余今日有忌, 魏大用亦有三寸服, 不命動樂, 極是欠事. 故余行酒後, 進岳相之前而告之曰“令公新臨, 卽設榜會於三十年之後, 榜中之存沒居半, 今日之事, 實盛事也, 不可以二同年之故, 而遂不動樂也, 願先辭歸.”則監司初不許矣, 旋許之. 余先出來, 魏大用見余之出, 亦出來. 始爲動樂, 入夜以遊云. 方宴鄭提督吟呈一絕, 監司卽和之. 又令分紙于座中, 余亦次呈, 監司起而受之, 見而贊之, 曰“不敢當, 不敢當.”云. 【尹斗壽, 字子昂, 號梧陰, 本海平, 居京. 履素齋門人, 後中戊午文科, 官領議政 海原府院君, 諡文靖公. ○ 金富倫, 字惇紱, 號雪月堂, 本光州, 居禮安. ○ 張以吉, 字天應, 本興德, 居羅州. ○ 魏大用, 字士行, 本長興, 居同 ○ 鄭仁貴, 字士顯, 本光州, 居務安. 後中辛酉文科, 官寺正牧使.】

▪十九日 晴.

朝同福倅金富倫致簡, 且送清一升, 漆扇四柄三柄, 則送于豚明 峻 潤也, 中米二斗, 稱山齋饌價而送之. 茲人也, 乃退溪李先生之高弟也, 不但重余, 亦復愛我豚犬輩, 來卽冒夜持酒, 以慰於山齋, 今復致餽, 至此厚意, 不可不進謝. 同福又諭以今日欲獻盃于使相, 仍與諸年兄更語云云. 請我出諸誠款. 余勉強以入先謁二城主, 後欲謁岳相, 而岳相方聽政擾, 不敢進退, 與諸年

兄敘話矣。助防將自京下來州，府中極擾擾。余乃力告于同福而辭歸，則同福不能挽也。

▪八月十六日 午前晴，午後雨。

峻 潤 顯三子，方赴試邑【靈光】。明日當入場，未知貢才將如何耶。懸望不可極也。

▪二十日 晴。

盡日在外軒，以待豚輩之來。午後豚峻 潤 顯，罷場而歸。聞德潤進士場，賦爲三中云。想必高中，何喜如之。及見峻與潤兩場草稿，則皆善製，而德峻之疑對，尤佳可喜。共對夕食爲話也。

▪二十一日 洒雨而晴。

朝，校奴四五人，持榜呼唱於外。及觀榜錄，則男德峻中生員試第六，必入優等也。男德潤俱中兩試，衰門之慶莫大悅，余之懷，極矣。

▪九月初九日 晴。

今日佳節，不可虛過，携羅元老 羅德振 德懿，及男明 峻 潤 顯 憲，孫 龍 蛇 辰 等，出遊川上，釣得銀鱗，滿盤跳躍，玉鱸珍鮮，人皆飫飽。元老 德振 男德峻等，各呈壺筍，嘉魚珍果，皆節物之勝味也。余亦命持點心之具白粒十五升，炊飯以呈，皆飽食也。夕貫魚柳枝，幾什百箇，帶月而歸。落帽之興，其爲此時道也。今朝，牧伯城主，送生秀魚一尾，可合切膾，故亦持爲出遊之資。夕還之路，男德峻率其兒虬 壽，同騎而來，馬仆墜地，興餘之一欠事也。

▪十九日 雨。

明日是姪朴自春永葬，故賻米三斗，大燭一雙，挽章三度，餅一筍及酒果，措送之，男明 潤等，馳往焉。德峻病不得往，德顯曾往其聘家。想與明 潤共祭而慟矣。余之罷歸後，查頓尹彥溥妻氏 金潭陽【景憲】李咸陽【彥讓】姊子 朴自春 自夏 從姪炳文等，皆康強之人，相繼以逝，浮生何至于若此之奄忽耶，

靜言思之，傷痛之懷，不可涯極也。

▪十月初一日 晴。

携鄭上舍【良佐】及六男六姪，聯鑣共往于伏巖金潭陽土重書堂。穩作物外清遊。會書齋點心後，移會巖頭。使漁人鳴舵投網，只得錦鱗一尾。只以紬網所得，作湯咀嚼，江湖之味。乘夕共其轡入來。余乃作首顧後以見，則騎馬列炬而來者，無慮十五六員，其盛極矣。此昔日陪父兄，遊樂之事也，而今日余乃率子弟及親舊而遊，能不嗟悼興感耶。

▪十二月初八日 晴。

明日，先君諱日，設祭于亡姪家，故欲參祭，洗浴致齋。

▪初九日 晴。

鷄初鳴，起整冠服，步進隣姪家。率德峻 德憲 從姪羅德振，行祭仰奠俯思，念昔兄弟俱存會祭之事，慕父母平素警歎之音，由中以發，曷勝悼怛不覺哭之哀也。

▪十八日 晴極寒。

遠想邊戍之卒，寒苦之狀，不覺惻然也。必有凍死者，九重細氈之上，能念及否乎。

▪十九日 大雪極寒。

男德峻 德潤，自錦陽書院來，覲來。

▪二十二日。

書院祠宇，以寒暄 一蠹 靜庵 晦齋 退溪五先生奉安行祭，故峻 潤逢差執事，夕食後，即上書院。余則差獻官，告病于牧伯，則以德明代行事，牧伯懇教之，而明亦落馬傷臂，恐不得進參也。

▪二十二日 晴.

今曉想好. 行書院五先生奉安祭, 豈非一州千古所未有之盛事耶. 前牧使金誠一氏, 勸立書院, 今牧使任允臣氏, 畢建祠宇, 以五賢奉安而祭之, 實士類之大慶也. 男德明 德峻 德潤等, 初既與金牧伯, 謀議營建, 未訖其功, 金使君意外罷去, 今牧伯任使君, 能繼其事, 又建祠宇, 茲兩牧伯, 可謂能知所當務者也. 牧伯使一州諸士, 製祭文進呈, 牧伯以男德潤所製爲善而用之.

▪十二月初三日 寒.

沍比劇. 見鄭右相奴, 問其一家上下頗悉. 鄭相與余, 同庚同榻同門故人也. 一生知己無如此友, 前日會合相從, 有同壘簞, 棄我先逝, 今經四年, 每念不釋矣. 今見其眼前使喚蒼頭, 寧不爲之迸淚耶. 【鄭相芝衍家奴, 初二日自京來納簡, 故有此招見.】

▪初八日 晴.

賀青魚于市, 薦新于宗家父母與伯氏神主. 【時徐氏以家婦爲其僞孫, 婚事上京不舉薦新之儀, 故公設行焉.】

▪二十九日 晴.

先塋節祀, 當次于德顯及亡姪, 家親墓祭, 則當次于朴姪輩, 而不措送之祭物, 今日措送于齋寺也.

▪三十日 雨 雪.

作除夜會, 余力疾出參于外軒房也. 會員從姪羅煥文 炯文 燮文 羅德振 羅德新 姪德昌及男明峻 潤 顯 愼 憲, 少姪德弘, 亦與焉. 極樂而罷, 舊歲隔晨, 只思古詩“霜鬢明朝又一年”之句, 不能不興感嗟悼也.

萬曆中呈文

金應期字彥挺，氣賦愿懿，孝誠純至，自在髫髻，遇異味，輒獻父母。父母有微恙，涕泣憂悴。丙午中司馬，以雙親有疾，不復有居館赴舉之計。丁未，父病沈綿，侍側湯藥，嘗糞以驗吉凶。及歿喪葬，以誠哀毀踰禮。啜粥三年，不食菜果，躬執奠具，且供甘旨，以奉慈親。服闋，母又有宿疾，積年侍藥，衣不解帶，俯伏待朝，土床當膝處，坎入成窠，醫師見之，嗟歎。平生不營私財，母嘗於子婦中欲別有施給，先意導成。戊辰，遭母憂，頓絕方蘇，三日不怠。及葬之日，終夜大雨，哀號禱天，天忽開霽。吊者大悅，皆以爲孝感。朝夕省墓，雨雪不廢，奠羞蠲潔，必思平日所嗜，極力供辦。又啜糜粥，終三年，眼昏聽重，紫毀骨立，見者莫不哀慘。終喪之後，坐必向墓，語及父母，涕淚先零。其孝行之篤，大概如此。明廟朝，嘉其行，再授參奉，而皆不赴。

吾先祖與金公，同居一鄉【蘆谷】，同有至行，同被選於宋西郊薦啓，想必互相推許，有如芝蘭臭味之相符耶。曾見滄江趙掌令凍手筆文字，卽金公誠孝事蹟，而起頭書，以萬曆中呈文其下，又書以出羅尼山所記云，無乃吾先祖製此文褒呈之耶，抑或他人所製而吾先祖取而記之耶？姑附于先祖著述條末端，以俟知者。玄孫斗冬，謹書。

遺墨【時公年六十三】

男明峻潤等，慕法聖賢，行超流俗，實爲己務實之士也。曾有兄弟同居之志，屢稟于余，余亦曾有是志而未就，深以爲感慨者，幾年于茲。今則父母兄弟已皆辭世，余獨留在中夜，悲痛亦既極矣，豈意豚犬輩志在古人欲爲此懿美之行耶。乃圖雁同堂異室之制，呈之觀其規畫，實法前賢之遺意也，豈不爲之嘉歎耶。第思茲實，末世所難爲之事，雖力其始，恐難善終也。不知我六男，其能導率一家之人，卒收燕翼之美耶。明乎峻乎潤乎，尙慎勸哉，毋爲俗流之譏笑也。余今老且多病，恐不及見爾曹同居之美也。雖未及見如能就此志，則亦可瞑目於泉下矣。願吾六男體余至懷，毋忝爾所生也。

褒獎

中宗朝，旌閭復戶。【或云，旌表在於嘉靖甲辰年而未詳。本道監司啓聞及傳教文字俱無徵。後至萬曆甲寅秋，光海命晉原府院君柳根等，編次東國新續三綱行實，忠臣一卷，孝子八卷，烈女八卷，畫像記事。而至於公之事蹟，則以士忱斷指爲題目，其下畫斷指之狀，末端記事曰：“縣監羅士忱羅州人，誠孝出天，年十六，母病斷指，以進卽愈，恭僖大王朝旌門。”云云。及仁祖反正後，以昏朝葉臣李爾瞻姓名，亦嘗冒入於孝子之列，故其書不得行世，而當初刊出本，猶有傳者，附見如此。】

萬曆戊辰，本道監司宋贊啓本【從本州牧使韓輓論報也。宋贊，字治叔，號西郊，鎮川人。嘉靖丁酉，生員壯元，庚子文科，官至贊成。嘗在戊辰，以湖南伯啓薦道內遺逸之士，以公居首，其次同州前參奉金應期，幼學金千鎰，長興進士劉好仁，金胤，凡五人也，仍有議大臣褒獎之教】

生員羅士忱，母病數月不瘳，悶無醫術，自斷手指和藥以進，母病卽愈已。在中廟朝，事聞旌表。爲人性稟真醇，學行俱備，其於父母昆弟之間，人無異言。處事接物之際，信義竝行，父母之喪，一遵禮制，前後廬墓，一不到家，追慕誠篤，祀事必謹，賙窮恤乏，至誠惻怛，早廢舉業，不求聞達。一鄉之人，咸服其行。宣祖教曰：“羅士忱等行實，至爲可嘉褒獎事，令該曹議于大臣。”

柳眉巖日記曰 戊辰五月十五日羅仲默【士愷】兄報云 朝見吏書李公則士忱與劉好仁，相當職除授，金千鎰賜食物勉卒學業，金應期賜食物，金胤旌門復戶，此蓋銓曹與大臣議定者也。【柳眉巖，諱希春，字仁仲，善山人，號城隱。桂隣之子，與公爲姨從兄弟也。生于正德癸酉，博學強記。嘉靖丁酉生員，戊戌文科。乙巳權奸釀禍之日，以正言，折大司憲閔齊仁等，仍被坐罷。丁未配濟州，戊申移配鐘城，乙丑量移恩津。宣廟初，以校理承召，歷官大司憲，吏曹參判，特陞資憲長，以副提學侍講經學。丁丑五月卒。贈左贊成，諡文節公。】

萬曆庚寅就理時【傳教】

教曰：“求忠臣，於孝子之門。名參孝子者，原之，積嫌誣引者，革之。”【前年己丑十月，鄭汝立逆獄起，左議政鄭澈以委官主獄事，乘機羅織。同福進士丁巖壽等，承其風旨，投誣疏陷諸名流，公父子之名，亦載其中。及巖壽疏入，上震怒，命拿鞫巖壽等。澈嗾臺諫及太學生，請寢之，蒙允。明年庚寅，公竝五子，竟被逮，有此求忠孝門之教，而蒙宥焉。又明年辛卯閏三月，兩司合啓論鄭澈擅弄朝綱裁制，一時請罷職，依允，命榜示其罪目于朝堂。六月，大司憲李元翼等，大司諫洪汝諄等，合啓論鄭澈濁亂朝廷，欲陷異己之人，教誘湖南儒生，上疏名卿士類，驅入逆流，欲盡殲滅，請遠竄，依允，特命配江界。七月，兩司合啓曾前臺諫承權奸指嗾，論救丁巖壽等，仍寢拿命，請竝罷職，依允，傳曰：“鄭澈賦性，狡猾奸毒，既到配所，交通雜人，未知作何等，罪狀嚴加圍籬。”後二年癸巳十二月，鄭澈卒。明年甲午十一月，兩司大司憲金宇顥等，大司諫李堦等，論鄭澈主獄羅織之罪，請追削官爵，依允。】

事實記

公姓羅氏，諱士忱，字仲孚，自號錦湖，世爲羅州人，家州城。始祖曰富，高麗監門衛上將軍。其後系牒所載曰得蚪，曰仲允，曰松奇，三世俱令同正。曰守永，進士，曰源，司醞署直長同正，曰璉，工曹典書。洪武二十三年以前，判事監榮山漕倉築城，事有陽村權近所記。曰公彥，典農寺正。洪武十四年以前，少尹從都巡問使李乙珍，有克倭功，事在麗史。曰諱，式目都監錄事，曰自康，務安縣監，曰繼祖，將仕郎，曰逸孫，典涓司直長，贈承政院左承旨。嘗與一州賢豪十一人，倣蘭亭故事，修錦江稷，風流雅致，傳爲湖中美談。曰啞，司憲府監察，贈戶曹參判，爲公皇考。妣耽津崔氏，弘文館副應教，贈禮曹參判。錦南先生曰：“溥爲外翁，以文學氣節名世，被燕山戊午史禍。”嘉靖乙酉二月二十八日，公生。稟質異凡兒，孝愛出天。年甫十六，崔夫人病篤，血指和藥卽愈，事聞中廟，命旌閭復戶。長而從履素齋李仲虎，遊與鄭南峰芝行、柳汎愛

祖訥同學，相推許。明廟朝，舉乙卯榜生員試。宣廟元年戊辰，西郊宋相贊按湖南，薦一道遺逸之士五人，以公爲首，稱學行俱備，其四人，金應期、金千鎰、劉好仁、金胤也。上教有曰：“羅士忱等，行實甚嘉，令該曹議大臣，褒獎之。”天官遂與大臣議，或旌閭復戶，或給食物，俾勉卒學業，以公旋復已在先朝，故特擢除慶基殿參奉。其明年，伯氏士愼寺正公，卒于京，公蒼黃奔哭，扶櫬南歸坐。是課殿，姨兄眉巖柳副學希春歎曰：“羅仲孚遠來，護兄喪以歸其遞職，實有光。”洪尙書曇，亦亟稱之。辛未，除宣陵參奉，後五年，復換慶基殿，轉義禁府都事，宗廟署直長，陞司憲府監察。甲申，出爲尼山縣監，治尙清簡，邑有勢家田民訟，公片言折之。忤方伯考下，其民樹石刻詩，以追思之，其詩曰：“倭花一朵鶴一隻，行李蕭然古人風。”云。己丑，鄭汝立逆獄起，委官鄭澈乘機，羅織禍多，波及凡平日所不與者，無不驅之一網。同福人丁巖壽等，承其風旨，投誣疏搆陷諸名流三十餘人，如李相山海、鄭相彥信、西厓柳相成、龍困齋鄭徵君介清，皆入其中。且舉公父子爲言曰：“羅某以其子等交汝立素密，知禍及己，譸張其說，欲爲伸救。”其他做語危險，罔有紀極。公之子德顯、德憲等，不勝憤惋，入其會中，大言峻斥之。巖壽等疏既入，上震怒曰：“爲乘逆賊之變，敢肆搆陷之計，捏造無形之語，陰陳詐譖之疏，賢相名卿，無不指斥。必欲空國而後已。凶慘之狀，極爲駭愕。此必聽奸人指嗾的然無疑。”命禁府，拿鞫巖壽以下十人。澈懼甚，嗾臺閣爭之，太學生迭爲之投童，乃還寢成命。其疏中事，亦不問也。時務安儒生裴冀等，亦上疏訟困齋及公冤狀甚悉，而主獄者又因洪千璟等媒孽，竟以謀沮巖壽疏捏爲罪目，公及五子竝被逮。上有教曰：“求忠臣於孝子之門名。參孝子者，原之。積嫌誣引者，革之。”公卽有，出五子，俱流竄。德明鏡城，德峻富寧，德潤會寧，德顯、德憲徒配鐵原，癸巳赦之。丙申十二月二十三日卒，壽七十二。公性度眞醇，德行純篤，孝悌至誠，可通神明。居喪，一遵禮制，前後廬墓，足不到家。祀享，必致虔懇，追遠報本，靡不盡心。至於外曾祖進士崔公諱澤墓在務安，既血孫絕，世守護無人，公爲之拜掃定墓，直禁樵牧，聞者感之。嘗欲與兄弟同居有志，未就，兄弟皆盡公居常爲恨，及見諸子能繼志，盡進同堂異室之制，深加嘉勉，申以無忝爾所生之教。門有係倫紀大訟，久未決，及金鶴峯誠一爲州牧，卽斷之，謂公諸子就訟者曰：“世之爭訟，多以利，而此所爭，乃天理

也。”且稱公以學問爲業者云。公值明廟諱辰，輒爲素食，至六十餘，不以衰病或怠，蓋當明廟朝，厚沐菁莪之化，陞國子故也。公雖老伏田園，未嘗忘戀闕之心，玉峰白光勳贈公以“悠然高枕處，雲闕夢蒼茫”之句，此正寫出公心境也。平居鄉里，信義有終，賙窮恤乏，務極惻款，惻隱之心，亦及微物。嘗見廚饌，小魚卵滿腹，命放盆中活魚，將待食者，雖一瑣節，其仁愛所推可知也。在尼山，捕一僇兒，諭以義理而釋之，其人遂感動懲創。設縣前旅店，應接行路，以效其勤身自新，德化及人，又如此。公之至行，在柳西垌根新編續三綱行實以事，在光海世，爾瞻姓名，亦嘗混孝子中，故其書不傳，譚者或以爲憾。公葬務安住龍渡乾坐巽向之原，從治命也。以子德潤 德愼 德憲，俱參從勳，故初贈吏曹參判，累加至議政府左贊成。配坡平尹氏，府使彥商女。生四子，別葬本州長興洞。繼配光州鄭氏，僉使虎女，生三男二女，葬祔公。竝追封貞敬夫人。子德明己卯進士，義禁府都事。德峻薦才行，報恩縣監。德進早夭。德潤戊子進士，司憲府監察。德顯以孝，贈司饗院參奉，妻鄭氏節行旌閭。德愼辛卯武科，靈巖郡守。德憲癸卯武科，京畿水使 贈兵曹參判。女長適忠義衛尹沆，節行旌閭。次適贈參議魏弘宙。都事四子，以素 因素 成素武科宣傳官。就素。縣監五子，續素宣務郎，繼素武科僉中樞。緯素文科同中樞 贈左參贊。緻素 經素。二女長適主簿金礪，節行旌閭。次適宣教郎崔光憲。監察三子，繪素武科伊川府使。由素宣教郎，宜素文科禮朝正郎。沆子曰禹湯。參奉六子，益素宣務郎。後素 得素，以孝旌閭。尙素 純素 重素。一女適鄭渙郡守，二女適閔喜一 柳遷。魏弘宙三子，山寶武科縣令。廷寶武科縣監，國寶。二女，適主簿鄭敬一 將仕郎崔渙。水使三子，守素宣務郎。妻金氏節行旌閭。泰素從仕郎。貞素。二女，長適金用健，次進士李儁臣。自餘內外雲仍多至千百，不可勝錄。嗚呼！禮曰：“生事愛敬，死事哀慊，生民之本，盡矣。孝子之事親，終矣。”，又曰：“爲人子者，將爲善，思貽父母令名，必果，將爲不善，思貽父母羞辱，必不果。”子夏曰：“事親能竭其力，事君能致其身，與朋友交言而有信，雖曰未學，吾必謂之學矣。”竊觀公之於學，不外日用彝倫之則，以之修善行立善名。若西郊之薦以學行，鶴峰之稱以學問，信有以也。諸子趾美人稱六龍，如德明謫中，當壬辰亂與北評事鄭文孚，謀起義兵捕斬邊民，導倭煽亂者，德愼從統制李舜臣，殲賊露梁。德憲從戰鞍峴，蹙倭賊，又奉使瀋庭，

抗節不屈。德峻 德潤，俱行義知名。德顯亂離中，臨危急抱母悲號，感倭賊，獲免。得素居喪，致毀歿，女若孫女，婦若孫婦，殉節。又四人子孫，兩世忠孝烈駢出，爲世所榮，莫非公成教於家而有以致之也。詩云；“孝思不置，永錫爾類。”此之謂矣。位不滿德，中遭橫逆，命也時也，於公，何損焉。顧公之歿，今爲一百二十有七年，有玄孫斗冬，懼世代益遠，先蹟浸至無徵，收拾家中遺事 族牒 墓文，凡見聞所追，及欲具成一通文字以傳後，以重元在外裔之列，屬以刪定茲，敢因其草本，略施櫟括概，公始終事實，如右固知不足以揄揚德美。然仰觀先哲王兩朝三褒之旨，可證公行義不遠在茲百世之下，宜亦有所感發於孝理之化秉彝之天矣。昔陶淵明爲外王父孟長史傳，有曰：“按採行事，懼或垂謬，有虧大雅君子之德。”重元亦不能無懼於斯也，不敢侈一辭書之以質而已。崇禎丁丑後八十五載壬寅季春上弦，外玄孫通德郎 前行光陵參奉 八溪 鄭重元 謹述。

墓碣銘【竝序】

不佞瑞雨自少從薦紳先生，聞湖南之羅氏彬彬有世德。老還羅生斗夏，托以其先考及亡伯之顯刻，思有以效吾慕用者，不以匪其任爲解，而勉焉卒事。今又以其高曾二世之墓文見屬，顧瑞雨益老且病，實無以自力重副生之所須，遲回久之。然南面而行者，不至郢而却返曰：“吾已盡楚之觀”不可也。遂強起噓枯而爲之叙曰；羅生之高王考，贈贊成公諱士忱，字仲孚。其始祖曰高麗 監門衛上將軍諱富。其後，工曹典書諱璫，典農寺正諱公彥，最顯。有諱自康務安縣監，縣監生將仕郎諱繼祖，將仕生典涓司直長 贈左承旨諱逸孫。承旨生司憲府監察 贈戶曹參判諱啞，是爲贊成公之四世。妣崔氏司諫院司諫 贈禮曹參判錦南先生諱溥之女。錦南以博學壯節爲成宗名臣。贊成公生於嘉靖乙酉二月二十八日。自幼性至孝，十六，崔夫人病篤，斷指和藥，以進即愈，中宗命旌閭復戶。長游履素齋李仲虎之門，同門如鄭南峯芝衍 柳沆愛祖訥，皆相推許。明宗乙卯補國子生，宣祖元年戊辰，道臣宋贊以公行誼聞于上，上嘉之，夏除慶基殿參奉，遭伯氏喪棄歸，後除宣陵參奉，再除金吾

郎，由宗廟署直長，陞司憲府監察。甲申，拜尼山縣監，爲治抑豪強恤小民，忤方伯居殿，邑民追思立石，有“倭花一朵鶴一隻，行李蕭然古人風。”之題。己丑冬，逆臣鄭汝立之獄起，委官鄭澈，乘機羅織，湖人丁巖壽等，承徹旨，將投䟽嫁禍於一時名流，如李相山海 鄭相彥信 柳相成龍 鄭困齋介清，凡三十餘人，皆入一網，而又舉公父子之名，曰：“某之子某，與汝立交至密，某恐其株累請張救解，皆宜罪。”公之子德顯 德憲等，不勝憂憤，詣巖壽䟽會，大言辨斥。及巖壽䟽上，上震怒曰：“乘逆變陳邪䟽，賢相名卿，無不指斥，欲空國而後已，此必有奸人嗾者。”命禁府拿鞠巖壽等十人，澈恐，囑臺啓太學䟽救之，寢其命。然天鑑孔昭，恃而無虞。又有務安儒生裴莫等䟽，訟困齋及公冤狀甚哲。然竟以前沮巖壽等䟽爲罪。庚寅，公與五子，俱就繫。上教若曰：“孝子原之，誣引者審之。”公卽幸宥，而五子不免投北，吁其危矣。萬曆丙申十二月二十三日，以疾卒，壽七十二。葬于務安住龍渡向巽之原，從治命也。以三子俱有原從功累贈至左贊成。前配坡平尹氏府使彥商之女。舉四子，墓在羅州長興洞。繼配光州鄭氏蛇渡僉使虎之女，舉三子，葬附公，皆贈貞敬夫人子。德明己卯進士，義禁府都事。德峻報恩縣監。德進早夭。德潤戊子進士，司憲府監察。德顯以孝聞，贈司饗院參奉。德愼武科，靈巖郡守。德憲武科京畿水使。女長適尹沆，次適魏弘宙。德明四子，以素 因素 成素武科宣傳官，就素。德峻五子二女，繼素宣務郎，繼素武科价川郡守，緯素文科同知中樞，緞素 經素。主簿金礪 崔光憲，其婿也。德潤三子，繪素武科咸安郡守，由素 宜素文科禮曹正郎。德顯六子一女，益素宣務郎，後素 得素有至行。居憂啜粥，血泣而吻，尙素 純素 重素。鄭渙，其婿也。德愼二女，閔喜一 柳遷，其婿也。德憲三子二女，守素宣務郎，泰素從仕郎，貞素。金用健進士 李儒臣，其婿也。尹沆一子，佑湯。魏弘宙三子二女，山寶武科縣令，廷寶武科縣監，國寶。主簿鄭敬一 崔渙，其婿也。內外雲仍多，不能盡記。公稟性真醇，孝友天至，父母昆弟之間，人無間言。居喪盡禮，前後廬墓，一不到家，祀享虔謹，調恤惻怛。有子皆賢，人稱六龍，庭訓所及，世濟懿行。如德愼，從統制李舜臣殲賊于露梁，德憲從諸將蹙适于鞍峴，奉使虜庭，抗節不屈，忠矣。如德顯之善養，得素之毀死，孝矣。如公之女適尹沆者，德顯妻鄭氏，德峻女適金礪者，守素妻金氏，竝殉節旌閭，烈矣。一門而三綱備，嗚呼！世豈多有也。

哉. 銘曰: “孝於事親, 廉以律身, 義施于窮乏, 教行于子孫.” 於孝! 公可謂篤行人也. 嘉善大夫 工曹參判 兼藝文館提學 李瑞雨 撰.

墓誌銘【竝序】

中宗庚子, 湖南有羅氏子裁舞象膺旌棹鐃符, 則血指旌天只故之以長而愈騫登, 宣廟元年戊辰, 薦剡牽絲於獎, 至己丑逆獄, 乃又渙發求忠孝門之諭, 脫柴桑倦翮於半山鶴鶩中. 噫! 致兩朝三褒者, 經所謂天經地義, 皆是物也, 亦豈無所自乎! 蓋世之望於羅也, 始乎監門衛上將軍富, 工曹典書璫, 典農寺正公彥, 最顯傳. 式目都監錄事諱諱, 基于德, 則以諱自康務安縣監, 諱繼祖將仕郎, 諱逸孫典涓司直長 贈承政院左承旨, 諱啞司憲府監察 贈戶曹參判, 爲四世以博學壯節. 成宗朝, 名臣司諫院司諫 贈禮曹參判錦南先生崔公諱溥爲外翁, 又以履素齋李仲虎爲師, 其胚前光, 而體先覺躋, 而後可知也. 故鄉黨早有江巨孝稱, 同學推挹如馬門鄭玄云. 明宗乙卯, 補國子生, 己巳遭伯氏喪棄若云, 薦拜慶基殿參奉歸. 辛未以後, 除命相續以宜陵參奉, 義禁府都事, 宗廟署直長, 陞司憲府監察. 甲申, 監尼山縣坐, 抑溫戶強工, 奮髯而歸, 邑人刻碑詩, 如趙清獻龜鶴語. 自是婆婆圖書松竹, 天機也深, 所謂己丑之禍, 則詳在狀若碣文中. 時治獄者, 烘爐叢伎, 公父子之免桁楊之鬼, 則天日之臨頭也, 五子皆流竄, 凜凜一髮, 吁其危矣. 丙申十二月二十三日, 以疾卒, 距其生乙酉二月二十八日, 得年七十二. 葬于務安住龍渡, 向巽之原, 以三子俱有原從功, 屢贈至左贊成. 公諱士忱, 字仲孚. 前配坡平尹氏, 府使彥商之女, 舉四子, 葬在長興洞. 繼配光州鄭氏, 僉使虎之女, 舉三子二女, 葬祔公, 皆贈貞敬夫人子. 德明進士義禁府都事. 德峻報恩縣監. 德進早夭. 德潤進士司憲府監察. 德顯以孝聞, 贈司饗院參奉. 德愼武科靈巖郡守. 德憲武科京畿水使. 女長適尹沆, 次適魏弘宙. 德明四子, 以素 因素 成素武科宣傳官, 就素. 德峻五子二女, 纘素宣務郎, 繼素武科价川郡守, 緯素文科同知中樞, 緞素 經素. 主簿金礪 崔光憲, 其婿也. 德潤三子, 繪素武科咸安郡守. 由素 宜素文科禮曹正郎. 德顯六子一女, 益素宣務郎. 後素 得素 有至

行泣血不勝喪。尙素 純素 重素。鄭渙，其婿也。德愼二女，閔喜一 柳遷，其婿也。德憲三子二女，守素宣務郎，泰素從仕郎，貞素。金用健 進士，李儁臣，其婿也。尹沆一子，佑湯。魏弘宙三子二女，山寶 廷寶，皆武科縣監，國寶。主簿鄭敬一 崔渙，其婿也。內外雲仍多，至千百。李侍郎瑞雨之墓碣曰：“公有子皆賢人，稱六龍。庭訓所及，世濟懿行。如德愼，從李統制舜臣，殲賊于露梁。德憲從諸將，蹙于鞍峴，奉仕虜庭，抗節不屈，忠矣。如德顯之善養，得素之毀死，孝矣。如公之女適尹沆者，德顯妻鄭氏，德峻女適金礪者，守素妻金氏，竝殉節旌閭，烈矣。一門而三綱備，嗚呼！世豈多有也。”不佞因是竊概，公雷股和糜，玉淚枯栢，孝之本也。無間昆弟，力爭倫紀，孝之枝也。律己箴官，誼物孚人，孝之葉也。宜乎振振彬彬，爲一門萬世棟樑哉。是可以賁諸幽銘曰：“至仁至神，惟君惟天，褒而誼芬，祐而慶綿，曰君子之阡。”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 兼 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閔昌道 撰。

行蹟輯錄

眉巖日記曰 戊辰六月二十日，都目政羅士忱，以慶基殿參奉首望受點。

又曰 八月初一日，邀羅士忱，相與校正外祖錦南先生集。【時公以肅謝入京】

又曰 己巳六月，羅仲孚棄官遠來，護兄喪而得罷職，亦有光矣。【同年六月初七日，伯兄寺正士愼公卒于京第。公自慶基殿，任所十五日聞訃，翼日即發奔哭之。行舊例本，前參奉殿最監司主之，而以棄官遠去置下考，故有此罷職有光之語。】

又曰 七月，見羅士忱二十七日中路書，略曰 一路各官，不特盛出軍人與車牛，亦有饋餉，而助行資處。此皆尊兄主折簡之力，感泣之意，益難枚喻。初出之日，廣州軍與牛，亦盛出，故發京之日，能到龍仁行院。忠清道各官，則以監司行下略，供饋上下奴主。恩津宰則特盡餉一行，又大助行資。【同月二十一日，公陪寺正公喪行，自京離發到礪山，有此書。】

又曰 庚午五月十五日，見羅士忱簡，則去四月二十六日，往尋務安石津里外曾祖崔進士墓，定山直禁樵牧，墓貌如昨，階砌尙完，石物依舊，感愴不已。

【崔進士諱澤，配驢陽陳氏，太平館直諱用之之女，卽錦南之考妣，而墓在石津里於乙申。眉巖嘗要公往省之，仍使定山直守護，且致書于本縣宰，助成其事，故公依示後裁答如右。】

又曰 九月十二日，戶曹判書洪曇太虛公過臨，談話從容，仍及羅士忱以奔兄之喪遭殿，觀過知仁。來年六月，乃經二年令公，若判銓曹，幸可收拾，則答以甚可矜念云

又曰 辛未六月初五日，仲孚爲我祭先釀酒送二瓶來，卽浸冷水中。【眉巖以本道監司巡到羅州，而六月初六日，卽其親忌，故欲以紙榜設祭于公廨，公精釀祭酒，以送之。】”

又曰 八月十九日，政羅士忱入宣陵參奉首望，受點，深喜卽馳書以賀。【卽二十日巡到谷城時事也。】”

又曰 甲戌四月，羅士忱報羅正仲默兄之男夢男，三月二十六日死於傷寒，卽林兵使晉之婿。驚悼驚悼。【夢男，卽德純之乳名。再昨年，纔成婚，年今十六，致夭。公成服後，尙累日行素。眉巖邀致懇論勸肉，送乾雉一首。】

又曰 五月初六日，邀羅士忱授粢，贈以梅花詩。【卽退溪所作也。】

又曰 初七日，以黃海監司閔起文所送家禮，送于羅士忱，答書略曰 此平日之所景慕而欲得者，敢不寶藏而珍玩耶。

又曰 徐氏哭子後，致書于羅士忱，請以德潤爲侍養，士忱以不可之意回報。希春獎其知義。【徐氏，卽羅正之後室，而夢男之母也。六月晦日及七月二十日，兩度致書，懇乞侍養，而不許之。後徐氏與其婦林氏，幻出奸謀，潛竊本州西門外居私婢金西非之子，詐爲遺孕，而謂以閏十二月二十二日解胎。】云云。

又曰 丙子四月二十日，政羅士忱復換慶基殿參奉。

金鶴峰林羅訟結尾文案曰 林氏招內羅士忱，憤其子不爲侍養，成此不測之言，而當初徐氏求侍養于士忱，士忱不許，而徐氏則堅欲爲之其諺書內乃曰無識婦人，何以知法乎云云。則徐之懇求，羅之固辭，於此，可知。初則徐氏懇求侍養，而終以不道之言加之，士忱極爲兇險。【金鶴峰諱誠一，字士純，義城人，居安東，退溪門人。嘉靖甲子生員。隆慶戊辰文科。癸未，以舍人特拜羅州牧使。丙戌，決折林羅訟，明卞僞子委折。其年冬，罷遞。癸巳，以慶尙右監司，卒于晉州。後贈 吏曹判書，諡文忠公。】

鶴峰決訟後，推考公緘曰 羅門睦族，一鄉之所取服，士忱則至於旌閭復戶，抑亦國人之所知也。事跡未彰著之前，則徐氏每以悲辭苦語，抵書於士忱，則爲士忱者，千里仕宦，其答書之際，姑致慰解之意，此人情之所必至者也。又曰 副提學柳希春，羅門之四寸，而兩度致書，以示善處之策。府使金千鎰，林徐之比隣，而明知奸狀，勸其以義斷恩，此等曲折備載推案云云。

又曰 柳希春書中，明言六七月求侍養之事，金千鎰公緘中，明言金西非覓兒之事，惟此兩人之言，足斷是獄，不此之信，而信妖婦之言，謂羅門之書前後牴牾，實所未解。

又曰 自三月至七月，前少無邪意，只圖侍養於士忱。七月二十日書乃曰 意謂有遺腹而亦無計較於何依托云。則其志誠悲而求侍養之計，益切矣。及士忱以義峻辭之後，則計無所出。八月間，始爲僞胎之狀，寧有六七月未形之胎，遽形於八月之理，其爲僞胎曲折如此。

又曰 設使羅家一門實爲兇險，必有嫌於人，有利於己然後乃可起訟，而此則素有和睦之行，而萬無爭財之事。十八歲姪婦有遺腹之兒，則雖大無道之人，猶有喜行悲感之心，何故以孝行旌閭，以學問爲業者，舉族一談必欲殄絕亡姪之後耶。此等事狀法司既已明察，而不爲更加推卞，必曰女醫之爲信，實所未解。

鄭寒岡所撰鶴峰行狀曰 癸未，特授羅州牧使云云。州有林氏 羅氏，皆一邑巨族也。羅娶於林，無子而死，林竊取他人家兒，與婢陰謀詐爲遺孕而爲己出。羅門請辨其僞，而訟其亂宗，累經推覈，積年不決。公一觀看破，明其爲僞而斷之，公論大快。【鄭寒岡諱述，字道可，清州人，居星州，以寒暄堂外曾孫，道學蓋有所自，遊退溪 南冥之門，益聞爲學之方。宣祖初以遺逸被薦，歷官內外。光海初，特拜大司憲 兼 輔養官。丁巳冬，撰鶴峰行狀。庚申卒。仁祖朝，贈吏曹判書 諡文穆公。孝宗朝，加贈領議政。】

務安儒生裴冀等疏略曰 前縣監羅士忱，乃中廟朝旌表孝子也。殿下卽位之初，特命爲參奉，陞拜尼山縣監，有茂績，立清德去思碑，君親雖曰不同，忠孝本無二致。庭訓所及，必有其本，其一家之人，雖不得皆爲忠信，而必不欲爲逆賊之所與也。其子前都事臣羅德明等，皆以學行之人，而授入疏內，冤亦慘矣。白日照臨，丹心可明，固不待臣等愚妄之說而不覈之也。云云。

答曰 知道。【己丑十二月，有丁巖壽構誣疏，故裴莫亦陳疏仲卞鄭困齋及公之案狀。】

傳來記聞曰 眉巖兄鷺巖【成春】，嘗爲吏曹佐郎，早世。有孫女無父母，眉巖要公兄弟擇婿，公乃以外五代祖崔公有中之後孫秀景，合宜之意，書以復之曰年纔十八，人物英明，又有學氣。云云。眉巖素信公，遂與之定婚。【崔公實係外祖先而未詳。其來歷必是公之高祖 務安縣監。公配永川崔氏之考也。】

又曰 尼山蒞任時，捕得一賊人，諭以義理，而釋之，賊人感動而懲創之。創設縣前旅店，接應行客，以爲勤苦自新之地，人稱德化之及人如此云。

又曰 尼山蒞任時，女婿家及宗孫家，俱送馬求請而酬應。宗家之物，優於女婿家，人服其重宗之義云。

又曰 尼山縣前路傍，初有去思碑，爲壬辰兵禍所傷，故遺民爲之更立石，以寓不忘之義，而奮刻七言絕句，“倭花一朵鶴一隻，行李蕭然古人風。齊民痛惜仁賢去，召伯修褒亦不公”之詩，不傳焉。

又曰 公之庚寅被拿也，竝五胤一時發行，事多艱辛，而人皆畏禍，無敢問者，獨同鄉孝子李有慶，以其所騎助行，不負患難相救之義，聞者趨之云。【李有慶，字孝叔，慶州人。嘗居州之茅山村，以孝著聞，卽己卯名流生員蟹之曾孫。亦於庚寅爲鄉人所構被逮尋宥。後朝家聞其賢，再除師傅，皆不就。】

諸公詩章

次羅仲孚韻 仍呈宣陵齋所【李彥讓，字景禮，陽城人，居州之興龍洞，自號龍江。金河西麟厚門人，與公同中乙卯司馬 丁卯文科，官至咸陽郡守。公嘗於宣陵寢郎，供仕之曰：“與李公同舍旅宦，第三子德潤，亦從焉。托名中學而受小學 心經 近思錄於李公。其四韻詩所云君來携一子者，此也。李公愛其才，以女妻之。”云】

風雨寒窓鶴髮愁，南天杳杳白雲悠。
無人湖外傳春服，千里應勞爲子夏。

又

風塵役役長馳騫，身是吾身不自頤。
一夜浪浪窓外雨，謾教添白數莖髭。

又【以上三絕聽雨】

雨過春山草自生，殘花飄落蝶無情。
森森入眼渾成感，滴滴寒簷更有聲。

又

此夜蟾光十分明，數聲隣笛更多情。
遙思杜老清宵立，今古心同步月行。

又

玉淚聲殘曉月低，客窓寒夢倍悽悽。
三年京國同襟抱，何日江村共黍鷄。

又【以上三絕步月】

春深錦水可消憂，明月誰乘李郭舟。
早識歸田爲第一，年光何事度悠悠。

又次七言四韻

曾嫌管鮑未同居，猶自流芳萬代餘。
連席數年君共我，斷金他日子兼余。
隔江謾作三秋別，會面遙期四月初。
回首長安家十萬，羈懷鬱鬱向誰摎。

又次五言四韻

君來携一子，得我忽成三。
蓬入麻中直，萍因鹿食甘。

輔仁吾豈敢，忠告子無慙。
相對傷頭白，羈魂繞錦潭。

紅塵長汨沒，泉石負寒盟。
老去頭將白，愁來夢不成。

郊原秋氣動，江漢客心驚。
何日携兄弟，萱堂侍此生。

又

客寓南山近，蟬聲咽遠林。
菊憐新得兩，人別舊知音。

抱膝吟涼夕，友瀕坐夜深。
桑鄉歸日迫，去住摠關心。

送羅仲孚解官歸鄉 白光勳【字彰卿，號玉峰，水原人，居海南，以詩調筆法，名於世。嘗爲遠接使，白衣從事官，官止參奉。公以金吾郎見遞還鄉時，玉峰有此別章】

嘗盡人間味，歸田策最良。
已拚身似更，贏得鬢成霜。
水國菱荷足，山園芋栗香。
悠然高枕處，雲闕夢蒼茫。

謹次舊城主韻仍呈山齋靜案 韓應夢【清州人，居尼山。】

龔黃清簡昔蒙賜，一部生民但食眠。
又入滄洲分半席，層層蒼翠接湖邊。

吟呈羅尼山山齋靜案 任允臣【字景龍，豐川人，居京。嘉靖己未文科，官至監司。】

夙有煙霞契，棲遲屋數間。
琴中流水遠，簷外度雲閑。

子姪詩書課，賓朋禮數寬。
樽傾山欲夕，談罷戒歸鞍。

錦城館榜會宴席次鄭提督【仁貴】韻示諸同年索和

乙卯人同元祐人，淡交無處不爲神。
碧梧軒外千竿竹，更記當年此錦茵。

又近體贈諸同年

共擡青眼撫夷樓，倍憶紅顏乙卯秋。
一代風流長入夢，當年二百半成丘。
錦山雨後青宜笏，靈水秋前綠可舟。
珍重此筵須勿負，明宵赤壁月中遊。

次韻 金富倫

蓮榜當年第一人，只今詩句更精神。
要將滿酌酬佳會，莫問樓中醉吐茵。

七八賓朋百尺樓，清風明月認新秋。
且看遠近山千點，不問興亡土一丘。

豈獨錦城飛玉盞，須同赤壁泛蘭舟。
青眸到處窮歡樂，方信人間有勝遊。

附挽詞【當時挽詞，必不止此，而只傳此一篇。】

挽羅尼山丈 金益成【字裕應，光山人，居州之城西。光海朝，廢科，詩酒自娛。】

人也生前貴，公惟死後榮。
謝家雙壁賤，荀戶八龍輕。
地閉詩書秩，天慳禮義明。
百年忠孝事，風訴白楊聲。

師友錄

履素齋李先生，諱仲虎，字風后，宗室高安正精之子，孝寧大君靖孝公補之玄孫。妣星山李氏，太宗朝左議政忠景公稷之後也。高安正竝娶焉，以正德壬申九月戊子生先生。早失怙，及長勵志，爲文章，體尙奇偉，金慕齋安國見而奇之曰：“非鬼神，不能！”受業於西峯柳處士藕，而西峯卽寒暄堂門人也。其學蓋有所淵源焉。嘗讀孟子，至人皆可以爲堯舜，遂有所悟屏棄科業，慨然有求道之志，晝誦夜思，至忘寢食，刻九容九思於竹簡，串以革帶，終身佩服，雖隆寒盛暑，整冠束帶，講論終日，剖於精微，徐花潭與之講論數日歎曰：“不可及也。”自己卯士禍以後，小學之教，爲世大禁，而先生能杜門教誨，學徒坌集，必先小學，次及近思錄，漸達諸經。論議超詣，致有聳動振作之效，銓曹薦爲教職，累辭不就。晚年病痼，將欲歸田，言官稱其行誼，仍請留洛，明廟嘉之，授六品職，不數月而歿，卽嘉靖甲寅十一月二十六日也。享年四十三。門人經紀其喪，明年正月二十五日，葬于楊州松山先塋。所著有心性情圖 性理明鑑 自警詩文數百篇。至於璿璣玉衡之制，致思輒解，手自裁造，度數不差。【見履素齋<墓誌遺事>，及朴相世采<東儒師友錄>】

鄭南峰芝衍，字衍之，東萊人，奉常寺正惟仁之子，領議政文翼公光弼之曾孫也。生于嘉靖乙酉，隆慶己巳登第，官至右議政。萬曆癸未卒，年五十九。

柳汎愛祖訥，字訥之，晉州人。西峯先生藕之子也。生于嘉靖癸巳，少無賴，後折節，爲學游履素齋門，志業兼人，尤以知禮各與鄭南峯芝衍 朴退菴應男 崔 月潭混爲莫逆交。萬曆癸未，南峯以右相薦公，有忠孝大節，可將三軍，始出仕。壬辰倭亂，車駕西幸，公適家食徒步追，至居二年。金斗巖應南，以冢宰白公忠節，陞階通政，拜戶曹參議。己亥卒，年六十七。【見東儒師友錄】

洪溶，南陽人，判官弼世之子，工曹判書益原君景霖之孫也。官至掌隸院司議。

鄭惟慎，東萊人，敦寧府正益謙之子，參奉摛謙之繼子，文翼公光弼之孫。官至清風郡守。

按李芝峯睟光類說曰：“履素齋當己卯士禍之後，以師道爲己任，摳衣受業者，日數百人。”云云，則當時踵門請益之士，若是其多矣，而同門人中，吾先祖所與之最相推許者，只是南峯 汎愛 及洪公 鄭公四人，故抄錄如右。玄孫斗冬謹書。





호남 선현문집 국역총서 6 『**금성삼고**』

나덕명(羅德明), 나덕준(羅德峻), 나덕윤(羅德潤), 나사침(羅士忱) 지음

인쇄 2021. 2. 14

발행 2021. 2. 19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주소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연락처 tel. 062)603. 9600 fax. 062)941. 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저자 나덕명(羅德明), 나덕준(羅德峻), 나덕윤(羅德潤), 나사침(羅士忱)

역자 강동석 - 전주대학교 연구교수

임하나 -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수료

조화이 - 성심여자대학교 한문과 석사

편집·제작 (주)나무와달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37번길 8, 201호

tel. 062)529. 9179 fax. 062)529. 9178

<비매품/별매>

ISBN 979-11-90608-07-7 93910

본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호남한국학진흥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